

**한중수교 30주년 기념  
제50회 한중인문학회 국제학술대회**

**한중수교 30주년의  
회고와 전망**

- ◇ 일시 : 2022.12.17. 토요일 09:30-18:20
- ◇ 장소 :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외국어대학관
- ◇ 주최 : 한중인문학회 · 경희대학교 공자학원  
· 경희대학교 현대문학연구소

**한중인문학회**



# 개 회 사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간 학회를 위해 애써주신 여러분들의 노력에 힘입어 한중인문학회 학술대회가 이번으로 꼭 50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간 학회를 이끌어주셨던 전임 회장님과 임원진들, 실무진들과 더불어 열성적으로 참여해주신 모든 회원 분들께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기까지 여러 도움을 주신 원로 교수님들과, 개최에 필요한 여러 실무적인 준비 작업들을 감당해주신 현재의 임원진, 실무진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학술대회를 위해 개최 장소 제공과 더불어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보태주신 경희대학교 총장님과 공자학원의 배재석 원장님, 저희 학회의 편집위원장이 시기도 한 경희대 한국어학과의 이선이 교수님, 그리고 오늘 안내 및 진행을 위해 수고해준 경희대 대학원생들께도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회원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도움으로 저희 학회는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게 된 올해, 뜻깊은 학술대회의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경희대학교 사학과의 신용철 명예교수님께서 한중 수교 30년을 회고하며 '역사와 유교 논쟁'이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맡아주셨으며, 이와 함께 연변대학교의 김호웅 명예교수님께서 학회의 초창기 기틀을 잡아주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셨던 고려대학교 김준엽 총장님을 회고하며 '우리시대의 마지막 선비'라는 제목의 기조 강연을 맡아주셨습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흔쾌히 기조 강연을 수락해주신 두 분께 학회를 대신하여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주제 발표를 맡아주신 산동대의 리위 선생님, 고려대의 박려정 선생님, 연세대의 전은주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발표, 토론자 및 참가자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와 함께 오늘 이 자리에 연변대 김호웅 교수님을 대신하여 참가해주신 배홍 박사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번 학술대회를 개최하기까지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간 온라인으로 학술대회를 치러온 기간이 길기에 이번만큼은 전면 대면으로 대회를 치러야 한다는 요청이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반 여건상 중국에서의 직접 참가가 여의치 못한 경우가 있었고 대규모 대면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을 경우의 위험 부담도 어느 정도는 감안해야 했기에, 고심 끝에 ZOOM을 이용한 원거리 발표와 토론을 병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두 가지 방식을 조합하여 학술대회를 여는 새로운 시도인 만큼 준비와 진행 과정에서 미처 예상치 못한 어려움도 있을 수 있으리라 짐작됩니다. 철저하게 사전 점검을 하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고는 하나, 만에 하나 혹시 진행 과정상 실수가 발생하더라도 너그럽게 봐주시기를 미리 부탁드립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한중인문학회는 한국과 중국 양국 회원 여러분들의 참여와 노력에 힘입어 양국이 수교를 맺은 지난 30년간 비약적인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한중 양국에서 인문학 관련 분야 학자와 연구자들의 중심적인 학술 거점으로 그 권위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이 지속되는 한 앞으로도 저희 학회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를 가지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고 기쁘게 생각하면서, 이번 제50회 국제학술대회가 저희 학회에 또 한 차례 도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17일  
한중인문학회장 김유중 올림



## 공 지 사 항

제 50회 한중인문학회 국제 학술대회는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에서 진행되며,  
온라인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도록 증계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술대회 장소 안내]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외국어대학

기획발표 및 자유발표 세션 1 : 외국어대학 305호

주제발표 및 자유발표 세션 2 : 외국어대학 306호

자유발표 세션 3 : 외국어대학 308호

[학술대회 온라인 회의실 접속주소]

기획발표 및 자유발표 세션 1 : 회의 ID: 943 5269 8904

<https://snu-ac-kr.zoom.us/j/94352698904>

주제발표 및 자유발표 세션 2 : 회의 ID: 865 1265 4228

<https://khu-ac.zoom.us/j/86512654228>

자유발표 세션 3 : 회의 ID: 853 2174 2880

<https://khu-ac.zoom.us/j/85321742880>

[학회 참여 안내] 학회 **현장** 참가비 1만원

[학회 가입 안내]

가입비 3만원, 연회비 3만원(신한은행, 100-029-987203, 한중인문학회)

\*학회 현장에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정기 총회 일정]

1) 회계 및 감사보고

2) 연구윤리교육 - 윤리위원장 유성선 교수님

위의 주요 안건과 더불어 2022년 정기 총회가 개최됩니다.

공지 내용은 한중인문학회 홈페이지(kochih.kr)에서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총무/학술대회 담당 총무이사 : 김형규 (likeanax@ajou.ac.kr)

\*총무/학술대회 담당 간사 : 전세진(jeonsejin@snu.ac.kr)

# 한중수교 30주년 기념 제 50회 한중인문학회 국제 학술대회

## <한중수교 30주년의 회고와 전망>

일시 : 2022.12.17. 토요일 09:30 - 18:15

장소 :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외국어대학관

주최 : 한중인문학회·경희대학교 공자학원·경희대학교 현대문학연구소

### ■ 자유 발표(09:40~12:40) ■

시간	일정 및 발표주제	사회 및 발표/토론	
09:40-10:00	학회 참가 등록		
10:00-10:35	중국어 교육에서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 사례 연구-개인 맞춤형 교육을 중심으로-	발표 이서이 한용수* (동국대) 토론 전 공*(국민대)	진잉지 Jin Yingji (조지 메이슨대)
10:35-11:10	한중 반기대 표지 '하필'과 '偏偏'의 양태의미 대조 연구 (韩汉语反预期标记“하필”与“偏偏”的情态语义对比研究)	발표 단청총* (중국 상해외대) 토론 증 무 (경희대 공자학원)	
11:10-11:45	중국 조선어의 어휘 규범화 사업에 대한 소고	발표 유환일(성균관대) 토론 최려홍(연세대)	
11:45-12:30	중화권 한국어 학습자의 자기조절학습 동기와 전략 -유튜브의 한국어 공부법 소개 영상을 중심으로-	발표 최지영(이화여대) 토론 페브리아니 (인도네시아 가마마다 대 Gadjah Mada)	
10:00-10:35	『순언』의 유교과 도교의 철학실천적 경계 연구	발표 유성선 김태희 (강원대) 토론 황정희(강원대)	임경순 (한국외대)
10:35-11:10	송미령과 기독교 신앙	발표 권태경*(충신대) 토론 문태순*(백석대)	
11:10-11:45	임희재 <초설>의 전과 후, 그 시나리오적 의미	발표 오영미(한국교통대) 토론 이주영(고려대)	
11:45-12:30	1945-1950년 공산체제 형성기 영동지역의 교육과 인민 만들기 -속초, 양양지역을 중심으로	발표 이세진(호서대) 토론 허대영(서울대)	
10:00-10:40	<불교>지에 나타난 한용운의 세계인식	발표 지여정(경희대) 토론 광명숙(아주대)	차희정 (경찰대)
10:40-11:20	청조 여성 시인들의 제벽시와 연행 시인들	발표 이학당*(중국 산둥대) 토론 최연*(중국 루동대)	
11:20-12:00	여성 주체의 욕망과 홀로서기의 (불)가능성 -1960년대 여성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발표 최언희(경희대) 토론 김지윤(단국대)	
12:00-12:40	90년대 한·중 여성 서사의 주체성 연구	발표 권리나(서울대) 토론 고유림(경희대)	

\*표시 = Zoom 발표자

■ 개회식 및 기조 발제(14:00~15:30) ■

시간	일정 및 발표주제		사회 및 발표/토론	
14:00-14:20	개회식	개회사	김유중(학회장, 서울대)	윤의섭 (대전대)
	305호	환영사	배재석(공자학원 원장)	
14:20-14:55	기조 발제	한중수교 30년 - 역사와 유교 논쟁-	신용철(경희대 명예교수)	
14:55-15:30	305호	우리 시대의 마지막 선비 - 김준엽 선생	김호웅*(중국 연변대학교)	

■ 기획/주제 발표(15:40~17:25) ■

시간	일정 및 발표주제		사회 및 발표/토론		
15:40-16:15	기획 발표	한국 내 한중현대문학 비교연구의 현황과 과제	발표 이선이(경희대) 토론 조하연(아주대)	이은희 (한성대)	
16:15-16:50		305호	중국에서의 한국철학 연구 현황과 미래 전망		발표 신현승*(중국 정강산대) 토론 김 준*(일본 동아대)
15:40-16:15	주제 발표	상상과 재현: 김훈과 아성(阿成)의 소설에 나타난 안중근의 인물형상 비교 연구 - 『하얼빈』과 <안중근,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다>를 중심으로	발표 리위*(중국 산둥대) 토론 차용(서울대)	김진규 (가천대)	
16:15-16:50		306호	데이터 시각화로 들여다보는 한중교류 30년:한중 양국 지방정부 간 국제교류 현황을 기반으로		발표 박려정(고려대) 토론 박성일(한국체대)
16:50-17:25			재한조선족 시치료 프로그램의 가능성 탐색을 위한 試論		발표 전은주(연세대) 토론 이미옥(서울대)

■ 종합토론 및 정기총회 ■

시간	일정 및 발표주제	사회
17:30-18:00	[종합토론]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외국어대학 305호	정래필 (영남대)
18:00-18:20	폐회식 및 2022년 정기총회 (장소 동일)	김형규 (아주대)





## 기조 발제

시간	일정 및 발표주제		사회 및 발표/토론	
14:20-14:55	기조 발제  305호	한중수교 30년 - 역사와 유교 논쟁-	신용철 (경희대 명예교수)	윤의섭 (대전대)
14:55-15:30		우리 시대의 마지막 선비 - 김준엽 선생	김호웅* (중국 연변대학교)	

\*=Zoom 참여



# 한 중 수교 30주년의 회고와 전망

- 역사와 세기의 논쟁 유교를 생각한다. -

신 용 철 (경희대 명예교수, 사학)

## 목 차

### 서 론

- I. 국제화시대의 중국과 한국
- II. 한중 수교 30주년의 역사적 회고
  - 1. 큰 기대와 차이의 확인
  - 2. 중국의 역사 서술과 한국의 역사학
- III. 동아시아 세기의 논쟁, 유학
  - 1. 근 현대중국의 유교비판
  - 2. 전형적 유교국가 한 반도
- III. 나의 이탁오 연구 반세기

### 결 론

-

=====

### 서 론

우리의 역사에서 지리적으로나 정치적 문화적으로 가장 밀접하고 중요한 중국과의 관계가 1세기만에 복원 된지도 금년으로 30년이 되었다. 유사 이래 계속되어 온 한중 간 교류의 긴 역사에 비하면, 1) 30년이란 결코 긴 시간은 아니다.

역사에서 중요하지 않은 시기가 없지만, 1992년 수교까지의 한 세기나 수교 후 30년의 역사처럼, 어려움과 격변의 굴절이 심했던 시기도 없었다. 긴 역사에서 오늘날의 중국 영역에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존재했다가 용광로처럼 흡수되거나 먼 지역으로 축출되었다. 그러나 아직 도 곳곳하게 독립국가로서 존재하는 한반도와 한국은 몽골 및 베트남에 비해서도 가장 깊고 특수한 관계를 갖는다. 2)

1) 陳尙勝, 『中韓交流三千年』, 문사지식문고, 중화서국 1997,

2) 기원전 110년 한 무제는 베트남에, 108년 한 반도에 한 군현을 설치했고 북방의 훈(홍노족)족을 격파

정치적으로 행정 관료조직이나 한자를 통한 교육에 이르는 문화에서 거의 중국의 모델에 익숙한 한반도의 조선 왕조는 1392년 출발했다. 치국의 이념으로 수용한 중국의 유교, 특히 신유학 (Neo Confucianism)이라고 불리는 성리학(주자학)은 조선 중기 임진왜란과 청국과의 정묘 병자호란이후 국교에 가까운 사상과 문화로 고착되어 “주자학의 나라” 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3)

지리적으로 세계의 중심인 유럽 아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서 초 대륙 중국에서 바다 건너 일본으로 향하는 다리처럼 놓인 한반도의 역사는 그의 지리적 위치처럼 항상 불안한 수난의 연속이었다. 1992년 한중 수교 에 이르는 한 세기 동안 격변하는 대륙과 해양의 각축장이었다. 대륙진출을 피하는 일본의 야욕으로 1592년 임진왜란 이래 1895년 청일전쟁, 1910년의 한반도 강점 및 중일전쟁으로부터 1950년 한국전쟁을 거쳐 오늘에 이르는 무장평화의 전시장이었다.

그런데 1945년 해방과 더불어 1948년 반도의 남부에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추구하는 유엔의 승인으로 겨우 9만 8천 여 평방 km의 작은 대한민국의 건국은 지난 수천 년의 과거와는 너무 다른 역사적 출발 이었다. 조선왕조 말, 1866년 병인양요 로 부터 1882년 미국 영국 독일 등 서양 국가들과 수교 이래 동아시아 대륙의 굴레에서 벗어나 해양과 세계로 진출하난 대전환이었다. 아울러 그로부터 여러 차례 굴절을 거치면서 82년 만에 이루어진 새 국제화의 출발이기도 했다.

사실 30년 전의 한 중 수교는 마치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 발견처럼 미지의 세계를 발견하기 보다는 헤어졌던 옛 우방을 다시 만나는 정치적, 문화적 관계의 회복이었다. 그래서 우리의 정치와 문화계에도 커다란 희망과 기대로 부풀었다. 그리고 그 후 30년 양국 관계 특히 경제와 인적 문화적 교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4)

그러나 다른 한편 후 30년 동안 우리는 이 30년에 지난 세기 동안 달라진 서로의 실상을 발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마도 오래전에 함께 살다 헤어진 정다운 이웃을 오래 만에 다시 만나서 느끼는 변화된 모습 같은 이질감도 적지 않았다. 시대가 바뀐 동안의 서로가 서로의 모습에서 문화의 차이를 발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더구나 이 한 세기 동안 서로 다른 이념과 진영에서 대치하며 3년간 전쟁으로 적대했던 관계와 상흔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한 과거 뿐 아니라 남북의 분단이란 민족 내적 고통과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은 지난 전쟁에서 맺어진 양측의 혈맹 관계로 원심력과 구심력이 서로 팽팽하게 우리를 더욱 어렵게 한다. 사드 배치문제로부터 우리의 안보와 미중간의 대립으로 야기되는 정치적 경제적 이해문제 및 고구려 발해사 등 역사에 이르는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들이 양국 관계의 미래를 매우 어렵게 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수교 30년을 맞아 양국 관계의 매우 중요한 기로에 서있다고 많은 사람들은

---

하여 유럽으로 탈출하고, 수 당과 투쟁하던 돌궐족은 패하여 유럽으로 가서 투르키에 의 기원이 되고, 세계적 대제국을 건설했던 몽골족은 오늘날 크게 약화되었으며, 청제국의 시종린 만주족은 거의 소멸되어 한족에 흡수되었다. 중국 변방에 위치하여 독립하고 있는 베트남에 비해 보다 가깝고 밀접한 한반도는 오늘날도 중국과 가장 긴밀한 정치적 문화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3) Odd Arne Westad, "Righteous", Empire and Righteous Nation, 22-27.

우구라 기초, 조성환역, 『한국은 하나의 철학이다.』, 도설출판 모시는 사람들, 2018.

박정훈, 「주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조선일보, 2022. 10월.

4) 한중 양국의 교역의 규모가 3000억 불로서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으로 과거의 일본과 미국을 크게 능가하였다. 특히 인적 교류도 크게 증가하여 1천만 명 시대를 열어 한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나라가 되었다. 서진영, 「전환기의 한중관계」 21세기 평화연구소, 『한중 수교 30년』, 화정평화재단 (동아일보사 부설), 2022. 12-14면.

우려한다. 그러나 필자는 다만 문화적인 측면에서 그의 역사적 의미와 조선 왕조이래 사상과 학문 교육과 윤리의 기본인 유학에 관해서 고찰하려고 한다.

특히 20세기의 동아시아 국가의 중요한 논제이었던 유교논쟁의 추이를 한국과 중국을 비교 고찰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16세기 중국의 유교를 비판한 명대의 진보적 사상가 이탁오(李卓吾, 1572-1602)에 대한 연구사를 통해 이 혁명 시대의 한중간의 사상문화의 실상을 살펴볼 것이다.

즉 한 중 양국에서 봉건왕조시대의 평가로부터 서구문화의 수용 및 개방을 통한 국제화와 혁명의 격변한 시대 사상사로서 유학을 고찰해보려고 한다. 그리고 안정과 중흥을 찾아가는 한 중 양국의 이탁오를 포함한 유교평가에도 관심을 갖는다. 한 중 양국의 가장 중요한 전통적 공유로서의 유교는 매우 유익하고 바람직한 미래문화의 의 한 표준적 모델이 될 수도 있으리라 생각한다.

-----

## I. 국제화시대의 중국과 한국

### 1. 19 세기 말, 국제화시대의 한 중 관계

#### 1) 동아시아의 국제화시대의 조선왕조

1842년 중국의 청 왕조가 아편전쟁으로 영국에 패하고 서구의 국가들과 교류하면서 종전의 쇠국에서 개방과 국제화 시대로 돌입하였다. 이 시기 유럽 아시아 대륙의 동쪽 맨 끝의 쇠국을 고집하던 조선왕국도 역시 이 국제화의 물결 속에서 변화하기 시작했다. 5)

문화와 사상적으로 조선 왕조의 관학이던 유교에 도전하는 천주교가 이미 조선의 중기 이래 유입되어 하층인 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1866년 프랑스에 의한 병인양요와 1871년 미국의 신미양요와 1876년 일본과의 강화도 조약 및 1882년 이래 서구의 정치적 문화적인 영향이 급속히 강화되기 시작했다,

이 시기 경기도 북부에서 일어나 척사위정(斥邪衛正)을 주장하는 19세기 이항로(李恒老)의 화서학파는 사상적으로 서구문화에 대한 자각과 항거이었으며 척화비를 세우며 항전한 대원군의 쇄국정책으로 이끌었다. 6)

그 후의 동학운동 역시 이 시기 서구문화에 대응과 3.1 운동 까지 영향을 주며, 그 후의 동학은 천도교로 오늘날 남북의 우리의 민족종교로서 성장하였다. 하지만 유학자 김창숙의 말처럼, 유학은 3.1 운동이나 독립운동에서 조선 시대처럼 사상이나 정치의 주도적 역할은 하지 못하였다.

1901년 조선의 인천 제물포에서 금강산 까지를 여행한 독일 지리학자이며 기자인 지그프리트 겐테 (G.Genthe)의

“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중국과 일본 사이에 다리처럼 놓인 작은 나라 코리아가 철저하게 외국인을 배척하면서 거대하고 강력한 이웃 나라 보다도 혼자 더 잘 버티어 오면서 오랫동안 그의 특성을 지켜왔다”7)

---

5) Westad, Odd Anne, Empire and Righteous Nation, The Belknap of Harvard University Press, 2021.

6) 금장태, 『 화서학파의 철학과 시대의식』, 태학사, 2001.

7) 지그프리트 겐테, 「코리아를 향해」, 『겐테의 한국기행』 최석희 옮김, 대구효성카톨릭대학교 출판부 .1999. 10면.

는 조선에 대한 인식은 정확하고 의미 있는 평가이었다.

## 2) 중국 영향력의 감소와 일본의 한반도와 대륙진출

이 시기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대 변화는 전통적인 중국 의존도에서 서구의 문화를 보다 일찍 수용한 일본의 급속한 진출이었다. 1876년 일본과의 강화도조약, 1895년 청일전쟁과 1910년 일본의 한반도 강점으로부터 국가적인 공적 차원에서 우리는 중국과 대치되는 역사상 초유의 사태이었다. 이러한 시대적 사태는 1945년의 한반도의 해방과 분단, 그리고 1950년부터 3년간이나 계속된 6.25 전쟁으로 대한민국은 중국과 적대하여 전쟁 후에도 동서진영의 대립으로 결국 1992년에 와서야 한 세기만에 한중의 수교가 가능해진 것이다.

## 3) 역사적인 1992년의 한 중 수교

중국학자가 송성유(宋成有)는 1945년 후 한중 수교까지 50년의 역사를

“대항하며 완화하고, 완화를 통해 교류하고, 적에서 우방이 되는 과정을 겪었다 (化敵爲友) 8)

고 회고한 것처럼, 참으로 역사상 어느 시대보다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시대이었다. 청일전쟁 50년 후, 일본이 물러가고 한반도는 역사상 처음으로 중국의 관여 없이 서양 세력에 의해 분단되었다.

그리고 10년 후, 중국은 유엔이 참전하는 국제화한 전쟁에 참여하여 또 다시 한반도의 문제에 깊숙이 관계하게 되었다. 3년의 참전 후, 반도 남쪽의 대한민국과는 적대국으로 대치하다가 1992년 수교함으로써 역사에서처럼 우방으로서 역사를 시작한 것이니 얼마나 파란과 굴곡의 역정이었는가? 사실 1992년은 임진왜란으로부터 400년 후이고, 청일전쟁 후 거의 100년이 되는 해이었다.

## 2. 한중 수교 30주년의 역사적 회고

### 1) 흥분 속 기대, 폭증한 경제적 인적 교류

한중 수교 30년이 되는 동안 양국 관계는 지리적인 이웃과 경제적인 보완관계, 문화적인 전통성으로 급속하게 발전하였다. 이 기간 한국의 GDP는 5.1 배, 중국은 35.5배 증가하였다. 특히 교역의 규모가 3000억 불로서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으로 과거의 일본과 미국을 크게 능가하였다. 특히 인적 교류도 크게 증가하여 1천만 명 시대를 열어 한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나라가 되었다.

특히 두 나라는 수교당시의 선린우호 협력 관계에서 1998년 ‘21세기를 향한 협력동반자 관계’, 2003년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 2008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2017년 ‘실천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다. 이러한 과정은 경제 사회, 문화, 정치적인 각 분야에서 두 나라의 관계가 폭발적으로 크게 확장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9)

8) 宋成有外, 「緒言 - 中韓兩國化敵爲友的50年歷史回顧- 」, 『中韓關係史』(社會科學文獻出版社 1997.), 1면.

9) 이강국, 『한중 수교 30년,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글 마당, & 아이디얼 북스, 2022.6. 서진영, 「전환기의 한중관계」 21세기 평화연구소, 『한중 수교 30년』, 화정편화재단 (동아일보사 부설), 2022. 12-14면.

## 2) 달라진 체제 와 이념 및 문화의 이질감 확인

그러나 1992년 한중의 수교가 이전의 역사와 크게 달라진 것은 우리가 남북으로 대처하여 양 진영의 반대편에서 중국과 선다는 것이며, 또 정치적 이념이나 체제가 상이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유례없이 어렵고 복잡한 한중간의 수교는 실로 우리 모두의 환호와 기대 속에서 지난 날의 우방으로 복귀한 것이다. 유교를 중심으로 한 중국문화에 대한 향수로 특히 기성세대들은 물론 가장 큰 이웃나라와의 경제 교류란 측면에서도 환영의 중요한 역사가 다시 시작 되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수교 30년을 맞으면서 생각하지 못한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 한 세기 달라진 환경에서 지나온 역사와 현실의 차이를 발견하며 세대 간의 중국이해가 크게 다른 것은 당연하지만, 10) 2016년 우리 정부의 사드 (THAAD)배치문제, 2,000년의 마늘파동, 2,003년의 동북공정, 2022년의 고구려 발해사에 대한 역사왜곡 등으로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의 대결로 양자택일의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이는 정치와 역사학이나 문화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슬기롭게 대응해야할 힘겨운 도전이 되고 있다. 11)

## 2. 중국의 역사 서술과 우리의 역사학

### 1) 중국의 방대한 역사서술

사실 인류사에서 중국만큼 역사에 관심이 많은 민족도 없다. 부단한 세사의 변화를 역사와 문화체로 보아서 거의 종교적인 경지에서 궁극적인 심판자로 생각하며 관찬의 정사와 야사등에서 세계의 가장 많은 역사서를 저술했다고 서양 학자들도 인식한다. 따라서 미래신앙이 없는 유교사회에서 역사는 종교의 경지에 이르는 정치 문화의 심판자이고 문화와 사사상을 이해하는 지름길이다.

물론 이렇게 정부가 주관하는 역사가 아닌 개인적 사서도 매우 많아서 그의 분량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이러한 엄청난 중국의 역사 서술에 대해서 고병익 교수는 이를 통틀어, 비 매력적인 사서이고, 포폄(褒貶)을 주로 했으며, 독서인의 교양서와 관리의 참고서로 삼았고, 논리의 대신 선례(先例)를 중시했으므로 그 많은 역사자료들은 요리를 기다리는 자료와 같다고 했다.12)

한편 중국의 역사인 25사와 기타 사서들이 거의 같은 체제와 내용의 도식적으로 반복된데

---

10) 한학에 익숙 능통한 세대들은 현대이전의 중국에 대한 이해는 밝지만, 현대 사회주의 중국에 대한 이해는 부족하고, 서구문화에 익숙한 젊은 세대들은 지난 긴 역사 속에서 중국과 공유한 문화에 대해 역시 이해가 부족하다.

11) 「수교 30주년, 한중관계를 다시 생각한다.」 2022/8. 187-253.

유민호 「프랑켄슈타인이 민주주의 문명을 지배할 수 없다.」

이강호, 「복중처럼 종복과 종중도 혈맹이다.」

윤석준, 「최강 북부 전구 급변사태 대비 훈련실시」

이문원, 「 BTS 등 한류 한한령 이후 대중 의존 끊으면서 세계로 도약」

황효순, 「중국의 압력에 원칙있게 대응한 호주를 통해 배워야」

12) 고병익, 「중국인의 역사관」, 『중국인의 역사인식』상 창작과 비평, 1985, 41-51면.

대해 이해가 어려운데다가 역사 철학의 결핍을 들어 고 되풀이 같다고 생각한 유럽의 역사가들은 유교의 역사서술을 보며 역사 철학자 헤겔(1770-1831)은 중국역사를, " 그 스스로 아무런 발전을 하지 못했다" 고 평가했고, 사학자 랑케(1795-1886)은 " 영원히 정체된 민족" 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중국의 역사가 그를 가리었던 유교의 베일을 벗어나자 갑자기 전 세계에 유례없는 무려 3천년의 연속된 발전의 풍부함과 다양함을 보여주었다. 13)

## 2.) 근 현대 혁명시기 중국의 마르크스주의의 수용

세계에서 가장 많고 일관된 역사서를 가지고 있는 중국은 1949년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면서 역사 서술과 역사 해석 등에도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되었다. 즉, 그들은 보편적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모택동 사상을 중심으로 역사를 해석하고 서술하기 시작했다. 이를 가리켜 모택동은,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보편적 원리로 하고 중국의 구체적 현실을 결합한다고 말했다.

고대로부터 중국은 종교성이 약한 문화권으로 단 한 차례 외래 종교인 불교가 들어와 민중의 신앙이 되었을 뿐, 이슬람교나 그리스도교는 뿌리를 내리기 힘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세기에는 종교보다 이념인 마르크스주의가 들어와 역시 신앙보다는 정치적 지도이념으로 전 중국을 압도한 것은 놀라운 일이다.

종래의 관학인 유교는 청 말 이래 쇠미하기 시작하고, 1949년부터 1954년 사이여 사회적 기능을 잃어가고 서양의 민주주의나 자유 및 마르크스주의 수용하여 역사학의 커다란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 방대한 사료나 역사서술들은 체계를 갑자기 바꿀 수도 없고 또 그를 수행할 학자들도 없었기 때문에 혼란에 빠졌다. 직접 역사를 논하지 않았지만, 郭沫若의 『마르크스 공자를 방문하다(馬克思進文廟』 콩트나 모택동의 시 심원춘(沁園春)<sup>14)</sup>은 흥미로운 영웅담의 역사적식이기도 하며. 아울러 중국 전통과 마르크스주의 사상의 미래를 생각하게 해 준다. 어쨌든 사회주의 중국의 초기의 역사에 있어서는 역사학은 매우 혼란했다고 하겠다.

## 3. 중국의 역사서술과 한국의 역사학

유사 이래 우리의 전통왕조시대 역사 서술은 거의 중국을 따랐다. 즉, 사마천의 『사기』로부터 25사의 편제 및 특히 『자치통감』의 체제가 그의 모범이었다. 조선 후기 실학 시대에 다소 우리의 독자적인 역사서술을 시도했다 해도 크게 변화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서양과 일본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는 과거의 역사 서술과 일본식에 의한 역사서술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런데,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마르크스주의 사관에 의한 중국 역사서술을 바꾸면서 큰 변화가 있었지만 아직 우리에게서 영향을 주지 못했다. 하지만, 간접적으로 사회주의 중국의 역사서술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었다. 따라서 1992년 한중수교와 이루어지면서 우리에게서 아직 금지되고 베일에 싸였던 중국 역사 서술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었다.

당시, 우리 사학계에서도 이에 대한 신비와 기대로 흥분되었지만 막상 달라진 중국의 역사

13) 볼프강 프랑케, 신용철 역 「반유교투쟁」, 『중국의 문화혁명』, 탐구당 1983. 98면.

14) 광말약,은 이 콩트에서 공자를 찾은 마르크스가 토론중 이론의 궁지에서 서둘러 돌아간다고 우습게 써서 유교와 마르크스 주의의 미래를 예단했고, 모택동 중국 고체의 시제로 역대 영웅적 군주이던 진 시황과 한 무제, 당 태종 송 태조 및 징기스칸의 문학 소양 및 시재가 부족함을 논하고 스스로의 문학과 시의 재능을 여유롭고 당당하게 자랑하고 있다. .



서술을 보면서 당황한 점도 많았다. 왜냐하면 왕조사와 정치사를 중심으로 했던 역사 서술이 마르크스주의 사관에 의해 그의 체제나 내용 및 평가들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시대 구분에 있어서 원시공사 사회와 노예제 사회 및 봉건 사회를 거쳐 자본주의 사회 및 사회주의로 가는 발전 단계나 노동자, 농민 등 민중에 의해 발전되어 온 역사의 주체는 이전의 사학과는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전통적인 역사 서술이나 또는 자본주의적 역사 서술과 아주 달라졌기 때문이다.

그의 역사 서술만으로 본다면 바람직한 내용도 있지만 우리와 달라진 사회주의 중국에 발전 방향이나 역사 주체에 대한 해석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는 단순한 역사뿐만 아니라 사상적인 면에서도 역사와 함께 근본적인 변화의 직면하게 된 것이다. 다만 역사의 주체나 민중 사관의 경우 진보적 젊은 지식인들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관학으로서 유교의 역사관이나 역사서술에 대한 비판이 적고 특히 역사철학의 이론 및 결여를 지적 받는 중국 역사학에서 이탁오와 같은 창의적이며 비판적인 평가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자유로운 비판이 결여된 마르크스 이념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 일 것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의 이념이나 사상 및 역사학이 안고 있는 '하나의 진리만을 고집하면 올바른 길 즉 도를 해친다'는, 맹자의 '執一害道'<sup>15)</sup> 즉 사상의 다양성은 매우 중요하나 이 혁명의 시기를 지나며 다시 계속 강화되는 듯 하다.

## II. 20세기 동아시아의 유교 논쟁

### 1. 근 현대 중국의 유교 논쟁과 비판

#### 1) 청 말 민국 초의 유교비판

청 말의 유교비판은 1850년 태평천국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서양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던 홍수전(洪秀全)이 공자의 위패를 불사르는데 분개한 청조 말 전통적 유학사상을 옹호한 증국번(曾國藩, 1811-1872)의 반격은 아직 전통문화를 고수하는 중국인으로 하여금 이 운동을 좌절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전통적 유교를 중시하는 학자들은 무너져가는 담장을 수리하는 심정으로 공자를 서양의 크리스트 교처럼 신으로 숭배하고, 서력처럼 기원을 쓰자며 1912년에 상해에서 공자회를 창설하였다. 즉 유교를 국가 종교로 선언한 것이었다. 그의 대표적 인물은 강유위의 제자인 진환장(陳煥章, 1881-?) 이었다.

그런데 1911년 중화민국이 수립되고 북경대학을 중심으로 1910년대 중반부터 격렬한 유교 비판이 지식사회에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당시 북경대학 교수이던 진독수(陳獨秀)를 비롯하여 미국에 유학한 호적(胡適)이나 문인 노신(魯迅)등이 모두 유학을 비판하였는데 특히 일본에서 법학을 전공한 사천성의 오우(吳虞)가 가장 격렬하였다.

열정적 민족주의자로서 계몽잡지 『신청년(新青年)』 발간하여 신사상을 고취시키고 뒤에 공산당을 창당하여 서기장인 된 진독수는 공자교와 헌법은 양립할 수 없다고 공자의 절대적 지위를 부정했다.<sup>16)</sup> 특히 오우는 중국의 전통적 예법을 가리켜, “사람잡아먹는 것과 예교(吃人與禮教)”<sup>17)</sup>와孝는 “중국을 순종의 공장으로 만들었다”<sup>18)</sup>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15) 이지, 「맹가」, 『장서』 3 책, 519면.

16) 진독수, 「孔教與憲法」 『獨秀文存』 상 111-112. 면

17) 오우, 「吃人與禮教」 『吳虞文錄』 상 63-72. 상해 아동도서관, 1921.

그는 특히 명 대 말 격렬한 유교 비판자이었던 이탁오를 16세기의 역사에서 불러내어 『이탁오별전』<sup>19)</sup> 을 『신청년』에 소개하며 유교비판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에 오우의 저서인 『오우문록(吳虞文錄)』의 서문에서 호적은, 오우를 “ 사천성에서 맨손으로 공가점을 타도하려던 (四川省隻手打倒孔家店”의 사천성 노영웅<sup>20)</sup>이라고 높이 평가하였다. 당시 일본에서 수학한 문인 노신(魯迅)도 공자교를 비판하여 오우의 “사람잡아먹는 예교”의 비판을 공유하며 『아Q정전』과 「공을기(孔乙己)」등 공자의 지존 절대성을 예리하게 비판하였다. 이는 사회주의 중국이 전 근대에 서양의 사상적 영향을 받으면서 가장 광범하게 유가를 비판한 최초의 본격적이며 학술적인 역사적 논쟁이며 문화적 운동이기도 했다. <sup>21)</sup>

한편 서양 학자들도 이처럼 도식적이고 도덕적인 유교의 역사서술을 보며 역사 철학자 헤겔(1770-1831)은 중국역사를, " 그 스스로 아무런 발전을 하지 못했다" 고 평가했고, 사학자 랑케(1795-1886)는 " 영원히 정체된 민족" 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중국의 역사가 그를 가리웠던 유교의 베일을 벗어나자 갑자기 전 세계에 유례없는 무려 3천년의 연속된 발전의 풍부함과 다양함을 보여주었다. <sup>22)</sup>

## 2. 사회주의 중국의 유교 비판

국민당과 공산당의 내전과 세계 2차 대전을 거치면서 1949년 사회주의 중국에서 유교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없었다. 앞서 본 민국 초 5.4 신문화운동 시기의 유교 비판은 상당한 학문적인 기반을 가진 비판적이었다면, 사회주의 중국의 유교 비판은 '마르크스주의'의 서양 사상의 영향으로 정치적이며 대중적이었다. 특히, 중국의 전통적 문화를 혁명적으로 바꾼 문화대혁명은 유교를 포함한 중국의 유교중심의 지식 세계를 크게 변화시킨 것이다.

특히 그들은 유교는 당연히 유심주의로서 배척에 대상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옛 것을 현재를 위하여 써야하며 옛 것을 박약하게 하고 현재를 후하게 해야 한다(厚今薄古 古爲今用)<sup>23)</sup>"는 것이 강조되었다.

특히, 문화대혁명 말기에 비림비공시기에는 역사상 가장 격렬한 대중운동으로 유교비판 운동이 일어났다. 그런데 1973년 9월부터 1974년 12월까지 중국에서는 비림비공운동(批林批孔運動)으로 유교비판이 고조되던 시기이었다. 비림비공이란 정치적으로 실각한 국방부장 임표(林彪)와 그가 존경한 공자를 함께 비판하는 희귀한 유교적 정치비판의 대중운동의 시기이었다. 이 문제는 뒤의 「나의 이탁오 연구 반세기」에서 보다 상세히 고찰할 것이다.

## 3) 문화대혁명 이후 중국의 유교

1984년 9월 공자기금회가 성립되고 1987년 『공자연구』가 간행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89년 10월에는 북경과 곡부에서 공자 탄신 2540주년을 기념하는 '공자문화철학술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는 모택동이 주장하던 "반대를 하는 것이 이치에 잘 맞는다. (造反有理)" 보다는 "실사구시(實事求是)"가 더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뜻이다.

그래서 『인민일보』도 1989년 10월 11일, "공자는 중국 고대의 위대한 사상가로 그의 사상은 우리의 진귀한 문화유산"이라고 찬양하고 'Newsweek'도 표지에 공자 상을 실고 '그 자신

18) 오우, 「說孝」 위의 책, 14-23면.

19) 오우, 위의 책, 하, 110-151 면.

20) 호적, 위의 책, 상, 7면.

21) 볼프강 프랑케 저 신용철 역, 『중국의 문화혁명』, 탐구당, 1983.

22) 볼프강 프랑케, 신용철 역 「반유교투쟁」, 『중국의 문화혁명』, 탐구당 1983. 98면.

23) 신용철, 위의 책, 240면.

에 항거하는 중국'(China Against Itself) 24) 고 썼다.

그 후의 사회주의 중국도 정치적 안정과 경제성장으로 역사속의 위대한 중국을 표방하면서 공자와 그의 문화유산을 다시 중요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중요한 시도가 바로 전 세계에 공자학원의 신설이었다. 독일의 '괴테 학원( Goethe Institut)처럼 공자학원을 설치하여 중국어와 중국문화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려는 적극적인 문화정책이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학이나 중요 도시에 23곳의 공자학우원이 설치되었다.

시진핑의 측근인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장 이수레이 (李書磊)는 전통이 없을 때 인륜의 위기를 맞는다며,

“어릴 때부터 공자를 비난했고, 80년대 까지도, 5.4 신문화운동의 반 전통적 입장을 떠벌렸다. 하지만 혼란 속에서 우리가 의탁할 것은 결국 전통이었다.” 25)

고 유교의 전통을 강조한 것은 ,

“나는 어려서부터 성인의 가르침을 읽어도 그 성인의 가르침을 알지 못했고, 공자를 존경했지만, 왜 공자를 존경해야하는지를 알지 못하면서, 이른바 난쟁이가 경기를 구경하며 다른 사람들을 따라 함께 어울려 소리 질렀을 뿐 이었다.” 26)

고 한 이탁오의 말과 거꾸로 가는 시대적 상황을 느끼며 흥미롭다 사실 2021년 『한국사학사학보』 제 43 호에 실린 「나의 역사연구」중 나의 저서, 『공자의 나라 중국을 뒤흔든 자유인 이탁오』에 대해 정구복 교수는 서평에서,

“현 중국에서 이탁오 사상의 실현에 대한 서술이 없어 아쉽다.” 27)고 했다. 이것은 사회주의 중국이 마르크스 레닌주의와를 수용하면서 서서히 벗어나던 중국의 유학이나 역사가 또 다시 독단적 교의로 새로운 사상적 속박을 되풀이할 것인지 의문을 표한 것이다.

## 2. 동아시아의 전형적 유교국가로 평가되는 한반도 10-

### 1) 동아시아의 유교국가 한국

오늘날 한국에서 스스로를 유교인 또는 유교신자 라고 인정할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서양인들이나 심지어 중국인들도 한국을 전형적인 유교국가라고 하는데 대해 놀란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특히 북한의 정치체제에 대해서도 사회주의 국가보다는 가부장적 유교 사상의 전통을 지적하는 학자도 있다.

특히 조선의 주자학이 한국 사상과 문화의 중심적 주류이었음을 우리는 잘 안다. 수도 한양의 4대문의 명칭인 인. 의. 예. 지. 신.(仁義禮智信)으로부터 ‘태극기’와 ‘동방예의지국’이나 ‘소중화(小中華)’가 모두 유교적인 사상과 문화의 한 측면이다.

이것은 특별히 공자를 존경하고 그의 학설을 신봉한다든가 그의 철학을 깊이 이해해서라기 보다는 우리의 문화와 전통적 생활습관이나 태도 등에서 외국인들은 그렇게 느끼는 듯하다. 사실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에서 유학 내지 유교는 중국과 조선 일본과 베트남에서 중요한 정치이념이며 사상이고 학문이고 윤리이었기 때문이다. 일찍이 현상윤(玄相允)은 그의 『조선유학사』에서,

“조선 왕조가 유학을 존중한 노력과 정성이 지극하여 제도와 문물, 정치의 이상과 규범, 사회생활의 양식, 국민사상의 지도 이념 등이 모두 유교를 기초로 한다.” 28)

24) Newsweek, 1989.10.23.

25) 박수찬, 「중(국)의 내일, 리수레이를 보라」 『조선일보』, 2022. 11.8.

26) 李贄, “余自幼讀聖教不知聖教, 尊孔子不自孔夫子何知可尊”, 「聖教小引」, 『續焚書』, 66면.

27) 정구복, 「신용철의 자유인 이탁오」 2021. 블로그 .

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그의 폐단으로서, 문벌 즉 양반, 당쟁, 문약, 빈궁을 비롯하여 나라의 주인이 없고, 주인이 있어도 국민이 없다고 신랄하게 비판한바 있다. 29) 동 시대의 대 유학자 정인보(鄭寅普)도 그의 『양명학 연론』에서,

“...그러므로 수백 년 조선인의 실심 실행은 학문 영역 이외에 구차스럽게 간간 잔존하였을 뿐이요, 온 세상에 가득 찬 것은 오직 가행(假行)이며 허학(虛學)이라 ” 30)

라며 양명학의 입장에서 주자학을 예리하게 비판하였다. 한편 일본의 한국 유교를 연구하는 학자 오구라 기조는,

“주자학은 책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전체가 주자학이었다. 한국인의 일 거수 일 투족이 주자학이었다.” 31)

고 매우 예리하게 지적하였다. 우리 현대문학의 선구자인 이광수(李光洙)도 1918년 『매일신보』에 연재했던 장문의 『신생활론』에서

“ 과거 이조 5백년은 실로 유교로 시종하였다. 5백년간의 정치사, 제도사, 사상사, 문학사가 온통 유교를 중심으로 삼고 회전하였나니, 조선이 성하였다 하면 그는 유교의 덕이요, 조선이 쇠하였다 하면 그 역시 유교의 책임이다. 조선의 사직과 문묘는 유교와 평행해 왔다.” 32)

고 주장하여 당시 유림으로부터 맹렬한 비판을 받았다. 이처럼 당시 일본에 유학했던 선각자들이 유교에 대해 비판을 가했지만, 조선 왕조가 끝나고서도 우리는 중국이나 일본처럼 한 번도 유교를 객관화하여 논의 비판한 적이 없었다. 이는 아마도 중국이상으로 유림(儒林)의 위세가 당당하고, 특히 일제 강점기이어서 국권의 상실이 가장 심각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또 그러한 반 유교 투쟁이 혹 항일구국의 의욕으로 일제의 탄압이 가능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물론 우리는 중국의 사상이나 제도를 뒤늦게 수용하고 나서 그를 더 심화시키거나 오래 존속시킨 전통의 역사와 함께 일제의 강점이 중국과 일본에 비해 ‘당대’로서의 유교를 덜 비판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사실 유교는 어쩌면 우리 사회에서 원시신앙인 샤머니즘 다음으로 우리 문화에 가장 뿌리 깊게 자리했는지도 모른다.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아마도 한학을 배우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공자와 맹자의 명언 몇 구절을 인용하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다.

그래서 서양의 독일 국영 방송은 한국 특집에서, 「한국은 가장 전형적인 유교국가」라며 성균관 대성전이나 정월 초하루 추석의 성묘 및 차례(茶禮) 및 엮디어 절하는 세배 등을 보도하기도 했다, “ 한국에 와 보니 한국이 중국보다 더 유교적 ” 33) 라는 한국에 와서 근무하는 중국 대사관의 여직원의 글을 읽은 적도 있다. 일본 학자 스스끼 마사유키 (鐸木昌之)는 북한의 사회주의를,

태양과 백두산, 혈맥과 지맥, 정기(精氣)등을 중시하고 고구려의 의 개국설화등과 항일 투쟁의 정신 및 특히, “유교와의 공명”을 수령제의 국제론으로 본 것 34)

28) 현상윤, 『朝鮮儒學史』, 민중서관, 1978, p. 463.

29) 위의 책, 463-464 면.

30) 정인보, 「논술의 연기」, 『陽明學演論』, 삼성문화문고 11, 1972. 11-12면.

31) 오구라 기조, 조성환 선환 역, 『한국은 하나의 철학이다』 도서 출판 모시는 사람들, 2017. p. 252.

32) 신용철, 「춘원 이광수의 유교관 시론」, 『춘원 연구학보』, 제 4호 (2011), 34 면. .

33) 위빙, 「공자도 놀랄 유교와 첨단 의 조화」, 『동아일보』, 2001.3.28.

34) 마사유키 (鐸木昌之)는 북한의 사회주의를 그의 『북조선-사회주의와 전통과의 공명(共鳴)』, 동경대학 출판회, 1992.

도 흥미롭다. 나도 중국 선양의 랴오닝 대학에서 북한 학자들과 세미나에서, 단군기원 문제로 이야기 중, 나의 유교관계의 발표에서 봉건시대의 윤리하고 강력하게 비판하던 북한 학자가 “공자 앞에서 문자를 썼군!”이라고 해서 웃었다.

한편 2002년 북한 평양 방문 중, 일요일 예배와 여행 문제로 충돌하여 호텔에 갇혔던 반나절, 목사님을 비롯한 일행이 아침 식사를 거부하고 바닥에 무릎 꿇고 손을 들어 ‘아버지 하느님’을 외치던 날, 북한 의례원(식당직원)들에게 비친 다른 아버지와 그들의 아버지, 즉 두 아버지 간의 ‘문화충돌’이란 생각을 한 적도 있었다.

급속한 서양화의 시대에 유교는 옛 이야기 같지만, 1999년 화서학파의 성리학적 전통과 대외의식에 대해 박사학위 논문을 썼던 학자 한 분은 화서학파의 비판을 받아 본인은 물론 대학의 총장과 지도교수 및 심사위원들이 곤욕을 치른 적도 있었다.<sup>35)</sup>

특히 20세기의 마지막 해인 1999년에도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를 저술한 김경일 교수는 유림의 맹렬한 비판과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sup>36)</sup> 특히 강화도 교동의 유림은 유교의 신문에서 그를, “인류반역자 김경일의 대역죄(大逆罪)”란 최악의 평가와 함께 그를 보도하고, 유림의 지도부는 중요일간지의 편집국장을 방문 질책하고 재임하는 대학 총장실을 찾아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최근 저명한 한 언론인의 일간지에, 「주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sup>37)</sup>는 시론에서 중화의 세계관에 빠진 주자(朱子, 1130-1200)의 후예들이 아직도 우리 사회의 길을 그릇치고 있다고 개탄하여 앞에서 본 김강일을 회상하게 하여 흥미롭다.

중국의 문화대혁명 때에도 유교비판에 대해 분개함은 물론 사실 수교이후에도 한국보다 중국이 공자 제레나 유교적 절차에 대해 우리보다 못하다고 자부하던 것을 보면서 역시 한국은 유교국가임을 실감했다. 지난날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의 저서에서 유교는 자본주의 생성할 수 없다는 학설이 20세기에 들어와 동아시아 유교 국가인 타이완과 홍콩, 싱가포르 한국 등의 경제발전에서 잘못되었다고 지적되기도 했다.

그래서 이제는 한반도의 경우, 한국이 유교적 자본주의라면 북한은 유교적 사회주의라고 하니 결국 유교는 우리 문화의 중요한 바탕이 되고 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최근 우리 정치계에서 쏟아져 나오는 여러 논란 중, 무례하다’든가, 대통령의 영국여왕의 장례의 ‘조문 절차’등을 조선시대의 ‘예법논쟁’에 비교하는데서 유교적인 분위기를 느낀다. 더구나 3대를 이어 어버이 수령을 신처럼 경배하고 백두의 혈통의 가족을 찬양하는데서 어찌 유교의 현대적 한 전형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현대 중국의 문화대혁명에서 공자와 유교 비판 이후 우리가 중국보다 유교의 예법이나 절차등을 보다 많이 보존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하지만 걸 치레의 형식이 그리 중요하겠는가? 마르크스 이념과는 상관없이 민국 초의 유교 비판을 보면 우리가 오히려 유교의 형식은 많아도 변화되는 시대마다의 새로운 유학의 진수를 유지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 III. 나의 이탁오 연구 반세기

#### 1) 문화대혁명의 비림비공운동

나는 1972년 당시 서독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중국의 학위논문의 주제로 명 말의 사상이

35) 올미의병. 화서학파 명예회복대책위원회, 「오영섭 박사논문에 대한 공개질의서」, 1999년 9.13일.

36) 김경일,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바다출판사 1999.

37) 박정훈, 「주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조선일보』, 2022.9. 16. 30면.

이지(李贄, 1527-1602 )<sup>38)</sup> 에 관해 오늘날 까지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1973년 9월부터 1974년 12월까지 중국에서 격렬한 비림비공운동(批林批孔運動)이란 유교비판은 정치적으로 실각한 국방부장 임표(林彪)와 그가 존경한 공자를 함께 비판하는 유교적 정치비판의 대중운동이었다.

나는 이 시기 중국의 공산당 이론지 『홍기』나 『인민일보』나 『광명일보』등의 일간지나 『문물』과 『역사연구』등의 각종의 언론이나 문학 역사의 매체들에서 매우 달라진 신랄한 비판이나 새로운 주장에 놀라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타이완의 『중양일보』에서는 중국의 문화와 사상을 크게 훼손시킨다며 극렬하게 비판하여 양 중국의 달라진 시대의 유교 논쟁을 보며 우리나라에서 느끼지 못한 시대적 변화를 체험하였다.

『광명일보』나 『인민일보』등 일간지에도 주를 달아 역사성 논문을 써서 공격하는 봉건왕조 시대의 지성선사(至聖先師)와 만세사표(萬世師表)로서 공자를 부정하며 그 중요한 가르침인 仁은 보편적 사랑이 아니고, 상층계급의 사랑이며, 극기복례(克己復禮)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발전하는 시대를 봉건시델 돌리려는 복벽광(復辟狂)이라고 매도하였다.

이 운동은 뒤에 강청 등 사인방(四人幫)에 의해 표면적으로 임표와 공자를 공격하면서 실은 대외적이 소련의 수정주의와 대내적으로 주은래를 비판하였다고 알려졌다.

이 시기 유교비판의 중국 사상사는 유가와 법가의 싸움으로 공자와 맹자 주자 같은 정통의 유학자들은 봉건 왕조의 관학을 지탱해주는 보수 관료계층을 대표하며, 상양(商鞅)이나 광중(管仲) 한비자(韓非子) 진시황(秦始皇) 및 유종원(柳宗元), 이지(李贄) 같은 진보적 법가사상들은 진보적 정치세력을 주도했다는 유법투쟁사를 역사상 처음으로 주창했다.

참으로 생소했지만 신기하기도 하고 또 전혀 생각하지 못한 면과 새로운 사회주의 중국의 사상사를 실감한 시기이었다. 그리고 나는 이 문제로 석사학위 논문을 썼다. 즉 사회주의 중국에서 이탁오 사상의 어떻게 수용되는 것을 연구하는, 「비림비공운동 중 중국 언론의 이지와 그의 이 철학」이 주제이었다.<sup>39)</sup>

그 후 사회주의 중국이 정치치적 안정과 경제적 급성장의 발전을 지속하는 오늘날 까지 실로 반세기 동안의 이탁오 연구를 통해 중국 유학사와 사상사의 추이를 다소 경험한 셈이다.

38) 호가 탁오인 이지는 복건성 천주의 출생으로 향시를 거쳐 50세 중반 운남성 지부까지 관직을 역임한 후, 20여년 호북성에서 경정향가의 교사와 마성현의 작은 불사인 지불원에서 학문과 저술 및 강의에 열중하였다. 그러나 그의 학문과 저술이 자유분방하고 공자와 유가 비판 및 여성 긍정사상과 관계를 구실로 탄핵되어 1602년 76세로 옥중에서 자결하였다. 특히 그는 오직 하나의 진리만을 고집한다면 진리를 해치는 것이라며 유가만의 사회사상과 윤리를 반대하며, 공자로부터 맹자를 거쳐 주자에 이어진다는 '도통론(도통론)'을 거부하여 유가에게 이단시되었다.

그의 저서로는『분서』와 『속분서』, 『장서』와 『속장서』 및 『초담집』 등 방대하여 200 년 26책으로 『이지전집주』가 간행되었다. 사상은 양명학의 급진파인 태주학파의 영향을 뛰어넘어 불교와 도교등 선진사상을 두로 흡수하여 철학자, 역사가, 문인, 서예 등 인문학의 자질을 모두 갖추었다.

죽은 후 그의 저서들은 불태워지고 청대 『사고전서』에서도 금서로 지정되었으나 1910년 대 5. 4 신문화운동시기부터 빛을 보기 시작하여 사회주의 중국에서 일대종사(一代宗師)로 추앙되고 북경의 묘지나 천주의 생가 및 남안의 고향 가묘와 이지 역사공원이 조성되었다. 일본 학자는 일본의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조선의 이순신 장군과 함께 16세기 동아시아의 3대 위인으로 평가하였다. 필자는 이탁오에 관해 석사와 박사학위를 논문(독일어)을 썼으며, 한국어로는 『공자의 나라 중국을 뒤 흔 든 자유인 이탁오』(지식산업사, 2006)의 평전과 『이탁오와 조선의 실학』 (탐구당, 2017) 의 한국 실학 관계와 중국내 관계 유적지답사와 연구 활동에 관한 저서를 간행하였다.

39) Shin, Yong-chul, Li Chih und seine Philosophie in der chinesischen Presse, 1977.(석사학위논문), 과 신용철, 「중공에 있어서 이지상의 정치적 수용」, 『경희사학』 제 9.10 합집, 199-216면.

## 2) 이지의 사회비평- 여성관을 중심으로-

비림비공운동이 끝났지만 유교에 대한 사회주의 중국의 해석이나 비판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에 나는 불필요하고 형식에 얽매인 유교에 반대하다 희생된 이탁오의 사회사상으로 서 여성관에 나는 관심을 갖게 되었다. 정치나 철학 경제 등에 큰 주제에 관심을 갖는 우리 학계의 속성에서 가장 가깝고 중요한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사실 중국이나 우리의 유교적 봉건왕조시대 여상의 지위는 얼마나 차별적이었는가? 이른바 삼종지도(三從之道)나 칠거지악(七去之惡) 및 “앞 닦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여성 폄하적인 사회적 분위기에서 여성의 능력이나 지위를 긍정하고 차별을 비판하다 탄핵되어 옥중에 서 자결한 이탁오는 사실 그 시대의 선각적인 여권사상의 선구자이기도 했다. 1602년 이탁오에 대한 탄핵상소의 내용은 공자의 선악 표준을 선악의 근거로 할 필요가 없으며, 특히 여성들과 함께 도를 배우고 학문을 논하고 글을 쓰며 난잡한 생활을 비판한 것이니, 여성 문제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지의 사회비평- 여성관을 중심으로」<sup>40)</sup> 박사학위 논문을 썼다. 그 당시까지 우리나라에서 이탁오에 관해 관심을 가졌던 선구자로 연대의 이가원 교수와 중앙대의 윤남한 교수가 있었지만 정규대학에서 정식을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은 것은 내가 처음일 것이다. 사실 철학이나 문학을 하다 이탁오를 전공하게 된 중국과 일본의 학자들도 거의 나와 같은 길을 걷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한다.

1980년대 내가 귀국 후 논문을 발표에, 학교의 한 교수님은, “미치광이를 연구했군요!”라고 하고 국사편찬위원장이던 교수님은 “그 사람 정신 분열자 아니오?”라고 해서 웃었다. 여자대학의 여교수 한분도, “남자분이 어떻게 여자문제를 연구하셨지요?”라고 해서 웃었다. 여성신문의 한 기자는 “실천하는 페미니스트”라고 『여성신문』에 쓰기도 해서 민망했다.

## 3) 1992년의 한 중 수교와 나의 이탁오 연구

귀국과 수교이전에도 나의 이탁오 연구는 학계에서 관심이 차츰 고조되기 시작했다. 독일에서처럼 중국 자료를 접하기 어려웠지만 홍콩을 통해 해결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나는 이탁오의 학위논문을 번역하자 않고, 그의 철학과 문학, 교육 역사 등 여러 방면에 대한 논문을 계속 썼다.

1992년의 한 중 수교는 나의 단순한 이탁오 연구 뿐 아니라, 중국 연구자 모두에게 흥분 속에 큰 기대와 희망을 주었다. 수교 3년 전인 1989년 10월 나는 한국 퇴계학회의 중국의 ‘공자문화절’ 행사에 초대되어 북경에서 학술회의 후 공자의 도시 곡부(曲阜)를 방문하고 시안(西安)과 둔황(敦煌)을 방문할 수 있었다. 이 최초의 중국 여행에서 북경 외곽 서해자 공원의 이탁오 묘를 방문 한 것은 아주 큰 소득이었다.

그 후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아도 우리 동양사 학회도 중국에서 함께하고 학문적 교류와 문헌의 수집이 훨씬 쉬워졌다. 그리고 큰 변화는 중국의 이탁오 연구 성과의 확인이었고, 북경 수도 사범대학의 중국 이탁오 연구회장인 장건업(張建業) 교수와 연락되어 내 연구실적을 전달하고 또 중국의 실적을 소개받았다. 함께 서해자(西海子) 공원의 이탁오 묘를 찾기도 했다. <sup>41)</sup>

40) Shin, Yong-chul, Die Sozialkritik des Li Chih, Peter Lang Frankfurt am Main, 1982.

신용철, 「이지의 사회비평- 그의 여성관을 중심으로」. 『동양사학』 19, 1984. 51-89면 .

41) 신용철, 「북경 통주의 이탁오 묘」. 『이탁오와 조선의 실학』, 2017, 111-120 면.

#### 4) 평전 『공자의 나라 중국을 뒤 흔든, 자유인 이탁오』의 출간

나는 2002년 정년하면서 이탁오에 관한 박사 학위 논문으로부터 써온 20여 편의 논문을 바탕으로 위의 평전을 지식산업사에서 출간하였다. 이탁오에 관해서 중국저자의 평전이 번역된 것은 있지만, 한국 학자로서는 아직까지도 최초의 평전이다. 2022년 금년 여름, 일본학자의 1984년 저서가 번역되기도 했고, 김혜경 교수의 『분서』와 『속분서』의 번역이 나왔다.

나의 이 평전은 “동양의 루터에 대한 30년 집념의 저서”라며 『동아일보』를 비롯한 일간지의 큰 호평을 받았고 문광부의 추천도서 선정되기도 했다. 그와 동시에 나는 중국의 장건업 교수와 연결하여 하남성 상성현에 새로 건립된 이지서원(李贄書院)의 개원 학술기념학회에서 발표하고, 42) 이지가 관직을 사임 후 학문을 연구하고 강학하며 저술하던 마성의 지불원(芝佛院)을 답사하였다. 43) 특히 나는 서원의 고문으로 추대되어 서원의 벽에는 전 세계의 저명한 이탁오 연구자의 명단과 함께 이름과 소속 및 사진이 게재되었다. 44)

한국에서 이러한 이지 연구의 관심확대는 2009년 대전 충남대학에서 시행된 춘계 양명학회가 「동아시아와 이탁오」라는 주제이었으니 아마도 한국의 전국 규모의 학회사상 처음 있는 ‘이지의 주제’로서 의미 있는 일이었다. 45)

한편 필자는 이지의 고향인 복건성 천주에 여러 차례 방문하여 일대를 답사하고 학회에서 발표하였다. 특히 그이 생가인 천주시의 고가는 그대로 시의 문화재로 보존되어 관광지가 되었다. 천주 시에도 이탁오와 관계된 공원이 조성되고 명대의 회교성지의 묘소들에서도 그의 가계의 회교관계를 찾을 수 있다.

특히 천주에서 좀 떨어진 남안에는 그의 가묘가 있는데, 주변의 수십만 평을 이지 고리 문화원(李贄故里文化院)을 조성하여, 산 위에는 거대한 석상을 세우고, “이지 소학(李贄小學)으로 명칭을 바꾸고, 가묘를 새로 단장하며 도서관들을 건설 중에 있다. 46)

2017년 나는 이탁오 관한 주 없이 『이탁오와 조선 후기의 실학』을 탐구당에서 출간했다. 전문적인 학술 서적이 아니지만 이탁오에 관심을 갖는 독자들에게 하나의 안내서로 읽힐 저서로 출간했다.

특히 이 저서에서는 이탁오 보다 조금 후기에 조선의 관료이며 학자인 허균(許筠, 1559-1618)이 이탁오의 사상에 심취하여 임진왜란 후 부패 무력 해이해진 조선왕조의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려고 『홍길동전』을 쓰고 사회개혁을 시도하다 처형된 역사를 연결시켰다. 47) 이 점은 일본의 메이지유신의 사상적 선구자인 요시다 쇼인(吉田松陰, 1830-59) 48) 보다 선구자이고 이탁오 보다 실천면에서 더 앞선 사상가로서 동시에 혁명가이었다.

한편 중국의 장건업 교수가 주편한 26책의 반대한 『이지전집주(李贄全集注)』에는 중국과 외국의 이탁오 연구를 소개하고 있는데, 필자의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의 이지 연구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49)

42) 위의 책, 95-101면.

43) 위의 책, 82-93면.

44) 위의 책, 99 면.

45) 신용철, 「16세기와 20세기 동아시아의 이탁오」, 『동아시아와 이탁오』, 한국양명학회, 2009. 7-36.

46) 신용철, 『이탁오와 조선의 실학』, 74-81면.

47) 위의 책, 137-148 면.

48) 미소구찌 유조, 임태흥 역, 『이탁오 정도를 걷은 정도』

49) 장건업, 『李贄全集注』, 26 책, 사회과학문헌출판사, 북경, 400-403.



## 마 치 면 서

우리의 긴 역사에서 위기 아닌 때는 없었다. 벼랑에 매달린 반도의 남단처럼 불안 위험한 지정학적 위치에서 살아 온 우리는 항상 위기에 오�히려 익숙한 역사의 연속이었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서 일본은 대피 방공훈련을 해도 지척의 아무런 위기를 느끼지 않는 우리를 생각한다.

한·중 간 문화협정에는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교육·학술·문화, 예술·언론·라디오·영화·텔레비전·출판·청소년 및 체육 분야에 관해 18조의 교류와 협력을 위해 합의하였다. 양국은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기초하여 자국 내에서 유효한 법령에 따라 문화협력의 발전을 증진하고 장려한다고 하였다.

주권 영토 문화의 상호존중의 근린우방으로서 강대국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강요받는 기로에 섰다고 위기도 느낀다. 하지만 우선 정당하게 우리의 독립적 자주, 근린 우호, 개방적 협력, 상호 내정불간섭은 가장 중요한 대응의 원칙이다. 한 세기 이래 오늘날 크게 변화된 세계와 한국의 위상을 중국도 인정할 것이다. 한중 양국은 물론 동아시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책임이 막중하다.

한국과 중국은 역사발전에서 2난성 쌍둥이 같이 문화를 공유하였고, 한국은 유일하게 서구와 잘 적응 수용하였다. 그 동안 중국이나 북한에 비해 자유와 평등에 훨씬 익숙해있는 장점으로 고귀한 가치를 최대한 살려왔다. 동아시아의 유교 국가에서 가장 민주적으로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 통치자를 선출하는 많지 않은 국가가 되었다. 우리는 정치적 민주주의에서 반도체 등 경제적 수준에서 에너지의 폭발로 반만 년 만에 중국 앞에 우뚝 섰다..

중국이 북한 보다 한국에 공자학원을 많이 설치하는 것도 양국 간의 문화공유나 교류가 중요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한중 문화는 인문학이 (정치 경제) 가장 중요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인문학자들의 기여가 중요하고 생각한다.

개인이나 국가 간에는 당연히 많은 차이와 모순이 존재한다. 이 모순을 조화 극복하면서 우리는 화평을 이룬다. 여기서 우리는 구존동의 (俱存同異) 나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철학을 다시 한 번 상기한다. 그리고 긴 역사 속에서의 경험으로 미래에 유익하게 작용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 세기적 논쟁의 주제, 유학 : 시대마다의 유교, 유교비판에서 이탁오는 각 시대의 적합한 개혁(因時變法), 질병에 맞는 처방(依病處方)으로 개방적으로 수용을 강조했다. 이탁오의 비판정신은 개혁이 필요한 시기에 항상 필요할 것이다.

유럽의 크리스티교가 종교개혁이나 최근의 해방신학 같은 시대에 새롭게 적응하며 발전해왔다. 그에 비해 타 지역의 종교처럼 내세보다 현세의 윤리성이 강한 유교는 왕조말의 혼란기에는 내적 종교인 도교나 외래종교인 불교의 확장으로 수난을 겪으면서도 왕조의 안정기에는 관학이나 국교에 가까운 자리를 누리며 발전해왔다.

그러므로 현재의 유학은 정치적 안정 중흥기로 비판보다는 중요한 전통과 상상 문화로서 이 자리를 되찾는 느낌이다. 특히 우리 한국에서는 중국과 같은 요란한 유교비판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새 시대의 유교는 젊은 세대들에 의해서 새로운 연구의 폭을 넓히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유학을 통한 한중 학자들 간의 교류는 더욱 착실하게 계속될 것이다.

유교와 중국 전통사상에 대한 도전은 불교가 단연 우뚝하고 국내적으로는 도교등이 있으나, 16세기 천주교, 18세기 개신교 등은 실패하였다. 다만 20세기의 외래 마르크스 사상은 정치적 문화적으로 전 중국을 석권하였다. 이는 물론 종교나 사상 뿐 아니라 정치적 혁명의 결과이지

만, 광말약의 콩트 『마르크스 공자의 문묘를 찾다』처럼 흥미롭다.

이러한 현상을 1989년 NEWSWEEK는 유교 오늘날에는 유익, Happy Birthday, kong fuzi(공부자), one eye on the past, one eye on the do the future, China against itself (자신에 대한 항거) Is the Confucian Tradition blocking the road to the reform? 이라고 썼다.

과거에서 배우고 현재를 올바르게 이해하며 미래를 건설해야 한다. 양국 관계에서 우리는 외적으로 물리적인 원심력과 구심력 잘 활용하고 수학적인 합과 적을 제대로 적용하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정치와 외교 및 경제와 군사적인 측면에서 양국 간의 긴장과 대립이 아무리 커져도 우리는 그 일희일비 하지 말고 착실한 인문적 연구의 축적만이 대국에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한다. 역사를 통해 현재와 미래의 답을 찾아야, 역사의 흐름에는 항상 그렇게 되어야 할 당위성이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은 현실에 우리는 실망한다. 하지만 그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현실로 온 과정의 중요함을 배제할 수도 없다.

역사는 우리가 이 양국의 어려운 현대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인가?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누구도 시원하게 명백한 답을 역사 속에서 바로 얻지는 못할 지라도, 어떻게 이해할지를 안내 받을 수는 있을 것이다. 다만 이 과제의 답은 현재와 미래의 우리 양국의 통치자와 지도자들이 일반 여론으로 일희비하지 말고 진정한 역사와 문화를 극히 객관적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동아시아의 유교국가로서 베트남이나 일본도 비교하면서 지난날 특히 이미 몽골 제국의 서유럽 침략이후 야기된 서구의 황화론(黃禍論) '오리엔탈리즘'에서 근년의 새뮤얼 헌팅턴의 「문화충돌」론 등도 하나의 참고가 될 것이다.

새로운 도전과 응전이 반복되고, 파괴되어야 건설되는 불파불립, 막아야만 흐른다는 불색불류의 발전론이나 변증법적인 역사의 지혜가 매우 기다려지는 시기이다.

## ● 참고문헌

### 1. 원 전 자 료

- 李光燾, 『韓民族(漢)與文化』, 대만서점, 1968.  
楊邵銓外, 『中韓關係史 現代券』, 북경대학교 출판부, 1997.  
陳尙勝, 中韓交流三千年, 文史知識文庫, 中華書局 1997.  
馮開文, 楊邵銓 주편, 『大韓民國臨時政府在重慶』, 중경출판사, 1999.  
宋成有, 中韓關係社, 現代券, 社會科學文獻出版社, 1997.  
張建業 주편, 『李贄全集注』, 26 책,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북경, 400-403 면. .  
鄭寅普, 『陽明學演論』, 삼성문화재단, 1972.  
玄相允, 『朝鮮儒學史』, 민중서관, 1978.

## 2. 저서

- 경희대학교 아태지역연구원, 아태지역연구 20년사, 2006.
- 고병익, 『동아시아의 전통과 근대사』, 삼지월, 1984.
- 권중달, 『문화대혁명 전후의 중국 역사해석』, 집문당, 1991.
- 금장태, 『화서학파의 철학과 시대의식』, 태학사, 2001.
- 미소 유소구찌, 구구웅삼, 임태홍 『정통을 걸어 간 이단』 이탁오, 2022. 7.
- 민두기 편, 『중국의 역사인식』, 상.하. 칭작과 비평사, 1985.
- 스스끼 마사유키 鐸木昌之, 『북조선, 사회주의 와 전통의 共鳴』, 동경대 출판부, 1992.
- 프랑케 볼프강 저, 신용철 역, 『중국의 문화혁명』, 탐구당, 1983.
- 외, 『중국사학사개론』, 새한사, 1994
- , 『홍콩은 어디로 가는가』, 우석출판사, 1997.
- , 『마카오 1999년』, 우석출판사, 1999.
- , 『공자의 천하 중국을 뒤 흔든 자유인 이탁오』, 지식산업사, 2002
- 외, 『한중관계사』, 경희대 출판국, 2007.
- , 『이탁오와 조선의 실학』, 탐구당, 2017.
- 박치정, 『오랑캐 천하』, 삼화, 2021.
- 아태지역연구소, 『아태연구 창간호』, 경희대학교, 1994.
- 오구라 기조, 『한국은 하나의 철학이다.』- 理와 氣로 해석한 한국사회- 도서출판  
서출판 모시는 사람들, 2018.
- 이강국, 『한중 수교 30년,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글 마당, 2022. 6.
- 21세기 평화연구소, 『한중수교 30년』, 화정평화재단, 2022.1.
- 조경란, 『국가, 유학, 지식인: 현대 중국의 보수주의와 민족주의』, 책세상, 2016 .
- 중 한 『국민교류년』, 기념 중 한건교 10주년( 1992-2002)
- 지그프리트 겐테, 『겐테의 한국기행』 최석희 옮김, 대구효성카톨릭대학교 출판부 .1999.
- 풍옥충, 『풍총장이 본 한국』, 유품출판사, 1996
- 21세기 평화연구소, 『한중수교 30년』, 화정평화재단, 2022.1.
- Shin,Yong-chul, Li Chih und seine Philosophie in der Chinesischen Presse.  
(1.Sept.1973 -31.Dez.1974), Fakultät fuer Orientalistik und Altertum  
wissenschaft Univ.Heidelberg, 1977.
- Westad, Odd Anne, Empire and Righteous Nation, The Belknap of Harvard  
University Press, 2021.
- Jaivin, Linda, The Shortest History of China , Experiment New York, 2021.

## 3. 논문

- 고병익, 『중공체제』, 동서문제연구소, 1974.
- 고병익, 「중공의 역사학」, 『중공 체제』, 중앙일보 동서문제연구소, 1974, 7-41쪽
- 서성완, 명 청 교체기의 유민에 관한 연구, -임진 병자 난 시기 조선 유민을 중심으로-, 1991년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용철, 「동아시아와 이탁오」, 한국양명학회, 2009
- , 「중공에 있어서 이지사상의 정치적 수용」, 『경희사학』, 9.10. 합집, 1982.

- , 「유교개혁의 사상적 선구자 이탁오」, 『동아시아의 인간상』, 1995.
- , 「동아시아에 있어서 한국문화의 역할」 경희대 『아태연구』, 제 2집 1995,
- 「20세기의 사상논쟁: 공자와 유교비판」 『대륙전략』 제13호, 2015, 9-32 면.
- , 「중국의 환발해· 황해권 개발과 한중 협력에 관한 연구」, 『동양학 연구』 제 7집, 2001, 1-40쪽.
- 「마카오 특집」, 『동양학 연구』 제5집, 1999, 1-95쪽.
- , 「중국인의 의식구조」, 국제문제 11, 국제문제연구소, 1992. 45-51,
- , 「춘원 이광수의 유교관 시론」, 춘원연구학보, 제 4호, 2011. 33-92면.
- 박치정, 「중국의 천하사상과 한중관계」, 『대륙전략』 제13호, 2015, 55-72쪽.
- 은인영, 「한·중 수교」, 『국제문제』 11호, 1992. 19-22.
- 이계령, 「중국의 고등교육 및 중한교육의 협력」, 『동양학연구회보』 제9호, 1995, 58-69쪽.
- 조경란, 「중국의 유학담론과 복수의 공공성 - 문화대혁명 시기 유학담론과 비교하여」, 『시대와 철학』, 제 225권(통권 66호) 1호(2014), 151-177면

##### 5. 시사월간지

- 『월간조선』, 「수교 30주년, 미중갈등과 한국의 선택, 한중관계를 생각한다.」 2022/8.187-253면.
- 유민호 프랑켄슈타인이 민주주의 문명을 지배할 수 없다.
- 이강호, 북중처럼 종북과 종중도 혈맹이다.
- 윤석준, 최강 북부 전구 급변사태 대비 훈련 실시
- 이문원 BTS 등 한류 한한령 이후 대중 의존 끊으면서 세계로 도약
- 황효순, 중국의 압력에 원칙있게 대응한 호주를 통해 배워야
- 이강국, 『한중 수교 30년,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글 마당, & 아이디얼 북스 , 2022.6.
- 21세기 평화연구소, 『한중 수교 30년』, 화정편화재단 (동아일보사 부설), 2022 2.

##### ◆기사 및 에세이

- 신용철, '아시아태평양지역연구소, 『중국의 조선족 연구』, 1993
- 아시아태평양지역연구소, 『21세기 동북아 국제 학술회의 결과보고서』, 1995
- 신문기사 22년 8월 24일
- 유상철, 「수교30년 단교30년」, 『중앙일보』 22년 8월 22일 28면
- 『경향신문』 '안미경중' 지탱해온 한·중 관계 윤정부 '안미경중'로 균열」 22.8.22. 4면
- 『매일경제』, 「사실 한·중 수교 30년, 새로운 윈윈 관계 만들자」 22.8.22. A 39면
- 『매일경제』, 「"中, 강압적 국익 주장 안 된다 韓, 한미동맹만큼 중에 관심을"」
- 『한겨레』, 「 협력·분업 구도에 변화 조짐 칩4 영향 '교역 난기류' 우려」 4면
- 「'협중'은 기획된 이데올로기인가, 중국 위협 큰 탓인가」
- 「사드 다시 갈등 뇌관 '대만문제' 원치 않는 분쟁 휘말릴 위험」 5면
- 「"어려울 때 도움 주고받아 한국도 중국도 잊어선 안 돼"」
- 「한중관계 변곡점 '새 균형추' 찾아라」 22.8.23. 1면
- 「 한중 관계 위기서 맞은 수교 30년, 새로운 길 내려면」 22.8.23. 27면

=====

신문기사 22년 8월 25일

「경향신문」, 「서울·베이징에서 동시 행사 '역사적 30년과 미래' 조명」 3면  
윤 대통령 "상호 존중 기반 성숙한 관계 희망" 시 주석 "양국은 좋은  
이웃, 좋은 동반자 돼야" 22.8.25. 1면

2022년 10월 6일 정리

이호규, 「더욱 교묘해진 중국의 한국사 왜곡」, 『중앙일보』  
유석재, 「고구려·발해를 중국 역사 일부로 둔갑시키려 해요」, 『조선일보』 22.9.29.  
----, 중국 20년째 역사왜곡...6년전부터 교과서에서 '고구려'뺐다, 『조선일보』  
22.9.16.  
김기용, 「中 발해 건국한 고구려 유민 대조영을 '말갈 수령'으로 표기. 발해사 중국사  
로 편입 동북공정 노골화」, 『동아일보』 22.9.15.  
박정훈, 「주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조선일보』. 22.9.16.  
유상철 정리, 「한·중 차이 분명히 하는 '화이부동(和而不同)' 추구해야」, 和光同塵  
한 중비전포럼=한중 관계의 미래 좌표와 비전을 찾기 위한 전문가 포럼. 신정승 전  
중 대사가 위원장(위성락, 윤영관, 서진영, 노재현, 이하경), 중앙일보 22.8.10.

=====

# 우리 시대의 마지막 선비 - 김준엽 선생

김호웅, 오수영<sup>1)</sup>

## 국문요약

중한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김준엽선생을 떠올린다. 김준엽선생은 항일전쟁시기는 물론이요, 중한 수교 이전부터 중국을 찾아와 북경대학, 남경대학, 절강대학, 복단대학, 연변대학 등 중국 유수의 대학에 한국학연구소를 설립하고 중한친선의 씨앗을 뿌린 선각자로서 한국인으로는 유일무이하게 중국교육부에서 수여하는 “중국어언문화우의상(中國語言文化友誼獎)”을 받았고 중국 학술계의 태두였던 계선림 선생으로부터 "열정적이고 순박하고 부드럽고 정직한 분인데 그 어떤 방면으로 보아도 동방의 최고 윤리 도덕의 표준에 도달한 분"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 글에서는 주로 사회역사적 비평과 전기적 비평, 서사미학과 선비 또는 지성인의 덕목에 비추어 김준엽의 시대와 그의 인생을 돌아보고 그의 회고록 『장정』의 서사 기법과 책략을 분석한 기초 위에서 선생께서 파란만장한 일생의 중요한 고비마다 어떻게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고 결단을 내렸는지, 역사의 신을 믿어 의심치 않고 민족을 위한 헌신, 학문을 통한 자아실현과 나라에 대한 기여라는 청년기의 초지와 결심을 어떻게 조금의 동요도 없이 지켜왔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 시대의 마지막 선비이며 최고의 지성인 김준엽 선생의 사상과 철학이 어떠한 인식적, 교양적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주제어: 김준엽, 『장정』, 서사기법, 지성인, 사상과 철학, 인식적 가치와 교양적 가치

## <목차>

1. 들어가며
2. 『장정』의 서사기법과 책략
3. “학병탈출 1호”: 식민지 시대 한 청년의 선택과 결단
4. “역사는 두 다리로 공부한다”: 김준엽의 학술업적
5. “역사의 신”: 진리와 정의와 선은 반드시 승리한다
6. 나가며

1) 김호웅, 중국 연변대학 교수, 박사생지도교수.  
오수영, 중국 연변대학 조선-한국문학 박사과정.

## 1. 들어가며

컴퓨터 앞에 마주 앉은 이 순간, 2007년 6월 6일 김준엽(金俊燁, 1920-2011)선생께서 미수(米壽)의 고령에 고려대학교 지청(池淸) 교수와 함께 우리 연변대학을 찾아주고 명예교수 칭호를 기쁘게 받으시던 일이 떠오른다. 이미 선생께서는 북경대학을 비롯한 중국 경내 10여 개 대학에서 명예교수 칭호를 받으셨지만, “우리 동포 자녀들이 가장 많이 공부하는 연변대학”에서 받으셨다고 크게 기뻐하셨다.

6월 8일, 필자는 김준엽, 지청 두 분 선생을 모시고 백두산을 등반했다. 정상에 오르기 전에 군인 외투를 빌려서 김준엽 선생께 입히고 지청 교수와 함께 양쪽에서 부축하여 올라갔다. 천지는 여전히 얼음이 녹지 않아 그야말로 푸른 옥돌이 깔린 옥황상제의 나라를 방불케 하였다.

“백두산은 겨울도 절경이네! 어, 공기 좋다!”

하고 선생은 조금은 흥분한 기색인데, 문득 나를 보고

“김박사, 내가 부르는 번호대로 핸드폰을 좀 눌러 봐요.”

하기에 가르쳐주는 대로 전화번호를 눌렀더니 통화가 되었다. 선생께서는 핸드폰을 받아 쥐고 귀에 갖다 대더니

“여봐요, 나 지금 어디 있는 줄 아시우? 여긴 백두산이야! 백두산의 정기를 나 혼자 마실 수 없어 보내니까 임자도 마셔보구려.”

하고 천진한 소년처럼 웃으시더니 지청 교수와 나를 보고

“우리 집사람이 혼비백산을 했을 거야. 집에 돌아가면 만용을 부렸다고 욕먹게 생겼어.”

하고 꺄꺄꺄 웃으셨다.

지금도 나는 선생을 떠올리면 겨울을 이겨낸 청보리의 풋풋함과 설한풍을 이겨낸 송백의 의젓함을 떠올리게 된다. 올 연초 필자는 한 달간의 품을 들여 선생의 회고록 『장정』 전5권을 통독하면서 이런 인상을 더욱 강하게 받았다. 말하자면 선생은 평생 선비의 지조와 절개를 지켜온 한국의 대표적인 선비요, 지성이며 우리 모두의 스승이다.

선비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정의를 따르고 정의를 지키는 것이다. 유교의 인, 의, 예, 지, 신(仁義禮智信)이라는 참된 선비의 덕목에서 정의감 또는 의로움을 최고의 덕목(義爲最上)으로 여긴다. 맹자는 의로움(義)과 삶(生)을 두고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사생취의(捨生取義), 즉 목숨을 버리고 의로움을 선택하겠다고 했다. 의로움이 있느냐 없느냐, 이는 참된 선비와 썩은 선비를 가르는 시금석으로 된다.

요즘의 용어로 선비를 지성인이라고 해도 대과는 없을 것이다. 지성인이란 교육받은 엘리트들이 공적인 참여와 활동을 담당할 때 칭하는 이름이다. 지성인은 문인, 성직자, 철학자, 사상가, 대학교수 등 공적 담론을 이끌어가는 이들이다. 사회학자 칼 만하임(Karl Mannheim, 카를·만해姆)은 이런 지성인을 가리켜 “사회의 파수꾼(Wächter)”이라고 하였다.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Said, 에드워드·사이드)는 지식인

과 지성인은 다르다고 하였다. 지식인이 제도권에 흡수되어 비판적 태도를 상실한 전문지식의 소유자인 데 반하여, 지성인은 신성(神性)과 권위에서 독립해 진리와 정의의 능동적으로 지키는 사람으로서 부당한 권력에 맞설 수 있는 용기와 분노를 지닌 존재라고 하였다. 지성인은 지식과 함께 진리를 추구하는 학문 정신이 바탕이 된 냉엄한 비판 정신을 갖고 밖으로부터 밀려오는 부당한 권력과 금력을 막아내는 2차적 의무까지 이행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지식인은 정의감과 사회적 책임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성격이 다른 두 부류의 사람으로 갈라진다. 어느 한 분야의 권위자라 하더라도 지식을 팔아 일신의 부귀와 영달만을 꾀한다면 단순한 지식인에 머물게 된다. 개중에는 부패한 권력에 빌붙는 지식인도 적지 않는데 이들은 썩은 선비요, 더러운 지식인이다. 하지만 지성인은 해박한 지식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진리를 추구하고 민중의 앞장에 서서 부정한 권력과 금력에 저항하는 의로운 사람이다.

김준엽 선생의 파란만장한 인생과 그의 빛나는 업적에 대해서 이미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고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었다. 이 글에서는 주로 사회역사적 비평과 전기적 비평, 서사미학과 선비 또는 지식인의 덕목에 비추어 김준엽의 시대와 그의 인생을 돌아보고 그의 회고록 『장정』의 서사 기법과 책략을 분석한 기초 위에서 선생께서 파란만장한 일생의 중요한 고비마다 어떻게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고 결단을 내렸는지, 역사의 신을 믿어 의심치 않고 민족을 위한 헌신, 학문을 통한 자아실현과 나라에 대한 기여라는 청년기의 초지와 결심을 어떻게 조금의 동요도 없이 지켜왔는가를 살펴보면 우리 시대의 마지막 선비이며 최고의 지성인 김준엽 선생의 사상과 철학이 어떠한 인식적, 교양적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 2. 『장정』의 서사기법과 책략

『장정』은 “마지막 광복군” — 김준엽 선생이 16년간의 뼈를 깎는 노력을 경주해 집필한 회고록으로서 격랑의 한국 현대사를 파노라마처럼 펼쳐 보인 명저이다. 김준엽은 이 회고록으로 1988년 한국일보에서 시상하는 제28회 한국출판문화상을 수상했다.

주지하다시피 1940년대에 들어서서 일본이 무조건 항복할 때까지 중국 산해관 이남에서 치열하게 항일무장투쟁을 계속한 것은 연안파로 알려져 온 조선독립동맹 휘하의 조선의용군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산하의 광복군이라 하겠는데, 전자의 경우를 기록한 것이 김태준(金台俊)의 「연안기행(延安紀行)」(1946), 김사량(金史良)의 『노마만리(駑馬萬里)』(1947), 신상초(申相楚)의 『탈출』(1966), 김학철의 『최후의 분대장』(1995)이라 하겠고 후자를 기록한 것이 김구의 『백범일지(白凡逸志)』(1947), 장준하(張俊河)의 『돌베개』(1971), 이범석(李範奭)의 『우등불』(1971), 김준엽의 『장정(長征)』이라 하겠다.

특히 김준엽과 장준하는 학병 탈출자로서 1944년 7월 초순 중국 서주지역 국부



군 산하의 유격대에서 만나 친형제 이상으로 가깝게 지냈으며, 1975년 8월 장준하가 별세할 때까지 연인처럼 고티락을 함께 하였다. 일본군 학병으로 징집되었다가 탈출해서 6천리 장정을 거쳐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고 일제와 싸우다가 국내 작전을 하기 위해 한국 국내에 들어가기까지의 경력에 대해서는 장준하가 1971년에 『돌베개』라는 회억록에서 기술한 바 있는데, 이 과정을 김준엽 역시 『장정 상, 하: 나의 광복군시절』에서 다루고 있다. 하지만 두 작품은 서로 다른 서사구조와 기법을 선보이고 있다.

첫째, 만약 장준하의 『돌베개』가 광복군 시절의 체험과 견문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언어나 장면화에서 보다 더 문학성을 기하고 있다면, 김준엽의 『장정』은 자신의 체험을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장준하가 놓친 중요한 부분들도 기록하고 있어 더더욱 사료적 가치가 높다고 하겠다. 이를테면 중경 등지에서 저자가 만난 임시정부 요원들에 대한 인상기와 광복군 제2지대에서 OSS훈련을 받던 기록은 그 이전의 기록에 비해 더더욱 구체적으로 그려진다. 김구(金九), 김규식(金奎植), 이시영(李始榮), 조소앙(趙素昂), 김원봉(金元鳳), 지청천(池青天), 이범석 등 임시정부 요원으로 활동한 분들의 임정시대 회고록은 김구의 『백범일지』가 가장 상세한 편이다. 그러나 김구의 『백범일지』나 장준하의 『돌베개』를 비롯한 모든 임시정부 관련 기록들 가운데 그 개개인의 “인간성”에 대해 기록한 것은 거의 없다. 『장정』은 저자가 중경에서 3개월간 생활하는 동안 직접 만난 임시정부 요원들에 대한 인상을 상당한 분량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조국과 민족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친 그들의 인간적인 면을 좀 더 깊이 알고 싶어 하는 독자들의 욕구를 완전히 충족시켜주는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까지의 어느 기록보다 상세히 전해주고 있어 그들에 대한 인간적인 접근을 어느 정도 가능하게 한다.

둘째, 상호텍스트성(互文性)의 관점과 자유모티프(自由母題)의 관점<sup>2)</sup>으로 볼 때, 김준엽은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그의 체험과 견문을 철저하게 역사적 시각에서 서술하고 있으며 저자 개인의 생각과 행동을 모두 이 시기의 역사적 상황을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다. 김준엽 자신이 학병으로 강제 지원을 당하는 부분에서는 침략전쟁이 막바지에 몰린 일본이 식민지 지식인을 무장시키는 위험까지 무릅쓰고 그들에게 전쟁협력을 강요하게 된 역사적 상황이 잘 설명되어 있고, 김준엽이 학병 지원을 하면서 탈출을 결심하게 되는 경위도 역사적 배경을 통해 충분히 설명되고 있다. 학병으로 끌려가 중국에 배치되는 과정에서는 그 시기 중일전쟁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탈출에 성공하여 국부군의 유격대에 참가했을 때는 국부군, 팔로군, 왕정위군, 일본군 사이의 사파전(四巴戰)적 상황을 적절하게 설명함으로써 단순한 개인의 회고록이 아니라 저자의 체험을 중심으로 엮은 중일전쟁사 내지는 중국 내전 사적 성격까지도 지니게 하였다. 일례로 왕정위에 대해서 장준하의 『돌베

2) 모든 텍스트는 예외 없이 인용의 모자이크이거나 다른 텍스트를 흡수하여 변형시킨 것이라고 보는 관점이다. 한정모티프(限定母題)는 작품의 내용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어서 줄거리나 사건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모티프를 말하고 자유모티프는 이야기의 흐름에서 논리적이거나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므로, 삭제되어도 서사의 일관성에 손상을 주지 않는 모티프를 말한다.

개』에서는 “왕정위(汪精衛)—중국 국민당의 중심인물로 있으면서 장개석과 함께 손문(孫文)을 보좌하다가 그의 사후 장개석과 대립되어 마침내 중경을 탈출하고 대일 화평을 구실로 괴뢰정권인 남경정부를 세웠다.”<sup>3)</sup> 라는 정도로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지만, 김준하의 『장정』에서는 “왕정위 괴뢰정권”이란 소절을 설치하고 무려 5 페이지의 편폭으로 왕정위에 대해 상세히 소개함으로써 사파전의 원인과 배경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셋째, 김준엽의 『장정』은 작자의 성격과 행동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중국의 역사와 사회, 자연과 인간에 대해 소개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독자들의 깊은 이해에 도움을 주고 있다. 김준엽 자신이 “역사를 전공하는 사람들의 버릇이 있다. 어디를 가나 옛날을 따진다”고 말했듯이 그는 사지(死地)로 가면서, 탈출지인 서주로부터 중경까지 6천리 장정을 하면서, 또는 중경, 서안, 상해, 천진과 같은 곳에 잠깐 머무를 때 그 주변의 역사유적을 답사하곤 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고찰, 자연지리와 역사적 인물에 대한 소개는 이 작품의 무게를 더해주며 독자들의 시야를 넓혀주는 데 일조하고 있다. 이를테면 학병들과 함께 기차를 타고 서주로 갈 때 산둥 구간에서 태산을 보고는 진한(秦漢)시대부터 황제들이 봉선(封禪)예식을 많이 하던 곳이라고 했고 곡부(曲阜)는 공자가 탄생한 곳으로서 주대(周代)에 벌써 공자의 고택지(古宅地)에 문묘(文廟)를 창설하였다고 하면서 달리는 기차 속으로 멀리 까마득히 보이는 것이 문묘가 틀림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서주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서주라면 춘추시대의 팽성(彭城)으로서 중국 역사상 전쟁터가 된 일이 많은데 그것은 서주가 지형이나 교통 상으로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최근세에 와서는 진포선(天津-浦口)과 용해선(連雲港-寶雞)의 교차지로서, 중일전쟁 발생 후 1938년 봄의 서주대회전(徐州大會戰)으로 왜놈들이 떠들썩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곳이다. 다만 서주라는 명칭은 당대(唐代)에 붙여진 이름인데, 이런 것은 중국사를 공부한 나 같은 사람이나 알 것으로 짐작했으나 확실한 것은 알 길이 없다.”<sup>4)</sup>

6천리 장정 구간에 본 황하, 하늘땅을 뒤엎은 황충떼, 국부군의 사단병력이 이동할 때 사단장이나 고급 간부의 처첩(妻妾)들을 태운 가마행렬이 뒤따르는 장면, 제갈공명이 나서 자란 남양(南陽)의 와룡강(臥龍崗)에 대한 소개, 한수와 양자강이 합류하는 호북성 가어현(嘉魚縣)에 있는 적벽대전(赤壁大戰)의 옛터... 등에 대한 소개와 묘사가 그러한데, 이러한 상호텍스트성 또는 자유모티프는 독자들에게 적절한 숨돌리기와 함께 역사와 문화의 향연을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나관중(羅貫中), 스탕달(Stendhal), 헤밍웨이(Ernest Hemingway), 펄벅(Pearl Buck) 등의 소

3) 장준하, 『돌베개』, 세계사, 2004, 33쪽.

4) 김준엽, 『장정1: 나의 광복군 시절』 상권, 나남출판, 2003, 118쪽.

설에 나오는 이야기가 적재적소에 깔려 분위기를 돋구어주고 작품의 이해를 증폭시켜 주기도 한다.

### 3. “학병탈출 1호”: 식민지 시대 한 청년의 선택과 결단

김준엽의 『장정』을 제대로 읽으려면 과거의 역사를 연구하는데 머물지 말고 중요한 순간마다 그 자신의 선택과 결단이 앞으로 어떻게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를 심사숙고하는 역사적 행위자의 고민과 실존적 결단을 읽어내야 한다. 복잡다단한 국내외 정세 속에서, 특히 일제에 의해 국권을 빼앗기고 노예로 살았던 식민지 시대에 국민 하나하나의 자유 선택과 실존적 결단은 민족과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기 때문이다.

김준엽은 1920년 평안북도 강계에서 태어났다. 그는 일본 게이오대학 재학 중에 학병으로 징집되어 중국 전선으로 투입되었다가 탈출한다. 그때 김준엽은 스물세 살의 새파란 젊은이였다. 장준하는 그의 『돌베개』에서 서주 외각의 국부군 유격대에서 김준엽을 처음 보았을 때의 느낌을 두고 “중국 군복을 입은 흥안의 미청년이었다. 어쩐지 말도 내기 전인데 호감이 가는 인상이었다.”<sup>5)</sup>고 쓰고 있다. 김준엽은 이 세상에 나왔다가 나 개인이나 가족은 말할 것 없고 내 조국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죽는다면 이 얼마나 허무한 일인가! 그보다도 내가 일본군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그들의 앞잡이로 우리 독립군이나 연합군에 충질하다가 죽는 일이 생긴다면 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죄스러운 일인가!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쳤다고 한다. 하여 그는 총칼로 우리 민족을 학살하고 탄압하는 일제에 대한 증오심과 복수심을 가지게 되었고 치밀한 탈출계획을 세우기에 이른다.

김준엽 등 학병들이 중국 등 여러 전선에 투입되기 전에 예비훈련을 받기 위해 서울에 집합한 게 1943년 12월, 이때 한국 국내 사정을 보면 소위 민족의 지도자로 자칭하는 박춘금(朴春琴), 최남선(崔南善), 이광수(李光洙)와 같은 친일파들이 여전히 총독부를 들락거리고 고이소 구니아키(小磯國昭)총독의 뒤를 졸졸 물어 다녔다. 그들은 부민회관(府民會館)에 전체 학병들을 불러놓고 장행회(壯行會)를 한답시고 온갖 궤변을 늘어놓고 있었다. 김준엽은 그자들의 구역질나는 이야기를 듣기 싫어 그 모임에 참석하지 않고 명동으로 빠져나와 탈출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했다. 전선 어디에서 탈출하든 꼭 필요한 나침반, 지도, 포켓용 중국어 회화책을 구입했고 야간에 활동하기 위해서 자기의 회중시계를 어머니의 야광 시계와 바꾸었다. 중국 병사나 연합군을 만나면 그 자신이 조선인 학생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흰 저고리에 두건을 두른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을 마련하였던 것이다. 왜놈에게 잡히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궁리하던 끝에 독약은 구하기도 어려울뿐더러 만일 사전에 왜놈에게 발각되는 날에는 변명할 방법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독약 대신 아버지가 남긴 주머니칼을 가지고 가기로 했다. 그리고 돈은 물론이요, 형들과 주고받을

5) 장준하, 앞의 책, 2004, 64쪽.

암호도 미리 정해 놓았다. 이러한 탈출 준비는 그의 선택과 결단, 치밀한 기획력과 뛰어난 행동력을 보여주고도 남음이 있다.

1944년 2월 13일, 김준엽 일행은 기차로 평양역을 떠나 안동, 심양, 산해관, 천진, 제남, 곡부를 거쳐 2월 16일 3박 4일 만에 서주에 도착한다. 그들은 대허가(大許家)에 있는 일본군 경비 중대에 배치된다.

김준엽은 치밀한 사전 조사를 거쳐 3월 29일 탈출에 성공해 중국 유격대에 편입되었다가 6천리 장정을 해서 중경 임시정부에 도착하는데, 이 과정은 그야말로 소설가라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위험과 모험, 기아와 혹한으로 점철된 고난의 길이었다. 특히 김준엽 일행은 몸이 이가 들끓고 움이 생겨서 고생이 막심했는데, 아래와 같은 장면은 마치 소설적인 복선과 조응의 기법을 활용한 것처럼 아이러니해서 읽는 이들이 눈물 어린 미소를 짓게 한다.

“어느새 갈아입은 옷에도 이가 급속도로 번식하는 것이었다. 가다가 쉬는 시간이 있으면 낮에는 옷통을 벗고 이 사냥을 전개하였는데 눈 위에 떨어뜨린 이들이 추위에 못 견디어 불그렇게 통통 부어오르면서 동사하는 것을 보고 쾌재를 불렀다. 처음에 서주역에 도착하여 병사(兵舍)로 가는 도중에 거지가 상반신의 옷을 벗고 이를 잡아먹는 광경을 본 것이 머리에 다시 떠오르기도 했다. 움이 심한 동지들은 엉기엉기 기다시피 하면서 행군을 계속해야 했다.”<sup>6)</sup>

김준엽은 후세들에게 부끄러운 조상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 반드시 우리 민족을 일제의 사슬에서 해방시키고 우리나라의 국권을 되찾는 데 목숨을 바침으로써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역사에 기록되어야 한다는 일념을 안고 천신만고 끝에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그는 선후로 철기 이범석 장군의 부관과 지청천 사령관의 부관으로 일하면서 일제와 맞서 용감히 싸웠다. 1945년 7월 말, 김준엽은 제1기생 50명과 함께 OSS특수훈련을 받고 국내정진군(國內挺進軍)으로 편성되어 비행기를 타고 8월 18일 한국 여의도공항에 착륙하였으나 여전히 비행장을 관리하고 있던 일본군의 반대로 다시 중국 서안으로 귀환하게 되었다.

여기서 김준엽은 일본군을 탈출하여 독립군을 찾아가려고 계획했던 것처럼 또다시 정계에 투신하였다가 벼슬길에 오를 것인가? 아니면 학자의 길을 걸을 것인가를 놓고 선택의 고뇌에 빠진다. 김구 주석을 따라 귀국하면 틀림없이 정계에 발을 들여놓게 될 것이지만 김준엽은 학자의 길을 택하기로 했다. 우선, 일제의 투항으로 정세가 일변했다. 일제의 식민지하에서는 민족의 해방과 독립이 지상의 과제였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려고 하였으나, 이제 독립이 되어 건국사업이 전개되는 마당에서 국민이 해야 할 일은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문화, 사회, 군사에 걸친 제반 건설사업이기 때문에 국민 각자가 자기의 적성에 맞는 일에 투신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김준엽은 자기의 적성은 학문이라는 것을 절감

6) 김준엽, 『장정1: 나의 광복군 시절』 상권, 나남출판, 2003, 418쪽.

하게 되었다. 게다가 강제징집으로 학업을 중단하였기에 대학을 졸업하지 못하지 않았던가! 게이오대학(慶應大學)에서의 전공과목이 중국사였기 때문에 중국사를 연구하기 위해 일부러라도 중국에 와야 할 것이 아닌가! 둘째로 그는 정치에는 흥미도 없을뿐더러 권모술수나 머리를 숙일 줄 모르는 자기의 반골적인 성격은 관료로는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셋째로 김준엽은 일본 메이지(明治) 초기의 정치가들, 이를테면 사이고 다카모리(西郷隆盛), 오쿠보 도시미치(大久保利通),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의 역할보다는 게이오대학을 창설하고 현대문화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현대 일본의 도조 히데키(東條英機)보다는 게이오대학 총장 고이즈미 신조(小泉信三)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느꼈다. 중국사에서도 원세개(袁世凱), 장작림(張作霖), 단기서(段祺瑞) 등 군벌보다는 북경대학의 채원배(蔡元培)총장이나 호적(胡適)박사가 더 훌륭하다고 생각했다. 마지막으로 임신 중에 있는 아내를 만나야 했고 공부도 끝내고 아내의 해산을 기다려 세 식구가 함께 금의환향하여 그리운 어머니, 형님과 누님들과 만나리라 하고 마음을 다졌던 것이다.

이때의 김준엽의 선택은 그의 일생을 지배하였다. 그는 고려대학교에서 정년퇴임할 때까지 40년간 그때의 결심을 조금도 동요됨이 없이 지켰고 총리 직을 비롯한 12차의 벼슬 유혹을 받았으나 아무 거리낌 없이 물리칠 수 있었다. 그것은 국가 발전에서의 자신의 역할에 대한 확고한 소신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 4. “역사는 두 다리로 공부한다”: 김준엽의 학술업적

지식에 대한 탐구욕, 폭넓은 독서, 현지답사와 여행에 대한 열정,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과 반성은 김준엽을 세계적인 학자로, 적어도 중국사와 한국 공산주의 운동사, 임시정부와 광복군의 항일독립운동사 분야의 최고 학자로 되게 하였다. 잠깐 그의 행적을 보기로 하자.

중국에 남은 김준엽에게는 학계로 진출할 수 있는 행운이 찾아왔다. 중경에 있는 국립동방어언전문학교(아래에서는 동방어전으로 약함)에서 한국학과를 신설하였기에 1946년 2월 16일부터 전임강사로 취직하게 된 것이다. 후에 동방어전이 남경으로 옮겨가는 바람에 김준엽 일가는 생후 두 달밖에 안 되는 아들 홍규(鴻圭)를 안고 배를 타고 양자강을 따라 40일 만에 남경에 도착한다. 김준엽은 한국어와 함께 한국사를 강의면서 일본어학과 학생들에게 일본어 강독(講讀)을 지도하기도 하였다. 이 시기에 그는 국립중앙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해 곽정이(郭廷以)교수를 지도교수로 모시고 중국 최근세사를 전공하였다. 그러나 신장결석이 생겨 귀국하는 수밖에 없었다. 수술을 받고 다시 남경에 돌아왔을 때는 국민당이 패퇴하여 대만으로 도망치는 바람에 학위공부를 끝내지 못하고 또다시 간난신고 끝에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다. 하지만 동방어전 때 가르쳐준 학생들 중에 후에 대성해서 북경대학 교수로 된 양통방(楊通方)과 같은 석학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1988년 이후 김준엽이 다시

대륙으로 진출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역사는 두 다리로 공부한다”는 소신을 갖고 남경은 물론이요, 천진과 북경, 소주와 항주 등 중국의 북방과 남방의 유명한 도시들을 답사함으로써 중국의 인문 지리와 국공관계에 대해 폭넓게 체험하고 공부할 수 있었다. 김준엽은 “서호를 바라보며 소흥주와 계맛을 보는 것은 그야말로 천하일품”이라고 하면서 “해방 직후 김구 선생을 따라 귀국하지 않은 것을 정말로 잘한 결정으로 새삼 느꼈으며 소주와 항주를 찾아본 것을 여간 다행스럽게 생각하지 않았다.”<sup>7)</sup> 김준엽은 1944년 2월에 학병으로 도화(渡華)하여 만 5년간의 중국 생활을 끝내고 1949년 1월 21일 상해에서 배를 타고 한국으로 가면서 다음과 같이 자신을 성찰한다.

“나는 과연 그동안 열심히 살았는가? 내 나이 스물여덟인데 이 시대에 태어난 대한민국의 남아로서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일을 했는가? 한 시간 한 시간 쌓인 것이 나의 일생이 될 것인데 매시간을 헛되이 보낸 일은 없는가? 나는 다지고 또 다졌다. 나는 일생에 대한 정밀한 설계도를 그려놓고 벽돌 한 장 한 장을 옮겨 쌓고 있는가? 나는 지나간 날과 앞으로의 생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각오를 더욱 굳게 하였다.”<sup>8)</sup>

1949년 2월 김준엽이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는 국내에 전문인재가 부족하여 여러 대학에서 그를 초빙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그는 고려대학교를 선택하였다. 김준엽은 중국 최근세사, 동서문화교류사, 동양사 등 과목을 개설하고 일본 최근세사, 중국 공산당사와 같은 특강을 담당하였다. 그의 전공은 중국 최근세사인데 가장 중점을 두고 연구한 것은 중국의 근대화과정이었다. 중국, 한국, 일본의 근대화과정을 비교하면서 중국이나 한국이 근대화과정에서 어찌하여 일본에 뒤떨어지게 되었으며 또한 동양이 서양보다 낙후하게 되었는가 하는 원인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연구하였다. 또한, 관심을 둔 것은 나라에서 금기로 되어있는 사회주의권에 대한 연구인데, 이것은 한반도의 통일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가 독립운동사에 관심을 두고 연구한 것은 그 자신이 독립운동에 참가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민족의 정기(精氣)를 북돋우어 주기 위해서였다.

김준엽은 “연구(업적) 없이 독립 없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고 학자라면 “교학과 실천을 통한 사회봉사도 중요하지만 그 바탕은 연구”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김준엽은 한국사회의 중요한 일차적 인간관계 집단의 모임, 말하자면 동창회, 향우회, 종친회에 단 한 번도 참여한 적 없었다. 이는 그가 자신에게 섬뜩하리만치 엄격한 사람이고 연구와 공적 활동에 대한 헌신의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가를 보여준다. “평생 새벽 4시에 일어났다”는 습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그는 자신이 한 번 세운 원칙을 스스로 깨는 일이 없었다. 하기에 그의 업적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

7) 김준엽, 『장정2: 나의 광복군 시절』 하권, 나남출판, 2003, 449쪽.

8) 위의 책, 458-459쪽.

큼 풍성하다. 김준엽과 김창순(金昌順)의 공저인 『한국 공산주의 운동사』(전5권)는 <출판저널>에 의해 “21세기에 남을 고전”으로 선정되었고,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그의 회고록 『장정』은 1988년 한국일보에서 시상하는“저작상”을 받았다. 이외에도 『중국공산당사』, 『중국최근세사』, 『석린 민필호전(石麟 閔弼鎬 傳)』 등 20여 권의 저술과 『중쏘외교사』, 『중국 안의 소련』 등 번역서 5부, 『구한 국외교문서 및 부속문서』, 『북한연구자료집』(공편), 『한국공산주의운동자료집』 등 11부를 펴냈다.

한 학자의 학문적 업적에는 마이크로한 업적과 매크로한 업적이 있다. 마이크로한 업적에는 학자 개인의 저서나 논문 등이 포함되고, 매크로한 업적에는 연구소의 공동연구 기획과 실행, 교육과 기회제공을 통해 양성한 신진학자 등도 포함된다. 평교수 33년 동안 김준엽이 주력한 것은 물론 연구와 강의였으나, 그중 25년간(1957-1982)은 아시아문제연구소의 운영에 심혈을 기울였다. 고려대학교는 상술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보수적이기 때문에 국제화가 잘되지 않았다. 민족지상이라는 생각은 흔히 배타적이 되기 쉽다. 그래서 국내에서 공부한 학자들은 해외, 특히 미국 유학을 하고 그곳에 남아 학술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비애국자로 취급하였고, 해외에 있는 학자들은 국내 교수들을 낙후된 퇴물(退物)로 업신여겼다. 그 무렵 고려대학교 교수들 중에는 옛날 일본에 가서 유학한 사람은 꽤 많았으나 기타 지역이나 나라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사람은 몇 명밖에 없었고 고려대학교를 찾는 외국학자도 극히 드물었다. 김준엽은 이래서는 고려대학교가 발전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국제학술교류에 있는 힘을 다 기울였다. 그는 아시아문제연구소 소장으로 재직할 때 미국, 중국과 일본의 유명한 교수 50여 명을 고려대학교에 초청했고 제자들을 대만, 홍콩, 미국, 유럽으로 유학시키는 동시에 교수들의 해외시찰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미국 유학을 마치고 그곳에서 교수 생활을 하던 김정원(金瓊元), 서상철(徐相喆) 등 7명의 교수와 미국이나 유럽에서 학위를 받은 서진영(徐鎭英), 최장집(崔章集) 등 3명의 박사, 일본과 대만에서 학위를 받은 최상용(崔相龍), 신승하(辛勝夏) 등 6명의 박사를 고려대학교에서 초빙하게 하였다. 동시에 아시아문제연구소 주최로 15차에 걸친 국제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많은 저명한 외국 교수들을 고려대학교로 불러들였다. 박명림(朴明林)교수가 지적한 바대로 “그는 우리 문제를 처음부터 동아시아와 세계적 수준에서 보았고, 따라서 이 좁은 한국을 넘어 누구보다도 해외와의 지적 교류를 중시했다”<sup>9)</sup>

아시아문제연구소를 경영하자면 전문학자들도 있어야 하지만 연구소의 운영비, 연구비, 전문도서, 간행비 등이 필수적인데 그 당시 나라 사정도 어렵거니와 대학의 재정도 어려웠다. 결국, 밖에서 모금할 수밖에 없었다. 그 대상은 가장 풍요한 미국이었다. 김준엽은 아시아문제연구소 초창기부터 소장직을 사임하기까지 25년간, 그 후 총장 시절까지 모금하느라고 그 자신의 말 그대로 “얼굴에 철판을 깔고 거지 노

9) 박명림, 「김준엽 “장정” 전 5권 완간에 부쳐」, 石源華, 金俊焯 共編, 《申圭植, 閔弼鎬 韓中關係》, 나남출판, 2003, 790쪽.

릇”을 했다. 아시아문제연구소 시절은 “작은 거지”로, 총장 시절은 “큰 거지”로 되어 각처에서 모금하기에 바빴다. 일례로 1958년부터 3년간 미국의 포드재단(Ford Foundation)과 교섭해 1962년에 마침내 25만 5천 달러의 지원을 받음으로써 아시아문제연구소 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뚜렷한 목표와 동기, 솔선수범, 자율과 책임의 운영원칙을 핵심으로 하는 김준엽의 리더십은 아시아문제연구소를 세계 5대 사회주의권 연구소로 성장시켰다. 하기에 김준엽은 “동아시아 학계의 마당발”로 통했다. 주한 미국대사를 지낸 리처드 루이스 워커(Richard Louis Walker) 교수는 「한국의 추억」이라는 글에서 김준엽은 “한국에서 최고 수준의 학자와 행정가로서의 명망”<sup>10)</sup>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여기서 특기해야 할 것은 김준엽 자신의 외국 유학과 객원교수 생활을 통해 모범을 보여주었다고 할까, 많은 동료 교수들의 부러움을 샀다는 점이다. 김준엽은 생전에 “역사는 두 발로 공부”하는 것인데, “뜻이 있고 어느 정도의 능력만 있으면 돈 들이지 않고도 여행할 수 있다”고 늘 젊은이들에게 말했다.<sup>11)</sup> 그는 일생동안 항일 독립운동, 유학생생활, 해외여행 등으로 약 20년간을 외국에서 살았다. 일본 게이오대학과 중국의 국립중앙대학에 공부한 바 있고 평교수시절에는 1951년에서 1955년까지 대만대학 역사연구소에서 연구생활을 했으며, 1958-1959년은 미국의 하버드대학, 1968-1969년은 미국 하와이대학과 프린스턴대학에 가서 객원교수로 있었다. 해외체류시기에 현지의 인정세대를 피부로 체험하고 많은 유적을 답사했다. 이런 외국 유학과 객원교수 생활은 그의 연구나 국제정세 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회고록의 깊이와 넓이를 확보하는데 중요한 밑천이 되기도 하였다.

김준엽은 한국사회과학원 이사장, 아주대학교 재단이사장을 맡아 헌신적으로 일하면서 다시 대륙으로 진출했다. 28년간 김준엽 총장의 비서로 일한 문원보(文源寶)선생은 「많은 가르침을 주셨던 총장님」이라는 글에서 중국과의 수교가 1992년인데, 김준엽 총장은 수교 이전부터 2009년 4월까지 한해에 3-4차례씩 도합 63차례 중국을 방문하여 상해임시정부 복원, 최치원 기념비와 고려사 건립, 중경 임시정부 복원과 정비사업을 하고, 독립유공자 유해를 모셔다가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사업에 전력을 다하였다. 특히 중국 경내 11개의 유명 대학에 한국학연구소를 설립함으로써 한국학의 성장과 발전에 획기적인 기여를 했다.

여기서 반드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양가 부모님과 일가친척, 더 나아가 애국선열들에 대한 김준엽의 각별한 책임감이다. 유교 경전인 『대학』에서도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고 하지 않았던가. 독립운동가나 광복군 전사들은 국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부모 형제와 일가친척은 물론이요, 자신의 귀중한 생명까지 바쳤다. 그중에는 타국의 산과 들에 무주고혼으로 남아있는 분들도 적지 않다. 1948년 5월 김준엽은 서울에 돌아와 신장 수술을 받은 후 오류동(梧柳洞)에 집을

10) 《한국일보》, 1997년 12월 15일.

11) 김준엽, 『장정5: 다시 대륙으로』, 나남출판, 2001, 70쪽.



마련하고 북에서 허둥지둥 남하한 가족을 보살폈다. 먼저 셋째 형을 경신학교에, 둘째 형을 화교중학교에 취직시켰고 8월 정부 수립 이후에는 이범석 국무총리의 도움으로 만형을 대한중석회사에 취직시켰다. 조그마한 집이 생기고 형들이 취직이 해결되자 가장 기뻐한 것은 어머니였다. 김준엽 또한 부모님이나 형님들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한 느낌이 들어 여간 기쁘지 않았다고 한다.

처갓집에도 마찬가지로였다. 1949년 1월 25일, 김준엽은 서울에 돌아왔다. 귀국해서 해결해야 할 기본적인 일은 직장을 찾고 셋집이라도 마련하여 어머니를 모시는 일이었다. 당장 급한 일은 대만에서 장인 식구들을 하루바삐 국내로 모셔오는 일이었다. 김준엽은 우선 백범 선생을 찾아가서 그동안의 사정을 말씀드리고 이시영 부통령과 이범석 국무총리를 찾아가서 장인이 대만으로 가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고 속히 귀국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어서 박찬익(朴贊翊)선생에게서 여비를 구해가지고 38년이나 중국 대륙에서 독립투쟁을 한 장인 민필호 선생과 그 일가족을 대만, 홍콩을 거쳐 서울로 모셔온다. 그리고 중국 복단대학 석원화(石源華)교수와 함께 『신규식, 민필호와 한중관계』(2003)라는 책을 펴냄으로써 신규식 선생의 외손녀 사위이자 민필호 선생의 사위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한다. 뿐만 아니라 애국지사들과 그 가족들의 귀국에 방만한 태도를 보였던 임시정부 총령사 신국권(申國權)을 언론에 고발하고 정부에 보고해 파면케 하는 단호함을 보이기도 한다. 공과사를 분명히 가르치 자기의 권리와 대우도 분명히 챙기는 게 김준엽이다. 황차 이는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올바른 역사 인식과 민족의 정기를 살리는 작업의 일환으로 되기 때문이었다.

## 5. “역사의 신”: 진리와 정의와 선은 반드시 승리한다

세계사의 전개 과정을 보면 진리와 정의와 선(善)을 마침내 실현해내는 역사의 신(神)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현실에 살지 말고 역사에 살아야 한다. 학자, 교육자로서 조국에 이바지할 것이며 절대로 관계(官界)에 뛰어들지 않는다. 절대로 못한 조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설사 실패와 좌절을 겪더라도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라는 신조를 갖고 담담한 마음으로 천명, 즉 역사의 신이 강림하여 심판하기를 기다려야 한다.

이는 김준엽의 일생을 관통하는 신조이며 철학이다. 우리는 보통 역사는 반복되며 역사는 오늘을 비추어 보는 거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선생은 이러한 역사순환의 관점과 함께 역사를 관장하는 신이 있다고 굳게 믿었고 진리, 정의, 선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신조와 철학은 고려대학교 총장 시절의 이야기와 총리 등 고위 관직 제의에 대한 고사(固辭)에서 유감없이 드러난다.

김준엽이 고려대학교 총장 임명장을 받은 것은 1982년 8월 5일이다. 그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현대사회와 지식인의 역할」이라는 글을 발표하기도

하고 현대대학의 이념과 사명에 대해 심사숙고하기도 했는데, 그중에서 대학의 자율성에 관한 견해는 그 당시로는 대단히 참신하고 용기 있는 견해이면서도 독재 권력에 의한 김준엽의 강제사임을 예견할 수 있게 해준다.

“대학 본연의 임무를 옹기 수행하기 위하여 자율성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대학이 사회로부터 분리된 어떤 특권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학문과 교육이 정부나 정당, 종교단체, 기업 등 다른 사회기관의 특수 목적에 봉사하는 수단적 지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대학의 자율성과 학문적 권위가 충분히 존중되어야만 한다. 오늘날 현대사회의 관료화로 말미암아 대학을 하위체계로 만들고 있는데, 이것은 대학의 창조적 기능을 없애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현대사회는 지식사회이고 과학기술 문명사회인 동시에 대단히 복합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

사회체계의 복잡성의 관리를 위한 이론적 지식의 창조적 기능은 대학밖에 없다고 한 다니엘 벨(Daniel Bell, 丹尼尔·贝尔)의 말을 명심해야 될 것이다. 대학의 질서는 학문적 질서와 인격적 질서로 유지되는 것이고 대학에는 그 어떤 물리적 힘이 없다는 것을 정부나 사회 그리고 교수와 학생들이 잘 인식해야 할 것이다.”<sup>12)</sup>

김준엽 총장의 재임 기간은 4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2년 8개월, 역대 총장 중에서도 단기였음에 틀림없다 하지만 학내외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고려대학교 총장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역사 앞에 부끄럼 없는 길을 걸었다. 독재 권력에 의해 “사임의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지만 김준엽의 자세는 민족 지성을 길러내는 지도자의 귀감을 보여주었다.

김준엽은 사립대학 발전의 요체는 재단, 학교, 교우가 삼위일체가 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고려대학교 중흥을 위해 동분서주했다. 시간이 허락하는 한 교우 모임에 반드시 참석하여 모교의 발전을 위해 졸업생들의 협조를 구했고 유력 기업인들을 찾아가 때로는 구걸하다시피 재정지원을 애소했다. 그러한 과정에서 고려대학교는 침체의 탈을 벗고 중흥을 향한 사기진작이 이루어져 시설 확충 면에서 획기적인 결실을 보았다. 또한, 학문 진작을 위해 대학원 교육에 충실을 기하고 국학과 동양학의 폭넓은 기반을 다졌으며, “과학고대(科學高大)”의 슬로건을 내걸고 산업화에 따르는 대학교육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외국어교육 강화, 외국 명문대학과의 유대 강화, 전임교수를 4백 명 선에서 6백 명 선으로 늘리고 도서관을 확충하는 등 교육의 내실을 기하는데도 크게 기여했다.

김준엽이 교내에 남긴 업적에 못지않게 일구어낸 더욱 큰 업적이라면 민족사학을 이끌어 가면서 학원 자율화를 지키고 교육자로서 제자를 진심으로 아끼는 스승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다. 신군부에 맞서 학원의 자율성을 지킨 과정에 대해서는 서진영 교수가 「김준엽의 또 다른 독립운동—김준엽 총장과 학원 자율화 투쟁」에서

12) 김준엽, 『장정3: 나의 대학총장 시절』, 나남출판, 1990, 38쪽.

소상히 소개한 바 있다.

“김준엽 총장님의 일생을 돌이켜보면 두 번의 중대한 결단이 그분을 보통 사람들과 구별 지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첫 번째 결단은 두말할 것도 없이 1944년 초 학병탈출을 감행해 광복군에 투신한 것이었고, 두 번째 결단은 고려대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신군부에 맞서 학생들을 보호하고 대학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지키려다가 마침내 총장직에서 강제퇴직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두 번의 결단을 통해 김준엽 총장님은 시류에 영합하지 않고 대의를 위해 헌신하는 지식인이요, 우리 사회의 큰 스승으로 우리에게 깊이 각인되었다.”<sup>13)</sup>

학생들을 보호하고 학원의 자율성을 지키기 위해 결사적으로 싸운 점만 보아도 김준엽은 그 자신이 평소에 존경했던 중국 북경대학의 채원배 총장을 방불케 한다.

다음으로 김준엽은 왜서 평생 높은 관직 제의를 고사하고 학자의 외길을 걸어왔을까? 그 과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이는 <서상철 박사와 나>라는 글에서 잘 나타난다. 앞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20세기 5,60년대 한국 학계는 국내 학자와 재외(주로 미국) 학자가 서로 멸시하는 기류로 가득 차 있었다. 이러한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김준엽은 우수한 재미 학자들을 국내 대학에 유치하는 일에 각별히 정신을 기울였다. 1971년 12월 초 김준엽이 포드재단의 재정지원을 받으려고 뉴욕을 방문했을 때, 널리 인재를 찾는 그의 뜻을 잘 아는 뉴욕대학의 김경원 박사가 자신과 서울고등학교, 서울대학교, 하버드대학교 동기동창인 서상철 박사를 소개하였다. 서상철 박사는 당시 세계은행에 EDI교수로 있었는데, 이때 그는 귀국할 기회를 찾고 있었다. 김준엽은 초대를 받고 서상철 박사의 자택에서 그의 부인 이정희 여사가 정성껏 만든 한식에 술 한잔 하면서 즐겁게 담소를 나누었다. 이때 서상철 박사의 나이는 30대 중반이었는데 김준엽은 첫눈에 그의 점잖은 인품과 학식이 마음에 들었다. 그 자리에 동석한 김완순(金完淳), 이봉서(李鳳瑞) 박사 역시 하버드대학에서 경제학박사를 받은 우수한 젊은이들이었다. 김준엽은 마치 “큰 금광이라도 발견한 듯한 흐뭇한 마음”으로 권하는 대로 술을 마셨고 한국의 발전을 위하여 세 분 다 귀국하라고 역설했으며 또 귀국만 한다면 고려대학교에 자리를 만들 자신이 있다고 했다. 결국, 김준엽의 소원대로 서상철 박사가 다음 해 8월에 먼저 귀국했고 그 뒤로 김완순, 이봉서 박사도 한국에 돌아와 많은 업적을 남겼다.

서상철 박사는 1972년 8월부터 1982년 5월까지 10년간 고려대학교에 재직했다. 그는 뛰어난 학문적 능력과 원만한 인품으로 짧은 시간 내에 동료 교수와 학생들의 존경을 받았다. 그런데 1982년 5월 하순의 어느 날, 서상철 박사가 긴히 의논을 드릴 일이 있다고 하면서 문득 부인과 함께 김준엽의 집으로 찾아왔고 건설부 차관(한 달 후에 동력자원부 장관)으로 입각(入閣)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물론 김준엽은 강력히 반대했고 서박사의 부인도 반대했다. 김준엽이 너무 심하게 반대했기 때문

13) 사회과학원, 『김준엽과 중국』, 나남출판, 2012, 39쪽.

에 서상철 박사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나갔는데, 결국 입각한지 2년도 채 되지 못해 미안마 량군에서 참변을 당하고 말았다. 서상철 박사와 함께 참변을 당한 사람들 가운데는 함병춘(咸秉春), 김재익(金在益) 박사 등 김준엽과 가까운 사람이 여럿 있었는데 국가적으로 커다란 손실이 아닐 수 없었다. 김준엽은 서상철 박사의 입각을 반대했던 이유와 소신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깊이 뿌리박혀 있는 관준민비 사상을 타파하기 전에는 근대화를 쉽게 이룩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학계나 언론계, 기업계, 심지어 예술계나 종교계에 있는 사람들도 벼슬만 준다면 하루아침에 자기의 전공 분야를 버리고 관계(官界)에 뛰어들어 권력투쟁의 와중(渦中)에 휩쓸리는 한심한 현상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는 발전이 늦어지고 각계에 큰 인물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더욱이 5.16 이후의 학자로서 군사독재정권에 협력한다는 것은 옳지 못한 것으로 나는 생각하고 있었다. 자유, 정의, 진리를 추구하는 고려대 교수로서 어떻게 부자유, 불의, 허위에 가득 찬 군사정권에 참여할 수가 있겠는가! 자유와 민주, 그리고 정의를 부르짖다가 학원에서 쫓겨나고 투옥된 정든 동료 교수나 사랑스런 제자들이 많은데 어찌 군사독재자들의 앞잡이가 될 수 있단 말인가!”<sup>14)</sup>

김준엽은 이러한 생각과 소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974년 박정희 대통령이 통일원 장관을 맡아달라고 제의했을 때 이를 고사했다. 고려대 총장직 사퇴 이후 노태우, 김영삼 대통령이 국무총리로 모시려고 했지만, “대학교수 중 누구 한 사람이라도 고위 관직을 거절해야 수천 명 대학교수들이 긍지를 가지고 진리탐구와 연구에 평생을 바치지 않겠는가”라고 하면서 모두 고사하였다. 특히 노태우 대통령과의 두 번의 만남은 권력을 초개같이 생각하는 김준엽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남음이 있다. 이러한 고위 관직을 여러 차례 고사한 김준엽의 유연하면서도 꺾끗한 모습을 보면 “부귀도 그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지 못하고, 빈천도 그 지조를 변하게 하지 못하며, 위세나 무력도 그 뜻을 꺾지 못하니 가히 대장부라 하겠노라”<sup>15)</sup>고 했던 맹자의 말씀을 떠올리게 한다. 김준엽이 독재정권에 의해 부득불 사퇴하게 되자 고려대학교 학생들은 “총장사퇴 반대 데모”를 일으켰고 김준엽은 생전에 국무총리 이상의 명예와 존경을 국민들로부터 받았다.

## 6. 나가며

김준엽 선생은 2000년 7월 11일 중국교육부에서 수여하는 “중국어언문화우의상(中國語言文化友誼獎)”을 받은 바 있지만, 중국 학술계의 태두였던 계선림(季羨林,

14) 김준엽, 앞의 책, 2001, 259-265쪽.

15) 富貴不能淫，貧賤不能移，威武不能屈，此之謂大丈夫。《孟子·滕文公下》

1911-2009)선생은 『백범일지』 중국어판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80년대 양통방과의 관계를 통해 그의 은사이며 한국의 대교육가, 원 고려대학교 총장 김준엽 박사를 알게 되었다. 김박사는 열정적이고 순박하고 부드럽고 정직한 분인데 그 어떤 방면으로 보아도 동방의 최고 윤리 도덕의 표준에 도달한 분이였다. 우리는 첫 대면에서 옛 친구와 같이 친해졌는데 이런 상황은 내 인생에서 극히 드문 일이다.”<sup>16)</sup>

김준엽의 『장정』은 김준엽 자신의 일기와 탁월한 기억력에 기초하고 있고 작가 자신이 중국 근세사와 한국독립운동사 전문가이니 만치 20세기 전반기의 세계정세, 일본의 침략과 항일독립투쟁이라는 동아시아 격변기의 상황들, 중국 국공 양당의 관계와 중국의 인문, 지리, 세대 등을 소상히 깔면서 민족의 해방과 조국의 독립을 위해 용감하게 싸운 김준엽이라는 젊은 선각자의 일대기를 그렸을 뿐만 아니라 광복 이후에서 21세기 초에 이르는 시공간 속에서 “한국 최고 학자이며 행정가”인 김준엽의 학원 자율화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헌신적인 노력, 비정한 권력과의 고투와 투철한 선비정신을 그리고 있어 그야말로 “체험의 한국 현대사” 또는 “개인사와 전체사”<sup>17)</sup>를 아우르는 명작으로 되었다고 하겠다.

회고록을 망라한 전기(傳記)적 작품의 가치는 그 전주(傳主)의 가치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도 대과(大過)는 없다고 하겠는데, 김준엽은 약관의 20대 초반에 민족과 조국의 운명을 두 어깨에 짊어지고 학병탈출 1호로 되는 선택과 결단을 했으며 중경에서 김구, 조소앙, 지청천, 이범석 등 당대의 최고 민족지도자들을 일일이 찾아가 가르침을 받고 민족의 미래와 자신의 진로에 대해 심사숙고하였으며 광복하자마자 초지를 잃지 않고 학자의 외길을 걸어 큰 업적을 남겼다. 그는 고려대학교 아시아문제연구소 소장, 고려대학교 총장 등 보직을 맡고 학문의 독립과 학원의 자율화를 지키기 위해 독재정권과 싸웠으며 “무직 시절”에 높은 벼슬의 유혹을 여러 번이나 물리치면서 인생의 장정을 계속함으로써 한국 국민은 더 말할 것 없고 아시아 내지는 세계 여러 나라 지식인들의 보편적인 존경을 받았다. 특히, 역사의 신을 믿고 진리와 정의와 선을 지켜 평생 싸운 그의 도덕적 힘과 지혜, 인간적 매력은 자라나는 세대들의 영원한 귀감으로 되리라 생각한다.

## 참고문헌

- 김준엽, 『장정1: 나의 광복군 시절』 상권, 나남출판, 2003.  
김준엽, 『장정2: 나의 광복군 시절』 하권, 나남출판, 2003.  
김준엽, 『장정3: 나의 대학총장 시절』, 나남출판, 1990.  
김준엽, 『장정5: 다시 대륙으로』, 나남출판, 2001.

16) 宣德五, 張明惠譯, 《百凡逸志》, 韓國民主與建設出版社, 1994.

17) 박명림, 앞의 책, 2003, 781-798쪽.

박명림, 「김준엽 “장정” 전 5권 완간에 부쳐」, 石源華, 金俊焯 共編, 《申圭植, 闵弼鎬와 韓中關係》, 나남출판, 2003.

사회과학원, 『김준엽과 중국』, 나남출판, 2012.

장준하, 『돌베개』, 세계사, 2004.

宣德五, 張明惠譯, 《百凡逸志》, 韓國民主與建設出版社, 1994.

## 자유 발표 세션 1

시간	일정 및 발표주제		사회 및 발표/토론	
10:00-10:35	자유 발표1  305호	중국어 교육에서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 사례 연구-개인 맞춤형 교육을 중심으로-	발표 이서이 한용수* (동국대)	진잉지 Jin YingJi (조지 메이슨대)
10:35-11:10		한중 반기대 표지 '하필'과 '偏偏'의 양태의미 대조 연구 (韩汉语反预期标记“하필”与“偏偏”的情态语义对比研究)	발표 단청총* (중국 상해외대)	
11:10-11:45		중국 조선어의 어휘 규범화 사업에 대한 소고	발표 유환일(성균관대) 토론 최력홍(연세대)	
11:45-12:30		중화권 한국어 학습자의 자기조절학습 동기와 전략 -유튜브의 한국어 공부법 소개 영상을 중심으로-	발표 최지영(이화여대) 토론 페브리아니 (인도네시아 가마마다대 Gadjah Mada)	

\*=Zoom 참여





# 중국어 교육에서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 사례 연구

## -개인 맞춤형 교육을 중심으로-

이서이\*·한용수(동국대)\*\*

### 1. 서론

본 연구에서는 중국어 교육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을 개인 맞춤형 교육 사례를 중심으로 알아보고 이와 관련하여 향후 AI 시대 중국어 교육의 변화를 예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이 사회 각 분야에서 매우 빠르고 밀접하게 확대되고 있다. 교육에서의 인공지능(AI in Education, 이하 AIED)은 크게 인공지능 이해 교육, 인공지능 활용 교육, 인공지능 가치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sup>1)</sup> 본고에서는 AIED의 3가지 유형 가운데 인공지능 활용 교육, 그중에서도 'AI 활용 교과 교육'에 중점을 두고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어 교육을 포함하여 각 교과교육에서 인공지능 기술에 기대하는 큰 목표 중 하나는 바로 개인 맞춤형 교육의 시행이다. 교과의 특성을 막론하고 가장 이상적인 교육은 교수자가 학습자 개인의 적성 및 상황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확인한 뒤에 새로운 지식을 완벽하게 습득한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다. 특히 중국어 교육의 경우 성조를 포함한 발음 교육과 한자 쓰기 등에 있어 학습자들에게 세심한 교육이 필요한데 개인 교습이 아니고서야 현실적으로 이러한 교육은 시행되기 어려웠다. 그러나 교육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사람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교수-학습법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희망을 품게 했다. 인공지능 기반 교육의 주요 목적 또한 맞춤형 학습으로<sup>2)</sup> 이것은 세계 각국의 AI 관련 정책에서도 드러난다.

미국과 중국은 AI 인재 양성 및 관련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매년 전 세계 최고의 에듀테크 박람회 중 하나인 BETT Show<sup>3)</sup>를 개최하고, 에듀테크 분야에 선도에 있는 영국의 경우, 2019년 'EdTech Frame Work for Change'를 통해 학교 교육에서 AI 기술과 에듀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교사와 학생에게 교수-학습활동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는 비전을 제안하였다.<sup>4)</sup> 국내에서 또한 이러한 세계의 흐름에 따라 각 시도 교육청과 LG CNS, NAVER 등 민간 기업이 협력하여 개인 맞춤형 교육을 목표로 하는 등 AI 관련 정책들을 발표하고 추진하고 있다.<sup>5)</sup>

\*동국대학교-서울, 중국어학전공 박사과정

\*\*동국대학교-서울, 중어중문학과 교수

1) 먼저 인공지능 이해 교육은 인공지능의 개념과 원리, 알고리즘, 머신러닝 등 AI와 관련된 전반적인 소양 교육의 영역으로 AI 리터러시 교육이라 부르기도 한다. 인공지능 활용 교육은 인공지능 기술을 교과교육의 교수-학습활동 전반에서 활용하는 'AI 활용 교과교육', STEAM 교육과 같은 'AI 융합 교육' 그리고 학습 모니터링 및 평가에 활용되는 'AI 교육 행정관리'로 세분화할 수 있다. 인공지능 가치교육은 인공지능 윤리 및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교육 영역이다.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공학과, 『미래사회를 위한 교육의 방법과 테크놀로지』, 파주: 교육과학사, 2021, pp.370-371.

2) 정대홍 외 20인, 『인공지능 시대, 교사가 만드는 미래학교』, 파주: 교육과학사, 2022, p35.

3) 전세계 교육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Bett Show(British Educational Training and Technology)는 세계 최대 에듀테크 전시회로 매년 상반기에 개최된다.

4) 홍선주·최인선, 「학교 교육에서 인공지능(AI)의 개념 및 활용」, 『KICE POSITION PAPER』, 12(3),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0, p3.

중국어 교육에 있어 AIED 관련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아직 많지 않다. 먼저, 중국의 대외 한어 교육(對外汉语教育) 관점에서 王乐(2020)<sup>6)</sup>는 인공지능 기술과 교육의 결합이 중국어 교육에 있어 고도화된 학습, 전공 커리큘럼 연계, 스마트클래스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AIED의 장점으로는 교사 부족 문제해결, 교사의 행정 업무 경감, 그리고 교사 개인이 하기 어려운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을 제시하였고, 한계점으로는 교육 자료의 획일화 문제, 사회적 교류의 약화, 정서 교류 부족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외에도 발음 교육, 말하기 교육, 어법교육, 한자 교육, 쓰기 교육 등 다양한 하위시스템으로 스마트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교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해당 선행연구는 이미 잘 알려진 AIED의 장단점 및 특징을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와 달리 Dan Wang(2022)<sup>7)</sup>은 AI를 활용한 중국어 교육의 효과를 알아보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선행연구에서는 학생들에게 적합한 지능 교수 방식을 제안하고 시행한 연구 결과 AI 교실 수업에서 중국어 교육을 수행하고 학습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AIED에서의 중국어 교수 모델이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더 효과적으로 지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앞의 선행연구는 모두 중국어 교육의 특성을 고려한 국외 AIED 연구로 의의가 있다. 그러나 AI 기술을 활용한 교육 행정 시스템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본고의 AI 활용 교과 교육 사례 연구와 차이를 가진다.

국내의 경우, 한희정·정유선(2019)<sup>8)</sup>의 기계번역 기술을 활용한 판매 중국어 교육 연구, 고권태·이효영(2020)<sup>9)</sup>의 챗봇을 활용한 중국어 교육 연구, 그리고 이서이·한용수(2022)<sup>10)</sup>의 챗봇, 인공지능 스피커, ITS 등 AIED 보조 도구를 활용한 중국어 교육 연구가 있다. 이 밖에 AIED를 주제로 한 선행 연구의 대부분은 인공지능 이해 교육과 관련이 있으며 교과 교육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을 연구한 선행연구로는 물리 교육, 과학교육, 수학교육 등 주로 이과계열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에 대하여 언급한 논문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한 교육(AI Based Education, 이하 AIBE)은 에듀테크 산업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연구 분야에서는 아직 활발히 다뤄지지 않고 있다. 이것이 본고에서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는 이유이다. 본 연구의 방법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 개인 맞춤형 중국어 교육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 3장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중국어 교육을 이해한다. 끝으로 4장에서는 AIBE 중국어 교육에서 고려해야 할 점을 연구의 결론으로 제시하고 마무리 한다.

5) 서울시교육청 교육혁신과, 『AI 기반 융합 혁신미래교육 중장기 발전 계획』, 2021.02.09.

<https://enews.sen.go.kr/news/view.do?bbsSn=170640>

6) 王乐, 「“人工智能 + 教育”背景下对外汉语教学探析」, 『武陵学刊』, 45(4), 湖南文理学院, 2020, pp.136-142.

7) Wang, D, 「Intelligent Teaching Mode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Lecture Notes in Electrical Engineering*, vol.895, 2022, pp.1132-1140.

8) 한희정·정유선, 「인공지능 통번역프로그램을 활용한 판매중국어 교육방안 탐색」, 『중국어문논역총간』, 44, 중국어문논역학회, 2019, pp.351-375.

9) 고권태·이효영, 「인공지능 챗봇의 중국어 교육 활용 방안 탐색」, 『중국어학』, 72, 대한중국어학회, 2020, pp.215-233.

10) 이서이·한용수, 「중국어 교육에서 AIED 보조 도구의 활용 가능성 탐구-챗봇, 인공지능 스피커, ITS를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76, 한중인문학회, 2022, pp.89-114.

## 2. 개인 맞춤형 중국어 교육

개인 맞춤형 교육(Personalized education)은 AIBE의 궁극적인 목표로 학습 격차 문제의 완화뿐만 아니라 다양성이 존중되는 현대 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는 정책으로 2025년도부터 전면 고교학점제 이행계획을 발표하였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해당 과목의 이수 기준에 도달했을 때 학점을 취득 및 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로 정책 키워드에 ‘맞춤 교육’ 또한 포함되어 있다.<sup>11)</sup> 대학의 경우 더욱 세밀하게 맞춤형 교육에 접근하고 있는데 ‘나노 디그리(Nano degree)<sup>12)</sup>, ‘마이크로 디그리(Micro degree)<sup>13)</sup> 등의 제도를 예로 들 수 있다.<sup>14)</sup> 이렇게 중·고등 교육에서 개인 맞춤형 교육이 확대실시되는 경우 학생을 지도 및 관리할 수 있는 AIED는 사회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자리 잡을 것이다. 그러나 관련 기술이 중·고등 교육과정의 정밀한 맞춤형 교육까지 도달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어와 같은 어학 교육의 관점에서 현실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AIBE 개인 맞춤형 교육은 ‘수준별 맞춤형 교육’과 ‘주제별 맞춤형 교육’이 있다. 현재 시중에 개발되어있는 대부분의 AIBE 맞춤형 교육은 수준별 맞춤형 교육이 어느 정도 가능한 상황이고 주제별 맞춤형 교육 사례는 많지 않다. 그 이유는 AIBE 교육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량의 데이터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주제별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는 데이터의 범주를 설정하는 문제와 복잡한 알고리즘 등 수준별 맞춤형 교육에 비해 고려해야 할 문제들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현재 중국어 교육 분야에서 우세한 것은 수준별 맞춤형 교육 AIBE 플랫폼이다.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량의 데이터가 확보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교과 과정이 확실하고 단계별로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국내외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튀이드의 ‘산타 토익’은 TOEIC 영어시험 교육과정을 토대로 AIBE를 시행하고 있다. 중국어 교육에서 이와 같은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 대표적인 교과 과정은 바로 HSK(汉语水平考试)이다. 그리고 실제 AI 기반 중국어 교육 플랫폼들을 살펴본 결과 HSK 교수-학습을 목적으로 한 AIBE 플랫폼이 가장 고도화되어 있고 수량도 많았다.

주제별 맞춤형 교육은 수요자의 필요와 적성에 따라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것으로 수준별 맞춤형 교육보다 더욱 복잡한 기술을 필요로 한다. 교육 외적 영역에서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아래 [그림 1]과 같이 뉴스 플랫폼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언론사 및 뉴스를 구성하는 것, 쇼핑 플랫폼에서 소비자의 구매기록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물건을 추천하는 것, 그리고 임의로 취향에 맞는 음악을 추천하는 것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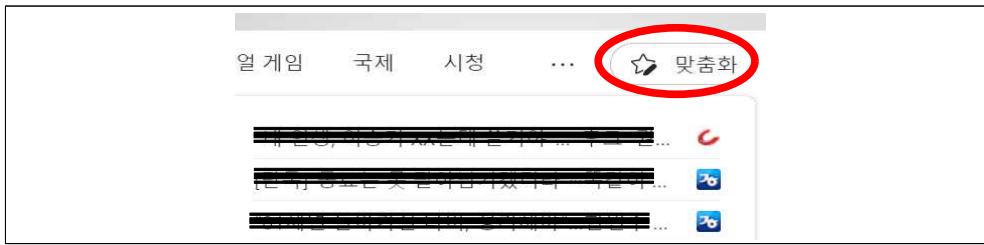
11) 고교학점제 홈페이지. <https://www.hscredit.kr/>

12) 학생의 수요에 따라 희망하는 분야의 교육과정의 교과목을 0.5~1학점 단위로 교육모듈을 조합하여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과정이다.

13)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수요를 고려한 창의·융합형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10학점이상 15학점 이하로 구성된 모듈형 교육과정이다.

14) 동국대학교 교육혁신센터 홈페이지.

[https://dei.dongguk.edu/dk2\\_2\\_4?sca=%EC%9D%B8%EA%B3%B5%EC%A7%80%EB%8A%A5%EC%B2%A0%ED%95%](https://dei.dongguk.edu/dk2_2_4?sca=%EC%9D%B8%EA%B3%B5%EC%A7%80%EB%8A%A5%EC%B2%A0%ED%95%99)



[그림 1] 사용자에게 따라 '맞춤화'할 수 있는 뉴스 플랫폼

중국어 교육에서 주제별 맞춤형 교육의 필요성은 한희정·정유선(2019)의 선행연구에서도 언급된 바가 있다. 그러나 중국어 교육 관련 교수-학습 플랫폼을 살펴보면 주제별 중국어 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플랫폼은 많지 않다. 현재 중국어 교육에서 개인 맞춤형 교육은 HSK 시험, 기초 중국어 학습, TV 드라마, 웹툰으로 중국어 배우기 등 학습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사용자가 그 플랫폼을 선택하도록 하거나, 다양한 주제의 교육 콘텐츠를 제시하고 학습자에게 원하는 주제를 직접 선택하도록 하는 형태이다. 다음 3장에서는 중국어 교육에서의 AIBE 맞춤형 플랫폼 가운데 HSK 교수-학습 플랫폼 사례를 소개를 통해 관련 내용을 더욱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다.

### 3. AIBE 맞춤형 중국어 교육 플랫폼 사례

본 연구에서는 AIBE 맞춤형 중국어 교육 플랫폼을 2022년도 6월부터 11월까지 모바일 또는 태블릿 PC를 인터페이스로 하는 한국에서 다운로드 가능한 상위 중국어 학습 플랫폼을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중국어 교수-학습 플랫폼으로는 '범 주제형 플랫폼', 'HSK 시험 목적형 플랫폼', '생활 중국어 플랫폼'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sup>15)</sup> 이 가운데 맞춤형 교육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HSK 시험 목적형 플랫폼을 중심으로 사례를 살펴보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볼 개인 맞춤형 중국어 교육 플랫폼은 'Learn Chinese'이다.<sup>16)</sup> Learn Chinese의 AI 중국어 교육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째, 진단평가 후 맞춤형 커리큘럼 제안, 둘째, 교과 과정 학습, 셋째, 학습 평가, 넷째, HSK 모의고사이다. 먼저 대부분의 AIBE 플랫폼은 가장 먼저 학습자에게 CAT(Computerized Adaptive Testing) 진단평가를 시행하여 학습자의 현재 학습 수준을 평가한다. Learn Chinese는 평가 항목, 평가 시간, 결과 전달의 측면에서 우수하였는데 아래 [그림 2]는 플랫폼의 진단평가 화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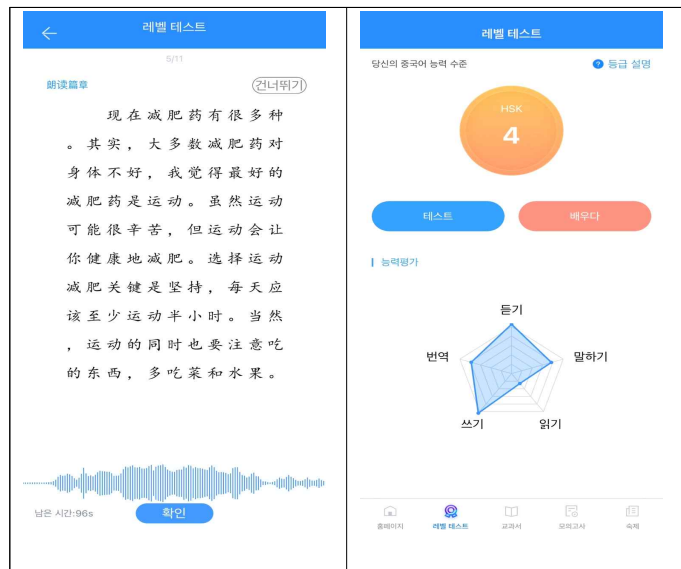
15) 본고에서 다루지 못한 AIBE 중국어 교육 플랫폼 가운데 살펴볼 만한 플랫폼을 추천하자면 범주제형 플랫폼으로 'Hello Chinese, 中语智汇, Duolingo', HSK 시험 목적형 플랫폼으로 'Super Test, Super Chinese', 생활 중국어 플랫폼으로 'Du Chinese, 보라구 중국어, M Mandarin 웹툰 중국어' 등이 있다.

16) Learn Chinese는 중국 山东科讯信息科技有限公司가 서비스하는 HSK 교수-학습 플랫폼으로 山东科讯信息科技有限公司은 2019년 11월에 설립된 IT 회사이다. 바이두, [https://baike.baidu.com/item/%E5%B1%B1%E4%B8%9C%E7%A7%91%E8%AE%AF%E4%BF%A1%E6%81%AF%E7%A7%91%E6%8A%80%E6%9C%89%E9%99%90%E5%85%AC%E5%8F%B8/24550934?bk\\_tashuoStyle=topLeft&bk\\_share=shoubai&bk\\_sharefr=lemma&fr=shoubai](https://baike.baidu.com/item/%E5%B1%B1%E4%B8%9C%E7%A7%91%E8%AE%AF%E4%BF%A1%E6%81%AF%E7%A7%91%E6%8A%80%E6%9C%89%E9%99%90%E5%85%AC%E5%8F%B8/24550934?bk_tashuoStyle=topLeft&bk_share=shoubai&bk_sharefr=lemma&fr=shoubai)



[그림 2] Learn Chinese의 진단평가 화면<sup>1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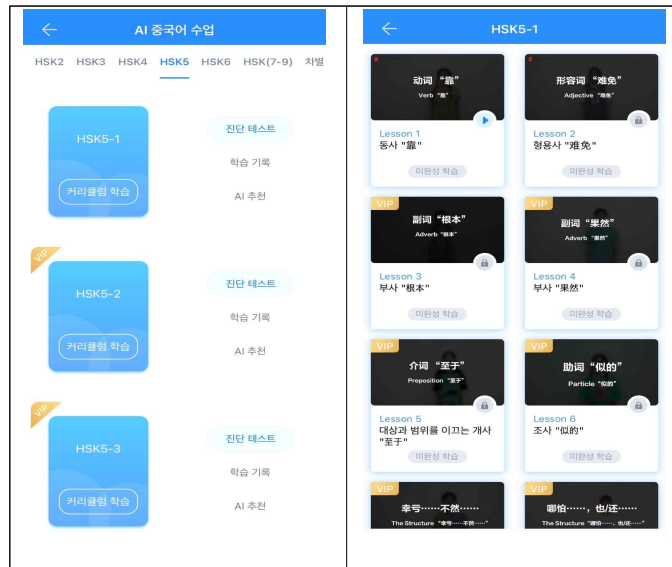
Learn Chinese는 HSK 지필고사 외에 HSKK와 YCT 과정을 지원한다. 진단평가는 처음 플랫폼 사용 시 시행되는데 이때 읽기와 말하기 영역의 평가도 함께 시행된다. 아래 [그림 3]은 말하기 영역 진단평가 화면이다. 모든 진단평가를 마치면 다음 [그림 3]과 같이 학습자의 현재 학습 수준을 HSK 급수 수준을 기준으로 제시한다. 그 외 각 영역의 수준을 그래픽으로 보여준다.



[그림 3] Learn Chinese의 읽기 말하기 진단평가 및 평가 결과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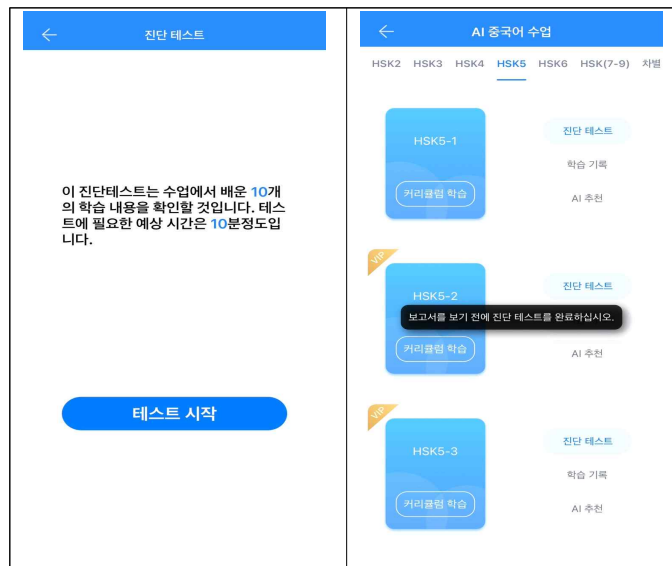
평가를 마치고 나면 플랫폼은 아래 [그림 4]와 같이 진단평가 결과에 따라 사용자의 수준에 맞는 AI 중국어 수업 커리큘럼을 제안한다.

17) 왼쪽부터 듣기, 어법, 독해, 쓰기 영역 순서이며 HSK 시험과 비슷한 유형의 문제로 평가를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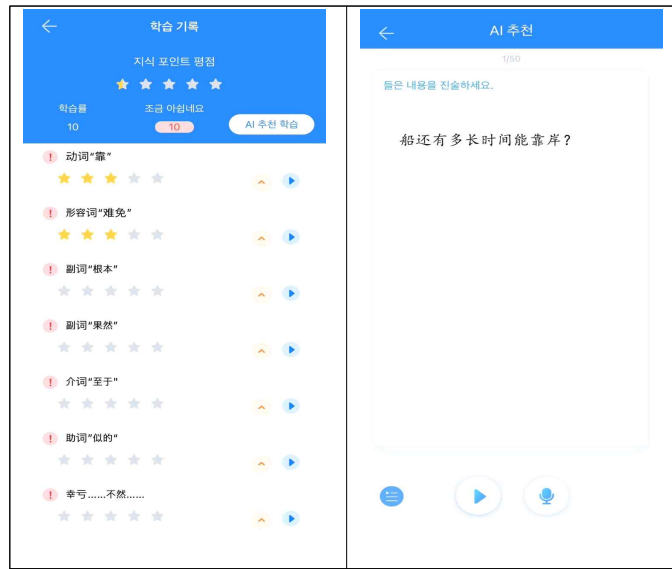
[그림 4] Learn Chinese의 맞춤형 커리큘럼 제안 및 학습 자료 화면

앞서 [그림 3]에서 진단평가 결과 사용자의 학습 수준이 HSK 4급 수준이기에 플랫폼은 사용자에게 HSK 5급 수준의 커리큘럼을 제안하고 있다. HSK 5급 수업을 예로 들면 플랫폼에서 제시하고 있는 5급 수업은 5-1에서 5-6까지 총 6개의 대주제 수업이 있고 각 대주제 아래에는 10개의 동영상 강의를 탑재되어 있다. 동영상 강의는 약 3~5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1의 경우 '개사 '至于'의 용법', '哪怕....., 也/还.....'의 사용법' 등의 강의를 제공한다.



[그림 5] Learn Chinese의 진단 테스트 및 기타 관리 화면

수업을 모두 수강하고 난 뒤, 또는 수강을 완료하지 않더라도 [그림 5]와 같이 학습한 내용에 대한 진단 테스트를 시행할 수 있다.



[그림 6] Learn Chinese의 진단 테스트 평가 결과 및 AI 추천 학습 화면

진단 테스트는 수강한 내용과 관련이 있으며 총 5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제를 모두 풀고 나면 학습 기록 데이터가 제공된다. 각 문항은 별점으로 평가되며 사용자가 해당 문항과 관련된 동영상을 바로 보고 복습할 수 있도록 항목 오른쪽에 플레이 버튼이 있다. 학습 기록을 모두 살펴보고 난 뒤 학습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AI 추천 학습을 시행한다. 만약 진단 테스트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학습 기록과 AI 추천 학습은 실행이 불가능하다. 학습을 마친 후에는 매일 매일 학습을 유도하는 메일 또는 알림을 통해 사용자가 지속해서 자기 주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플랫폼이 사용자를 관리한다.<sup>18)</sup>

이러한 AIBE 맞춤형 학습은 확실히 콘텐츠 제공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규칙 기반 학습 플랫폼과는 다른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은 학습자에게 딱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므로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다. 또한, 학습한 내용을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평가와 피드백이 수치로 바로 제공되어 학습자의 몰입도를 높여준다. 마지막으로 알림 메시지, 문자, 메일 등을 통해 학습자를 관리하여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중국어 교육 플랫폼과 다르다. 이러한 AIBE 중국어 교육 플랫폼 사례를 통해 다음 결론에서는 AI 시대 중국어 교육에서 고려해야 할 점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 4. 결론

본 연구는 중국어 교육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개인 맞춤형 교육을 HSK 시험 목적형 플랫폼인 'Learn Chinese'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AIBE의 궁극적인 목표는 학습자 개인 맞춤형 교육으로 중국어 교육의 관점에서 맞춤형 교육은 수준별 맞춤형 교육과 주제별 맞춤형 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 모바일 또는 태블릿 PC를 인터페이스로 하는 중국어 교수-학습 플랫폼은 다음 3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하나, 범 주제형 플랫폼, 둘, HSK 시험

18) 여기에서 다루지 않았으나 Super Test라는 APP의 경우, 사용자에게 원하는 일일 학습시간(10분~20분), 주간 학습 목표일(1~7일), 학습시간(아침, 점심, 저녁)을 설정하도록 하여 맞춤형 학습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목적형 플랫폼, 셋, 생활 중국어 플랫폼이다. 이 가운데 중국어 교육에서 AIBE 맞춤형 교육이 가장 근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플랫폼은 HSK 시험 목적형 플랫폼이다.

HSK 시험 목적형 플랫폼은 다음 4가지 단계를 통해 학습이 이루어진다. 첫째, 진단평가 후 맞춤형 커리큘럼 제안, 둘째, 교과 과정 학습, 셋째, 학습 평가 및 피드백, 넷째, HSK 모의고사이다. AIBE 맞춤형 중국어 교육은 기존의 중국어 교수-학습 플랫폼과는 달리 매우 정밀화된 교육과정을 제안하고 효과적이고 즉각적인 학습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이러한 AIBE 맞춤형 중국어 교육 플랫폼을 통해 알 수 있는 향후 AIBE 중국어 교육 시대에 고려되어야 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야 한다. AIBE의 기본은 데이터다. 기존의 e-러닝에서는 학습 자료의 디지털화만으로 교수 활동이 가능했다면 AIBE는 학습자의 상황을 즉각적으로 파악해야 다음 수업이 진행되므로 학습의 모든 과정이 디지털화되어야 한다. 둘째,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이 필요하다. AIBE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습자도, 교수자도 모두 스마트 기기 조작 능력은 기본이고, 학생과 자신의 학습 데이터를 읽고 분석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셋째, AI 융합 교수-학습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향후 AI 기술이 교수자와 학습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AI가 모든 교수-학습활동을 대체할 수는 없다. 그것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하는가는 인간의 몫이다.

기계번역 등 AI 기술이 점차 고도화됨에 따라 최근 ‘인간에게 외국어 학습이 필요한가’에 관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AIED가 향후 교사의 역할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종종 나온다. 그러나 이것은 AIED를 완전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염려이며 보다 많은 연구자가 이러한 기술을 실제로 활용하고 부딪혀 보면서 AI가 해내지 못하는 부분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보완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향후 중국어 교육계에서 AIED에 지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관련 후속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 ◆ 參考文獻

- 고권태·이효영, 「인공지능 챗봇의 중국어 교육 활용 방안 탐색」, 『중국학』, 72, 대한중국학회, 2020.
- 이서이·한용수, 「중국어 교육에서 AIED 보조 도구의 활용 가능성 탐구-챗봇, 인공지능 스피커, ITS를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76, 한중인문학회, 2022.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공학과, 『미래사회를 위한 교육의 방법과 테크놀로지』, 파주: 교육과학사, 2021
- 정대홍 외 20인, 『인공지능 시대, 교사가 만드는 미래학교』, 파주: 교육과학사, 2022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형성평가 체제 도입. 2, 온라인 문항관리시스템 개발』,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5.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학교 교육에서 인공지능(AD)의 개념 및 활용』, 진천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0.
- 한희정·정유선, 「인공지능 통번역프로그램을 활용한 판매중국어 교육방안 탐색」, 『중국어문논역총간』, 44, 중국어문논역학회, 2019.
- 王乐, 「“人工智能 + 教育”背景下对外汉语教学探析」, 『武陵学刊』, 45(4), 湖南文理学院, 2020, pp.136-142.



Holmes, W., Bialik, M., & Fadel, C., *Artificial Intelligence in Education: Promises and Implications for Teaching and Learning*, Boston, MA: Center for Curriculum Redesign, 2019.  
Wang, D, 「Intelligent Teaching Mode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Lecture Notes in Electrical Engineering*, vol.895, 2022, pp.1132-1140.

고교학점제 홈페이지. <https://www.hscredit.kr/>

동국대학교 교육혁신센터 홈페이지. [https://dei.dongguk.edu/dk2\\_2\\_4?sca=%EC%9D%B8%EA%B3%B5%EC%A7%80%EB%8A%A5%EC%B2%A0%ED%95%99](https://dei.dongguk.edu/dk2_2_4?sca=%EC%9D%B8%EA%B3%B5%EC%A7%80%EB%8A%A5%EC%B2%A0%ED%95%99)

서울시교육청 교육혁신과, 『AI 기반 융합 혁신미래교육 중장기 발전 계획』

<https://enews.sen.go.kr/news/view.do?bbsSn=170640>

山东科讯信息科技有限公司, 百度,

[https://baike.baidu.com/item/%E5%B1%B1%E4%B8%9C%E7%A7%91%E8%AE%AF%E4%BF%A1%E6%81%AF%E7%A7%91%E6%8A%80%E6%9C%89%E9%99%90%E5%85%AC%E5%8F%B8/24550934?bk\\_tashuoStyle=topLeft&bk\\_share=shoubai&bk\\_sharefr=lemma&fr=shoubai](https://baike.baidu.com/item/%E5%B1%B1%E4%B8%9C%E7%A7%91%E8%AE%AF%E4%BF%A1%E6%81%AF%E7%A7%91%E6%8A%80%E6%9C%89%E9%99%90%E5%85%AC%E5%8F%B8/24550934?bk_tashuoStyle=topLeft&bk_share=shoubai&bk_sharefr=lemma&fr=shoubai)

## 토론문: 중국어 교육에서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 사례 연구

### -개인 맞춤형 교육을 중심으로-

토론자: 전공(국민대학교)

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 전공입니다.

선생님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의 발표를 통해 이 논문의 연구 목적은 중국어 교육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향후 중국어 교육의 변화를 예측하는 것이며, 아울러 이 논문을 통해 중국어와 같은 어학 교육의 관점에서 현실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교육에서의 인공지능(AIBE) 개인 맞춤형 교육은 수준별 맞춤형 교육과 주제별 맞춤형 교육이 있고, 현재 시중에 개발되어있는 대부분의 AIBE 맞춤형 교육은 수준별 맞춤형 교육이 어느 정도 가능한 상황이고 주제별 맞춤형 교육 사례는 많지 않다는 것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 논문에서 실험을 통해 AIBE 플랫폼을 활용한 후에 어떤 학습효과가 일어났는지를 아직 다루고 있지 않으나, 앞으로 연구해야 할 시급한 문제이고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발표문의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했던 몇 가지를 여쭙는 것으로 토론의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 질문(1)

선생님께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교육(AI Based Education, AIBE) 사례들을 자세하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그중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HSK 시험 목적형 플랫폼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질문(2)

이 논문에서 AIBE 중국어 맞춤형 교육의 교수 모델을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교수 모델은 어떤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중국어 교육성과가 뚜렷하게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한중 반기대 표지 '하필'과 '偏偏'의 양태 의미 유형 대조 연구

단청총(单淸丛) \*

## <目 录>

1. 문제의 제기
2. 선행연구
3. 한중 반기대 표지 '하필'과 '偏偏'의 양태 의미 유형
4. 한중 반기대 표지 '하필'과 '偏偏'의 양태 실현 수단
5. 한중 반기대 표지 '하필'과 '偏偏'의 양태 통제 특징
6. 맺음말

## 1. 문제의 제기

한국어 부사 '하필'과 중국어 부사 '偏偏'은 비교적 전형적 반기대 표지이다. 전기(前期) 연구 과정에서 우리는 양자의 반기대 의미유형과 양자의 공시적 차원의 전환 관계를 분석하였으나, 양자는 화자의 강한 주관적 감정 태도를 표현하는 평가 부사로서 각각 다른 언어에서 교제(交际) 주체가 다른 양태 의미유형을 나타내며, 나아가 화자의 인지적 차원의 차이를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다. 본고는 주로 전기 연구의 기초 위에 한중 반기대 표지 '하필'과 '偏偏'의 양태 의미를 대조 분석하고자 한다. 본고는 주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첫째, 한중 반기대 표지 '하필'과 '偏偏'은 어떤 양태 의미 유형이 있는가?

둘째, 한중 반기대 표지 '하필'과 '偏偏'의 양태 실현은 어떤 문법적 수단을 이용하는가?

셋째, 한중 반기대 표지 '하필'과 '偏偏'은 양태 통제 면에 어떤 특징이 있는가?

## 2. 선행연구

한국어 학계는 '하필(何必)'에 대한 연구는 주로 '하필'이 초점 연산자로서의 기능에 집중된다. 최규련(1999, 2005)에 따르면 '하필'은 초점값 외에 선택 대상 후보도 특정 범위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배타적인 초점이라고 제기했다. 김한결(2019)은 초점의 제약을 받는 성분이 다른 성분보다 선호도가 낮다고 하며, '하필'의 수식을 받는 체언 성분은 화자의 '부적합', '불만'이라는 부정 가치 감정을 나타낸다고 제기했다. 또한, 그는 통시적으로 '하필'의 발전 과정을 분석했다. '하필'과 "何必"는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구별이 있다. 중세 한국어 '하필'의 구문 구성은 현대 한국어 '하필'과 다르다. '하필'은 19세기, '하필이면'은 20세기 중엽에 나타난다. 15세기 중세 한국어 '하필'은 '하'와 '필'이 양분된 구문 형식으로 나타난다. 16세기 중세 한국어 '하필'의 언해에서 '엇데'은 '엇디'로, '구티여'은 '반드시'로 발전된다. 룡팅팅(2013)은 한중 쌍방향 대조의 관점에서 "何必"의 한국어 대응 표현 및 '하필'의 중국어 대응 표현을 분석했지만, 구체적 논의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한국어 학계는 '하필'에 대한 전문 연구는 비교적 적고 기존 연구는 주로 초점 기능에 대한 논의에 집중된다.

중국어 학계는 "偏偏"에 대한 연구는 풍부하지만 '偏偏'의 양태 의미에 대한 전문 연구는 많

\* 上海外国语大学 亚非语言文学 博士研究生. shanqingcong@163.com

지 않다. (张道生2000, 范伟 2009, 石定栩、周蜜、姚瑶2017, 殷思源、袁毓琳2021, 陈振宇、王梦颖2021) "偏偏"의 양태에 대한 연구는 주로 '偏'과 '偏偏'의 분별을 다루는 경우에 양자의 양태 유형이나 문장에서 다른 동사와의 결합 양상을 분석한다. 石定栩、周蜜 (2019)는 '偏'과 '偏偏'을 구분할 때 '偏偏'은 화자 부사로 간주하여 서술어를 수식하는 형용사로 작용하지 않고 절 명제를 설명하는 '고위 술어(高谓语句)'로 보고 생성 문법으로 보면 '偏偏'의 위치는 양태동사, 부정성분, 시간 부사어, 방식 부사어 위에 있다. 그러나 구체적 분석 과정에서 대부분 '偏'의 양태, 즉 주어의 강한 의지를 표현한다는 것에 집중된다. '偏'은 의미 차원에서 대부분 의미 양태 표현과 어긋나지만 '偏偏'의 양태 특징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范伟 (2009)는 '偏偏'을 평가양태로 분류하여 즉 화자는 이미 알려진 명제에 대한 어떤 관점이나 태도를 표현한다. '偏偏' 문장의 명제는 기성(既成) 사실이며, 화자의 예측이나 판단이 아니고 화자의 태도와 평가를 나타낸다. 선행연구의 '偏偏'의 양태 특징을 보면 '偏偏'은 강한 주관적 평가 특징이 강하지만 모든 양태 유형과 결합하는 것이 아니다.

### 3. 한중 반기대 표지 '하필'과 '偏偏'의 양태 의미 유형

한중 반기대 표지 '하필'과 '偏偏'은 화자의 감정 태도를 반영하는 평가 부사로, 그 자체가 화자의 풍부한 감정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관련 감정 태도는 양태 의미 표현 면에 투사(投射)하면 다른 분포 특징이 나타나고 양태 표현과 반기대 표지 자체 간에 어떤 제약이 있는 경우도 있다. 우리는 주로 말뭉치의 언어 자료를 이용하여 '하필'과 '偏偏'의 양태 의미 표현을 대조 분석한다. 한국어 반기대 표지 '하필'은 그 자체로 의문성이 강한 표현으로, 이에 대응하는 한자어는 '何必'이지만, 중국어 반기대 표지 '偏偏'에 대응하는 한국어 표현 중 빈도가 가장 높은 표현이다. '하필'은 그 자체가 의문 속성을 지니기 때문에 양태 의미에 차이가 있음을 결정한다.

#### 3.1 한국어 반기대 표지 '하필'의 양태 의미

##### 【인식양태】

- (1) 해숙은 왜 **하필** 이 녀석하고 부부가 되었을까. <출처: 포구>
- (2) 물론 부모마다 "왜 **하필** 내 자식만 공부를 못할까?"라는 말을 하지만 모든 사람이 공부를 잘해서 전부 박사가 된다면 농사는 누가 지을 것이고 옷은 누가 만들 것이며 집은 누가 지을 것인가. <출처: 월간 에세이>
- (3) 아버지는 왜 **하필** 장우근을 이리로 끌고 와서 죽였을까. <출처: 포구>
- (4) 왜 **하필** 그녀는 죽기 전 차이코프스키였을까? <출처: 살아 남은 자의 슬픔>

위의 예문에 한국어 반기대 표지 '하필'이 있는 문장에서 화자의 주관적 감정 태도나 의문을 나타내는 어미 '-(으)ㄹ까'가 자주 나타나는데, 화자의 의문, 이해하지 못하는 인식 양태를 담고 있다. 예문(1)에는 화자는 '해숙'과 '이 녀석'이 부부가 되는 것에 대해 예상치 못한 감정을 가진다. 즉, 화자에게 '해숙'은 '이 녀석'과 부부가 되지 않아야 하는데 현실에 이루어졌다는 반기대 의미가 담긴다. 예문(2)-예문(4)는 예문(1)과 유사하게 화자의 이해하지 못하는 인지 감정 태도를 지닌다. 예문(2)-예문(4)는 각각 '내 자식도 공부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내 자식만 공부를 못한다'고 말하고, 화자는 '장우근을 죽이기'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

지만, 동작주체는 화자의 기대나 의지와 다른 선택이나 행동을 하고, '그녀는 죽기 전 차이코 프스키의 곡을 선택하다'는 것은 화자에게 불필요하거나 예상 밖의 표현일 수 있다. 위의 예문들은 모두 화자의 강한 인지 정서를 담고 있으며, '하필'은 보통 '왜 하필'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며, 이는 화자의 의문 어기(语气)를 강화한다.

### 【동적양태】

(5) 하필 우리 집 현관에 불이 붙어 도저히 밖으로 나갈 수 없을 때 베란다는 하나의 피난 통로가 될 수 있다. <출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

(6) 하필 가장 최악했을 때 맞게 된 석유 위기는 그것이 아무리 가벼운 파동이라도 우리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출처: 조선일보, 사설(90)>

(7) 왜 하필 그런 사람이라고 묻는다면 말할 수 없었지만, 우연히 그를 보는 순간 그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출처: 한평 구휼의 안식>

(8) 따라서, 비결을 숨겨놓되 기왕에 풀려 있는 귓구멍이나 콧구멍이 아니고 하필 배꼽인 것은 그만큼 깊은 뜻을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출처: 강좌, 민족문학>

위의 예문에서 한국어 반기대 표지 '하필'은 가능 또는 능력을 표현하는 어미 '-(으)ㄴ 수 있다/없다'와 공기하는데, 이는 '하필'이 있는 절에서 발생하는 상황이 관련 사건의 발생을 초래하여 영향을 끼쳤으며, 관련 영향은 보통 가능이나 능력을 표현하는 어미 '-(으)ㄴ 수 있다/없다'로 표현한다. 또는 그 전후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다. 예문(5)에서 '하필'이 소재하는 절 '집 현관에 불이 붙다'와 '나갈 수 없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하필'은 화자가 현재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 예상치 못하거나 불만스러운 태도를 가지고 있다. 화자가 원래 '현관에 불이 붙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불이 붙어야 할 장소'는 따로 있어야 한다는 예상과 객관적 현실 사이에 불일치를 나타낸다. 예문(6)-예문(8)에서 '하필'은 동적 양태 표현 '-(으)ㄴ 수 있다/없다' 등과 공기하여 화자가 객관 현실에 일어나는 일들은 '가장 최악했을 때 석유 위기가 일어난다.',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다.', '배꼽이 풀리다.'에 대해 예상하지 못하고 반기대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그들은 각각 '타격을 준다.', '말할 수 없다.', '깊은 뜻을 갖다.'의 실현 원인이다.

### 【의무양태】

(9) 수위가 하필 환갑이 넘은 늙은 남자여서 문을 열게 하는 데 그는 죽을 힘을 다 써야 했다. <출처: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10) 왜 세계에 많은 나라 중에 하필 이 나라만이 고난이 심하며 기독교만이 고난을 겪어야 하나. <출처: 역사와 민족(3/3)>

(11) 그렇다면 왜 하필 파수꾼이어야 하는가. <출처: 연극속의 세상읽기>

위의 예문에서 한국어 반기대 표지 '하필'은 의무 양태를 표현하는 '-아/어/여야 하다'과 공기할 수 있으며, '하필'이 소재하는 절은 주로 화자의 기대와 어긋나는 것을 나타낸다. 예문(9)-예문(11)의 '수위가 보통 청년이어야 하는데 사실 늙은 남자이다.', '이 나라만 고난이 심하다.', '하필 파수꾼이다.' 등 예문들의 반기대 특징은 내부 차이가 나타나지만 반기대 표현 방면에서 일치성을 가진다. 관련 표현들은 의무 양태를 표현하는 '-아/어/여야 하다'와 공기 가능하다. 특히 예문(11)은 비교적 전형적 표현으로서 이 문장은 중국어로 직접 표현하여 '为

什么何必应该/必须是守望者' 이런 문장은 성립하기가 어렵고, 특히 '偏偏'은 의무 양태 표현과 동시에 성립하기가 어렵지만, 한국어에서는 '하필'은 의무 양태 표현과 공기 가능하다.

### 3.2 중국어 반기대 표지 '偏偏'의 양태 의미

#### 【인식양태】

(12) 如果大家都像叶海斌一家那样,做到路见不平,挺身而出,偏偏要管他人瓦上霜",那么,歹徒们也就不敢那么肆无忌惮了。(BCC语料库)

(13) 他说:"那定义--可是经典著作里面也没有根据呀!'经典著作里面没有根据,那么,可以不成立了罢?但是,偏偏一定还要成立,这是创造性。(BCC语料库)

(14) 七百年过去了,明朝的徐光后偏偏不信,他要试一试,便在南方种下芜菁,几年后并未变成白菜。(BCC语料库)

(15) 如果实践已证明那是一条康庄大道,后人偏偏不愿走,非得再辟新途,就不是一种理性的态度。(BCC语料库)

위의 예문 중 '偏偏'이라는 반기대 표지가 있는 문장에서 의지를 표현하는 능원 동사 '要'、'(不)相信'、'(不)愿意'가 화자나 동작주체의 주관적 인식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예문(12)에서 "偏偏要管他人瓦上霜"는 동작주체의 행동이 상식적인 예상에 어긋나는 반기대 집요(执拗) 의미를 표현한다. 이 문장의 '偏偏'과 '要'는 동작주체의 강한 주관적 의지와 감정을 지닌다. 즉, 일반적 사회 규칙을 무시하고 무조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집요 의미를 담고 있다. 예문(13)은 예문(12)와 유사하지만 예문(13)의 동작주체는 상대적 잠재적으로 나타나며, 잠재적 동작주체는 "定义成立"에 대해 강한 주관성을 갖는다. 예문(14), (15)의 "不相信"、"不愿"는 동작주체의 강한 주관적 인식양태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각각 【偏偏不信】、【偏偏不愿】의 형태로 나타난다. 즉, 객관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동작주체의 의미와 거리가 멀다는 것을 나타내며, 이들은 전형적 반기대 인식양태 표현들이다. 여기서 간단히 설명해야 하는 것은 예문(14), (15)와 예문(12), (13)은 약간 다른 점이 있다. 예문(14), (15)는 동작주체가 믿거나 믿지 않거나 원하거나 원하지 않는 심리 상태를 강조하며, 예문(12), (13)의 '要'는 심리 상태 외에 동작주체의 주관적 감정이 강하며, 즉 동작주체는 진행하려는 행동이 어떤 상식이나 기대에 어긋나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여전히 강한 집요한 태도를 가지고 일을 한다.

#### 【동적양태】

(16) 就拿我来说吧,学了好几年"勾股定理",偏偏不会计算斜面长度。(BCC语料库)

(17) 譬如说,"孔斜现象",这是钻探上一个直接影响质量的问题,为什么别人都能预防,而偏偏三十九号钻机做不到呢?(BCC语料库)

(18) 可是,厄瓜多尔政府和人民偏偏不买它的账,同它来一个针锋相对:你停止"军援",我就要你的"军事使团"滚蛋。(BCC语料库)

(19) 现在工厂的一切,都还是党委说了算,而多数党委成员偏偏不懂生产。(BCC语料库)

위의 예문에서 반기대 표지 '偏偏'이 있는 문장에 능력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들인 "会/不会"、"做到/做不到"、"买/不买"등이 자주 나타난다. 예문(16)에 "偏偏不会计算斜面长度"는 반기대 의미도 분석할 수 있고 반기대 의미도 분석하지 않을 수 있다. 반기대 의미로 분석하는 경우,

여기서 화자의 기대와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 상식이나 청자의 기대와 어긋나는 것이어야 하며, 반기대 의미로 분석하지 않으면 즉 화자의 주관적 유감, 어쩔 수 없는 태도를 나타낸다. 예문(17)은 예문(16)과 유사하게 "做不到"는 동적 양태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화자, 청자, 일반 상식에 어긋나는 반기대 의미로 분석할 수 있지만, "做不到"의 주체인 "三十九号钻机" 그 자체가 비생명체로서 집요하고 강한 주관적 의지 의미로 분석할 수 없다. 예문(18)에 "不买"는 동적 양태이며 "偏偏不买"는 표현 주체 "厄瓜多尔政府和人民"는 의도적 집요한 의미를 가지고 상식 기대, 타자 기대와 어긋나는 것을 표현한다. 예문(19)에 "不懂"도 동적 양태 표현이며 "偏偏不懂"는 동작주체의 기대와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 상식 기대, 타자 기대와 어긋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어 '하필'과 다르게 관련 언어자료에 "偏偏" 뒤에 의무 양태와 공기하는 예문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偏偏"과 "应", "应该"가 공기하지 못하는 것은 의무양태 의미는 상식기대에 부합하는 의미가 함의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습기대' 의미는 "偏偏"이 함의되는 반기대 속성, 심지어 '일부러 한다'는 의미와 어긋난다. 이에 따라 "偏偏"이 의무양태 표현들과 공기하지 못하는 것은 '천연적' 모순 조건을 지닌다.

#### 4. 한중 반기대 표지 '하필'과 '偏偏'의 양태 실현 수단

한중 반기대 표지 '하필'과 "偏偏"은 다른 양태 유형들과 공기하면 다른 특징이 나타난다. 양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의무 양태에 대한 허가 양상에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양자가 인식 양태와 동적 양태 표현에 있어서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는 주로 한중 관련 표현들은 모두 인식 양태와 동적 양태를 나타내는 경우 각각 어떤 문법적 수단을 채택하는지를 관찰한다.

##### 4.1 한국어 반기대 표지 '하필'의 양태 실현

한국어 '하필'은 반기대 표지로서 "偏偏"과 비교적 큰 차이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여전히 한 자어로 "何必"의 반문 속성을 유지한다. 이러한 반문 속성은 화자의 의문, 질의 태도 및 화자가 전달하기 원하는 잠재적 부정 정보를 함의한다. 비록 '하필'은 잠재적으로 반문, 부정을 내포하지만, 구체적 인식 양태, 동적 양태 표현 과정에서 이러한 내포되는 의미 특징은 문장에서 현저한 문법 수단으로 표현한다. 예문은 다음과 같다.

##### 【인식양태】

(20) 무엇이 하필 20세기 초반에 작가들로 하여금 원초적 혼돈의 세계를 꿈꾸게 한 것일까.  
<출처: 푸른 장미를 찾아서>

(21) 또 어떻게 하다 하필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이 시궁창에 빠지게 된 것일까. <출처: 작은 어릿광대의 꿈>

(22)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 '문화'인가? <출처: (퓨전시대의) 새로운 문화 읽기>

(23) 왜 하필 이 돌머리 연안에다가 하고 있는 것인가. <출처: 포구>

위의 예문에서 반기대 표지 '하필'은 항상 의문을 표현하는 어미들과 공기하는데, 예를 들어 예문(20), (21)의 '-(으)니까?', 예문(22), (23)의 '-(으)니까?'는 모두 강한 반문 어기를 지니고

'하필'은 의문 종결어미들과 공기하는 예문들이다. 이러한 표현들은 화자의 의심, 질의, 심지어 불만을 표현한다. 예문(20), (21)의 '작가들로 하여금 원초적 혼돈의 세계를 꿈꾸게 한다.', '어떻게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시궁창에 빠지게 된 것일까?'에 대한 의문, 불만, 심지어 불평에 대한 인지 감정을 가진다. 마찬가지로 예문(22), (23)의 '하필'은 의문을 표현하는 '-(으)니까?'와 공기하여 화자가 '왜 지금 문화인가?', '왜 이 돌머미 연안에다가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실제로 화자가 객관 현실에 대한 부정, 불만 태도를 표현한다.

### 【동적양태】

한국어 반기대 표지 '하필'은 동적 양태를 나타내는 경우에도 어미 형태, 예를 들면, '-(으)르 수 있다/없다' 등으로 표현한다. 이러한 표현들은 전형적 동적 양태 표현 수단으로서, 구체적 예문은 다음과 같다.

(24) 이들은 "하필 이 시기에 여론 재판식으로 PD들을 단죄하는 것에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면서 검찰의 이번 수사를 '제작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출처: 동아일보, 칼럼(90)>

(25) 하필 우리 집 현관에 불이 붙어 도저히 밖으로 나갈 수 없을 때 베란다는 하나의 피난 통로가 될 수 있다. <출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

(26) 하필 가장 최악했을 때 맞게 된 석유 위기는 그것이 아무리 가벼운 파동이라도 우리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출처: 조선일보, 사설(90)>

(27) 왜 하필 그런 사람이라고 묻는다면 말할 수 없었지만, 우연히 그를 보는 순간 그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출처: 한평 구휼의 안식>

위의 예문에 반기대 표지 '하필'은 능력을 표현하는 '-(으)르 수 있다/없다'와 공기한다. 일반적으로 '하필' 그 자체가 의문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그 자체는 잠재적 부정, 불만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에 부정 속성을 지니는 '-(으)르 수 없다'가 자주 문말에 나타난다. 비록 '하필'은 '-(으)르 수 없다'와 같은 절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지만 '하필'이 소재하는 절은 보통 화자가 어떤 소극적 감정을 갖게 되는 원인을 나타내는데, 이러한 소극적 원인은 보통 이를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동적 양태 문법 수단 '-(으)르 수 없다'와 자주 공기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문(24)에 '이 시기'가 바람직하지 않은 특별한 시기이며, 그 뒤에 부정을 표현하는 '떨칠 수 없다'는 것이다. 예문(25)에 '하필 현관에 불이 붙다.'가 '나갈 수 없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예문(26)에 '가장 최악했을 때 맞게 된 석유 위기'가 소극적 의미를 지니는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사이에, 예문(27)에 '그런 사람'이 '말할 수 없다.'는 사이에 현저적이거나 잠재적인 인과관계가 있다. 예문에는 '하필'은 동적 양태 표현 '-(으)르 수 있다/없다'와 공기하며, 이러한 동적 양태는 보통 소극적 의미가 강하고 선행절과 후행절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 4.2 중국어 반기대 표지 '偏偏'의 양태 실현

중국어 반기대 표지 "偏偏"은 보통 능원동사 "要"나 심리 동사 "(不)相信"、"(不)愿意", 능력을 표현하는 동사들 "(不)会"、"(不)懂" 또는 보어 수단으로 인식 양태나 동적 양태를 표현한다. 구체적 예문은 다음과 같다.



(28) 如果大家都像叶海斌一家那样,做到路见不平,挺身而出,偏偏要管他人瓦上霜",那么,歹徒们也就不敢那么肆无忌惮了。(BCC语料库)

(29) 经典著作里面没有根据,那么,可以不成立了罢?但是,偏偏一定还要成立,这是创造性。(BCC语料库)

(30) 谁料这次"草灰"们偏偏不愿再吃哑巴亏,就向县里告了维首和村长一状。(BCC语料库)

(31) 这家公司着急了,就在那项工程造价拍板定案的头天晚上,急忙派人想方设法找到尹淑珍的家。没想到,尹淑珍偏偏不领情。(BCC语料库)

위의 예문(28), (29)의 "偏偏"은 능원동사 "要"와 공기하여 "叶海斌管他人瓦上霜"의 강한 의지를 표현한다. 또는 동작주체(저자)가 이야기를 성립시키는 것은 강한 의지성(意志性)을 지닌다. 예문(30), (31)의 "偏偏"은 "(不)愿"、"(不)领情"와 공기하여 동작주체 "不愿再吃哑巴亏", "不愿领情"의 심리 의지를 표현한다. 즉, 중국어는 주로 주관 심리 동사로 인식 양태를 표현한다. 마찬가지로 중국어 "偏偏"은 동적 양태를 표현하는 경우에도 어휘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지만 보여 수단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구체적 예문은 다음과 같다.

(32)步兵全部意义的内涵或者基础在于走路,要能走,会走,在走的过程中去完成一切军人特有的动作。可是,申希宏偏偏不会"走",差点因那双"外八字"脚被刷掉,亏他哭着央求医生"我保证灭了这毛病",才通过新兵身体复检。(BCC语料库)

(33)转面一想,好家伙,这辆车你也敢拦!警察偏偏不买帐,扣住车辆不放行。(BCC语料库)

(34)譬如说,"孔斜现象",这是钻探上一个直接影响质量的问题,为什么别人都能预防,而偏偏三十九号钻机做不到呢?(BCC语料库)

(35)这样集中人力、物力干了一年,他满以为可以甩掉落后帽子了,谁知秋后一算,田里虽然增产了,可全县田、土产量一拉平,总产仍然上升不快。一股劲想把粮食搞上去,为什么偏偏上不去?(BCC语料库)

위의 예문(32), (33)에는 "偏偏"은 능력을 표현하는 어휘들 "(不)会"、"(不)买" 등과 공기하며 동적 양태를 표현한다. 특히 예문(32)의 "走"는 능력을 나타내는 어휘로 비교적 전형적 동적 양태 속성을 지닌다. 예문(34), (35)에는 "偏偏"은 보여 성분 "做不到", "上不去"와 공기하여 행동의 실현 여부 및 상황을 설명하여 동적 양태를 표현한다. 이렇게 보면 "偏偏"의 동적 양태 실현도 어휘 및 보여로 표현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偏偏"은 의무 양태와 의미적 모순이 있기 때문에 【偏偏应该】이러한 표현은 거의 성립되지 않는 반면에 한국어 '하필'은 의무 양태와 공기 가능하다.

## 5. 한중 반기대 표지 '하필'과 '偏偏'의 양태 통제 특징

이 부분은 한중 반기대 표지 '하필'과 "偏偏"의 양태 통제 범위 또는 관할 구역에 대해 대조를 다룬다. 양자는 양태 통제 방면에 차이가 나타난다.

(36) 해숙은 왜 하필 이 녀석하고 부부가 되었을까. <출처: 포구>

(37) 하필 우리 집 현관에 불이 붙어 도저히 밖으로 나갈 수 없을 때 배란다는 하나의 피난 통로가 될 수 있다. <출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

(38) 就拿我来说吧, 学了好几年"勾股定理", 偏偏不会计算斜面长度。( BCC语料库 )

(39) 譬如说, "孔斜现象", 这是钻探上一个直接影响质量的问题, 为什么别人都能预防, 而偏偏三十九号钻机做不到呢? ( BCC语料库 )

위의 예문들을 살펴보면, 한국어 반기대 표지 '하필'은 관련 양태 표현 사이의 통제 관할 거리가 비교적 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필' 자체가 평가부사로서 문장 첫머리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고 한국어 인식 양태, 동적 양태는 보통 어미 '-(으)르까', '-(으)르 수 있다/없다'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비록 '하필'은 어미 내용을 직접 통제하지 않을 수 있지만, 선행절과 후행절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는 경우가 많아 서로 간접적인 관할 관계가 있다. 예문(36)의 '하필'은 인식 양태를 표현하는 경우에 문말은 보통 의문을 표현하는 '-(으)르까'가 나타난다. 예문(37)의 '하필'은 동적 양태를 표현하는 경우에 보통 부정을 표현하는 '-(으)르 수 없다'와 공기하여 잠재적 부정을 표현한다. 중국어 "偏偏" 보통 능원 동사 "要", 심리 동사 "(不)相信"、"(不)愿意" 등 표현들의 관계가 비교적 가깝고 보통【偏偏要】【偏偏不会】이러한 형태로 나타난다. 다시 말하면, "偏偏"은 양태 표현에 대한 통제 거리가 비교적 가깝고 직접적이다. 일부 보어 성분과 "偏偏" 사이에 다른 분장 성분이 삽입될 수 있지만, 한국어 '하필'에 비해 통제 및 관할 거리가 비교적 가깝다. 예문(38)의 "偏偏"은 "不会"와 직접 인접하여 화자의 소극적이고 어쩔 수 없는 인식 양태를 나타낸다. 즉 "偏偏"은 "不会"를 직접 관할한다. 예문(39)의 "偏偏"은 보어 "做不到" 사이에 "三十九号钻机"이라는 문장 성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偏偏"은 "做不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6. 맺음말

본고는 주로 전기 연구를 바탕으로 한중 반기대 표지 '하필'과 "偏偏"의 양태 특징을 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어낸다.

첫째, 한중 반기대 표지 '하필'과 "偏偏"은 모두 인식 양태, 동적 양태를 표현할 수 있지만 의무 양태와 공기 가능한지에 큰 차이가 나타난다. 한국어 '하필'의 관련 언어자료에서 나타나는 비중은 의무 양태 표현은 인식 양태, 동적 양태에 비해 낮지만 '하필'은 의무 양태 표지 '-아/어/여야 하다'와 공기할 수 있다. 우리는 '하필' 자체가 대응하는 한자어는 반문 어기를 나타내는 "何必"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어 "偏偏"은 기대와 어긋나는 의미를 지니는 반면에 동적 양태의 기대에 부합하거나 기대대로 행동하는 의미와 모순되기 때문에 "偏偏"은 보통 "应该"와 공기하지 않는다.

둘째, 한중 반기대 표지 '하필'과 "偏偏"은 다른 양태 의미를 실현하는 경우에 다른 문법 수단으로 표현한다. 한국어 '하필'은 보통 '-(으)르까', '-(으)르 수 있다/없다' 등 어미들로 다른 양태 유형을 표현한다. 중국어 "偏偏"은 보통 능원동사, 심리 동사, 보어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셋째, 한중 반기대 표지 '하필'과 "偏偏"은 통제 및 관할 거리 면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한국어 '하필'은 양태 어미 표현들과의 통제 거리가 멀거나 비교적 간접적인 경향이 나타나며, 중국어 "偏偏"은 양태 어휘나 구, 절 사이의 통제 거리가 가깝거나 비교적 직접적인 경향이 나타난다.

**【설명】** 시간이 촉박하고 필자가 원어민 화자가 아니기 때문에 발표문에 문법 오류가 많으니 선생님께서 많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발표문은 주요 관점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 参考文献 >

- [1]강규영, 「한국어 어미 '-다니'의 세 가지 용법」, 『한국어 의미학』 제69집, 한국어의미학회, 2020.
- [2]김한결, 『체언 수식 부상의 역사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 [3]룡팅팅, 『한국 한자어 양태 부사의 통사·의미적 특성에 대한 한국어·중국어의 비교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4]박진호, 「한국어에서 증거성이나 의외성의 의미성분을 포함하는 문법요소」, 『언어와 정보 사회』 제15집,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2011.
- [5]송재목, 「의외성(mirative)에 대하여: 독립된 문법범주 설정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언어』 제41집, 한국언어학회, 2016.
- [6]이윤복, 『한국어 의외성을 나타내는 어미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SEP]
- [7]진관초, 「한국어 의외성 표지 '-다니'에 대한 연구」, 『한국어 의미학』 제54집, 한국어의미학회, 2016.
- [8]최규련, 「국어 초점사로서의 '곧, 꼭, 바로, 하필(이면 )'의 의미·기능」, 『연세어문학』 제30집,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9.
- [9]최규련, 『국어의 초점사 현상-의미와 기능 분석-』, 서울: 한국문화사, 2005.
- [10]陈振宇, 『"预期"范畴研究』, 复旦大学暑期FIST课程讲义, 2021.
- [11]陈振宇,王梦颖, 「预期的认知模型及有关类型--兼论与"竟然""偏偏"有关的一系列现象」, 『语言教学与研究』 05, 2021.
- [12]范伟, 「"偏"和"偏偏"的情态类型及主观性差异」, 『南京师大学报(社会科学版)』 05, 2009.
- [13]胡玉智, 『语气副词"偏"与"偏偏"的多角度考察』, 华中师范大学硕士学位论文, 2009.
- [14]陆方喆, 『现代汉语反预期标记研究』, 北京: 中国社会科学出版社, 2017.
- [15]强星娜, 「无定预期、特定预期与反预期情状的多维度考察--以"竟然""偏偏"等为例」, 『中国语文』 06, 2020.
- [16]石定栩,周蜜,姚瑶, 「评价副词与背景命题--"偏偏"的语义与句法特性」, 『外语教学与研究』 06, 2017.
- [17]童小娥, 「语气副词"偏偏"的意义及用法研究」, 『汉语应用语言学研究』 01, 2015.
- [18]吴福祥, 「试说"X 不比 Y"的语用功能」, 『中国语文』 03, 2004.
- [19]殷思源,袁毓林, 「"偏"和"偏偏"的语义分工探究」, 『汉语学习』 03, 2021.
- [20]张斌, 『现代汉语虚词词典』, 北京: 商务印书馆, 2001.
- [21]张谊生, 『现代汉语副词研究』, 上海: 学林出版社, 2000.
- [22]BCC语料库(<https://bcc.blcu.edu.cn/>)
- [23]꼬꼬마 세종 말뭉치(<http://kkma.snu.ac.kr/search>)

## < 국문초록 >

한국어 '하필'과 중국어 '偏偏'은 비교적 전형적 반기대 표지이다. 본고는 주로 양자의 양태

의미 유형에 대하여 초보적인 대조 분석을 진행한다. 우리는 주로 양자의 양태 의미 유형, 양태 실현 수단, 양태 통제(管控) 범위 이러한 세 가지 주요 방안을 분석하고자 한다. 대조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어낸다. 첫째, 양태 의미 유형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는 모두 인식 양태, 동적 양태를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 '하필'은 양태 의미 표현과 결합할 수 있는 반면에 중국어 '偏偏'은 양태 의미 표현과 결합할 수 없다. 둘째, 표현 수단에서는 한국어 '하필'은 양태 어미 '-(으)르까', '-(으)르 수 있다/없다', '-아/어/여야 하다'와 결합할 수 있는 반면에 중국어 '偏偏'은 주로 능원(能愿) 동사, 심리 동사 또는 보어(补语) 구를 통해 표현된다. 셋째, 양태 통제에서는 한국어 '하필'의 통제 거리가 비교적 멀고 간접적이며, 중국어 '偏偏'의 통제 거리는 비교적 가깝고 직접적이다.

키워드: 반기대표지, 하필, 偏偏, 양태, 기대범주

# 단청총 선생님의 「한중 반기대 표지 ‘하필’과 ‘偏偏’의 양태의미 대조 연구」에 대한 토론문

증무(경희대 공자학원)

本文以韩语副词“하필”和汉语副词“偏偏”为中心，将此类反预期标记词进行了具体的对比分析，阐述了韩汉之间诸多差异点。论文思路清晰，结构完整，立意上亦有出彩之处。在具体的分析环节，尤其是在选取论述对象进行对比时，其对应基准尚待进一步探讨。现提出以下几点拙见，以供参考。

1.论文在第一章整理了众多学者关于“偏偏”的研究成果。本文和之前学者的观点有什么不同之处，这一点也是本论文的核心和创新之处所在。论文的核心研究目的是什么，能在哪些方面（对比研究或语言教学）带来学术价值？

2.本论文的研究对象是“하필”和“偏偏”，那么论文将其进行对应的标准是什么？因为，“하필”和“偏偏”各自的语义翻译可见有多种义项，“偏偏”的韩文语义义项更是不在少数。而文中为何偏偏选择了“偏偏”这个义项呢？

论文在第3段开篇即提到，“한국어 반기대 표지 '하필'은 그 자체로 의문성이 강한 표현으로, 이에 대응하는 한자어는 '何必'이지만, 중국어 반기대 표지 '偏偏'에 대응하는 한국어 표현 중 빈도가 가장 높은 표현이다.”

这里提到“对应最多的是‘偏偏’”，这个观点是否是通过语料库得出的结论呢？如果是可以补充加以说明。

3.几处术语表达的相关疑问：

-第5章 통제 관할 거리 (管辖距离?)

是否有对应的中文术语？作者怎么理解？

-표현들의 관계가 비교적 가깝고 (各个表达之间的关系比较近?)

是否有对应的中文表达？作者怎么理解？

4.论文在结论部分指出：

- "偏偏"은 보통 "应该"와 공기하지 않는다.

-한중 반기대 표지 '하필'과 "偏偏"은 통제 및 관할 거리 면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此处结论视角新颖，对“하필”和“偏偏”的异同点进行了归纳总结。但本文从句法的角度，对两者的“공기관계(共起关系)”进行的探讨，是否具有共同的标准，是值得探讨的部分。即，能愿动词、补语等概念均为中文语法范畴，而“어미(语尾)”等概念属于韩语语法体系。韩语“하필”有其对应的语尾，而汉语“偏偏”则由补语等成分进行对应。文中在句法层面将两者进行对应、对比，这样进行的根据和标准是什么呢？希望得到进一步阐述和补充。

期待论文的最终完成，预祝一切顺利。

# 중국 조선어의 어휘규범화 사업에 대한 소고\*

-1950년대 '순결화 운동'의 의의를 돌아보며-

유 환 일 \*\*

##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1950년대 순결화 운동의 의의를 밝히면서 중국 조선어 '순화'의 필요성을 환기하는 데 있다. 이러한 작업은 '언어 대중'의 언어 사용 측면에서 민족 정체성 상실 문제의 해결을 위해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에 가치가 충분하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순결화 운동 속에서 나타나는 순화 인식과 정풍 운동 이후 등장한 규범화 이념을 밝히는 데 주력하여 다음 논의를 전개하였다. 첫째, 민족 정체성과의 관련성 속에서 순화가 갖는 필요성과 필연성 및 지속가능성에 대해 논했다. 둘째, 순결화 운동의 흐름에 따라 출현하는 순화 인식을 살피고, 정풍 운동의 등장 맥락을 고려한 규범화 출현 이후의 규범화 이념을 검토하면서 1950년대 중국 조선어 순결화 운동의 실질적 의의를 밝혔다. 이로부터 정풍 운동 이전, '소통의 원활화'를 목적으로 하고 '주체의 민중화'를 발전 방향으로 설정하는 등의 순화 인식이 출현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풍 운동 이후, 순화의 제 개념들이 표준으로서의 규범 층위로 이적되면서 순화가 '대중성'을 잃고 엘리트주의적 성격을 갖는 어휘규범화로 자리 잡게 되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기존어와 새말에 대한 어휘규범화 방식은 중국 조선어의 규범화 이념을 고유어 중심의 '보존'으로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다.

**주제어** 민족 정체성, 순화 정책, 규범화 정책, 말다듬기 사업, 어휘규범화

〈목차〉

1. 머리말
2. 순화의 필요성과 필연성 그리고 지속가능성
3. 순결화 운동의 전개와 규범화 출현
4. 마무리

\* 본고에서 논하는 중국 조선어(朝鮮語)는 중국 조선족(朝鮮族)이 사용하는 언어(한국어)로서, 한어(漢語)에 대한 용어로 사용할 것이다.

\*\* 성균관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연구원(박사과정 수료).

## 1. 머리말

2022년 9월 3일,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는 어언 창립 70주년을 맞이하였다. 조선족 최대 집거지로서의 연변조선족자치주가 갖는 민족적 지위를 고려하면, 예전과 달리 2022년 4월 26일에 공개한 70주년 홍보물에 한어를 위에 표기하고 그 아래에 조선어를 표기한 명문화된 점으로부터 그 위상과 역할이 확실히 축소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뒤이은 2022년 7월 25일에 ‘한어 우선 표기’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 조례인 《연변조선족자치주 조선어문 공작조례 세칙(延邊朝鮮族自治州朝鮮語文工作條例細則)》<sup>1)</sup>이 시행되었는데, 이는 한어 우선 표기의 정당성과 앞선 분석이 그르지 않다는 사실에 못을 박은 셈이다.

연변조선족자치주가 갖는 민족적 위상은 실질적으로 민족어로서의 조선어 사용, 그리고 이러한 민족어를 통한 교과 교육의 자율성으로부터 발현된다. 후자의 경우, 연변조선족자치주 내의 조선족 인구 비중 감소<sup>2)</sup>와 2000년대 초반부터 진행된 이중 언어 교습, 그리고 최근의 2020년 9월부터 연변조선족자치주를 포함한 동북 삼성 전역의 민족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사용하는 한어 병기 교재를 한어 교재로 바꾼 시점으로부터 민족 정체성 상실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뾰족한 대안이 없이 이중 언어 교습이라도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전부였다.<sup>3)</sup>

이런 흐름에서 이 글은 언어 사용의 측면에서 민족의 정체성을 이어 나갈 수 있게끔, 대중성을 망라하면서 능동적으로 민족어를 가꾸는 언어정책으로서의 순화에 대해 ‘다시’ 재고해볼 필요성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여기서 ‘다시’가 함의하는 바를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하나는 이전 시기에 조선어 순화 운동이 있었으나 지금은 사라졌다는 것, 다음으로는 현재 그것의 성격이 변하여 나아가야 할 본연의 방향에서 틀어졌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중국 조선어의 경우에는 후자에 속한다. 1950년대에 있었던 ‘순결화 운동’의 성과는 현재 ‘어휘규범화 원칙’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남한의 ‘국어 순화’ 또는 북한의 ‘말다듬기 운동’이 곧 중국 조선어에서의 ‘어휘규범화’라든지, 또 발전이라는 연결 고리로써 조선어 순결화 운동으로부터 체계를 갖춘 규범화 사업으로의 전환을 높게 평가하고 있지만,<sup>4)</sup> 순화와 표준으로서의 규범화를 발전이라는 시각으로 한데 꿰어 논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sup>5)</sup>

1) 1988년에 반포된 이래 2004년 및 2017년에 두 차례 개정된 바가 있고 2022년에 이르러 한어 우선 표기 조항을 포함한 세칙을 반포하였다. 다시 말해 ‘조선어 위주, 한어 병렬 표기 방식’에서 ‘한어 우선 표기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2) 《중화인민공화국 제7차 전국 인구조사(中華人民共和國第七次人口普查)》(2020)에 따르면, 연변조선족자치주 내 조선족 인구는 총 597,426명으로 전체 자치주 인구의 30.77%를 차지하였다. 《연변통계년감(延邊統計年鑑)》(2011)에 따르면 1952년 연변조선족자치주 창립 당시 조선족의 비중이 62.01%이었는데, 70년 동안 연변조선족자치주 내의 조선족 비중 감소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3) 대체로 강영덕(2004), 李得春(2012), 한성우(2014), 임형재·김효신(2015) 등 연구를 찾아볼 수 있다. 중화 문화라는 주체 문화로의 일체화를 목표로 이중 언어 교수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꾸준히 확보해 나가는 단계에 있고, 민족교육의 붕괴와 민족어 정체성의 위기가 초래되었으며, 민족어가 아닌 ‘외국어’로서의 교육으로 전환하지는 발달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중 언어 습득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있어 이견이 없었다. 또 첨예한 대립 관계로 보이는 ‘민족학교의 경쟁력 제고’와 ‘민족 정체성 확보’의 문제 역시 궁극적으로는 중국 조선어의 생존을 위한, 민족어로서의 교육적 측면에서 제안할 수 있는 대책이라는 점에서는 닮음이 없다.

4) 김영수(2018-: 9)에서는 “중국에서의 조선어 규범화사업은 자발적인 어휘순결화로부터 단계적인 어휘규범과 정부 주도하의 규범화사업으로 발전하였고 규범의 내용면에서는 단일한 어휘규범으로부터 발음법,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부호법을 망라한 체계적인 규범화사업으로 발전하였다”와 같이 주장하고 있는데, 순화의 독립적 기능과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한 어문 규범 중심의 발상에서는 합리적이다.

5) 민현식(2003: 33)에서는 “우리나라의 국어 정책의 역사를 개관할 때 크게는 국어 규범을 정립하기 위한 정책과 국어 순화를 실천해 온 정책이 2대 축을 이루어 왔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점을 보더라도 독립된 기능을 갖는 언어정책으로서의 순화가 갖는 중요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정경언(1986: 56)에서 순결화 사업이 규범화 사업과 뒤영겨 그 경계선이 모호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던 문제점은 지금까지도 유효하다.

인식의 문제만큼 심각한 것이 순화에 대한 학계의 부족한 관심이다. 김광수(2020)에서는 중국 소수민족 언어로서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간의 중국 조선어 연구들을 소개하고 이후의 과제와 전망을 검토하였으나, 정작 순화와 관련된 정책 연구는 없었다. 대신 어휘규범화 원칙을 가미(加味)한 서사(敍事)규범에 대한 소개가 전부였으며 그 성과는 다시 개편된 《조선말규범집》(2016)으로 이어졌다. 그도 그럴 것이 1957년부터 시작된 ‘정풍 운동(整風運動)’에 의해 ‘순결화론’은 당시 지방 민족주의 경향을 띤 주장이라 지적되어 용어조차 금기시되었었다. 그간 중국 조선어 어휘규범화 관련 논의가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순화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던 이유를 여기에서 찾을 수도 있겠다.<sup>6)</sup> 근 70년간 한어의 침입을 막고 또 30여 년간 외래어의 영향을 벗어나고자 따랐던 ‘어휘규범화 원칙’은 1950년대 순결화 운동의 결실과 별반 차이가 없는데, 애석하게 지금까지도 언어 사용의 문제점만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 역시 변함이 없다. “규범한 외래어라도 우리말로 표현할 수 있으면 우리말로 표현하고 우리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규범 하지 않는 외래어는 아예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류대식 2018: 76).”는 단면적으로 규범화에 대한 일방적이고 확고한 신념을 보여준다.

이상의 순화 인식과 규범화 이념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고 또 무엇보다 시급한 정체성 상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1950년대 순결화 운동의 전모를 파헤쳐 봐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민족 정체성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한국에서 진행됐던 순화 관련 논의를 빌려 순화의 개념과 필요성 그리고 방향성을 먼저 논할 것이다. 이어서 중국의 소수민족(언어)정책을 살펴보면서 순화 운동이 가능했던 전제와 영향 요소를 분석할 것이다. 3장에서는 1950년대 순결화 운동의 전개 양상을 살펴보고 그 속에 있는 순화 인식을 살펴보고 하겠다. 아울러 정풍 운동의 등장과 순결화 운동의 전환 맥락을 짚어보면서 그 결실로 이어지는 어휘규범화가 함의하고 있는 중국 조선어의 규범화 이념을 설명하고자 한다. 1950년대 순결화 운동의 의의를 밝히면서 중국 조선어의 순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재조명할 수 있다는 데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2. 순화의 필요성과 필연성 그리고 지속가능성

### 2.1. 언어정책으로서의 순화와 민족 정체성

언어정책으로서의 순화란 무엇인가? 상당히 고리타분한 질문이 아닐 수 없는데, 한국 학계에서는 순화의 방향과 대상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검토와 반성을 토대로, 지금까지도 활력을 잃지 않고 방대한 연구 성과물들을 산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어 순화는 한마디로 말하면, ‘고운말, 바른말, 쉬운말’을 가려 쓰는 운동이라 할 수 있다(허웅 1977: 143). 그러나 예컨대 ‘純化, 純粹化, 純潔化, 醇化, 淨化, 美化’처럼 용어의 채택이 혼란스러운 것은 물론, 여러 개념이 뒤섞여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개념과 용어의 문제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본고에서는 기본적으로 민현식(2003)에서 제시한 순화의 개념을 따른다.<sup>7)</sup>

6) 중국 조선어의 어휘규범화 연구는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어휘규범화 역사를 정리한 정경연(1986), 최윤갑(1996), 植田晃次(1996), 김기중(1990), 權寧俊(2000), 홍윤선(2003) 등이 대표적이다. 둘째는 외래어의 침입으로 인한 혼란스러운 언어 사용 실태를 다룬 김기중(2012), 태평무(2017, 2017-) 등이 있다.

7) 민현식(2003)에서는 순화의 사전적 해석과 정책적 논의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외 정책으로서 순화가 갖는 개념적 정의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허웅(1977)을 비롯해서 김민수(1975), 김석득(1979), 박갑수(1979), 김선철(2009) 등의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



(1) 국어 순화의 개념(민현식 2003: 37)

- 가. 우리말 쓰기 즉 국어화(國語化) 또는 모어화(母語化)의 방향: 외국 언어 표현을 국어(고유어, 한자어 및 외래어)로 고쳐 쓰는 일.
- 나. 바른 말 쓰기 즉 규범화(規範化)의 방향: 비 규범언어(비 표준어)를 규범 언어(표준어)로 고쳐 쓰는 일.
- 다. 쉬운 말 쓰기 즉 용이화(容易化)의 방향: 난해한 언어 표현을 쉬운 언어 표현으로 고쳐 쓰는 일.
- 라. 고운 말 쓰기 즉 우미화(優美化)의 방향: 비속한 언어 표현을 우아하고 아름답게 즉 우미(優美)하게 고쳐 쓰는 일.

그러나 순화가 애초부터 이렇게 잡다한 개념들로 정의되는 것은 아니었다. (1)과 인식은 국어 순화 운동이 성숙기로 진입하는 과도기에 생성된 것이다. 광복 직후의 초창기 국어 순화는 더 단일하고 강력한 목적을 두었는데, 그것은 바로 일제 잔재의 청산이라는 ‘순수성 회복’이었다.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인 순화어 제정을 위해 진행했던 ‘우리말 도로 찾기’가 그러했고, 이에 수록된 순화 943개의 대상어가 모두 일본어였던 점은 초창기의 순화가 국어 회복 차원에서 이뤄진 운동이자 정책이었음을 말해준다(허재영 2015: 254).

현재의 관점에서 순수성이라는 것이 모호하고 주관적이며 계몽주의적이라는 평가는 지극히 당연하다.<sup>8)</sup> 외래어를 사용하지 않는 언어는 없고 순수성이라는 자체는 지극히 이상적인 상태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일방적인 믿음과 방법론적 접근으로 인해, 한때 국립국어원이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새로운 순화어는 언어 공동체의 비판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었고 학문적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었다.<sup>9)</sup> 그런데도 순화어의 정착률을 높이고 현행 순화 자료집의 개선을 위한 분석 연구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대체로 이러한 연구에서는 순화 대상 선정의 합리성, 순화어와 순화 대상어 간의 의미 동일성, 사회언어학적 특징, 의미투명성 떨어트리기 전략과 같은 표현 욕구 상의 특징 등을 두루 고려해야 한다고 피력하고 있다.<sup>10)</sup>

또 최근에는 순화의 정치성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고, 쉬운 말을 만들어냄으로써 소통과 발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게끔 ‘주체 민주화’의 시각으로도 접근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sup>11)</sup> 나아가 현재의 순화가 지속해서 진행될 수 있게끔, 일제 강점기에 침입한 일본어에 대한 거부감을 동력으로 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내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를 수정하고 사용 영역을 ‘공공 언어 부분’으로 한정하자는 견해가 수용되고 있다.<sup>12)</sup> 언어정책으로서 순화가 포함하고 있는 ‘쉬운 말’에 주목해서 의사소통의 원활화, 즉 ‘소통성 제고’를 목적으로 참여

8) 유재원(2005: 10)에서는 들어온 말과 외국어를 잡스러운 것으로 보는 견해는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으로 모든 들어온 말과 외국어가 다 이 범주에 속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하였다.

9) 이흥식(2007)에서 진행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내지 못했다(38.9%)”, “순화어가 외래어보다 부자연스럽다(32.2%)”, “순화어가 외래어보다 이해하기 어렵다(15.2%)”와 같이 부정적 인식을 살펴볼 수 있다. 남기심(2003: 10)에서는 언어 순화라는 것이 정통 언어학에서 있을 수 없고 말은 인위적으로 만들거나 바꿀 수 없을뿐더러 모든 언어 현상이 그저 객관적인 관찰과 고찰의 대상이라고 하였다.

10) 민현식(2002), 이정복(2003), 심지연(2006), 최형용(2012), 허재영(2015), 서혜진(2019) 등을 참고할 수 있다.

11) 조태린(2019)에서는 국어 순화와 언어 순수주의 개념을 비교하면서 국어 순화는 ‘기원적 순수성’, ‘규범적 정확성’을 갖기에 태생적으로 엘리트주의적 성격을 갖는 이데올로기적인 것이라고 하였다. 즉 순수성 여부를 판단 기준상의 자의성 그리고 바른 말의 기준 설정에서 모두 엘리트주의적 성격을 갖는다는 말이다. 그러나 김선철(2009), 민현식(2003)에서 범주화한 ‘쉬운 말 쓰기(용이화)’와 ‘고운 말 쓰기(우미화)’ 범주는 일반 언어 순수주의의 것보다는 넓은데, 특히 소통의 측면을 보여주는 ‘쉬운 말 쓰기(용이화)’는 순화 주체의 ‘민주화’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고 하였다.

12) 정희창(2015)에서는 국어 순화가 지속해서 진행할 새로운 동력을 찾아내는 것이 시급한 사안이라고 하면서, 의사소통의 원활화를 순화의 새로운 목적으로 제시하였다. 이어 정희창(2020)에서는 생산자와 수혜자가 분명한 공공 언어 부문이야말로 순화의 정당성을 보장하고 실효성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이라 주장하고 있다.

‘주체의 민중화’를 순화의 방향으로 설정하여 순화를 계속 추진하여야 한다는 말이다. 이처럼 ‘쉬운 말’을 순화의 주요 방향으로 설정할 경우, 순화어는 순수 고유어로만 만들어져야 한다는 제약에서 벗어나 더 넓은 선택의 폭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명확한 이점이 있다.

순화의 개념 범위를 넓히고 이에 적합한 용어를 새로 만들며, 순화의 새로운 주체를 제안하고 또 순화의 목표와 방향을 비롯한 사용 영역까지 새롭게 탐구하면서까지 순화를 계속 진행하려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용어의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한 민족의 말이 곧 그 민족의 정신이고 존재 그 자체”라는 훔볼트(W. v. Humboldt: 1767~1835)의 언어관을 수용한다면, 민족의 말을 다듬는 것으로 민족의 정신을 바르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13)</sup> 그렇다면 순화란 곧 능동적으로 민족어를 가꿀 수 있는 민족의 특권이자 민족적 정체성을 영위하는 수단이다. 따라서 예전에 강요받았던 일본어는 순화의 대상이지만 자발적인 필요에 따라 수용한 일본어는 외래어일 뿐이다(정희창 2015: 93). 순화의 핵심은 민족어를 가꾸려는 능동성(activity)에 있고 능동적인 언어 가꾸기는 민족성(ethnicity)을 보장해 준다.

<표 1> 현시점에서 본 국어 순화의 제 요소들

의의	목적	방향
능동적인 언어 가꾸기를 통한 민족 정체성 응결	소통의 원활화	주체의 민중화

단일 민족 국가에서는 이러한 순화가 계류 같은 존재일지는 몰라도, 중국과 같은 다민족 국가에서 중국 조선어의 순화 운동은 민족주의를 지지하는 반동(反動)이 아니라<sup>14)</sup> 민족의 얼을 지키려는 능동적 방어 수단이자 선제적 보호 장치가 된다. 본고에서 수용하고 있는 순화의 개념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결코 민족어만 사용한다는 것이 아닐뿐더러 결코 그렇게 해서도 안 될 것임은 자명하다. 아울러 순화가 갖는 능동성에 주안점을 두어 ‘醇化(refinement)’라는 용어를 제안하고자 한다.

## 2.2. 중국의 언어정책과 조선어 순화 운동의 태동

앞서 국어 순화 정책의 개념과 방향을 참고로 언어정책으로의 순화가 갖는 필요성을 논했다. 아래에서는 중국에서 조선어 순화 운동이 가능했던,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가능하게끔 보호 장치로 작용하는 중국의 민족정책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중국 조선어 순화 운동의 배경을 살펴보겠다.

13) 최용기(2003)에서는 ‘민족정신의 확립, 민족문화의 발전, 사회의 정화, 국어의 개량 및 언어생활의 개선’이 바로 국어 순화의 네 가지 필요성임을 명시하고 있다. 민족정신의 확립이 우선되어야 발전이든 개량 또는 개선을 논할 수 있기에, 순화의 핵심이 민족정신을 아우르는 민족 정체성을 굳게 응결하는 수단으로 볼 수 있다.

14) 본고에서 논하고자 하는 정책으로서의 순화가 결코 순수주의(purism)나 국수주의(ultranationalism), 민족주의(nationalism)를 염두에 두는 ‘복벽주의’ 성격을 띤 용어나 개념, 이러한 주의(主義)를 주장하는 화두(話頭)가 아님을 밝힌다. 김민수(1985: 4-11)에서는 “민족주의가 제2차 대전의 종말과 함께 사라졌다고 하겠지만, 아직도 그러한 주의가 잔존하고 있다면 우선 도태되고 말 것”이라 밝히고 있다. 또 민족어의 장래는 초민족적 화해와 협동을 전제로 하여 개인의 존엄과 자유를 관용하는 가운데 자신의 문화적 전통을 올바르게 계승하며 진취적으로 발전시켜 나아가게 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 글 역시 이러한 태도를 취하고, 오로지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한 그루의 나무를 정성스럽게 심는다(김민수 1990: 6)”와 같은 심경으로 민족의식의 정립을 통해 민족적 이질성을 극복하면서 서로의 발전을 도모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민족성과 순화의 문제를 다룬 것일 뿐이다.

1949년 건립된 신중국은 다민족 통일국가로서 ‘중화민족다원일체론(中華民族多元一體格局)’ 즉, ‘중화민족’의 관념을 통해 한족을 중심으로 하는 55개 소수민족의 통합과 단결을 도모해왔다.<sup>15)</sup> 여기서 말하는 ‘중화민족’은 56개 민족(ethnic)의 실제적 총화로 더 높은 차원의 국가(nation)라는 관념에 대응한다. 따라서 각 민족의 통합은 곧 국가의 안정과 직결되기 때문에 국가와 민족을 향한 이러한 정치적 관념은 1954년에 처음 제정된 후 수차례 개정된 헌법<sup>16)</sup>에 명시되어 있고 민족정책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정치적 집행으로서의 민족정책 역시 ‘중화민족’ 관념으로부터 출발하여 그것의 기호학적 투영인 헌법으로 명문화된다.

(2)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4조(2018.03.11. 개정)

- 가. 중화인민공화국 ①각 민족은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국가는 각 소수민족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고, 각 민족의 평등·단결·상부상조·조화 관계를 수호하고 발전시킨다. 어떤 민족에 대한 차별 대우와 억압을 금지하고, ②민족 단결을 파괴하고 민족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나. ①각 소수민족이 거주하는 지방은 지방자치를 시행하며, 자치기관을 설립하고, 자치권을 행사한다. 각 민족이 자치하는 지방은 모두 중화인민공화국에게 불가분의 관계이다.<sup>17)</sup> ②각 민족은 모두 각자의 언어 및 문자를 사용하고 발전시킬 자유가 있으며, 각자의 풍속 및 습관을 유지하고 개혁할 자유가 있다.

따라서 중국의 민족정책은 (2가②)처럼 국가적 통합과 단결을 해치지 않는 것을 대전제로 하면서, (2가①)의 평등 원칙에 따라 (2나①)에 명시한 것처럼 소수민족의 언어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민족구역 자치정책을 기본 강령으로 (2나②)와 같은 소수민족 언어정책을 펼치고 있다. 평등 원칙이 통합과 단결을 위한 이념적인 전제라고 한다면, 민족구역 자치정책과 소수민족 언어정책은 통합과 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인 것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중국 소수민족은 중화민족을 구성하는 단위이면서 동시에 다른 민족과 구분되는 특징을 지닌 공동체로서 그 정체성을 형성해 왔다(최경봉·태평무 2011: 78).

이상의 논의를 통해 정책적 측면에서 명확해진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소수민족 언어정책은 통합과 단결을 함의하는 국가 안정을 대전제로 한다. 둘째, 민족어의 사용과 발전을 격려하는 소수민족 언어정책은 민족구역 지방자치를 통해 민족의 정체성을 형성해왔다. 중국 조선어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말인데, 이러한 역사적 배경 하에 중국 조선어 순화 운동의 전개는 필연적인 결과였고 그 태동은 1945년 일제가 패망한 직후부터 이미 시작되었다. 중국 조선어 순화 운동의 태동기는 민족어의 사용이 자유로워

15) 중국의 사회인류학자 費孝通이 1988년에 처음으로 제기하고 1999년에 체계화한 ‘중화민족’을 대변하는 개념으로 중국의 민족구조 그리고 치국 이데올로기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이다. 이러한 국가적 관념이 헌법에 명문화된 것은 물론이거니와 민족(언어)정책 전반에 적용되는 것으로 한어 보급 정책도 다를 바가 없다. 예컨대 민경만·김주아(2022)에서는 70년간 중국에서 실행한 언어정책들을 한자의 간화, 병음안(拼音)의 제정과 시행, 보통화(普通話)의 보급, 법제화, 데이터화 등으로 나눠 살펴보았다. 그 결과 중국 언어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일 언어사용의 수요 확대를 통해 한족을 중심으로 통일된 사회의 건설이었으며, 지난 70년간 언어정책의 선제적 활용을 통해 단일 언어 정체성 국가로 나아가는 기반을 확립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16) 본고에서 제시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은 대한민국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 가져온 것이다. 1954년에 제정되어 1982년, 1988년, 1993년, 1999년, 2004년, 2018년에 세부 내용이 개정되었다. 최초의 헌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1949년 9월 29일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1기 전원회의에서 표의 통과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공동강령》이 헌법 효력을 가졌다. 이 강령의 제9조에는 (2가①)의 내용을, 제51조에는 (2나①)의 내용을, 제53조에는 (2나②)의 내용을 담고 있다.

17) 헌법 121조는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이 직무를 집행할 때에는 소속 민족자치지방 자치조례의 규정에 따라 현지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한 종류 또는 몇 종류의 언어와 문자를 사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소수민족 지방자치 지역에서 소수민족 언어의 사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문제들을 지방자치 정책을 통해 보장하겠다는 말이다.

진 시점으로부터 중국 경내의 조선이민자들이 조선족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획득하고 민족구역 지방자치를 실시하기 시작한 1952년까지로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상의 주장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이때 순화 성립 조건으로서의 ‘규범으로서의 표준’, ‘활발한 언어 사용’ 등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나 북한과 마찬가지로 민족의식이 싹트고 민족어의 자율적 사용과 연구 그리고 말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할 표준은 순화의 전제로서, 중화민족의 틀에 귀속되기 전까지는 단일민족국가의 민족(ethnic) 언어 순화와 별반 차이가 없었다.<sup>18)</sup>

(3) 1948년 3월 31일 <길림일보> 발췌

革命者の生活은 一時一刻이라도 大衆과團結하고 教育 激勵 監督을받으며 人生의모든것을얻는다.

이 시기에 어문 규범은 기본적으로 1933년 조선어학회에서 제정하고 공표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따랐다. 1937년의 고친판과 1940년의 개정판 그리고 1946년의 일부 개정판을 거쳐 전체적인 틀을 유지하면서 문자 생활의 기준이 되었다. 북한에서 1948년에 제정하고 1950년에 공표한 《조선어신철자법》은 한반도와 마찬가지로 인정받지 못했고 널리 사용되지도 못했다. 또 표준어는 1936년에 조선어학회에 간행한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을, 사전은 1938년에 문세영이 편찬한 《조선어사전》을 준하였다. 따라서 규범적 측면에서 한반도의 그것과 다름없다. 또 (3)에서 보이는 한글과 한문(번체자)의 혼용 현상 역시 동시기 한반도의 그것과 차이가 없다. 언어 사용의 측면을 좀 더 살펴보면, 중국 경내의 동북 삼성에는 조선이민자들을 위한 방송국과 출판사, 민족 학교 및 조선어 연구단체들이 속속 등장했다. 또 조선어로 발간하는 신문, 잡지, 교과서 등을 통해 조선어의 전례 없는 활발한 사용 양상을 가늠할 수 있다.<sup>19)</sup> 이 시기가 종래의 중국 조선어의 규범화 연구에서 특별한 존재로 인식되지 못해 별도로 다루지 않았으나,<sup>20)</sup> 이 태동기를 빼놓고서는 중국 조선어 규범화 연구를 다루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언어정책을 다룸에 있어 법적 지위 문제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그 이전까지의 ‘소수민족’은 ‘소수의 민족(ethnic)’으로 법적 지위를 취득한 후 갖는 ‘중화민족’의 ‘민족(nation)’과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이다. 1952년 전까지는 중국 경내에서는 조선이민자들을 ‘滿洲高麗人’이나 ‘朝鮮人’ 혹은 ‘朝鮮民族’으로 불렀던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sup>21)</sup>

지금까지 검토한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적 측면에서 중국 조선어의 순화는 지방자치의 관할로서 그것의 전개 개연성이 충분했다. 둘째, 표준으로서의 어문 규범은 물론 활발한 민족어 사용이 보장되었는데, 이는 훗날 전개될 순화 운동의 출현할 수 있는 전제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다. 셋째, 정

18) 특히 1952년 전까지 중국에서 ‘한글’로 불리던 우리말이 1952년부터 ‘조선어’ 또는 ‘조선어문’으로 바뀌었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연변교육출판사에서는 우리말을 가르치기 위한 교재의 이름을 “한글”로 사용하다가 1952년 연변조선민족자치구(1955년에 ‘연변조선족자치주’로 개칭됨) 설립 시점부터 “조선어문”으로 변경하였다.

19) 대체로 1946년 연길방송국 창립, 1947년 연변교육출판사 창립, 1949년 연변대학교 설립, 1946년 한글연구회 창립, 1945년 <연변일보>의 전신인 <한민일보> 창간, 1947년 <길림일보> 창간, 1948년 <연변일보> 창간, 1948년 <연변문화> 창간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정경언·류은종(1995: 194)에 따르면 1951년만 보더라도 한글 신문이 매일 3만 부 발행되었으며 월간 잡지 50만 부, 교과서 310만 부를 출판하였다고 한다.

20) 정경언(1986), 최윤갑(1996), 植田晃次(1996), 權寧俊(2000), 홍운선(2003) 등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최윤갑(1996)은 문화대혁명(또는 자체의 어문 규범 출범)을 기준으로 전후로 양분하였고 태평무(2017)은 이에 북한의 어문 규범을 기준으로 한 1954년과 1992년 한·중 수교를 기준으로 4단계의 세분화된 구분 방식을 제시하였다. 어문 규범 외에 국제 정세를 반영한 태평무(2017)의 구분 방식은 여타의 규범화 논의에서는 찾아 볼 수 없었고 정책적 측면에 시선을 돌렸다는 부분은 높이 평가할 수 있겠다. 최경봉·태평무(2011)은 현대중국사의 구분 방식을 소수민족 언어정책사의 시기 구분에 적용했다. 그러나 ‘대약진운동(大躍進運動)’이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하는 전국적 공업 생산 운동으로서 현대중국사의 중요한 시대적 전환점은 될 수 있어도 소수민족 언어정책, 특히 순화 운동의 중요한 변곡점으로는 정확히 어떤 의미가 있을지는 추후의 검토가 더 필요할 것이다.

21) 엄해옥(2007), 임춘광(2019), 김동길(2022) 등을 참고할 수 있다.

책적 개연성과 사용 및 규범적 측면은 중국 조선어 순화의 필연성을 예고한다. 넷째, 그러나 이러한 필연성을 갖는 언어정책으로서의 순화가 지속가능한 추진력을 얻으려면 통합과 단결을 목표로 하는 국가 안정이라는 대전제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따라서 중국 조선어의 순화는 중화민족 또는 국가의 안정과 관련되는 국내의 정세(政勢), 민족어의 자율적 사용, 규범으로서의 표준, 정책 실행의 주체 등의 복합적인 영향을 받게 되면서 그 추진력이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광복으로부터 1952년 민족 자치구역 설립까지, 순화의 주체가 지방자치 기관이 아닌 조선어를 사용하는 개인 또는 개별 단체를 단위로 하고 민족해방을 만끽하면서 한반도의 규범을 적용해 민족어의 순수성을 영위하는 식으로 순화의 추진력을 비축하는 단계이다. 이윽고 자치구역이 설립된 1952년부터는 중국 조선어의 순화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 3. 순결화 운동의 전개와 규범화의 출현

#### 3.1. 순결화 운동 그리고 순화

1950년부터는 소수민족에게 지방자치의 혜택을 주면서 이들을 포용하기 위해 소수민족 언어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한 단계이다. 소수민족 어문연구기구들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섰고 소수민족 언어 문자의 보급과 발전을 위한 언어조사연구사업들이 속속 시작되었다. 중국 조선어 순결화 운동이 전개되는 1950년대를 흔히 조선어 연구의 ‘황금 시기’라고도 하는데, 중국 조선어가 연변조선족자치주에서는 공용어로 채택되면서 자율적 사용과 자발적 연구의 열기가 뜨거웠다. 그러나 직전의 태동기와는 달리, 이 시기 중국 조선어의 표준 설정에는 아래 (4)처럼 ‘잠시적인’ 관념적 판단이 개입되었다.

(4) 1952년 4월 연변조선민족자치구 초대 주석 주덕해(朱德海) 발언

우리의 신문, 간행물의 용어는 평양을 표준으로 하는 것도 잠시적인 것이다. 조선이 통일되면 서울말을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정건언·류은중 1995: 195)

따라서 1954년 제정된 북한의 《조선어철자법》이 1955년부터 중국에서 출판되면서 이 시기의 서사규범으로서 큰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북한에서 간행한 《조선어조사전》(1956)을 추가로 수입하면서 줄곧 표준으로 여겼던 광복 이전 기존어(既存語)의 폭을 넓히기도 했다. 그러나 광복 이전의 표준어는 여전히 강력한 존재로서 중국 조선어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다. 이로써 이때 당시 (4)의 ‘표준’은 표준어에 한정되는 내용뿐만이 아니라, 정확히는 중국 조선어가 지켜야 할 서사규범까지도 포함된 것이었다. 앞 절의 분석에서 도출된 국가의 안정과 관련되는 정세 요소가 반영된 것으로, 여기서 표준어와 서사규범이 관념적 결속을 받는 국가체제 진영의 반영이나 그 영향권 내의 것이라는 점이 드러난다. 1960년대 문화어(文化語)가 등장하기 전까지 표준어는 서울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5)와 같은 ‘잠시적’인 주장이 제기되고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기까지 북한을 민족의 조국으로 보았던 자치구역 내부의 ‘민족 조국’ 담론 역시 큰 역할을 했다.<sup>22)</sup>

22) 權學俊(2000: 497)에서는 따르면, 표준 설정의 배경에는 6·25 전쟁에 대한 중국 정부의 태도가 전제되어 있다고 했다. 즉 대북 정책을 선전하는 데 사용된 소수민족 언어정책의 반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1950년대부터 동북에 거주하고 있는 대다수 조선인이 중국 국적을 취득하여 법률적으로 소수민족이 조선족이 되었지만, 감정적으로 북한을 ‘민족 조국’으로서 생각하는 정체성 혼란의 요인도 고려되었을 것이 분명하다. 박종철(2015: 161-165)에 따르면, 1957년 6월 18일 ‘조선족의 조국 문제에 대한 연변 조선족 교육계 인사의 토론’에서 최윤갑은 “조선인과 연변 조선족은 같은 언어, 문화, 심리상태, 민족 기원이 같다. 누구나 스스로의 어머니가 있듯이, 반드시 조선(북한)을 모국으로

게다가 1952년 4월 20일부터는 신문사의 한자 폐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1955년까지 모든 출판물의 한자 폐지가 완료되었는데, 이때 (3)에서 보이는 한어들을 신문사, 출판사 그리고 방송사에서는 기존어로 대체하고 통일하는 작업이 급선무였다. 이러한 작업이 바로 중국 조선어 순결화(純潔化) 운동의 새끼풀이었다. 아래에서는 순결화 운동에 나타난 구체적인 사례들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앞선 (1)의 순화 개념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이 시기의 순화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2> 신문사, 출판사, 방송사, 기관에서의 순결화 운동 개요

주체	기간	내용
연변교육출판사	1953~1955 5	내부 간행물 <교열통신> 발간
동북조선인민보사 23)	1953~1955 5	내부 간행물 <업무간보> 발간
연변인민방송국	1953~1955 4	내부 간행물 <명사 통일> 발간
술어통일위원회 (출판사, 신문사, 방송국)	1953~1955 4	통일에 이견이 있는 200개 용어 정리

이 시기 순결화 운동은 어휘 영역에 집중되었다. 각 신문사, 출판사 그리고 방송사에서는 내부 간행물에 대체로 한어 용어를 어떻게 조선어로 바꿔 쓸 것인가를 놓고 자체의 용어들을 소개하였다. 이견이 있는 용어들은 다시 술어통일위원회를 결성하고 토의 끝에 정리된 용어들을 공표하는 식이었다. 이들이 다룬 어휘들은 한어를 포함한 외래어 새말, 이로부터 파생된 비 기존어가 주요 대상이었지만, 일부 어려운 한자어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중 1953년 10월 <교열통신>에 실린 내용을 유형별로 제시하면 아래의 (5)와 같다.

(5) 순결화의 대상과 순결화 결과

- 가. 외래어: 領袖 → 수령, 工人 → 노동자, 工資 → 임금/로임, 合同 → 계약, 提問 → 물음, 멜로디(melody) → 멜로디
- 나. 비 기존어: 필업반 → 졸업반, 교학 → 교수, 집체주의 → 집단주의, 공인계급 → 노동계급, 덕육 → 도덕교양
- 다. 기존어(한자어): 처처(處處) → 곳곳, 가가(家家) → 집집, 시시(時時) → 때때, 일일(日日) → 나날, 매년(每年) → 해마다, 매일(每日) → 날마다, 해수(咳嗽) → 기침, 냉대(冷待) → 푸대접, 잠란(蠶卵) → 누에알, 혹서(酷暑) → 한더위, 지환(指環) → 가락지, 소맥(小麥) → 밀, 세우(細雨) → 가랑비, 조석(朝夕) → 끼니

이때의 순결화 운동은 한자 폐지로부터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시작되었지만, 능동적인 언어 바꾸기의 성격을 지닌다. (5)의 순결화 대상과 그 결과를 놓고 볼 때, 단순히 규범화로만 담아내기 어렵다. (5가, 나)처럼 한어를 기존어로 바꾸고 또 그 밖의 외래어를 수용하며 비 기존어를

과약해야 한다.”와 같이 말하였다. 또 김동길(2022: 159)에 따르면, 주덕해는 “현재 조선족 중 중국을 조국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40세 이상의 조선족들의 대부분은 감정적으로 중국을 자기의 조국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특히 박해받을 때 더욱 조선(북한)을 생각한다.”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민족 조국’ 담론 역시 언어 내적으로 1950년대 중국 조선어의 표준 설정에 한몫했을 것이다. 즉 ‘잠시적인’ 관념의 개입은 언어 사용의 현실과 국정 관념의 일치로부터 산출된 언어정책의 반영이었을 것이다.

23) 1949년에 <연변일보>와 <민주일보> 그리고 <단결일보>가 합병되어 꾸려진 신문사이다. 1955년에 다시 기관지 <연변일보>로 개칭하였다.

다듬는 것까지를 어휘 체계로의 편입을 시도하는 규범화 행위로 볼 수는 있겠으나, (5다)에서 어려운 한자어까지 적용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다듬는 것은 결을 달리하기 때문이다. 국어 순화의 개념을 정리한 (1)의 내용과 비교해 보아도 ‘고운 말 쓰기’를 제외한 ‘우리말 쓰기, 바른 말 쓰기, 쉬운 말 쓰기’를 모두 아우르고 있다. 따라서 이때의 순결화 운동은 본질적으로 민족어를 사용하는 공동체 내부의 소통성 제고를 지향한 사회언어학적 행위, 순화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때까지만 해도 순화의 인식이 상당히 명확하고 성숙했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 다만, 이때까지는 순화의 구체적인 방침이 없었고 순화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이를 담당하여 추진하는 전문 기관도 부재했다. 따라서 계속해서 혼란스러운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 순화에 대한 인식이 싹트고 언어 접촉이 계속되면서 1957년에 이르러 순결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지상 토론으로 이어졌다.

1957년 2월 21일, 연변주정부 문교부 주최 하에 먼저 좌담회를 가졌다. 민족어 사용의 중요성을 환기하는 것과 순결화 방침을 논의하기 위한 지상 토론의 준비가 목적이었다. 이후 지상 토론은 1957년 3월 1일부터 6월 29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편집자의 말과 일반인 기고를 포함한 17 편의 글이 <연변일보>에 실렸다. 1957년 3월 1일 3면의 윗머리에는 “민족어문은 민족구역자치권리행사의 도구이다”라는 표제를 달았고 그 아래에 “민족언어의 순결화와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투쟁하자!”라는 부제를 붙였다. 논의 전개의 편의를 위해, 3월에 진행된 지상 토론을 ‘1단계 토론’으로, 1957년 4월 27일 정풍 운동의 등장 시점으로부터 진행된 지상 토론을 ‘2단계 토론’으로 칭하고자 한다.<sup>24)</sup>

(6) 1957년 3월 1일 <연변일보> 발췌

가. 본 편집부에는 민족언어의 사용을 중시하고 그것의 순결화와 건전한 발전을 위한 지상토론을 조직한다. ①우리는 이 토론을 통하여 민족언어사용상 현존하는 결함과 혼란을 제기하고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민족언어를 중시하여 충분히 사용하고 그것의 순결화와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바이다. 여러 독자들이 이 토론에 열렬히 참가하기를 바란다.(편집부)

나. 당의 정책을 선전하든지, 사업을 포치하든지, 또 군중의 정황을 조사 연구하든지 언제나 인민군중을 대하게 되므로 말을 쓰게 된다. 이때 ①우리 민족어가 아닌 것을 민족어 마냥 쓰면 일의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헛수고만 하며 시간만 낭비하게 된다. 가령 당의 정책을 선전할 때 <<일체(모든) 단결할 수 있는 힘을 단결>>을 <<일절 단결할 수 있는 힘을 단결>>이라고 했다면 군중은 그 뜻을 옳게 해리하지 못할 것이니, 당의 방침 정책을 선전 교육하는데 얼마나 큰 손해를 주겠는가? (중략) 그러므로 이것은 ②한때의 무슨 돌격 운동으로 완전히 바로 잡기는 어려우나 문제는 우선 자치주내에서 민족어를 중시하고 올바르게 쓰는 것은 당의 민족 정책을 올바르게 관철함과 관련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상 인식을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한 첫 고리인 것이다. (리호원)

다. 외래어의 도입은 결코 자기 민족언어의 불순결을 조성하는 조건하에서 진행되어서는 안된다. ①우리는 타민족 언어중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좋은 요소를 섭취해야 하지만 ②함부로 흉내내듯 옮겨다가 랍용하지 말고 비판적으로 조선어의 규범에 맞게 섭취하여 적용해야 한다.(임창길)

이상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이번 순결화 지상 토론이 철저하게 (6가①)에서 명시한 것처럼 혼란스러운 언어 사용 내지 결함의 ‘순결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

24) 본고에서 제시한 <연변일보>의 인용문은 원문의 맞춤법을 그대로 따랐다.

으로는 (6나①)처럼 소통성을 기반으로 (6다①)과 같이 기존어로 대체할 수 없는 외래어의 사용을 허용해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전 단계의 순결화 흐름에 따라 ‘1단계 토론’에서 비치는 순화 인식은 대체로 (5)에서 진행했던 그것과 다를 바가 없으나, (5나)처럼 순화 대상이 되는 불순결한 언어의 사용 문제를 끄집어내어 공론화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을 것이다. 불순결한 사용이란 (6다②)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존어에 대한 관심이 없이 흉내를 내듯 남용하는 경우를 뜻한다. 특히 위의 ‘비판적으로 조선어의 규범에 맞게 섭취’와 같은 내용은 능동적으로 본 민족의 언어를 가꾸려는 순화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7) 불순결한 한어 차용어의 사용

- 가. 照顧 : 쫓구(→배려), 抓하다 : 짝하다(→잡다), 老實하다 : 로스하다(→성실하다), 依靠하다 : 이코우하다(→기대다)
- 나. 號碼 : 호마(→번호), 毛病 : 모병(→흠집), 課本 : 과본(→교과서), 競賽 : 경색(→경쟁), 廣播 : 광파(→방송), 膠皮鞋 : 교피화(→고무신), 暑假 : 서가(→여름 방학), 候車室 : 후차실(→대합실), 下午 : 하오(→오후)

이때 불순결한 사용으로 지목된 것이 바로 위의 (7)과 것들이다. 한어의 음을 그대로 빌려 한어에 가깝게 발음하는 (7가)의 음차어, 우리의 한자음으로 차용한 음독어 (7나)는 ‘1단계 토론’에서는 집중 공격의 대상이었다. 또 이러한 혼란스럽고 불순결한 사용의 원인을 민족어 보호 및 발전에 대한 인식 부족과 민족어 연구 사업의 부진으로 결론을 지으면서 (6다②)에서는 올바른 민족어 사용에 대한 중시를 호소하고 있다. 이렇게 대중의 민족어 사용 인식을 바로 잡고자 ‘1단계 토론’의 의도대로 그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래 (8나①)에 나오는 “대중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부분은 앞서 <표 1>에서 국어 순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 즉 ‘주체의 민중화’와 일치한다.

(8) 1957년 3월 19일 <연변일보> 발췌

- 가. 3월 1일, 본 지상에 민족언어 사용의 중시 및 그의 순결화와 건전한 발전을 위한 첫문장이 발표된 후 연변 자치주는 물론, 국내 각지의 조선족 인민군중들의 열렬한 반향을 일으켰다. 본 사 편집부에서는 최근에 각지로부터 문제를 폭로하거나 이토론을 지지하는 문장 100여건을 접수하였다.(편집부)
- 나. 우리 흑룡강성에서도 민족어를 중시하지 않으며 그의 사용상 혼란한 현상이 일반적으로 존재하기에 이 토론에 적극 참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중략) 나는 ①이런 혼란한 현상을 제거하고 민족어의 순결화와 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대중적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고 인정한다.(일반인 기고)

따라서 이때까지의 중국 조선어 순결화 운동은 언어 내적의 필요로부터 발현된 순화 운동으로, 순결화는 곧 순화였다. 그리고 그 순화의 내용은 ‘한어 포함 외래어를 대응하는 표준어(기존어)로 고쳐 쓰는 일’, ‘불순결한 비 기존어를 대응하는 표준어(기존어)로 고쳐 쓰는 일’,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표준어(기존어)로 고쳐 쓰는 일’, ‘불특정 한어 포함 외래어를 수용하는 일’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다. 그러나 대응하는 기존어가 없는 한어 포함 외래어 새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되지 않았다. 이 흐름대로 계속된다면 ‘2단계 토론’



에서는 순결화의 구체적인 방침을 제정하고 공표해야 할 것이다.

### 3.2. 정풍 운동의 등장과 순결화 운동의 방향 전환

전 단계에 이어 민족어의 순결화론이 계속해서 거론되고 민족의식이 날로 높아졌지만, 국내외 정세의 거센 소용돌이를 피해가지 못했다. 1956년 8월 북한의 종파사건 그리고 9월 중·소 공동대표단의 평양에 대한 내정간섭으로 중·북 관계의 갈등은 더욱더 심화하였다. 또한 1956년 2월, 소련공산당 제20차 당 대회에서 중·소 새 지도부 간의 갈등도 대두되었고 국제 사회주의 진영의 분열과 갈등의 골이 날로 깊어져 갔다. 국내의 경우, 1956년 9월부터 1957년 3월까지 동유럽에서 발생한 반정부시위의 영향으로 중국 전역에서 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파업했으며 학생들의 동맹파업도 비슷한 수준에 달했다. 또 농촌에서는 적지 않은 수의 농민들이 합작사(合作社)를 탈퇴하고 소란을 피웠다(胡繩 1991 : 205). 내우외환(內憂外患)의 형세에서 일관된 통합일원주의 관념의 실현 그리고 불안한 국내 정세를 다잡기 위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는 1957년 4월 27일에 《정풍운동에 관한 지시(關於整風運動的指示)》를 공표했다.

이로써 ‘반 우파 투쟁’으로 불리는 정풍 운동이 시작되었고, 소수민족지역에서는 ‘민족정풍운동’으로 그 성격이 변하여 휘몰아쳤다(이채진 1998: 71). 중국 조선어의 순결화 운동은 ‘관료주의, 종파주의, 주관주의’의 사상과 작풍(作風)을 비판하는 ‘삼반(三反)’ 화살의 과녁으로 되었고 그간에 제기되었던 ‘순결화’ 담론, ‘민족 조국’ 담론 역시 여지없이 지방 민족주의 불순물로 낙인이 찍혔다. 이러한 배경 하에 ‘2단계 토론’의 내용이 <연변일보>에 실렸고, 앞선 1차 토론에서 숙제로 남겨진 제 문제가 해결되기 바쁘게 ‘규범화’라는 용어가 새롭게 등장한다.

#### (9) 1957년 5월 3일 <연변일보> 발췌

일부 사람들 가운데 현재 쓰고있는 ①한어를 조선음으로 바꾸기만 하면 죄다 조선어의 한자어로 되는 듯이 그릇되게 생각하고 고계(估計)니, 안배(安排)니, 수거(收據)니 하는 것들은 옳지 못한 것이다. 또한 반면에 일부 사람들 가운데 ②고유조선어와 다른 한자에서 기원했다고 하여 그것을 다른 외국어와 동일시하고 이를 죄다 우리 말로 바꾸어놓으려고 하는 극단적인 경향도 역시 옳지 못한 것이다. 레하면 기차를 불수레, 비행기를 날틀, 오후를 낮뒤, 철필을 쇠붓으로 고치려는 것들이다. (중략) 이상으로써 한’자어는 우리 조상들에 의하여 오랜 시일에 걸쳐 다듬어져 내려온 언어유산의 하나임을 알수 있다. 따라서 우리들은 이를 비판적으로 계승, 발휘시켜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한’자어는 그 자체에 아무런 제약성과 약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③한’자어는 비록 우리 말로 굳어져가고는 있으나 아직도 광범한 인민대중속에 널리, 튼튼히 뿌리박고있지 못하며 언제나 고유조선어의 핵심적역할을 도와주는 보조적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략) 그러므로 우리들이 ④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낼 때 있어서 우선 고유조선어에 의할 것이며 이것으로 부족될 때 한자어의 도움을 받되 반드시 이미 우리 말로 굳어져 광범한 인민들에게 익숙된 기유의 조선어화한 한자어에 의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훌륭한 고유조선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새로 한’자어를 만들어내는 것은 옳지 못하며 더욱이 남들이 힘들어하는 한’자어를 사용하는 것을 유식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도 건결히 반대해야 한다.(김학련)

위의 내용에서는 먼저 외래어로서의 한어와 우리말 속의 한자어를 마땅히 구분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앞선 (7)과 같은 불순결한 사용을 꼭 짚어 얘기한 것이다.

이 밖에 (9㉒)와 같이 무조건 한자어를 고유어로 바꾸어야 한다는 식의 극단적인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고, (9㉑)에 기술한 것처럼 한자음으로 음독하여 차용한 어휘들 역시 그 사용에 앞서 당위성을 한 번 더 고민해봐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당위성을 갖는 어휘란 표준성을 갖는 것과 더불어 고유성도 가져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추론의 합당성은 ‘고계하다’나 ‘안배’가 문세영 편 《조선어사전》에 엄연히 등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드러난다. 전자는 타동사로 “물건 값을 계산하다.”의 뜻풀이를 제시하였고, 후자는 명사로 “정돈하여 배치하는 것”의 뜻을 가지며, 이들 모두 기존어로서의 자격을 갖는 바른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㉑)의 불순결 예시로 제시한 것을 보면, 이전 단계와는 다르게 고유어 중심의 확고한 인식이 상당했음을 입증해준다. 그리고 이러한 고유어 중심의 인식은 (9㉓)으로 이어진다. 한자어보다는 고유어의 사용을 권장하고 새말을 만들어낼 때도 고유어 우선, 익숙한 한자어 차선의 방식을 (9㉔)에서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제안은 ‘1단계 토론’에서 미처 논의하지 못한 대응하는 기존어가 없는 새말의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방향성을 ‘고유어 우선’의 관점에서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정작 고유어로 만든 새말의 예시를 보여주지는 않았다.

이어서 새말의 창제나 외래어 차용이나에 뒤섞여 이질적인 성격을 보이면서 ‘규범화’ 관련 글들이 앞다퉀 등장하기 시작했다. 5월 11일에 실린 허대진의 “민족 언어 규범화의 정확한 길”, 6월 12일에 실린 임창길의 “조선어 규범화에 대한 두 개 극단적 주장”, 6월 26일에 실린 리호원의 “민족 언어의 규범화를 위하여” 그리고 마지막으로 6월 29일에 실린 최윤갑의 “중국에서의 조선어 규범화 문제” 등이 바로 그러했다.

(10) 한어 포함 외래어 차용에 대한 견해

- 가. 우리는 그 ①사회 생산생활을 자기 민족끼리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한족과 공동히 하는 가운데서 새로운 말은 비단 한자어뿐만 아니라 지어 외래어까지도 한어를 거쳐서 도입하는 것이 많다. 이것은 필연적 현상이다. (중략) 우리의 ②언어 생활은 단지 이렇게 피동적인 것만이 아니라 《공작》, 《작풍》 등과 같이 우리가 한어에서 흡수하여 창조한 좋은 말들은 또한 조선에 나가 거기에 사는 조족선의 언어속에 들어가 조선어를 더욱 풍부화하면서 있다.(허대진)
- 나. ①어휘의 규범화는 의미 색채적 차이, 문체론적, 수사적차이, 문법적 제 관계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중략) 그리고 무원칙하게 배타적으로 어휘의 규범화를 대하는 《렬거자》적 태도도 버려야 한다. 마땅히 전면적으로 고려하고 ②필요한 동의어(정확히 말해서 근사어)의 존재를 허용하여 우리말의 어휘 구성과 표현을 보다 다채롭고 풍부하게 발전시켜야 한다.(임창길)
- 다. 민족어의 ①순결화라는 것은 조선 민족이 전민적으로 쓰는 그대로 쓰라는 것이다. (중략) 필요한 외래어를 우리 말로 도입하는 것도 우리의 민족어의 순결성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도리어 우리의 ②민족어를 풍부히하는 것이다.(리호원)

우선 위에 (10)처럼 새말의 처리 방식에서 있어서는 순결화 운동의 일관된 흐름에 따라 수용하자는 쪽으로 합치된 결론을 냈다. 또 이렇게 처리할 수밖에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자세히 구명하고 있다. 예컨대 언어 사용 환경으로부터 볼 때, 한어 포함 외래어의 수입 그리고 차용은 필연적이라는 (10가㉑), 어감을 비롯한 문체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면서 ‘원칙’을 지키면서 수용하고 차용해야 한다는 (10나㉑)가 바로 그러하다. 이로써 우리말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데 그 이점이 있다고 (10가㉒)과 (10나㉒), (10다㉒)에서 밝히고 있다. 특히 (10가㉑)에서는 이러한 차용 과정이 온전히 ‘피동적’이지만은 않다고 밝히면서 순화가 갖는 ‘능동적’인 측면을 일깨워주고 있다. 또 (10다㉑)로부터 여태 거론되고 있는 ‘순결화’라는 것이 ‘소통성’을 기저에 두고 있다는 점이 확실해졌다.

따라서 ‘순결화=순화’ 그리고 이것이 곧 ‘규범화’라는 공식은 성립된다. 그리고 명확해진 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순결화를 위한 지상 토론에서의 뜬금없는 규범화가 출현한 것은 ‘정풍 운동’을 의식한 결과였다. 이때까지 용어상의 차이만 존재할 뿐 그것이 내포하는 바는 다를 바가 없다. 둘째, 순결화를 ‘능동적’인 민족어 가꾸기를 인식함으로써 언어 공동체의 ‘소통성’ 제고를 목적에 두고 ‘대중성’을 망라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에 의견이 합치되었다. 셋째, 순결화의 내용에는 ‘한어 포함 외래어를 대응하는 표준어(기존어)로 고쳐 쓰는 일’, ‘불순결한 비 기존어를 대응하는 표준어(기존어)로 고쳐 쓰는 일’,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표준어(기존어)로 고쳐 쓰는 일’, ‘고쳐 쓰기 어려울 때는 우리말(고유어 우선)로 새말을 만들어 내고 이것이 어렵다면 문체를 고려하여 외래어를 차용하는 일’이 포함된다.

그러나 지상 토론의 마지막 글에서는 ‘순결화=순화’는 곧 ‘규범화’와 같은 개념적 역학구조가 뒤틀리게 된다. 우선 지상 토론의 글은 아래의 (11가)의 편집자의 말로 시작한다. 그리고 이번의 순결화를 위한 지상 토론은 ‘민족 언어 규범화에 대한 지상 토론’으로 정의되었다. 여기까지는 단지 용어의 측면을 반영한 것이지만 (11나, 다)의 내용은 개념 또는 인식 층위의 문제이다.

(11) 1957년 6월 29일 <연변일보> 발췌

가. 약 4개월 동안에 걸쳐 진행된, 민족 언어를 중시하며 정확히 사용할데 관한 토론은 광범한 독자들의 적극적인 참가하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 기간에 우리는 민족 언어를 홀시하며 사용상의 혼란한 현상을 적발하여 사회적 여론은 환시시켰고 이런 현상이 산생하는 원인을 각방면으로 구명하였으며 ①금후 연변에서 어떻게 민족 언어를 규범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대체상으로 합치된 결론을 얻었다. 이런 정황하에서 민족 언어 규범화에 대한 지상토론은 일단락 지으려 한다. 물론 이 사업은 금후 장기간에 걸쳐 각방면의 복잡하고 세밀한 조치와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많은 학술성적인 연구, 토론이 있어야 하는 데 이 부분의 사업은 앞으로 전문 어학 연구 부분에서 조직, 처리할 것이다.(편집부)

나. ①해방후 조선어는 조선과 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의 부동한 환경에서 발전되었고 중국에서의 조선어는 적지 않는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났다. 이 새로운 변화들에 대해 새로운 규범을 세울 필요가 있으며 더우기 우리 조국의 약진하는 현단계에 있어서 언어의 규범화는 매우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중략) 중국에 있어서의 조선어규범화문제는 조선어 전반부분에 대한 규범화가 아니라 기본상 ②어휘규범화문제에 국한될 성격이며 주요하게 한어차용어에 대한 처리문제로 된다. (최윤갑)

다. 언어변화의 제 사실에 비추어 ①중국에서의 조선어규범화사업은 우선 그의 첫 사업으로 규범화를 위한 조선어의 순결화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중략) ②따라서 언어의 순결을 위한 투쟁은 언어의 정확한 사용을 위한 대중적교육과 아울러 대중적인 운동으로 되어야 한다. 다음 사업으로 ③규범화사업에 착수하여야 될것인바 여기서는 주요하게 한어차용어의 첫째, 둘째 부류들과 고유조선어 및 이미 있는 한자어를 기초로 하여 산생된 어휘들이 속한다.(최윤갑)

규범화 사업의 필요성을 언급한 (11나①)에서의 ‘새로운 변화’는 대체로 (11나②)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주로는 사회 전반 영역에 걸쳐있고 중국의 특수성을 띠는 한어 차용어를 말한다. (11다③)에서는 이들을 ‘첫째 부류(예컨대 ‘주석, 국무원, 총리, 서기, 부장’ 등)’, ‘둘째 부류(예컨대 ‘합작사, 총로선, 선진생산자’ 등)’로 분류하고 있고 이들이 바로 규범화의 대상임을 지목하고 있다. 즉 ‘2단계 토론’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된 대응하는 기존어가 없는 외래어들이 특수성을 갖는 예들로 범주화되고 또 이에 한해서 음독하여 표준어로 제정하겠다는 말이다. 이때의 규범화란 새말에 대한 중국

조선어의 새로운 표준화를 뜻한다.

그리고 이러한 규범화 사업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순결화’ 사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11다①)에서 밝히고 있다. 여기서 ‘순결화’는 (11다②)에서 말하는 “언어의 정확한 사용”이다. 앞선 (7)의 기존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어를 빌려 쓴 불순결한 말들이 순결화의 적용 대상이 된다. 그리고 ‘순결화’는 바로 이러한 것들을 바로 잡아 표준으로서의 기존어로 맞추려는 개념이 된다. 그리하여 (5다)처럼 쉬운 말을 다듬어 쓰는 것은 순결화 밖의 것으로 규범화의 소관이 되어버렸다.

<표 3> 1950년대 중국 조선어의 어휘규범화<sup>25)</sup>

개념	영역	내용
순결화	기존어	㉠ 한어 포함 외래어를 대응하는 표준어(기존어)로 고쳐 쓰는 일
		㉡ 불순결한 비 기존어를 대응하는 표준어(기존어)로 고쳐 쓰는 일
규범화	새말	㉢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표준어(기존어)로 고쳐 쓰는 일
		㉣ 고쳐 쓰기 어려울 때는 우리말(고유어 우선, 한자어 차선)로 새말을 만들어 내고 이것이 어렵다면 문체를 고려하여 외래어를 차용하는 일

순결화의 범위가 축소된 것은 물론, 그 성격이 정확한 기존어의 사용 정도로 변화하였고 그것이 갖는 의미는 새로운 표준어 제정으로서의 규범화를 위한 선제적 수단으로 한정된 것이다. 이로써 큰 규범화 안에 작은 순결화, 새롭게 확충된 표준어를 규정짓고 쉬운 말로 고쳐 쓰는 규범화와 기존어로 올바르게 고쳐 쓰는 순결화의 국면이 형성되었다. 그리고 순결화와 규범화를 통틀어 어휘규범화라 부르고 있다. 단순히 용어를 어휘규범화로 바꿔 쓴 용어의 차이에 지나지 않고, 그것이 포함하는 내용이 순화가 포함하는 것과 같다는 식의 반론도 가능하다. 그러나 어휘규범화 자체가 갖는 불순결성은 뻔하다. 용어가 어떻게 변하든, 또 그 영역이 어떻게 달라졌든, 표상적인 것에 집착하는 것보다 지금의 중국 조선어 규범화 사업으로 이어지는 당시의 ‘규범화 이념’, ‘순화 인식’에 집중하여 파헤치는 것이 유의미한 작업이 될 것이다.

우선 규범화의 영역은 주로 새말에, 순결화는 기존어에 집중되어 있다. 기존어가 광복 전의 표준어이고 기존어의 사용을 규범으로 정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순결화가 최우선으로 되어야 한다는 점, 외래어의 차용에 있어 고유어로의 창제를 우선으로 한다는 점, 외래어의 차용을 차선으로 한다는 점, 그리고 이상의 것들이 모두 규범으로 정했다는 점으로부터 미루어 보아 중국 조선어의 규범화 이념은 상당히 간단하다. 중국 조선어의 규범화의 확고한 이념은 고유어 중심의 ‘보존’이다.<sup>26)</sup> 광복 전의 기존어를 보존함으로써 남북 언어와의 동질성을 확보하고 외래어의 수용을 최대한 자제함으로써 남북 언어와의 이질화를 방지하는 이념이 중국 조선어 규범화의 기저에 깔려 있다. 남북이 순화한 어휘들 중에서 동질적인 것, 달리 순화한 것 중에서 골라 담아 <조선말 어휘규범> 아래 ‘다듬은 말 처리세칙’으로 처리했다는 점은 이러한 추론의 합리성을 방증한다.

25) 1977년 12월 5일, 동북3성조선어문사업 제2차 실무회의에서 심의 채택하고, <조선말규범집>(2016)의 <조선말 어휘규범>에 명시한 ‘조선말 명사, 술어의 규범화원칙’과 비교해 보아도 내용은 별반 다를 게 없다. “인명, 지명, 국가명칭 등은 ‘원음에 따르고 습관을 존중’하는 원칙에 좇아 처리한다.”의 내용만 다루고 있지 않을 뿐이다.

26) <표 3>의 ㉢이 기존어의 영역이라는 점이 특이한데, ㉢과 묶어 고유어 중심의 ‘보존’이라는 틀로 구속하려는 확고한 규범화 이념의 투영으로 볼 수 있을 듯싶다. 이로써 “고유어가 가장 쉽다.”식의 인식이 가능해진다.

그렇다면 순화 인식은 어떻게? ‘대중성’을 망라할 수 있는 직전의 순결화에서 완전한 엘리트 주의적 성격을 갖는 규범 층위로 기준한 시점부터 이미 변질되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에서 출발하고 ‘보존’의 규범화 이념을 시행하는 것이 현재 중국 조선어가 직면한 정체성 상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대체 어떤 이점이 있을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개혁개방 그리고 한·중 수교 이후 ‘언어 대중’<sup>27)</sup>의 날로 늘어나는 외래어 사용 문제를 규범에 빚대어 남용으로 지적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그들에게 어떤 수혜를 주었는지부터 재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들의 원활한 소통을 보장하면서 순화의 참여 주체로 하여, 민족 정체성도 ‘보존’의 대상으로 포함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해준 것이 바로 1950년대 중국 조선어의 순결화 운동이 아닐까?

#### 4. 마무리

본고에서는 1950년대 순결화 운동의 의의를 밝힌다는 명목 하에 중국 조선어 순화의 필요성을 재조명하는 데 주력하였다. 이는 현재 급부상한 민족 정체성 상실의 문제 해결을 염두에 두고 진행한 기초 연구에 속한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두 방향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먼저 민족 정체성과의 관련성 속에서 순화가 갖는 필요성과 필연성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했다. 한국의 국어 순화와 관련한 논의를 빌려 순화의 개념을 명확히 하였고, 소통의 원활화를 목적으로 주체의 민중화를 방향으로 이어나가야 함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순화가 갖는 의의가 능동적인 언어가꾸기를 통한 민족 정체성 응결에 있다는 점으로부터 순화 자체에 주목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중국에서 조선어 순화 운동이 가능했던,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가능하게끔 보호 장치로 작용하는 중국의 민족정책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1952년 자치구역 설립으로부터 중국 조선어의 순화는 ‘중화민족’ 내지 국가의 안정과 관련되는 국내의 정세, 민족어의 자율적 사용, 규범으로서의 표준어(어휘의 경우에는 광복 전의 기준어), 정책 실행의 주체 등의 복합적인 영향을 받게 되면서 그 추진력이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제 영향 요소들을 중심으로 1950년대 순결화 운동에서 나타나는 순화 인식을 살펴보고 ‘규범화’라는 용어의 출현 시점으로부터는 중국 조선어의 규범화 이념을 탐구하였다.

1952년 4월 20일부터 진행된 신문사의 한자폐기로부터 시작된 순결화운동에는 ‘우리말 쓰기, 바른 말 쓰기, 쉬운 말 쓰기’를 아우르는 순화의 개념들이 깔려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이어서 1957년 <연변일보>에서 진행한 순결화를 위한 ‘1단계 토론’을 살펴보면 발전된 순화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어 포함 외래어를 대응하는 표준어(기존어)로 고쳐 쓰는 일’, ‘불순결한 비 기준어를 대응하는 표준어(기존어)로 고쳐 쓰는 일’,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표준어(기존어)로 고쳐 쓰는 일’, ‘불특정 한어 포함 외래어를 수용하는 일’ 등을 아우르는 순화 인식의 형성이 바로 순결화 운동의 첫 번째 성과였다. 이밖에 지상 토론에서 ‘주체의 민중화’나 ‘소통의 원활화’와 같은 내용도 함께 논의되었다는 점은 지금의 그것과 비교해 볼 때도 버금가는 의의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내우외환의 정세 속에서 정풍 운동이 등장했고 ‘순결화’ 담론을 주장했던 지상 토론에서 ‘규범화’가 등장한 점에 주목했다. ‘규범화’라는 용어의 출현이 국내 정세를 반영한 것이 분명하고 순결화 운동의 성과는 ‘어휘규범화’의 것으로 새롭게 범주화되어 개념의 불순결성을 초

27) 김하수(2011: 127)에서는 ‘언어 대중’이라는 용어를 제안한 바가 있다.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 강조된 인종이 곧 “언어의 주인”이라는 점을 강조한 개념이다.

래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 이로써 추후 중국 조선어 자체의 규범이 출범을 촉진했다는 점에도 순결화 운동의 두 번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가운데 내재한 ‘규범화 이념’, ‘순화 인식’에 주목하여 순결화 운동의 세 번째 의의를 도출하는 데 주력하였다.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규범화의 확고한 이념은 고유어 중심의 ‘보존’이고, 남북 언어와의 동질성을 확보하고 외래어의 수용을 최대한 자제함으로써 남북 언어와의 이질화를 방지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을 밝혔다. 이로써 대중성을 상실한 엘리트주의적 순화 인식으로의 변화가 초래되었음을 설명하였다.

민족 정체성 문제와 관련지어 볼 때, 1950년대의 순결화 운동이 시사하는 바는 절대 작지는 않다. 순화 자체가 갖는 필요성을 인지하고 순화에 대한 회귀적 인식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본래의 목표와 방향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한다. 여태까지의 중국 조선어 규범화가 고유어 중심의 ‘보존’을 이념으로 집행했다면, 고유한 민족 정체성까지도 ‘보존’의 범주에 넣어야 마땅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적인 표준으로서의 규범화와 능동적인 언어 가꾸기의 성격을 갖는 순화 간의 관계 정립이 시급하다. 다음으로 교육적 측면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순화의 적용 방식을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근 70년 동안 변함없는 어휘규범화 원칙을 따라서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동질성이 희석되지 않게끔, 지금은 ‘언어 대중’의 언어 사용에 대한 배려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어휘에 국한된 순결화 운동에 집중한 나머지 문장이나 담화 층위까지 미처 논하지는 못했다. 1950년대 자료 수집의 어려움도 있었거니와 그 당시 순결화가 주로는 어휘 층위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순화가 언어 요소의 전반에 걸쳐 순화가 계속되어야 할 과제인 것은 분명하다. 소외되고 소실되어 결국에는 빛바랜 사명감을 다할 것 같은 중국 조선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 강영덕(2004), 조선족기초교육단계의 이중언어교육에 관하여, 《21세기초 조선족 교육의 문제 및 개혁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48-58.
- 강은국(2015), 중국조선어의 규범화에 대하여, 《중국조선어문》 197,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10-17.
- 김광수(2020), 중국에서의 한국어(조선어) 연구 현황과 전망, 《국어학》 93, 국어학회, 557-575.
- 김동길(2022), 동북 조선인의 조선족화 과정(1945-1950), 《중국근현대사연구》 93, 중국근현대사학회, 141-165.
- 김민수(1975), 《국어 정책론》, 탑출판사.
- 김민수(1985), 《민족어의 장래》, 일조각.
- 김민수(1990), 언어와 민족의 문제, 《이중언어학》 6, 이중언어학회, 5-17.
- 김석득(1979), 국어 순화에 대한 반성과 문제점, 《국어의 순화와 교육》, 한국정신문화연구원, 7-34.
- 김영수(2018ㄱ), 중국 조선어 규범화연구에 대한 고찰, 《중국조선어문》 214,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5-16.
- 김영수(2018ㄴ), 중국 조선어 규범화연구에 대한 고찰, 《중국조선어문》 215,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5-12.
- 김하수(2011), 국어 순화의 비판적 대안, 《새국어생활》 21(2), 국립국어원, 123-136.
- 남기심(2003), 국어 순화와 관련하여, 《국어 순화 실천 방안 마련을 위한 학술대회자료집》, 국립국어연구원, 9-11.
- 류대식(2018), 중국 조선어에서의 외래어사용에 대한 고찰, 《중국조선어문》 218,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75-76.
- 문세영(1938), 《朝鮮語辭典》, 朝鮮語辭典刊行會.
- 민현식(2002), 국어 순화 정책의 회고와 전망, 《남북 언어 동질성 회복을 위한 제1차 국제학술회의 논문집》, 국립국어연구원, 205-251.
- 민현식(2003), 국어 순화의 국어학적 연구, 《국어 순화 정책 연구 보고서》, 국립국어연구원, 33-212.
- 민경만·김주아(2022), 신중국의 언어정책에 대한 고찰, 《중국학연구》 100, 중국학연구회, 59-101.
- 박갑수(1979), 국어 순화의 이론과 방법, 《국어의 순화와 교육》, 한국정신문화연구원 57-65.
- 박용찬(2011), 누리꾼 참여형 국어 순화 방식의 성과와 개선 방향, 《새국어생활》 21(2), 국립국어원, 19-59.
- 박종철(2015), 중국의 민족정풍운동과 조선족의 북한으로의 이주, 《한중사회과학연구》 36, 한중사회과학학회, 155-180.
- 법제처(2016), 《중국의 법률 체계》, 법제처.
- 법제처(2022),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법제처.
- 서혜진(2019), 순화어의 의미 대응 양상에 대하여, 《한국어 의미학》 64, 한국어의미학회, 131-153.
- 심지연(2006), 국어 순화어의 생성과 정착에 대하여, 《한국어학》 30, 한국어학회, 159-180.
- 연변일보사 편집부(1988), 《40성상: 1948-1988》, 연변일보사.
- 오태호(1989), 민족언어순결화를 위한 <연변일보>의 지상토론과 그 전후시말, 《중국조선민족발자취총서 7: 풍광》, 민족출판사, 139-151.
- 유재원(2005), 국어 순화, 왜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 《새국어생활》 15(1), 국립국어원, 7-17.
- 이성준(1999), 《흄볼트의 언어철학》, 고려대 출판부.
- 이정복(2003), 사회언어학에서 본 국어 순화의 문제점, 《사회언어학》 11, 한국사회언어학회, 187-214.
- 이채진(1998), 《中國인의 朝鮮族: 교육제도를 중심으로》, 청계연구소.
- 이흥식(2007), 《외래어·외국어 사용 및 순화어 수용 실태 조사》, 국립국어원.
- 임춘광(2019), 중국 朝鮮族의 移住史와 그 國籍 및 法的地位, 《법학논총》 44, 송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79-314.
- 임형재·김효신(2015), 중국의 이중 언어 정책의 변화와 민족학교 중국어 교수의 도입, 《국제어문》 65, 국제어문학회, 341-364.
- 정경언(1986), 해방후 우리 나라의 조선어 규범화사업에 대한 개관, 《중국조선어문》 특간호,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51-58.
- 정경언·류은중(1995), 중국조선어규범사, 《중국조선민족문화사대계 1: 언어사》, 북경대학 조선문화연구소, 165-463.
- 정희창(2015), 외래어 순화의 내용과 앞으로의 방향, 《한국어학》 67, 89-104.
- 정희창(2020), 국어 순화 정책의 의미와 공공성, 《인문과학》 76,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원, 5-32.
- 조태린(2019), 한국의 언어 순수주의와 국어 순화, 《어문학》 144, 한국어학회, 115-130.

- 중국조선어사정위원회(2016), 《조선말규범집》, 연변교육출판사.
- 최경봉·태평무(2011), 중국의 소수민족어정책과 소수민족어의 현황 연구, 《중국학논총》 32,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75-113.
- 최용기(2003), 국어 순화 정책의 역사와 개관, 《국어 순화 정책 연구 보고서》, 국립국어연구원, 3-32.
- 최윤갑(1996), 중국에서의 조선어규범화와 조선어사용의 현황, 《중국조선어문》 82,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7-11.
- 태평무(2017ㄱ), 중국 조선어의 언어접촉과 규범화에 대한 약간의 생각, 《중국조선어문》 207,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21-28.
- 태평무(2017ㄴ), 중국 조선어의 언어접촉과 규범화에 대한 약간의 생각, 《중국조선어문》 208,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7-12.
- 한글학회(1989),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1980)》, 한글학회.
- 한성우(2014), 중국 조선족 사회의 언어 전환, 《한국학연구》 32,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411-438.
- 허 응(1977), 국어 순화는 왜 해야 하며, 어떻게 해야 하나?, 《민족문화연구》 1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25-153.
- 허재영(2015), 국어 순화 자료집의 문제점과 순화어 정비의 방향, 《국어교육연구》 57, 국어교육학회, 251-274.
- 홍운선(2003), 연변에서의 조선어규범화작업에 대한 회고, 《중국조선어문》 124,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26-30.
- 李得春(2012), 《延邊朝鮮族雙語教育研究》, 延邊大學出版社.
- 國家統計局(2020), 《中華人民共和國第七次人口普查》.
- 胡 繩(1991), 《中國共產黨的七十年》, 中共黨史出版社.
- 延邊朝鮮族自治州人大(2022), 《延邊朝鮮族自治州朝鮮語文工作條例》.
- 延邊朝鮮族自治州統計局(2011), 《延邊統計年鑑》.
- 严海玉(2007), 中国朝鮮族入籍的历史过程, 《黑龍江民族叢刊》 4, 黑龍江省社會科學院民族研究所, 42-45.
- 權寧俊(2000), 中国朝鮮族의「朝鮮語純化運動」と漢語: 一九五七年の『延辺日報』紙面上の「朝鮮語純化討論」を中心に, 《一橋論叢》 123(3), 一橋大学一橋学会, 495-511.
- 植田晃次(1996), 中国の朝鮮語規範化文献に見る規範制定者の「規範語」観 文化大革命終結以降, 《国際開発研究フォーラム》 6, 名古屋大学大学院国際開発研究科, 271-282.



<중국 조선어의 어휘규범화 사업에 대한 소고\*  
-1950년대 ‘순결화 운동’의 의의를 돌아보며->의 토론문

최려홍(연세대학교 국문과)

“소외되고 소실되어 결국에는 빛바랜 사명감을 다할 것 같은 중국 조선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바란다.”는 논문의 마지막 글귀를 읽으면서, 왠지 코끝이 찡하고 마음속 어딘가가 아려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학술논문을 읽으면서 이러한 느낌을 받는다는 것은 흔치 않은 일로, 오늘 토론에 앞서 우선 이렇게 감명 깊게 읽을 수 있는 논문을 써주신 필자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아래서는 이 논문의 요지를 간략히 정리한 뒤, 궁금한 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논문의 요지

필자는 1950년대 중국에서 있었던 조선어 ‘순결화 운동’의 의미를 찾아, 중국 조선어 ‘순화’의 필요성을 환기하는 데에 논문의 연구목적이 있다고 밝히면서 또한 이러한 작업이 ‘언어 대중’의 언어 사용 측면에서 민족 정체성 상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필자는 논문에서 ‘순결화 운동’에서 나타나는 순화에 대한 인식과 중국의 ‘정풍 운동’ 이후 등장한 규범화 이념을 파헤치며 민족 정체성과 관련지어 순화가 갖는 필요성과 필연성 및 지속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고, 요동치는 사회 현실 속에서 ‘순결화 운동’이나 규범화 그 밑바탕에는 ‘보존’이라고 하는 강한 의식, 또 그것을 위한 ‘처절한’ 노력과 몸부림이 있었다는 사실, 그것이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이어져 온, 또 이어져 가야 하는 것임을, 필자는 그 동안 소외되거나, 우리가 접하기 어려운 많은 자료를 제시하며 밝히고 있습니다. 논문을 읽으면서 다시 한 번 순화의 의미 등 많은 것에 대해 되짚어 보고 생각하게 되는 귀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논문 마무리 부분에서 필자는 민족 정체성 문제와 관련지어 순화 자체가 갖는 필요성을 인지하고 순화에 대한 회귀적 인식을 가져야 하며 또한 그 본래의 목표와 방향성에 대해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한다고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의 중국 조선어 규범화가 고유어 중심의 ‘보존’을 이념으로 집행되었다면, 고유한 민족 정체성까지도 ‘보존’의 범주에 넣어 정적인 표준으로서의 규범화와 능동적인 언어 가꾸기의 성격을 갖는 순화 간의 관계 정립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필자의 생각에 공감하며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 2. 토론자의 질문

**질문 1.** 필자는 논문 마무리 부분에 ‘보존’을 위한 능동적 언어 가꾸기 성격의 순화를 교육적 측면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그 적용 방식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중국의 언어정책 그리고 소수민족정책 하에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해 나가야 하는지, 필자의 더 깊은 생각이 궁금합니다. 현실적으로, 논문 머리말 부분에서 서술했듯이 “뽀족한 대안 없이 이중언어 교습이라도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전부”라면 혹시 이를 위한 실질적인 해결방법이나 실천적 노력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필자의 생각을 좀 더 펼쳐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2.** 필자는 논문 마무리부분에 “.....근 70년 동안 변함없는 어휘규범화 원칙을 따라서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동질성이 희석되지 않게끔, 지금은 ‘언어 대중’의 언어 사용에 대한 배려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언어 대중’은 어쩌면 한민족 언어를 사용하는 우리 모두를 지칭한다고 일단 본 토론자는 그렇게 이해하였습니다. 즉 우리말 사용에 대한 우리 모두의 배려가 필요하다는 필자의 간절한 호소로 이해하였는데, 그렇다면 빛의 속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이 시대, 복잡한 정세와 언어 환경 속에서 ‘보존’을 기저에 둔, 원활한 소통과 대중화라고 하는 언어 사용에 대한 대중의 의식과 배려를 어떠한 방법으로 환기시켜야 하는지, 학자적 호소와 학문적 기여 외에 또 다른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필자의 생각을 좀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3.** 8페이지, 표1 <현시점에서 본 국어 순화의 제 요소들>, 아래 단락에 보면 “.....아울러 순화가 갖는 능동성에 주안점을 두어 ‘醇化 (refinement)’라는 용어를 제안하고자 한다”라고 하셨는데 이 제안은 물론 중국 조선어 순화에 대한 제안이시지요? 그렇다면 이는 한국의 국어 순화와 같은 한자를 사용하는 것인데, 혹시 이는 순화의 대세, 방향, 기준 등과 관련하여 또 다른 시사하는 바가 있는 건 아닌지 필자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질문 4.** 그리고 사소한 문제이기도 하나, 이 논문에 보이는 일부 표현이나 어휘가 필자의 언어습관일 수 있겠지만 자주 반복하여 나타나거나, 좀 더 부드러운 표현으로 바꾸어 주면 더 좋을 것 같은 부분이 두루 보이는데, 예를 들어 ‘의의가 있다, 의의를 도출해 내다,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등에서 보이는 ‘의의’라는 단어가 10회 정도 반복하여 논문에 나타납니다. 반면 이를 대체할 수도 있는, 어쩌면 사용 빈도가 좀 더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의미’라는 단어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통의 원활화’, ‘소통성 제고’, ‘소통성’ 등 이러한 표현은 따옴표 없이 서술부분에 나타날 때는 좀 더 읽기 쉬운 표현으로 바꾸어 주면 좋을 듯한데, 이러한 사소한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중화권 한국어 학습자의 자기조절학습 동기와 전략

-유튜브의 한국어 공부법 소개 영상을 중심으로-

최지영(이화여자대학교)

## 1. 서론

본 연구는 중국 본토 이외의 중화권에 거주하면서 현지 출판 교재, 인터넷 교육 콘텐츠 등을 이용해 한국어를 독학하는 학습자들의 자기조절학습 동기를 살펴보고 한국어 학습 전략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1년에 발간한 교육부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의 한국어 학습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여 약 16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sup>1)</sup> 특히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K-pop 뿐만 아니라 글로벌 OTT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국 드라마·영화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인터넷 콘텐츠를 통해 한국어를 독학하는 학습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최지영·이수진, 2022:406). 특히 유튜브<sup>2)</sup>가 놀이를 위한 공간에서 학습을 위한 공간으로 확장되고 주요 러닝 콘텐츠 플랫폼으로 자리 잡으면서(김탁훈·배소연, 2020:126), 한국어교육을 목적으로 개설되는 채널도 점점 많아지는 추세이다.<sup>3)</sup> 중국어 모어 화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교육 전문 채널은 13개 정도로 중국 본토에서 유튜브가 서비스되지 않기 때문에 대체로 대만, 홍콩, 말레이시아, 마카오 등에 거주하는 중국어 모어 화자나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한국인이 교육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 콘텐츠는 주로 특정 문법이나 어휘, 한국 문화 등에 대한 중국어 설명으로 구성되고 학습자의 흥미를 끌 수 있을 만한 신조어나 유행어, K-pop, 드라마 등을 주로 다룬다. 그러나 이러한 흥미 위주의 콘텐츠만으로는 체계적인 학습이 어렵고 강사진 역시 한국어교육 전문가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의 제작 및 보급이 필요한 실정이다.

실제로 공적 성격을 띠는 세종학당재단에서는 해외의 온라인 학습 수요를 고려하여 세종학당 홈페이지에 ‘자가 학습 과정’이라는 메뉴를 만들어 입문부터 중급까지의 교육과정 및 드라마와 K-pop을 활용한 ‘K-wave 한국어’를 탑재하여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공식 유튜브 채널에도 게시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어 자막이 제공되는 영상이 많지 않고 한국어교육 콘텐츠

1) 구체적인 정보는 교육부에서 발간한 ‘2021년 해외 한국어교육 지원 사업 기본계획’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유튜브는 참여자들이 생산 및 소비의 주체가 되어 동영상을 업로드하거나 시청할 수 있는 인터넷 플랫폼으로 전 세계 100개국 이상에서 약 20억 명이 사용하고 있으며 구글 다음으로 방문자가 많은 웹사이트이다. 공식 홈페이지(<https://www.youtube.com/intl/ko/yt/about/press>)에서 사용자 및 콘텐츠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3) 유튜브에서 ‘Learn Korean’을 검색하면 약 23개의 채널을 찾을 수 있고, ‘学习韩语’를 검색하면 약 13개의 채널을 찾을 수 있다. 이는 한국어교육 관련 콘텐츠만을 업로드하는 채널로 한정했을 때의 숫자이고, 브이로그나 한국 문화, 연예 뉴스 등의 콘텐츠를 주로 만들면서 한국어교육 관련 콘텐츠를 함께 업로드하는 채널을 포함하면 그 수가 훨씬 많아진다. 대표적인 채널로는 ‘seemile Korean’, ‘Study Abroad in Korea’, ‘AnnyeongLJ 안녕 엘제이’, ‘Wawa Gong 와와공’ 등이 있다.

외에 세종학당재단 홍보 영상 등이 함께 업로드되고 있어 학습자가 자신의 수준에 맞는 콘텐츠를 찾아서 보기가 쉽지 않다. 최근 새로 유입되고 있는 한국어 학습자들은 대체로 텍스트보다는 영상을 선호하는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로 모든 과정을 독학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학습의 보조 도구로 유튜브 콘텐츠 등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학습자가 스스로 제작해서 유튜브에 업로드한 독학 경험담 및 공부법 소개 영상을 분석하여 자기주도적으로 한국어를 습득한 학습자들의 자기조절학습 학습 동기와 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중화권 독학 학습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양질의 자가 학습 콘텐츠 제작,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 개선, 학습 효과 제고 방안 등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중화권 한국어 학습자의 자기조절학습 동기는 무엇인가?
- (2) 중화권 한국어 학습자의 자기조절학습 전략은 어떠한가?

## 2. 온라인 환경에서의 자기조절 언어 학습

독학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를 습득한 학습자는 자기조절학습(Self-regulated learning, 이후 SRL로 명명함) 능력을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SRL 능력은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을 스스로 관리하고 책임지는 능력으로(Carneiro et al. 2011:vii) 교육학 분야에서 주로 논의되어 오다가 L2 교육 분야에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개념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SRL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대표적인 연구로 Zimmerman(1986), Zimmerman & Schunk(2011), Rebecca(2017) 등이 있다. Zimmerman(1998)에 따르면 SRL은 ‘사전 사고(foresight), 수행(Performance or volition control), 자기 반영(Self-reflection)’의 세 단계가 순환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것이 반복되면 자연스럽게 자기 주도적 피드백의 연결고리가 형성되어 학습의 과정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첫 번째 단계인 ‘사전 사고’는 학습을 수행하기 전에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다. 다음으로 ‘수행’은 주의 집중, 자기 감시, 전략의 선택 및 배치, 질문 등의 학습 행동을 하는 단계로 학습의 지속 여부와 수행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 마지막으로 ‘자기 반영’의 단계에서 학습자는 자신의 학습을 평가하고 학습 행동을 성찰하는데 이것이 다시 학습의 주기를 계획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면서 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L2 연구 분야에서는 2010년 이후 기술 발전에 따라 EFL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언어 학습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면서(Çelik, Arkin, & Sabriler 2012; Kondo et al. 2012; Şahin Kizil & Savran 2016; Shyr & Chen 2018) SRL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먼저 Salehi & Jafari(2015)는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학습자의 자기조절 능력을 열세 가지로 구분하여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설문지를 개발하였는데 설문 항목으로 ‘내재적 동기, 자기 효능감, 귀인 성향, 태도, 조직화, 기억 전략,

자기 감시, 자기 평가, 계획 및 목표 설정, 주의집중력, 과제 지속성, 환경 관리, 도움 요청'을 포함하였다. 이러한 자기조절 평가 항목은 연구자나 연구의 목적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데, 중국인 EFL 학습자의 학습 개념과 온라인 자기조절 언어 학습 사이의 관련성을 연구한 Zheng et al.(2016)에서는 자기조절에 기여하는 요인을 '목표 설정, 환경 구조화, 과제 전략 및 시간 관리, 도움 요청, 자기평가'로 개념화한 바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영어학습을 목표 언어와 문화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는 수단으로 여기고 주요 표현을 암기하고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학습자의 자기조절 능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Lai & Gu(2011)는 홍콩 대학생을 대상으로 교실 밖에서 이루어지는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학습에서의 자기조절 전략을 살펴본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자기조절 전략을 '목표에 대한 몰입, 자원 조절, 정서 조절, 문화 학습, 메타 인지, 사회적 연결'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는데 학습자가 학습 목표에 전념하고 학습에 도움이 되는 자원을 찾고 문화적 지식을 습득하고 학습에 대한 지루함을 극복하는 데에 테크놀로지 사용이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비슷하게 Şahin Kizil & Savran(2016)에서는 터키 대학의 EFL 학습자를 대상으로 정보 통신 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CT)의 활용이 자기조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여기서도 Lai & Gu(2011)와 같이 여섯 가지 자기조절 전략을 조사하였는데, ICT 도구의 활용이 학습 목표 달성 및 동기 부여에 도움을 주고, 더 풍부한 학습 자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Wang & Chen(2019)에서는 유튜브를 통해 영어를 학습한 경험이 있는 대만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인터뷰를 진행하여 SRL 양상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학생들은 학습 자원을 찾고 학습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다른 문화를 알기 위해 유튜브의 영어 교육 콘텐츠를 활용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학습 활동이 실제로 학습 목표 달성, 학습 계획 수립, 학습 진행 상황 확인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습자가 '좋아요'를 누르거나 영상을 공유하는 것 이상의 적극적인 활동, 가령 학습한 내용을 메모하거나 댓글로 자신의 의견을 남겨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활동은 거의 하지 않고 있었다. 이를 통해 '학습자 스스로 생각을 통제하고 자신의 학습을 조절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학습자의 메타 인지를 강화하고(Van-dergrift & Goh 2012:5) 유튜브의 사회적 특성을 수용하여 적극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 콘텐츠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019년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광범위한 온라인 수업이 이루어지면서 국내에서도 온라인 SRL에 대한 논의가 영어 교육 분야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모수경(2021)은 대학 온라인 영어 수업에서의 자기조절과 협력적조절이 학습자의 사회적 실재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는데, 이 두 요인이 학습자의 사회적 실재감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향미(2021)는 교실 밖에서 이루어지는 L2 영어 학습에서 SRL 능력과 정의적 요인의 상호관련성을 분석하였는데, 학습자가 스스로 디지털미디어 기술을 활용하여 SRL 능력을 높이는 것이 목표 언어 습득에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이주은·임현우(2021)는 고등학생들의 교실 밖 온라인 영어 사용 및 테크놀로지 활용 영어 학습에서의 자기조절 전략 사용을 살펴보았는데 고등학생의 경우 교실 밖 온라인 영어 사용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았고 자기조절 전략 사용도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적 전략의 사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Wang & Chen(2019)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다.

한국어교육 분야에서는 한하림(2021)이 외국인 학부생의 온라인 수업 만족도를 조사하고 SRL 능력, 사회적 실재감, 교수 실재감이 수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바 있다. 연구 결과 세 요인 모두 온라인 수업 만족도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고, SRL 능력과 관련해서는 과제 전략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장민정(2021)에서는 학문 목적 온라인 수업에서 나타나는 학습자의 강의 듣기 태도, 학습 스타일, 자기조절학습 양상을 분석하였다. 여기서는 SRL을 ‘목표 설정, 환경 구성, 과제 전략, 시간 관리, 도움 요청, 자기평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는데 스스로 학습 환경을 구성하고 시간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학습자의 성취도가 높았고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학습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성취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온라인 언어 학습에서 SRL 능력이 L2 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디지털미디어 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이 SRL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SRL 연구가 소수에 불과하고 교수자가 존재하는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 나타나는 학습자의 SRL 능력이나 전략만을 살펴보고 있다는 점에서 더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해외에서 한국어를 독학하는 중화권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학습 동기를 살펴보고 SRL 전략 사용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 3.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중화권 독학 학습자 20명이 유튜브에 게시한 한국어 학습법, 학습 경험 소개 영상 27개로 유튜브에서 ‘韓文自學’를 검색하여 추출한 영상이다.<sup>4)</sup> 20명 중 4명은 2급 정도 수준의 초급 학습자였고, 2명은 3~4급 수준의 중급 학습자였으며, 나머지 14명은 5급 이상의 고급 학습자였다. 고급 수준의 학습자들은 유튜브를 통해 한국어를 가르치거나 온라인 한국어 수업을 하는 한국어 강사나 통역사 등으로 일하고 있었고, 일부는 한국 내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한국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다. 다음 <표 1>은 본 연구에서 분석한 독학 관련 영상의 목록이다.

<표 1> 분석 영상 목록

	채널명	제목	분량
1	Wawa Gong 와와공	從零開始學韓文的方法   自學韓語的朋友們請舉手👋👍從今天開始這樣學韓文吧! Wawa Gong 韓語教學影片觀看順序☺	13:57
		做頻道一年來的酸甜苦辣👉   學韓文的捷徑? 影片製作想法、自我反省期👉不	14:19

4) 유튜브에서 ‘韓文自學’를 검색하여 최초로 추출한 영상은 총 36개였으나 내용 분석 과정에서 독학한 것이 아니거나 독학과 함께 어학원 수업을 병행한 경우, 구체적인 학습 경험을 파악할 수 없는 내용 등 9개를 제외하여 최종 27개를 분석하였다.

		為人知的真心話 韓文老師的筆記大公開！如何做高效筆記⇒韓文一定要知道的做筆記方法● 五萬特輯，範本請自行下載！	8:38
2	不足哥 한국어	【如何學好韓文#1】我為什麼自學韓文？真實小故事分享	6:23
		【如何學好韓文#9】輕鬆自學韓文?? 給學韓文遇到瓶頸的您!! 學韓文經驗分享 ft: 香港韓文知識型IG : 아영	14:27
		【如何學好韓文 # 2】自學韓文文法書推薦：「我的第一本韓語文法」	4:48
3	AnnyeongLJ 안녕 엘제이	我的韓文自學法(上) / How Do I Learn Korean By Myself	23:53
		我的韓文自學法(下) / How Do I Learn Korean By Myself	21:00
4	住挪威的那個人	為什麼我從12歲小學六年級開始學韓文？還考到高級檢定？（上）動機&歷程 分享	7:18
		為什麼我小六12歲開始自學韓文？還考到高級？（下）困難點	4:14
5	ShikiLab	how I study Korean and pass TOPIK level 5 自学韩语经验分享   花费   教材   网课资料等等	5:45
		【Study】How I self-study Korean   pass TOPIK 4 in 2 years 两年自学韩语过4级	7:41
6	處女獅子 VirgoLeo	史上最佛系的韓文自學法/TOPIK 5級/韓文口說怎麼練？	8:43
7	AKANE6:30	自學韓文方法 ■ 一年考到TOPIK6韓文六級   韓文教材分享   韓文檢定	6:47
8	孝英효영	About Korea:如何自學韓文？！推薦自學書！	10:1
9	stillyi	如何自学韩语从零开始到精通秘诀	11:30
10	阿倫 Alun	韓文自學8大技巧！不藏私秘笈大公開，原來在家也可以學好韓文！	14:4
11	뉴뉴 Niu niu	《한국어 말하는 외국인 #1》도전! 한국어 공부하는 방법을 한국어로 공유 해요! 한국을 좋아하는 대만 사람	6:20
12	타이완에서 온 그녀來自台灣 的女孩	• 聊解韓語 • 我的韓文練習法大公開 • 한국어공부 • 나의 한국어 연습법 대 방출	15:10
13	黃心 Wendy.웬디	韓文自學#1/不用教科書就能自學的三個秘訣？最後有彩蛋…	11:43
14	廖妍庭	【巧克力牛奶】韓檢TOPIK滿分筆記大公開！自學韓文買什麼書才好？唱歌學 韓文？自學韓文就是這麼簡單！	11:12
15	廖sally	韓文真的能自學嗎?通過TOPIK I(2級)!!!!	11:23
16	Shirli설리	[한/중자막] ㅇㅇ때문에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한국어 독학과정 and 노 하우! ♡Shirli 설리♡	9:57
17	機泥Genie	學韓文推薦自學書【Topik韓文檢定】如何入手韓文工具書	8:27
18	阿敏與雷吉娜 的超有趣韓文	《韓檢》韓檢6級小秘訣&韓文學習法	15:3
19	小莉大力一點	我的韓文歷程KR自學韓文課本教材□跟我一起看TOPIK韓檢成績~小莉大力一點	15:43
20	夏夏 XiaXia 샤샤	什麼？自學也能輕鬆過韓檢？   韓檢初級TOPIK I 準備方法   夏夏XiaXia	4:41

<표 1>에서 ‘나의 한국어 독학법’, ‘한국어를 독학하는 이유’, ‘독학으로 토픽 합격하는 법’ 등의 제목으로 된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들 영상의 평균 재생 시간은 10분 32초였다. 영상은 대체로 중국어 자막만 제공되는 경우가 많았고 중국어와 한국어 자막이 함께 제공되는 영상이나 자막이 전혀 제공되지 않는 영상도 있었다.5) 연구를 위해 먼저 자막을 추출하거나 전사하여 번역하는 과정을 거친 후 전사본을 바탕으로 학습 동기가 무엇인지, 어떤 SRL 전략이 나타나는지

5) 유튜브에서 자막이 추출되는 경우 추출된 자막을 바탕으로 번역 작업을 하였고, 자막 추출이 어려운 영상의 경우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대만 출신 학부생에게 전사를 부탁한 후 전사본을 바탕으로 번역 작업을 하였다.

를 태깅하였다. 이때 Lai & Gu(2011)에서 제시한 분류 방식에 따라 SRL 전략을 ‘목표에 대한 몰입, 자원 조절, 정서 조절, 문화 학습, 메타 인지, 사회적 연결’의 여섯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sup>6)</sup> 여기서 ‘목표에 대한 몰입’은 학습자가 학습 과정에서 목표에 전념하고 학습을 지속했는지를 살펴보는 항목이다. 두 번째 ‘자원 조절’은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에 도움이 되는 자원을 찾거나 확장했는지를 살펴보는 항목이고, 세 번째 ‘정서 조절’은 학습의 지루함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고취하기 위해 노력했는지를 살펴보는 항목이다. 네 번째 ‘문화 학습’은 언어 학습을 통해 문화적 지식을 찾아보고 이해하고자 했는지를 살펴보는 항목이고, 다섯 번째 ‘메타 인지’는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의 과정을 계획하고 평가하고 모니터링하는지를 살펴보는 항목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연결’은 학습 과정에서 원어민이나 동료 학습자들과 의사소통을 하고 사회적으로 연결되고자 했는지를 살펴보는 항목이다. 이상의 영상은 학습자가 자발적으로 제작한 것으로 자신의 학습 경험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학습에 도움이 되는 조언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영상의 내용에 따라 언급되지 않은 정보가 있거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이메일을 통해 개별적으로 질문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보완하였다. 이상의 기준으로 태깅된 자료는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학습자에 대한 이해가 높은 한국어교육 박사 수료 이상의 전문가 세 명에게 검토받는 과정을 거쳤다. 연구자와 검토자 사이에서 분석 결과에 대한 의견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논의를 통하여 합의를 이루었다.

#### 4. 중화권 한국어 학습자의 자기조절학습 동기 및 전략

##### 4.1. 중화권 한국어 학습자의 자기조절학습 동기

학습 동기는 어떤 목표를 향한 행동(Masgort & Gardner, 2003)으로 인간을 행동하게 하고 그 행동을 유지하게 하는 심리적인 힘이라고 할 수 있다(Schunk et al., 2008). 전통적으로 학습 동기는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로 구분하는데 내재적 동기는 내부에서 발현되는 흥미나 학습에서 느끼는 성취감, 자신감 등이고 외재적 동기는 성적, 칭찬, 보상 등 외부에서 주어지는 동기를 의미한다(강귀중·조위수, 2018:233). 그러나 외국어 학습에서 나타나는 학습 동기는 대체로 통합적 동기와 도구적 동기로 구분하는데(Gardner & Lambert, 1959), 통합적 동기는 목표 언어의 문화에 통합되고 목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외국어를 학습하는 것이고, 도구적 동기는 미래에 좋은 직업을 얻거나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한 특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외국어를 학습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인 20명의 자기조절학습자는 한국어나 한국 문화에 흥미를 느껴 자발적으로 학습을 시작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95%), 단 1명(5%)만이 교환학생 지원을 목적으로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많은 학습자들이 한국

6) Lai & Gu(2011)에서 제시한 틀은 발전된 기술 환경을 기반으로 한 학습에서의 SRL 전략을 분류한 것으로 교실 밖 L2 학습에서의 SRL을 분석한 Wang & Chen(2019), 이주은·임현우(2021) 등에서도 분석의 기준으로 삼은 바 있다.



인과 의사소통하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통합적 동기를 가지고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었으나(65%) 스스로 학습 계획을 수립하고 동기를 유지하기 위해 TOPIK 시험에 등록한 후 시험 합격을 목표로 공부하는 학습자도 있었다(35%). 유튜브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기조절학습자의 한국어 학습 동기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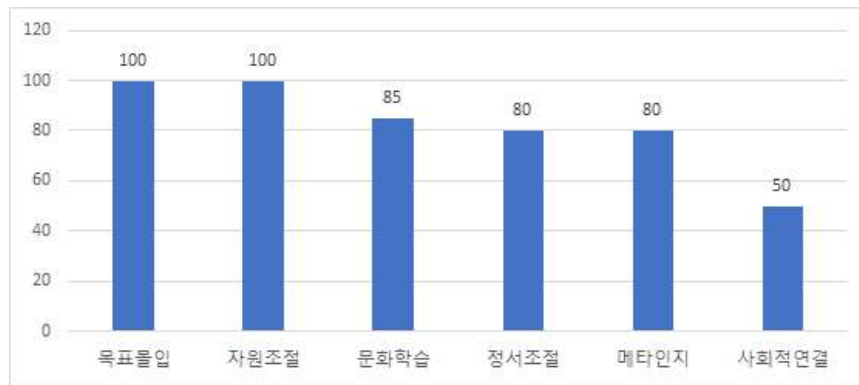
- (1) 2009년은 슈퍼주니어의 ‘쏘리쏘리’가 아시아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해였는데 그때부터 제 인생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모르는 상태로 한국 노래 가사를 읽다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떤 언어를 배우든 원어민처럼 말하고 싶은 허영심이 있거든요. 발음을 익히고 난 후에도 오빠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싶어서 책을 사서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 (2) 제가 한국어를 공부하는 이유는 연예인이나 한류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중국어를 잘 못하는 한국인 친구를 도와주고 싶어서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 (3) 한국어를 배우기 전에는 한국 드라마나 아이돌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한국 여행은 경비가 많이 들지 않고 귀여운 물건이나 예쁜 커피숍이 많으니까 갔는데 막상 가 보니 한국말을 못 해서 불편한 게 많았어요. 그래서 놀러 갈 때 편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하기로 마음먹었어요.
- (4) 저는 한국어를 배우는 목표를 TOPIK으로 삼으면 실력이 매우 빨리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평소에 한국 드라마를 많이 봐서 듣기 실력이 좋은 사람도 많은데 정말 진지하게 공부하고 싶다면 TOPIK 기출 문제를 다운로드해서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의 (1)과 같이 한국 아이돌 가수나 드라마 등의 한류 문화에 관심이 생겨서 학습을 시작한 경우가 8명(40%)이었는데, 이들은 학습 과정에서 K-pop, 예능, 드라마, 영화 등의 한류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나 (3)과 같이 한국인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학습자는 4명(20%)으로 이들은 학습한 것을 한국인 친구와의 대화나 한국 여행을 통해 활용함으로써 성취감을 얻고 학습 동기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 외에 한글이 특별해 보여서 공부하기 시작했다는 학습자가 1명(5%) 있었으며 이들은 모두 통합적 동기를 가진 학습자로 분류하였다. 나머지 7명 중 6명(30%)은 자발적으로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으나 특정한 목표 없이 자기조절학습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TOPIK 합격을 목표로 공부하는 학습자들이었다. 이들은 교환학생을 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한 학습자 1명(5%)과 함께 도구적 동기를 가진 학습자로 분류하였다. 대체로 통합적 동기를 가진 학습자들이 고급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있었고(초급 1명, 고급 12명), 도구적 동기를 가진 학습자의 경우 초급, 중급, 고급 학습자의 수가 비슷하게 나타났다(초급 3명, 중급 2명, 고급 2명). 일부 학습자들은 “저는 한류 스타를 좋아하지 않아서 평소에 한국어를 들을 기회가 거의 없는 게 가장 큰 단점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떤 스타의 팬이라면 저보다 학습 속도가 훨씬 빠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어를 잘하려면 한국어에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언어 학습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등과 같이 말함으로써 통합적 동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 2.2. 중화권 한국어 학습자의 자기조절학습 전략

다음으로 중화권 독학 학습자들이 사용하는 SRL 전략을 ‘목표에 대한 몰입, 자원 조절, 정서 조절, 문화 학습, 메타 인지, 사회적 연결’ 전략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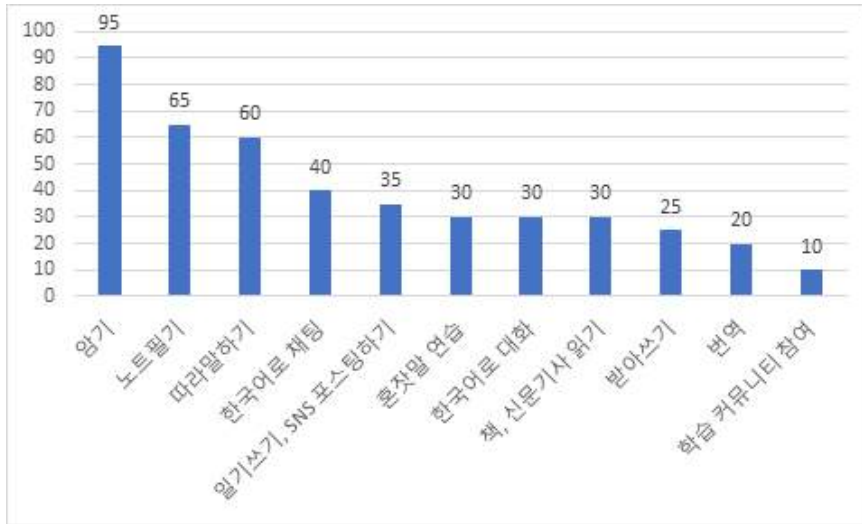
<그림 1> 중화권 독학 학습자의 SRL 전략 사용 양상

본 연구의 대상은 교사의 도움 없이 자기주도적으로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습자들로 <그림 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다양한 SRL 전략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특히 모든 학습자들이 강한 의지로 학습 목표에 전념하면서 학습을 지속하고 있었는데 다음 (5)~(8)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5) 학교 공부와 한국어 공부를 병행할 수 있을까요? 중학교 때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한국어를 공부했는데 시험 기간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매일 15분씩이라도 공부하면서 단어와 문법을 배웠습니다.
- (6) 학교 점심시간에도 잡담하면서 시간을 보내기 싫어서 유튜브로 고려대학교 한국어 중급 과정을 봤는데 1회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공부했습니다.
- (7) 기본적으로 매일 3~400개의 한국어 단어를 복습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하나씩 외우지 않고 훑어보는 방식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3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 큰 부담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단어를 외우는 데 1시간 이상이 걸려도 매일 틈틈이 앉아서 책을 읽었습니다.
- (8) 반년 동안 한국어를 독학으로 공부한 후 TOPIK 4급을 땀고 다시 반년 만에 6급에 합격했습니다. 올해 독학을 하면서 하루 2~3시간 정도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일했습니다. 독학으로 잘 배우고 싶다면 인내심을 가지고 매일 조금씩 공부해야 합니다. 매일 하는 조금씩의

노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오늘 정말 바빴고 퇴근하고 집에 와서 한 마디도 못 하는 상태라도 공부를 조금 하는 거죠.

학습자들은 위와 같이 학습에 몰입하고 이를 지속하기 위해 다양한 학습 방법을 시도하고 있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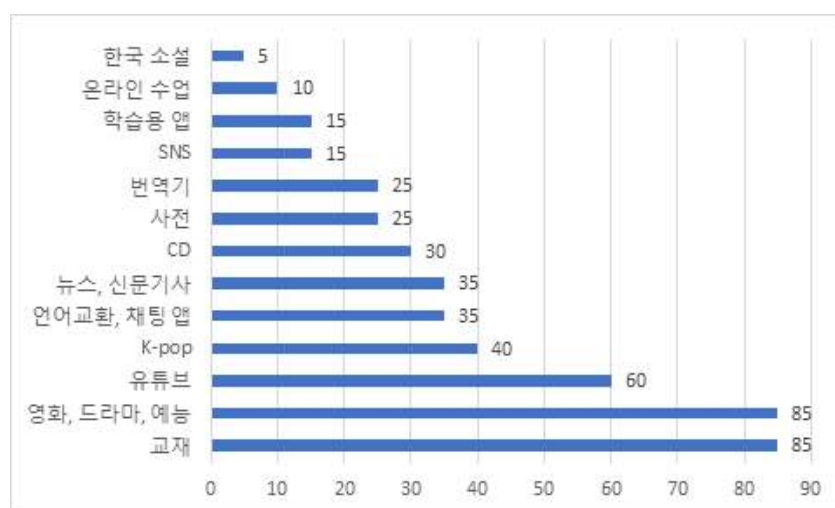
<그림 2> 중화권 독학 학습자의 한국어 학습법

<그림 2>에서 학습자들이 필수적인 단어나 표현을 암기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대체로 교재에 수록된 CD나 유튜브의 한국어교육 채널에서 제공하는 영상 등을 활용하여 한글 자모를 읽는 방법을 배운 후 주요 단어나 표현을 암기하는 방식으로 학습하고 있었다. 주로 개별 단어나 표현, 문법의 예문을 암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노트에 반복해서 쓰면서 외우거나 단어장을 만들어서 들고 다니면서 외우는 경우가 많았고, 태블릿이나 휴대전화의 단어 학습용 앱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20명 중 1명은 따로 시간을 내어 단어나 표현을 암기하지 않고 예능 프로그램을 반복해서 보면서 자주 나오는 단어나 표현을 자연스럽게 기억하는 방식으로 학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기조절학습자들은 학습한 문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예문을 만들어 보면서 노트 필기를 하는 과정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65%). 노트 필기는 교재에 나오는 전형적인 문법이나 표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도 했으나 통합적 동기를 가지고 독학하는 학습자들인 만큼 규범적인 표현에 집착하기보다는 좋아하는 드라마의 대사나 노래 가사 등을 이용해 유행어 등도 적극적으로 학습하는 모습을 보였다.

해외에서 한국어를 독학하는 학습자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학습한 것을 사용할 기회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말하기의 경우 한국어 원어민을 만나기가 쉽지 않고 동료 학습자를 만나 의사소통할 기회도 많지 않아 20명 중 6명(30%)만이 한국인과 대화하면서 한국어를 연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교사나 동료 학습자가 없는 상황적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 예능이나 드라마에 나오는 말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한국어를 연습하거나(60%) 혼잣말을 하면서 말하기 연습을 하는 학습자들도 있었다(30%). 이 외에 온라인 채팅을 이용하는 학습자들도 비교적 많았는데(40%) 채팅은 직접적인 말하기 연습은 아니지만 언어 교환 앱 등을 활용하면 온라인에서 한국인을 만나 대화할 기회를 얻기가 비교적 쉽고 구어체 연습을 할 수 있어 많은 학습자들이 말하기 연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쓰기와 관련해서는 TOPIK을 준비하기 위해 매일 한국어로 일기를 쓰거나 개인 SNS 계정에 일상생활을 포스팅하는 학습자들이 있었다(35%). 그리고 읽기 연습의 경우 네이버 등의 한국 웹사이트에서 신문 기사를 찾아 읽거나 한국인이 운영하는 블로그 등에서 좋아하는 분야의 글을 찾아 읽는 학습자들이 있었고 애플 북스 등으로 한국어로 된 전자책을 구입해서 읽는 학습자도 있었다(30%). 또 단순히 드라마를 보거나 신문 기사를 읽는 데서 그치지 않고 내용을 받아쓰고(25%) 번역하고(20%), 모르는 문법이나 단어를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는 방식(15%)으로 적극적인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 거주하는 지역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습자들끼리 모여서 함께 공부하는 학습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었다(10%).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독학으로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습득한 학습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SRL 전략 중 하나가 학습 목표에 대한 몰입이며, 암기, 노트 필기, 따라 말하기, 채팅, 일기 쓰기, 혼잣말 연습, 한국인과 대화, 신문 기사 읽기, 받아쓰기, 번역, 인터넷 검색, 학습 커뮤니티 참여 등의 다양한 학습 방법을 통해 학습에 몰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학습자들은 ‘목표에 대한 몰입’과 함께 ‘자원 조절’ 전략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다양한 학습 방법이 시도되는 만큼 학습에 도움이 되는 교재, 한류 콘텐츠, 한국어 학습용 영상, 언어 교환 앱, 뉴스 등의 자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림 2> 중화권 독학 학습자의 학습 자원

전통적으로 언어 학습에서는 교재가 필수적인 학습 자원이지만 교재 없이 공부하는 학습자들도 일부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학습 목표나 단계에 따라 다양한 교재를 구입하고 있었으며 현지 출판 교재뿐 아니라 한국에서 출판된 교재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다(85%). 교재에 의존하는 학습자들은 해당 교재에서 제공하는 CD, MP3 등의 음성 파일을 듣기 연습에 활용하기도 하였다(30%). 그리고 한국 문화에 관심이 생겨서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학습자들이 많아 영화, 드라마, 예능 등의 한류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고(85%), K-pop의 가사를 따라 부르면서 공부하는 학습자들도 적지 않았다(45%).

다음으로 절반 이상의 학습자들이 유튜브를 활용해 한국어 학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국어교육 전문 채널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활용하는 학습자가 9명(45%)이었고, 한국인이 만든 브이로그나 연예인 등이 출연하는 비디오를 이용해 공부하는 학습자가 3명(14%)이었다. 유튜브에서 활용하는 학습 채널로는 주로 중국어로 운영되는 채널인 ‘Miss Sue Chang 韓語小教室’, ‘啞巴韓語’, ‘JJ老師’, ‘Study Abroad in Korea’ 등이 언급되었고, 단 2명만이 국내에서 만들어진 채널인 ‘Talk To Me In Korean’과 고려대학교에서 제작한 한국어교육 영상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학습 사례를 살펴보면 인터넷의 발달로 해외에 거주하는 학습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학습 자원이 다양화되었으나 중화권 독학 학습자들이 한국어교육 전문가들이 만든 양질의 교육 콘텐츠에 접근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종학당재단 채널이나 국내 대학의 언어교육원에서 제작한 교육 영상, 개인이나 기업에 의해 운영되는 한국어교육 전문 채널의 경우 대체로 영어권 화자를 대상으로 하여 영어로 문법의 내용을 설명하거나 영어 자막만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최지영·이수진, 2022; 김참이 외, 2022). 다만 학습자들이 한국어 학습을 위해 시청하는 채널의 경우 고급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대만인이 중국어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내용도 종종 발견된다. 또한 전문성을 갖춘 강사들은 학생들을 유료 강의에 참여시키기 위한 유인책으로 유튜브를 사용하고 대체로 조회 수를 높여 광고 수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기보다는 흥미 위주의 내용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다음으로 많은 학습자들이 휴대전화에서 다양한 앱을 다운로드 받아 학습에 활용하고 있었는데 ‘Hello Talk’, ‘Tandem’ 등의 언어 교환 앱이나 ‘카카오톡’ 등의 채팅 앱을 활용하는 학습자가 7명(35%) 있었고,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의 SNS를 활용해 연예인 등이 한국어로 포스팅한 내용을 읽거나 한국어로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공부하는 학습자가 3명(15%) 있었다. 그 외에 Anki와 같은 앱을 사용해 단어를 암기하거나 ‘notability’, ‘goodnotes’ 등을 활용해 노트 필기를 하거나 ‘맞춤법 검사기’를 활용하여 문장의 띄어쓰기나 맞춤법을 공부하는 등 다양한 테크놀로지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5%). 중급 이상의 학습자들은 한국의 포털 사이트에서 뉴스나 신문 기사를 검색하여 읽기를 연습하거나(35%) 온라인 서점에서 한국어로 된 e-book을 구매해서 읽기도 했다(5%). 또 학습에 번역기(5%)나 사전(25%)을 이용하는 학습자들도 있었는데 주로 ‘네이버 사전’이나 ‘과파고’ 등 국내에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를 추천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학습자가 주로 독학에 의지해 자기조절학습을 하고 있지만, TOPIK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쓰기 피드백 등 교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단기 온라인 수업을 수강하는 경우도 있었다(10%). 이상의 내용을 통해 해외에서 한국어를 독학하는 학습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상당히 다양하고 풍부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20명의 연구 대상자 모두 자원 조절 전략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성공적인 자기조절학습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1>의 SRL 전략 사용 양상에서 ‘목표에 대한 몰입’, ‘자원 조절’ 다음으로 높게 나타난 전략은 ‘문화 학습’ 전략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많은 학습자들이 한류 콘텐츠를 중심으로 언어와 함께 문화 학습을 하고 있었고 한국어 교재나 소설을 통해 문화적 지식을 습득하는 경우도 있었다(85%).

- (9) 제가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기 시작한 계기는 중학교 때 슈퍼주니어의 예능 방송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한류 열풍이 지금처럼 심하지 않아서 홍콩에 한국어 학원도 많지 않았는데 예능 방송이나 노래, 드라마를 찾아서 독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 (10) 한국어 실력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면 단순히 아이들을 쫓는 것 이상의 내용을 공부하게 됩니다. 저는 공부를 하면서 더 깊은 문화적, 사회적 측면을 이해하게 되었고 앞으로 한국어를 잘 배우면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 (11) 이 책이 다른 교재와 다른 점은 한국의 관습이나 문화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인데요. 이 부분을 통해 다양한 수준과 측면에서 한국의 문화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정서 조절’ 전략인데(80%) 이는 독학 학습자들에게 특히 유효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대체로 학습을 지속하다 보면 실력이 빠르게 향상되지 않거나 흥미가 떨어지는 정체기를 겪게 되는데 정해진 교과과정이나 학습을 독려하는 교사가 없는 상황에서는 학습을 지속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 (12) 한국어를 배우다가 너무 어려우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이때는 쉬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공부하기가 싫으면 일단 휴식을 취한 다음 다시 시작해야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어 공부를 나만의 휴식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좋아하는 것을 매일 15분씩이라도 재미있게 공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 (13) 저는 인내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야의 짧은 영상을 골라서 공부합니다. 너무 길면 집중력과 인내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듣기 연습을 할 때 10분 정도의 영상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 (14)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고르라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억지로 배우거나 글을 써야 한다는 느낌 없이 말하기와 읽기를 훈련할 수 있고 즐겁게 손글씨를 연습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독학 학습자들은 좋아하는 콘텐츠를 중심으로 공부하되 지루해지지 않도록 짧은 글이나 영상을 골라 학습 지속 시간을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긍정적인 감정을 고취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정서 조절’과 비슷한 수준으로 많이 사용된 SRL 전략으로 ‘메타 인지’가 있다(80%). ‘메타 인지’는 스스로 학습을 계획하고 자신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하며 학습의 과정을 모니터링하면서 공부하는 능력으로 학습자들은 학습 자원을 선택할 때도 자신의 수준이나 부족한 부분을 점검한 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자원을 고르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학습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 (15) 7월에 TOPIK 시험에 등록한 후 월별로 공부 계획을 세웠습니다. 7월 초에는 자음과 모음의 발음을 숙지하고 어휘와 문법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휘와 문법을 병행하여 공부했는데 문법의 경우 학습 영상을 하루에 몇 개씩 정해두고 봤습니다. 문법을 쓴 후 암기한 단어를 이용해서 예문을 만드는 연습을 했습니다. 8월 중순까지 문법을 공부한 후 9월까지는 단어를 보강하는 데 집중했고 시험 전에 문법을 최소 3회 이상 반복해서 보고 9월에 기출 문제를 풀었습니다.
- (16) 4급 시험의 결과를 보면 읽기와 쓰기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휘력을 늘리기 위해 더 많이 읽고, 인터넷으로 작문 수업을 들으면서 아이디어를 정리하고 작성하는 방법, 접속 부사의 사용법 등을 공부했습니다.
- (17) 이 책에는 문법이 93개나 수록되어 있어서 책이 조금 두껍기는 하지만 상당히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에게는 연습 문제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어떤 주제에 대해 생각하거나 문장을 쓰고 싶은데 문법 당 연습 문제가 4개밖에 없고 빈칸 채우기와 같은 단순한 연습 밖에 없어서 문법을 이해하고 적용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18) 저는 주로 반복해서 쓰면서 암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요즘은 고속 기억법, 영상 기억법, 연상 기억법 같은 새로운 학습법이 많지만, 저에게는 별로 효과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동음이의어의 연상 기억법은 단기적으로 기억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잊어버릴 수 있으니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림 1>에서 제시한 여섯 가지 전략을 살펴보면 ‘목표에 대한 몰입, 자원 조절, 정서 조절, 문화 학습, 메타 인지’ 전략은 전체 학습자의 80% 이상이 사용하고 있지만 ‘사회적 연결’ 전략의 경우 50%만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해외에서 한국어를 독학하는 학습자가 원어민이나 동료 학습자를 만나 의사소통을 하고 사회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19) 다행히 우리 학과 동급생 중에 한국인이 있어서 그 친구와 대화하고 카톡을 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 (20) 말하지 않으면 내가 배운 것이 맞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해야

합니다. 저는 MRT에서 길을 못 찾는 한국인들을 보면 바로 가서 말을 겁니다. 한국인과 말할 기회가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말하는 연습을 해야 하고 한국인 친구를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 (21) 제 한국어 실력을 향상시켜 준 방법은 역시 인터넷에서 한국 사람과 채팅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국인들 타자 속도가 너무 빨라서 다 읽지도 못했는데 대화 내용들이 지나가 버리곤 했어요. 저는 이미 다른 주제로 넘어간 뒤에도 신경을 안 쓰고 계속 제가 하고 싶은 말만 했습니다.

위와 같이 적극적으로 언어 교환을 할 한국인 친구를 찾고 한국인과 의사소통할 기회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학습의 목표를 TOPIK에 두고 문법이나 어휘 학습에 집중하는 경우 ‘사회적 연결’에 대한 요구가 크지 않았다.

## 5. 결론 및 제언

이상의 논의를 통해 중화권 한국어 독학 학습자의 학습 동기와 자기조절학습 전략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유튜브에 업로드된 한국어 독학 관련 영상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성공적으로 한국어를 습득한 학습자들이 자신의 학습법을 공유하기 위해 제작한 영상이었기 때문에 매우 다양한 SRL 전략이 사용되고 있었다. 먼저 학습 동기를 살펴보았을 때는 통합적 동기를 가진 학습자가 도구적 동기를 가진 학습자보다 많았고(각각 65%, 35%), 통합적 동기를 가진 학습자들의 한국어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사용하는 SRL 전략을 ‘목표에 대한 몰입, 자원 조절, 정서 조절, 문화 학습, 메타 인지, 사회적 연결’ 전략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목표에 대한 몰입’과 ‘자원 조절’ 전략의 경우 모든 학습자들이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문화 학습’ 전략이 85%로 높게 나타났다. ‘정서 조절’과 ‘메타 인지’ 전략 역시 80%의 학습자들이 사용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자기조절 전략 사용이 매우 다양하고 활발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만 해외에서 한국어를 독학하는 학습자들인 만큼 한국어나 다른 학습자들과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 ‘사회적 연결’ 전략 사용이 50%로 낮게 나타났다.

연구를 통해 해외에서 한국어를 독학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습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상당히 풍부하며 특히 온라인 테크놀로지의 활용이 학습의 지루함을 극복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선행 연구인 Lai & Gu(2011), Kizil & Savran(2016) 등의 논의와 일치하는 결과로 공익적인 성격을 띠는 세종학당 재단 등에서 독학하는 학습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구성할 때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해외에 거주하는 학습자의 경우 ‘사회적 연결’에 어려움을 겪는데 학습자들이 많이 사용



하는 자원인 유튜브의 경우 사회적인 특성이 강하므로 적극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 콘텐츠를 구성하고 실시간 라이브 방송 등을 통해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고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해외 거주 학습자의 자기조절학습 동기와 전략을 살펴 성공적으로 한국어를 습득한 학습자의 특성을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연구의 대상이 20명 정도로 많지 않아 논의의 결과를 일반화하기가 어렵고 자기조절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습자의 사례를 비교하여 살펴보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해외 거주 독학 학습자에 대한 논의가 많지 않은 만큼 향후 이들을 대상으로 한 풍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강귀중·조위수(2018). 베트남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학습동기와 자기효능감의 관련성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6), 231-252.
- 김참이·최지영·이수진(2022). 세종학당재단 유튜브 채널 내 한국어교육 콘텐츠의 특성과 이용자 반응 분석 연구. *국제어문*, 95, 투고.
- 김탁훈·배소연(2020). 확장된 의미의 러닝 콘텐츠 플랫폼으로서의 유튜브 분석 연구: 학습자, 교수자 관점을 중심으로. *애니메이션연구*, 16(4), 125-140.
- 모수경(2021). 대학 온라인 영어수업에서 자기 조절과 협력적 조절이 학습자의 사회적 실재감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21*, 12(4), 47, 2997-3010.
- 이주은·임현우(2021). 고등학생들의 교실 밖 온라인 영어 사용 및 테크놀로지 활용 영어학습에서의 자기조절 전략 사용. *영미연구*, 52, 83-116.
- 이향미(2021). 디지털미디어 기술을 활용한 교실 밖 L2 영어학습에 대한 자기조절학습능력과 정의적 요인의 관계연구. *새한영어영문학*, 63(3), 157-184.
- 장민정(2021). 비대면 강의에서 강의 듣기 태도, 학습스타일, 자기조절학습에 대한 연구 -학문 목적 한국어 듣기 강의를 중심으로-. *문화와융합*, 43(10), 213-230.
- 최지영·이수진(2022). 유튜브 한국어교육 채널의 콘텐츠 및 학습자 반응 분석 연구 -Talk To Me In Korean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33(4), 405-436.
- 한하림(2021). 외국인 학부생의 자기조절학습 능력, 사회적 실재감, 교수 실재감이 온라인 수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어교육*, 32(3), 287-312.
- Carneiro, R., P. Lefrere, K. Steffens, and J. Underwood (2011). *Self-regulated Learning in Technology Enhanced Learning Environments: A European Perspective*. Rotterdam, The Netherlands: Sense Publishers.
- Çelik, S., E. Arkin, and D. Sabriler (2012). EFL Learners' use of ICT for Self-Regulated Learning. *The Journal of Language and Linguistics Studies*, 8, 98-118.
- Gardner, R. C., and Lambert, W. E. (1959). Motivation variable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Canadian journal of psychology*, 13, 266-272.
- Kondo, M., Y. Ishikawa, C. Smith, K. Sakamoto, H. Shimomura, and N. Wada (2012). Mobile

- Assisted Language Learning in University EFL Courses in Japan: Developing Attitudes and Skills for Self-Regulated Learning. *ReCall*, 24, 169-187.
- Lai, C., and M. Gu (2011). Self-regulated Out-of-Class Language Learning with Technology. *Computer Assisted Language Learning*, 24, 317-335.
- Masgort, A. M., and Gardner, R. C. (2003). Attitudes, motivation, and second languages learning: A meta-analysis of studies conducted by Gardner and Associates. *Language learning*, 53(1), 167-210.
- Rebecca L. Oxford (2017). *Teaching and researching language learning strategies: Self-regulation in context*. Routledge.
- Şahin Kizil, AŞ, and Z. Savran (2016). Self-regulated Learning in the Digital age: An EFL Perspective. *Novitas-ROYAL Research on Youth and Language*, 10, 147-158.
- Salehi, M, and H. Jafari (2015).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EFL Self-Regulated Learning Questionnaire. *Southern African Linguistics and Applied Language Studies*, 33, 63-79.
- Schunk, D. H., Pintrich, P. R, and Meece, L. L. (2008). *Motivation in Education*(3rd ed.). 신중호 외 공역(2014). *학습동기 이론, 연구 그리고 교육*. 서울: 학지사.
- Shyr, W.-J., and C.-H. Chen (2018). Designing a Technology-Enhanced Flipped Learning System to Facilitate Students' Self-Regulation and Performance. *Journal of Computer Assisted Learning*, 34, 53-62.
- Vandergrift, L., and C. C. M. Goh (2012). *Teaching and Learning Second Language Listening: Metacognition in Action*. New York: Routledge.
- Wang, H.-c., and Chen, C. W.-y. (2020). Learning English from YouTubers: English L2 learners' self-regulated language learning on YouTube. *Innovation in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14(4), 333-346.
- Zheng, C., J.-C. Liang, Y.-F. Yang, and C.-C. Tsai (2016).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ese University Students' Conceptions of Language Learning and Their Online Self-Regulation. *System*, 57, 66-78.
- Zimmerman, B. J. (1986). Becoming a self-regulated learner: Which are the key subprocesses?.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11(4), 307-313.
- Zimmerman, B. J. (1998). Developing Self-Fulfilling Cycles of Academic Regulation: An Analysis of Exemplary Instructional Models. *Self-regulated Learning: From Teaching to Self-Reflective Practice*, edited by D. H. Schunk and B. J. Simmerman, 1-19. NY: The Guilford Press.
- Zimmerman, B. J. & Schunk, D. H.(2011), *Handbook of self-regulation of learning and performance*. Routledge/Taylor & Francis Group.
- 교육부 <https://www.moe.go.kr/> {인용 2022.09.15.}
- 유튜브 <https://www.youtube.com/> {인용 2022.8.25.}

## 중화권 한국어 학습자의 자기조절학습 동기와 전략 -유튜브의 한국어 공부법 소개 영상을 중심으로- 에 대한 토론문

페브리아니 (가자마다 대학교-인도네시아)

안녕하세요. 발표문을 흥미롭게 잘 읽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수업을 맡은 적이 있었고 학생들과 많은 소통을 경험하게 되어서 요새는 역시나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학습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봤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유튜브, 인스타그램과 같은 미디어를 활용하여 한국어를 독학이나 보충 학습을 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보고 이는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발표문을 읽은 후에 몇가지 궁금하거나 여쭙보고 싶은 것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이 논문은 중화권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입니다. 서론 부분을 읽었을 때 궁금한 것은 중국어 모어 화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교육에 대한 현황은 다른 나라에 비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대상으로 삼으신 것은 중국본토외에 있는 중국어 학습자들이지만 혹시 연구를 하시면서 찾으신 것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종학당 재단의 설명에 조금 놀랐습니다.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영어는 물론이고 중국어 자막이 제공되는 콘텐츠가 많겠지”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어 모어 학습자들의 수가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스스로 궁금하게 된 부분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조금 더 사소한 것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여기에서 L2/EFL에 대한 설명이 부재해서 교육을 전공하지 않은 독자들이 읽으면 따로 찾게 되어서 짧은 설명이 추가된다면 더욱 편하게 읽힐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처음에 추측으로 읽었는데 찾아보니 제2외국어와 영어학습과 관련한 용어라고 알게 되었습니다만 SRL의 설명처럼 추가되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나아가 SRL과 관련한 연구는 주로 영어 학습자인 경우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논문에서 기반으로 사용되는 Lai&Gu의 논의는 홍콩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지만 혹시 영어 학습자를 위한 자기조절 전략을 살펴본 논의인지 궁금합니다. 전의 문단과 연관이 있으면 EFL과 아직 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영어 학습자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SRL 연구가 소수에 불과하고 하셨지만 연구되었다는 말씀이신거 맞는지 궁금하고 이 논문들이 어떤 나라의 학습자를 밝혔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살짝 찾아봤을 때 중국에서 온 한국어 전공자를 대상으로 자기조절학습전략을 분석한 논문 하나 있는데 이 논문에서 살펴보신 영상 콘텐츠를 활용한 것이 아니지만 혹시 비슷한 경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논문에서 전통적으로 학습 동기는 내재적&외재적 동기로 구분된 것이 설명되었는데 외국어 학습에서 통합적 동기&도구적 동기로 나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어 학습 동기는 전통적인 학습 동기에서 비롯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통합적&도구적 동기는 내재적&외재적 동기로 비롯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동기와 관련한 이론이나 설명은 SRL 학습과 관련한 이론을 설명하신 후에 쓰시면 어떨지, 그리고 조금 더 추가하셔서 설명하시면 더 좋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조사의 결과에 대한 설명을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저도 본국에서 인도네시아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를 가르쳤는데 사례를 보면서 저희 학생들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대부

분 한류의 영향을 받아 한국어를 공부하게 되었는데 보통 이런 학생들이 한국어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1) ~ (21) 인용문/사례를 읽었을 때 어떤 채널에서 나타난 인용인지 스스로 궁금하게 되었고 추측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의 표에서 채널 이름과 영상이 언급되어서 인용문을 봤을 때 추측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추가되면 어떨지에 스스로의 제안이 떠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본고에서는 동기와 전략을 함께 살펴보셨는데, 분석하신 사례 중에 동기와 전략이 서로 영향을 끼치거나 일관성이 있는지 궁금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통합적 동기를 가진 학습자는 한국어 수준이 더 높는데 살펴보신 전략도 도구적 동기를 가진 학습자보다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가령 드라마/k-pop을 좋아하는 학습자들도 도구적 동기를 가진 학습자들이 매일매일 학습하는 한국어량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마지막 부분에서 언급하신 제안과 관련하여 그렇다면 이것도 동기를 고려하면서 교육 콘텐츠를 구분해야 하는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유 발표 세션 2

시간	일정 및 발표주제		사회 및 발표/토론	
10:00-10:35	자유 발표2  306호	『순언』의 유교과 도교의 철학실천적 경계 연구	발표 유성선 김태희 (강원대) 토론 황정희(강원대)	임경순 (한국 외대)
10:35-11:10		송미령과 기독교 신앙	발표 권태경*(충신대) 토론 문태순*(백석대)	
11:10-11:45		임희재 <초설>의 전과 후, 그 시나리오적 의미	발표 오영미(한국교통대) 토론 이주영(고려대)	
11:45-12:30		1945-1950년 공산체제 형성기 영동지역의 교육과 인민 만들기 -속초, 양양지역을 중심으로	발표 이세진(호서대) 토론 허대영(서울대)	

\*=Zoom 참여



# 『순언(醇言)』의 일상과 이상에 관한 경계 연구

김태희<sup>1)</sup>, 유성선<sup>2)</sup>

## 1. 체제와 해제

『순언(醇言)』은 율곡 이이(1536~1584)가 노자의 『도덕경(道德經)』에서 발취해 유학사상과 노자사상의 우주론적 합일을 중심으로 새롭게 구성한 주해·연구서이다. 주해·연구서라고 함은 율곡이 다른 중국학자의 주해에서 발취하고, 자신의 주해를 함께 달았으며, 『도덕경』 총 81장을 『순언』 총 40장으로 요약·정리한 것이다. 율곡은 『순언』을 저술하면서 『노자』 81장을 유학의 종지로 노자를 해석하여 [以儒釋老] 40장으로 요약·정리한 바 있다.<sup>3)</sup> 논자는 일찍이 『순언』을 번역하면서 40장을 다음과 같이 제목을 정하였다.<sup>4)</sup> 제1장은 ‘천도造化(天道造化): 도즉태극(道即太極)’, 제2장은 ‘도덕(道德): 최상의 존귀함[無對之尊]’, 제3장은 ‘도의 본체와 묘용: 무위이무불위(無爲而無不爲)’, 제4장은 ‘심체(心體): 행도지공(行道之功), 무(無)의 쓰임’, 제5장은 ‘현덕(玄德): 지성연미(至誠淵微)의 덕’, 제6장은 ‘위도일손(爲道日損): 본연지성(本然之性)의 회복’, 제7장은 ‘입도성덕(入道成德): 절제[齋]’, 제8장은 ‘포일(抱一): 무아(無我)’, 제9장은 ‘사이불망(死而不亡): 경광여일월(耿光如日月)’, 제10장은 ‘지족장구(知足長久): 지지(知止)와 안어성명(安於性命)’, 제11장은 ‘지천하즉견천도(知天下則見天道): 만물개비어아(萬物皆備於我)’, 제12장은 ‘상족(常足): 내덕응용(內德應用)’, 제13장은 ‘삼보[三寶]: 자(慈)=인(仁), 수기장물지요도(修己長物之要道)’, 제14장은 ‘유약승강강(柔弱勝剛強): 자즉인(慈即仁)’, 제15장은 ‘공성신퇴(功成身退): 검(儉)’, 제16장은 ‘천위본(賤爲本), 하위기(下爲基): 불감선(不敢先)’, 제17장은 ‘상선약수(上善若水): 실근어도(實近於道)’, 제18장은 ‘고지극(古之極): 자유겸하지덕(慈柔謙下之德)’, 제19장은 ‘검허지덕(謙虛之德): 체용일원(體用一源), 현미무간(顯微無間)’, 제20장은 ‘주정중(主靜重): 색지의(齋之義)’, 제21장은 ‘청정(淸靜): 동정일치(動靜一致)’, 제22장은 ‘현동(玄同): 청정자수(淸靜自修)’, 제23장은 ‘함덕지후(含德之厚): 성일(誠一), 적자지심(赤子之心)’, 제24장은 ‘전덕지효(全德之效): 전진생리(全盡生理)’, 제25장은 ‘성인체도(聖人體道): 수기지극(修己之極): 무아도일(無我道一)’, 제26장은 ‘수덕(修德): 건중건극(建中建極)’, 제27장은 ‘성인부적위인(聖人不積爲人): 생물위심(生物爲心): 순리무사(順理無私)’, 제28장은 ‘습명(襲明): 중용중도(從容中道)’, 제29장은 ‘무상심(無常心): 덕선(德善)과 덕신(德信)’, 제30장은 ‘신기(神器): 무사(無事)’, 제31장은 ‘무위교화(無爲教化): 지극(止極)’, 제32장은 ‘불언지교(不言之教): 무위지익(無爲之益)’, 제33장은 ‘과이물강(果而勿強): 이도치인(以道治人)’, 제34장은 ‘승이불미(勝而不美): 호생오살(好生惡殺)’, 제35장은 ‘이도이천하(以道莅天下): 왕도수명(王道修明)’, 제36장은 ‘신시려중(慎始慮終): 신시선중(慎始善終)’, 제37장

1) 강원대학교 철학과 BK21four 4cp 철학실천 인재양성교육팀 연구원

2) 강원대학교 인문학부 철학전공 교수

3) 유성선, 『『醇言』의 無爲 境界-율곡의 노자철학 이해』, 『한중인문학연구』(20), 한중인문학회, 2007. 參照.

4) 율곡 이이著·유성선·이난숙譯, 『율곡의 순언-유학자의 노자 도덕경 이해』, 경인문화사, 2015.

은 ‘천망회회소이불실(天網恢恢疏而不失): 천도무위(天道無爲)’, 제38장은 ‘천도무친(天道無親): 휴영익겸(虧盈益兼): 극경유친(克敬惟親)’, 제39장은 ‘피갈회옥(被褐懷玉): 지선(至善)’, 제40장은 ‘대도심이(大道甚夷): 술성지도(率性之道)’이다.<sup>5)</sup>

율곡의 『순언』 저술 동기에 관한 연구는 『노자』에 대한 율곡 개인의 이해를 넘어,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 현실사회에 대한 율곡의 문제의식을 규명하는 작업이 된다. 그리고 이것은 현실사회에 대한 율곡의 새로운 문제의식이 발전하는 과정을 율곡이 강조하는 실리적인 학문하기 방식과 연계하여 고찰하는 과정이다.<sup>6)</sup> 『순언』에서 율곡은 천도조화의 근원을 의미하는 『주역』의 태극과 『도덕경』의 ‘도(道)’를 일체적 개념으로 표현하였다. 이것은 ‘도즉역지태극(道即易之太極)’의 관점이다. 이 ‘도즉역지태극(道即易之太極)’의 관점은 송나라 주희의 글을 인용하였고, 율곡이 맨 처음에 수록하였으므로 유학의 텍스트를 재정립한 성리학자인 주희의 관점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sup>7)</sup>

율곡은 『순언』의 시작을 ‘도체(道體)’로부터 시작하였고, ‘심체(心體)’와 자신을 다스림과 남을 다스림에 대한 논의로 구성하고 있다. ‘손[損: 버림·비움]’과 ‘색[齋: 절제·아낌]’이라는 개념을 주요한 요지로 글을 전개하며, 이들의 공효와 의미를 자세히 풀어 설명하였다. 결국 ‘음양대대(陰陽待對)’와 ‘휴영익겸(虧盈益謙)’의 이치를 노자사상과 유학사상의 의미에 근접하여 주석하고 있다. 율곡은 ‘무위(無爲)’가 ‘체(體)’이며, ‘무불위(無不爲)’가 ‘용(用)’이라고 했다.<sup>8)</sup> 율곡의 『순언』은 도체, 심체, 수양실천론에 뜻을 두고, 유학의 우주론과 심성론을 바탕으로 『도덕경』을 재편성해 율곡 자신의 철학사상을 전개한 특징이 있다. 율곡은 최상의 경지를 주로 논했으며, 각 장을 끝부분에는 전체적인 의미를 간명하게 요약하였다.<sup>9)</sup>

논자는 율곡의 『순언』이 유학적 관점의 『도덕경』 주석서<sup>10)</sup>이기 보다 『도덕경』을 연구한

- 5) 율곡 이이著·유성선·이난숙譯, 『율곡의 순언-유학자의 노자 도덕경 이해』, 경인문화사, 2015, 6~7쪽.
- 6) 김희, 「『순언』 군주론의 내적구조 분석 연구- 율곡의 『순언』 저술 동기를 중심으로-」, 『율곡학연구』 (43), (사)율곡연구원, 2020, 105쪽.
- 7) 김학목, 「강화학파의 도덕경 주석에 관한 고찰」, 『동서철학연구』, 한국동서철학회, 2004, 277쪽. “율곡이 비록 『순언』에서 주자 성리학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을 가하지 않았을지라도 『도덕경』에서 마음 비움과 관계된 구절들을 발췌하여 수기치인의 관점에서 새롭게 주석했으니, 이는 주자 성리학에 대한 완곡한 비판과 보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은 박세당과 서명응에게서 주자의 형이상학적인 관점을 부정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결국 이충익에게서 유학을 부정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 8) 율곡 이이著·유성선·이난숙譯, 『율곡의 순언-유학자의 노자 도덕경 이해』, 경인문화사, 2015, 12~13쪽. “右醇言凡四十章. 首三章言道體, 四章言心體. 第五章摠論, 治己治人之始終. 第六章七章以損與齋, 爲治己治人之要旨, 自第八章止十二章, 皆推廣其義. 第十三章齋字, 而演出三寶之說, 自十四章止十九章, 申言其義. 二十章言輕躁之失, 二十一章言清靜之正, 二十二章推言用功之要. 二十三章四章, 申言其全天之效. 二十五章言體道之效. 二十六章止三十五章, 言治人之道及其功效, 三十六章言慎始慮終, 防於未然之義. 三十七章八章, 言天道福善禍淫虧盈益謙之理. 三十九章四十章, 歎人之莫能行道以終之. 大抵此書以無爲爲宗, 而其用無不爲, 則亦非溺於虛無也. 只是言多招詣動稱. 聖人論上達處多, 論下學處少. 宜接上根之士, 而中人以下則難於下手矣. 但其言克己窒慾, 靜重自守, 謙虛自牧, 慈簡臨民之義. 皆親切有味有益於學者, 不可以爲非聖人之書, 而莫之省也.”
- 9) 율곡 이이著·유성선·이난숙譯, 『율곡의 순언-유학자의 노자 도덕경 이해』, 경인문화사, 2015, 9~10쪽. “율곡이 『순언』에 인용한 중국학자의 글은 남송 때의 淸源圭山 董思靖이 집필한 『太上老子道德經集解』에서 주로 발췌되었다. 율곡이 인용한 중국학자의 주해는 董思靖, 朱子(1130~1200), 司馬溫公(1019~1086), 劉師立(미상~640), 宋徽宗(1082~1135), 揚雄(B.C.53~18), 蘇轍(1039~1112), 屈原(B.C.343?~B.C.278?), 韓愈(768~824), 程子(1033~1107), 列子, 湯王, 伊尹, 成湯, 荀子 등이다.”
- 10) 조선시대 『老子』 주석서는 총 5 종으로 李珣(1536~1584)의 『醇言』, 朴世堂(1629~1703)의 『新註道德經』, 徐命膺(1716~1787)의 『道德指歸』, 李忠翊(1744~1816)의 『椒園談老』, 洪奭周(1774~1842)의 『訂老』가 있다. 장자 주석서로는 朴世堂의 『南華經註解刪補』와 韓元震의 『莊子辨解』가 있다. 기존의 조선 도가사상 연구에서 다루어져 왔던 5권의 노자주석서(『순언』, 『신주도덕경』, 『도덕지



후 율곡 자신의 우주론, 인성론, 수양론을 펼친 연구 문헌으로 고찰하였다. 왜냐하면 『순언』의 첫머리가 도체인 우주론의 핵심 사상을 먼저 논하고 있으며, 이러한 우주적 사유를 토대로 『도덕경』에서 가려 뽑아 구조적으로 새롭게 재편성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상달처를 많이 논해 근기가 높은 선비를 대상으로 저술하고자 한 율곡의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 율곡은 성리학적 우주론과 인성론을 토대로 하면서도 세계관의 핵심 사상이 다른 도가철학의 핵심을 융회(融會)해 철학적으로 회통하였다. 이러한 논점은 비판적 사고가 중심인 비판적인 철학사상이라기보다 통섭적 사고로 각각의 철학사상을 연구해 한계를 극복하고 발전을 꾀하고자 한 학문적 의도로 보인다. 율곡의 『순언』 같이 『도덕경』을 재편성한 연구서는 조선 시대 학자의 문집에서 발견하기 어렵다.<sup>11)</sup>

## 2. 일상과 이상의 ‘이유석로(以儒釋老)’

조선 후기 홍계희(洪啓禧:1703~1771)<sup>12)</sup>는 1763년(경오년) 『순언』을 간행하면서 지은 「발문(跋文)」에서 유학적 입장을 강하게 표명하고 있다. 홍계희의 「발문」에는 “율곡 선생이 일찍이 노자의 『도덕경』에서 유학의 도에 가까운 것을 가려 뽑은 것이 2098자이니, 『순언』 한 편을 저술해 거듭 이에 주해와 구결을 단 것을 말한다. 내가 본문을 상고해 보니 대개 경전과 반대되어 이치에 어긋난 것을 오 분의 삼 정도 버렸다. 취한 것은 진실로 해롭지 않기에 이것을 일러 ‘순일하다(醇)’라고 하였다. 버림, 취함이 마치 저울로 헤아리고 등불로 비춘 것 같으며 주해가 또한 밝고 깨끗하며 곧고 마땅하니 반드시 도움이 있어 유학의 도로 귀결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율곡 선생이 아니었더라면 그 말씀은 명백히 알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여긴다 …… 진실로 선생과 같이 크게 공평함과 지극한 밝음이 없었다면, 악을 그 아름다움이라고 알고, 순일함과 잘못이 서로 섞였을 것이다. 쓸 수 있는 내용도 결국 쓸 수 없게 되고, 쓸 수 없는 내용은 혹 쓸 수 있다고 여긴다면 그 해로움은 대체할 수도 없을 것이다. 어찌 순일함과 그릇됨을 구별해서 쓸 수 없는 내용은 버리고, 쓸 수 있는 내용을 보존한 것이 이와 같겠는가?”<sup>13)</sup>라고 『순언』을 찬탄하였다.<sup>14)</sup> 홍

귀, 『초원담로』, 『정노』와 2권의 장자 주석서(『남화경주해산보』, 『장자변해』) 가운데 율곡의 『순언』을 제외하면 모두 임진왜란 이후의 작품이다.

11) 율곡 이이著·유성선·이난숙譯, 『율곡의 순언-유학자의 노자 도덕경 이해』, 경인문화사, 2015, 10~11 쪽.參照.

12) 홍啓禧(1703~1771)는 조선 후기 성리학자로 字는 純甫, 호는 淡窩, 본관은 南陽, 시호는 文簡이다. 그는 특히 주자어록과 어류 등을 수집하였고, 또 주자 문인들에 관해 기술하였다. 저서로는 『三韻聲彙』가 있고, 편저로는 『朱子語類大全』, 『朱文公先生行宮便殿奏筭』, 『國朝喪禮補編』, 『均役事實』 등 다수이다.

13) 율곡 이이著·유성선·이난숙譯, 『율곡의 순언-유학자의 노자 도덕경 이해』, 경인문화사, 2015, 14~15 쪽. “栗谷先生, 嘗鈔老氏之近於吾道者, 二千九十有八. 言爲醇言一編, 仍爲之註解口訣. 昔韓愈以荀氏, 爲大醇而少疵, 浴削其不合者. 附於聖人之籍, 曰: “亦孔子之志歟.” 先生編書命名之意, 或取於此耶. 啓禧攷本文, 蓋去其反經悖理者, 五之三介. 其取者, 誠不害乎謂之醇也. 去取如衡稱燭照, 註解又明白亭當, 必援而歸之於吾道. 識者 以爲非先生知言之明莫能爲也. 異端之所以倍於吾道者以其駁也. 不駁者固不無可取, 去其駁則醇矣. 高明之士墮落, 而不悟者, 特見其醇, 而忘其駁也. 苟無如先生之大公至明, 惡而知其美則, 醇駁相混. 可用者, 卒歸於不可用, 而不可用者或以爲可用其爲害不訾. 曷若區別醇駁去其不可用而存其可用哉? 當先生之編此也. 龜峯宋先生止之曰: “非老子之本旨有苟同之嫌”, 其言亦直截可喜. 而至若先生之範圍曲成, 雖於異端外道, 尙惜其可用者混歸於不可用, 必欲去其駁而俾歸乎醇, 百世之下, 眞可以見其心矣. 於乎至哉, 啓禧按湖西巡連山, 偶得此編於慎齋金先生後孫, 乃金先生手筆也. 或恐泯沒, 以活字印若干本, 仍識其顛末如右云.”

14) 김희, 「『순언』 군주론의 내적구조 분석 연구- 율곡의 『순언』 저술 동기를 중심으로-」, 『율곡학연구』

계회의 「발문」은 『도덕경』 속에 유도(儒道)와 부합하는 내용이 2/5가량이며, 율곡이 발췌한 『순언』은 명백하고 정당한 유학의 도리와 순정한 의미를 밝힌 문헌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순언』이 ‘순정한 의미의 글’이며, 『순언』을 저술해 유도(儒道)를 밝힌 것은 율곡의 학덕이 아니라면 누구도 해낼 수 없는 학문적 업적이라는 것이 홍계희의 평가이다.

본 연구는 율곡의 『순언』을 日常과 異常의 ‘이유석로(以儒釋老)’ 논의로 구성하는 데 있다. 율곡은 유가와 도가의 차이와 동일성을 『순언』을 통해 요약정리하고 있다. 논자는 이 논의를 ‘경계(境界)’의 범주로 구성하였다. 이 ‘경계’는 자전적 용어로 “지역이 구분되는 한계나 임계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간이 되는 사물의 한계”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하여 일상과 이상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가지 철학실천장을 중심으로 한 교육·연구·실천 패러다임(4CP PARADIGM)을 구축하는 데 있다. 4C는 기존 BK21플러스 사업의 결과를 심화하는 ‘일상의 회복’ 실천-場인 Class, Cafe, Camp와 ‘이상의 수리’ 실천-場인 Clinic으로 구성된다. 4CP(4C PHILOSOPHY)는 4C를 통해서 강원대학교 철학과와 철학실천의 지혜와 가치를 지역화하고 세계화하는 것을 가리키고, 4CP 패러다임은 이러한 실천-장 중심의 철학을 교육·연구·실천하는 새로운 영역과 방법의 전체 체계이다. 율곡이 『순언』을 통하여 당시의 사회적 개혁과 봉당을 혁신하려는 논의는 저술 의도에 잘 나타난다.<sup>15)</sup> 철학실천의 관점에서 질병에 대한 해결책은 치료(治療, Therapy) 및 치유(治癒, Healing)이다.<sup>16)</sup> 철학치유는 눈으로 볼 수 없는 ‘마음의 병〔즉 심질(心疾)〕’<sup>17)</sup>을 다루는 것이므로 내적〔裏〕인 것으로서 무형이다. 즉, 철학치유는 형이상학적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수기치인의 유가철학이 결국 인간의 마음에 근거하기 때문에 철학치유의 정립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유가의 인간관계에 대한 성찰과 세계관이 일종의 철학상담의 형태로 사회복지와 접목된다면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sup>18)</sup>

『순언』의 이상과 일상의 연구는 귀납적이고 연역적 연구 방법이 요청된다. 또한 논자는 기초적 조선시대의 도교 연구 기반이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조선시대의 도교 사상사 또는 한국 도교사의 연구와 사상적 측면의 논의들이 기초연구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43), (사)율곡연구원, 2020, 105쪽. “『순언』이 저술된 시기에 이루어진 구봉과 율곡의 서신 교류에는 구봉과 비견되는 현실사회에 대한 율곡의 남다른 인식과 이해를 엿볼 수 있는 사례에 해당한다. 즉, 時宜와 實功이라는 학문의 능동적인 기능과 역할을 강조하는 율곡의 입장에서 볼 때 당대의 지식인 견지하고 있는 명분 중심의 학문관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부족한 한계를 갖는다.”

15) 김학목, 「『순언』과 『남화경주해산보』에서 노장의 마음 비유」, 『대동철학』(93), 대동철학회, 2020, 116쪽. “『순언』의 저술시기를 율곡이 선조에게 1575년 9월에 『성학집요』를 올린 이후부터 구봉 송익필이 서신으로 1580년 8월에 『순언』을 언급한 사이로 볼 때, 그 전후의 조정정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선조가 1568년 16세로 등극한 다음해 대사헌 백인걸 등이 인순왕후의 수렴청정을 물러나게 한 후 사림을 대거 등용했고, 그들이 주자 성리학의 예론과 정치론으로 갖은 의론을 내놓으면서 조정은 노소나 신구양파로 나뉘었다. 인순왕후와 남매인 은주로 장년층과 교류했고, 의문인에게 수학한 은신진사류의 추앙을 받으며 그들과 교류했으나, 조정이 동과 서로 분열되는 시작이다.”

16) 사전적 의미의 치유는 “치료를 받고 병이 낫는 것”이고, 치료는 “병이나 상처를 잘 다스려 낫게 하는 것”이다.(국립국어원) 치료는 가시적 ‘몸의 병’으로 외적(表)인 것으로서 유형이고, 치유는 불가시적 ‘마음의 병’으로 내적(裏)인 것으로서 무형이다. 치료를 자연과학적 방법이라고 한다면, 치유는 형이상학적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몸과 마음을 표리(表裏)로 설명한 것은 동양철학의 형이상학적 범주로써 말한 것이다.

17) 김선희, 「철학치유를 위한 서언」, 『철학연구』(107), 대한철학학회, 2008, 123쪽. “소크라테스는 의사가(iatros)가 인간의 병든 몸을 치유한다면 철학자는 마음(psyche)을 치유한다고 보았다.”

18) 이선경, 「율곡의 사회개혁론을 통해서 본 복지국가 이념」, 『율곡학연구』(42), (사)율곡연구원, 2020, 89쪽.

다. 이것을 바탕으로 율곡의 『순언』이 사상적으로나 계보학적으로 어떻게 수용되고 확장될 수 있을 것인가를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학문 후속세대 및 일상과 이상의 학문 연구자나 조선사상사 안에서 도교의 사상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가 율곡의 도교사상사를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율곡의 도교 사상의 정체성에 한 걸음 나아가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상의 연구성과는 다른 연구자나 교육종사자들이 대학의 인문학 교육 과정 및 인문 교양 강의에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나아가 한국철학사와 관련된 연구와 강의의 교재로 활용될 수 있으며, 유관 공동연구의 1차 적 이론연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희는, “율곡의 『순언』 저술 동기에 대한 분석을 통해 『순언』의 군주 수양론이 전개되는 양상을 율곡의 사회개혁에 대한 의지와 연계하는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이것은 율불도를 아우르는 사상융화의 회통성을 지향한 율곡의 실리적 학문하기 방식과도 연관된다. 즉, 율곡이 일생동안 추구한 실천적인 학문하기 방식에 비추어 볼 때 현실사회에 기능할 수 있는 학문의 실리성과 실증성은 가치와 이념의 경계성을 넘어서는 내용을 갖는다.”<sup>19)</sup>고 제언한다. 조선시대에 성리학이 무르익으면서 사대부들은 그 명분론을 바탕으로 봉당으로 나누어지고 당파로 갈라져서 정쟁을 시작한다. 성리학이 절정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계속 분열되고 정쟁이 심화되는 것은 성리학의 내적 수양론이 그 한계를 넘어 더이상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율곡이 『순언』을 지어 노자의 마음 비움을 강조한 것은 사대부들에게 새로운 내적 수양론을 제시하여 봉당이 중국으로 치닫지 않기를 염원한 것이다.<sup>20)</sup> 또한 “인간 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일상의 생활세계에 기능할 수 있는 학문의 새로운 가치관 정립을 통해 강조하는 율곡에게 있어 학문은 현실과 괴리되지 않는 일체성을 갖는다. 그리고 이것은 일상의 생활세계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인간의 삶을 새롭게 형성하고, 발전시켜 나아가기 위한 사회변화 동인의 기능 또한 갖는다. 이 점에서 율곡이 지향하는 일상의 생활세계를 기점으로 하는 실리적 학문하기의 공효는 무엇보다 정치에 임하는 치자의 정치 행위가 갖는 사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의미로 전환된다. 또한 이것은 사회의 현실과 괴리된 정치 현실에 대한 율곡의 문제의식이 노정되어 있는 것이기도 한다.”<sup>21)</sup>

이영경은 “『순언』은 도가의 고전인 『도덕경』을 유가의 입장에서 재구성하고 주석한 것으로서, 그 기본 입장은 도가사상을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유가적 도의 실천 문제를 『道徳經』을 통해 강화하려는 것이다. 『순언』의 구성은 ‘도체→도학의 본령(修己治人)→도의 실천의 문제 반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구조는 유가적 도의 실천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있는 도학적 특성을 함축하고 있다.”<sup>22)</sup> 『순언』은 “도체—심체—수기치인”의 기본구조를 가지며, 그러한 구조는 실제적으로 儒道 심성론의 핵심 내용을 담보하고 있다. 심성론의 견지에서 보자면 도체는 심성론의 첫 번째 부분으로 도와 덕[性]의 관계를 포함하고 도체는 심성론의 이론 근거를 이룬다. 심체는 심성론의 두 번째 부분으로 심과 성의 관

19) 김희, 「『순언』 군주론의 내적구조 분석 연구- 율곡의 『순언』 저술 동기를 중심으로-, 『율곡학연구』 (43), (사)율곡연구원, 2020, 105쪽.

20) 김학목, 「『순언』과 『남화경주해산보』에서 노장의 마음 비움, 『대동철학』(93), 대동철학회, 2020, 105쪽.

21) 김희, 「『순언』 군주론의 내적구조 분석 연구- 율곡의 『순언』 저술 동기를 중심으로-, 『율곡학연구』 (43), (사)율곡연구원, 2020, 125쪽.

22) 이영경, 「율곡의 『醇言』에 나타난 儒家·道家的 倫理觀의 갈등과 포섭 문제, 『철학논총』, 새한철학회, 2004, 95쪽.

계를 포함하고 『순언』에서 심체는 ‘虛靈’, ‘無我’, ‘無心’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덕을 이룸은 심성론의 세 번째 부분으로 수기치인의 도를 포함하고 덕을 이룸은 심성론의 확장 및 목표를 이룬다.<sup>23)</sup> 율곡은 이를 바탕으로 ‘성인체도(聖人體道)’에 관해 『순언』 25장에서 “성인은 무아(無我)이고, 도와 더불어 하나이다. 그러므로 비록 하늘이 이룬 것과 같은 공을 이루어도 끝내 자신을 위대하다고 하는 마음이 없기에 이것이 성인이 위대하다고 하는 까닭이다.” 라고 정리한다.<sup>24)</sup>

### 3. 일상과 이상의 시의성(時宜性)

본 논문은 율곡의 『순언』이 한국사상사에서 사상사적·역사적인 측면에서 그 위상이 무엇이며, 그것의 가치는 의의가 무엇인지를 여타 유학자들의 노자사상에 대한 이해와 비교를 통하여 밝힌다. 따라서 미시적이면서도 입체적인 방법을 통하여 율곡 순언을 분석한다. 율곡은 유가와 도가의 ‘차이’ 보다는 ‘동일’ 범주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본 논문 2장의 유가의 입장에서 노자를 이해한다는 ‘以儒釋老’ 입장에서 전술한 부분과 같다. 사실 유가의 입장에서 노자를 이해하되 유가와 ‘차이’와 ‘동일’의 범주를 동시에 거론하면서 보다 객관적으로 노자를 이해하는데, 박세당, 홍석주, 서명용 등이 이런 입장에 속한다. 이것은 ‘以儒釋老’에 담긴 유가와 노자의 소통 가능성의 모색이라고 할 수 있다. 홍계희가 구봉 송익필(1534~1599)<sup>25)</sup>이 ‘이유석로’의 입장이 아전인수격인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율곡의 노자 이해는 노자와의 소통 가능성을 통한 통합과 공존의 논리를 지향한다. 그리고 이런 점은 당시 당쟁과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는 대목도 된다. 즉 타자에 대한 공존과 의사소통을 통한 시대 상황과 문제 극복이라는 상징적 차원이 있다는 것이다.

일상과 이상의 경계에 관한 잠언으로 율곡은 『순언』 제32장에서 노자가 말한 불언지교(不言之教)의 무위지익(無爲之益)에 대하여<sup>26)</sup> “성인은 말을 하지 않지만 체득한 도는 숨김이 없고, 하늘의 형상이 빛나게 비추는 듯하여 항상 사람에게 드러나 보이니, 이것을 일러 ‘말 없는 가르침’이라고 한다. 각각 주어진 만물에 작위 하는 바가 없지만, 만물은 각기 그것을 부여받았으니 이것을 일러 ‘무위의 유익함’이라고 한다.”<sup>27)</sup>고 제언하고 있다. 율곡은 『순언』 40장에서 노자가 말한 “大道 甚夷어늘 而民이 好徑호느니라.”<sup>28)</sup>에 대해서, “도는 큰길과 같으니, 어찌 알기 어렵고 행하기 어렵겠는가? 다만 이것은 백성의 성정은 사사로운 뜻에 이끌려 지름길을 구하고 큰길로 가지 않는 것일 뿐이다.”<sup>29)</sup>라고 정리하고 있다. 여기서 율곡의 대도무난(大道無難)은 불교에서 지도무난(至道無難)으로 중국 수나라 때

23) 최기훈, 「이율곡의 『醇言』에 나타난 儒道心性論의 會通」, 『율곡학연구』(44), (사)율곡연구원, 2021, 161쪽.

24) “聖人無我與道爲一，故雖成如天之事功，而終無自大之心，此聖人之所以爲大也。”

25) 宋翼弼은 조선중기 성리학자로 字는 雲長, 호는 龜峯, 玄繩이다. 본관은 礪山, 시호는 文敬이다. 서출로 벼슬을 하지 못했으나 李珥·成渾·鄭澈·沈義謙 등과 교우하였다. 성리학에 대한 주장이 독특하였고 특히 禮學에 조예가 깊었다. 구봉 송익필을 성리학의 예학 시조로도 본다. 그의 성리학설은 「太極問」에 잘 나타나 있다. 저서로는 『龜峯集』이 있다.

26) 『道德經』43장. “不言之教와 無爲之益은 天下希及之니라.”

27) “聖人不言，而體道無隱，與天象昭然，常以示人，此謂不言之教也。無所作爲物各付物，而萬物各得其所，此謂無爲之益也。”

28) 『道德經』53장. 원문: “대도심이 이인호경”을 율곡은 “대도심이 민이호경”으로 바꾸었다. 이 문장은 도덕경 53장의 내용이 축약된 문장이다.

29) “道若大路，豈難知而難行哉。只是民情牽於私意，求捷徑而不遵大路耳。”

선종의 3대 조사인 승찬 대사가 남긴 「신심명(信心銘)」이 출전이다.<sup>30)</sup> 율곡이 『순언』을 통해서 당대에 목표하였던 일상과 이상과 사회사상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이루고자 하였는지 살펴보았다.

율곡의 『순언』에 나타난 율곡의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종합적인 사유는 이후 사상가들에게 진리관에 있어서 하나의 일관성을 개통하는 계기가 된다. 본 연구는 조선조 유학자들에 의해 행해진 노자에 대한 주석의 각각의 입장을 율곡의 『순언』을 중심으로 하여 비교하는 차원에서 진행된다. 율곡의 노자 주석서인 『순언』은 단순히 주석했다는 그 자체로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사실 유학자인 율곡의 입장으로 볼 때 이단서인 노자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고 더군다나 주석을 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은 차이가 나며 이단이 아닌 진리가 될 수 있다는 관점을 가지게 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율곡은 기본적으로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으로 이기지묘의 묘합적 사유를 말한다. 이기지묘의 묘합적 사유는 타 학문에 대해 광명정대한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노자에 대한 포용적 입장을 담고 있는 율곡의 『순언』은 이미 성리학적 사유가 정착되었음을 반증한다.<sup>31)</sup> 율곡은 유가가 핵심으로 삼고 있는 수기치인 등의 사회적 기능 수행 여부 및 학문적 실용성 여부를 이단 배척의 기준으로 삼는다.<sup>32)</sup> 이와 같은 벽이단적 입장은 성리학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노자를 비판하고 배척하는 것을 말해주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노장사상의 역기능에 대한 착안과 비판이라는 노장사상의 이해에 대한 자기 한계를 지니고 있다. 율곡은 노자사상을 수신치인의 학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학문적 접근 가능성을 열어준다. 즉 사회성을 띠고 있는 실용적 학문으로서 접근하여 노자사상이 현실적으로 응용될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이같은 이해는 노자를 심성론적 차원에서 유가와 동일성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입장은 일종의 ‘以儒釋老’ 입장으로, 이와 같은 ‘이유석로’는 유가와 도가의 사상적 공유지점, 곧 노장사상의 실용성과 사회성에 대한 재발견이라는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다.<sup>33)</sup>

30) “至道無難，至道無難，唯嫌揀擇，但莫憎愛，洞然明白。”

31) 이종성, 「율곡의 노자관에 반영된 경학사상의 유도회통론적 특성과 의의」, 『율곡학연구』(40), (사)율곡연구원, 2019, 189쪽. “율곡은 사서와 삼경으로 대표되는 유가경전 속에 내재된 경학사상을 통해 『노자』를 새롭게 해석해낸 것이다. 일종의 유도회통론의 『노자』 독해가 율곡에 의해 탄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2) 이종성, 「율곡의 『순언』에 반영된 『성학집요』의 특성과 의의」, 『율곡학 연구』(39), (사)율곡연구원, 2019, 33쪽. “『순언』은 수기치인의 맥락을 통해 『노자』를 해석한 저술로서, 유가철학과 노자철학의 상호 접점의 정신을 확인하고자 한 의의가 있다. 실제로 『순언』의 전반부는 수기론의 內聖學의 특징을, 그리고 후반부는 치인론의 外王學의 특징을 위주로 편집되었다. 이러한 점은 『순언』이 『성학집요』의 형식상 체계와 내용상 특징을 반영하고 있으며, 나아가 유가와 도가의 학문적 회통을 모색한 구체적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순언』은 수기치인의 맥락을 통해 『노자』를 해석한 저술로서, 유가철학과 노자철학의 상호 접점의 정신을 확인하고자 한 의의가 있다. 실제로 『순언』의 전반부는 수기론의 內聖學의 특징을, 그리고 후반부는 치인론의 外王學의 특징을 위주로 편집되었다. 이러한 점은 『순언』이 『성학집요』의 형식상 체계와 내용상 특징을 반영하고 있으며, 나아가 유가와 도가의 학문적 회통을 모색한 구체적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33) 이종성, 「율곡의 노자관에 반영된 경학사상의 유도회통론적 특성과 의의」, 『율곡학연구』(40), (사)율곡연구원, 2019, 189쪽. “『순언』에 반영된 경학사상적 의의는, 첫째, 『순언』의 기본정신이기도 한 유도회통론의 특징은 다양한 이념과 사상의 소통을 가능케 하는 사상적 의의가 있다. 둘째, 『순언』의 유도회통론 안에는 주체적 존재 자각의 요청이 확인된다. 셋째, 『순언』에 반영된 유도회통론의 특징 가운데 무실역행의 강조와 경세구현을 위한 실천정신의 의의가 확인된다. 넷째, ‘수기치인’을 바탕으로 한 『순언』의 체제와 내용은 리더십의 한 전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4. 전망과 의의

율곡의 일상과 이상의 시의성은 수기치인의 실현 방법으로 율곡이 지켜야 할 대상은 윤리 도덕이며 개혁대상은 법과 제도이다. 특히 율곡의 이상의 시의성이 『순언』 저술에 있었다면, 율곡은 일상의 법과 제도는 시대에 따라 지속해 변혁해야 나라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 변통을 주장한 것이다. 이러한 율곡의 시의성은 유학자가 일상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방법이다. 율곡은 철학실천적 시의성에 대한 자신의 의견들을 여러 가지 형식의 글로 밝히고 있다.<sup>34)</sup> 이러한 율곡의 실천철학적 시의성의 각종 저술은 율곡이 천지만물의 이치를 궁구하는 학자적 삶에 머물지 않고, 조선 정치사의 한 가운데에서 경세가로서 수기치인과 내성외왕의 철학실천의 경세론에 열정적으로 노력하였음을 명백하게 알 수 있다. 율곡은 자신의 가치관을 실현하기 위하여 당시 時弊·弊害 청산에 대한 철학실천적 시의성을 끊임없이 주장하였다.

논자는 율곡의 일상의 철학실천적 시의성이 도덕 규범의 사회적 실천을 통한 사회적 옹호의 확충 노력이라고 추정한다. 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철학실천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율곡의 철학사상과 경세론을 정찰해 보면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율곡의 철학실천 윤리의 시의성에 적용된 핵심적 원리를 도출하고자 함에 있다. 철학실천의 철학적 치유 방법의 시작은 사려(思慮)와 배려(配慮)이다. 사려는 상담사가 지녀야 할 자세이고, 배려는 내담자<sup>35)</sup>가 인지하고 실천할 자세이다. 철학치유는 상담사가 상담을 통하여 내담자의 심적 고통을 해소하는 데 있다. 유가철학에서의 철학치유는 내담자의 도덕성 자각과 인간성 회복에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 이것은 공자가 『논어』에서 주장한 ‘위인유기(爲仁由己)’<sup>36)</sup>처럼 도덕적 주체가 자신에게 있기에 상담사는 내담자로 하여금 스스로의 성찰과 수양을 통해서 내담자의 순선함을 일깨워주어야 한다.<sup>37)</sup> 결국 현대인이 도덕적 불안을 느끼게 되는 원인이 무엇이며, 그 해결책은 무엇일까? 현대인은 沒인간적인 과학문명과 물질 만능의 자본주의 속에서 인간과 물질의 가치가 전도되는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있으며, 인간 고유의 도덕성과 도덕주체성을 잃어가고 있다. 도덕적 주체로서의 자각을 하지 못하고 도덕심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할 수 없게 되면 좁게는 개인이 도덕적 불안에 직면하고 넓게는 사회 구성원 전체가 도덕적 불안에 휩싸이게 된다.<sup>38)</sup> 유가의 수양론은 마음〔心〕과 몸〔身〕을 동시에 닦는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심성수양은 철학치유와 불가분의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 유가의 수양론 저변에는 예를 바탕으로 두고 있기에 예가 수반되는 치유법이 주효(奏效)하다고 할 수 있다. 극기복례의 철학치유는 상담사가 내담자에게 ‘예’라는 수양적 도구를 통해서 위인유기와 존심으로 내담자 스스로 자연의 주체임을 일깨워준다. 극기는 자아인식

34) 율곡의 일상의 시의성 자료로는 明宗 20년부터 宣祖 14년까지의 일을 기록한 「經筵日記」, 「東湖問答」, 「時弊七條策」, 「文武策」, 「軍政策」, 「貢路策」, 「西原鄉約」, 「海州鄉約」, 「社會契約束」, 「社會法」, 「海州一鄉約束」, 「盜賊策」, 「醫藥策」 등이 있다.

35) 최영찬·최연자, 「유가철학치유의 사례방법」, 『철학 실천과 상담』, 제3집, 한국철학상담치료학회, 2012, 34쪽. ‘善友’는 “고통과 괴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이치를 깨달아 가고자 하는 ‘좋은 벗’과의 아름다운 동반자 관계의 의미로 내담자”를 지칭하였다. 본고에서는 ‘내담자’로 사용하였다.

36) 황정희·유성선, 「孔자의 ‘爲仁由己’를 통한 道德的 不安感 研究-철학치료의 불안 해소를 중심으로-」, 『공자학』, 한국공자학회, 2016, 6쪽. “논자는 현대인이 겪고 있는 도덕적 불안이 마음의 병으로 철학치료의 대상이며 본성의 자각, 도덕자아 주체성 회복을 통해 치료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37) 최영찬·최연자, 「유가철학치유의 사례방법」, 34쪽.參照.

38) 황정희·유성선, 「孔자의 ‘爲仁由己’를 통한 道德的 不安感 研究-철학치료의 불안 해소를 중심으로-」, 『공자학』, 한국공자학회, 2016, 5쪽.

과 자아성찰을 이끌어 낼 뿐만 아니라 ‘예’의 회복을 가짐으로써 배려는 자연스럽게 실행될 수 있다. 배려가 이루어지면 이기심과 독선 등은 일소될 것이다.

그 핵심적 원리는 미시적·심층적 설명이다. 조선시대에서 해방공간 이후 율곡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매우 심층적으로 풍부하게 이루어져 왔다. 논자는 과학기술의 발전은 우리가 그동안 겪어보지 못하였던 새로운 윤리적 갈등문제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높다고 본다. 즉 유전공학, AI, 메타버스 등은 현재 진행 중이며, 사람의 삶의 양식을 급격하게 변화시킬 것이며, 이러한 변화는 생명윤리, 정보 윤리, 생태윤리 등에 대한 윤리적 난제를 발생시킬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윤리적 난제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은 德 윤리적 관점의 윤리적 숙고에 의하여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현대 덕윤리적 관점과도 유사한 범주에 있는 율곡의 실천윤리적 경제론은 현재 우리가 겪고 있거나 앞으로 겪게 될 수많은 윤리적 문제 상황에 대하여 소중한 해답을 제공하는 열쇠로서 그 가치를 묻고 싶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당리당략에 따른 소모적 정쟁, 적폐 청산 논쟁, 언론 자율화, 노사쟁점, 사법개혁, 부패 대응, 탈원전 정책, 부동산 정책 등 소통 부재 및 의사 표현의 제한으로 인한 각종 문제로 대립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대립과 갈등은 율곡이 『순언』에서 밝힌 일상과 이상의 시의성을 통해서 원만히 해결될 장치를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 『道德經』, 『大學』, 『論語』, 『孟子』, 『中庸』, 『周易』, 『書經』, 『詩經』,  
董思靖, 『太上老子道德經集解』, 中華書局, 1985.  
王弼, 樓宇烈 校釋, 『老子·周易 王弼注校釋』, 華正書局有限公司, 1982.  
余培林 註譯, 『新譯 老子讀本』, 三民書局印行, 1975.  
陳鼓應 著, 최재목·박종연 譯, 『陳鼓應이 풀이한 老子』, 영남대학교출판부, 2008.  
成玄英, 최진석·정지욱 譯, 『老子義疏』, 소나무, 2007.  
이석명, 『老子道德經河上公章句』, 소명출판, 2007.  
이선경, 「율곡의 사회개혁론을 통해서 본 복지국가 이념」, 『율곡학연구』(42), (사)율곡  
연구원, 2020.  
徐命鷹, 조민환·장원목·김경수 譯註, 『道德指歸』, 예문서원, 2008.  
朴世堂, 김학목, 『박세당의 노자』, 예문서원, 2008.  
이강수, 『노자와 장자』, 도서출판 길, 2009.  
최진석, 『노자의 목소리로 듣는 도덕경』, 소나무, 2006.  
김석진·신성수, 『周易으로 풀어보는 道德經』, 대학서림, 2005.  
김형효, 『사유하는 도덕경』, 소나무, 2011.  
금장태, 『韓國儒學의 노자이해』,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김학목, 『老子 도덕경과 왕필의 注』, 흥익출판사, 2012.  
임채우, 『왕필의 노자주』, 한길사, 2009.  
이난숙, 「한강백·공영달의 현학적 역사사상에 대한 정약용의 비판」, 중앙대학교중앙철학  
연구소, 『철학탐구』제36집, 2014.

### ■ 『순언』 번역본

- 율곡 이이著.유성선·이난숙譯, 『율곡의 순언-유학자의 노자 도덕경 이해』, 경인문화사,  
2015.  
율곡 이이著, 조기영譯, 『醇言』, 지만지 고전선집, 2010.  
율곡 이이著, 유성선譯, 『율곡의 노자풀이, 醇言』, 국학자료원, 2002.  
율곡 이이著, 김학목譯, 『율곡 이이의 노자』, 예문서원, 2001.  
율곡 이이著, 이주행譯, 『醇言』, 인간사랑, 1992.

### ■ 『순언』 연구논문

- 금장태, 「『醇言』과 栗谷의 老子 이해」, 『東亞文化』43집, 2005.  
김길환, 「栗谷의 老子觀-傳栗谷作『醇言』을 중심으로」, 『韓國學報』2집, 1976.  
김낙필, 「栗谷 李珣의 『醇言』에 나타난 儒·道 交涉-경제이념을 중심으로」, 『원불교사  
상과 종교문화』20집, 1996.  
김선희, 「철학치유를 위한 서언」, 『철학연구』(107), 대한철학학회, 2008.  
김시천, 『이이의 『醇言』과 이단의 문제-조선조 유가 지식인의 내면 풍경에 대한 한 가지  
고찰』, 『시대와 철학』23집, 2012.  
김윤경, 「조선시대 『老子』 주석서에서 “仁義“와 “私“ 개념의 전개」, 『한국철학논집』31  
집, 2011.



- 김주수, 「醇言과 精言妙選의 시학 사상」, 『韓國漢詩研究』14집, 2006.
- 김학목, 「18-9세기의 조선조 『도덕경』 주석 고찰」, 『東方學』26집, 2013.
- 김학목, 「『순언』에 나타난 율곡 이이의 사상」, 『동서철학연구』23집, 2002.
- 김학목, 「조선유학자들의 『도덕경』 주석과 그 시대상황-『순언』·『신주도덕경』·『정노』를 중심으로」, 『동서철학연구』24집, 2002.
- 김학목, 「『醇言』에 나타난 栗谷의 經世思想」, 『民族文化』25집, 2002.
- 김학목, 「『醇言』에 대한 洪啓禧의 입장」, 『道教學研究』17집, 2001.
- 김학목, 「『순언』과 『남화경주해산보』에서 노장의 마음 비움」, 『대동철학』(93), 대동철학회, 2020.
- 김학목, 「강화학파의 도덕경 주석에 관한 고찰」, 『동서철학연구』, 한국동서철학회, 2004.
- 김학재, 「『순언』에 드러난 율곡의 『노자』 해석의 지평 -『대학』을 통한 『노자』 이해」, 『철학연구』48집, 2013.
- 김희, 「『순언』 군주론의 내적구조 분석 연구- 율곡의 『순언』 저술 동기를 중심으로 -」, 『율곡학연구』(43), (사)율곡연구원, 2020.
- 송향용, 「韓國에서의 老·莊 研究와 그 展開 推移」, 『동아시아문화연구』26집, 1995.
- 유성선, 「『醇言』의 無爲 경계-율곡의 노자철학 이해」, 『한중인문학연구』20집, 2007.
- 황정희·유성선, 「孔자의 ‘爲仁由己’를 통한 道德的 不安感 研究-철학치료의 불안 해소를 중심으로-」, 『공자학』, 한국공자학회, 2016.
- 이강수, 「율곡의 『醇言』과 조선조의 道家研究」, 『율곡사상연구』13집, 2006.
- 이선경, 「율곡사상의 재인식 ; 수양의 관점에서 본 율곡의 『순언』 이해」, 『한국 철학논집』18집, 2006.
- 이선순, 「通過『醇言』看栗谷如何理解『道德經』」, 『중국어문학논집』16집, 2001.
- 이영경, 「栗谷의 『醇言』에 나타난 儒家·道家的 倫理觀의 갈등과 포섭 문제」, 『哲學論叢』36집, 2004.
- 이종성, 「『순언』과 ‘양생’-그 정치철학적 양생론의 가능성에 대한 모색」, 『大同哲學』40집, 2007.
- 이종성, 「『순언』과 ‘세 가지 보배’-그 정치철학적 맥락에 관한 검토」, 『동양철학』27집, 2007.
- 이종성, 「율곡 『순언』의 경세론적 기본 입장」, 『동서철학연구』44집, 2007.
- 이종성, 「“정치적 진실성의 결여”로부터의 탈주-『순언』의 경세론적 과제와 의의에 관하여」, 『동서철학연구』46집, 2007.
- 이종성, 「율곡 『순언』의 연구동향과 과제」, 『율곡사상연구』13집, 2006.
- 이종성, 「율곡과 노자-『순언』의 세계관과 인간이해」, 『율곡사상연구』10집, 2005.
- 이종성, 「기호학파의 개방적 진리관과 유도회통론의 한 전형 - 율곡의 「순언」에 나타난 진리 체득의 문제를 중심으로」, 『儒學研究』12집, 2005.
- 이종성, 「율곡의 노자관에 있어서 자아수련의 문제」, 『大同哲學』19집, 2002.
- 이종성, 「율곡의 『醇言』에 나타난 형이상학적 세계관」, 『儒學研究』6집, 1998.
- 임안오, 「《醇言》, 《道德經》與「儒道同源互補」-以《醇言》前五章爲核心展開的一些思考」, 『율곡사상연구』13집, 2006.
- 정 룬, 「『醇言』의 체용론적 구조」, 『汎韓哲學』27집, 2002.

- 조민환, 「栗谷 『醇言』의 한국철학사적 위상에 관한 연구」, 『동양철학』32집, 2009.
- 주용성, 「『醇言』에서의 ‘齋’의 意」, 『간재학논총』11집, 2010.
- 최기훈, 「이율곡의 『醇言』에 나타난 儒道心性論의 會通」, 『율곡학연구』(44), (사)율곡연구원, 2021.
- 최영찬·최연자, 「유가철학치유의 사례방법」, 『철학 실천과 상담』, 제3집, 한국철학상담치료학회, 2012.
- 황국하, 「栗谷의 『老子』 讀法 妙處로서의 ‘道即天道」, 『열린정신인문학연구』11집, 2010.

## 『순언(醇言)』의 일상과 이상에 관한 경계 연구」에 대한 토론문

황정희(강원대)

이 논문은 유성선·김태희 두 분[이후 필자로 지칭]께서 율곡 이이 선생의 저작인 『순언』이 가지는 일상과 이상에 관한 경계를 밝히고자 한 것이다. 필자는 1장에서 『순언』의 체제를 밝히고 이를 해제하고자 하였다. 먼저 율곡의 『순언』 체제는 노자 『도덕경』 81장을 40장으로 이유석로(以儒釋老)의 방식으로 서술하였음을 밝혔다. 그리고 『순언』이 『도덕경』의 주석서이기보다 『도덕경』을 연구한 후 율곡 자신의 우주론, 인성론, 수양론을 펼친 연구 문헌이라고 해제했다. 그 이유는 『순언』의 첫머리가 도체인 우주론의 핵심 사상을 먼저 논하고 있으며 이러한 우주적 사유를 토대로 『도덕경』에서 가려 뽑아 구조적으로 새롭게 재편성하였고, 상달처를 많이 논해 근기가 높은 선비를 대상으로 저술하고자 한 율곡의 의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 율곡은 성리학적 우주론과 인성론을 토대로 하면서도 세계관의 핵심 사상이 다른 도가철학의 핵심을 융회(融會)해 철학적으로 회통하였으며, 논점은 비판적 사고가 중심인 비판적인 철학사상이라기보다 통섭적 사고로 각각의 철학사상을 연구해 한계를 극복하고 발전을 꾀하고자 한 학문적 의도를 가진다고 했다.

2장에서 필자는 『순언』의 일상(日常)과 이상(異常)의 이유석로(以儒釋老) 논의를 ‘경계(境界)’의 범주로 구성하고자 하였다. 필자는 『순언』을 연역적이고 귀납적인 방법으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며 수기치인의 형이상학적 철학치유와 사회적 개혁과 봉당의 혁신 등의 내용이 일상과 이상의 이유석로 경계의 범주로 논의 가능하다고 보았다. 필자는 율곡이 25장에서 “성인은 무아(無我)이고, 도와 더불어 하나이다. 그러므로 비록 하늘이 이룬 것과 같은 공을 이루어도 끝내 자신을 위대하다고 하는 마음이 없기에 이것이 성인이 위대하다고 하는 까닭이다.”라고 한 문장을 인용하였으며 『순언』의 “도체-심체-수기치인”의 기본구조가 유가 심성론의 핵심 내용을 담보하고 있다고 하였다.

3장에서는 율곡의 『순언』이 한국사상사에서 사상사적·역사적인 측면에서 그 위상이 무엇이며, 그것의 가지는 의의가 무엇인지를 여타 유학자들의 노자사상에 대한 이해와 비교를 통하여 밝히고자 의도하였다. 필자는 율곡의 『순언』에 나타난 율곡의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종합적인 사유는 이후 사상가들에게 진리관에 있어서 하나의 일관성을 개통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그 위상을 밝혔다. 그리고 사회성을 띠고 있는 실용적 학문으로서 접근하여 노자사상이 현실적으로 응용될 가능성을 열어 준 것을 의의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율곡의 일상의 철학실천적 시의성이 도덕규범의 사회적 실천을 통한 사회적 선의 확충 노력일 것이고 철학실천이라고 하였다. 율곡의 철학사

상과 경세론이 가진 철학실천 윤리는 현대인이 지니는 가치관 혼란 및 도덕주체성의 몰지각을 해결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 장치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논평자는 필자가 『순언』의 일상과 이상에 관한 경계 연구를 통하여 이를 현대와 현대인이 겪는 문제 해결 즉 철학실천에 접목하고자 한 것은 매우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 필자가 논문에서 밝혔듯이 『순언』이 가지고 있는 이유석로(以儒釋老)의 회통적이고 포괄적 사유는 오늘날 일면으로 치우쳐 극단을 향해가는 많은 사회적 현상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논평자 또한 크게 공감할 수 있었다. 다만 논평자의 이해가 깊지 않아 몇 가지 질문을 통하여 해소하고자 한다.

1. 1장에서 필자는 『순언』 40장 각각의 제목을 정한 것을 옮겨 적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여타의 의미가 있는 것인지와 2장에서 “도체-심체-수기치인”의 기본구조에 따라 40장을 구분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 필자는 2장에서 『순언』의 일상과 이상의 연구는 귀납적이고 연역적 연구 방법이 요청된다고 썼다. 이에 대하여 뒤따른 문장에서 서술한 것으로 보이나 논평자는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덧붙인다면 후속 연구자에게 좀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논문을 통하여 『순언』의 현대적 의의와 위상에 대한 사유를 넓히는 공부의 계기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송미령과 기독교신앙

권태경 (총신대학교 교수, 신앙과 사회문화연구소 소장)

서론

송미령의 생애와 기독교 교육

송미령의 신앙고백의 내용

결론

## I. 서론

중국의 역사에서 새로운 근대 국가를 수립한 3대 주역으로 국부인 손문(孫文, 쑨원, 1866-1925)과 국민당의 장개석(蔣介石, 장제스, Chiang Kai-shek, 1887-1975), 그리고 공산당의 모택동(毛澤東, 마오쩌둥, Mao Zedong, 1893-1976)을 언급할 수 있다. 이 3인 중에 손문과 장개석이 송가수(宋嘉澍, Charlie Soong)라는 한 집안과 결혼한 사실이 특이하다. 손문의 부인은 송경령(宋慶齡, 1892-1981, Soong Ching Ling)이고, 장개석의 부인이 송미령(宋美齡, 1897-2003, Soong May Ling)인데, 이들은 송가수의 딸이다.

송가수에게는 3명의 딸(송애령, 송경령, 송미령)이 있었는데 1997년 ‘송가황조’(宋家皇朝: The Soong Sisters)라는 영화를 통해 이 세 자매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게 되었다. 송미령에 대한 연구 경향을 보면 정치와 외교 활동 그리고 생애와 사상을 다룬 전기는 비교적 많은 출판물이 있다. 본고는 송미령의 기존의 일반적 연구가 아닌, 송미령과 기독교 신앙에 대한 연구이다. 중국의 근대화에 주역인 손문과 장개석의 처가가 기독교 집안이라는 사실에서, 본고는 송미령과 기독교 신앙과의 관련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송미령의 교육 배경과 자신이 직접 밝힌 신앙고백서(I confess My Faith, 1943)을 중심으로 그녀의 기독교 신앙의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송미령과 기독교 신앙의 관련 연구가 중국 근대사의 기독교적 배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 II. 송미령의 생애와 기독교 교육

송가수는 해남(海南) 문창(文昌) 사람으로 본명은 한교손(韓喬孫)인데, 외종숙인 송씨(宋氏)의 양자로 들어가 송가수로 개명하였다. 송가수는 가난한 집안의 자식이었으나 외삼촌의 양자로 1878년 12살에 미국으로 가서 교육을 받았다. 송가수는 미국에 도착한 후 1년이 지나 1880년 노스캐롤라이나 감리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1881년 15세에 트리니티(Trinity) 대학과 1882년 밴더빌트(Vanderbilt)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1885년 5월 졸업을 하였다. 중국 선교를 위해 미국 감리교가 송가수에게 신학 훈련의 기회를 준 것이다. 트리니티 대학은 1839년 감리교 배경의 대학으로 설립되었고, 1924년 기부자 듀크 가문(재단)의 이름을 따서 오늘날 미국의 명문 사립대학 듀크(Duke) 대학교가 되었다. 송가수가 신학을 공부한 밴더빌트도 감리교 배경의 1873년에 설립된 대학으로 오늘날 미국 남부의 명문 대학으로 명성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송가수의 미국 교육 배경은 감리교의 배경의 기독교 학문과 신학 훈

련의 과정이었다.<sup>1)</sup> 송가수는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미국 남부에서 목사가 된 후 1886년 선교를 위해 다시 중국 상해로 귀국했다. 그러나 송가수는 상해의 선교사와 갈등으로 목사 일을 그만두고 제분공장과 인쇄소를 경영하던 중에 중국 혁명의 아버지인 손문(孫文, Sūn Wén)과 절친한 친구가 되고 혁명에 가담하게 되었다.

송가수의 부인은 예계진(倪桂珍, 1869-1931)인데 명말 고관으로 가톨릭에 귀의한 서광계(徐光啟, 1562-1633)의 후손으로 대대로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었다. 예계진의 아버지는 절강성 영파 근처 여조현 출신의 법률학자였으며 그의 어머니는 열성적인 크리스천이었다.<sup>2)</sup> 중국의 기독교 역사에서 서광계는 중국 명나라 학자로 1606년 전후에 예수회 서양 선교사 마테오 리치(Matteo Ricci)에게서 천주교 세례를 받고 바오로(保祿)라는 세례명을 받았다.<sup>3)</sup> 그는 서양의 신기술과 신학문을 중국에 소개하는 상해 지구 최초의 천주교 신자로서, 중국의 기독교 역사에서 서광계를 언급하지 않고서는 기독교의 수용과 중국 기독교 역사를 언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이다. 예계진은 상해 푸둥에서 태어났다. 그녀의 아버지는 예수 교회의 목사이고, 어머니는 명나라의 유명한 중국 과학자의 후손이었습니다. 예계진은 17세에 상해 배문여자학교(培文女子高等中学)을 졸업했으며, 재학 중 수학을 잘하고 피아노 연주를 좋아하였다. 예계진의 어머니는 기독교로 개종 한 명나라 최초의 학자인 서광계의 17대 자손이며, 중국 천주교의 3대 가문중의 하나이다. 예계진의 가문은 천주교를 믿는 전통가문이었으며, 많은 남자들이 개종하였고 그 중에 일부는 선교사가 되었다. 예계진은 어린 나이(4세)에 글쓰기 연습을 시작하고, 8세에 초등학교 입학하고, 14세에 미국 선교사가 운영하는 배문여자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후, 17세에 예수교회에 입교하였다. 이후 배문여자학교에서 교사로도 일했다. 당시 중국의 전통 관습 중 전족(纏足)이 있었는데, 이는 기독교 신앙과도 관련이 있다. 송가는 여러 세대 동안 그들 중 누구도 전족하지 않았다. 엘머 T. 클라크(Elmer T. Clarke)가 저술한 "중국의 장가(江家)"에 따르면, "예계진은 마음이 착할 뿐만 아니라 매우 엄격하고 강한 성격을 갖고 있었다. 그녀는 독실한 십계명 준수, 검소한 생활, (자녀를 위한) 스파르타식 훈련, 그리고 규율 있는 훈련을 한 사람으로 묘사되었다. 예계진은 중국 근대역사에 기독교의 흔적을 남긴 근대 지식인 여성이었다.

송가수와 예계진에게는 3명의 딸과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자녀를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다. 첫째 송애령이 1904년 미국의 조지아주 웨슬리언 대학(Wesleyan College)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동생 경령과 미령이 상해의 크리스천 스쿨인 맥타이어 학교(Mctyeire School)에 다니다가 언니 애령과 같이 1911년 미국 유학 생활을 하게 되었다.<sup>4)</sup> 송애령과 송경령은 맥타이어 학교에서 공부할 때 송미령은 5세에 이 학교 부속 유치원에 들어갔다. 송미령이 상해에서 공부한 맥타이어 학교의 다른 교명은 1890년 알렌(Young John Allen)이 설립한 상해 중서여숙이고<sup>5)</sup>, 오늘날 상해 제3중학교(长宁区 江苏路 155号)이다. 상해 제3중학교는 상해에서 유일하게 공립 여성 주요 중학교이다. 이 학교는 1881년 미국 기독교 성공회(GCC)가 설립한 산타마리아(美国基督教圣公会创办的圣玛利亚女中)와 1892년 기독교 남부 감독 협회에서 설립한 학교를, 1952년 상해시 인민 정부가 인수하여 상해 제3여중학교로 명명되었습니다. 중국의 명문학교인데, 이 학교 출신 유명 인사로는 등아봉(邓稚凤, 미국 오리건 부의장), 주리란(朱丽兰

---

1)  
2)  
3)  
4)  
5)

전 중국 과학기술부 장관), 황량(黃量, 중국 과학아카데미 학자), 천야주(陳亞珠 중국 공학아카데미 학자), 원옥매(聞玉梅, 문학가) 장애령(張愛玲), 예술가 구성준(顧聖嬰), 황지진(黃蜀芹) 등이 있다.<sup>6)</sup> 송경령과 송미령이 크리스천 스쿨인 맥타이어 학교를 다니게 된 배경은 감리교 목사인 아버지와 경건한 집안 어머니의 기독교 교육의 의도가 있다고 본다. 송가 세 자매의 성격을 비교하면 현실주의자인 송애령은 중국 최대 부호와 결혼하였다. 송애령은 하인만 500명이 넘었다는 공자의 75대손 부호 공상희(孔祥熙)와 결혼을 하였다. 다른 자매 송미령은 장개석과 결혼하고 송경령은 손문과 결혼하였다. 송가수가 AP 통신과 인터뷰 중에 언급한 바 있듯이, 송애령은 “돈을 사랑하고” 송경령은 “나라를 사랑하고” 송미령은 “명예를 사랑한 사람”이라고 평가되고 있다.<sup>7)</sup>

1908년 송미령의 미국 유학은 언니 송애령과 송경령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어 자연스럽게 미국을 가게 되었다. 1908년 송경령은 15세로 중서여숙을 졸업하고 동생 송미령을 데리고 이모부 부부와 함께 미국으로 갔다. 송가 3자매는 조지아주에 있는 웨슬리안 여자대학(Wesleyan College)의 캠퍼스에서 공부하게 되었다. 당시 언니 송애령이 공부하고 있어서 송경령과 송미령이 웨슬리안 대학에 온 것은 1908년 가을이었다. 언니 송경령은 대학 공부할 나이가 되었지만, 송미령은 10세로 나이가 어려 그냥 언니와 같이 온 것이다. 송경령은 대학의 학생으로 등록을 하고 공부를 한 반면, 송미령은 학장(W N Ainsworth)의 집에서 지내면서 개인 교습으로 공부를 하였다. 송가 3자매의 이름이 1908-1909년 웨슬리안 대학 학적부에 영어로 기록되어 있다. 송미령은 대학에서 수업을 한 것이 아니라, 대학의 재학생인 버크(Margie Burke, 대학 영어 교수의 딸)와 루씨(Miss Lucy, Lester)의 개인 교습을 받을 정도였다.<sup>8)</sup> 1909년 가을에 송애령은 학사 학위를 받고 상해로 귀국하였으며, 1909년 송경령은 웨슬리안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하여 1913년에 졸업하였다. 송애령과 송미령은 꽤 활달하였는데 비해 송경령은 대단히 침착하고 조용하였으며 겉꾸밈이 없고 또한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고, 도덕적·철학적 문제에 특히 관심을 보였다. 1925년 웨슬리안 동창회지는 송경령에 대하여 “손부인은 외국인의 다리를 가졌지만 몸치장은 자기 나라의 민족의상으로 하고 있다”라고 묘사하고 있다. 웨슬리안 대학에서 송경령에 대한 평가는 그녀가 미국에서 받은 교육은 사고의 기초가 되고 행동의 원동력이 되는 중요한 신사상을 가지게 했으나, 궁극적으로 그 내용이 중국인을 위한 애국주의였다고 말하고 있다.<sup>9)</sup> 웨슬리안 대학은 1836년 12월 23일 조지아 여자대학교(Georgia Female College)로 개교하였으나 감리교 성공회(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의 여성 교육에 대한 관심으로 웨슬리안 여자대학(1843)과 웨슬리안대학(1917)으로 개명하였다. 피어스(George Foster Pierce) 목사가 1838년 조지아 여성 대학의 총장으로 선출된 이후, 지난 180여년 동안 미국의 역사에서 여성 교육의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 대학이 여성 교육사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여성에게 학위를 주는 최초의 대학이라는 점이다.<sup>10)</sup>

1913년 송미령은 언니 송경령이 귀국하여서, 15세가 되어서야 웨슬리안 대학에 1년(1912-1913) 공부한 후, 혼자 남게되어 하버드대학 재학중인 오빠 송자문민이 있는 매사추세츠주의 웰슬리 대학(Wellesley College)으로 전학하여 영문학을 공부하였다.<sup>11)</sup> 졸업시 영광스

---

6)  
7)  
8)  
9)  
10)

럽게 33명의 듀란트 학생(Durant Scholar) 중 하나로 졸업을 하게되며, 가장 영향력있는 시대의 여인으로 평가를 받게되었다.<sup>12)</sup> 웰슬리 대학은 미국의 사립대학으로 듀란트(Henry and Pauline Durant)가 1870년에 설립한 학교로 미국내에서 가장 평판이 좋은 명문 리버럴아츠 대학(교양학 liberal arts college)중의 하나이다. 가장 저명한 동문으로 알브라이트(Madeleine Korbel Albright, 1959)와 클린턴(Hillary Rodham Clinton, 1969)이 있다.<sup>13)</sup> 송미령의 미국 유학의 실제적인 경험과 훈련은 이 학교에서 한 것으로 보여진다. 웰슬리언 대학에서 기독교 교육의 배경과 영어 훈련을 하였고, 이후 웰슬리 대학에서 교양과 인문학적 소양의 좋은 교육을 받을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송미령은 중국으로 귀국한 이후 당시 군관학교 교장이던 장개석을 만나서 결혼한다. 손문의 국공합작정책에 반대하는 반공 쿠데타에 성공한 후 장개석은 외국(미국과 영국)의 도움이 필요할 때 결혼으로 송미령의 협조를 내심 기대하였다. 이들의 결혼에 모친 예계진은 반대하였으나 기독교로 개종하겠다는 장개석의 말과 송애령의 적극적인 설득에 끝내 결혼이 성사되었다. 1927년 12월1일 성대한 결혼식이 상해에서 채원배의 주례로 세계적 관심속에 거행되었으며 송미령은 송경령에 이어 중국의 두번째 퍼스트 레이디가 되었다. 결혼 후 송미령은 북벌을 거행한 장개석을 따라 남경에서 외교적 역할을 수행하며 장개석의 결함을 잘 보좌하여 상당한 정치적 역할을 하였다. 송미령은 1933년 장개석을 따라 공산당 토벌 작전에 참가하였고 1934년에는 신생활운동을 전개하였다.<sup>14)</sup> 국내 정치와 외교에 탁월한 리더쉽을 보인 점을 높이 평가하여 1937년 미국의 주간지 <타임>은 송미령을 세계에서 가장 알려진 저명한 여성으로 선정했다.<sup>15)</sup> 1937년 중일전쟁이 폭발하자 송미령은 중국 부녀 위로자 위향전장사 총회를 설립하여 항일전에 헌신할 것을 호소하였다. 1938년에는 신생활운동 부녀지도 위원회를 개조하여 국민당과 공산당 모두가 참여하는 민족민주 통일 전선을 조직하였다. 이러한 여성 구국 활동의 일환으로 중국 전쟁의 참상과 구제를 알리는 대미 방송 연설에도 동참하고, 미국 의회에서 연설하는 '차이나로비'의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국공 내전에서 장개석이 실패하자 송미령은 대만으로 망명의 길을 가게 된다. 1975년 장개석이 사망하자 송미령은 미국 뉴욕으로 건너갔다가 2003년에 10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 III. 송미령의 신앙 고백서(1943) 내용의 분석

#### 1) 송미령의 회의적 신앙과 부모의 영향

송미령의 신앙을 이해하는데 아주 유익한 자료가 있다. 그것은 1943년 송미령 자신이 작성한 고백서 내용으로 미국 감리교에서 출판된 팜플렛이다. 짧은 내용이지만 학술적으로 서술된 체계적인 팜플렛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송미령의 기독교 신앙을 가장 잘 설명하는 문서중의 하나이다. 1943년 고백서의 서두에 보면 송미령은 어린 시절 자신의 신앙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자신은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다. “나는 원래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다. 나는 (종교적인 것을)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최소한도 아니다. 나는 선천적으로 신비적인 사람이 아니다. 현실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일상의 일에 물질적인 것은 아니지만,

---

11)  
12)  
13)  
14)  
15)



(예를 들면) 비싼 보석보다 아름다운 청자 꽃병을 더 좋아한다.” 그리고 스스로 송미령은 신앙에 회의적인 입장이었다. 자신의 초기 신앙에 대하여 언급하기를 “나는 신앙, 믿음, 영혼불멸 같은 것이 다소 비현실적인 가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왔다.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었다. 나는 (가상의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내 집안에서는) 이미 항상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었다.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아버지에게 충분히 좋은 종교(기독교)가 나에게 그렇게 다가오지는 않았다. 나는 소화되지 않는 그리고 맛있고 당분이 입혀진 종교를 여전히 믿지 않는다. (부모가 아이에게 음식을 씹어서 아이 입에 넣어주는 신앙에 대한 불편함을 이야기 하면서, 부모의 종교를 내가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 힘들다고 이야기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

송미령의 초기 신앙은 아주 초보적인 것이었고, 부모의 기독교 교육과 신앙에 대하여 깊은 관심이 없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과정에서 부모의 영향력 그 중에 어머니의 신앙이 자신의 회심에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을 고백하고 있다. 송미령과 기독교 신앙과의 관계에서 아버지 송가수로 인해 기독교 교육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송미령의 영적인 훈련은 어머니의 영향이 컸음을 알 수 있다. 송미령에 의하면, “(나의 신앙에 영향을 준 것을 말하면) 나는 어머니가 하나님과 아주 가깝게 살아온 것을 알았다. 나는 어머니에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고 있다. 내가 어린 시절 약간의 반발은 했지만 가정 교육이 나에게 많은 영향을 준 것이라고 믿는다....어머니와 언니와 같이 나는 항상 교회를 갔다. 나는 설교가 너무 길어서 싫어했다. 그러나 오늘 내가 느끼는 것은 교회 가는 습관이 무엇인가 나를 정착하고 나를 안정되게 하는 것 같다. 이로 인해 나는 부모에게 감사한다. 나의 어머니는 감성적인 부모는 아니었다. 여러 면에서 그녀는 강한 어머니였다. 나의 어릴 적에 강한 인상은 집 3층에 방문을 달고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이였다. 그녀는 새벽부터 여러 시간 동안 기도하셨다. 우리가 어머니에게 조언을 구하면 그녀는 “먼저 하나님께 구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셨다.... 어떤 결정을 위한 어머니의 기도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언제나 예외없이 좋은 일이 있었다. 어머니가 생애에서 내가 느끼는 것은 (실패하던) 내가 무슨 일을 하던지 간에 나를 기도하게 하셨다....아마 나의 사고속에 종교는 그러한 어머니를 연상케 하기에, (나의 종교는) 어머니와 완전히 단절하여 나타나지 않는다.”<sup>16)</sup>

## 2) 송미령 신앙의 3가지 경험

송미령이 처한 당시 중국은 대내외적으로 일본과 분쟁 그리고 국내의 어려운 상황으로 힘들었다. 어머니의 죽음이 가장 큰 시련이었지만, 홍수 기근이나 국가의 통일을 도모한다는 명분 아래 드러난 (정치적인 갈등의) 음모로 매우 힘든 상황이었다. 이러한 절망에서 송미령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괴로웠다. 송미령은 자신의 무능함을 “중국 나라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물 한컵으로 큰 화재를 진압하려는 시도와 같은 것 같다”고 표현하고 있다. 송미령의 인생과 신앙의 전환에 아주 특별한 3가지 상황이 초래되었다. 자신의 신앙고백에서 결혼 생활 중 나의 종교(신앙)와 관련하여 3가지를 경험을 말하고 있다. 첫째는 대단한 열정과 애국심으로 국가를 위해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열정적인 열망이다. 송미령에 열망은 “나의 남편과 강한 중국을 만들기 위해 쉬지않고 일하는 것이다. 내가 여전히 부족하지만 의도 만큼은 최상이었다. 의존할 권력이 없어 나 자신에 의지했다”. 송미령이 중국의 역사에 보여준 정치와 외교의 애국적 활동 가운데, 1943년 미국 의회의 연설을 통해 국제외교에서 중국 지지와 후원을 얻어내는 외교적인 역량은 이러한 나라에 대한 애국심에 근거한 것이라고 보여진다.<sup>17)</sup>

16)

두 번째 상황은 자신이 경험한 가장 아픈 시련으로 어머니의 죽음이었다. 송미령의 고백에 의하면, "나에게 찾아온 치명적인 절망은 영적인 절망과 적막함 그리고 고독함이었다. 어머니의 죽음으로 고독이 심각했다. 우리 영토의 북부는 외국의 적으로 인하여 그리고 남부는 정치적인 당파로 불안했다. 영토 북동에 기근과 양쯔 계곡 홍수로 거주자 수백만이 위협을 당했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이 가장 컸다.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나는 영적으로 남편의 신앙을 잘 인도하지 못한 것을 깨달았다. 남편에게 미친 어머니의 영적인 영향은 크다. 남편의 어머니는 열렬한 불교신자 였다. 나의 어머니의 영적인 영향과 모데적인 인격은 남편이 크리스천이 되게하였다. 우리의 결혼에서 어머니의 동의를 얻어내는데 남편이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후 자신이 기독교를 연구하고 성경을 읽겠다고 약속한 것이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남편은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켰다. 그러나 남편은 (성경에서) 이해되지 않는 것이 너무 많아서 노력을 해도 잘 안되었다." 장계석이 신앙을 갖게된 이유로 장모 예계진의 역할이 크다고 본다.<sup>18)</sup> 송미령은 자신이 경험한 절망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자연스럽게 갈구하게 되었다. 그녀에 의하면, "나는 중국을 위해 무엇인가 남편에게 필요한 것을 도우려고 했다. 나는 어떤 것이 오아시스인 것을 알지만, 남편에게는 신기루(mirage, 가짜 물)에 불과했다. 삶은 모든 것이 혼동스러운 것이다. 나는 깊은 절망에 처했으며, 무엇보다 인간의 무능함에 대한 감정으로 하나님에게 더 의존했다. 나는 이것이 나 자신보다 더 위대한 능력이 있음을 알았다. 나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심을 알았다. 어머니가 더 이상 안계시니,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스스로 간구하게 되었다. 영적으로 남편을 도울 사람은 나 밖에 없었다. 그를 영적으로 돕는 일이 나 자신의 영적 성장이기도 했다."

송미령은 자신이 처한 나라의 어려움에서 국가를 위한 애국심을 갖게되고, 개인적으로 경험한 어머니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게 되는 신앙의 과정을 경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의 여정에서 남편 장계석에게 필요한 역할을 하고자 중국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앙의 성숙함을 그녀의 고백서에서 보여주고 있다. "나의 결혼 생활에서 3번째 국면이 있는데, 그것은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싶었다. 삶은 실제로 단순하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삶을 더 혼란스럽게 한다. 고대 중국의 그림을 보면 대상물이 분명하게 단지 그냥 꽃이다. 그림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은 아름다운 꽃에 부차적인 것이다. 분열되지 않는 통합된 삶은 이와 같은 것이다. 하나의 꽃이 무엇인가?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행하는 데에 절대적인 신중함과 정직함이 요구된다. 내가 말하는 것은 최선을 다하여 마음을 쓰는 것을 말한다."

### 3) 송미령 신앙의 목표: 실제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

송미령은 신앙의 변화와 회심을 경험한 이후 나라가 처한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신앙의 성숙함을 고백서에서 보여주었다. 송미령은 자신의 신앙이 추구하는 목표와 방향을 하나님의 인도함에 두고 있다. 송미령은 고백하기를 "명상에서 자기 스스로 힘을 얻는다. 그러나 기도는 내 자신의 능력보다는 더 위대한 힘에 호소하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며 그 인도를 확신한다."

송미령은 구체적으로 기도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기도는 하나님의 인도를 얻고, 균형(넘어지지 않는)을 갖는데 원천이다. 하나님은 그러한 깨우침을 주신다. 나는 유한한 인간으로 종종 갈피를 잡지 못한다. 나는 내 자신의 판단을 의심하고 불안해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인

17)

18)

도를 구하며, 그 다음에 확신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고 나아간다....나는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것이 이해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귀를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아름다운 음악 쇼팽의 소나타를 이해하라고 노력하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내가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 이는 라디오 주파수와 같은 것이다. 라디오에 주파수가 맞아야 음악이 나오는 것이다. 주파수를 맞추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이해 할 수 있다. 어떻게 오래전에 수도사 로렌스 형제가 우리에게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임재 연습’에 대하여 말한바 있다.“ 송미령은 이제 전적 하나님의 의존과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고 있다.

자신의 신앙 고백 마지막 말미에 송미령은 ‘두려움없이’라는 신앙을 말하고 있다. 송미령의 1943년 신앙고백서를 평가해보면, 이 고백서는 아주 평범한 간증서 같기도 하지만, 이 고백서는 중요한 면을 드러내고 있다. 그것은 크리스천으로 단순하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고백서를 통해 중국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그것을 고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송미령에 의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중국을 위해 무슨 일을 나에게 맡기신 것 같다고 생각한다. 장시성의 수천의 옥토(쌀)가 지금은 황폐화 되었다. 수십만의 가족이 집을 잃었다. 농부들이 땅을 찾고 삶의 환경이 개선되는데 도움을 주는 농촌 재할이 필요했다. 지금 중국의 문제는 실제로 이전 보다 더 심각하다. 그러나 이는 의기소침하거나 절망감으로 혼자 져야 할 짐이 아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요구하는 것 보다 더 위대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에게 기도한다. 이 글을 쓰는 중에도 나는 남편과 위험한 지경에 처해있다. 항상 위험하지만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나와 나의 남편에게 우리의 일이 마칠 때 까지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을 알고 있다”.

#### IV. 결론

송미령은 중국 근대의 역사에서 장계석의 부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국 근대사의 역사적인 여성 지도자로 평가될 필요성이 있다. 송미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에 있어 가정과 교육 환경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살피는 것은 송미령과 기독교 신앙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도움이 된다. 송미령은 자신의 개인 신앙과 고백을 통해 나라와 민족이 처한 어려움을 염려하면서 나라를 생각하는 애국심을 보여주었다. 송미령의 가정 배경에서 부모님의 가정교육과 부모의 신앙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지만, 송미령이 교육 배경으로 상해와 미국의 대학에서 유학 경험은 송미령의 기독교 신앙을 설명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것이 송미령을 통한 중국 근대화와 기독교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 오늘날 중국과 달리 대만의 기독교 문화 그리고 경제와 교육에 있어서 근대화에 송미령을 역할을 다시 한번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미국 《타임》지는 루즈벨트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여 송미령을 “보통 사람과는 다른 특사”라고 말했다. 그 호의 잡지 표지에는 그녀의 천연색 사진이 실렸는데 뒤에는 대나무와 새를 그린 중국화를 배경으로 하여 색채가 부드럽다. 대통령의 부인 엘리노어의 글도 같은 호에 실렸다. “장부인은 매우 사랑스러운 사람이다. 의지가 강인하며 절대 감상주의자가 아니다. 그녀의 도착은 한 여성에 대한 승인을 상징한다. 이 여성은 자신의 품격과 이바지한 공헌에 의거하여 세계에서 그 지위를 얻었다.” 송미령의 방문에 대하여 미국의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다. 잡지 《논단》은 보도하기를 루즈벨트 대통령은 장 부인을 백악관과 하이드파크 자택에 초청하여 머물게 했으며, 아울러 그녀를 안내하여 국회 연설에 참석케 하고 기자 초대회에 참석

했는데, 이는 미국의 외빈 접대 역사에서의 파격적인 예였다고 말했다. 특히 장 부인은 정식 초청을 받아 상하 양원의 연석 회의에서 연설을 했고, 아울러 양원의 외교위원회의 성대한 연회에 참석했으며, 또 로스앤젤레스의 할리우드 볼 경기장에서 미국 대중들에게 연설을 했다. 이 모든 것은 미국을 방문한 절대다수의 외국 원수들이 일찍이 누려보지 못했던 특별한 영광이었다.<sup>19)</sup> 송미령에 대한 언론의 관심은 1931년 10월 26일에 장개석과 같이 <타임>지 표지 인물로 선정되었고, 1937년 <타임>지의 올해의 인물로 송미령을 장개석과 같이 선정하였다. 논평에 의하면, “서양에 어느 여성도 송미령이 중국에서 가진 것 만큼 가진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송미령을 극찬하고 있다. 1943년 3월 1일 미국 의회 연설을 마친 이후 타임 잡지는 표지 인물로 송미령을 단독으로 선정하였다. 1941년 6월 30일 라이프(Life) 잡지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여성“을 송미령이라고 했다.

---

19)

한국과 중국은 이웃하고 있는 나라들로써 역사적으로 서로 교류하여 왔다. 근대화과정에서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도 양국은 각자의 상황과 관점에 따라 조국근대화에 몰두하였다. 냉전의 시대를 거쳐 세계의 지구촌화와 평화의 무드에 편승하여 30년 전에 양국은 수교를 맺고 경제와 문화, 과학과 기술 분야 등에서 서로 도움을 주어 온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도 한국과 중국은 이웃하고 있는 국가로서 누가 더 강한가의 경쟁 대신에 상호협력을 중심으로 교류를 진전시켜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권태경교수의 “송미령과 기독교신앙”(송미령의 기독교적 삶이 중국 근대화에 끼친 역할- 가치)이라는 제하의 연구는 상당한 의의를 지닌다. 송미령은 송가수(宋嘉澍, Charlie Soong)의 셋째 딸이다. 송가수는 본명은 한교손(韓喬孫)인데, 외종숙인 송씨(宋氏)의 양자로 가면서 개명하였다. 그는 1878년 12살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대학교육을 받고 목사가 되었다. 송가수는 그 후 가톨릭으로 개종하고 중국의 근대화에 지대한 영향을 준 서광계(徐光啟, 1563~1633)의 후손인 예계진(倪桂珍, 1869-1931)과 결혼하였다. 예계진의 어머니는 기독교로 개종한 명나라 최초의 학자인 서광계의 17대 자손으로 중국 천주교의 3대 가문중의 하나에서 출생하였다. 송미령의 증언대로 그녀의 기독교신앙은 어머니 예계진의 신앙에 영향을 받았다.

송미령은 언니들을 따라 미국으로 건너가서 알브라이트(Madeleine Korbel Albright, 1959)와 클린턴(Hillary Rodham Clinton, 1969) 등의 저명한 인사들을 동문으로 둔 웰슬리 대학(Wellesley College)에서 영문학을 수학하였다. 그녀는 고국으로 돌아와 후에 장개석(蔣介石, 장제스, Chiang Kai-shek, 1887-1975)과 결혼하였다. 어머니 예계진은 송미령이 장개석과 결혼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하지만 송미령이 어머니에게 장개석을 기독교인이 되게 하겠다고 설득하고서 그와 결혼할 수 있었다. 장개석은 손문(孫文, 쑨원, 1866-1925), 모택동(毛澤東, 마오쩌둥, Mao Zedong, 1893-1976) 등과 함께 중국 근대화에 기여한 인물이다. 송미령은 중국을 대표하여 미국 상하 양원에서 연설하기도 하였다. 이 연설은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켰는데 중국의 근대화와 평화를 위해 세계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였다.

권태경 교수는 송미령이 이렇게 국가적 사명을 감당하면서 남편 장개석을 도와 중국의 근대화에 이바지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을 그녀의 기독교신앙에서 찾고 있다. 송미령은 목사인 아버지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먼저 묻는 어머니의 신앙이 중심을 이루는 가정 속에서 성장하였다. 그녀의 신앙의 롤 모델은 그녀 자신이 고백한 것처럼 어머니였다. 송미령은 아마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그 신앙을 상기하며 본받고자 하는 과정에서 자신만의 신앙을 확립했던 것 같다. 처음 그녀가 국가를 위해 일하고자 했을 때 그녀는 “중국 나라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물 한 컵으로 큰 화재를 진압하려는 시도와 같은 것 같다”고 할 정도로 자신의 무능력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 갔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며 그 인도를 확신한다”거나, “하나님은 나에게 중국을 위해 무슨 일을 나에게 맡기신 것 같다고 생각한다”거나 “나는 남편과 위험한 지경에 처해있다. 항상 위험하지만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거나 “나는 나와 나의 남편에게 우리의 일이 마칠 때까지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을 알고 있다.” 등의 고백들은 그녀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말해주고 있다. 이외에도 그녀는 남편을 신앙으로 인도하는 것에 대해 깊은 사명을 함께 지고 있었다. “어머니가 더 이상 안계시니,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스스로 간구하게 되었다. 영적으로 남

편을 도울 사람은 나 밖에 없었다. 그를 영적으로 돕는 일이 나 자신의 영적 성장이기도 했다.”라고 고백했다.

송미령이 장개석과 결혼하여 중국의 근대화에 미친 영향은 작다고 볼 수 없다. 오늘날의 정치적 관점에서는 중국의 대만에 대한 이해가 불편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은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IT 기술 분야에 있어서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근대화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그 이면에 장개석과 송미령의 근대화 역할이 있었다는 것은 얼마든지 추론이 가능하다.

기독교신앙은 대체로 그 시작에서는 미비해 보인다. 그러나 송미령의 경우 삶의 여정을 지나가면서 그녀의 신앙은 확고해져 갔다. 그녀는 장개석과의 결혼을 위해 어머니를 설득해서 불교신자이었던 그를 기독교인이 되게 하겠다고 다짐하였다. 이 서언에 대해 그녀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도 장개석을 곁에서 돕고 진정한 신앙이 되게 하려는 데 열심이였다. 남편과 더불어 조국의 부름도 외면하지 않고 자신이 나라를 위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녀는 어머니의 죽음 이후 이 사명 감당을 위해 스스로 기도하였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는 것을 배웠다. 기도와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녀는 ‘두려움 없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이 신앙이 그녀를 국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특사가 되게 하였다. 그녀는 루즈벨트 대통령의 증언대로 ‘보통사람과 다른 특사’였다.

권태경 교수의 이 연구가 갖는 의의는 무엇보다도 한중 양국 사이에서 서로 협력해 온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대하여 우월성을 주장하려하기 보다는 지리적으로 이웃하여 서로 이웃 국가로서의 동남아 공동체에 기여하는 역사적 사실들을 발굴하는 토대를 열어주었다는 점이다. 또 다른 하나는 기독교신앙이 어떻게 개인을 위대한 인물이 되고, 이웃을 위해 헌신하며, 나아가 국가를 위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증거로 제시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자료가 부족해 보인다. 기존의 연구물들에 대한 확보나 문헌들, 사료들을 찾아 보강한다면 더욱 훌륭한 연구물이 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송가수와 예계진의 결혼의 과정과 결혼을 통해 드러나는 기독교신앙의 성장과 민족의식의 고취 등에 대한 실증이 제시될 수 있었으면 한다. 이를 토대로 송미령의 신앙과 장개석의 결혼과 이를 통한 서로의 신앙성장에 대하여 조금만 더 자연스럽게 서술될 수 있으면 한다. 그렇게 될 때 “송미령과 기독교신앙”의 연구가 더욱 가치 있게 자리매김할 것이라 기대한다.

향후 권태경교수의 “송미령과 기독교신앙”의 연구를 필두로 한중 양국의 협력 사례들을 발굴 연구하여 양국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키는 학술 업적들이 더 많아 지기를 기대한다. 그만큼 한중 양국의 관계는 돈독해질 것이다. 권태경 교수의 노고를 치하한다.

## 임희재 <초설>의 전과 후, 그 시나리오적 의미

오영미(한국교통대학교 한국어문학전공 교수)

### 목차

1. 들어가며
2. 현실 조음 방식으로서의 비극성과 일탈된 사실성 -<초설>
3. 현실 조음 방식으로서 비극성과 사실성의 변주 - <초설> 이후
4. 나오며

#### 1. 들어가며

임희재가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작품은 각본으로 참여한 영화 <마부>와 드라마 <아씨>일 것이다. 희곡과 영화 시나리오, TV와 라디오 드라마 등 그가 섭렵한 매체는 다양했지만 우리는 그를 드라마 작가 반열에서 가장 빈번하게 목격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1955년 신춘문예의 희곡으로 창작활동을 시작했고, 이후 신진극작가로 전후의 세태와 인간을 묘파한 주목할 만한 작품을 남긴 희곡작가였다. 그가 영화 시나리오로 표현 매체를 이동하기 시작한 시기는 1957-58년 경이며, 라디오 드라마를 쓰기 시작한 시기는 1959년 무렵이다. 그래서 55년에서 56년까지 2년여를 희곡작가의 시대로 살았고, 57년 무렵부터 60년대 초반까지 주 활동 무대가 변화해 간 시기로 볼 수 있고, 이후 영화와 드라마 작가로 주된 작가 이력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sup>1)</sup>

희곡에 비해 숫적으로 압도적인 영상 대본물에 비해 전후 희곡작가로서의 그의 위상이 높은 것은 문학과 영상매체에 대한 세간의 차별적 인식에서 비롯된다. 전 시대의 문학작품을 자리 매김하는 각개의 연구물들이 그의 작품세계에서 희곡에 국한시킨 면이 많았고, 방송과 영화에 대한 연구 지평이 넓어지면서 그의 드라마나 영화 시나리오를 언급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본고는 그의 다양한 작품세계에서 특히 영화 시나리오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방송드라마나 영화 시나리오를 포함한 영상대본물이 확실한 숫자를 파악하기도 힘들 정도인데, 김윤정의 연구에서 정리한 시나리오만도 120편에 이르며, 드라마를 포함한 각본수만도 330여 편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다.<sup>2)</sup>

그러나 숫적으로 많다고 해서 연구의 대상으로 삼기가 어려운 것은 아니다. 문제는 대상 텍스트의 고정성과 그에 대한 신뢰성이다. 많은 대본들이 현장에서 변형되고 있었거나 기록으로 볼 수 있는 각종의 정보들이 현장 상황에서 유동적으로 선택되기 때문에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최종결과물로서의 영화는 필름을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고정적인 텍스트이지만 시나리오, 즉 문학적 입장에서의 접근은 이렇게 불확실성을 전제로 유사한 범위만을 추출하게 된다. 자료 보전에 대한 인식이 희박했던 우리나라의 영화 주변을 연구하는 과정에

1) '55년 희곡 <기류지>( 1955, 조선일보 )로 등단, '57년 시나리오 <초설> 혹은 <종전차>(집필 시기 불분명), '57년 라디오 드라마 <결혼조건> 으로 시작.

2) 김윤정, 「임희재론: <마부>가 놓인 자리」, 『개신어문연구』, 2011.12, 첨부 시나리오 목록 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 「임희재 문학관 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2012. 11, p. 12

서 늘 부딪히게 되는 부분들이다.

이런 전제 하에서도 임희재의 치열한 작업세계는 50년대에서 60년대로 넘어가는 시기, 즉 희곡에서 시나리오, 드라마로 매체를 이동하며 내놓은 작품들에서 강하게 드러난다. 본고에서 특히 주목하고자 하는 작품은 시나리오로서 가장 앞선 시기로 보여지는 <초설>(1958)이다. 이를 기점으로, 희곡에서 영화 시나리오로 매체를 이동해 가는 과정, 그 변화 그리고 현실을 조용해 가는 방식과 그것의 구현이라는 면에서 전환적인 면모를 고찰해 볼 수 있다. 본고의 고찰 시기 이후로도 그는 영화시나리오와 계속 인연을 맺었지만 방송 드라마 작가로 히트작들을 남기면서 창작 글쓰기 분야에서 그는 드라마 작가로 더 자주, 강하게 기억된다. 그래서 <초설>에서 <마부>에 이르는 초기 시나리오 세계는 그의 시나리오를 연구하기에 가장 유용한 시기이며, 이후로 시나리오 작가로서의 면모는 작가세계로 범주화할만한 무엇을 찾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부> 이후로 대중성, 멜로성으로 매몰되어갔다고 판단한 앞선 연구의 지적<sup>3)</sup>이 이런 면에서 매우 타당성을 얻게 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초설>을 중심으로 그 전과 후의 변화 양상 고찰이라는 목적으로, 전 시기의 희곡 세계와 이후의 <종전차>(1957)<sup>4)</sup> <결혼조건>(1959) <사랑의 역사>(1960), <산아제한>(1960) <지평선>(1961) 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추적하려고 한다.

임희재 작품세계의 시나리오적 접근은 현재까지 김윤정의 「임희재론: <마부> 가 놓인 자리」<sup>5)</sup>가 유일하다. 임희재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희곡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방송극 연구자들에 의해서 몇몇 드라마 연구가 이루어져 있다. 김윤정의 연구는 임희재의 시나리오에서 사실주의 극작술의 형성과 탈각이라는 관점을 적용해 <마부> <초설> <종전차> 등을 분석하고 있는데, <초설>은 작품이 남아있지 않다는 판단으로 주변 기사나 자료를 참고하면서 전개되는데 그치고 있다. 그러나 한국영상자료원에 심의 대본 자료가 존재하고, 본고는 이를 대상으로 할 것이다. 김윤정 연구자가 <마부>를 중심으로 그에 이르는 과정과 이후에 멜로의 세계로 흘러버린 기점을 잡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본고는 이미 <초설>과 이전의 희곡들, 그리고 이후로 <마부> 이전 시기까지 발표된 시나리오에서 이미 그의 특정한 이력과 변모과정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논의를 풀어가는 기본 입장이 된다. 또한 그의 작품들에서 현실을 조용하는 방식 혹은 시대가 삼투되는 양상은 전후 극작가들의 범주 안에서 유사성을 지니면서도 임희재가 대중성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 근거로 삼고자 한다.

<마부> 외에 임희재의 시나리오는 연구된 바가 없기 때문에 영상자료원에 소장돼 있는 논의 대상 시기의 시나리오들<sup>6)</sup>을 또한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 보다 전반적인 전개 구조를 갖고자 한다. 아직 그의 시나리오가 전면적으로 연구된 바가 없기도 하거니와, <초설>을 기점으로 한 이후 세계를 좀 더 폭넓게 점검하고 논지를 다지자는 의도에서이다. 이 시기의 그의 시나리오 목록을 보면 오리지널 시나리오도 있지만 다른 작가의 각색물들도 보이는데, 임희재 작가의

3) 김윤정, 앞의 논문

4) <초설>과 <종전차>의 시기는 각각 '58년과 '57년으로 돼 있지만, <초설>은 58년에 개봉된 영화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 시나리오 창작시기는 58년 이전으로 보여지며, <종전차>는 문학잡지 수록 시기가 58년이라 두 작품의 창작 선후를 판별하기는 어렵다. 단지 <종전차>는 옴니버스 시나리오의 한 편이라는 첨부 기록으로 보아 전체 구상 시나리오의 일부의 형태일 뿐이며, 완성된 형태의 시나리오로는 <초설>이 유일하다.

5) 김윤정, 앞의 논문

6) <결혼조건>(오리지널 시나리오, 1959), <사랑의 역사>(녹음대본, 1960), <산아제한>(심의대본, 1960) <지평선>(오리지널 시나리오, 1961)



순수한 시나리오 세계를 논의하기 위하여 원작이 본인인 경우의 작품들로만 한정 짓고자 한다.<sup>7)</sup>

<초설>은 오리지널 시나리오로서 김기영 감독에 의해 '58년 영화화된 임희재의 첫 시나리오로 추정된다. <종전차>가 1957년 12월 현대문학지에 발표되었으나 <초설>이 영화화된 기간을 재고해 보면 적어도 <종전차>와 유사하거나 이전 시기에 쓰여졌을 가능성이 높다. 김윤정도 이 시기 추정에 관해 <초설>을 <종전차> 보다 앞에 놓고 있는데, 그는 내용적 측면에서 비극적 결말과 그 변화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초설>과 <종전차> 시기까지 임희재는 희곡에 이어 오리지널 시나리오, 문예지 발표라는 매체에 머물러 있고, '59년 그의 첫 라디오 드라마로 알려진 <결혼조건>에 이르러서 본격적인 대중매체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주목하려고 한다. 물론 <결혼조건>이 영화로 등장한 시기가 '59년이라 라디오물이 그보다 앞서 '58년 이전의 가능성도 있어, 불과 1-2년 사이에 그는 급격한 변화의 과정을 겪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당대 본격문학이라 일컬어질 문학세계에서 출발한 작가들이 방송이나 영화로 자리이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변화하고 체득한 과정으로 임희재만의 독특한 무엇은 아니다. 단지 그러한 매체의 차이가 작품의 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과 상반되게도 사실성의 포착이라고 한 극작술들이 매체의 영향권 밖에서 지속적으로 흐르고 있었음에 주목하려고 한다.

## 2. 현실 조음방식으로서의 비극성과 일탈된 사실성 -<초설>

임희재는 1955년 희곡 <기류지>로 등단하여 다음해인 '56년까지 주로 희곡을 발표하였고<sup>8)</sup>, '57년에 들어서서 시나리오를 선보이기 시작한다. <황혼열차>(이광수 소설 각색)를 필두로 <초설>과 <종전차> 등을 연이어 발표하게 되는데, '59년에 들어서서는 라디오 드라마 <결혼조건>을 발표하면서 드라마 작가의 길을 동시에 걷기 시작한다.

시기적으로 밀접해 있기도 하지만 <초설>로 이어지는 시나리오의 양상은 희곡의 세계가 반복 변주되는 과정 속에 놓여있다. 희곡의 주무대였던 피난민촌과 그 안의 인간군상, 그리고 현실 조음 방식으로서의 비극성이 그것이다.

특히 시기상으로 <초설>의 바로 전 희곡인 <고래>의 '터전 찾기' 갈등은 <초설>에서 원주민과 피난민의 거주지 갈등으로 이어지는데, <고래> 속 주인공 고래의 땅을 향한 집념은 <초설> 속 해룡의 문화주택건설에 대한 욕망과 매우 근접해 있다. 또한 <꽃잎을 먹고 사는 기관차>의 인물 한창선의 기관사 직업도 <초설>의 해룡, 그리고 <종전차>의 상덕에서 반복된다. 희곡 <복날>의 '개 잡아 먹는 에피소드'는 <초설>에서도 반복되고, 전후 여성의 삶의 굴레였던 매춘의 문제도 희곡 <무허가 하숙집> <꽃잎을 먹고 사는 기관차> <초설>에서 유사한 설정 속에 놓여 있다. 그래서 임희재의 희곡이나 초기 시나리오는 서사의 향방은 차이를 지니더라도 매우 근접한 범주에서 반복 변주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반복된 설정들 속에 특히 전후의 피난민 촌을 배경으로 한 일정한 맥락이 그의 작품에 있어 '장소성'이라는 특징으로 드러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장소성은 그가 혈족 중심의 가정극 혹은 인정극으로부터 탈피하고자 했던 극작술과 연관돼 있다. 다음의 인용을 보자.

7) '61년까지만 보더라도 한운사 방송소설 <이 생명 다하도록> 외 11편 정도의 각색 시나리오가 보인다

8) <기류지> <복날> <무허가하숙집> <꽃잎을 먹고 사는 기관차> <고래> 등 5편의 희곡이 발표되었다.

우리 극작가라는 사치스러운 이름은 대본가로 변경함이 옳다는 것을 통감하고 있다. (중략) 이러한 대본들은 대개의 경우 가정극을 소재로 하고 있음을 본다. (중략) 혈족으로 구성되며 이들의 상반되는 의지의 대립은 결국에 가서는 혈족에 밑에서 굴복하고 마는 것이 통례처럼 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극은 결국 안이한 인정극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위험성이 있다. (중략) 그리하여 나는 의식적으로 가정극을 피하고 어디까지나 한 무대에 이질적인 인물들을 등장시킴으로써 하나의 주제 혹은 소재에 대한 보다 보편적이며 객관적이며 휴머니티한 교섭과 해석을 노리는 것이다.<sup>9)</sup>

이와 같이 희곡 작가가 연극대본가로 전락하는 현실을 개탄하며, 그가 나아가고 했던 방향은 이질적 인물의 집단화를 이루는 피난민 부락이었고, 이곳에서 전후의 가난과 절망을 안고 살아가는 인간군상을 그리고자 하는 것이었다. 물론 <꽃잎을 먹고 사는 기관차>의 고풍스런 기와집이나, <복날>의 시장 관사와 같은 고급주택가들이 배경이 되기도 하지만 이들 장소는 무허가 판자촌에 둘러싸여 있거나, 시장관사를 넘보는 철거민들 속에 놓여있다. 이들 작품 역시 확장된 피난민촌의 자장 속에 놓여있을 뿐이다.

이렇게 극적 동인으로 자리한 장소성들이 일군에서는 단순한 배경으로만 자리하고, 일군에서는 장소가 주제로 연결되어 의미화 되고 있다. 후자에 속하는 작품이 <고래>나 <초설>로 볼 수 있다. 피난민촌이라는 배경이 어떻게 의미화 되든 임희재의 희곡과 시나리오의 남녀 관계의 복잡한 얽힘들이 주된 플롯을 형성한다. 가난과 굶주림의 문제를 희화적으로 다룬 <복날>의 경우를 제외하면 모든 인간관계가 혼외, 매춘, 삼각, 정조 상실 등의 비정상성으로 얽혀 있어서 '전후의 세태를 사실적으로 접근' 한다는 것이 단지 가정극을 탈피한다는 것이었는지 의문스럽기까지 하다. 그래서였을까. 희곡의 극작술로 '어지간히 사실주의적인 표현에는 매력을 잃었고'<sup>10)</sup>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매체가 바뀐 <초설>도 그가 희곡에서 매력을 잃었다라고 표현한 속내가 무엇인지, 오차 없이 피난민과 남녀관계가 반복된다. <초설>은 그의 첫 오리지널 시나리오로 김기영 감독과의 콤비가 기대되었던 것으로 파악되는데, 자유당 정권과 전후의 비참한 사회상이 현실참여적 의도로 강하게 부각된 영화로 김기영 감독의 회고<sup>11)</sup>를 통해 이러한 상황이 잘 읽혀진다. 그러나 어두운 시대상황을 사실적으로 고발하고 싶었던 이러한 제작의 의도가 관객의 눈에는 폭력과 비참의 전경화로 읽혀진 듯한 관객평들이 이어진다. 궁극에는 '불량배를 주제로 한 동영화가 국제영화제에 출품됨으로써 한국의 위신이 추락된다'는 이유로 출품이 취소되는 사태를 맞게 된다. 시나리오로 매체 전환이 이루어진 후 처음 맞는 이러한 상황은 희곡에서부터 시작된 비극적 현실조용의 방식과 사회적 검열의 양날에 선 작가의 고뇌를 짐작케 한다. 아마도 연극과는 달리 대중 장르로서의 영화의 시선은 검열과 공익적 사고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큰 편일 것이다. 이것은 영화에 있어서 표현의 한계로 작용하게 된다.

그런데, <초설>의 이러한 측면들이 엄밀하게 책임 소재를 가늠해 들어가면 매우 모호한 부분에 봉착하게 된다. <초설>과 그 주변의 진술을 토대로 들여다보면, <초설>의 소재가 임희재의 오리지널인지, 김기영 감독의 소재 제공에 의한 대본 집필의 성격인 것인지 불분명하다. 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24년간의 대화><sup>12)</sup>에서 김기영 감독의 다음과 같은 진술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9) 임희재, 「연극공황과 희곡 연극은 유물화 되지 않을까」, 동아일보, 1958.4.17

10) 앞의 글, 동아일보

11) 유지형, 김기영 감독 인터뷰집 『24년간의 대화』, 도서출판 선, 2013, pp.63-68

12) 유지형, 앞의 책, pp. 67-68

이 정권에게 타격과 경종을 올리는 영화를 만들어 보여주자 라고 만든 영화가 바로 이 영화 <초설> 이야.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 삼각지의 빈민가를 뒤지던 중에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지. 첫눈이 내리던 어느 날 밤, 통행금지 사이렌이 울리고 나서 새벽 두서너 시 쯤 된 시각에 철쭉 같은 밤거리를 진동하며 뛰어나가는 일군의 아낙네들을 발견하게 되지. 한 손엔 호미와 세면대야를 든 여인네들이 머리에 검은 두건을 쓰고 두꺼운 군복으로 무장 한 채 용산역 철조망 사이로 숨어들어 철도감시원과 짜고 석탄을 도둑질하는 것이었어. 그 석탄은 팔려나가 서울시민을 따뜻하게 해주는 연료 역할을 했고 이들은 석탄을 판 돈으로 연명을 하는 그런 광경을 본 순간 바로 이런 걸 영화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지.

이러한 김기영 감독의 회고담은 <초설>의 중요 설정인 ‘석탄 훔쳐 팔기’가 감독의 경험에서 출발했다는 것인데, 이것을 인정한다면 <초설>의 시나리오 발상도 김기영 감독에서 나온 것임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초설>보다 앞선 시기의 시나리오 작업이자 김기영 감독 작품인 <황혼 열차>에서 임희재, 유호와의 공동 각색 작업인 것을 미루어보아, ‘57-’58년 시기 김기영 감독과의 영화 작업이 긴밀했음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충분히 아이디어의 공유 상황을 예측해 볼 수도 있겠다. 특히 위의 회고담은 시나리오 상에서 해결되지 않던 제목 ‘초설’의 의미가 감독의 목격담 시기였다는 것을 보면 시나리오의 출발이 김기영 감독이었을 것이라고 가정해 볼 수 있겠다.

<초설>과 관련한 또 다른 문제는 시나리오의 내용 즉 영화적 서사에 관한 것인데 다음 인용문을 주목해 보자.

영화의 내용은 철도기관사(박암)와 가난하지만 착한 애인 그리고 김지미의 사고뭉치 남동생(안성기)이 가난한 삼각지의 무허가 판잣집에서 생존에 몸부림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극중에 김지미는 부자사장(최삼)의 돈의 유혹에 방황합니다. 이 사실을 아는 안성기는 높은 색도 탑 위에 자주 올라가 말썽을 부립니다. 안성기가 종을 치자 온 동네 사람들이 색도 탑(삭도 탑) 앞에 모여들고 결국 박암이 올라가 안성기를 구합니다. 그러나 결국 안성기는 판잣집을 철거하기 위해 박암이 모는 트랙터에 깔려 죽고 맙니다. 영화의 라스트가 앞 뒤 매끄럽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왜 박암이 위험을 무릅쓰고 구한 안성기를 박암에 의해 죽인 건지요?

이는 <24년 간의 대화>에서 김기영 감독과 대담을 나누던 유지형의 영화 관람기인데, 영화 내용에 대해서 김기영 감독의 별다른 수정이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아 유지형의 관람 기억이 최종 필름에 담긴 것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여주인공 영애의 남동생인 영철을 전주(電柱)에서 해룡이 구하지만 영화 라스트에 그가 몰던 트랙터에 깔려죽었다는 설정이다. 우선 영상자료원 소장 심의대본에 의하면, 영철은 해룡의 장난으로 전봇대에서 추락해 죽은 것이고, 그가 몰던 부르도자에 의해 죽는 것은 영애였던 것이다. 또한 1958년 6월 1일 자 한국일보 영화평에도 영철이 추락사하는 장면이 연출된 것으로 나온다.<sup>13)</sup>

다음은 당시 잡지에 실렸던 <초설>의 광고<sup>14)</sup>인데 여기에도 그 내용이 실려 있다.

1953년 용산 교외 폐허엔 피난민이 판자집 부락을 이루고 있었다. 노해룡은 이 부락의 원주민으로 그는 이 근처의 소유지를 찾으려 하는 것이나 피난민의 반대로 부심하고 있었다. 이 때 원주민인 영애 남

13) 1958.6.1. 한국일보 금주의 영화/「피난민 생활을 박력있게 묘사」/김기영 감독 「초설」  
...인민군들의 염색 민군 복장, 주인공의 성격, 박암, 나애심의 동물적 관계, 최삼 시체, 장례 장면, \*해 추락사 장면, 개 죽이는 장면 등등...(자료 표기 그대로 따옴)

14) 영화 잡지 『국제영화』, 1958.3월호

매가 피난에서 돌아왔다. 영애는 다시 살아나갈 길을 모색하며 동생 영철은 구두담이가 되고 영애는 해룡의 조력을 받아 역구내에 들어가 코르스를 주어도 팔기로 했다. 영애는 해룡을 형님이라고 부르는 천수라는 소년을 알게 되어 누이동생을 맺는다. 천수는 영애를 위하여 온갖 친절을 다 베푼다. 00000 해룡과의 사이에 애정이 싹튼다. 영애는 해룡의 강한 성격이 무서웠으나 결국 그에게 모든 것을 바쳐버린다. 이것을 안 천수는 해룡을 적대시하게 된다. 한편 해룡은 부락의 지도적 존재인 윤노인의 딸 행자와 결혼을 조건으로 부락철거를 추진시킨다. 해룡과 행자 사이를 안 영애는 격분하여 철도자살을 기도했으나 실패하여 불구자가 된다. 천수는 해룡을 증오하여 그를 절도범으로 경찰에 밀고한다. 해룡은 1년 징역형을 받게 된다. 영애는 비참하였다. 영애에 00 에 가책을 받은 천수는 영애에게 갱생의 길을 열어준다. 영애는 해룡을 믿는 가운데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1년이 지나 해룡은 출옥했다. 그러나 해룡에게는 영애와 부락민이 결탁하여 자기를 밀고했다는 생각과 그 복수의 념박엔 없었다. 영애는 해룡이가 찾아올 것을 믿었으나 천수는 위험한 공상이라고 하며 생명이 위험하니 자기와 같이 도망가자고 한다. 그리고 사랑의 고백을 하고는 죽어버렸다. 그 다음날 안개 낀 부락으로 해룡은 부르도자를 몰고 왔다. 부락을 밀어버리겠다는 것이다. 부락은 수라장이 되었다. 해룡을 기다리는 영애를 부르도자는 사정없이 짓밟고 갔다. 그제야 해룡은 영애가 밀고자가 아니며 그를 믿고 기다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는 수라장이 된 벌판에 쓰러져 회오의 눈물을 한없이 흘리는 것이다.

이 내용은 한국영상자료원 소장 심의대본과 대동소이한데, 영철의 죽음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요약문이다. 앞서 유지형이 직접 관람한 영화관람기에서 언급한, 해룡이 철도기관사로 설정되었다거나 영철이 추락사 한 것 등을 알 수는 없다.

이렇게 대본과 필름 사이의 차이는 심의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짐작된다. <24년 간의 대화>에서 김기영 감독은 ‘검열에 걸려 결국 반쪽이 된 영화야. 박암이 판잣집을 철거하고 새 희망에 가득 차 문화주택단지를 건설한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는 결국 검열을 피하기 위한 한 구실에 지나지 않았어’라고 답한다. 여기서 어린 아이가 추락해 죽는 설정을 해룡이 구해낸다는 설정으로 바꾼 것이나 해룡의 문화주택 건설에 대한 재건의 의지를 높인다는 등의 설정이 왜 이루어졌는지를 충분히 짐작케 한다. 하류계층의 리얼한 삶의 부각이나 자극적인 사건으로 사회의 어두운 현실을 지나치게 드러냈다는 것이 당시 검열의 단계에서 즐겨 사용된 잣대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정과 타협에도 불구하고 결국 같은 이유로 이 영화는 해외영화제에 출품이 취소되는 상황을 맞이했으니 감독의 탄식 어린 회고도 공감이 되는 부분이다.

심의 단계에서 이렇게 변화의 과정을 겪기는 했지만 <초설>을 통하여 임희재가 보여주고자 한 전후의 풍경은 매우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현실이었다. 전술한 희곡세계의 암울함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영화 <초설>은 멜로드라마와 구분되어 내용상 문예영화로<sup>15)</sup> 지목되기도 했지만, 전반적인 평가는 부정적인 것이었다. ‘통일성이 없다’거나 ‘감명이 없다’, ‘과도하게 액션 솜씨를 재주부렸다’<sup>16)</sup> 등의 내용과 기술적인 면 모두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당대의 문예영화에 대한 인식은 문학작품의 각색이라는 소재성에서 뿐만 아니라 신파성으로 특징화된 멜로드라마적인 것이 배제된 예술성으로 보는 데서 기인했다. <초설>이 문예영화로 범주화되는 데에는 전후의 세태 묘사가 사실적이고 문제적이라는 것인데, 실상 <초설>은 남성의 폭력성과 이에 대비되는 미덕으로서의 여성의 희생과 순종이라는 멜로드라마의 전형적 구도를 확장시키고 있다. 남성의 폭력성은 ‘잔혹묘사를 하여 현실의 각박취(刻薄臭)를 내고’<sup>17)</sup>

15) 서울신문, 1958.7.9. 「풍년기근의 기현상/상반기의 국산 영화계」

16) 한국일보 1958.6.1. 「금주의 영화/피난민 생활을 박력있게 묘사/김기영 감독의 초설」

서울신문 1958.6.4. 「신영화 초설/서투른 녹음」

서울신문, 1959.7.17. 「(신영화) 비교적 우수작/『십대의 반항』 중」

와 같은 언급에서 보듯이 자극적인 장면들을 전경화시키는 기재로, 영애나 행자 등의 여성 캐릭터들은 해룡의 비도덕적인 행위에도 순종적인 믿음과 사랑을 보이는 기재로 드러나고 있다. 여기서 잔혹함에 대한 표현적 수위는 감독의 선택으로 돌리더라도, 기본적으로 해룡의 남성성과 두 여인(영애, 행자) 여성성은 전형적으로 과장돼 있다. 여기서 <초설>의 여러 대목을 참고해 볼 수 있다.

#### <해룡>의 대사

영애: 부인 되시는 분은 어떻게 되셨어요

해룡: 죽었어. 내가 죽었지.

영애: 아니 죽이다뇨

해룡: 6.25 때였어 서울을 탈환해서 들어가 보니까 여편네는 공산당 놈을 붙어 살구 있지 않겠어. 전 애인이란 자 하구. 나는 칼빙의 방아쇠를 끌어당겼어.

영애: 어마

해룡: 세상에 믿을 것이라곤 아무 것도 없어. 나는 이번 전쟁을 통해서 흔히 그걸 봐왔어. 세상은 절망 밖에 없다는 걸

해룡: 다시 봐야겠어. 어제까지는 먹고 살려고 애쓰는 어린애로서 기뻐히 봤지. 오늘 어린애 속에서 순결한 처녀를 찾아보았을 때 내가 찾든 보물을 얻은 것같애.

해룡: 세상에선 기대가 절망으로 바뀌거든. 영애같은 나이 어린 여자가 벌써 순결을 잃고 있었다니. 처음 남자는 누구야.... 몇 번이나 몸을 팔았어... 흥 천당문을 열었드니 지옥문이었어..

#### <영애>의 대사

영애: 그래두 뭔가 믿구 의지허구 살어야 되지 않겠어요.

해룡: 뭘

영애: 글썄요. 확실한 건 모르지만 가령 내일이라도 돈이 조금 생겨서 쌀가게 외상값이라도 갚을 수 있으리라는 그런 정도라도요

영애: 돈이 필요하면 병원에 가서 피를 팔았는 걸요.

영애: 입을 걸 안입구 집을 짓겠다고 벽돌을 사들인 맘을. 그이는 포병에 있을 때 포로집을 부실 때 마다 그보다 나은 집을 짓겠다고 맹세를 했대요

#### <행자>의 대사

행자: 아버지 들으세요. 당신 딸은 몸 팔아 피난살이를 한 헌 년이에요. 이런 자식이 제대로 시집가려면 보통일론 때우지 못할게 아니에요.

행자: 용서하세요. 제 몸은 춘호씨에게 맡겼어요. 당신이 빨리 나오도록 수속을 밟게 하느라고요. 세상은 제가 좋아하는 사람과는 살지 못하게 짓구짓게 돼 있나봐요. .. 저같은 것은 잊어버리세요. 그 대신 딴 여자를 무척 사랑해 주세요. 내가 원통해 하도록.

이들 대사를 통해 보면, 해룡은 전 부인과 내연남을 살해한 전력이 있고, 영애나 행자를 대하는 방식에서도 처녀성을 찾으면서 두 여성을 동시에 만나는 부도덕한 인물이자 범죄자이다.

17) 한국일보 1958.6.1. 「금주의 영화/피난민 생활을 박력있게 묘사/김기영 감독의 초설」

필름상에서 수정이 됐다고는 하지만 시나리오상으로 영철이라는 어린 아이의 죽음도 그의 단순한 장난끼로 비롯됐다는 설정은 해룡의 비인간성에 대한 극대화이다. 전쟁과 전후라는 시대적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그의 캐릭터는 비극적 주인공으로서의 정의 성취에 부적절한 인물로 보인다. 물론 영애의 죽음을 두고 회한의 눈물을 보이고, 주택 건설의 의지를 불태우는 것으로 그의 부도덕함이 상쇄되는 극적인 성취를 이루었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렇게 인정하기에 캐릭터의 불온함이 너무 강하고 그 결말은 또 미미하다.

해룡의 이러한 캐릭터 설정은 반대급부적으로 여성 인물의 멜로드라마적 전형성을 확장하면서 더욱 부각된다. 위의 대사에서 영애를 보면 피를 팔아 끼니를 때우는 삶을 살면서 소박한 정감과 선한 심성을 지니고 있고, 겁탈로 이루어진 해룡과의 관계에서도 배신감을 속으로 삭이고, 죽음으로 의리를 지키는 순종형의 여성상을 보여준다. 행자 역시 몸을 팔며 피난살이를 했고, 이러한 전력으로 해룡에게 떳떳하지 못하며 해룡의 구원을 위해 다른 남자에게 몸을 맡기는 희생적 여성형으로 묘사되고 있다. 특히 생명에의 위험을 알리는 데에도 해룡에 대한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영애의 마지막은 신파적으로까지 느껴진다.

유사한 맥락으로 공산당에 대한 비판의 대목을 들여다보자.

천수: 그야 나부터두 거기서 갖든 버릇이 남아있죠. 거기서는 남을 비판하구 감시하구 중상해야만 살 수가 있거든요. 나도 그런 버릇이 아직도 몸에 백여서 빠지지 않아요.

영애: 얼른 고치셔야죠. 이복서는 중상해야 산다면 여기서는 서로 믿어야 살거든요.

천수는 영애를 좋아하면서 해룡의 악행을 방해하는 인물로 1.4 후퇴 때 가족과 떨어져 월남한 피난민이다. 이곳 해룡의 부락에서 석탄을 훔쳐 해룡에게 팔아 연명하지만 더 큰 수익을 위해 잔머리를 굴리는 전형적인 생존형의 인물이다. 그런데 인용된 대사를 보면, 그가 피난민촌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는 원인이 위의 대사처럼 북한에서 익힌 습성 때문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해룡의 부락에 살면서 그로부터 쫓겨나지 않기 위하여 해룡을 해코지 했던 천수를 포함한 주변인들이 각종의 자기 검열적인 이유로 스스로 반성의 맥락에서 있다는 것이다. 해룡의 성격 형성을 위하여 영애는 천사표의 얼굴로, 천수는 반공사상으로 자기 검열에 이른다.

<초설>에서 보여지는 이러한 캐릭터 설정과 전형성에의 함몰은 시대를 있는 그대로 담아낸다는 사실주의의 자장에서 멀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희곡작가 임희재가 안이한 가정극의 테두리를 벗어나고자 선택했던 피난민촌을 통한 세태의 묘사가 현실의 과장, 확장으로 공식화되면서 '재현'이 아닌 '설정'의 난맥상으로 변화해 간 것으로 볼 수 있다. 작가의 세계로 보면 이것은 매우 아이러니하다. 양상은 다를지라도 이후의 멜로드라마적 대중성으로 변화해 가게 된 연원이 이와 같이 <초설>에서 형상화되는 양상을 고찰해 보았다.

전후의 현실을 포착하되 피난민과 하층민의 삶을 통하여 그리려고 했던 임희재는 현실 조음 방식에 있어 포착된 비극성 때문에 내용상 사실주의의 맥락에서 언급되어 왔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주목해야 할 과도한 설정의 양상들이 사실주의적 맥락에서 일탈되어 극성을 강화시키고 있으며, 이것이 영화로 제작되는 과정에서 검열을 염두에 둔 순화과정이 있었다고 하지만 매우 잉여적이라고 볼 수 있다.

### 3. 현실 조음 방식으로서 비극성과 사실성의 변주 -<초설> 이후

다음으로는 유사한 시기<sup>18)</sup>의 <종전차>를 논의해 보자. 이 시나리오는 1957년 12월 『현대문학』 지에 발표되었고, 영화화된 기록은 없다. 총 52 쪽으로 이루어져 매우 짧은 길이인데, 작품의 말미에 ‘세 편의 작품을 편집하여 하나로 만들려는 옴니버스 영화각본이고, 그래서 길이가 보통 영화의 3분의 1 정도’라고 부기하고 있어서 형식상의 이유를 알 수 있다.

내용상으로 <종전차>는 <초설>에 비해 무겁지 않은 방식을 택한다. 전후의 빈곤한 현실을 다루지만 직업을 가진 가장과 만삭의 아내, 세 명의 아이가 등장하여 셋방살이의 서글픔을 주된 서사로 다루고 있다. 기관사 가장의 가족이지만 아이가 많고 무주택자인 입장에서 도심에서 생활을 영위하기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시골의 처갓집에 아이 둘을 맡기고 살아도 뺏속에는 곧 탄생할 아이가 있고, 이를 속이면서 이사를 다니고, 이런 와중에 주인집과 갈등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 처가에서 키우던 큰 아들은 방을 비워달라는 주인의 강요 속에 죽게 되고, 마침 임산부 경애는 전차 안에서 해산을 하게 되어, 아이를 잃은 슬픔을 희망으로 상쇄하게 된다. 이들에게 아직 남아 있는 종전차는 이러한 마지막 희망을 은유적으로 담고 있으며, “내 일은 새 집을 얻어나갑시다. 이놈이 복을 달구 나왔단 말야 훗..”<sup>19)</sup>이라는 상덕의 마지막 대사는 아들을 잃은 슬픔을 딛고 일어나자는 의지의 표현이다.

<종전차>는 임희재의 전 작품들에서 보이던 전후의 불우한 군상들과 자극적인 사건들에서 나와 소시민 가정의 아픔을 소박하게 담아내고 있다. 일단 극적인 배경도 피난민 부락이나 토막촌이 아닌 도심의 소시민 가정으로 바뀌어 있고, 거주지 갈등이 동인이 되지만 치열한 다툼이 아닌 서글픈 현실 정도에서 정서적 마감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임희재의 작품에서 흔히 보이던 남녀 간의 치정이나 폭력성 등이 제거되어 무겁거나 자극적이지도 않다. <초설>과 유사한 창작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은 전쟁의 그늘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아이를 셋을 두고 뺏속에 또 아이를 잉태한 상황에서 방을 얻기 위하여 벌이는 눈속임은 비극이라기보다 희극적 정조에 가깝다. 가까스로 주인공 상덕 부부가 방을 얻고 나누는 회상은 ‘만날 뻔도 반찬에 메르치허구 무말랭이만 넣준다구 짜증을 했지만 당신은 지성이었어’<sup>20)</sup>와 같은 서정적 감성으로 채워져 있다. 깻돈으로 실갱이를 벌이는 주인 정례네의 경우도 살림을 다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지만 전쟁과 관련된 어떤 한탄이나 슬픔도 덧씌워져 있지 않다.

그러나 가난한 주인공 부부에게 닥친 비극이 가벼운 것만은 아니다. 죽어가는 큰 아이를 대책 없이 지켜봐야 하는 슬픔이 그 깊이로 보면 전후의 어떤 상처보다 깊숙하다. 그러나 그것이 상쇄되는 장치로 새 생명의 탄생을 가져오고 있고, 더욱이 전차 안에서 해산을 함으로써 아버지 상덕의 징계건을 무마하고 회사로부터 축의금을 받는 경사로 전환된다.

이 시나리오는 문학 전문지에 발표되어 영화화를 염두에 두지 않은 상황이고, 더욱이 옴니버스 스타일을 전제로 쓰여진 1편이라는 면에서 작가의 의도를 선불리 예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현대문학 지에 발표된 시나리오만으로 판단하면, 50년대 마지막 희곡인 <고래>의 향방이 두 지류로 시나리오 세계로 흘러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하나는 희곡에서 찾기 어려웠던 화합적 결말이 <종전차>로, 또 하나는 전후의 세태 묘사에서 드러나던 폭력과 치정, 갈등의 모티프로 구성된 <초설>로 흘러들어가 있다고 보여진다.

김윤정은 앞선 연구<sup>21)</sup>에서 임희재가 <초설>과 <종전차> 이후에 라디오드라마를 통해서 멜로

18) <초설>의 창작 시기를 알 수 없으나, 58년 5월 개봉 시기를 감안하면, 57년 12월 잡지에 게재된 <종전차>와 비슷한 시기가 아닐까 추정해 볼 수는 있다.

19) <종전차>, 『현대문학』, 1957.12월호, p.77

20) <종전차>, p.67

21) 김윤정, 앞의 글

드라마의 문법을 익히게 되었고, 향후 술한 멜로드라마를 양산하는 시발점이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초설>과 <종전차> 시기를 사실주의로 보면서 이후 <결혼조건>에 이르러서는 사실주의에서 탈각해 멜로드라마로 이행하게 되었다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종전차>는 일차적으로 완성된 시나리오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범주를 규정하기 힘들다는 것과 시기적으로도 선후관계를 잡기가 모호하다는 판단이 앞선다.

그는 자신이 비판적이었던 가정극적인 소재와 이를 탈피하기 위하여 혈연으로 맏인 관계들보다는 사회적 관계 속에 놓인 타인 집단을 즐겨 묘사했고, 그 시대가 전란 후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희곡들이 피난민촌을 배경으로 하고 있을 뿐이다. '56년 이후 그의 희곡 전성기는 막을 내린 듯, 이후로는 영화나 방송드라마 대본을 주로 집필하는데, 이에 대해 그는 매우 방황하는 내면을 보인다. 이미 영화나 라디오드라마에 입문한 시기인 '58년의 희곡 관련 글에서 스스로 '시력을 잃고 방황하는 느낌'이라고 하여 극문학작가로서의 자신과 배리되는 대본가로서의 향방에 괴로워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영화나 방송드라마로의 전향은 매우 현실적인 선택이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것은 문학에서 출발하여 영상매체로 옮겨간 당대의 작가들이 대부분 겪고 있었던 내면의 괴리였다. 그래서 드라마 대본을 쓰지만 문학적이거나 예술적이라는 평가의 목소리에 그들은 스스로 위안을 얻곤 하였던 것이다.

<초설>과 <종전차>로 시작된 임희재의 시나리오 세계는 '59년에 개봉된 <결혼조건>에 이르러 시대성이 완전히 제거되고 남녀 간의 애정을 둘러싼 애정비화로 탈바꿈한다. 이런 변화에는 <결혼조건>이 라디오 드라마로 이미 발표되었던 작품이고, 드라마의 인기에 힘입어 작가 본인이 각색을 담당한 영화 시나리오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50년대 후반은 라디오 연속극의 영화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시절이고, 라디오 드라마는 시나리오가 부족하던 영화계에 원작을 제공하는 주요 공급처가 됐다. 더욱이 국산영화 산업화 시스템의 성장과 국산 영화 장려책이 맞물리면서 영화제작 편수도 급격히 증가하던 시절이라 시나리오의 수급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었다. 대중문화계의 판도는 국산영화 시장뿐만 아니라 라디오 매체에서 드라마 장르가 폭발적인 시청자 계층을 유도하면서 영화와 라디오가 동시에 대중매체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이었다.<sup>22)</sup> 다음의 인용을 통하여 당시의 상황을 들여다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라디오 드라마 영화화 현상-필자 주) 시나리오의 고갈에서도 온 반작용이지만 방송극이 가진 마스콤의 위력과 팬층에 대한 침투력의 유리한 흥행조건에 기대하는 점에서 오는 이유가 가장 큰 것으로 짐작되는데 텔레비의 위협을 아직까지 전연 받지 않고 있는 라디오 드라마는 요즘 신문 연재 소설에 구미를 잃은 광범위한 팬들을 흡수해 가면서 더욱 서비스 에어리아를 확대해갈 것이 짐작되며 텔레비와 치열한 냉전을 겪고 있는 외국의 경우와는 달리 라디오드라마와 국산 스크린은 오히려 상호 부조적인 입장에서 공존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sup>23)</sup>

희곡작가로 출발했지만 이미 <초설>을 통하여 시나리오 작가로서도 인지도를 높였던 임희재의 경우 라디오 드라마에서도 히트 작품을 내고, 그것이 다시 영화화되는 것은 당시로서는 빈번한 매체전이의 양상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순적으로도 많지 않았던 대중 매체의 작가들이 문학과 영화, 방송극을 상호 주유(周遊)하는 일은 흔한 현상이었다.

당시 라디오 드라마의 주된 소재는 사극과 멜로드라마였다.<sup>24)</sup> '59년도에 라디오 연속극으로

22) 문선영, 「1950-60년대 라디오 연속극의 매체 전이 경향」, 『대중서사연구』, 대중서사학회, 2013.6.  
최미진, 「1950년대 후반 라디오연속극의 영화화 경향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49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0

23) 「잘 팔리는 방송극/거의가 영화화 경향」, 동아일보, 1959.9.6.



처음 선보였던 임희재의 <결혼조건>도 이렇게 방송사의 주력 범위 안에 있던 것이었지만 그가 라디오에서 멜로물만 집필한 것은 아니었다. 오락성 위주의 멜로드라마를 지양하고 순수 문예물을 시도했던 <KBS 舞臺>에서 같은 해 '59년에 <머나먼 어느 곳에서는>과 같은 작품도 나온 것을 보면<sup>24)</sup>, 작가적 취향과는 별개로 매체의 특성에 따라 오고가는 글쓰기 작업들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임희재는 라디오 드라마가 활성화되던 50년대 중후반기의 스크립라이터로서 초창기 멤버는 아니었지만, 문학에서 출발해 영화와 방송극에서 전성기를 보낸 비슷한 여정의 작가군으로 그 출발을 알리는 시점이 '59년이였다.

<결혼조건>은 '피난민 부락에서 응접실로 들어온' 전형적인 멜로드라마라고 볼 수 있다. 멜로드라마의 흔한 구도인 남녀 간의 사랑과 이별, 혈연에 얽힌 비밀, 죽음과 회한의 정조, 감상성 등에서 이 작품도 멀지 않은 곳에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유선과 노화백은 젊은 시절 연인 사이로 딸 수련을 두었지만 부모의 결혼 반대로 헤어져 각자 재혼 가정을 이루고 살았다. 신병으로 요양 중인 홍유선을 만나러 노화백이 찾아오면서 수련이 친모인 홍유선을 만나게 되고, 그녀의 또 다른 딸 효은도 노화백을 만나게 된다. 딸들은 서로의 혈연관계를 모르는 채 만나게 되고 이들은 서진우라는 남자와 얽히게 되지만 결국은 효은과 결혼하게 된다. 홍유선의 임종이 가까워져야 수련이 자신의 친모가 홍유선임을 알게 되고 통곡하지만 홍유선은 죽게 되고 오해 끝에 서진우와 효은도 행복한 가정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그들의 관계 그리고 비극성은 가족 내에서 파생되어 인생 전반을 지배하다 죽음에 이르러 비밀의 누설과 화해가 이루어지는 읍소형 멜로드라마이다. 주제의 식으로 들여다보면 혈연과 모성애가 가볍게 깔려 있지만 사건의 흐름이 워낙 강해서 의미 구조에서는 형성되는 것이 거의 없다. 시나리오에 구현된 사건이 멜로드라마적 평이함으로 흐르는 것에 맞추어 대사도 일상적 구어체 이상의 맛을 찾기는 어렵다. <초설>이나 <종전차>와는 사뭇 다른 세계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이 라디오 드라마에서 이어진 멜로의 전형적 구현 방식이라고 보여지지만 이후로 이어지는 '60년의 <사랑의 역사>에서도 이러한 구도는 유사하게 반복된다. 김윤정이 그의 연구에서 <결혼조건> 이후를 사실주의에서 탈각해 멜로드라마로 이행된 시기로 규정하는 근거가 바로 이러한 데서 비롯된다.

<사랑의 역사>는 <결혼조건>보다 한층 강화된 통속성을 볼 수 있다. 죽은 남편의 제자와의 사랑, 그를 위한 희생, 남성들의 수탈적 욕망, 죽음 등이 뒤얽혀 훨씬 자극적이면서 최루적인 속성이 부각되고 있다. <결혼조건>이 라디오 드라마 원작인 데서 오는 멜로드라마적 속성이 있다고 해도 이 작품은 오리지널 시나리오로서도 한층 강화된 통속성이 보인다. 이것은 매체의 차이라기보다 작가의 태도와 소비 환경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작가는 <결혼조건>을 통해 이미 멜로드라마와 대중의 호응도를 체감했을 것이고, 오로지 영화용 대본으로 쓰여진 <사랑의 역사>에서도 라디오 드라마에서 표현하기 수월치 않았을 통속적 장치들이 보다 과감하게 작동된 것을 보면 작가의 작품세계가가 이제 멜로드라마와 멀어질래야 멀어질 수가 없었던 통속성의 중심에 있었지 않았을까 본다.

이러한 심화된 통속성에 대하여 당대 평자의 의견은 비교적 호의적인 것이었다.

24) 윤금선, 「라디오드라마의 전개양상」, 어문연구, 2010.12, 38집, p.347

당시 라디오 드라마의 주청취자가 주부 및 여성 청취자였기 때문에, 방송극은 오락 위주의 멜로드라마 제작에 집중하고 있었다

25) 윤금선, 앞의 글, p.348

뚜렷한 주제를 풍기지 못해 공감하기에는 약간 거리가 있다.... 별로 새로운 것은 못되지만 멜로드라마로선 수준작은 된다.<sup>26)</sup>

이강천의 멜로물로서 가장 성공한 작품<sup>27)</sup>

뻔히 드러다 보이는 우연성이라든가, 얇은 허구 등, 통속적인 대중 구미에 맞춘 드라마지만, 씨나리오는 곧잘 정리되어 있다.<sup>28)</sup>

이와 같은 당대 평들을 정리해 보면, ‘통속성이 보이지만 멜로드라마로선 잘된’ 정도로 멜로 드라마 풍토 안에서 수준작으로 평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임희재의 창작세계 내에서 들여다보면 이것은 상당한 변화이자 이후 그의 작품이 흘러간 멜로의 큰 강줄기가 시작되는 지점인 것이다. 50년대 말에서 60년대 초반의 그의 시나리오 세계는 당대의 대중 매체 환경과 맞물려 소비계층의 취향 속으로 빨려들어간 변환의 시기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런데 중산계층의 혈연에 얽힌 비화를 그려낸 <결혼조건>보다 사랑을 위하여 희생한 여인의 인생담을 그린 <사랑의 역사>가 평자들의 기호에는 더 맞았던 것으로 보인다. <사랑의 역사>의 여주인공은 흡사 <초설>의 영애나 행자 캐릭터와 닮아 있는데, 전통적 여성 멜로물의 신파성이 다시 살아난 느낌이다. 이 두 작품은 멜로드라마의 영역에 같이 위치하지만 하나는 라디오 드라마 원작이고 하나는 오리지널 시나리오라는 차이로 서사의 향방도 다르지 않았을까 싶다. <초설>의 세계가 그러했듯이 극장용 영화를 다루는데 있어 라디오 드라마만큼 공익성의 영향이 덜하지 않았을까 추정한다.

<사랑의 역사>에 이어 같은 해에 임희재는 다시 한 번 라디오 드라마 원작의 시나리오 각색 작업을 선보인다. 원작 제목 <산아금지>를 <산아제한>이란 제목으로 본인이 각색해서 영화화하는데, 이 외에도 본인의 원작이 아닌 것을 각색한 편수도 1년 동안 8편이나 이루어지고 있다. 그의 각색 작업은 한운사나 이서구, 유호 등의 동시대 작가들의 방송극도 다수 포함되었고, 해외 소설류들도 몇 편 들어 있다. 대부분은 멜로드라마이지만 사극이나 스릴러물도 각색하고 있어, 이 시기 전방위적으로 영화계와 관련한 집필을 담당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다수의 시나리오와 라디오 작업들이 그의 향후 작품세계를 결정짓는 글쓰기 홍수시기를 이루는데, 시나리오만도 1년에 10편, 이외의 라디오 드라마 작업 등을 합치면 오늘날로 봐서는 가히 상상하기 힘든 작업량이라고 할 수 있다.<sup>29)</sup>

<산아금지>는 ‘57년도 방송극으로 전후의 절대적 가난 속에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인구증가를 희비극적 방식으로 각색한 시나리오가 <산아제한>이다. 그 내용을 잠시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다.

교사인 고철민은 자신의 월급으로 열세 명에 이르는 가족을 거느리며 힘겹게 살아나간다. 그는 슬하에 손자가 늘어만 가는 것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산아를 제한하기 위해 아들 부부가 따로 방을 쓸 것을 명령한다. 그러나 차츰 아들과 며느리들의 불만이 쌓여가면서 며느리들이 가출을 감행하고, 그 와중에

26) 조선일보, 「영화장평, 서글픈 미망인의 반생, 사랑의 역사」, 1960.6.4.

27) 경향신문, 「이주일의 스크린, 착실하고 정확한 텃취 사랑의 역사」, 1960.6.6.

28) 동아일보, 「신영화, 미망인의 애정 주변, 사랑의 역사」, 1960.6.8

29) 임희재가 시나리오를 처음 선보인 ‘57년부터 ’71년 작고하기까지 14년에 걸친 기간에 시나리오만 120여 편에 달한다. 여기에 방송드라마를 합치면 정력적인 글쓰기로 인생을 살다간 다작의 작가로 볼 수 있겠다.

도 자식들은 늘어만 간다. 고철민은 산아제한이 잘못이었음을 토로하며 죽어간다.

<산아제한>은 극적인 설정으로 보아 코믹한 홈드라마에 가깝지만 고철민이 자신의 목표를 포기하는 결말은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상을 반영한 사실주의 드라마에 가깝게 보인다. 한국영화에서 코미디가 본격적으로 제작된 시기는 '50년대 중반 이후부터인데, <산아금지>가 '57년의 방송극이었던 것을 보면 라디오와 영화가 각개 매체에서 코미디에 호응했던 것으로 보인다. 인구정책을 드라마나 시나리오에 끌어들이는 사례는 임희재가 처음으로 보여지며, 그의 초기 작품들에서 주된 정조였던 비극성을 벗어나 경쾌한 방식으로 소재에 접근했다는 면에서 새로운 면모를 볼 수 있다. 여러 형태의 내레이션 기법이나 마치 토론 장면과 같은 대화 전개 방식 등에서 사실적 서사 연결을 벗어나려한 의도도 보인다. <초설> 이후로 이미 현실과 조응하는 방식에 있어서 비극적 수용방식은 무디어지고 멜로성이 강한 양상으로 들어가거나 코미디와 같은 형식적 새로움으로 변주되고 있기도 한 것이다.

<산아제한>에 대한 당대의 평은, 연출의 부족이 거론되었지만 시나리오 대해서는 호평을 보였다.

통일이 없는 연출은 후반에 이르러 파탄, 가벼운 탓취의 홈드라마의 흐름을 벗어나 무리하게 비극적인 결말을 만들어 어색하게 주제를 제시한 것은 이 영화의 성과를 반감시켰다... 좀 더 세련된 솜씨로 다루었다면 우수작이 될 수도 있었을텐데 아까운 소재였다<sup>30)</sup>

5-60년대 사회적 현실에서 늘어만가는 인구를 제한해야 할 이유는 당연히 경제적인 것이었다. 절대적인 빈곤 상태에서 자식을 늘려서 가정 경제가 피폐해지면 그것은 국가적으로도 손실이 되니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이 작품에서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를 형상화하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과장된 설정에 있다. 교사직으로 월급을 받을 수 있었던 처지는 당대 사회에서 빈곤계층은 아닐지언대, 문제는 성장한 아들 셋이 모두 제 역할을 못하고 결혼하여 아이를 계속 낳아가는 상황에 있다. 혼전임신으로 비공식 결혼을 한 막내가 결국 쌍둥이를 낳는 설정은 이러한 산아제한의 극을 달리고 있다.

아들들이 극 후반에 이르면 조금씩 경제적 상황이 나아지는 와중에, 둘째 아들의 극본 공모 당선과 원각사에서 공연은 코미디 특유의 축제의 결말로 갈 것이라 기대하지만 영화는 아버지 고철민을 죽음으로 처리한다. 그는 죽어가며 산아제한을 했던 자신을 뉘우치고 방안 가득 손주를 채우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대가족을 거느리고 온갖 곤란에 시달리던 고철민이 이런 토로를 하는 것은 죽음을 앞둔 자의 여유로운 회한으로 보인다. 과연 산아제한은 잘 된 것인가? 아니면 그 반대인가? 그 어떤 결론도 내릴 수 없다.

이렇게 50년대 말에 시작되어 '60년에 이르기까지 그의 시나리오 경향을 보면, 멜로드라마가 가장 우세하지만 사극, 액션, 코미디 등 다양한 장르를 보인다는 것과 문학 작품 각색, 방송극 각색, 오리지널 시나리오 등 창작의 방법 역시 전방위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짐을 볼 수 있다. 이는 임희재만의 특색이라기보다 작가 층위가 두텁지 않았던 창작계 환경과 소수의 작가들이 매체를 넘나들면서 작품을 쓸 수밖에 없었던 환경의 영향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임희재는 희곡 창작에서 멀어진 50년대 후반부터 영화와 방송을 주무대로 활약하게 되는데, 그의 대표작인 <마부>가 등장한 '61년에도 역시 유사한 경향을 보이며 이제 본격적으로 드라마 작가로서의 인생을 펼쳐 나간다.

30) 「영화장평 초점이 흐려진 연출, 산아제한」, 조선일보, 1960.8.14.

'61년에 창작한 시나리오 <지평선><sup>31)</sup>과 <마부>는 독립군과 마부라는 특이한 범주의 인물을 선택하고 있다. 그간의 작품 경향과는 다르게 하얼빈을 무대로 독립군의 활약을 그리거나 마부의 소시민적인 일상을 잔잔하게 담아내면서 다양한 소재의 멜로드라마를 선보인다.

<지평선>은 하얼빈을 무대로 펼쳐지는 진오라는 청년의 독립운동과 사랑을 그려나간 영화이다. 1년여의 준비기간과 1억환에 달하는 비용, 정릉에 만주별판을 세트로 세웠다는 소개글<sup>32)</sup>을 통하여 보건대, 멜로적 서사보다는 전투씬에 주력하여 액션이 돋보이는 영화를 제작하려고 한 의도를 볼 수 있다. 실제로 시나리오를 들여다보면, 일본군과 대결하는 장면을 다수의 씬으로 배치하면서 활극성을 도모하고, 희생과 전투 끝에 생존하는 주인공과 사랑의 서사를 메인 플롯으로 활용하고 있다.

전반적인 인물구도는 일본과의 대결 구도 속에 조선인의 항일의식을 그려나간 반일 소재 영화의 전형적 서사를 따르고 있다. 폭력과 위협의 수단으로 여성을 무력화시키거나, 조선인 첩자, 일본인 형사의 수탈적 이미지들을 활용하고 독립군의 승리와 그에 비견되는 희생적 캐릭터 설정 등이 그러하다. 이 중에서 특히 선화와 같은 여성형 인물은 남성의 거대 담론에 희생되고, 의심 받고, 순종하는 <초설>의 영애를 닮은 면이 많다. 일본군 야마모토와의 총격신 끝에 인질로 잡혀있던 선화는 죽고, 진오는 그를 사모하던 애란이라는 여성과 함께 행복의 웃음을 짓는 결말을 보면 여성 캐릭터들이 아군과 적군의 중심 구도에서 밀려나 사랑과 희생이라는 프레임으로 멜로드라마적 전형 속에 놓여 있음을 볼 수 있다.

<마부>는 한 집안의 가장이자 할아버지인 마부 춘삼과 네 명의 자식들, 그리고 그와 애뜻한 감정에 놓인 수원댁과의 소박한 이야기를 끝어나간다. 자동차가 다니는 시대에 마부라는 직업이 경제적으로 윤택할 리 없고, 자식들은 각기 가정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마지막에 이들이 누리는 행복은 만아들의 고시 합격인데, 이들의 주된 갈등이었던 가난과 생활의 애환은 큰 난관 없이 해결된다. 춘삼과 수원댁의 애정관계도 수원댁의 인간적인 결심과 자식들의 응원으로 무리 없이 행복한 결말에 이른다. <결혼조건>이나 <사랑의 역사>에서 보이던 멜로드라마의 전형화된 구조가 <마부>에서는 소시민의 애환 정도에서 형성되며, <초설>에서 보이던 전후의 비극적 현실 조응 방식은 이미 먼 거리로 자리한다.

#### 4. 나오며

이상과 같이 <초설>을 중심으로 그 전후의 맥락에 놓인 희곡, 시나리오를 일괄하여 임희재의 시나리오 세계를 고찰하여 보았다.

'57년에 시작된 영화 시나리오와의 인연은 그가 타계하던 해까지 이어져 한국영화사 기록으로 가장 많은 작품수를 기록할 만큼 다작의 작가로 기억된다. 본고에서 다룬 50년대 말에서 60년대로 이어지던 우리의 영화계 전반이 르네상스로 가는 길목이기는 하지만 다양성 면에서는 매우 부족한 시기였다. 오리지널 시나리오 작가조차 태부족인 상황에서 임희재는 이미 희곡에서 인정받은 실력으로 영화 시나리오에 있어서도 주목할만한 시나리오를 내놓는다. 그러나 점차 방화의 위상도 높아지고 다양화되는 흐름에서 멜로드라마에 치중된 그의 시나리오들은 <마부> 이후 대중적인 방향으로 치우치면서 문제작을 양산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본고는 그의 초기 시나리오 세계가 희곡에서 대중화된 영상물로 추이되어 가는 중간 단계의 특성을 지니며, 이를 고찰하기 위하여 <초설>과 이후 '61년까지 발표된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31) 한국영상자료원 소장, 오리지널 시나리오

32) 씨네팬, 『신영화소개』 지평선, 1960. 12월호, p.140

'현실 조음 방식'이 극적 형상화로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가난과 피폐한 현실, 도덕성의 붕괴 등 전후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드러내었던 전후 희곡의 면모를 <초설>이 반복하고 있으며, 현실 조음 방식이 더 비극적으로, 자극적으로 작동되면서 후기의 멜로드라마를 형성하는 모티프가 된다고 보았다.

특히 <초설>과 <종전차> <결혼조건>으로 이어지면서 각개의 판이한 양상이 외면적으로는 사실성에서 멜로성으로 변화한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 조음 방식에 있어서는 <초설>과 이전의 희곡들에서 보이는 비극성과 일탈된 사실성이 변주되어 나가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한편 <산아제한>과 같은 코미디물에서는 비극성이 완화되는 대신 풍자와 비극을 결부하는 자세로 소시민의 삶과 조음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60년대의 <마부>의 세계로 이어지는 이러한 완화된 비극성은, 그러나 동 시기에 <지평선>과 같이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을 다룬 작품에서는 희생형 여성 캐릭터와 활극성을 결부시킨 진부한 세계를 반복하고 있었다. 여전히 <초설>의 일탈된 사실성이 이어져가는 모습인데, 이것은 그후로도 임희재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험한 대중성의 공식처럼 자리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의 결과로, 임희재의 시나리오인 <초설>을 필두로 60년대 초까지 이후의 시나리오 세계를 예견할 드라마투르기와 서사적 선택을 장착하고 있음을 볼 수 있고, 그것이 시나리오보다는 방송극에서 더 두각을 드러낸 그의 대중적 작품 세계의 연원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참고문헌>

##### 기본 자료

- <초설>, 한국영상자료원 소장 심의대본, 1958
- <종전차>, 『현대문학』, 1957.12
- <결혼조건>, 한국영상자료원 소장 오리지널 시나리오, 1959
- <사랑의 역사>, 한국영상자료원 소장, 녹음대본, 1960
- <산아제한>, 한국영상자료원 소장, 심의대본, 1960
- <지평선>, 한국영상자료원 소장, 오리지널 시나리오, 1961

##### 단행본

- 오영미, 『한국전후연극의 형성과 전개』, 태학사, 1998
- 오영숙, 『1950년대 한국영화와 문화담론』, 소명출판, 2007.5
- 유지형, 『김기영 감독 인터뷰집 24년간의 대화』, 도서출판 선 , 2013.4

##### 논문

- 김윤정, 「임희재론: <마부>가 놓인 자리」, 2009
- 문선영, 「1950-60년대 라디오 연속극의 매체 전이 경향」, 『대중서사연구』, 대중서사학회, 2013.6,
- 윤금선, 「1960-70년대 초기 라디오 드라마의 전개 양상」, 어문연구, 2010.12, 38집

최미진 , 「1950년대 후반 라디오연속극의 영화화 경향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49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0

#### 신문기사

임희재, 연극공황과 희곡 연극은 유물화 되지 않을까, 동아일보, 1958.4.17

신춘문에 당선소감, '앞이 두려울 뿐', 조선일보, 1955.1.9.

이주일의 스크린, 착실하고 정확한 텃취 사랑의 역사, 경향신문, 1960.6.6.

'신영화, 미망인의 애정 주변/ 사랑의 역사', 동아일보, 1960.6.8.

'영화장평 초점이 흐려진 연출, 산아제한', 조선일보, 1960.8.14.,

'영화장평, 서글픈 미망인의 반생, 사랑의 역사', 조선일보, 1960.6.4.

#### 인터넷 자료 및 잡지, 기타

[시나리오 상상극장] 산아제한 엄심호, 1960, by 듀나(영화평론가), 한국영상자료원 KMDB

『국제영화』, 1958.3 한국영상자료원 KMDB

『씨네팬』, 1960.12, 한국영상자료원 KMDB

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 「임희재 문학관 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2012. 11

## 「임희재 <초설>의 전과 후, 그 시나리오적 의미」에 대한 토론문

이주영(고려대)

오영미 선생님의 「임희재 <초설>의 전과 후, 그 시나리오적 의미」는 1958년에 발표한 시나리오 <초설>을 전후로 하여, 임희재가 희곡에서 시나리오 및 방송대본으로 이동해 가는 과정을 추적한 작업입니다. 아울러 이 변모 과정에서 작품의 변화 양상뿐 아니라, 드라마투르기 측면에서 현실의 조음 방식 또한 함께 제출하고 있습니다. 하여, 본 연구는 고정이 아닌 ‘연속’의 시각으로 한 작가의 작품론과 작가론을 동시에 성취한 작업으로서, 내용적 측면과 방법론적 측면에서 학술적 성취를 획득한 연구라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제출한 논의에 특별한 이견이 없기에, 본 발표문을 읽는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을 묻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1. 선생님께서는 임희재의 <초설>은 그의 기 희곡들과 연속성을 가지며, 전후의 풍경을 “매우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현실”로 그리고 있지만, 시나리오에 나타난 “과도한 설정의 양상들이 사실주의적 맥락에서 일탈되어 극성을 강화시키고 있으며, 이것이 영화로 제작되는 과정에서 검열을 염두에 둔 순화 과정이 있었다고 하지만 매우 잉여적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계십니다. 선생님께서 <초설> 분석을 통해 파악하신 작품에 드러난 잉여성에 대해 좀 더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어찌 보면 ‘김기영 감독의 개입’, ‘영화에 대한 작가의 장르적 인식’, ‘사회적(개인적) 통제인 (자기)검열’ 등에 둘러싸여 있는 작품이 <초설>인 듯하며, 그러하기에 위 세 상황들로부터 흘러나온 누수의 지점이 <초설>에 나타난 ‘과도한 설정의 양상’이라 할 수 있는 잉여는 <초설>에서 유일하게, 그리고 오롯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임희재의 입장 및 시각(물론 선생님께서 이에 대해 멜로드라마적 대중성에 대한 연원으로 언급하고 계시고, 그런 점에서 ‘영화라는 장르적 인식’과 연관되기는 하지만)을 풀어내는 중요한 열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 앞서의 질문과 연장되는 궁금한 점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초설>과 <종전차> <결혼조건>으로 이어지면서 각개의 판이한 양상이 외면적으로는 사실성에서 멜로성으로 변화한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 조음 방식에 있어서는 <초설>과 이전의 희곡들에서 보이는 비극성과 일탈된 사실성이 변주되어 나아가는 것으로 판단”, 그리고 이러한 현실 조음 방식은 1961년 <지평선> <마부>에 와서 결별된 양상을 보인다고 분석하고 계십니다. 즉, 임희재 작품에 나타난 현실 조음 방식은 1950년 중후반 희곡에서부터 <마부>까지 그라데이션되는 양상을 보이며, 그 종착지에 도드라지는 특징은 ‘멜로성’, ‘대중성’으로 파악됩니다. 작품적으로 이러한 양태를 보이는 것과 함께, 죄송하지만 제가 이해력이 부족하여 이 변화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대중 장르에 대한 인식, 해당 장르에서의 작가로서의 인정 투쟁 및 그에 따라 필연적 선택, 작가 개인적 상황(타 창작진과의 교류), 대중 장르 제작진의 요구 사항 등 이 변화 양상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해석점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근대 극예술 전공자로서 발표문 읽으며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 1945-1950년 공산체제 형성기 영동지역의 교육과 인민 만들기

-속초, 양양지역을 중심으로-

이 세 진 1)

〈목차〉

-차례-

1. 머리말
2. 초기 북한체제의 교육
3. 교육기회와 지역주민들의 환영
4. 속초, 양양지역의 학교 교육
5. 맺음말

## 1. 머리말

해방 이후 북한체제의 전 인민의 교육수준은 매우 낮았다. 북한체제가 국가로서 반석 위에 올라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능한 인재가 필요했다. 해방 후 북한체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에 직면하였다. 먼저 내적으로 봉건의 타파, 일제 잔재의 청산, 민주적 개혁, 사회경제구조의 낙후성과 외적으로 미, 소 균등으로부터의 자주권 회복, 남북한 민족통일 등의 문제를 동시에 고려되어야 했다. 다음은 북한사회에 마르크스-레닌주의 공산체제의 완성이었다. 북한체제의 교육정책은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북한의 교육에 영향을 미쳤던 것은 소련이었다. 북한교육은 짧은 기간에 기대 이상의 성과를 달성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소련의 인적, 물적 자원에 힘입은 바 크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북한 대중의 높은 교육열과 통일민족국가의 염원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대중들은 소련의 경험을 열심히 따라 배웠고 학교의 복구와 건설에 자신들의 부(富)와 노동력을 아끼지 않았다.

북한체제가 강조했던 교육은 인민들에게 김일성 권력의 정당성마저도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게끔 만들었다. 북한체제가 강조했던 교육의 이념은 분명히 마르크스-레닌주의였다. 해방과 함께 북한체제는 공산주의 국가를 완성하기 위해 소련식 공산주의 이념을 도입하였다. 이는 북한체제의 교육이념으로 작용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인민학교, 중학교, 고급중학교, 대학교 등의 공교육 시스템이 만들어졌다. 북한체제는 학제부터 대대적으로 개편하였다. 북한체제는 1945년 10월 <북조선 학교교육임시조치요강>을 발표하였다. 1947년 6월에는 1년제 취학전 교육과 4년제 즉 5년제 인민학교, 3년제 초급중학교, 3년제 고급중학교, 그리고 4년제 대학의 학제로 개편되었다. 이 학교제도는 근로자의 문맹해소와 인민민주주의 교육정책의 차원에서 기본학교체제와 성인교육체제로 이원화하였다.<sup>2)</sup>

1) 호서대학교 창의교양학부 조교수

2) 최영표, 「북한의 학교교육제도의 변천과 구조」, 『북한의 교육과 과학기술』, 경인문화사, 2006, p.225.



이러한 원칙 아래 강원도 속초, 양양지역에도 인민학교, 중학교, 고급중학교가 문을 열었다. 이 지역에는 대학은 없었다. 북한 당국의 교육정책은 ‘배워야 나라가 발전한다’는 구호 아래 대대적으로 교육을 장려하였다. 인민학교의 경우 의무교육이 되면서 배움에 목말라 있던 인민들은 자식들을 학교에 보내게 되었다. 북한체제의 혁명적인 토지개혁으로 인민들의 생활이 나아지면서 학교 진학이 조금은 수월해졌다. 그렇지만 당시 북한체제가 처한 현실 상황 속에서 학교건축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노동력과 기부로 학교 건축하였다. 해방 후 불과 1년 만에 인민학교는 1,000개 이상 증가하였다. 해방 직전 1944년 북한지역의 초등학교수는 1,372교이고, 학생수는 약 87만 8천 명이였다. 1946년 인민학교수는 2,482교, 학생수는 약 118만여 명이였다. 이러한 현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했다. 당시 소련의 대규모 경제원조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단기간에 가능했던 것은 주민들의 기부와 노동력 제공, 1946년 가을부터 시작된 애국미헌납운동, 1946년 9월부터 시작된 인민교육세 때문이었다. 이 중에서도 강원도 전체와 속초, 양양지역에서 나타난 크게 보이는 현상 애국미헌납과 자발적인 노동력 제공이었다. 학교 교육으로 북한체제는 주민들에게 상당한 지지를 받았다. 북한체제 역시 젊은 인재를 길러 체제의 근간을 형성하고 확고한 지지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북한체제가 시행했던 여러 개혁 가운데 토지개혁의 경우 지지자와 반대자가 있었다. 그러나 교육개혁은 반대자가 없었다. 교육은 북한이 공산주의체제를 형성하는 가장 큰 역할을 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 글은 북한체제의 공산주의 형성과정에서 토지개혁과 더불어 주민들의 커다란 지지를 받았던 교육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의 목적이자 이유는 지역주민들이 받았던 북한의 교육을 분석하고 북한체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이 글의 의의는 북한체제가 정초되는 과정에서 공산주의 교육정책이 학교과 학생들은 물론 청년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살핀다는 점이다. 북한체제의 교육은 학생들을 위한 공교육, 당 간부들을 위한 교양교육, 지역 사회의 문맹자들을 위한 문맹퇴치운동 등이 있었다. 이번 글에서는 당 간부들을 위한 교양교육은 따로 주제로 다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북한체제 형성기 속초, 양양지역의 공교육을 중심으로 지역 문맹퇴치운동을 살펴보기로 한다.

## 2. 초기 북한체제의 교육

우리나라에 근대교육이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개항 이후인 18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갑오경장 이후 근대교육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교육 전담 부서인 학무아문이 설치되었고, 전국 각지에 근대식 학교를 세우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가운데 을사조약 체결과 한일강제병합 이후, 일제에 의한 교육기관인 학교가 등장하였다. 학교가 근대 사회에서 근대적 주체 형성의 핵심적 장으로 기능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1910년까지만 해도 조선 사회에서의 학교는 기피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1920년대로 들어서면서 학교에 대한 태도에 변화가 찾아온다. 보통학교 입학에 대한 과도한 교육열이 일어난 태도에 변화가 찾아온다. 보통학교 입학에 대한 과도한 교육열이 일어난 것이다.<sup>3)</sup> 식민지 조선인들은 이미 교육열이 높아 있었지만 일제의 교육정책은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었다.

3) 김소륜, 「일제 강점기 초등교육과 국민 만들기-제3,4차 조선교육령기에 발행된 <보통학교조선어독본>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회, 2011, 178쪽.

일제의 교육은 제한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식민지 교육 즉 실업용 교육에 그 목표를 두고 있었다. 이는 식민지 조선인들의 교육열을 채워주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일제강점기 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었기 때문에 경제적 여력이 되지 못하는 경우 교육을 받을 기회를 가질 수 없었다.

일제강점기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에도 교육은 기득권층의 특권 가운데 하나였다. 일반인들은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다. 기득권이 없는 일반인들이 교육의 기회를 얻어 성공한 예는 매우 드물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의 하위 계급이 상위 계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경우는 없었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일제강점기 교육정책은 식민지 지배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식민지 교육정책이었다. 1911년대 조선총독부에 의해 칙령 제229호로 조선교육령이 공포되었다. 이후 일제 통치 45년 동안 몇 차례의 수시 부분 개정이 이루어졌고, 1922년, 1938년과 1941년, 1943년 4차례 걸쳐 거의 새로운 제정 수준의 전면적 개정이 이루어졌다.<sup>4)</sup>

식민지 교육행정에 본격화하던 시기 조선총독부는 청년과 관련하여 지방의 개량과 농촌진흥의 중견 인물과 지도자를 양성하는 토대로 청년단체를 활용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식민지 수탈체제로 피해를 입은 조선 사회에 대공황의 여파가 밀어닥치면서 청년에 대한 사회주의의 영향력은 날로 증대되었다. 조선총독부는 청년층을 사회주의로부터 격리하고, 자신들이 추구하는 농촌진흥운동 등을 견인하는 동력으로 조선청년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에 1931년부터 대일일본청년단 간부를 초빙하여 청년단의 조직 방식을 조선에 이식하고, 그들의 경험을 공유하는 강습회를 여러 차례 개최하였다. 청소년단체는 청년훈련소, 도서관 등과 더불어 일제 말기 조선총독부가 중시한 사회교육 조직이었다. 일본 정부가 1930년대 중반, 해군 군축에 관한 국제사회의 약속을 깨고 군비확장에 힘을 쏟자 조선총독부는 청년훈련소의 확대와 더불어 청년을 통제 활용하는 방안으로 청년단에 힘을 쏟기 시작했다. 소년단에 대해 조선총독부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청년단 및 부인 단체와 그 취지가 다르며, 학교 교육의 연장이라는 평가하였다. 하지만 1940년대에 들어와서도 조선의 소년단에 대한 지도방책은 조선총독부 학무국 내에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상황이었다.<sup>5)</sup> 일제강점기의 청년과 소년에 대한 교육은 식민지 정책인 농촌진흥운동 군대양성을 위한 조직 정도였지 교육 본연의 모습은 아니었다.

45년간 식민지 지배가 끝났을 때 조선의 교육 문화 수준은 매우 낙후되어 있었다. 1944년 5월 조선총독부 총인구조사 자료에 의하면 조선인 전체 인구의 86%가 어떤 정규교육도 받지 못한 상태였다. 취학자의 경우는 대부분의 초등학교 졸업 수준이며, 2년제 간이학교만 마친 사람도 많았다. 중등학교 교육 이상을 받은 조선인은 전인구의 1% 미만으로 아주 적었다. 여성교육의 경우 그 정도가 더 심각하여 전체 여성인구의 95%가 전혀 학교 교육의 경험이 없었다. 식민지배 말기에 이루어진 학력별 인구조사자료는 일제의 식민지 교육정책 결과로 나타난 일반 민중의 교육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조선의 학력별 인구구성(1944년 5월 현재)><sup>6)</sup>

4) 강명숙, 「일제시대 제2차 조선교육령 개정 과정 연구」, 『교육사상연구』, 한국교육사상연구회, 2009, 27쪽.

5) 최현우,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교학관제와 식민지 교육행정」, 『국학연구』, 한국국학진흥원, 2022, 509-510쪽.

6) 이향규, 「북한사회주의 교육의 형성: 교육기회」, 『북한의 교육과 과학기술』, 경인문화사, 2006, 7-8쪽.

학교별	남	여	계(%)
대학졸	7,272	102	7,374(0.03)
전문졸	18,555	3,509	22,064(0.1)
중등졸	162,111	37,531	199,642(0.8)
초등졸*	40,702	9,240	49,942(0.2)
초등졸**	1,281,490	355,552	1,637,043(7.2)
초등중퇴	190,250	64,555	254,805(1.1)
간이학교	864,308	115,814	980,122(4.3)
불취학자	8,430,940	11,211,835	19,642,755(86.2)
계	10,995,628	11,798,138	22,793,766(99.9)

자료: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조선인구조사보고 기이(其二), 1944년.

\*초등학교 고등과 졸업

\*\*초등학교 심상과(尋常科) 졸업

일제강점기 교육수준은 극히 낮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일제강점기에도 조선인들 사이에서는 과도한 교육열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일제는 이러한 식민지 조선인들의 교육적 열망을 채워줄 교육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지 못했다.

일제가 식민지 조선인들에게 채워주지 못한 교육에 대한 열의는 해방 후 남한과 북한 체제가 감당하게 되었다. 남한에서는 해방 직후 남한의 교육은 미군정에 의한 교육정책과 한국 내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새교육운동이 있었다.

먼저 미군정의 교육정책은 공식적으로는 미국식 민주주의를 강조하였지만 교육의 정치적 경향이 강했다. 실제로 미군정의 대한교육정책은 한국의 공산화를 방지하고 미국식 민주주의를 건설한다는 두 가지 기본 방향 위에 설정되었다. 1944년 3월 31일 미 국무부는 전후 점령지역에서의 교육, 문화적 재건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 청사진에는 필수적인 교육 설비를 구매하는 것에 대한 원조, 선발된 학생들을 미국의 학교에서 교육시키는 것에 대한 지원, 도서관의 구축, 독일, 이태리, 일본에 의해 약탈된 여러 형태의 자료들을 되찾는 것에 대한 원조 등에 있었는데 이를 위해 국무부는 국제정보문화국(OIC, Office of Interntation and Cultural Affairs)을 재조직했다. 그리고 점령지역의 정보와 문화적 프로그램 계획과 조정을 책임지는 각 지역 부서를 설치토록 했으며 특히 한국과 일본에 강도 높은 정책수행을 추진하고자 했다. 미국은 종전 후 독일과 일본 등 패전국과 그 식민지 주민을 재교육한다는 명분 아래 점령지역에 자국 문화를 깊게 부식함으로써 점령지역 주민이 미국식 정치체제를 수립하며 미국의 대외정책을 추종하고 미국식 문화를 수용하도록 하였다.

미군정의 교육방침에서 가장 염두에 두었던 것은 일제 잔재의 청산과 사회통제, 질서유지였다는 점이다. 교육을 통해서 점령의 일시성과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각종의 원조사업을 실행함으로써 점령국의 선의를 드러내고 각종 정책의 수립과 시행 과정에 한국인 여론지도자들을 참여케 함으로써 한국인들의 외국 지배에 대한 저항을 사전에 봉쇄하는 것이 미군정이 추구했던 교육정책의 이념적 지향점이 된 것이다.<sup>7)</sup>

둘째, 새교육운동은 식민지기의 전체주의적 교육을 청산하기 위한 의도에서 시작되었고 실질적으로도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 새교육운동은 재정적 지원이나 교육자료와 관련된 지원보다는 학교가 우수한 교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문교부가 지원하는 것이었다. 새교육운동에서 추구한 것은 교육이념, 교육과정의 구성, 수업운영 방식 등에 커다란 변화를 야기하였다. 이러한 개혁은 식민지 교육방식을 청산하고자 노력한 운동이었기 때문에 학교현장에서 아동의 권리와 흥미를 존중하였다. 이러한 교육개혁 운동은 당시 남한교육수요의 분위기와 맞

7) 이혜숙, 『미군정기 지배구조와 한국사회』, 선인, 2008, 408쪽.

아떨어지면서 성공할 수 있었다.<sup>8)</sup>

한편, 북한에서는 1945년 소련군<sup>9)</sup> 군사회의는 군의 당정사업을 지도하는 기관으로서 각 단위 민간행정지도의 최고책임기구였다. 소련군의 정치부와 군사회의 구성원들은 북한인민위원회와 정당 및 사회단체의 활동분야 전반을 통제하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였다.

소련군사령부는 9월 20일의 스탈인 지시 이후 지방인민위원회의 유기적 연계 확보와 공산당의 내부 통일 및 민족협동전선의 구축에 노력하였다. 1945년 11월말 이전에 이미 북한전역도, 시, 군, 면 단위까지 인민위원회 조직이 대체로 완료되었다. 지방인민위원회는 내부에 총무부, 산업부, 농림부, 교육부, 보안부, 교통부 등의 부서를 설치하고 입법과 행정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리하여 북한에서 지방인민위원회 사업은 본궤도에 올랐지만 각도 인민위원회의 주민에 대한 통제력은 완전하지 못했다.

소련군은 각 지방인민위원회 간의 연계를 높이기 위한 대책을 취하는 한편 이에 대응하여 소련군의 지방통치체계도 정비했다. 연해주관구 군사회의는 북한지역 6개의 도 단위, 85개의 군 단위 그리고 7개의 시 단위에 소련군 진주와 함께 군경무사령부를 즉시 설치하였다. 군경무사령부의 기본업무는 일본군의 무장해제와 치안유지 등에 국한되었다. 지방의 정치, 행정은 소련군 정치부에서 관장하였고 그들은 한국인으로 조직된 인민위원회 등을 통해 소련의 정책을 관철시켰다. 따라서 군경무사령부는 지방의 정치행정조직에 간섭하지 않고 그들의 활동을 보장하는 형식을 취하였지만, 사실상 소련정책을 반대하는 사람을 치안사범이라는 이유를 들어 직접 탄압하였다.<sup>10)</sup> 정리해보면 소련군사령부-소련군 정치부-지방 정치와 행정-북한주민의 지방인민위원회-교육업무 등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사회주의 체제에서 국가는 강하면서 약하다. 이는 사회주의체제가 이해관계보다는 혁명에 대한 헌신성에 의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헌신성이 장기적으로 지속하려면 인간 자체가 혁명적 인간형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문화이다. 사회주의를 지양하는 북한은 초기부터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초기 인민위원회 예산의 20%가 교육, 선전, 문화에 배정되었다. 공산체제 초기에 왜 그토록 문화를 강조하였는가? 김일성은 1946년 북조선 각도 인민위원회, 정당, 사회단체 선전원, 문화인, 예술인대회에서 우리가 반동 세력

8) 강일국, 「해방 후 초등학교 현장의 교육과정 개혁-새교육운동 주도학교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연구』, 교육과정연구회, 2002.

9) 소련은 1945년 8월 9일 일본에 대한 전쟁을 개시했다. 당시 일본 관동군은 31개 보병사단, 8개 혼성여단, 1개 전차여단, 2개 항공군으로 편성되어 있었다. 바실레프스키 원수를 총사령관으로 하는 극동의 소련군과 태평양함대 군함들은 연해주, 하바로프스크 및 자바이칼의 3개 전선으로 진격을 개시하여 만주, 조선, 천도열도, 남화태도에 있는 일본군을 공격하였다. 당시 연합동맹이었던 미국과 소련군 사이에는 코리아에서의 전투분담 범위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 1945년 7월 24일 개최된 미소군사회담에서는 미소양군의 극동에서의 작전범위를 토의한 바는 있었다. 소련의 대일전에는 소련군에 배속된 조선인 유격대원들도 참가하였다. 오백룡부대는 1940년경 소련으로 이동했던 동북항일연군 소속으로 8월 9일 옹기에 상륙하였다. 또 하나는 소련극동전선군 88독립보병여단 제1대대였다. 이들은 동북항일연군 1로군의 조선인들이 기본 대오를 이루었다. 김일성이 대대장, 안길이 정치담당부대장이었으며, 최용진, 최현, 김광협, 강건 등의 지휘 아래 있던 대원들도 포함되었다. 허형식과 김책은 88독립보병여단의 3대대장과 정치담당 부대대장이었다. (참고, 김광운, 『북한 정치사연구 I - 건당, 건국, 건군의 역사』, 선인, 2003, 50-52쪽)

10) 김광운, 같은 책, 66-71쪽.

을 분쇄하고 새 민주조선을 건설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것은 동무들이 문화전선에서 잘 싸우는가 못 싸우는가에 달려있다고 강조하였다. 전인민이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민주조선 건설에 나서도록 하기 위해서는 민족문화, 만주적 문화를 건설해야 했다.<sup>11)</sup>

해방 직후 북한체제의 교육정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46년 2월 8일 임시인민위원회는 민주개혁에서 인민교육발전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당면과업의 제8항과 9항으로 교육제도의 민주주의적 개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교과성편찬집단이 조직되어 모든 교과서를 한글로 만들었으며, 수학 등은 외국의 것을 번역하였지만 국어, 역사, 지리 등은 전반적으로 한국 현실에 맞게 새로 편찬하여 수백만 부를 배포하였다.<sup>12)</sup>

뿐만 아니라 북한정권은 앞으로 공산체제를 이끌어갈 엘리트를 양성하고자 주의를 기울였다. 1946년 2월 군사 정치 간부를 양성할 평양학원이 세워졌고, 6월에 중앙당학교가 문을 열었다. 1947년 10월에는 항일운동 희생자들의 유자녀들을 모아 가르치는 평양혁명자유가족학원이 개원했다.

엘리트 양성의 가장 중요한 산실은 종합대학이었다. 해방 직후 한반도에서 대학은 서울의 경성제국대학이 유일했고, 나머지는 전문학교이거나 각종학교 형태일 뿐이었다. 다른 한편 북한정권은 교육을 통한 민족간부 양성 정책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정규교육과정이 아닌 간부양성만을 위한 특수교육기관들이 각 기능별, 지역별로 설립되었다.

북한이 추구한 엘리트는 구시대의 지식인을 재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성분의 인민들의 인재양성을 기대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책으로 표면화 된 것이 최용달과 허가이 사이의 갈등이었다. 북조선노동당 제2차 대회에서 최용달은 사법기관의 민주화가 아니라 일제 강점기적 사법기관을 만들고 있었다는 허가이의 비판을 받았다. 허가이는 법률학원이 일제 강점기의 법률을 배운 학생을 재교육하는 기관이었다고 비판하고, 당은 이 경향을 없애기 위해 최동무와 여러 번 투쟁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가기구 전반을 어떻게 운영해나갈 정치 엘리트층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를 놓고 북한 정권 내부의 갈등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사법국장 최용달은 일제하에 법학을 전공한 학생들의 재교육에 주안점을 둔 반면 허가이 등 조선노동당 고위간부진은 재교육보다 일제하의 교육을 받지 않았으며 노동자, 농민 성분을 지닌 인물들을 새로운 사법기관으로 양성하는 데 비중을 두었다. 결국 1948년 초대 내각을 구성할 때 사법상으로 유임될 예정이었던 최용달은 해임되었고, 이승엽이 초대 사법상이 되었다.<sup>13)</sup>

초기 북한체제는 교육체제를 정비하여 엘리트로 활용할 민족간부와 대학의 엘리트층을 양성하였다. 또한 북한체제는 일제의 교육을 받은 지식은 재교육하는 수준이 아니라 노동자, 농민 성분을 가진 새로운 인재로 국가를 운영해 나아가려 했다.

### 3. 교육기회와 지역주민들의 환영

1945년 8월 15일 일본제국주의가 무너지자 억압과 독단 가운데에서 노예교육에만 봉사해왔던 교육계는 심기일전하여 새로운 민주주의 교육의 봉화로 타올랐다. 해방 후 10월까지 학교는 휴교에 들어갔다. 그동안 일본인 교장과 교직원 및 학생 혹은 패잔병들은 학생들의 비품을 훔쳐서 밀매하거나 중요한 기록과 서류를 소각하고 기물과 설비를 파괴하는 등 온갖 만행

11) 김성보, 『북한의 역사-건국과 인민민주주의의 경험 1945-1960』 1, 역사비평사, 2019, 113-4쪽.

12) 김광운, 위의 책, 319쪽.

13) 김성보, 위의 책, 124-5쪽.

을 자행하였다. 교육기관마저도 한동안 아수라장이 된 느낌이었다. 그나마 해방 이후 혼돈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조선의 각계 기관 가운데 가장 먼저 정돈되고 운행된 것은 교육기관이었다.<sup>14)</sup>

북한체제는 해방 이후 교육에 대해서 좀 더 발 빠른 자세를 취했다. 북한체제는 민주개혁과 더불어 인민들의 배움에 대한 열망을 해결해 주었다. 북한체제의 노력이 지방사회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나타난 것이 교육이었다. 지방사회는 전근대의 전통적 규범과 질서 속에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전통적인 지방사회는 일제의 근대적인 규범과 질서에 노출되었다. 그동안 지방사회에서 가난으로 제대로 배우지 못한 주민들은 일제의 근대적 지식과 시스템과 이러한 약간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 가장 큰 열망은 배움이었다. 해방 직후 북한체제는 인민들의 열망을 직접 해결해 준 것이다. 1946년 3월 8일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45년 조선민족 해방은 조선녀성의 해방을 가져왔다. 조선녀성은 봉건적 구속과 일본 제국주의 압박의 이중삼중의 압박의 생활을 하여 온 것이다. 이번 소련 붉은 군대가 조선민족을 해방해 준 후 조선민족이 독립을 어드면서 조선녀성도 해방을 얻게 되었다. 지식 녀성에게는 오늘 건국의 중한 책임이 무거웁게 두 어깨에 노여있다. 당신들은 조선민주 건국이 있어 선봉이 되어야 한다. 조선의 절대 다수의 로동무산계급의 녀성과 무식한 부녀들은 당신들이 와서 가르치고 영도하기를 고대하고 있다. 절대다수의 조선녀성들을 한데 뭉치고 교육하고 건국사업에 적극 참가하게 하는데 당신들의 힘이 크다. 이 임무를 철저히 깨닫고 농촌으로! 공장으로! 깊이 군중 가운데로 드러가라!”<sup>15)</sup>

북한체제는 이와 같은 에너지를 인민교육을 위한 시스템 속에 구축하기 시작했다. 먼저 북한 교육체계의 준비를 살피기 전에 1942년 북한지역의 학교와 학생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1942년 북한지역에는 1,339개의 소학교에서 63만 명의 아동이 공부하였다. 43개의 중학교에서 9,560명의 학생만이 배웠다. 대학은 하나도 없었다. 해방 이후 북한 교육체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북한체제의 인민교육의 기본방침과 시책은 <조국광복회 10대 강령> 및 <20개조 정강>에서 이미 예견된 바 있었다. 1946년 10월 5일 개최한 각 도급(及) 평양시 교육부장회의에서는 다시 한번 임시인민위원회의 정치노선에 일치하는 교수 사업 추진을 결의하였다. 교육개혁의 결정판은 1946년 12월 18일 <북인위 133호 결정>에 따른 새로운 인민교육제도의 선포로서 학교체제와 교육제도가 크게 개선되었다. 이어서 1947년 9월 1일 인민학교, 중학교의 학년 단축, 학령전 아동 교외교육을 위한 유치반 신설, 고급중학교의 창설, 기술교육의 진흥, 야간학교, 직장학교, 성인교육기관 등의 동일한 자격부여 등의 시책들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북한 교육체제는 유치반(1년, 만6세), 인민학교(5년), 중학교, 기술학교(3년), 고급중학교(3년), 전문학교(3-4년), 대학(4-5년), 교원대학교(2년), 성인중학교(3년), 직장기술학교(3년), 직장전문학교(3년) 대학에 이르는 직장 및 성인교육체제로 정비되었다.<sup>16)</sup> 위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4) 민주주의 민족전선, 『해방조선Ⅱ-자주적 통일민족국가 수립 투쟁사』, 과학과 사상, 1988, 453쪽.

15) 국사편찬위원회, 『북한관계사료집』 I, 42-43쪽.

16) 김광운, 위의 책, 320쪽.

<북한의 학제(1947.9)>

연구원(3년)	
대학(2-4)	
고급중학교(3년)	전문학교(3-4)
초급중학교(3년)	초급기술학교(3년)
인민학교(5년)	
유치원(3년)	
보통교육체제	기술교육체제

당시 소련의 경우도 3년제 초급중학교와 3년제 고급중학교로 나누어져있었다. 소련은 초등 학교 4년과 초급중등교육 3년을 포함하여 7년제 의무교육제를 실시하고 있었다. 북한의 경우, 중등학교의 분리는 소련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인민학교 6학년이 없어짐에 따라서, 1947년 9월 시작하는 학년의 졸업 및 진학 진급의 조정이 불가피했다. 우선 인민학교 1, 2, 3, 4학년의 경우 변동 없이 2, 3, 4, 5학년으로 진급하였다. 문제는 5학년과 6학년이었다.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김정난 씨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1947년 9월에 조산 인민학교 1학년 댕깃어요. 일본어는 안 배우고 한글, 산수, 머 이런거 배우고 스탈린 관련한 노래를 배웠어요. 항상 학교에서 스탈린 노래를 부르도록 했어요. [...] 학교 못 가던 친구들도 모두 인민학교 다녔어요. 돈이 없어서 맨발로 다니는 친구들도 다 학교를 갔어요. 공책이 없어서 대두박 담았던 종이 푸대를 찢어서 공책으로 만들어 썼어요. 중학교도 의무교육이라서 모두 진학했어요. 그때 5, 6학년 언니 오빠들 같이 묶어서 중학교에 갔어요. 조산에서는 철길로 한 때가 학교까지 10리 되는 길을 걸어서 댕깃어요. 토지 분배 받아서도 좋아했지만, 학교 못가던 아달이나 부모들이 학교 댕기니 다 이북정치 좋아했지요. 이북 정치를 모두 좋아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김일성도 좋아했어요. 학교에서는 김일성 만세, 스탈린 만세를 가르쳤어요. 동네에서는 글을 모르는 할머니, 아저씨, 엄마들도 야학을 했어요. 야학은 동네 동사(마을회관), 그렇지 않으면 집이 넓은 집에서 배웠다. 선생은 동네에서 글을 배운 사람들이 가르쳤어요. 알아야 이 나라가 발전이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17)

당시 5학년생은 초급중학교 1학년으로 진급하고, 6학년은 초급중학교 2년으로 올라갔다. 5학년 가운데 졸업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인민학교 5년에 유급하였다. 중학교의 경우 구학제의 중학교 1학년생은 초급중학교 3학년으로 진급하였다. 당시 속초 양양지역에서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45년 해방되고 나는 4학년 되었지요. 1년 동안은 인민공화국교육을 받았지요. 그리고 바로 중학교로 바로 갔었어요. 이북에서는 초등학교가 5학년제로 바뀌었어요. 그래 우리하고 같이 댕기던 6학년은 중학교 2학년으로, 우리는 1학년으로 들어갔어요. 5학년에서 바로 졸업했어요. [...] 그때 면마다 중학교가 생기고 의무 교육제가 생기면서 면마다 중학교가 있구. 군마다 고급중학교 고등학교지요. 도 단위로 대학이 설립 됐지요. 그래서 속초에 중학교가 있구, 양양

17) 구술자 김정난(1939년 생), 춘천시, 2022년 11월 5일. 당시 인민학교에서 배운 노래를 배웠다. “스탈린 대원수 천추만대 길이 빛날 스탈린 대원수 크레믈린 멀리 향해 만세를 외친다. 인류 태양 그대에게 영예를 드린다. 원수를 물리치고 이 나라를 건져내어 빛나오는 새 역사에 밝은 앞길 열어주었다. 위대하다 노래마다 높이 불러 찬양하는 해방 은인 우리의 빛 스탈린 대원수 천추만대 길이 빛날 스탈린 대원수 스탈린 대원수 크레믈린 멀리 향해 만세를 외친다. 인류 태양 그대에게 영예를 드린다”

에 고급중학교 있었어요. 고성에는 고성 고급중학교 있었고 원산에 지금 말하면 농업전문, 의학전문, 공업전문학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청진에는 교원대학교 있었고, 김책대학도 있었고 [...] 그러니까 45년에 대포인민학교에서 일 년 더 배우고 가덜(북한체제)은 학제가 우리는 3월 1일이잖아요, 거기는 9월 1일로 해. 그러니까 1년이지 8월 15일 그 이듬해 9월1일 갔으니까 딱 1년 더 배운거지요. [...] 학교 건물은 주민들이 동원되어가지고, 목수덜이 와서 짓고, 재래식이지. 나무 세우고 수수깡으로 엮어매 가지고 새끼로 엮고 흙을 발라서 지은 거여. 이 지역에서 그때(인공시대) 초등학교를 갈 수 있는 경제력 있는 사람은 절반 정도 갔어요. 나중에는 다 갔어요. [...] 인적자원이 없잖아요. 정부입장에서 학교를 세웠는데 학생이 와야지요. 그리니까 행정력을 동원해서 학교 가라구 가라구 그래서 학교 클라스는 채워야 될 것 아니며, 인원은 가라구 가라구 하나까 김 서방 보내니 박서방도 보내고 그래서 유지가 된거지요. 그리다 보니까 학구열이 높아진 거여, 한 학급 인원은 60명 그때 그 기 정원이며.<sup>18)</sup>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서 각 분단별로 인제 폐품을 모아 가지고 소비자조합에 가져가면공을 줘 고만큼 금액으로 쳐서 배구공 달라면 배구공 주고, 축구공 달라면 축구공 주고 그러니까 운동장에 나와서 운동할 때는 전부 공 뿐이며. 학생수 보다 공이 더 많아요.<sup>19)</sup>

문맹에서 벗어나는 일은 민중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 권력과 자본이 없는 상태로 통치를 받는 민중의 입장에서 교육의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민중의 입장에서 보면 교육의 기회가 되는 문맹퇴치에 대한 북한당국의 관심은 1946년 2월부터 시작되었다. 문맹퇴치운동은 3월 말에 일단 완료되었다. 1948년 12월 29일에 열린 북조선민주여성총동맹 인제군위원회 당조직의 내용을 기록한 회의록을 보면 문맹퇴치가 성공적으로 되지만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당시를 기억하는 구술자들에게 따르면 농사일 등 과도한 훈련과 노동으로 제대로 된 학습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여기는 저녁으로 가르치는 거 ‘문맹퇴치사업’이라고 했어요. 부엌에서 해 잡수는 엄마들 노인들도 문맹퇴치사업하랴구 해서 했어요. 부녀자들을 전부 글을 가르쳤어요. 야간학교를 많이 운영했어요. 야간학습 밤으로 꼭 해요. 엄마들, 늙은 엄마들 한글을 가르쳤지요. 한글을 가르치면서 또 자비판도 있어, 늙은 엄마들도 잘못하면 자비판하고 그랬어요. 자비판은 누가 하나 잘 못해서 누가 발견하면 아무개 나와서 자비판하시오. 누가 어떤 일을 했는데 아무개 엄마 나오라 그래 가지고 자비판하고, 무슨 거(잘못한 행동) 쓰라 그러기도 하구, 이렇게 자비판 시켜, 그러니까 하지. 그런 사람은 당(공산당 간부)에 들지 않는 사람들 당에 든다는 기 철저 하거덩.<sup>20)</sup>

사변 전에 여(여기) 이북에서 청년들 조국보위훈련이라구 그래서는 훈련 시키는데 낮으로 일하구 밤으루 했어요. 밤으로 삼팔선 여기 가서 토치가 파구, 뭐 하는 거 전부 밤으로 하구. 농사꾼들이 그래서 더군다나 여기서 이북에 공장에 가구, 인민군덜 가구 전부 여기 사람들 많이 갔어요. 낮에 농사일 하구 밤으로 밤에 그렇게 나가서 하구는 새벽에 들어오니 날이 흰해서 들오 거든요 [...] 밤으루 조국보위 훈련이라구 하구는 낮에는 일하고, 밤으로 학습 교육받고 또 훈련군대 보병들 훈련하듯이 똑같이 훈련했어요.<sup>21)</sup>

18) 구술자 이규호(1935년 생), 춘천시, 2008년 7월 19일.

19) 구술자 김종규(1935년 생), 속초시, 2008년 6월 22일.

20) 이종학, 이건보, 속초시, 2008년 9월 6일.

21) 정관화, 양양읍 조산리, 2008년 3월 23일.



반복하지만 1946년 12월 18일 인민교육제도가 선포되었고 1947년 9월 1일 교육제도 정비 조치로 학교교육체계가 정리되었다. 이러한 조치로 학교와 학생수도 늘어나 1947년 말에는 정규학교 3,774개에서 학생 158만 6,635명이 공부하고 있었다. 인민학교 3,008개(129만8,500명), 중등교육기관(초급중학교, 기술학교) 622개(22만 5,500명), 고등교육기관(고급중학교, 전문학교, 대학, 혁명자 유가족학원) 144개(6만2,635명)가 정규교육을 받고 있었다. 성인 교육과정으로는 5만 2,255개 학교에서 802만 1,400명이 교육을 받고 있었다.<sup>22)</sup> 언급된 내용을 표로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보통학교기회의 확대 추이: 1944-1949>

년도	인민학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	
	학교수	학생수	취학률%	학교수	학생수	학 교 수	학 생 수
1944	1,372	877,894	58.0	58	17,030		
1946	2,482	1,182,707	77.0	217	70,311		
1947	3,008	1,341,081	89.0	594	125,914	80*	26.808
1948	3,245	1,378,536	94.3	772	275,627	140	41.323
1949*	3,882	1,473,976	95.0	992	324,000	175	64.887

해방 직후 38선 이북의 주민사회를 크게 동요 시킨 것은 토지개혁이었다. 이에 못지 않은 것이 교육개혁이었다. 일제강점기 학교교육은 경제적 기반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얻지 못했던 것이었다. 그러나 공산체제기에는 교육기회의 전폭적 확대는 주민들에게 내재된 계층 상승은 물론 배움에 대한 욕망을 채워주기에 충분했다. 이 시기 북한체제는 지역 주민사회의 광범한 참여를 독려했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교육예산을 조달하였다.<sup>23)</sup>

학교신축 및 보수 등을 위한 성금과 성미 총액은 1948년에 9억5천만 원, 1949년에는 10억 3천만 원에 달했다. 북한의 정부 예산은 1948년에 160억 3천여만 원, 1949년에는 197억 6천여만 원이었다. 1949년 교육예산은 20억 8천여만 원이었다. 따라서 학교 신증축을 위한 성금 총액은 정부 예산총액의 50%가 넘고 교육예산의 절반과 맞먹는 막대한 금액이었다.<sup>24)</sup> 당시 신문 기사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나온다.

<김일성대학 신축기금 베풀 60가마니 거출 >

연천군 관인면 리계환, 빈농출신으로 인민학교를 졸업하고 000 일제 때 가난한 소작농과 머슴살이를 지내면서 쓰라린 경험으로 해방이 되자 국가로부터의 두터운 보호인 토지를 분여 받았다. 그때로부터 민청사업에 열정적이었다. [...] 이 동무의 민청사업의 구체적 업무로는 지난해 8월에 전체맹원들을 발동하여 11일간이나 뛰는 성인학원을 신축하여 총맹원 37명 중 문맹자 23명과 부락 전체 문맹자 59명의 문맹을 퇴치시키기 위해 동년 8월 하순 매일 방문 퇴치에 솔선 노력하였다. [...] 고귀한 애국농민회의 염원을 겸손하게 표시하여 김일성 대학 신축기금으로

22) 안문석, 『북한민중사』, 일조각, 2020, 103쪽.

23) 김영미, 「인민학교 교사가 된 흰패의 딸들」, 『진단학보』, 진단학회, 2011, 146쪽.

24) 이향규, 「북한 사회주의 교육의 형성: 교육기회 확대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 경인문화사, 2006, 29-30쪽.

무려 60가마니를 거출하였다.<sup>25)</sup>

<革命者 遺家族 學園에 베타 三呎 寄贈>

(신고산) 금년도 인민경제계획에 정숫자를 초과 달성하고 애국열에 넘치는 농민들은 방방곡곡에서 만기 작물 현물세를 연속하여 완납하고 있는 바 지난 10월 27일에는 김운섭 씨도 애국미 베타 3가마니를 우리 조국을 위하여 싸워준 혁명자 유가족의 자녀를 위하여 평양 만경대에서 신축되는 학원에 기증하였다.<sup>26)</sup>

강원도 주민들은 현물세의 완납과 함께 김일성대학을 설립에도 애국헌미 등 자발적 성금을 냈다. 또한 학원(學園)설립에 혁명자 유가족 등 주민들의 자발적인 경제적 지원이 이었다. 물론 기사의 내용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주민들의 교육 후원금은 내지 않고는 못 견디게 하는 보이지 않는 강압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시 교육에 대한 주민들의 열망을 감안한다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지역 사회에서 이 같은 교육개혁의 분위기는 공산체제에 대한 주민들의 긍정적 분위기를 형성되기에 충분할 뿐만 아니라 학교 건설 신축에 자발적 동원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간단히 정리해본다면, 공산체제 형성기에 이와 같은 급속한 학교 개혁이 가능했던 핵심 요인은 분명코 북한체제의 교육정책과 인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동원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 4. 속초, 양양지역의 학교 교육

공산체제를 지향하는 사회는 과거 그 어떤 사회보다 소년과 청년 교육을 강조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북한체제에서도 해방 후부터 소년과 청년의 학교 교육에 집중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어린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소년단은 청년단의 전위과정이다. 일찍부터 북한체제는 이 청년단을 체제의 유지의 흥위병으로 삼았다. 또한 소년과 청년에 대한 북한체제의 의무교육 실시는 김일성의 자랑이기도 했고, 지역주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기에도 충분했다.

이와 같이 초기 북한체제는 북한 사회의 인민들로부터 지지를 얻기 위해 청년과 교육에 중점을 두었다. 북한체제가 소년과 청년 교육의 목적은 1차적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확립이었고, 다음으로 민주적 개혁, 사회주의 국가건설, 김일성 권력에 대한 지지 확보였다. 뿐만 아니라 당시 교육의 주요 사업으로서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입각한 공산주의 이념교육, 교육과 생산노동의 결합을 도모하는 중등교육, 그리고 초등교육의 의무화하였다.<sup>27)</sup> 제국주의 시대에 부르주아는 이미 개혁성을 상실했으므로, 개혁을 추진할 권력의 중심주체는 노동자, 농민 등 근로자<sup>28)</sup>였지만, 역사의 발전 방향을 고려한다면 청년이 새롭게 등장할 수밖에 없었다.

김일성은 청년단체를 이용하여 북한 인민을 각성시켜 체제형성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우선 자신의 권력을 위한 지지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고, 다음으로 이의 연장선에서 민족의 반역자와 친일파를 제외한 모든 인민대중이 조직화될 필요가 있다. 이것의 직접적인 이유는

25) 『강원로동신문』, 1947년 11월 14일.

26) 『강원로동신문』, 1947년 10월 6일.

27) 한만길, 「북한교육의 이념과 목적」, 『북한연구학회, 경인문화사, 2006, 203쪽.

28) 김성보, 위의 책, 41쪽.

1945년 11월에 창당한 조만식의 조선민주당 때문이었다. 조선민주당은 50만 명의 당원을 확보한 최대의 정당이었다. 김일성은 혁명의 성패는 “결국 누가 대중을 더 많이 전취하는가에 달려 있으며 당의 모든 활동을 묶어 세우며 대중을 혁명에 끌어들이는데 달려져야 합니다”라고 강조한 것처럼 통일전선의 형성에 사활을 걸었다. 이를 위해 광범한 청년들을 망라한 대중조직인 청년단체를 조직하는 것이었다.<sup>29)</sup>

또한 북한체제는 청년들에 대한 공산주의 이념교육과 학교 교육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다시말해 북한 주민에 대한 인민화의 핵심은 세대를 잇는 젊은 인민들의 양성과 이들에 게 공산주의를 심는 것이었다. 청년에 관한 북한체제의 노력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청년의 조직화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이다.

미루어 짐작컨대 북한체제가 생활 경험이 많은 노회한 세대를 공산체제로 길들이는 것보다는 젊은 세대들을 길들이는 것이 훨씬 더 쉬웠을 것이다. 기존 전통에 결박된 노인층은 새로운 가치체계와 행동양식의 체득에 한계를 드러냈다. 뿐만 아니라 시대의 다양한 정보들을 습득할 역량을 소유하지도 못했다. 1946년 말 인민위원회선거 선전사업에 착수한 평안북도 선천군 학생들은 특히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해설에 어려움을 겪었다. 『북한관계사료집』의 사례를 보면 농민동맹위원장 이종명도 농민들의 교양사업이 부진한 이유가 바로 “늙은이들” 때문이라고 개탄하는 내용이 나온다. 학습 이해력이 낮은 데다 많은 과오를 범하는 층도 그들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다.<sup>30)</sup>

북한 체제는 어린 소년들부터 학교 교육을 통해 철저한 공산주의자로 만들고, 이들을 김일성과 체제의 지지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기획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기획들은 해방부터 지금까지 소년과 청년을 조직화하여 왔다. 실제로 이러한 기획에 따라 북한 어린이의 상징인 붉은 스카프를 맨 소년단, 김일성은의 ‘사로청’(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김정일의 ‘3대혁명소조’, 김정은의 ‘청년동맹’이 만들어졌다. 이것은 아마도 앞에서 언급한 내용을 방증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북한체제가 아직 길들여지지 않은 젊은 인민들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초기 공산체제에서 학생과 청년을 중심으로 젊은 인민들에게 마스-레닌 사상을 무장시키는 것이었다. 물론 북한체제는 마르크스-레닌 사상을 학생과 청년들뿐만 아니라 남녀노소의 인민들에게도 직간접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졌다. 학교는 학교대로, 마을은 교양교육을 통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신문과 출판 등 미디어를 통해서도 지역주민들에게 마르크스-레닌 사상과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인식시켜나갔다. 이러한 바람은 북한 주민들에게 정치교육로 나타났다. 즉 해방이 불려온 북한 사회의 변화 가운데 독특한 것은 바로 정치교육이었다. 여러 매체를 통한 정치시사 위주의 기사들이 넘쳐났고 그 중심에 마르크스-레닌주의, 국제정세가 있었다.<sup>31)</sup>

이하의 글에서는 먼저 지역 인민들에 대한 공산주의 사상교육이 어떻게 강조되고, 이루어졌는지 당시 자료를 통해 살펴볼 것이다.

첫째, 김일성은 1946년 4월 연설에서 마르크스-레닌 사상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우리 당원들이 아직 맑스-레닌주의로 무장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교육방법으로서 설복하고 교육해야 한다. 무조건으로 좌향분자, 우향분자, 종파분자라고 쳐서는 안 된다. 특히

29) 김중수, 「북한초기 청년동맹의 성격과 역할에 관한 연구」, 『평화연구』 제15권 1호, 2007, p.26.

30) 김재웅, 『북한체제의 기원』, 역사비평사, 2018, pp.516-518.

31) 김재웅, 『북한체제의 기원』, 역사비평사, 2018, 495쪽.

주의할 것은 우향적인 데 이것은 지주, 농민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당에 있기 때문이다. 사상적으로 견결(堅決)한 태도를 취하여 투쟁하여야 한다.”<sup>32)</sup> 김일성은 당원들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면서 마르크스-레닌 사상으로 무장되어 있지 못했음을 질책하고 있다. 또한 당원들에 대한 사상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강원로동신문』의 기사의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1929년)11월 3일 오늘은 우리 인민들의 역사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민주선거 제1주년 기념인 동시에 또한 광주학생운동 제18주년을 맞는 기념일인 것이다. 광주학생운동은 우리 민족의 반일 반제 해방 투쟁에서 빛나는 기록을 남긴 민족해방운동이었다. 지금으로부터 18년 전 1929년 11월 3일 혁명적인 광주 고보학생들을 선두로 각 학교로 2천여 학생들은 학원의 자유와 일본 제국주의와 또 식민지 노예교육 반대 피압박민족해방 만세를 소리높여 부르짖고 일제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조선인 여학생에 대한 일본인 중학생의 모욕적인 태도에서 발단된 이 사건은 반년에 걸친 5만 5천여의 전조선 학생들을 참가시 역사적인 학생운동으로 전개되었으며 조선학생들과 애국열정을 발휘하였던 것이다. 우리들은 오늘 빛나는 광주학생운동 18주년을 기념하면서 다시금 가슴에 사무치는 애국열정을 금할 수 없다. 국제적으로 복잡 다다한 환경 속에서 오늘 00 작렬한 투쟁 가운데서 우리는 이 혁명적 기념일을 잇는 것이다. 조선인민들의 혁명적 반일반제 투쟁을 18년 전의 오늘의 가치를 높이는 선배 학생들의 붉은 피가 오늘 조선인민들의 가슴에 흐르고 있다. 모든 청년학생들은 이날을 기하여 ‘민청’ 기빨 아래 더욱 굳게 뭉치어 조선민주주의 공화국 수립에 젊은 의지를 바치어 싸울 것을 맹세하자!”<sup>33)</sup>

셋째, 『강원로동신문』에서는 소련과 동유럽을 중심으로 한 <국제정세에 대하여>라는 기사가 매번 기사화되고 있었다. 그 기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국 공산당 정보 회의에서 「아스다노브의 보고」, 토지개혁의 결과로 농민들의 수중에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주계급을 영영 숙청하여 버렸다. 동시에 인민대중을 제국주의적으로부터 해방시켰다. 사회주의국가는 전쟁에 대한 시험을 겪었고 강력한 원쑤와의 결사전에서 전승자로 00하였다. 소련은 약해진 것이 아니라 더욱 가하여졌다. 자본주의 세계는 면모로도 근본적으로 변경되었다.”<sup>34)</sup>

이 밖에도 『강원로동신문』에는 사회주의 혁명을 기념 혹은 우수성을 알리는 기사들이 다수 등장한다. 가령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 33주년, 1947년 11월 6일 모스크바 시(市), 쏘베트총회에서 진술한 몰로토프의 연설」<sup>35)</sup> 등이다. 그 반대로 공산주의 탄압을 고발하는 기사도 등장한다. 가령 「공산주의자라고 탄압하는 미국(米國)의 영화인(映畵)들」 등이다.<sup>36)</sup>

다음은 속초, 양양지역의 당 간부 교양교육과 학교 교육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당 간부의 교양교육을 살펴보기로 한다. 속초, 양양지역의 기록은 없지만 인접 지역인 인제군의 기록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 속초, 양양지역에서도 사정은 비슷했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회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마르크스-레닌 사상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속초, 양양지역의 인접지역이었던 인제군의 1949년 3월 28일 당 전체의 선전선동사업의 내용이다. 선전선동사업의 주요 내용은 야간 당학교 사업 등의 당정치교양사업, 신문, 우편, 출판물 등의 출판사업, 하급반 자습 당원들에 대한 레닌 저서 일보전진 이보퇴각론과 볼셰비키 전술 등의 강연사업 등이었다.

32) 국사편찬위원회, 『북한관계사료집』 I, 60쪽.

33) 『강원로동신문』, 「조국건설에 청년들의 힘과 열(熱)을 바치자-광주학생운동제18주년」, 1947년 11월 3일.

34) 『강원로동신문』, 「국제정세에 대하여」, 1947년 11월 5일.

35) 『강원로동신문』, 1947년 11월 15일.

36) 『강원로동신문』, 1947년 10월 13일.

1949년 5월 2일 당 전체의 선전선동사업의 내용에서는 의무교육 실시 사업을 강조하고 있다. 이 사업에서는 의무교육 준비 사업을 7월 30일까지 총결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sup>37)</sup> 다음은 속초 양양지역의 학교교육의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인민학교에서의 교육은 다음과 같다. “김일성이 우상화하는 거 첫째고, 초등학교 아들도 학교 끝나면 다 갈 때는 독보회라는 거 해 독보회라는 거 사상교육이여. 공산주의 사상교육이여. 민청이고 뇌를 아주 세척해가지구 아주 김일성 아주 아들 딸로 맨드는 거여.[...] 민청, 민주청년동맹, 다 대단하고, 여성동맹 대단하구.”<sup>38)</sup>

당시 실제 인민학교 학생의 사례를 살펴보기 한다. “나는 1945년 9월 조산인민학교에 들어갔어요. 우리는 학교에서 일본어는 안 배우고 한글을 배웠고 산수도 배웠다. 인민학교 3학년 부터 학교에서 주로 공부 잘하는 학생들만 참여하는 소년단(1946년 6월 6일 발족, 7-13세까지 어린이, 필자주)이 있었어요. 나도 소년단에 들어갔었어요. 소년단 숫자는 남학생과 여학생 비슷비슷했어요.”

당시 소년단에 참석하는 사람은 빼오네르(소년단, 공산권 국가의 소년조직)라고 했다. 그때 어떤 친구들은 빨간색 스카프가 없어서 소년단 뱃지(badge)에다 빨간색을 둘렀다. 소년단 뱃지는 5장의 꽃잎 모양이 들어가 있었고, 소년단이라는 글씨가 들어가 있었고, 알루미늄 같은 가벼운 금속으로 만들어졌고, 전체는 노란색 삼각형 모양이었다. 소년단 단원 중에서 일반 소년단원 뱃지만 달고 간부는 팔뚝 상단부에 간부 마크를 달았다. 급장들은 3개를 달았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었고 가장 높은 간부였다. 두 개 받은 그다음 간부이고, 색깔은 파란색이었다. 하나 반도 있고 하나도 있었고, 이들은 빨간색이고 간부들 중에서는 가장 낮은 위치였다.

소년단 뱃지를 이름표 다는 곳에 달고 다녔으며, 소년단 뱃지를 단 학생들은 “으시됐다”고 한다. 친구들 사이에 “누구는 소년단”이라면서 친구들이 부러워했다고 한다. 소년단원 들 중에 부모가 당 간부인 경우 그 아들들은 소년단이 될 수 있었다. 친구들끼리는 “알아줬어”라며 쑥덕대기도 했다고 한다. 가난해도 공부를 아주 잘하는 학생들은 소년단이 되었다.

소년단 단원 중에서 간부는 또 따로 있었다. 간부는 소년단 단원 중에서도 공부를 잘하거나, 웅변을 잘하거나, 회의할 때 의장을 맡았던 학생들이 주로 간부가 되었다. 간부 학생들은 회의를 주재할 뿐만 아니라 남한을 비판할 때도 가장 앞장섰다고 한다. 자비판의 경우에도 학급에서도 있었지만, 소년단에서도 있었다고 한다. 소년단 회의할 때는 선생님이 입회하였고, 소년단원인 전학년이 참석했다.

소년단의 회의 내용은 남한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주였다고 한다.

“남한에는 거지가 득실거린다고 했어요. 학교에서 이남의 이승만, 김구 괴뢰정부라면서 이승만이 우유에 목욕하고, 잘 먹고 잘살고 국민들은 굶주리고 도탄에 빠졌다고 그렇게 정신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리고 미 제국주의 타도하자, 뭐 그러거 했어요. 북한은 미국을 굉장히 미워했어요. 북한에 대해서는 김일성 장군이 잘한 것만 이야기 했어요. 토지개혁, 의무교육, 할머니들, 엄마들 야학을 가르치고 했던 것이 잘한 거라고 가르쳤어요. 이 나라(북한)가 글을 알아야 발전한다고 교육을 시켰지요.”<sup>39)</sup>

또한 회의에서는 김일성, 스탈린 찬양에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하교한 뒤에는 저녁 5-6시 경

37) 국사편찬위원회, 『북한관계사료집』 III, 257, 405쪽.

38) 구술자, 정관하·김민철, 2010년 5월 3일.

39) 구술자, 김정란, 2022년 11월 28일.

저녁 식사를 하고 인민학교 학생들이 마을 동사에 모였다. 모인 학생들은 동네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고 한다.

“미 제국주의 타도하자, 이승만, 김구 괴뢰정부 타도하자, 인민공화국 수립 만세, 김일성 장군 만세, 스탈린 동지 만세를 외쳤어요. 급장이나 간부가 앞에서 선창을 하면 따라가던 학생들은 구호를 함께 외쳤어요. 저녁 한 시간 정도 돌아다니면서 구호를 외쳤지요. 구호부를 때 안 나오거나 싫은 내색을 하면 자비판을 받았어요. 안 나오는 아덜은 그 반의 급장이 이름을 적고 3번 안 나오면 자비판 받았어요. 자비판을 받을 때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지적하는 친구가 저 동무는 무엇을 잘못했다고 하면 지적을 당한 학생은 눈물을 흘리며 다시는 그런 짓 안 하겠다고 맹세하구 그랬어요.”<sup>40)</sup>

어린 학생들은 추운데 나가서 구호를 외치는 것은 싫어할 만한 일이었다. 그러나 어린 학생들부터 싫다는 내색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간부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간부 학생들은 상급학교에 대체로 연결되거나 청년단에서 주요활동을 하게 될 사람들이었다.

당시 인민학교 김00 선생님의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학교의 경우 소년단을 지도하는 교양 주임이 따로 있었으며, 이들은 모두 당원이었다. 당시 소년단의 인사는 “준비하자”였고, 이는 전쟁을 준비하자는 의미였다. 또한 소년들은 저녁마다 동네에 모여 소년단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동네를 돌며 “남조선 미 제국주의 타도하자”라는 구호를 외치며 돌아다녔다.”<sup>41)</sup>

어린 학생들 사이의 자아비판, 동지비판은 선생님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 학급마다 매일 학생들 스스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규율은 생활계획표처럼 시간에 따라 지켜져야 하는 것이었으며, 북한체제하에서의 자아비판과 동지비판은 훈육 과정이었다. 여성위원장 등 당원의 자식들이 회의 등에서 일반 학생들보다 훨씬 공격적이었으며, 담임 선생님도 무서움을 느낄 정도였다. 자아비판, 동지비판을 통해 또래 집단 사이에서 규율의 내면화가 일어나고 있었으며 공산체제에 적합한 개인을 만들고 있었다. 후일 체제에 적합하게 규율화된 개인은 미래에 지역사회, 국가의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된다.<sup>42)</sup>

둘째, 초급중학교(양양군 속초읍)에서의 교육은 다음과 같다. 당시 북한체제하에서 초급중학교 진학률은 남한보다 더 높았다. 북한체제는 학생들을 학교를 보내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당시 초급중학교의 학교생활은 엄격하였다. 구술자들에 따르면 북한사회가 일제강점기보다 훨씬 규율이 엄격했다고 한다. 학교에서도 수업과 학교생활에서 엄격한 규율을 세우고 학생들이 이를 자발적으로 준수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강조되었다.<sup>43)</sup>

당시 경험자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인공치하에서는 소위 불량 학생 이런 거 없었어요. 학교에 자비판했던 것은 기록 남아요. 상급학교 갈 때 영향받지요” 중학교에서는 공산주의에 대한 이론은 배우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학교의 간부 학생들은 직, 간접적으로 마르크스-레닌 사상을 익힌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학과 수업 시간에는 마르크스-레닌 사상을 배우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학생들도 자연스럽게 마르크스-레닌 사상을 배웠다고

40) 구술자, 김정란, 2022년 11월 28일.

41) 김영미, 구술자, 김옥봉(당시 인민학교 선생님), 2008년 9월 7일.

42) 이세진. 「1945-1950년 속초 양양지역의 공산체제형성」, 『한중인문학』, 한중인문학회, 2022, p.18.

43) 조정아, 「북한 중등학교 규율과 학생문화」, 『북한의 교육과 과학기술』, 경인문화사, 2006, p. 301.

한다.44)

중학교 들어가니까 영어를 배운다고 해요. 중학교를 들어가서 에이 비씨 디 그거 아는 거가 얼마나 영광이고 신났는데 에이(a), 비(b), 씨(c) 그때는 알파벳 소문자를 썼어요. 대문자는 문자로 써야 할 때만 쓰고 주로 소문자로, 필기체로 쓰고 쓰는데 다 배웠지요. 배워가지고 영어 교과서가 있었어요. 일 개 반이 60명이라면 15권 정도만 있었요, 20권이 안 돼요. 그렇게 얼마 안 돼요. 나인데 차례(책을 구입)가 왔어요. 야, 그러니 얼마나 좋았는지 지금도 기억이 나요. 레슨 원부터 십과까지 배웠어요. 달달 외었어요. 그 영어 실력이 지금까지야. 그렇게 배우니까 영어 중지하라 이거여, 러시아 하라 이거여, 러시아를 하라니, 영어를 중지하니 안 가르칠 수밖에 러시아 교과서가 있어, 선생님이 있어, 교과서도 못 보고 선생님도 없어, 그리다 보니 1년 흘러 갔어요. 그다음에 로어 교과서가 나왔어. 우라지우스크(블라디보스톡) 부두 노동자 하던 사람이 선생을 했어요. [...] (인민학교 졸업생들) 중학교까지는 거의 갔는데 고등학교부터 진짜 돈이 들어가잖아요. 양양만 해도 하숙하고 수업료를 내야지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경제적 여건이 안 돼서 못 가고 또 실력이 안 돼서 못 갔지요.45)

당시 중학생들은 학교에서 마르크스-레닌 사상을 직접 배우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중학교는 지역의 엘리트 양성은 아니지만 규율사회에 적합한 지역 사회의 충실한 일꾼을 만들어 내기 위한 과정이었다.

셋째, 양양고급중학교(양양군)에서의 교육은 다음과 같다.

(고급중학교 3년제) 그때 당시 9시에 수업 시작하잖아요. 9시에 시작하면 6, 7교시 하면 수업이 끝나요. 이 제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두 시간에 전에 학교 가야되고, 수업이 끝나고 두 시간 더 해야 해요. 독보회라고 가덜은 두 시간 전에 막스-레닌 공산당사를 배워요. 중학교 학생들이 고급당사는 아니지만 막스-레닌주의에 대한 우월성을 배우는 거여. 매일 중학교 다니는 학생이 별 보고 등교해서 별을 보고 와야 해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때 먹을 거나 있어요. 감자, 보리밥에 도시락을 싸갈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 하면 참 기가 막히는 데 도시락을 어떻게 싸갑니까? 감자 콩보리밥에다 도시락 싸가면 다 쉬는데 낮에 못 먹어요. 여름에 아침에 그거 지금이나 그때나 한창 먹을 때 감자톨 보리밥 먹고 성에 안 차잖아요. 점심을 못 먹어요, 점심을 싸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수도 간 우물에 가서 물만 먹었어요. 6시간 다 끝나고, 두 시간 더 해야 해요.46)

---

44) 구술자 김종규(1935년 생), 2008년 10월 7일.

45) 구술자 이규호(1935년 생), 2008년 7월 19일.

46) 구술자 이규호(1935년 생), 2008년 7월 19일.

22

소련공산당사 연구제목

제1장	1	그림기법이 대하여	(근로자 3권)
"	2	농노제도론에 대하여	( " )
"	3	레닌의 과학연구에 대하여	( 레닌의 생애와 활동에 대하여 ) 2부
"	4	안노인들은 노동이름이게 노동복을 주었노라	( 공산당 5권 )
"	5	근로해방당의 역할에 대하여	
"	6	인민과라 뜻이며 그에 관한 레닌의 투쟁	( 인민과라 뜻이며 ) ( 레닌의 투쟁 )
"	7	노동기조 레닌 투쟁에 대하여	( 레닌의 생애와 활동 ) 2부
"	8	광복해방주의란 무엇이며 그에 대한 레닌의 투쟁	
"	9	제1차 대전에 대하여	
"	10	제1차 대전에 대하여 그에 대한 레닌의 투쟁	( 북방공화국 ) ( 레닌의 투쟁 )
제2장	1	1911 - 1914년간 러시아에서의 혁명운동	( 레닌의 생애와 활동 ) 2부

북한체제는 지역의 행정단위인 읍, 면에 중학교를 세웠고 군(郡)단위에 고급중학교를 세웠다. 고급중학교에서는 지역의 엘리트를 양성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독보회를 통해 공산당사와 마르크스-레닌 사상을 공부시켰다.

북한교육은 짧은 시간에 기대 이상의 성과를 달성하게 되는데 이것은 소련의 인적, 물적 지원에 힘입은 바 크지만 기본적으로 북한대중의 높은 교육열망과 동일 민족국가의 염원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지역주민들은 학교의 복와 건설에 자신들의 노동력을 제공하였다. 이와 같은 지역주민들의 교육적 욕구와 북한사회주의 국가건설의 방향에 기초하여 북한은 소련을 모델로 한 사회주의 교육의 기초를 확립하였던 것이다.<sup>47)</sup>

### 5. 맺음말

지금까지 속초, 양양지역을 중심으로 공산체제형성기에 나타났던 교육을 살펴보았다. 초기 북한체제는 교육체제를 정비하여 엘리트로 활용할 민족간부와 대학의 엘리트를 양성하였다. 또한 북한체제는 일제의 교육을 받은 지식은 재교육하는 수준이 아니라 노동자, 농민 성분을 가진 새로운 인재로 국가를 운영해 나아가려 했다. 북한체제의 교육은 북한전체의 인민들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았다. 토지개혁의 경우는 토지를 분배받은 사람들은 환영했지만 토지를 빼앗긴 사람들은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교육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 전 인민이 북한체제의 교육정책에 찬성하였다. 그렇기에 애국헌미 등 자발적으로 성금을 냈다. 주민들의 교육 후원금은 내지 않고는 못 견디게 하는 보이지 않는 강압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시 교육에 대한 주민들의 열망을 감안한다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지역 사회에서 이 같은 교육개혁의 분위기는 공산체제에 대한 주민들의 긍정적 분위기를 형성되기에 충분할 뿐만 아니라 학교 건설에 자발적 동원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한마디로 공산체제 형성기에 이와 같은 급속한 학교 개혁이 가능했던 핵심 요인은 분명히 북한체제의 교육정책과 인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동원이어서 비롯된 것이었다.

북한체제의 교육은 특히 소년과 청년 교육을 강조하였다. 공산체제를 지향하는 사회는 과거 그 어떤 사회보다 소년과 청년 교육을 강조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북한체제에서도 해방 후부터 소년과 청년의 학교 교육에 집중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어린 학생들을 중심으로

47) 북한 노획문서, RG-242.

48) 신효숙, 「북한 고등인력의 양성과 발전(1945-1960)」, 『북한의 교육과 과학기술』, 경인문화사, 2006, 94쪽.



한 소년단은 청년단의 전위과정이다. 일찍부터 북한체제는 이 청년단을 체제의 유지의 흥위병으로 삼았다. 또한 소년과 청년에 대한 북한체제의 의무교육 실시는 김일성의 자랑이기도 했고, 지역주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기에도 충분했다. 북한체제가 소년과 청년 교육의 목적은 1차적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확립이었고, 다음으로 민주적 개혁, 사회주의 국가건설, 김일성 권력에 대한 지지 확보였다. 뿐만 아니라 당시 교육의 주요 사업으로서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입각한 공산주의 이념교육, 교육과 생산노동의 결합을 도모하는 중등교육, 그리고 초등교육의 의무화하였다.

결론적으로 북한교육은 짧은 시간에 기대 이상의 성과를 달성하게 되는데 이것은 소련의 인적, 물적 지원에 힘입은 바 크지만 기본적으로 북한대중의 높은 교육열망과 동일 민족국가의 염원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지역주민들은 학교의 복와 건설에 자신들의 노동력을 제공하였다. 이와 같은 지역주민들의 교육적 욕구와 북한사회주의 국가건설의 방향에 기초하여 북한은 소련을 모델로 한 사회주의 교육의 기초를 확립하였던 것이다.

‘1945-1950년 공산체제 형성기 영동지역의 교육과 인민 만들기 -속초, 양양지역을 중심으로-’ 에 대한 토론문

허대영(한국학중앙연구원 태학사 과정)

이세진 선생님의 발표 ‘1945-1950년 공산체제 형성기 영동지역의 교육과 인민 만들기 -속초, 양양지역을 중심으로-’는 해방 직후 북한의 교육개혁이 영동지역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었는지를 검토한 글입니다. 구술 및 신문 자료를 통해 당시의 시대상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속초와 양양 지역의 사례를 통해 해방 직후 북한의 교육개혁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이었는가를 규명하는 것이 발표문의 주된 목적으로 생각됩니다.

발표문을 통해 해방 직후 강원 지역의 사회적 분위기를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발표문을 읽으며 들었던 몇 가지 의문에 대해 질문을 드리하고자 합니다.

우선 머리말에 당시 교육과 관련하여 문맹퇴치운동이 중심이 되었다고 언급하였으나 본문에서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진 않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인민학교나 초등중학교 등의 공교육 제도의 정착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그렇다면 당시 공교육의 중점이 문맹퇴치에 있었다고 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식민지시기에도 조선인들의 교육열은 상당한 수준이었으나 식민지 교육시스템이 이를 충족해주지 못했다고 설명하였다. 이때 식민지 교육을 통해 조선인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였던 것은 유상무교육이라는 점과 실업교육과 같은 것들이 중심이 되었던 교육 내용 중 어느 쪽이 더 문제였는지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또 그렇다면 식민지 조선인들이 열망한 교육은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3장 중에 “하지만 당시 교육에 대한 주민들의 열망을 감안한다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지역 사회에서 이 같은 교육개혁의 분위기는 공산체제에 대한 주민들의 긍정적 분위기를 형성되기에 충분할 뿐만 아니라 학교 건설 신축에 자발적 동원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서술하였습니다. ‘교육에 대한 주민들의 열망’을 본문 내용만으로는 읽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선생님도 언급하신 것처럼 교육정책에의 참여와 후원에 대한 기록이 정말 자발적이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가 어려우며, 학교에 취학하는 것 역시 자발적 참여이기도 하지만 정책적으로 유치하고 지원한 결과이기도 해보입니다. 그리고 문맹퇴치운동에 대한 구술 내용에서도 북한 정부의 의지는 읽어낼 수 있지만 참여하는 이들의 자발성은 약해보이기도 합니다. 혹 구술 내용 중 관련된 내용이나 당시 교육열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읽을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자유 발표 세션 3

시간	일정 및 발표주제		사회 및 발표/토론	
10:00-10:40	자유 발표3  308호	<불교>지에 나타난 한용운의 세계인식	발표 지여정(경희대) 토론 광명숙(아주대)	차희정 (경찰대)
10:40-11:20		청조 여성 시인들의 제벽시와 연행 시인들	발표 이학당*(중국 산동대) 토론 최연*(중국 루동대)	
11:20-12:00		여성 주체의 욕망과 홀로서기의 (불)가능성 -1960년대 여성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발표 최언희(경희대) 토론 김지윤(단국대)	
12:00-12:40		90년대 한·중 여성 서사의 주체성 연구	발표 권리나(서울대) 토론 고유림(경희대)	

\*=Zoom 참여



## 한용운의 1930년대 조선불교 진단과 대응 양상

-잡지 <불교>를 중심으로-

경희대 지여정

본 글은 불교 잡지 <불교>에 나타난 1930년대 당시 조선불교가 놓인 상황에 대한 한용운의 진단과 그 대응에 초점을 맞춘 글입니다. 발표를 신청할 당시에는 '1930년대'라는 시기를 한용운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불교>에 기고한 글들을 통해 알아보려고 하였습니다. 1930년대는 경제공황 이후 세계적으로 불안감이 고조되고, 만주사변이 일어나 한반도 내에 전운이 감돈 시기로, 정치·경제적으로 큰 변동이 있던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한용운이 어떻게 세계를 인식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조선불교 중앙교무원의 관보라는 속성 때문에 잡지 <불교>에서의 그의 글은 불교 혹은 종교성을 경유하고 있어 폭넓은 세계 인식을 살피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에 잡지의 속성을 활용하여 1930년대 한용운의 조선불교 인식으로 주제를 초점화하기로 하였습니다.

- 
1. 서론
  2. 불교 내적 폐단 인식과 대응 - 무지
  3. 외적 위협 인식과 대응 - 반종교운동
  4. 결론
- 

### 1. 서론

1900년대 이후 조선불교계는 불교를 근대적 종교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힘썼다. 그 일환으로 근대 계몽사업의 중추라고 할 수 있는 교육·출판 사업에 뛰어들었으나 일제의 간섭과 재정적 문제로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하지만 잡지 간행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성과들이 있었다. 1920~30년대에 20여 종의 불교 잡지들이 종단, 청년회, 유학생 등 다양한 주체들을 통해 간행되었고, 『불교』, 『금강저』, 『조선불교』 3종은 1920년대에 간행되어 1930년대 이후까지 이어졌다.<sup>1)</sup> 특히 종단의 기관지인 월간 잡지 <불교>는 가장 오랜 기간 발간된 잡지로 1924년 7월부터 1933년 7월까지 총 108호가 간행되다가 휴간하였고, 1937년 3월 속간되어 1944년까지 67호의 잡지를 발간했다.<sup>2)</sup> 간행되는 동안 <불교>는 불교 교리를 심도 있게 담아내는 한편 조선불교의 실상과 향방을 논하는 장을 마련하며, 조선불교 근대화에 기여했다.

1930년대 잡지 <불교>의 근대화 노력 속에는 시인이자 독립운동가로 잘 알려진 한용운이 있었다. 이 시기에 한용운은 조선불교의 개혁과 세계종교와의 맞서는 종교가 될 전망을 꿈꾸

---

1) 김성연, 『일제하 불교 종단의 형성과정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115-116쪽 참조.

2) 휴간을 기점으로 잡지의 휴간 이후 속간된 잡지 <불교>는 '불교 신집'이라는 이름으로 통용되고 있다.

며 신문·잡지에 불교 청년들의 활동지지 글이나 나름의 개혁 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의 글을 꾸준히 기고했다. 특히 1931년 잡지 <불교>의 편집장을 맡고 나서는 84·85호부터 1933년 7월 휴간 전까지 발간된 매호에 글을 실을 만큼 의견 개진에 적극적이었다. 그의 등장 이후 <불교>에 이전과 달리 “조선불교의 주체성을 찾기 위한 과감한 혁신 내용이 등장”<sup>3)</sup>했다고 평가받는다. 그는 1913년 「조선불교유신론」을 통해 파괴를 통한 조선불교 유신을 주장했던 것처럼 1930년대에도 비판의 날을 세우며 조선불교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낙관적이지 않은 상황을 탈피할 것을 촉구했다.

한용운은 당시 조선불교를 자립성과 정체성이 위협받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보았다. 그의 진단은 아래와 같다.

그런데 조선 불교는 어떠한 현상이 되어 있는가. 내적 조건과 외적 정세 모든 것을 종합하여 보면 실로 위기일발 백척간두에 서 있다. (...) 아직도 사찰의 실권을 파지한 자는 시무를 모르는 구인물이 아니면 인순 고식의 평범한 인물이 많고, 소위 본산 주지중에는 관변에 아부하여 사악 비열한 행동으로 불교의 개신 운동을 저해하는 자류가 몰락전에 있으면서 아직도 다 청산하지 못하였다. 외적 정세로는 특수 사정을 가진 조선에서 더욱 이중 특수 사정 즉 사찰령의 간섭을 받게 되고, 적색 운동자의 반종교 행위는 이론으로 행동으로 일부일 농후하여 가고, 기타 유물주의·무정부주의·허무주의 등등의 모든 조류가 희산양릉, 종교와 종교를 압도하고도 남을 것같이 보인다.<sup>4)</sup>

한용운은 1930년대 조선불교가 처한 위기의 원인을 내부적 요인[내적 조건]과 외부적 요인[외적 정세]으로 나누었다. 그는 조선불교를 위협하는 내부적인 요인으로 시무를 모르거나 낡은 관습에서 편안함을 취하는 평범한 인물, 관변에 아부하는 주지를 꼽았다. 1930년대는 1910년대 일제가 제정한 사찰령이 조선불교에 체질화된 시기였다.<sup>5)</sup> 이는 사찰령으로 인해 일본 정부가 주지에 대한 임면권과 사찰 재산 운용의 가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게 되면서 주지들이 보인 타협적인 태도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태도에 대한 비판이었다. 그들이 비판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불교의 개신 운동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개신은 제도나 관습을 새롭게 고침을 이르는 말로, 이 말은 당대의 조선불교가 뒤쳐져 있다는 상황 인식을 전제로 한다. 한용운은 당시 조선불교가 과거의 폐단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발전된 문명의 종교로 나아갈 과제가 남아있다고 판단했음을 알 수 있다.

3) 김성연, 「일제강점기 잡지 『佛敎』의 간행과 그 성격」, 『선문화연구』 5, 한국불교선리연구원, 2008, 85쪽.

4) 한용운, 「조선불교의 개혁안」, 『한용운전집』2, 신구문화사, 1979, 161-162쪽.  
이 글의 인용문은 표기와 독해의 편의를 위해 잡지 <불교>의 번역문이 실린 『한용운전집』2를 기반으로 작성하였다. 원문이 실린 권호와 발간 시기는 본 글의 <5.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5) 김광식, 「사찰령의 불교계 수용과 대응」, 『선학』 15, 한국선학원, 2006.  
사찰령에 의해서 본말사 제도가 도입되면서 일본의 허락이 있어야만 각 사의 지주가 될 수 있었고, 사찰 재산의 처분이 가능했다. 일제강점기 조선불교는 일정부분 일본불교에 의지하는 측면이 있었다. 정치와 연결된 일본불교는 1895년 도성출입 금지 해금에 일조했고, 일본 정부는 공인종교를 설정할 때 불교를 포함시켜 조선불교는 조선시대 중엽에 산간으로 밀려났던 것과 달리 공식 종교라는 지위를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사찰령이 처음 제정되었을 때, 조선 불교계에서는 사찰령을 옹호하는 의견도 존재했다. 이 논문에서 김광식은 사찰령에 대한 조선불교계의 시대별 반응을 정리했다. 1910년대 조선불교계는 일본불교를 근대불교의 전범으로 배우고자 하며 사찰령에 대해 대체로 옹호적이었다. 1920년대에는 본말사 제도의 모순과 주지의 전횡으로 사찰령에 대한 저항이 있었지만, 일제의 개입으로 인해 또 다시 사찰령 옹호의 분위기가 우세해진다. 김광식은 이러한 시기를 지나면서 1930년대에 사찰령이 조선불교의 체질이 되었다고 보았다.

외부적인 요인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찰령의 간섭이다. 하지만 사찰령이라는 단어보다 자체보다는 “이중 특수 사정”이라는 수사가 중요하다. 이미 특수한 상황에 있는 조선이, 사찰령이라는 또 하나의 특수 사정에 빠지게 되어 조선불교가 위기일발에 상황에 선 것이라는 의미 때문이다. 사찰령은 조선의 사찰의 자체적인 의사 결정과 재산 운용을 봉쇄하는 법령이라는 점에서 ‘특수 사정’은 자치권을 빼앗긴 상황을 이르는 것임을 유추해볼 수 있다. 이에 조선이 처한 특수 사정은 자치권을 잃은 망국임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선불교의 첫 번째 외부 위협요인은 자치권 없는 나라인 조선의 불교라는 체질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외부 위협요인은 “적색 운동자의 반종교 행위”이다. 이는 사회주의자들의 반종교운동을 가리키는 말이다. 1925년 조선공산당이 조직되고 사회주의자들의 활동이 본격화된 이후 불교계를 비롯한 조선 종교계는 곤경에 빠지게 된다. 1930년대에 들어서 일본의 식민지 수탈이 점차 심해지고, 경제공황 이후로 일자리를 잃거나 임금이 삭감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 민중들이 사회주의의 유물사관에 호응하면서 반종교 운동 또한 거세졌기 때문이다.

한용운은 조선불교의 개혁을 꿈꾸며 앞서 지적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실제 활동과 글을 통해 개진해나갔다. 이 글에서는 잡지 <불교>에 나타난 1930년대 조선불교에 대한 한용운의 문제의식을 크게 불교 내적 폐단을 향한 지탄과 대응, 반종교운동에 대한 진단과 대응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한용운이 외부 위협요인이라고 보았던 “이중의 특수 사정”은 한용운이 불교개혁을 통해 궁극적인 해결하고자 했던 목표라고 할 수 있지만, <불교>에서는 체질 개선보다는 불교 내적 폐단으로 통합되어 논의되는 측면이 있어 해당 장에서 함께 논하고자 한다. 한용운이라는 불교계의 거목을 통해 1930년대 조선불교가 그렸던 불국토를 상상해볼 수도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또한 이 시기는 한용운이 50대를 맞이한 시기로, 그의 사상과 사회적 인식 또한 무르익은 시기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한용운 연구는 1910년대에 발간한 잡지 <유심>과 1920년대 출간 시집 『님의 침묵』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축적된 연구들은 한용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라는 성과를 얻었지만, 깊이만큼 폭을 확장시키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잡지 <불교>를 읽어어나가는 작업은 기존 연구의 성과를 토대로 1900년대와 1910년대에 나타난 한용운의 면모와 1930년대의 면모 사이의 변화나 단절의 지점을 확인하며 한용운을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 2. 불교 내적 폐단 인식과 대응 - 무지

앞서 조선불교의 내적 요인으로 꼽은 주지를 비롯한 불교계 수뇌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용운은 <불교>를 통해 조선불교의 통일기관을 설립할 것을 반복적으로 주장한다.<sup>6)</sup> 통일기관이 없어 전국에 다수의 사찰이 있음에도 “안으로 힘을 모을 수 없고 밖으로 적을 막을 수가 없”<sup>7)</sup>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당시 많은 승려들이 공유하고 있었고, 불교부흥을 위해 교무원 설립, 종헌 발표 등 온 불교계가 힘을 모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시도했다. 한용운은 통일기관의 부재를 지탄하는 글에서 소위 문명국이라 하는 국가들의 종교의 현황이나 종교 관련 법을 소개하면서 조선불교를 비판한다. 문명과 야만의 이분법이 글쓰기 전략에서 드러나는 것인데, 이를 통해 그가 조선불교를 ‘비문명상태’, ‘자치력 부족’, ‘(발전의) 초기 상태’ 즉, 야만의 자리에 놓고 있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그는 야만에서 탈피하기 위해

6) 통일기관 설립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한 글은 84-85 합호, 86호, 88호, 91호, 103호, 106호, <불교> 신집 2호, 4호, 10호, 17호로 총 10편에 이른다.

7) 한용운, 「조선불교를 통일하라」, 『한용운전집』2, 신구문화사, 146쪽.

서는 단결된 힘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전체를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통제 기관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더 나아가 한용운은 불교 통일기관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 조직 형태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전개한다. 당시 통일기관의 체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총본산을 합의로 정하는 방식과 새 기관을 설립하는 방식, 두 가지로 갈렸다고 할 수 있다. 기존 조선불교의 조직 체계인 본산제를 기반으로 하는 것은 같은데 통일기관을 31 본산 중 하나로 정하는 총본산제 방식과 새 통제 기관[중앙기관]을 세우는 방식이 그것이다. 주목할만한 지점은 통일기관의 조직 형태에 대한 그의 인식이 1930년대 전기와 후기에 달라진다는 점이다.

1931년 발간된 <불교> 88호에 실린 <조선불교의 개혁안>에서 한용운은 통일기관이 총본산 방식과 교무소 방식으로 조직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총본산과 교무소 방식 중에서 교무소 방식에 지지를 표했었다. “조선 불교계의 현금 정세로는 현존의 본산제를 그대로 두고, 따로 교무소(敎務所) 같은 것을 설치하는 것이 일반 승도(僧徒)의 인심 수습상 다소 편리할 것”<sup>8)</sup>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그가 염두에 두고 있는 현금 정세가 어떤 것인지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한용운이 기관의 회원들인 승도들의 개별성을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30년대 후기로 갈수록 한용운은 소속 개체의 개별적 자율성이 약하고, 보다 강력한 통제 기관의 조직 형태를 추구한다.

통제 기관이라는 것은 강력의 절제를 의미하는 것이요, 단합 기관이라는 것은 협조적 정신을 주안으로 하는 것이다. 강력적 절제는 의무적·복종적이며, 협조적 정신은 임의적이요 합동적이다. 그러므로, 강력적 통제 기관은 한번 성립한 뒤에는 주종 관계의 권리 의무가 정연하게 되므로 운용이 간편하고 질서가 문란치 아니하여서 유종의 미를 보기 쉽다. 임의적 협조 기관은 그 기관을 성립하는 분자 즉 개체의 권리가 동등이므로 임의로 그 기관을 성립할 수도 있지만 언제든지 그 기관을 임의로 파괴 혹은 유명무실에 돌려 보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협조 기관이라는 것은 그 기관의 유기적 분자되는 개인의 전부가 상당한 자각의 정도에 이르지 못한 사회에서는 도저히 아름다운 결과를 보기가 어려운 것이다.

조선 불교를 통제하기 위하여 중앙 기관을 설비한다는 것은 이론으로는 될 수 있을지언정 기대와 같이 실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다.<sup>9)</sup>

<불교> 신집 2호에 실린 이 글의 제목은 조선불교가 통제가 필요한 집단임을 의미하는 「조선불교 통제안」이다. 조선불교를 통제하기 위해서 통일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기초 아래 한용운은 다시 한번 통일기관의 형태를 논한다. 여기서 논하는 통일기관의 형태는 총본산제와 중앙기관제으로, 총본산제는 앞서 언급한 총본산제 방식으로 만들어진 기관을 말하고 단합 기관은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조직된 기관을 말한다. 양자 사이의 본질적인 차이는 총본산제는 ‘통제 기관’이라는 것이며, 중앙기관은 ‘단합 기관’이라는 점이다. 한용운은 통제 기관과 단합 기관의 특성을 나열하며 통제 기관의 필요성을 역설하는데, 나열된 통제 기관의 특성은 의무적, 복종적, 주종 관계, 질서이다. 반면에 중앙기관의 특성은 협조, 합동, 개체의 권리이다.

한용운은 전자의 방식인 통제 기관으로 조선불교의 통일기관이 조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용운은 1931년과 달리 “한번 성립한 뒤” 질서가 흔들리지 않는, 개체가 기관을 “임의로

8) 「조선불교의 개혁안」, 『한용운전집』2, 신구문화사, 163쪽.

9) 「조선불교 통제안」, 『한용운전집』2, 신구문화사, 179쪽.



파괴”할 수 없는 기관을 원한 것이다. 이와 같은 강력한 통제 주장은 연합 사무소, 총무원, 교무원, 종회 등의 여러 차례 통일기관 설립을 시도했음에도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기대와 실망의 과정이 반복되면서 한용운은 지금까지 성과를 내지 못했다면 조선불교는 자율적으로 성과를 일궈낼 수 없으며, 강력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자체적 결론에 다다르게 된 것이다.<sup>10)</sup>

통일기관에 대한 한용운의 태도 변화는 한용운의 사상을 이해하는 중요한 키워드들인 자유와 평등과는 거리가 있다.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개체 간 권리의 동등을 주장하는 협의체와는 거리를 두고, 개인의 희생을 감수하도록 독려하는 듯한 통제 기관의 형태에서 목표를 향해 맹목적으로 돌진하는 전체주의적 집단으로의 변모 가능성마저도 엿보인다. 이와 함께 한용운이 생각하는 조선불교의 통일기관 설립 실패 원인을 살펴보면, 1910년대의 계몽주의와 사회진화론의 굴절을 볼 수 있다. 한용운은 “우준 몰상식(愚蠢沒常識)한 일부 승려”<sup>11)</sup>들이 협의기관에서 정한 사항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일기관이 자리 잡지 못한다고 보았다. 이때 지목된 승려들은 사찰령의 폐단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신과 사찰의 이익만을 중시하는 주지들인데, 그들의 사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태도를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무지, 어리석음의 문제로 보는 한용운의 관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간섭의 책임을 온전히 소관 당국에만 돌려 보낼 수는 없는 것이다. 왜 그러나 하면,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은 땅이 낮은 까닭임과 같이, 그러한 간섭을 받게 되는 것은 당사(當寺) 승려의 자치력이 부족한 까닭일 것이다. 사람은 항상 원천우인(怨天尤人)보다 반성이 필요하니라.<sup>12)</sup>

「주지선거에 대하여」는 조선불교의 행정적 대표인 주지를 선출하는 선거에서 일어나는 ‘파쟁의 알력’과 ‘행정 관청의 간섭’을 비판하는 글이다. 파쟁의 알력은 정정당당하지 않은 선거 운동에 대한 비판이며, 행정 관청의 간섭은 일제가 조선불교에 엄정한 태도를 보이는 듯 하나 지주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고 있어 실질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있음에 대한 비판이다. 인용한 글은 일제의 간섭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장의 마지막 문단이다. 전체 글에서 한용운은 거대한 힘이 작용하는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다가 그 책임이 일정 부분 “자치력이 부족한” 승려들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어찌할 수 없는 갑을 관계로 인해 생기는 갈등을 살피지 않고 주지의 무지로 환원시켜버린 것이다. 무지·야만에서 벗어나기 위해 통일기관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가 통일기관이 실패하는 이유를 무지로 지적하는 것은 무지를 탈피할 생산적인 방법을 마련하지 못한다.

이러한 사유에는 열패감으로 굴절될 여지가 있으나 한용운은 친일로 돌아선 여타의 사회진화론자들과 달리 민족주의적 입장을 견지한다. 한용운은 조선 불교가 과도기에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한용운은 불교청년들이 책임감이 부족하고 다른 문명의 종교인들보다 미비한 측면이 있다고 진단한다. 하지만 그들이 점차 발전해나가고 있다며 그들의 앞으로의 활동을 지지

10) 자각이 일정 정도에 이르지 못할 경우, 강력한 통제 기관이 필요하다는 그의 사고방식은 불교청년들의 조직에 대한 인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불교> 68호에 실린 「불교청년총동맹에 대하여」에서 한용운은 조선의 불교청년들을 “단체적 훈련이 부족하고 사회 생활의 책임감이 아직 계몽의 과정에 있지 않다고 할 수가 없”다고 진단하고, 그들의 조직 형태는 ‘동맹’보다 통제 정도가 높은 ‘회’ 혹은 ‘당’ 형태가 적절하다고 권한다. 이는 <불교> 100호, <불교> 신집 10호 「불교청년운동을 부활하라」에서도 “불교 청년 기관을 회 혹은 당으로 갱신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며 반복된다.

11) 「불교사업의 기정방침을 실행하라」, 『한용운전집』2, 신구문화사, 220쪽.

12) 「주지 선거에 대하여」, 『한용운전집』2, 신구문화사, 199쪽.

한다.<sup>13)</sup> 패와 좌절의 과정을 과도기로 보는 한용운의 낙관주의는 인과율에 대한 한용운의 강한 믿음에서 기인한다.

이로 미루어 미래의 만유 역사도 찬연한 인과율로 진행될 것을 알기에 조금도 주저할 것이 없을 것이다. 가령 어느 때에 어떠한 인인지사(仁人志士)가 대중을 위하여 피와 땀을 얼마나 흘린다든지, 어느 때에 어떠한 국가의 흥망이 정반대로 번복된다든지, 어느 때 어느 곳의 어떠한 가인 재자(佳人才子)의 연애적 로맨스가 어떻게 귀착된다든지, 나이애가라 폭포가 평지가 된다든지, 부사산(富士山) 상에 배를 매게 된다든지 등등, 모든 역사적 예정선이 임의의 자유를 용허하면서 확연히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sup>14)</sup>

한용운은 「우주의 인과율」에서 세상의 모든 일은 인과율의 법칙 안에 있다는 불교 진리를 설명한다. 인과의 세계에서는 국가의 흥망도, 개인의 연애도, 자연물의 변화도 모두 과거에 있었던 일을 인(因)으로 한 결과이다. 인과율은 자칫宿命론과 혼동되기 쉬운데宿命론은 미래가 정해져 있어 개인의 자유의지가 작동하지 않지만 인과율에는 개인이 자유롭게 한 행동이 다음 결과를 만든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인간이 과거의 한 행동과 현재 상황 사이에 관계가 있듯이 미래는 현재의 행동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인과율의 핵심이다. ‘선인(善因)은 선과(善果)를 낳는다’라는 진리가 더해지면 현재 겪는 어려움, 실패, 좌절은 결과를 만드는 과정 혹은 과도기에 불과한 것이 된다.

### 3. 외적 위협 인식과 대응 - 반종교운동

1930년대 조선불교를 위협하는 외적 요인은 반종교운동이다. 반종교운동은 모든 종교를 아편으로 규정하며 당시 세계의 모든 종교를 위협했다. 조선불교계에서도 반종교운동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한용운도 종교인으로서 반종교운동에 대한 자신만의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sup>15)</sup> 모두 반종교운동으로 통칭하지만, <불교>에서 실린 한용운의 글에서는 반종교운동과 그 사상적 기반인 사회주의 사이에 미묘한 간극이 존재한다. 반종교운동이라는 행위 자체에는 적대적이지만, 사회주의 사상은 긍정적인 시선을 갖고 있다.

반종교운동과 사회주의 사상에 대한 한용운의 태도를 각각 정리해보면, 반종교운동에 대해서는 조선불교를 백척간두에 세운 요인이라고 명명한 것에 비해서는 큰 무게를 두지 않는 듯하다. 왜냐하면 한용운에게 인간이 종교를 갖는다는 것은 순리이기 때문이다. 그는 84·85 합호에 실린 「반종교운동에 대하여」에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위해, 공포, 불안을 피하기 위해 종교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종교를 믿지 않는다는 반종교운동자들조차도 불교도들이 부처를 섬기듯 마르크스를 섬긴다는 그의 근거가 된다.

반종교운동은 종교를 소멸시키지 못하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다. 그 예시로 <불교> 신집 11호의 「공산주의와 반종교 이상」에서 러시아의 종교들은 1917년 공산당 혁명 이래로 반종교운동이 일어나 수난을 겪었지만, 최근에는 공산당 청년 동맹원들과 농민들 사이에서 전보다 더 단단한 종교심의 발흥이 일어나고 있다며 반종교운동의 예정된 실패를 암시한다. 또한 한용운은 반종교운동을 행하는 사회주의가 과학적 운동을 표방하지만, 그에 대한 반작용인 반-반종교 현상이 일어난다며 그들이 말하는 과학이 완전무결한 것이 아니라고 비판한다.

13) 「불교신도 중앙간부에게」, 『한용운전집』2, 176쪽.

14) 「우주의 인과율」, 『한용운전집』2, 299쪽.

15) 김종인, 「1920-30년대 불교계의 사회주의에 대한 인식」, 『대각사상』 18, 대각사상연구회, 2012, 329-355쪽 참조.

近日에 既成宗教와 反宗教運動은 社會的으로非常한問題가 되야있다 既成宗教로서는 排他的敵對行爲만을 取하나니보다 反省이필요하다 反宗教理論은 近代의창조도아닌同時에 그대지過大評價할것도아니나 그러나 또한 넘우冷視하야 一笑에付할것도못되는것이다 스스로內省하야 非難的의이될만한事實이있으면 고치고 없으면 더욱힘쓸뿐이다<sup>16)</sup>

불교의 당위성, 변증법의 진리를 염두에 두고 있기에 한용운은 반종교운동이 불교의 교리를 위협할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들을 배척할 것이 아니라 과대평가하지도 말고, 냉시하지도 말고 반종교운동이 가리키고 있는 자기의 허물을 고치는 내부 반성의 기회로 삼자고 말한다.

한편 반종교운동의 사상적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사회주의에 대하여 한용운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1920년대에 한용운은 조선이라는 전제 아래 민족운동과 사회운동은 같은 최종 목적이 있으므로 서로 부합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sup>17)</sup> 또한 좌우합작 단체인 신간회에서 활동했으며 해소 이후에도 신간회 사업의 꾸준한 관심을 가졌다.<sup>18)</sup>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보아, 192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 한용운이 사회주의자들을 타협과 대화의 상대로 여겼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sup>19)</sup>

나아가 사회주의가 주장하는 인민 해방은 곧 불교에서의 구제, 보살행과 연결지점이 있다고 여긴다. 불교가 시대와 대중에 유리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한용운은 대중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종교도 그에 발을 맞추어야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유심론에 머물지 않고 사찰의 고정 재산을 운용하여 생산 기관을 설립해서라도 교도의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급진적인 의견을 내놓기도 한다. 그것이 “불교의 도제 중생하는 본의”이며, “적색 프로 대중의 결사적 반종교 운동”에 대응하는 방식이라고 말한다.<sup>20)</sup> 이처럼 기존의 관행을 넘어서는 그의 대응은 “포괄적인 중생구제를 위해 종교를 부정하는 유물론을 뛰어 넘”<sup>21)</sup>는다는 평가를 받는다.

종교, 그 중에도 불교와 같은 것은 교리 자체에 있어서 평등주의·비사유주의(非私有主

16) 「권두언」, <불교> 98호, 1931년 3월호, 1면.

17) 「사회운동과 민족운동 (一)」, 동아일보, 1925년 1월 2일자, 3면.

18) 김경집, 「신간회 경성지회장 만해의 독립운동」, 『선문화연구』 18집, 한국불교선리연구원, 2015, 73쪽.

19) 이러한 잠정적 결론에 대한 반대 의견도 존재한다. 김광식(「한용운의 불교사회주의」, 『불교학보』 85집, 154-155쪽.)은 한용운이 사회주의와 반종교운동에 대해 비판적이었으며, 그의 입장을 다섯 가지로 정리하는데 그 내용을 옮겨적는다.

첫째, 한용운의 반종교운동에 대한 비판, 반박의 입장은 강경하였다.

둘째, 한용운은 결코 좌파적인 사회주의 이념을 갖고 있지 않았다. 달리 말하면 한용운은 사회주의적인 인사가 아니었다. 그래서 사회주의에 친화적, 우호적인 생각이 전연 없었다.

셋째, 불교에 내재된 사회주의적인 성격을 정리하여 ‘불교사회주의’라는 주제로 정리, 집필할 필요성을 갖고 있었다. 이는 당시 급증하고 있는 적색노선 및 반종교운동에 대한 위협을 한용운이 직시하였던 것에서 나온 것이라고 본다. 그는 반종교운동은 실패할 것이라고 보면서도, 불교 내부의 부조리는 제거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넷째, 불교는 모든 주의와 제도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이해하였다. 때문에 불교는 좌파 사회주의에 구속될 수도 없고, 구속되지도 않는다고 보았다.

다섯째, 불교는 해당 시대의 방편을 갖고 중생들을 제도하는 것이 본질적인 임무이다. 그래서 한용운은 ‘불교사회주의’라는 저술을 집필하려는 의도를 피력하였던 것이다.

20) 「조선불교의 개혁안」, 『한용운전집』2, 164-166쪽 참조.

21) 강미자, 「한용운의 신간회와 반종교운동인식에 대한 일고찰」, 『한국불교학』 48, 한국불교학회, 2007, 535쪽.

意), 즉 사회주의의 소질을 구유(具有)하고 있는 것이나, 그것을 설명하려면 상당한 시일과 지필(紙筆)을 요하겠으므로 후일의 기회로 미루거니와 종교라는 것은 시대와 근기(根機)를 맞추어서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본령인 이상,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나 하는 모든 주의와 제도의 구속을 받지 아니하고, 그 시대 그 중생에 적응한 방편으로 중생을 제도하는 가장 현실적·과학적 실행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본주의 시대에 있어서는 그 시대에 적응한 방편이 있고, 사회주의 시대에 있어서는 그 시대에 적응한 방편이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종교라는 것은 인간 사회를 철학적·윤리적 혹은 정치적으로 어느 제도를 구성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 어느 때 어느 사람을 물론하고 그의 기연(機緣)대로 제도하여 마지않는 것이 종교의 금도(襟度)요 본령이다.<sup>22)</sup>

한용운은 사회주의를 불교에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발휘하는 근기의 한 종류로 인식했다. 자본주의나 사회주의가 제도라면 불교는 그 시대에 알맞은 방편으로 제도를 선택한다. 사회주의나 자본주의 같은 개별 원소들을 불교가 안고 있는 집합을 그려볼 수 있는데, 이러한 도식화를 통해 사회주의와 불교가 각기 다른 층위에 있음을 명확히 할 수 있다. 불교는 “철학적·윤리적 혹은 정치적”인 의도를 모두 초월해 중생을 제도(濟度)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따라서 불교와 사회주의는 같은 것은 아니지만, 서로 다른 것도 아니게 된다. 이러한 모순은 “유심을 부인하는 유물론도, 종교를 배척하는 반종교운동도 모두가 일념에서 건립되는 것”<sup>23)</sup>이라는 그의 문장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의 방식은 「조선불교유신론」에서 보여준 모든 것이 불교 안에 내재하여 있다는 불교 교리의 내적 충실함으로 가닿는다.<sup>24)</sup>

사회주의를 방편으로 대중을 포교하려는 한용운의 의도가 잘 담겨 있는 것이 1937년 <조선일보>에 연재한 소설 『흑풍』이다. 한용운은 불교가 사회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글을 통한 포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를 위해 한글 장경을 배포하는데 힘쓰는 한편 한글로 소설을 써 연재하기 시작한다.<sup>25)</sup> 한용운이 추구했던 소설은 당시의 구소설이면서 내용상으로 불교의 진리를 담고 있는 소설이다. 그 내용은 “주인공의 비범한 탄생과 기인한 성공·피화(避禍)가 부처님과 도사의 힘”<sup>26)</sup>을 담고 있어 소설을 읽고 나면 신앙을 가지도록 유도한다.

소설 『흑풍』은 주인공 왕한이 자신을 희생할 각오로 혁명에 나서는 과정을 다룬 소설이다. 소설 곳곳에 혁명에 대한 열망이 보이지만 본격적인 혁명 과정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황 썩, 원세개 등의 중국 정치인들이 등장하고, 결말에서 왕한이 우창으로 향한다는 점에서 1911년 신해혁명을 소재로 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이 소설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혁명

22) 「세계 종교계의 회고-불기 2958년」, 『한용운전집』2, 277쪽.

23) 「권두언」, <불교> 89호, 1931년 9월호.

24) 이선이, 「‘문명’과 ‘민족’을 통해 본 만해의 근대 이해」, 위의 책, 참조.

25) 한용운은 「역경의 급무」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효과적인 포교의 방식은 문자를 이용한 것이기에 불경을 한글로 배포할 때 더 큰 포교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고대 소설이 조선시대 불교 포교에 큰 효과를 미쳤다는 사실을 든다. 그는 조선시대 중엽 이후 조선불교가 명맥을 이어갈 수 있었던 이유를 ‘고대 소설’과 ‘걸승’으로 꼽는다. 이때 고대 소설은 별주부전과 같은 고소설을 말하는데, 소설의 내용이 경전 내용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 불교도가 지은 고대 소설이 퍼지면서 불교 사상이 민중들에게 퍼져 조선시대에 불교의 명맥이 이어졌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부처가 중생의 근기에 맞춰 설한 것이 불경이기에 소설보다 불경의 포교 효과가 더 크다는 주장으로 확장된다. 이 추측의 타당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 글에서 한용운의 소설관을 들여다볼 수 있다. (「역경의 급무」, 『한용운전집』2, 224-227쪽 참조.)

26) 「역경의 급무」, 『한용운전집』2, 226쪽.

에 참여하기 전까지 왕한이 행한 보살행, 왕한과 그의 아내가 만나게 된 인연, 인에 따라 과가 나타나는 인과율 등 불교의 진리이다. 앞서 한용운이 밝힌 고대 소설의 문법을 따르는 소설이라 할 수 있다. 이 소설의 전반부에서 한용운은 사회주의를 방편으로 이용한다.

(...) 그러니까 구차한 사람으로 원통한일을 당하지안코 돈만흔자로 무리한일을 행하지 못하도록 사회제도를바로잡지아니하면 아니될것입니다』

머리를 길게깎고 로국식양복을입은 스물세살쯤 되야보이는 씩씩한 청년이 벌떡일어서면 서상당한 사회주의리론을 연설체로 설명하얏다 그청년은 말을한뒤에 마당가에가서 뒤뚱을 끼고서서 먼하늘을 바라보얏다

거기모은 사람들은 대개가늘근사람들인데 그청년의말을 아라듯는사람이 별로 만치못하얏다<sup>27)</sup>

왕한이 등장하기 이전까지 『흑풍』은 사회주의 계열의 농촌 소설처럼 보인다. 소작농이 지주의 횡포로 인해 고통받는 모습을 자세하게 서술하기 때문이다. 소작농이었던 서왕한의 아버지 서순보는 지주인 왕언석에게 땅을 빼앗겼다가 딸까지 첩으로 바쳐야 하는 억울한 상황에 부딪힌다. 인용한 장면은 왕언석의 횡포가 마을에 소문이 나자 동네 노인들이 앞에서 사회주의자인 청년이 왕언석과 지주와 자본가를 인정하는 사회제도를 비판하는 장면이다. 이 청년은 다시 등장하지 않으며, 이후에 이처럼 사회주의적인 발언이 등장하지도 않는다. 이처럼 개연성 없는 등장을 삽입한 것은, 한용운이 사회주의와 불교가 가진 공통의 문제의식을 표출하기 위해서였다고 짐작해볼 수 있다. 이 장면에서 의미심장한 부분은 사회주의자 청년이 하는 말을 동네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한다는 점이다. 청년의 연설은 아무런 울림을 남기지 못했다. 하지만 왕한은 직접 왕언석과 다른 마을의 자본가를 응징하고, 훗날 돈을 빈민굴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며 생산시설을 지을 것을 권한다. 알아듣지 못 할 말을 하는 청년과 직접 실행의 옳기는 왕한을 대조하면서 한용운은 중생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대중불교의 필요성을 부각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 4. 결론

1910년대 사찰령 제정 당시부터 사찰령에 반대하며 날카로운 상황 판단을 보여줬던 한용운은 1930년대에도 조선불교를 위협하는 대·내외적 요인들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그의 눈에 당시 조선불교는 사찰령을 통한 일제의 간섭과 내부적인 폐단으로 인해 문명의 종교로 나아가지 못한 답보 상태에 있었고, 세계적인 흐름이었던 사회주의의 반종교운동으로 인해 위기를 맞고 있었다. 이 시기에 한용운은 불교 종단의 기관지였던 <불교>의 편집장이 되어 23권의 잡지를 발간하는 동안 총 29편의 글을 게재하며, 잡지를 통한 의견 개진에 적극적이었다. <불교>의 휴간과 함께 편집장에서 물러났지만, 복간 이후에도 <불교> 신집 초기에 꾸준히 글을 기고했다.

이때 한용운이 가장 많이 다룬 주제는 불교 통일기관에 대한 것이었다. 한용운은 당시 조선 불교계를 통일기관이 부재해 그의 궁극적인 목표인 정·교 분립을 추진해나갈 힘을 모을 수 없는 상태라고 진단하였기 때문이다. 통일기관에 대한 한용운에 생각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변화하는데 <불교>와 <불교> 신집에서 그 양상을 확인해볼 수 있다. 1930년대 초반 <불교>에서는 조선불교에 필요한 통제기관을 공통된 의제 아래 서로 협조하는 단합 기관 형태로 상상

27) 『흑풍』 24, <조선일보>, 1935년 5월 7일자, 5면.

했다면, 1930년대 후반 <불교> 신집에서는 한번 결정된 사안에 대한 폐기가 불가할 만큼 강력한 질서를 가진 통제 기관을 요망한다. 이는 교무원 창설, 종헌 발표 등 불교계 통합을 위한 시도가 계속해서 미수에 그치면서 축적된 실망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 실망감은 주지로 통칭되는 조선불교계의 인사들의 '무지'와 '자각 없음'으로 굴절된다. 주지들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개인의 이기심 때문이 아니라 무지에서 기인한 것이며, 일제의 간섭마저도 승려의 자각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관점은 그에게 1910년대부터 각인되어 있던 문명과 야만의 메커니즘이 작동한 결과로 보인다. 한용운은 문명의 종교로 나아가는 데에 장애가 되는 이들을 야만의 자리에 놓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촉구한다. 이러한 문명진화론적인 사유는 조선불교 자체를 야만으로 놓아 사유 주체 자신을 스스로 열패감에 빠지게 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한용운은 조선과 조선불교가 문명으로 가는 과도기에 있으며, 언젠가 그곳에 갈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계속해서 견지한다. 이는 한용운이 승려로서 불교적 인과율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과거의 행동이 현재를 만들고, 현재가 미래의 결과를 만드는 인과율이 있기에 그는 조선불교와 민족의 주체성을 지키려는 현재의 노력을 멈추지 않을 수 있었다.

한용운이 조선불교계 내부적 폐단과 함께 조선불교를 위협하는 외부 요인을 꼽는 것은 반종교운동이다. 반종교운동은 1930년대 조선인들의 정치·경제적 어려움이 극에 달하면서 한반도를 휩쓴 사회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한다. 반종교운동과 사회주의는 떼어 수 없는 친연성을 가지고 있는데, 한용운은 양자에 대한 미묘한 태도 차이를 보인다. 반종교운동에 대해서는 위기의 원인으로 꼽은 것 치고는 크게 신경 쓸 일이 아니라며 현재 기성종교의 문제점을 발견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권한다. 사회주의에 대해서는 반종교운동에 대한 태도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한용운은 반종교운동에 대해 종교의 당위성과 변증법의 원리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유한한 존재이기에 가지는 인간의 존재론적 불안이 자연스레 종교심을 발흥시키며, 타국에서는 이미 반종교운동가들마저도 종교로 마음을 돌리고 있다고 러시아와 스페인 등을 예시로 소개한다. 이는 반종교는 종교에 대한 반동으로, 변증법적으로 '종교-종교에 대한 반동-반종교에 대한 반동'이라는 또 다른 반동을 낳을 것이기에 반종교운동은 곧 사그라들 것이라고 보았다.

반면에 계급적 불평등을 직시하고 혁명을 통해 민중의 삶을 바꾸고자 하는 사회주의의 미덕은 불교의 구세주의와 통하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한용운은 사회주의와 불교 사이에 유사한 소질이 있음을 밝히는 한편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나 기타의 다른 사상과 마찬가지로 시대마다 바뀌는 하나의 흐름이지만, 종교는 그보다 더 큰 범주라고 주장한다. 종교는 때에 따라 중생들이 필요로 하는 사상들을 취해 중생들이 정신적 안녕을 얻을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불변의 것이라는 것이다. 한용운은 1930년대 중생들의 근기에 사회주의가 닿아있다고 보았고, 부처가 중생의 근기에 따라 설법을 달리했듯이 사회주의를 포교에 녹여내고자 했다. 그 결과물이 1930년대 후반 <조선일보>에 연재한 소설 『흑풍』이다. 『흑풍』에는 사회주의자가 나와서 시골 촌부들이 알아듣지 못할 혁명의 연설을 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 이후로 사회주의와 관련된 내용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빈부 격차·노동자들의 절박한 삶을 왕한이라는 영웅적 인물이 구제하는 내용이 전개된다. 이는 한용운이 불교적 특성이 나타나는 고전 소설의 문법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다.

1930년대 조선불교는 대내외적으로 불안한 상황에 있었다. 한용운은 그러한 현실을 직시하는 한편 종교에서 기인한 낙관주의적 전망을 잃지 않는다. 1910년대와 비교하였을 때, 그의 현실인식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으나 개혁의 방식은 이전보다 적극적이고, 대중적인 방식으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5. 한용운의 잡지 <불교> 기고문 목록(1930년대)

84-85호	86호	87호	88호	89호	90호
1931.07.	1931.08.	1931.09.	1931.10.	1931.11.	1931.12.
권두언	권두언	권두언	권두언	권두언	권두언
조선불교를 통일하라	불교청년총동맹에대하여	정교를분립하라	조선불교의改革案	타이의 종교	우주의인과율
만화	만화(난외)	만화	중국불교의현상		중국혁명과宗教受難
반종교운동에대하여	비, 바람	인도불교운동에대한片信	산촌위녀를저녁		歲暮
		반달과少女			

91호	92호	93호	94호	95호	96호
1932.01.	1932.02.	1932.03.	1932.04.	1932.05.	1932.06.
권두언	권두언	권두언	권두언	권두언	권두언
사법개정에대하여	선과인생	세계종교계의회고	신년도의불교사업은얼어할까	불교신임중앙간부에게	신앙에 대하여
원숭이와 불교	불교동(지나)점연대고		만주사변과 일중불교도의대치		

97호	98호	99호	100호	101-102호	103호
1932.07.	1932.08.	1932.09.	1932.10.	1932.12.	1933.01.
권두언	권두언	권두언	권두언	권두언	권두언
	조선불교 해외진전을요망함	교단의 권위를 확립하라	불교청년운동에 대하여		불교사업의기정방침을 실행하라
			본지제백호기념좌담회		한글經印出을마치고
			해인사순례기		

104호	105호	106호	107호	108호
1933.02.	1933.03.	1933.04.	1933.06.	1933.07.
권두언	권두언	권두언	권두언	권두언
종헌발포기념식을보고	현대아메리카의종교	교정연구회창립에대하여	신노서아의종교운동	선과자아
재경불교유지간담회				

불교 신제 1 1937.03.	불교 신제 2 1937.04.	불교 신제 3 1937.05.	불교 신제 4 1937.06.	불교 신제 5 1937.07.	불교 신제 6 1937.08.
불교 속간에 대하여	조선불교 통 제안	역경의 급무	주지 선거에 대하여	선외선	정진
철혈미인	철혈미인		심우장설		

불교 신제 7 1937.10	불교 신제 8 1937.11.	불교 신제 9 1937.12.	불교 신제 10 1938.01.	불교 신제 11 1938.03.	불교 신제 12 1938.05.
계연	체논의 비시 부동론과 승 조의 물불천 론	조선 불교에 대한 과거 일년의 회고 와 신년의 전망(추정)	불교 청년 운 동을 부활하 라	공산주의적 반종교 이상 은 과연 실 현될 것인가	나찌스 독일 의 종교
산장촌목	산장촌목	산장촌목	산장촌목		
		심우장			

불교 신제 13	불교 신제 14	불교 신제 15	불교 신제 17	불교 신제 20
1938.06.	1938.07.	1938.09.	1938.11.	1940.01.
불교와 효행	인욕	삼본산회의를 전망함	총본산 창설 에 대한 재인 식	<불교>의 과 거와 미래



## 6. 참고문헌

### 1) 기본 자료

잡지 <불교> 84·85합호-108호

잡지 <불교> 신집, 1-20호

『한용운전집』2, 신구문화사, 1979

### 2) 도서 및 논문

김광식, 『근현대불교의 재조명』, 민족사, 2000

이선이, 『근대문화지형과 만해 한용운』, 소명출판, 2021

김성연, 『일제하 불교 종단의 형성과정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강미자, 「한용운의 신간회와 반종교운동인식에 대한 일고찰」, 『한국불교학』 48, 한국불교학회, 2007

김경집, 「신간회 경성지회장 만해의 독립운동」, 『선문화연구』 18, 한국불교선리연구원, 2015

김광식, 「사찰령의 불교계 수용과 대응」, 『선학』 15, 한국선학원, 2006

김광식, 「한용운의 불교사회주의」, 『불교학보』 85,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2018

김성연, 「일제강점기 잡지 『佛敎』의 간행과 그 성격」, 『선문화연구』 5, 한국불교선리연구원, 2008

김종인, 「1920-30년대 불교계의 사회주의에 대한 인식」, 『대각사상』 18, 대각사상연구회, 2012.

## 「한용운의 1930년대 조선불교 진단과 대응 양상」에 대한 토론문

아주대 곽명숙

1930년대 불교계의 대표적인 잡지이자 종단의 기관지인 『불교』에 발표된 한용운의 논설들에 대한 선생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한용운이 편집을 맡기 전후, 그리고 그가 편집장을 그만 둔 이후 『불교』지의 성격은 상당히 달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용운 또한 이 잡지의 편집장을 맡으면서 논설을 비롯한 상당히 많은 글들을 이곳에 발표하였습니다. 한용운이 문사에 머무르지 않고, 독립운동가이며 종교사상가라는 다면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불교사적인 측면에서 한용운을 이해하는 것은 한용운 연구에서 필수적이며 보다 연구가 진전되어야 할 지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잡지를 살펴보는 연구도 그러한 점에서 한용운의 조선불교 인식을 살펴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용운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고자 선생님의 발표문에 몇 가지 부가적인 질문을 여쭙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선생님께서 한용운이 1930년대 조선불교에 대해 “이중(의) 특수 사정”이라고 언급한 부분을 강조하셨는데, 사찰령으로 유발된 불교계의 문제점에 대해 한용운이 일본의 식민지 정책으로 인한 압박과 문제점을 염두에 두신 의도이신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한용운이 종단의 기관지이기도 한 『불교』의 편집장을 맡게 된 사정과 그 이후 종단의 노선과 한용운의 의견이 갈라지며 더이상 같이 하지 않게 되는 사정에 대해 더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통일기관의 조직 형태에 대한 그의 인식이 달라졌다는 부분에서 그의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종단의 형태가 달라지는 것이 계기가 된 것은 아닌가, 통일기관의 성격에 대한 그의 태도 변화가 의미하는 바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반종교운동으로서 사회주의 사상에 대한 한용운의 시각을 다루신 부분입니다. 한용운이 『불교』에 발표한 글 중 눈에 띄는 것이 세계종교계를 소개한 부분과 이러한 사회주의를 배척하기보다 중생 구제의 한 방편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드러낸 부분이기도 합니다. 신간회 입장에 입각한 중도적 입장이나 현실적 태도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가 교리적인 측면에서 이해한 사회주의와 불교의 공존이나 병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선생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선생님의 이번 연구에서 다루지 않으신, 『불교』에 실린 한용운의 여타의 글들에 대해서는 그 연구적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关于季文兰“榛子店题壁诗”的燕行文学史考察

## 청조 여성 시인들의 제벽시와 연행 시인들

이학당(중국 산둥대학교)

### 一. 榛子店与燕行诗

燕行文学史，是朝鲜朝文人出使明、清两朝都城燕京的七百余年漫长历程中持续书写而成的纪实文学史，同时也是中朝（韩）两国古典文学乃至传统文化交流史中的宏篇巨秩。在这个独特的历史时空中，榛子店（今河北省唐山市滦州市榛子镇）原本只是朝鲜燕行使团漫漫旅程中歇马休憩的一个再普通不过的驿站，但由于明清易代之际因战乱被掳往盛京（今沈阳）的一位江西籍女诗人季文兰的缘故，成为朝鲜文坛燕行诗人途径之时必欲一探究竟并吟诗作赋的著名景点，并由此产生了“一自息庵诗话后，人人都说季文兰”的独特文化现象。

1)

关于季文兰题壁诗的研究，中国学界最早也是最有影响的论文是葛兆光的在“想象异域悲情：朝鲜使者关于季文兰题诗的两百年遐想”<sup>2)</sup>，该论文从明清换代史及中韩关系史角度考察了朝鲜历代使者季文兰叙事的历史文化特征，认为季文兰的题诗故事是“凭想象改塑历史”、“悲剧演成正剧”，而朝鲜众多使者由于恪守程朱理学，更加道德严厉，以至于因为季文兰没有“死而全节”而由“同情之泪变成斥责之声”。此后也有学者从被掳妇女的命运和燕行文学角度对季文兰现象作了一定解读。<sup>3)</sup>韩国学界在这一领域的研究，代表性的成果是李登彦、李继妍的“关于江南女人季文兰题壁诗的朝鲜使行诗的观点研究”，对历代朝鲜使者的有关季文兰作诗主要从“同情”和“责难”两个视角作了详细的整理和考察，提出了季文兰故事的悲剧色彩不仅是胡汉矛盾和民族的时代的矛盾所导致，还由于被认知为“爱的历史传奇”才使得故事广为传播的观点。在以上既有成果的基础上，本研究拟从燕行文学史和文学地理学角度出发，对榛子店地区的题壁诗传统以及燕行使者现场赋诗和文献赋诗的文学史意义作新的考察。

从与燕行录有关的文集资料来看，第一次以‘榛子店’为题的诗作者是朝鲜中期著名文臣阳谷苏世让（1486-1562）。阳谷精通“松雪体”书法和律诗，于1533年（嘉靖12）以进贺使身份出使明朝，在其朝天诗作中首次提及“榛子店”这个地名。

榛子店前朝日晖，黄尘如雾马如飞。家家桃杏红初绽，风物依然故国非。

五夜邻鸡催早发，睡余春气尚瞢腾。好风忽送三声笛，人在琼楼第几层。<sup>4)</sup>

1) 朴齐家，《榛子店》，贞蕤阁三集，影印标点版《韩国文集丛刊》第261辑第523页。以下引用改丛刊资料将只标注辑数和页码。

2) 葛兆光，“想象异域悲情：朝鲜使者关于季文兰题诗的两百年遐想”，《中国文化》第22期，2005。

3) 杨海英，“朝鲜士大夫的季文兰情结和清初被掳妇女的命运”，《清史论丛》2007年号，中国广播出版社，2006；刘顺利，“朝鲜文人李海应《蓟山纪程》细读”，北京，学苑出版社，2010。

4) 苏世让，《榛子店》，诗，阳谷先生集卷之三，第23辑第331页。

诗中描写了桃杏初绽三月阳春的早晨，在榛子店歇息一晚的使团上下起早赶路，睡眼朦胧地骑在马上，仿佛行走在琼楼玉宇之上。在另一首《七家岭用壁上韵》诗中，阳谷写道：“君恩未报年华促，独夜空床旅梦惊。”<sup>5)</sup>显然，该诗是次韵其旅社的题壁诗和作而成，诗中阳谷表明以国事出使明朝，虽身在旅途，日夜不忘君王知遇之恩，希望不辱使命，尽快功成归国的急迫心情。七家岭在榛子店东35里，可见1533年前后旅店墙壁题诗已经成为途径榛子店一带文人墨客的传统雅趣，朝鲜诗人阳谷也诗兴大发，欣然次韵成章。这种题壁文学传统为一百五十年之后季文兰“榛子店题壁诗”流芳东国文人之间提供了可信赖的史实依据。

阳谷朝天使行一年之后，湖阴郑士龙（1491-1570）于1534年（嘉靖13）以冬至使身份出使明朝，在其《朝天录》中也有‘榛子店’诗：

税驂榛店前头路，打具唐家后面堂。破费茶瓯供底事，日斜消得问程忙。<sup>6)</sup>

湖阴诗中与阳谷一样，描写了人在旅途的使者虽然选择了在榛子店的唐家旅社下马暂作休憩，但眼见日头西斜，急忙出发奔向下一站旅程的迫切心情，而这种急迫感也使得诗人没有了仔细体验墙壁题诗的心理裕余和和作雅兴。

1549年（嘉靖28），艮斋崔演（1503-1549）也以冬至使身份出使燕京，其使行路线也是途径上述两地：“朝发七家岭，午食榛子店”，很不幸的是，艮斋返程途中身染重疾，病死在了平壤，真正兑现了他平生“许国在尽瘁，报主宁避险”的誓言。<sup>7)</sup>

此后以‘榛子店’为题的燕行诗创作就到了几十年后的壬辰倭乱时期，诗的作者几乎都与参加抗倭的明朝将领有过密切交流关系。李廷龟（1564-1635），字圣徵，号月沙、保晚堂、癡庵、秋崖、习靜，樗軒李石亨玄孙，月汀尹根寿门人，朝鲜中期汉文四大家之一。月沙1592年壬辰倭乱时赴国王行在所成为说书，因精通汉语成为御前通官，负责接待明朝使者及将领。1593年与经略朝鲜的阳明学者宋应昌讲论《大学》，整理为《大学讲语》在朝鲜刊行。1597年（万历25）以冬至使白沙李恒福书状官身份赴北京，1598年（万历26）作成‘戊戌辩诬奏’并以陈奏副使身份与正使白沙李恒福、书状官海月黄汝一赴明辩诬，1604年（万历32）以世子册封奏请使身份第三次赴明，并应中国文人之请刊行了100余章的《朝天纪行录》。

经年为客路漫漫，佳节参差马上看。病骨逢春惟觉瘦，羁怀见月转添酸。  
青郊斗草生新兴，紫陌传灯忆旧欢。流转殊方亦堪慰，暗闻歌吹似长安。<sup>8)</sup>

这首“上元日寓榛店”诗作于1599年（万历27）一月十五日，作者于去年刚刚以谢恩使

5) 苏世让，《七家岭，用壁上韵》，诗，阳谷先生集卷之三，第23辑第331页。

6) 郑士龙，《榛子店》，朝天录，《湖阴杂稿》卷之二，第25辑第53页。

7) 崔演，《榛子店道中 店在湾州县地》，诗，艮斋先生文集卷之三，第32辑第58页。

8) 李廷龟，《上元日寓榛店》，戊戌朝天录 上，月沙先生集卷之二，第69辑第261页。

书状官身份赴明，今年又以辩诬副使身份踏上旅途，所以说‘经年为客’。而一个‘客’字突出了诗人的身份自觉，时逢上元佳节却身在异国他乡客寓旅社。瘦弱的病骨，辛酸的羁怀并没有因为上元的明月得到慰藉，只能观看“斗草”和“传灯”等当地民俗游戏以找寻乐趣。这种酸楚与欢喜并存的心态寓含着作者对宗系辩诬之行前景不明的担忧和期许。

这次辩诬使行的正使白沙李恒福(1556-1618)字子常，号白沙、弼云，官至领议政。白沙在其朝天录中专门注明，会元日当晚与月沙和海月一行“宿榛子店董家”。从各家燕行记录综合来看，朝鲜使团在榛子店经常住宿的旅舍有唐家、董家、韩家、陈家，后来又增加了王家与蒋家。<sup>9)</sup>可见，旅馆业在当时已经发展为榛子店重要而成熟的支柱产业，每年往返几次的朝天燕行朝鲜使团成为其重要客源。

朝鲜使团正使以下不乏文人随行，反映出朝鲜王朝借出使的机会对“文章华国”的热切期待。而1599年的这次辩诬使行更是特别，三使（正使、副使、书状官）均是朝鲜朝当时的著名诗人，相互唱酬作诗成为漫漫旅途不可或缺的闲情雅趣。在看到月沙的诗以后，白沙和海月各自和诗一首。白沙的和诗如下：

溪西夕日明春阴，万柳成行台殿深。雨叶风枝抹绿雾，嫩烟柔穗摇黄金。  
主人迎客拓重户，高阁卷帘论素心。感子赠之双管笔，归时更约开尘襟。  
次月沙上元寓榛店韵<sup>10)</sup>

与月沙诗中以抒发客情羁怀为主相比，诗人白沙则沉浸在榛子店寓舍的良辰美景之中。和诗首先以春雨嫩烟铺垫出如画的场景，然后热情的主人出门迎宾，与远来的客人高谈阔论。诗中提及的“双管笔”到底是旅社主人还是唱诗的诗人所赠之物虽然不甚分明，但得到礼物的诗人显然心情大好，相互约定归程之时再次相聚，开怀畅饮一醉方休。

而书状官身份的黄汝一（1556-1622），字会元，号海月轩、梅月轩。在其“上元日寓榛子店

次月沙韵”和诗中，海月感叹“桂心梅性异辛酸，观风上国都如梦”<sup>11)</sup>，以苦辛甘热的中药材桂心和甘酸解渴的青梅比喻远行游子的心酸旅程，异国风光虽然美好，正如良斋崔演上记诗中所说“信美非吾土，永怀游子念”，再美也不是自己的家园，时逢上元佳节更加思念远方的亲人，显示出诗人浓郁的家国情怀。

柳梦寅（1559-1623）

字应文，号于于堂、良斋、默好子，以创作稗官野史小说集《於于野谈》而扬名韩国文学史。良斋1591年（万历19）以质正官身份赴明，其后壬辰倭乱时期，任问安使接待提督李如松和经略朝鲜宋应昌。1596年（万历24）以进慰使书状官、1609年（万历37）以圣节兼谢恩使身份先后赴明。其“榛子店韩氏庄感旧”诗中有言“年少曾游韩氏园，药栏茱萸绕飞轩”，可见当时的榛子店店舍整齐

9) 李夏镇（1628-1682，字夏卿，号梅山、六寓堂，实学者李瀾之父。1678年以进香正使出使清朝），《新店望王家蒋家榛子店有作》，六寓堂遗稿册一，续第39辑第51页。“边人卖酒开新店，近接王家与蒋家。榛子孤村更何处，蔽天堤柳绿阴斜。”

10) 李恒福，《[己亥正月]》，朝天录[上]，白沙先生别集卷之五，第62辑第433页。

11) 黄汝一，《上元日寓榛子店次月沙韵》，银槎录诗，海月先生文集卷之九，续第10辑第140页。

，房前屋后种植着各种药草和瓜果。“客至咄差供绮馔，筵中醕酎困清樽”<sup>12)</sup>，不仅饭菜讲究，还能供应足量美酒，具备了良好的接待宾客能力。

李晔光（1563-1628）字润卿，号芝峰，以编纂类书《芝峰类说》著名，一生曾多次出使明朝。1590年（万历18）以圣节使书状官身份第一次赴明之后，1597（万历25）年燕京中极殿、建极殿等宫殿烧毁，芝峰以陈慰使赴明，这次使行记录为《朝天录》以及与越南朝贡使者交游唱酬的《安南使臣唱和问答录》；1611年（万历38）以王世子冠服奏请副使赴明，留下了《续朝天录》以及与琉球和暹罗使臣交游问答的《琉球使臣赠答录》，记录了两地风俗，成为研究明朝与周边番邦国以及番邦国相互之间交往的重要史料。芝峰“榛子店”诗曰：

花前听鸟成歌管，雾里看山似画图。傍柳人家知有酒，囊中羞却一钱无。<sup>13)</sup>

榛子店鸟语花香，风景如画，使远离故国思念家乡的朝鲜使臣得到身心慰藉。而绿柳遮荫的酒家更是勾起了诗人的酒兴，奈何囊中羞涩，只能抱憾离去。

李好闵（1553-1634），字孝彦，号五峰。1592年（万历20）壬辰倭乱时赴辽阳请明兵御倭有功，1600年（万历28）年以谢恩使身份赴明朝。在途径永平府万柳庄时，看到记载韩氏孺人节孝事迹的石碑，“亦知韩簪纓世家，礼教有素。仍过榛子店，则左右华扁，又皆光禄门也。是知两美匹休，而天不与光禄寿者，岂彰儒人之节也耶。噫，其可尚也”<sup>14)</sup>对当地百姓的知书达理和儒雅风尚赞美有加。

李安讷（1571-1637），字子敏，号东岳，是“汉文四大家”泽堂李植的族叔。1601年（万历29）以书状官赴明，著有《朝天录》。在题为“七月初九日发榛子店宿丰润县郭近山家”五律诗中，抒发了与此前诸位诗人途径榛子店时感受到的诗情画意大相径庭的游子情怀。

秋夜仍逢雨，羁心正忆家。壁空孤烛翳，窗缺乱风斜。点滴魂俱断，萧骚鬓半华。二江还眼底，不觉万山遮。<sup>15)</sup>

人在旅途又逢苦雨，思念家乡归心似箭。对烛独坐风吹影斜，肝肠寸断华发早生。溪水淙淙应该是风景如画，奈何万山在前遮断望眼。诗语中无不透出浓郁的羁旅苦情，让人不由联想起新罗诗人孤云崔致远著名的“秋夜雨中”（“秋风唯苦吟，举世少知音。窗前三更雨，灯前万里心”）和“邮亭夜雨”（“旅馆穷秋雨，寒窗静夜灯。自怜愁里坐，真个定中僧。”）两首诗。两位处于不同时代却同处异国他乡的诗人抒发出的浓郁愁绪令人伤怀，只是王命在身，不敢有辱使命。旅途的艰辛同样没有使两位诗人意志消沉，就像崔致远克服艰难险阻回归故国一样，东岳终于完成使命，踏上了返程：“午过榛子店，夕到野鸡村。桑落阴风冷

12) 柳梦寅，《榛子店 韩氏庄感旧》，诗○朝天录，《于于集》后集卷之二，第63辑第488页。

13) 李晔光，《榛子店》，续朝天录起辛亥八月，止壬子五月。芝峰先生集卷之十六，第66辑第158页。

14) 李好闵，《题节孝编寄柳应文并序》，诗○七言律，五峯先生集卷之五，第59辑第394页。

15) 李安讷，《七月初九日发榛子店宿丰润县郭近山家》，朝天录，东岳先生集卷之二，第78辑第33页。

， 鸪鸣丽日暄。老形增甲子，长路极乾坤。所喜擎纶綉，驱驰不敢论”<sup>16)</sup>。这里的‘纶綉’出自《礼记·缙衣》，意为“天子的诏书”。东岳一行拿到皇帝诏书，再次途径榛子店时，虽然天气寒冷，但仍然喜气洋洋，感受到了晴冬日头的暖意。

宋英着（1556-1620），字仁叟，号瓢翁、暮归、一瓢、白莲居士，成浑门人。

1592年（万历20）瓢翁以松江郑澈从事官与朱之蕃结缘，其后1605年（万历33）朱之蕃以正使身份赴朝鲜，曾专程赴全州探望瓢翁。1613年（万历41）以圣节使赴北京，途径榛子店，赋诗一首，末句“彼美人何许，还惊榛子名”<sup>17)</sup>，在朝鲜诗人的燕行诗中，第一次出现了“美人”诗语，虽然没有点名其芳名为谁，但绝不可能是七十年之后的季文兰。但似乎是冥冥之中天意有定，原本不过是朝天燕行途中一介普通驿站的榛子店，七十年之后，竟然因为“美女诗人”的一首题壁诗而与众多朝鲜文人结缘，以至于扬名朝鲜诗坛数百年。

清朝入主中原以后，诗中第一次提及榛子店的燕行文人是洪柱元（1606-1672）。洪柱元字建中，号无何堂，月沙李廷龟外孙，金瑩门人。1649年（顺治6）以告讞请谥请承袭使、1653年（顺治10）以谢恩使、1661年（顺治18）以陈慰兼进香使身份三次赴清。

无何以月沙外孙身份，完美继承了其外祖父之文才和外交天赋，明末清初之际担负起了对清外交的重任。朝鲜王朝兵败南汉山城，被迫与清朝签定城下之盟之后，如何处理对清外交成为王朝上下的重要课题。与对明外交不同，朝鲜王朝内部坚持尊明事大的春秋大义名分，虽然对清年年以礼朝贡，实则虚与委蛇借机窥探清朝虚实，期待积蓄力量一雪国耻，因此这一时期朝鲜使节团往往在履行外交任务的同时，担负着探查清朝内政外交实情，了解满汉矛盾等社会问题的特殊使命，无何当然也不例外。在途径榛子店时，熟读月沙《朝天纪行录》的无何自然想起外公有名的“上元日寓榛店”诗从而诗兴大发，欣然相和。

蓟水燕山尚渺漫，残红嫩绿客中看。穿衫每觉腰围减，对案偏愁口味酸。莫论向来羁旅苦，不妨随处笑谈欢。孤吟欲和阳春句，牵辮尤艰一字安。<sup>18)</sup>

起句即以“蓟水燕山”点明这次使行的目的地明朝故都燕京已经易主满人，自然容易令人联想起南宋末有“宋亡之诗史”称号的汪元量“婆罗门引·一生富贵”中的诗句：“望断燕山蓟水，万里到幽州。恨病余双眼，冷泪交流。”韩愈在《送董邵南序》中说：“燕赵古称多感慨悲歌之士”，肩负王命的诗人无何更像“仗剑古燕行”的侠客：“莫论向来羁旅苦，不妨随处笑谈欢”，一扫外祖诗中的客情伤感，展现出磊落洒脱的心胸和为公忘我的情怀。

以上按照朝天燕行时间前后顺序，依次大略考察了朝鲜文人燕行诗中与丰润县（明朝属顺天府蓟州，1676年即康熙十五年，改属顺天府遵化州。1725年即雍正三年，改属永平府）

16) 李安讷，《三月初二日癸巳 朝发高丽铺 过丰润县 午憩榛子店 夕次野鷄坨》，朝天后录，东岳先生集卷之二十，第78辑第386页。

17) 宋英着，《榛子店》，诗○五言律诗，瓢翁先生遗稿卷之一，续第9辑第179页。“远客缘多病，徐行到古城。七家通百里，短日半长程。昔过邨边去，今由鎮里行。彼美人何许，还惊榛子名。”

18) 洪柱元，《榛子店 次外祖韵》，燕行录，《无何堂遗稿》册七，续第30辑第544页。

“榛子店”有关诗作的题材内容及艺术特色，确认了榛子店是朝鲜使团陆路往返途中重要的食宿和休憩驿站，为考察关内关外尤其是以永平府为中心的女性诗人题壁诗作好历史性的时空铺垫，并以此印证了燕行文学的叙事话题与沿途特殊的地理历史环境有着极为密切的关系。

## 二. 题壁诗传统：桂娘与桂香

作为明清交替之际朝鲜朝“尊明复仇春秋大义”主张的代表人物尤庵宋时烈（1607-1689）的门人，芝湖李选（1632-1692）于1685年（康熙24）以冬至兼谢恩副使赴清，其“榛子店”诗和“沈阳次桂娘文兰榛子店韵”诗中第一次同时提及明末清初两位女性诗人的题壁诗。从此之后，朝鲜文人燕行录中的“榛子店”诗中大量出现桂娘、桂香及季文兰等女性诗人题壁诗话题。先看其“榛子店”诗：

胡笳几拍唤新声，千古堪怜哀怨情。行到永平增感慨，壁间今有桂娘名。<sup>19)</sup>

这是朝鲜文人朝天燕行诗中最早出现有关“桂娘”题壁诗的记载。前边提到从丰润城到山海关内外再到沈阳之间的店舍多有题壁诗的传统，而永平正处在燕岩朴趾源所谓的“关内程史”地段，所以芝湖在永平旅社壁间发现题有桂娘之名的题壁诗并不意外。虽然在没有其他佐证的情况下，不能确定桂娘是否是该题壁诗的作者抑或只是诗中人物，但从起句“胡笳几拍”典故来看，芝湖认为桂娘的身份为流落关外的汉族女子无疑。“胡笳十八拍”作者是东汉大文学家蔡邕的女儿蔡琰，字文姬，又字昭姬。因匈奴入侵，蔡琰被匈奴左贤王掳走，嫁给匈奴人，并生育了两个儿子。十二年后，曹操统一北方，用重金将蔡琰赎回，并将其嫁给董祀。“文姬归汉”的故事在历朝历代被广为流传。

越汉国兮入胡城，亡家失身兮不如无生。毡裘为裳兮骨肉震惊，羯羶为味兮枉遏我情。

----《胡笳十八拍》摘句

句

在十八拍中，由于外族入侵被掳关外的蔡文姬把撕心裂肺的悲怨之气表现得情真意切，字字血泪。作品中蔡文姬不是名门之后儒雅才女，而是命运无法自主的一介普通女性，对身不由己流落胡地后来又被迫骨肉分离的悲惨命运发出荡气回肠的凄厉疾呼。这个作品及典故的艺术真实性朝鲜文人感同身受，将此典故用作比兴也是随手拈来，所以芝湖用蔡文姬的故事去想象同是汉族沦落胡地的桂娘的命运。

接着再看芝湖的另二首次韵诗“沈阳次桂娘文兰榛子店韵”：

竊幕宁论少日妆，天涯空自泪霑裳。琵琶一曲人休奏，此地从来号沈阳。又  
天山积雪带斜晖，故国茫茫信息稀。惆怅世无拯济手，剩教哀泪浪霑衣。<sup>20)</sup>

19) 李选，《榛子店》，诗，《芝湖集》卷之一，第143辑第358页。

20) 李选，《沈阳次桂娘文兰榛子店韵》，诗，《芝湖集》卷之一，第143辑第358页。



芝湖点明这两首诗分别次韵桂娘和季文兰诗韵，关于季文兰诗后文中还要论及，第一首诗的韵脚与季文兰题诗完全一致，因此第二首诗乃是次韵桂娘诗韵，并由此可以断定桂娘为汉族女诗人无疑。这与下文中马上要论及的桂香诗韵脚完全不同，按照次韵诗的一般规律来看，“桂娘”与“桂香”应该是不同时空的两位女性诗人。

出处后文还要详述，季文兰的题壁诗为：“椎髻空怜昔日妆，征裙换尽越罗裳。爷娘生死知何处，痛杀春风上沈阳。”抒发一个南方女子被卖到胡地，思念家乡亲人而悲悲切切的情感。颇有王安石《泊船瓜州》“春风又绿江南岸，明月何时照我还。”意蕴。而芝湖的次韵诗则添加了白居易的《琵琶行》意蕴，这一点与下文将要论及的“桂香题壁诗”颇为接近。而“桂娘题壁诗”因为没有原韵诗作比较，只能隐约感觉到桂娘诗中并非单纯哀叹个人的不幸身世，应该与衰世亡国之恨与去国思乡情怀有很大关联。

如果说“桂娘题壁诗”发生在关内的永平府，那么在沈阳朝关内方向三十里即靠近关外盛京地界的新民屯则发生了“桂香题壁诗”，并且原诗也被记录下来。从时期来看，桂香题壁诗应晚于桂娘题壁诗。

金进洙（1797-1865）字稚高，号莲坡、碧芦斋。曾燕行进出清朝（具体年月及身份不详），以燕京人物、风俗及自然风光为主要素材创作了4卷本的《碧芦斋集》。在其题为“新民屯店壁 和桂香诗 诗曰：天涯沦落又惊秋，欲把琵琶诉旧愁。谁是多情白司马，夜深灯火过江州。其下云：桂香书”的纪行诗的题目中，记录了桂香诗的原韵。

女诗人桂香借用江州司马白居易《琵琶行》的典故创作了该题壁诗，把自己流落关外的不幸身世如泣如诉地描写出来，希冀有过路君子能效仿多情公子白居易一样来问其身世，乃至引为知己，并为之下泪。显然，莲坡完全读出了诗中的意蕴，并和诗一首：

镂月裁云字字思，关河迢递去何之。征鞭只恨来差晚，不及琵琶度曲时。<sup>21)</sup>

莲坡燕行途径此地，虽然自诩多情，但无奈时过境迁，怀抱琵琶的艺女桂香已经不知道沦落到何处去了，只能对诗思人，空留余憾而已。

无独有偶，另一位朝鲜后期诗人燕行时也注意到了这首桂香题壁诗。姜玮（1820-1884），字尧章，号秋琴、古欢堂等，闵鲁行、金正喜弟子，与朴珪寿同为朝鲜末期积极的开化论者。秋琴深受驻日本中国大使馆参赞黄遵宪《朝鲜策略》“联美拒俄策”的影响，曾于1873-1874年间（同治12-13）2次赴清，深切感受到“西势东渐”的危机。1882年（光绪8）只身从日本赴清，游历上海一带，与开化派人士交游后归国，并于1883年创办韩国第一家近代报刊《汉城旬报》。在第一次赴清燕行之时，姜玮途径新民屯，写道：“新民屯，有题壁截句，未署桂香，不知是何人，盖女流也。多载东人燕槎录，与榛子店季文兰诗并传，其辞甚佳。今录于左，仍次其韵。”这里的“题壁截句”即“题壁绝句”，秋琴认为桂香题壁诗的文学价值颇高，并且被许多途径此地的朝鲜文人载入燕行录，与榛子店季文兰的题壁诗齐名并传。可见，这首诗在当时的朝鲜文坛已经成为特殊的“话题”作品。

天涯沦落几经秋，欲抱琵琶诉别愁。谁是多情白司马，夜深灯火照江州。（原）

21) 金进洙，《新民屯店壁 和桂香诗 诗曰：天涯沦落又惊秋，欲把琵琶诉旧愁。谁是多情白司马，夜深灯火过江州。其下云桂香书》，《莲坡诗钞》卷上，第306辑第228页。

琵琶弦冷荻花秋，江上无人话旧愁。爱咏新词题处处，一时哀艳满边州。（和一）  
片梦消春两鬓秋，红颜从古易为愁。双行清泪燕云湿，欲诉无情十六州。（和二）  
邮灯瑟瑟满江秋，壁上人留去后愁。商女琵琶司马句，今宵与我唱江州。（和三）<sup>22)</sup>

从秋琴诗题中“今录于左”来看，这四首的第一首显然是桂香原韵诗，但与莲坡所录桂香原韵诗有所异同，略作比较如下：

起句，“几经秋”（秋琴）：“又惊秋”（莲坡）；  
承句，“欲抱琵琶”（秋琴）：“欲把琵琶”（莲坡）；  
“诉别愁”（秋琴）：“诉旧愁”（莲坡）  
转句，（完全一致）  
合句，“照江州”（秋琴）：“过江州”（莲坡）

记录短短的一首绝句，两者竟然出现了这么多的差异，可见其中一首不是单纯的记录，而是期间经过了某位诗人的再加工改写过程。从艺术效果来看，莲坡版本起句的“又惊”比“几经”二字生动；承句的“把”字比“抱”字含蓄，“旧愁”比“别愁”深刻；合句的“过”字也比“照”字含义丰富。显然，莲坡版本要比秋琴版本具有更强的艺术感染力。

从秋琴的三首和诗来看，起、承、合句完全步桂香题壁诗的韵脚，只有转句有所变化。

第一首承句秋琴把“别愁”改为“旧愁”，证明秋琴也认为“旧愁”更富有想象力。随着题壁诗被燕行文人士喜爱吟咏，女诗人桂香的哀艳形象也像白居易《琵琶行》中的商妇一样，在边关一带甚至朝鲜文坛广泛传播。

第二首和诗以红颜易老、欲诉无情为主线，烘托桂香流落边关，不能掌控自己命运的悲哀身世。诗人把场景定位为“燕云十六州”，史上又称幽云十六州、幽蓟十六州，就像明代诗人尹耕《秋兴八首》中“鞞鼓几遭豺虎急，山川曾入犬羊羞。石郎可是无长虑，直割燕云十六州”，是一段被边境少数民族契丹割据边疆大片土地的屈辱历史。秋琴正是用这种历史典故，既把桂香的命运与整个民族的命运联系起来，又把清军入关与辽国犯宋的历史相结合，也暗喻“胡运不百年”的对清史观。

第三首和诗把读者从对历史的追忆中拉回现实，题壁女诗人已经不知所踪，只留下朝鲜诗人秋琴面对瑟瑟邮灯暗自伤神。但秋琴仿佛不愿醒来，仍在想象与手把琵琶的桂香隔着辽阔的时空，一起吟唱白居易的千古名作《琵琶行》。

秋琴在三首和诗中对流落他乡汉族女诗人的悲苦身世感同身受，为其鸣不平的同时，跨时空地引为知音，既缘于燕行途中同在他乡为异客的同理心，也是对明清换代期中朝各自民族的苦难历史共同的悲哀和焦虑感所致。

以上综合分析了不同时代朝鲜文人燕行途径关外盛京新民屯和关内永平府时，对流落异乡的女性诗人桂娘和桂香题壁诗的唱和作诗内容及其文化内涵，确认两人是分属于不同时代的女诗人，对汉族女诗人题壁诗的关注和唱和表面上看是漫漫旅途中朝鲜文人喜闻乐道的一个趣谈话题，实际上他们之所以对其不幸身世能够同情共感、情真意切，既是由于两国文人间文化认知上的同步一致，也是因为对两国政治现实极其失望所导致的一种变相的情绪发泄

<sup>22)</sup>姜玮，《新民屯，有题壁截句，末署桂香，不知是何人，盖女流也。多载东人燕槎录，与榛子店季文兰诗并传，其辞甚佳。今录于左，仍次其韵。》，北游续草，《古欢堂收草》诗稿卷之十三，第318辑第449页。

。虽然二位汉族女诗人的题壁诗并未引起朝鲜文人的持久关注和广泛唱和，但可以反映出这一时期关内关外题壁诗的文学传统和地域文化特色，展现出其作为引发异域文人情感互动和文学交流强烈意愿的特有的题材价值，为本文重点探讨季文兰“榛子店题壁诗”的燕行文学史价值提供认知范例和历史佐证。

### 三. 季文兰“榛子店题壁诗”与燕行文学

以下分为“现场赋诗”和“文献赋诗”二种情况，具体考察季文兰“榛子店题壁诗”在朝鲜文坛的传播路径及在燕行文学史上的定位情况。“现场赋诗”指朝鲜文人燕行途经榛子店时，在现场次韵或赋诗；而“文献赋诗”则指通过阅读燕行文献得到季文兰“榛子店题壁诗”信息，从而赋诗吟咏的情况。

#### 1. “现场赋诗”的情况

芝湖李选1685年（康熙24）在“榛子店”诗和“沈阳次桂娘文兰榛子店韵”诗中提及的“文兰”即女诗人“季文兰”，由此可以确认芝湖是最早发现桂娘题壁诗并较早接触季文兰题壁诗的朝鲜诗人，其记录对梳理女性题壁诗人包括季文兰的题壁诗在朝鲜文人中的传播情况具有重要意义。相较于桂娘和桂香，季文兰的题壁诗在朝鲜文人间引起的反响更加强烈而持久。

从现存燕行录史料来看，申晷(1628-1687，字寅伯，号汾厓，朝鲜中期汉文四大家之一象村申钦之孙)可能是最早记载季文兰题壁诗的第一人，而不是芝湖。汾厓于1680年（康熙19）六月以陈奏副使身份赴清，著有《燕行录》。其关于榛子店的题壁诗的记载尤为详实。

书状陆君则于丰润榛子店壁上，见一诗，向余说道：“其诗曰：‘椎髻空怜昔日妆，征裙换尽越罗裳。爷娘生死知何处，痛杀春风上沈阳。’其下又书曰：‘奴，江州虞尚卿秀才妻也。夫被戮，奴被虏，今为王章京所买。戊午正月念一日，洒涕挥壁书此。惟望天下有心人见此，怜而见拯，奴亦不自惭其鄙谤也。吁嗟伤哉伤哉。奴年二十有一，父季某秀才，母陈氏，兄名国，府学秀才。季文兰书。’”余闻而悲之曰：“此是闺秀中能诗者所为也。海内丧乱，生民罹毒，闺中兰蕙之质，亦未免沦没异域。千古怨恨，不独蔡文姬一人而已。”为赋一绝，以咏其事。<sup>23)</sup>

从汾厓的以上记述来看，最早发现这首题壁诗的人不是自己，而是陆姓的书状官。而1680年6月辩诬陈奏使团上使为都尉竹坞沈益显，书状官为大司宪士雅睦林儒。“戊午正月念一日，洒涕挥壁书此”，可见季文兰题壁诗作于戊午即1678年（康熙17）1月21日，也就是申晷燕行二年半以前，而其诗在榛子店旅社墙壁尚保存完好，正好被睦林儒看到记录下来并转告汾厓。从此，途径此地的朝鲜使团文人和诗、赋诗不绝，成为中朝文坛交流上的一段佳话。

汾厓听到季文兰故事大为感慨，将其比喻为沦没异域的当世蔡文姬并“为赋一绝，以咏

23) 申晷，《书状陆君则于丰润榛子店壁上……为赋一绝，以咏其事》，诗○燕行录，《汾厓遗稿》卷五，第129辑第424页。

其事”：

壁上新诗掩泪题，天涯归梦楚云西。春风无限伤心事，欲奏琵琶响转凄。<sup>24)</sup>

汾厓的这首诗不是次季文兰诗韵而作，而是赋诗，所以并不拘于原诗的韵脚和意象，而是直接抒写自己的感触。承句中的“楚云西”源自唐代刘长卿的《送李判官之润州行营》“万里辞家事鼓鼙，金陵驿路楚云西”，可以泛指江南之地，这里自然是指季文兰的家乡江州。江州，即白居易《琵琶行》中“江州司马青衫湿”中之江州（今江西省九江市）。

汾厓紧紧抓住女主人公的几个动作：“掩泪题诗”、“归梦天涯”、“春风伤心”、“弹奏琵琶”，塑造出一介沦没异域女子的凄婉形象，让人联想到《琵琶行》中的沦落他乡的商妇之泪。

季文兰题壁诗虽然是士雅和汾厓最早发现、记载并赋诗，但真正将之广泛传播于朝鲜文坛引起巨大波澜的却不是此二人，而是三年之后的息庵金锡胄(1634-1684)。1683年（康熙2年），息庵以谢恩正使身份赴清，着有《擣椒录》上、下。

“榛子店主人壁上，有江右女子季文兰手书一绝，览之凄然，为步其韵”，从息庵的诗题可知，与汾厓不同，息庵是直接从旅店墙壁上看到了季文兰的题壁绝句并步韵和诗。

绰约云鬟罢旧妆，胡笳几拍泪盈裳。谁能更有曹公力，迎取文姬入洛阳。原韵  
椎髻空怜昔日妆，征裙换尽越罗裳。爷娘生死知何处，痛杀春风上沈阳。

其下又有小序云：‘奴，江右虞尚卿秀才妻也。夫被戮，奴被虏，今为王章京所买。戊午正月廿一日。洒泪拂壁书此。唯望天下有心人见此。怜而见拯。’下又书：

‘奴年二十有一，（缺三字）秀才女也。母李氏，兄名（缺卅字）国，府学秀才。’（下缺）亦不可记。末书云：‘季文兰书’。<sup>25)</sup>

暂且不说息庵的和诗，先分析息庵记录的“原韵”和“小序”内容。对比汾厓所录可知，不仅“原韵”诗，而且“小序”至“怜而见拯”为止都一字不差完全一致。‘奴年二十有一’句之前缺二句：‘奴亦不自惭其鄙谤也。吁嗟伤哉伤哉’；句之后缺二字‘季某’、多二字‘女也’。而‘母李氏’为‘母陈氏’之误，‘兄名’与‘国’之间没有缺字，‘府学秀才’之后亦无缺字。

由以上比较内容可知，相较于汾厓所记，息庵所记“小序”内容有几处缺漏错讹之处。这种结果说明，即使旅社主人再尽心保护，奈何年代越久，墙壁上的题壁诗损毁越多。到了息庵时离季文兰题诗已经过去五年有余，所以有几处物理性损毁，导致其所记录内容较三年前汾厓所记有所错漏在所难免。息庵对此也颇觉遗憾。

副使柳公招主媪问之。媪俱言五六年前，沈阳王章京用白金七十，买此女过此，悲楚黯惨之中，姿态尚娇艳动人。扫壁垂泪书此，右手稍倦，则以左手执笔疾书云。<sup>26)</sup>

24) 申晟，出处同上。

25) 金锡胄，《榛子店主人壁上 有江右女子季文兰手书一绝 览之凄然 为步其韵》，擣椒录上，息庵先生遗稿卷之六，第145辑第206页。

26) 金锡胄，出处同上注。

这是旅社老板娘对亲眼目睹的女诗人季文兰题诗当时情景的直接陈述，时间上相符合，内容也真实可信，对了解女诗人的真实情况大有帮助。尽管处于战乱之中被掳被卖，但“悲楚黯惨之中姿态尚娇艳动人”，女诗人的凄美形象跃然纸上。在书写题壁诗时“扫壁垂泪”，“右手稍倦，则以左手执笔疾书”，不仅形象美丽，而且文采堪尚，分明是一位饱读诗书知书达理的大家闺秀。

通过旅社老板娘的证人证言，尽管时间已经过去了五年之久，但女才人季文兰“榛子店题壁诗”的来龙去脉基本上水落石出，凄美形象的悲剧美感与诗歌表现社会生活的现实需要完美地结合在了一起，使得息庵所记尽管有所漏缺，却在朝鲜文人之间成为热门“话题”和性别“趣谈”，争相传抄，广为传播。

上文中曾找老板娘确认季文兰题壁诗具体情况的1683年息庵谢恩使团副使柳尚运（1636-1707，字悠久，号约斋、陋室）在“次榛子店壁间韵”诗中曰：

谁把新妆泣旧妆，即今鳞介易冠裳。无端子弟从吴起，却使阿娘到沈阳。  
忍向胡姬学理妆，别时犹着嫁时装。红颜莫恨多辛苦，青盖从来入洛阳。<sup>27)</sup>

与原诗相比，约斋的二首和诗总体上并没有多少新意可言。第二首结句用典“青盖入洛阳”也仅只是三国东吴的一个谶语，读来似乎不知所云。但值得瞩目的一点是，约斋第一首诗的承句与结句着眼于使季文兰流离失所的社会原因，即吴三桂父子引发的三藩之乱，这是当时康熙王朝乃至朝鲜王朝面临的一个巨大变量。据汾厓申晟《行状》记载，“甲寅春，擢拜平安道观察使兼两西管饷使，是时关西凋瘵特甚，中国又有吴三桂之乱，朝廷深軫西顾之忧，择可仗安危者，金举归公。”<sup>28)</sup>甲寅是1674年（康熙13），即吴三桂三藩之乱的第二年。因此，从汾厓开始，每次燕行的朝鲜使团自然都担负着探听清国三藩之乱形势及对社会影响情况的任务。自从吴三桂举事以后，江南各地及部分江北地带的汉族上层和农民百姓纷纷响应，清国社会大乱，约斋认为这是造成季文兰被掳往沈阳的主要原因，虽然没有从满汉矛盾、文化融合过程等方面深入探讨，但也从一定程度上揭示了当时社会动乱造成民不聊生的政治因素。

虽然汾厓申晟最早详细记载、芝湖李选五年后提及“季文兰题壁诗”并分别作了次韵和诗，但二人是否亲眼目睹该题壁诗却无从知晓。但可以确认见过此题壁诗的朝鲜文人有士雅睦林儒、息庵金锡胄，

其后还有药泉南九万（1629~1711，字云路，官至领议政）。药泉曾于1684年（康熙23）燕行，著有《甲子燕行杂录》；1686年（康熙25）燕行，著有《丙寅燕行杂录》。下文将把其“榛子店壁上 次季文兰韵并序”中的和诗二首与其“路中又次韵”二首合并为“次韵四首”一同考察，这里先分析其“序”。“序”中记述了药泉在旅社壁上所见的“季文兰题壁诗”。

滦州榛子店壁上尘暗中，有题诗曰：‘椎髻空怜昔日妆，征裙换尽越罗裳。爷孃生死知何处，痛杀春风上沈阳。’其下书曰：‘奴，江州虞尚卿妻也。夫被戮，奴被虏，今为王章京（章京

27) 柳尚运，《次榛子店壁间韵》，燕行录，《约斋集》册二，续第42辑第453页。

28) 申晟，《五卫都总府都总管申公行状》，附录，《汾厓遗稿》卷之十四，第129辑第591页。

，胡人将兵之任，若我国哨官云）所买。戊午正月廿一日，洒涕拂壁书此。惟望天下有心人见此，怜而见拯。奴亦不自惭其鄙谚也，吁嗟伤哉，吁嗟伤哉。奴年廿有一，季下二字流秀才女也，母陈氏，兄名国庠，府学秀才，季文兰下字流。’余见而伤之，次其韵。<sup>29)</sup>

与汾厓所记相比，原韵绝句完全一致。“其下书曰”部分，‘虞尚卿’后缺‘秀才’二字；（章京，胡人将兵之任，若我国哨官云）为药泉自注。‘鄙谚’原为‘鄙谤’；‘吁嗟伤哉，吁嗟伤哉’原为‘吁嗟伤哉，伤哉’；‘季下二字流秀才女也’原为‘父季某秀才’；‘兄名国’后多一字‘庠’；‘季文兰下字流。’原为‘季文兰书’。

与息庵所记相比，除最后的‘书’字污不可见外，不知何故竟然多出了‘奴亦不自惭其鄙谚也，吁嗟伤哉，吁嗟伤哉。’三句，‘兄名国’后也多一字‘庠’，令人费解。

综合三人的记载，经过相互确认补全，笔者整理**最早版本的完整版“季文兰题壁诗”**如下：

**椎髻空怜昔日妆，征裙换尽越罗裳。爷娘生死知何处，痛杀春风上沈阳。奴，江州虞尚卿秀才妻也。夫被戮，奴被虏，今为王章京所买。戊午正月廿一日，洒涕挥壁书此。惟望天下有心人见此，怜而见拯，奴亦不自惭其鄙谚也。吁嗟伤哉，吁嗟伤哉。奴年二十有一，父季某秀才，母陈氏，兄名国庠，府学秀才。季文兰书。**

之所以把‘鄙谤’改为‘鄙谚’，是因为‘自惭其鄙谤’不通，而‘自惭其鄙谚’可释为‘自惭其鄙俗’，是自谦之意。而‘兄名国’后边也不会凭空多出‘庠’字，应该判断原本就是‘兄名国庠’，汾厓漏记而已。

接着分析药泉的“次韵四首”。

剩教清泪洗红妆，不禁腥尘污锦裳。北漠茫茫南国远，归心空羡雁随阳。（和一）

文姬词翰息媯妆，饮泣题诗血染裳。只恨江州虞氏宅，楼高不及古河阳。（和二）<sup>30)</sup>

雪花盈面不成妆。风色惊心欲裂裳。马上忽闻鞞鼓动。此行知过旧渔阳。（和三）

眉愁岂是学啼妆。腰细还非为舞裳。安得托身华表鹤。沈阳知复近辽阳。（和四）<sup>31)</sup>

（和一）用‘腥尘’与‘北漠’二个诗语把女诗人季文兰所处恶劣环境描写出来，而‘清泪’与‘归心’也就顺理成章。结句的‘燕随阳’指候鸟依季节而定行止，这里喻指女诗人归心似箭却又身不由己。（和二）用‘文姬归汉’典故。转句和合句意为“虞氏之宅楼高不及”，即无法保护自家的女眷之意。（和三）着眼于北方严寒的气候，天寒地冻，从小生长于南方的女诗人此时无疑更加不堪。转句和合句更是借用白居易《长恨歌》“渔阳鞞鼓动地来，惊破霓裳羽衣曲”，极言女诗人处境越来越不妙。（和四）起句的‘啼妆’亦作‘啼糝’。东汉时，妇女以粉薄拭目下，有似啼痕，故名啼妆。鲁迅《南腔北调集·关于女人》：“

29) 南九万，《榛子店壁上 次季文兰韵 并序》，诗，《药泉集》第二，第131辑第445页。

30) 南九万，出处同上注。

31) 南九万，《路中又次韵》，诗，《药泉集》第二，第131辑第445页。

西汉末年，女人的‘堕马髻’、‘愁眉啼妆’，也说是亡国之兆。”而转句中的‘华表鹤’用典则是中国道教崇奉的古代仙人丁令威的故事。据《逍遥墟经》卷一记载，丁令威西汉辽东郡人，曾学道于灵墟山，成仙后化为仙鹤，飞回故里，站在一华表上高声唱道：“有鸟有鸟丁令威，去家千岁今来归，城郭如故人民非，何不学仙冢累累。”此处借用此典，希冀女诗人化身仙鹤飞归故里与亲人团聚，这个小小的心愿却被震天动地的渔阳鼙鼓声打破，而‘古河阳’、‘旧渔阳’、‘沈阳’、‘辽阳’均为边外寒冷之地，这些地名的排比使用更是让整篇和诗充满边荒胡地的氛围，提醒读者现实时空的残酷，与女诗人此时的绝望心境极为契合。

李世华（1630—1701），字君实，号双栢堂·七井。

在《赠崔汝和赴燕之行》诗中，李世华曾说“君今赴燕索我诗，我说年前赴燕事”<sup>32)</sup>。崔汝和，即明谷崔锡鼎，1697年（康熙36）赴清，由此可知，李世华的燕行应该在1696年或1695年。在其“榛子店 次季文兰壁上韵”三首次韵诗中，双栢堂化身女诗人向世人倾诉衷肠。

羞向毡车理靓妆，身边犹着旧衣裳。迴瞻南国迷天外，马首胡山已夕阳。（和一）

壁上题诗泣旧妆，此行犹胜赋襄裳。江州城外殇魂哭，时逐边风访沈阳。（和二）

看花无语楚宫妆，谁信宫中泪满裳。从古事夫如事主，莫教葵藿变倾阳。（和三）<sup>33)</sup>

女诗人被掳之后，已无心梳妆打扮，只是在夕阳西下之时，不断回首遥望家乡（和一）。到了旅社，泣血题诗壁上，只有惨死战场的丈夫孤魂，陪伴自己流落他乡（和二）。“楚宫妆”用典源自唐高适的“听张立本女吟”：“危冠广袖楚宫妆，独步闲庭逐夜凉。自把玉钗敲砌竹，清歌一曲月如霜。”该诗取材于张立本之女为后园高姓古坟中的狐妖所魅的荒诞故事。而“事夫如事主”则源自班昭《女诫·专心》：“事夫如事天，与孝子事父，忠臣事主同也。”合句用向日葵藿典故，宋苏轼《乞常州居住表》：“愿回日月之照，一明葵藿之心。”此处极言不能辜负女诗人的事夫之志、葵藿之心（和三）。

但令人极为疑惑的是，几乎与双栢堂相同时期燕行的另一位朝鲜文人綱庵申琬（1646—1707，字公献，朴世采门人）却在相距榛子店230里外<sup>34)</sup>的“邦均店”（古属蓟州，今属天津市蓟县西三十里邦均镇），见到过季文兰的题壁诗。邦均店也是朝鲜使团燕行路线上的一站

### 32)

李世华，《赠崔汝和赴燕之行》，七言古诗，双栢堂先生集卷之一下，续第39辑第396页。“君今赴燕索我诗，我说年前赴燕事。三江地迥杳际涯，八站路险多顛蹶。茫茫辽野接幽燕，马首风威正夙肩。

羸骖暮投沈阳馆，感旧空怀志士泪。双辟门楼宁远卫，四世元戎亦可愧。周流河上遇朝瑞，胜败兴亡历历记。长城易水驻车处，万古遗踪兴叹唱。壁上题诗榛子店，愁杀江州爽节义。行寻首阳拜古庙，叩马当年心不二。依依烟树蓟门路，日暮催鞭寻古寺。金身丈六俨双成，立者何为卧何睡。芳村幸有杜康酒，倾尽行装赌一醉。通州地势何壮哉，万舸迷江连浙泗。重重曲曲东岳庙，岳读羣形罗万类。日晚驱马到京都，皇居嵬赫仪容备。重门牢锁玉河馆，守直森严事机密。留连异地累经旬，永夜虚幌愁无寐。从来其俗好货财，门外使役皆由利。囊中苟费一金资，水陆珍奇能坐致。长安白日走犀象，大道青楼调孔雀。归期忽隔数三宵，挂榜门前开市肆。纷纷主客竞锥刀，废食忘寝亦何意。平明拂袖出院门，鸟脱樊笼那足比。行行重踏去时路，向来羸马皆轻骑。九连城边朝秣骝，龙湾酒食来相馈。轻舟催渡鸭江水，满汀红妆各争媚。百祥楼前畅远怀，练光亭中扬大觥。归来拜谒八彩眉，满袖天香欣昵侍。亲朋杂沓来相慰，谓余容颜不甚悴。男儿坠地志气大，肯随闺闼踪迹闕。慙慙此语付君行，往往来来同一视。”

### 33) 李世华，《榛子店

次季文兰壁上韵》，七言绝句，双栢堂先生集卷之一上，续第39辑第378页。

34) 参照朴趾源，《关内程史 起庚子 止庚戌 凡十一日 自山海关内至皇京 共六百四十里》，热河日记，《燕巖集》卷之十二〇别集，第252辑第189页。

，从资料来看，此地的旅社也像榛子店一样，有着久远的题壁诗传统。但除了綱庵以外，其他诗人对邦均题壁诗的次韵诗及序均未提及季文兰之事。<sup>35)</sup>可见，綱庵见到季文兰题壁诗的地点有可能本就是榛子店，因为混淆错记为邦均店。

綱庵燕行诗中有《口号次书状朴君 权 韵》<sup>36)</sup>诗，而朴权

(1658-1715，字衡圣，号归庵)曾于1695-1696年(康熙34-35)以书状官身份燕行，可见綱庵的燕行是在这期间。綱庵在其“邦均店壁上见季文兰诗有感”七律赋诗中，把季文兰的悲惨命运归于天意的不眷顾。

万事伤心孰怨嗟，悠悠天意欲如何。惨看民物罹锋镝，忍使腥膻污绮罗。  
女子能诗还有此，男儿全节尚无多。都将哀恨凭篇什，义士今谁古押衙。(和一)  
万般哀怨一篇诗，壁上题来说向谁。司马青衫知几湿，佳人红袖去无归。  
啼残妆泪空余血，写出芳心漫寓悲。十八胡笳千古恨，伤心不独蔡文姬。<sup>37)</sup>(和二)

其实綱庵也并非不知，所谓天意实际上就是人祸，这种说法只不过是受难的普通百姓无奈之余的自我安慰而已。作为男子汉大丈夫，却象文弱的女诗人季文兰一样，只会把心中的怨恨赋诸诗篇，再也见不到‘古押衙’那样的义士了。‘古押衙’是唐人小说中的一个人物，勇于舍生救人，成人之美(见唐薛调《无双传》)，后来多用以指代“侠义之士”(和一)。女诗人把心中的哀怨泣血挥诸墙壁，是希冀江州司马那样的知音能够听到、有人能像曹操解救蔡文姬一样，把自己救回家乡(和二)。与其他文人拘于季诗原韵，只以七绝的方式次韵和诗相比，綱庵七律形式的赋诗，从内容上来看更加丰富，抒发的情感更加饱满，既读出了季诗蕴含的对腥膻污裙的千古之恨，又代女诗人呼吁‘古押衙’和‘曹孟德’为代表的勇士救苦救难，阐明季文兰题壁诗的真正目的。

崔锡鼎(1646-1715)，字汝和，号明谷、存窝。1685年(康熙24)以陈奏兼谢恩副使身份赴清(上使右相郑载嵩、书状官太仆正李墩)，著有《椒余录》；1697年(康熙36)以王世子册封奏讲使(副使崔奎瑞、书状宋相琦)赴燕，著有《蔗回录》。明谷前后二次燕行途经榛子店，分别作了题为“榛子店

次季文兰壁上韵”的七绝和诗一首、题为“榛子店”的七律和诗一首，均以季文兰题壁诗作

35) 从以下三例《邦均店 次壁上韵》的次韵诗及其诗序可以看出邦均店的题壁诗传统。

崔演(1503-1549)，《邦均店 次壁上韵》，诗，艮斋先生文集卷之三，第32辑第60页。“盛夏三更热，孤身万里征。海东红日出，心注汉阳城。”

朴齐家(1750-1805)，《邦均店 次壁上韵》  
郑俨字望之，归省粤东一律，癸卯初秋也。对壁上又画梅花竹石。丁未岁咫轩题一绝，其旁云：“郑君邑里未著，吾不知有郑，郑不知有吾，后之览者，想必哑然而笑也。”咫轩，玉田张运堂号也，亦翩翩名士者矣。》，[诗]，贞蕤阁三集，第261辑第524页。“竹亦天然笑，梅应彻底寒。丛生孤石畔，画与远人看。郑谷诗犹在，张颠墨未干。悬空怀旧雨，惆怅却无端。”

金允植(1835-1922)，《邦均店 次壁上韵》，诗○析津于役集，《云养集》卷之三，第328辑第274页。“时李傅相(即李鸿章一笔者注)力主通洋和俄，支持大局，朝野聩昧，谤言四起。余宿邦均店，见壁上题诗，以少荃(李鸿章号一笔者注)比秦桧。笑次其韵。古来车赋转为马，国富今惟数海航。能读书宜知合变，急投剂岂已膏肓。老成方略须持重，遵养王师且晦光。白面坐谈天下事，听之盈耳尽洋洋。”

36) 申琬，《口号次书状朴君 权 韵》，诗，《綱菴集》卷之二，续第47辑第218页。

37) 申琬，《邦均店壁上见季文兰诗有感》，诗，《綱菴集》卷之一，续第47辑第210页。



为吟咏题材。

纤眉宝髻为谁妆，泪染潇湘六幅裳。却羨春鸿归塞远，秋来犹得更随阳。<sup>38)</sup>（和一）  
季女何年过此村，至今行客暗伤魂。兰窗洒泪纱犹晕，素壁题诗字半昏。  
原草入春留碧恨，塞笳和月诉红冤。英姬一代同心事，藻思哀襟可共论。<sup>39)</sup>（和二）

第一首七绝是明谷初次燕行时的次韵和诗，虽然离季文兰题壁诗之时仅仅过去了七年，但明谷并没有附上原诗或以序的形式说明是否亲眼目睹题女诗人的题壁诗以及作诗经纬。‘潇湘六幅裳’典出唐代李群玉《同郑相并歌姬小饮戏赠》“裙拖六幅潇湘水，鬓挽巫山一段云”，原意是“你看那歌姬柔滑的裙裾宛若拖曳着六幅湘江秀水，高耸的发髻如同轻挽着一段巫山烟云”，以此赞美歌姬的美丽外表。季文兰虽然美丽，却要羡慕随季节迁徙自由飞翔的候鸟，这种借喻手法更加烘托出女诗人流落他乡叫天不应的凄婉处境（和一）。第二次燕行时所作七律赋诗吟咏得更加从容。此时离季文兰作题壁诗已经过去20年之久，但途径此地的燕行文人依然为女诗人的悲惨遭遇伤心不已。从“素壁题诗字半昏”句来看，明谷的二次燕行应该是直接看到了该题壁诗，而此时墙上的字迹已经有些模糊。明谷借用被匈奴远拘草原的蔡文姬作《胡笳十八拍》的故事，对才貌双全的女诗人的不幸遭遇表达了深深同情（和二）。

作为明谷1697年（康熙36）世子册封奏请使团书状官的宋相琦（1657-1723），字玉汝，号玉吾斋。他在“榛子店 次上使韵”诗中，对明谷的七律赋诗作了次韵和诗。

江西夔峡古今村，罗绮千秋共断魂。镜匣残香余翠黛，碧窗明月自黄昏。  
珠词尚带当时泪，玉骨应留异地冤。莫把琵琶和此曲，向来人事不堪论。  
店即季文兰题诗处，事见息庵集中。文兰，江西人。<sup>40)</sup>

玉吾斋特别注明：“店即季文兰题诗处，事见息庵集中”，说明通过息庵等人的记载传播，榛子店‘季文兰题诗处’的旅店已经在朝鲜文人中赫赫有名，成为一处特别的景点。息庵金锡胄（1634-1684）1683年（康熙22年）燕行之后的第二年即病逝，其文集在此时已经刊印流布，成为此后朝鲜使者争相阅读的燕行指南。

在玉吾斋的和诗中，似乎其对季文兰祖籍江西之事尤为瞩目，首句即把季文兰家乡虚拟设定为“江西夔峡古今村”。然而玉吾斋对中国地理显然不熟，他似乎不知道夔峡即瞿塘峡，并不在江西，而是位于重庆市奉节县白帝镇，与丰都鬼城同为长江三峡五大景点之一。而其诗中也满是‘鬼气’：‘断魂’、‘残香’、‘珠泪’、‘玉骨’，似乎在想象女诗人已

38) 崔锡鼎，《榛子店 次季文兰壁上韵》，诗○椒余录  
乙丑冬，余差陈奏兼谢恩副使，右相郑公载嵩为上使，李学士墩以太仆正为书状官，丙寅正月廿八日拜表，二月二十日渡鸭绿江，三月廿五日入燕京留玉河馆四十一日，始得回程。《明谷集》卷之三，第153辑第473页。

39) 崔锡鼎，《榛子店》，诗○蔗回录  
丁丑春，差王世子册封奏讲使，与副使崔公奎瑞、书状宋公相琦赴燕，秋竣事还。《明谷集》卷之五，第153辑第521页。

40) 宋相琦，《榛子店 次上使韵》，诗，《玉吾斋集》卷之二，第171辑第269页。

经香消玉殒，埋骨他乡。其实此时季文兰年纪才四十岁上下，不能不说玉吾斋实在有些过度想象了。

李颐命(1658-1722)，字智仁，号疎斋。1704年（康熙43）以告讦使赴清，著有《燕行诗》、《燕行杂识》。其“榛子店 次副使次季文兰韵”诗曰：

风尘万里换新妆，客舍题诗泪满裳。可惜蛾眉多苦怨，琵琶千古忆昭阳。（和一）

少学阿孀抹晓妆，越罗新作嫁时裳。惊魂未逐檀郎去，羁梦归宁汉水阳。（和二）<sup>41)</sup>

疎斋在诗中刻画了一位风尘仆仆、在旅社愁容满面泣血题诗的新妆少妇形象，不禁让人联想起千古绝唱《琵琶行》的商妇之怨（和一）。据《晋书·潘岳传》、《世说新语·容止》载，西晋文学家潘安的小名为檀郎，是中国历史上著名的美男子。后遂用檀郎代指夫君或情郎。疎斋在第二首诗中依然继续刻画这位刚刚成家不久的新妇，却不得不与夫君（檀郎）阴阳相隔，如今又被人所买流落异乡，饱受人间之苦的悲惨命运（和二）。这就是朝鲜文人疎斋在季文兰这位江西女诗人的题壁诗中所感受到的文化信息。

金昌业（1658-1721）字大有，号老稼斋。1712年（康熙51）以正使子弟军官身份赴清，著有三大燕行录之一

的《老稼斋燕行日记》。一行正使梦窝金昌集（1648-1722，老稼斋长兄）著有《燕行坝麓录》、金德中（？-？）著有《燕行录》。与玉吾斋一样，老稼斋也是读过息庵的季文兰题壁诗记载后，步韵而作和诗。其诗题为“榛子店 次季文兰韵

息庵赴燕时，到此店，见壁上有江右女子季文兰，手书一绝曰：椎髻空怜昔日妆，征裙换尽越罗裳。爷娘生死知何处，痛杀春风上沈阳。览之凄然，逐步其韵”：

江南女子洗红妆，远向边云泪满裳。一落殊方何日返，定怜征鴈每随阳。<sup>42)</sup>

老稼斋的和诗似乎让人们看到一位流着眼泪，朝着异域远行而去的女子背影。殊方指异域或远方，典出唐王维《晓行巴峡》：“人作殊方语，莺为旧国声。”那随着季节自由翱翔的大雁是多么的让人羡慕，流落远方的女诗人是多么的无助。老稼斋把善于描写人物形象的优势发挥出来，虽然刻画的是背影，但依然让人感同身受，潸然泪下。

李宜显（1669-1745），字德哉，号陶谷，农岩金昌协门人。1720年（康熙59）以冬至兼圣诞节进贺正使身份赴清，著有《庚子燕行杂识》（上、下）、《庚子燕行诗》。陶谷详细说明了这次被差燕行的经纬。

庚子七月初八日，余以礼曹参判，陞差冬至兼正朝圣诞节进贺正使。初宋叔相琦于是月五日差

41) 李颐命，《榛子店 次副使次季文兰韵》，诗，《疎斋集》卷之一，第172辑第65页。

42) 金昌业，《榛子店 次季文兰韵 息庵赴燕时，到此店，见壁上有江右女子季文兰，手书一绝曰：椎髻空怜昔日妆，征裙换尽越罗裳。爷娘生死知何处，痛杀春风上沈阳。览之凄然，逐步其韵》，《燕行坝麓录》，老稼斋集卷之五，第175辑第107页。

正使，忠州牧使李乔岳差副使，金化县监赵荣世差书状官矣。大臣以宋叔衰病，不堪远役，而当品绝未有无故可往之人，请以从二品陞拟。余与关西伯李光仲入拟，而余受点，超阶资究，在前冬至正朝圣节使分三行差出，冬至使则趁冬至入去，正朝使趁正朝入去。

圣节，即皇帝生日之称，亦趁其日入去矣。<sup>43)</sup>

陶谷替代因衰病不堪远行玉吾斋宋相琦担任正使，并且兼任三节使赴清，任重道远。但途径榛子店时，仍然不忘寻找季文兰题诗处。

到榛子店汉民陈琪家。曾见息菴集，此地有江右女子季文兰壁上所题诗，而寻觅不得，意秀才辈或可知之，使主胡招一秀才至，名马倬，问之不知。仍酬酢数语，问吾辈衣冠，显有愧屈之色，即书示曰：我们未尝不羨，但我们遵时耳。有一人在傍言：其女子诗，曾果有之，而五六年前，改壤其壁，仍致泯灭云。<sup>44)</sup>

“曾见息菴集，此地有江右女子季文兰壁上所题诗”，陶谷也是与玉吾斋、老稼斋一样，燕行之前在金锡胄的《息庵集》中读到了榛子店题壁诗之事，却找寻不到地点，问当地一秀才也说不知。幸好旁边有人告知，由于五六年前粉刷墙壁，致使题壁诗早已泯灭，因此再也不能亲眼观赏季文兰题壁诗了。虽然颇觉遗憾，陶谷也只能凭想象追次其韵：

掩抑娇姿泪衰妆，不堪燕雪扑征裳。名花已被狂风乱，羞向东君詔艳阳。<sup>45)</sup>

陶谷直接把女诗人季文兰比作娇美的名花，而名花只爱东君不爱燕雪。东君即太阳神，司春之神，典出屈原的楚辞组诗《九歌》之一《东君》。谁来拯救遇雪颠仆的名花，只有那九天之上照耀一切黑暗的艳阳。但陶谷对此似乎并不乐观：“芦管胡儿弄，花容季女捐”<sup>46)</sup>陶谷觉得‘花容自献’也许就是被卖到异域的柔弱女子求得活路的唯一可能结局。从陶谷以下“榛子店”诗中也可以看出其对女诗人悲惨命运的不妙预测：

二八妖姬艳青春，千里驱趁愁眉颦。区区女子何足道，几箇英豪落胡尘。古店摩挲壁间字，恼杀多少征途人。榛子店<sup>47)</sup>

连英豪男儿落魄胡地都会束手，更何况一介二八女子，又能有何例外发生？陶谷只能尝试用手去摩挲墙壁上题诗的痕迹，这时候恐怕连痕迹都已经堙灭无踪，时过境迁，徒增唏嘘烦恼而已。

43) 李宜显，《庚子燕行杂识[上]》，杂识，《陶谷集》卷之二十九，第181辑第469页。

44) 出处同上注。

45) 李宜显，《榛子店 追次季文兰诗韵 壬子》，余以原任大臣，退居扬州陶山村舍。是年四月初三日政，差谢恩正使，后又兼进贺使，赵最寿为副使，李龟休为书状官》，诗，《陶谷集》卷之二，第180辑第352页。

46) 李宜显，《留馆日无聊 漫次杜陵韵 追叙行役 为一大篇 百韵》，诗，《陶谷集》卷之三，第180辑第393页。“芦管胡儿弄，花容季女捐。玉田行始屈，王豕涕空涟。榛子店，有被虏女子季文兰题壁诗，玉田有燕昭王墓。”

47) 李宜显，《纪行述怀。次三渊韵。其二十四》，诗，《陶谷集》卷之三，第180辑第388页。

尹淳（1680-1740），字仲和，号白下、鹤阴，朝鲜后期著名书法家。1723年（雍正1）以谢恩使书状官身份赴清。在其“榛子店”诗中没有直接提及季文兰的题壁诗。

景山无泪吊兴亡，榛老谁言悼女娘。天下有心人若在，祇应先立楚怀王。<sup>48)</sup>

值得注意的是，白下在合句中提出了‘先立楚怀王’的主张，典出《史记·项羽本纪》：“夫秦灭六国，楚最无罪。自怀王入秦不反，楚人怜之至今，故楚南公曰‘楚虽三户，亡秦必楚’也。”这是范增给项梁分析天下大势后提出的对策。白下承句中的“女娘”显然不是别人，而是被卖到后金沈阳的女诗人季文兰，由此认为如果天下有心人要反清复明，必须借明室的号召力，才能团结一切反清力量，最终把清朝逐出关外，拯救季文兰。这是朝鲜文人第一次在诗中论及天下兴亡，提出解救季文兰的具体措施。

李时恒（1672-1736），字士常，号和隐、晚隐。1727年（雍正5）以谢恩兼陈奏使沈寿贤从事官身份赴清燕行。在其题为“榛子店续和季文兰诗”次韵诗中，提及“文兰以华女为虏所获，留题店壁，和者甚多”，注意到了以季文兰题壁诗为中介，在朝鲜燕行文人间所引起的和诗热潮。

嫁虏深羞泣汉妆，文兰千古更沾裳。至今哀玉留遗恨，古壁尘埋怨夕阳。<sup>49)</sup>

和隐似乎在以第三者立场审视季文兰流落胡虏之事，认为此为汉人耻辱，千古遗恨。但并未像白下一样借此提出具体的反清复明措施。在另一首“读文兰诗”的五律中，和隐为此作出了解释。

马首入榛店，芳尘见壁词。琅琅哀玉动，箇箇苦心知。  
青冢昭君怨，胡笳蔡女悲。嗟嗟非独尔，天下尽为夷。<sup>50)</sup>

和隐诗中认为，虽然季文兰题壁诗中的哀怨和苦心就像先后远嫁南匈奴的王昭君、蔡文姬一样令人哀怜，但这绝非偶然现象，当今天下为蛮夷所占，清朝的统治现在成为不可逆转的事实，所以季文兰的悲剧已经注定不可挽回。

徐命膺（1716-1787）字君受，号保晚斋，子徐浩修，孙徐有桀，为北学派鼻祖之一，倡导北学派利用厚生的主张。<sup>51)</sup>1754年（乾隆19）左右燕行。在其“榛子店并序”的序中，详细引述了息庵的记载。

48) 尹淳，《榛子店》，诗○七言绝句，《白下集》卷之一，第192辑第194页。

49) 李时恒，《榛子店 续和季文兰诗 文兰以华女为虏所获 留题店壁 和者甚多》，诗，《和隐集》卷之三，续第57辑第443页。

50) 李时恒，《读文兰诗》，诗，《和隐集》卷之三，续第57辑第443页。

51) 徐命膺，《北学议序》，序，保晚斋集卷第七，第233辑第208页。“曰我国贫国也，呜呼，国果贫乎？数法失其宜乎。朴齐家次修，奇士也。岁戊戌，随陈奏使入燕，纵观其城郭室庐车舆器用，叹曰：此皇明之制度也。皇明之制度，又周礼之制度也。凡遇可以通行于我国者，熟视而窃识之。或有未解，复博访以释其疑，归而笔之于书，为北学议内外篇。其纪数详密，布法明畅，且附以同志之论，一按卷可推行。噫，何其用心勤且挚也。”

壬戌冬，金息庵锡胄以冬至上使，过榛子店，见壁上有题曰：

椎髻空怜昔日妆，征裙换尽越罗裳。爷孃生死知何处，痛杀春风上沈阳。又曰：奴，江右虞尚卿秀才妻，夫被戮，奴被掳，今为王章京所买。戊午正月卅一日，洒泪拂壁书此，惟望天下有心人见此，怜而见拯。又曰：奴年二十有一，缺三字，秀才女也，母李氏。遂终之以季文兰书。

息庵问故于主媪，主媪具言五六年前沈阳王章京，用白金七十，买此女过此，悲楚黯惨之中，姿态尚娇艳动人，垂泪书此，右手稍倦，则以左手执笔疾书云云。其说具在集中，吾东能诗士往往相属为诗。今吾辈过榛店问此事，已无人识之者。乃知从古怨妇羁女只字片句，一遇文人，流传于后者，亦有幸不幸也。遂与副价行台和之。<sup>52)</sup>

对比息庵的记载可知，保晚斋的转记有几处漏误增删。‘秀才妻’后缺‘也’；‘掳’原为‘虏’；‘母李氏’后缺‘兄名（缺卍字）国，府学秀才’；‘息庵问故于主媪’原为‘副使柳公招主媪问之’；‘垂泪书此’前缺‘扫壁’二字；‘疾书云云’原为‘疾书云’。

二者虽然略有异同，但基本维持了息庵所记原貌，再次印证了《息庵集》对其后朝鲜燕行文人影响之大。而保晚斋途径榛子店之时，已是题壁事件发生近70年之后，此时题壁诗早已湮灭，在当地“问此事，已无人识之者”。

与之前的燕行文人对此事件的认知及情感相比，保晚斋“从古怨妇羁女只字片句，一遇文人，流传于后者，亦有幸不幸也”的说法无疑淡化许多，甚至可以说只是单纯看作文人之间的雅闻轶事而已。这一点从保晚斋的“榛子店 并序”诗中也可以看出：

娇花劲竹各冬春，才貌难兼节义真。一死从来唯在己，不关天下有心人。

保晚斋并没有把女诗人季文兰看做当代王昭君或蔡文姬，而是将之视为四季常见的‘娇花劲竹’，女子的‘才貌’并不能与‘节义’兼得，甚至点明季文兰没有‘以死明志’即其明证，因此并不值得天下人关心哀怜。这可以说是一种典型的鄙视妇女的封建纲常思想，在当时代表了一部分朝鲜文人的看法。

李德懋（1741-1793），字懋官，号炯庵、雅亭、青庄馆。博学多识，朝鲜后期北学派代表人物之一。1778年（乾隆43）赴清，著有《入燕记》。在其“榛子店忆季文兰”诗序中说：“店壁，有江南女子季文兰题诗，清城相公见而传之，今不可寻。”<sup>53)</sup>清城即息庵别号，可见炯庵也是从《息庵集》中看到了季文兰题壁诗之事，而且途径榛子店时，亦曾尝试探寻诗壁遗迹。

野风开落最红花，歇马残阳过客嗟。榛子荒凉犹有店，兰姬憔悴昔离家。  
悲词自拟胡笳拍，薄命难逢古押衙。幸有知音东国使，流传哀怨到天涯。<sup>54)</sup>

主张“朝鲜人写朝鲜诗”的炯庵以朴实无华的诗语，描写了一位在榛子店歇马休憩的东国使者，站在野风残阳之中，想象着流落他乡愁眉不展的女诗人的艰难处境，不禁唏嘘不已

52) 徐命膺，《榛子店 并序》，诗，保晚斋集卷第一，第233辑第88页。

53) 李德懋，《榛子店忆季文兰》，雅亭遗稿[三]○诗[三]，青庄馆全书卷之十一，第257辑第198页。

54) 李德懋，出处同上注。

。这里引入瞩目的，是炯庵第一次称季文兰为‘兰妃’。她虽然有着不输创作《胡笳十八拍》的蔡文姬的诗才，奈何没有拯救女诗人于水火之中的‘古押衙’。所幸不少东国知音知其哀怨，使其芳名远播海外。在《入燕记》中，炯庵记述了途径榛子店时所见情景。

#### 五月

初十日己巳，风。榛子店五十里午餐，丰润五十里宿。○榛子店荒凉愁绝，有古陂，天旱水干，往往有芍药丛生。金清城息庵集，有江右妇人，为满州章京所掠，过榛子店，题七绝于壁，词甚哀怨。使臣所过者，皆有诗。后来磨灭不辨，今不知其为何家也。<sup>55)</sup>

时值五月芍药花盛开时节，然而此时榛子店已经“荒凉愁绝”，不复昔日繁华景象。虽然如此，炯庵并未因此而忽略榛子店在燕行文学史上的地位，由于季文兰题壁诗在东国得到广泛传播的缘故，“使臣所过者，皆有诗”，形成了中朝文学交流史上一种独特的文化现象。

1778年与炯庵一起燕行的《北学议》作者朴齐家（1750-1805），字次修、在先、修其，号楚亭、贞蕤。在其“榛子店”诗中，也确认了燕行文学史上特有的“季文兰现象”。

狐裘满女不知寒，韩使来时倒屣看。一自息庵诗话后，人人都说季文兰。<sup>56)</sup>

楚亭曾前后两次燕行，从时节来看此诗应该作于第二次燕行之时（1790年，乾隆55）。此时的榛子店居民已经不全是汉族，而是满汉混居，所以朝鲜使团到来之时，身穿狐裘的满洲族女人也出门围观。自从息庵记载季文兰题壁诗的诗话在朝鲜文坛传布之后，途径此地的燕行人无不津津乐道这个话题，唱酬诗作也连绵不绝。

柳得恭（1748-1807），字惠风、惠甫，号冷斋、冷菴、歌商楼、古芸堂、古芸居士、恩晖堂等，北学派学者，奎章阁初代检书官之一。冷斋曾三次燕行：一次沈阳，二次燕京。1778年（乾隆43）冷斋以徐浩修幕官身份赴沈阳。同年，李德懋和朴齐家燕行，把收录有柳得恭、李德懋、朴齐家、李书九等人汉诗作品的《韩客巾衍集》（由冷斋叔父柳琏编纂）传布燕京。1790年（乾隆55）冷斋作为祝贺乾隆皇帝80大寿使节团成员与朴齐家一起赴燕京，著作了记录本次旅程的《滦阳录》。1801年（嘉庆6）冷斋受朝鲜国王之命为购买朱子书善本再次赴燕京，著作了《燕台再游录》。在其“榛子店重阳”诗中曰：

轧轧征轮不暂闲，黄花开尽度渝关。家人此日思行客，未定燕山沈水间。<sup>57)</sup>

冷斋此诗的高明之处在于诗想的独特角度，是从季文兰家人思念远行的女儿立场出发，设定了季文兰的一个可能的大致方向，即山海关外的“燕山沈水”之间。诗中提及的渝关即榆关，又称临闾关、临榆关、山海关，为明长城东端起点；沈水即浑河古称，又称小辽河，源于辽宁省抚顺市清原县滚马岭，流经抚顺、沈阳、鞍山等市，在盘山县

55) 李德懋，《[正祖二年五月]》，入燕记 [上]，《青庄馆全书》卷之六十六，第259辑第210页。

56) 朴齐家，《榛子店》，[诗]，贞蕤阁三集，第261辑第523页。

57) 柳得恭，《榛子店重阳》，古今体诗 一百九十首，《冷斋集》卷之四，第260辑第72页。

古城子附近纳太子河、汇入大辽河，流域范围在辽宁省中东部。因此冷斋认为季文兰被沈阳王章京所买流落关外，出关之后的活动轨迹大致范围就在燕山与沈水之间。

作为朝鲜后期北学派的旗手，朴趾源（1737-1805），字美仲，号燕岩、烟湘、冽上外史。1780年（乾隆45）以祝贺乾隆皇帝七十寿辰的圣节正使朴明源的子弟军官身份赴清，著作了三大燕行录之一的《热河日记》。燕岩平生以散文著称，极少作诗。在1780年“七月二十七日癸卯”的日记中，燕岩记载道：“行至榛子店，寻息庵金公所观季文兰题诗，而不可见矣。事见避暑录。沿路数千里间，妇女语音，尽是燕莺，绝不闻麤厉之声，所谓‘不识家人何处在，隔帘疑是画眉声。’尝欲一听其娇唱，今其所唱词曲，虽有文理，既不辨其声音，又不识其腔调，反不如未闻时为有余韵。夕抵丰润城下。”<sup>58)</sup>虽然与自古中国‘书同文’，但字同音异，所以燕岩并不能听懂女艺人所唱词曲。

在“避暑录”中，燕岩引述了息庵所记季文兰题壁诗轶事，并将此事转告清朝官员奇丰额。

康熙戊午，江右女子季文兰，为胡人所掠，卖往沈阳，到榛子店，题诗壁上曰：椎髻空怜昔日妆，征裙换尽越罗裳。爷孃生死知何处，痛哭春风上沈阳。<sup>59)</sup>下题：奴，江右虞尚卿秀才妻也。夫被戮，今为王章京所买，将往沈阳。戊午正月廿一日，洒泪拂壁书此，惟望天下有心人，见此怜而见拯。奴年今二十有一。后六年癸亥，清城府院君金公锡胄，使过此店，录而归。后三十余年，老稼斋金公昌业，又过此店，则壁间题墨犹有存者。今余后稼斋六十余年而又过此店，徘徊咏想，而壁上所题，不可见矣。余偶举此诗，语之奇丰额，奇潜然泪下，问榛子店在于何处。余曰：在山东关外。奇即题一绝曰：红妆朝落镶黄旗，笳拍伤心第五词。天下男儿无孟德，千金谁赎蔡文姬。<sup>60)</sup>

在热河太学留馆期间，燕岩结识的官员和文人中，有一位是主动前来与燕岩相识的：“弟亦朝鲜人也，贱名奇丰额，中庚寅文魁，见任贵州按察使。”<sup>61)</sup>作为朝鲜人，奇丰额<sup>62)</sup>并没有详细介绍自己身世，但通奉大夫大理寺卿致仕尹嘉铨曰：“方今四海一家，出门便是同胞兄弟。”<sup>63)</sup>由此可见乾隆朝各族读书人只要科举出身皆可以被录用，奇丰额被委以贵州按察使重任并不奇怪。听到燕岩介绍季文兰题壁诗轶事之后，奇丰额潜然泪下，作七绝一首。实际上身为朝鲜族，但自幼被满族人收养，隶属满洲正白旗的奇丰额对八旗封地自然十分熟

58) 朴趾源，《关内程史起庚子，止庚戌，凡十一日。自山东关内，至皇京，共六百四十里》，热河日记，第252辑第189页。

59) 燕岩把题壁诗合句“痛哭春风上沈阳”记作了“痛哭春风上沈阳”，这是朝鲜后期文人对原韵诗的传抄过程中第一次出现误记。而在原韵诗序中，“今为王章京所买”句后，多“将往沈阳”四字，臆亦为燕岩添加。

60) 朴趾源，《避暑录》，热河日记，《燕岩集》卷之十四○别集，第252辑第280页。

61) 朴趾源，《太学留馆录系前篇。乙卯止庚申凡六日。》，热河日记，《燕岩集》卷之十二○别集，第252辑第211页。

62) 奇丰额（1745-1806）一姓黄，先世为朝鲜人，后隶内务府满洲正白旗，惠色之子。从小为塞勒养子，十六岁还本宗。乾隆三十四年（1769）进士，授刑部主事，历江苏布政使至巡抚、贵州按察使。不忘养育之恩，请以本身封典封塞勒，并以第三子广麟为塞勒之后。后曾罢官，再起至内务府主事。

63) 朴趾源，《太学留馆录系前篇。乙卯止庚申凡六日。》，热河日记，《燕岩集》卷之十二○别集，第252辑第211页。

悉，所以首句即提到季文兰流落到满族镶黄旗之地。镶黄旗是上三旗之首，旗内无王，由皇帝所亲统。但奇丰额并不认为流落此地是女诗人的幸运之事，而是替女诗人感到悲伤，就如《胡笳十八拍》中的第五拍所唱：“雁南征兮欲寄边声，雁北归兮为得汉音。雁高飞兮邈难寻，空断肠兮思悒悒。攒眉向月兮抚雅琴，五拍冷冷兮意弥深。”感叹天下再也没有想曹操那样的男儿，能够拯救女诗人于水火之中。

作为清朝官员，奇丰额与此前所有的朝鲜燕行诗人一样，对季文兰的不幸遭遇深有同感，以至于“潸然泪下”。而燕岩也以季文兰题壁诗作为中介，了解了清朝官员对于汉族女子被清兵所掳而流落关外的态度，以此窥探满汉矛盾的真相，为以后从总体上把握清朝社会实况，从而创作著名的“热河日记·审世篇”起到了一定的铺垫作用。

金燿（1723-1790），字光仲，号竹下、药岬，官至领议政。1784年（乾隆49）以陈奏兼奏请正使、1786年（乾隆51）又以冬至谢恩使身份第二次赴清。在“榛子店旧有季文兰壁上诗今则无矣 为之一诵 殊令人悲咤”诗题之下，竹下作了七绝二首。

红妆白貌染黄尘，壁上哀词怨恨新。天若有情天亦老，世间谁是有心人。（和一）

明妃哀怨上琵琶，乐谱留传泣绮罗。千古蛾眉一般恨，驿亭诗句又兰娥。（和二）<sup>64)</sup>

二首绝句紧紧围绕一个“哀怨”主题吟咏，层次鲜明，步步递进。第一首起句以‘红’、‘白’、‘黄’三基色勾勒出一个妙龄女子，在旅社墙壁上题写哀辞，其‘怨恨’愈久弥新。“天若有情天亦老”典出唐李贺《金铜仙人辞汉歌》诗，指自然法则是无情的，也用来形容强烈的伤感情绪。合句中竹下的追问意在唤起世上的有心之人，勇敢地站出来拯救女诗人于苦难之中（和一）。第二首绝句则把‘哀怨’谱成《琵琶行》，今天兰娥（指季文兰）的‘哀怨’与千百年前远嫁塞外的明妃（指王昭君）一样，其怨恨都是一样的（‘一般恨’）（和二）。

洪良浩（1724-1802），字汉师，号耳溪，其孙为洪敬谟。1782年（乾隆47）以冬至副使、1794年（乾隆59）以冬至兼谢恩正使身份两次赴清。著有燕行诗集《燕云纪行》、《燕云续咏》。在其五律“榛子店”诗中，耳溪以明快的语调吟咏凭吊女诗人的情感。

偶过榛子店，遥忆季文兰。古驿春重到，辽城鹤未还。

空留题壁字，何处望夫山。蔡女无人赋，遥瞻汉月弯。<sup>65)</sup>

诗人途径榛子店时自然回忆起多年前的江右女诗人季文兰。时节虽然已是初春，但仍然不见丁令威化身的辽鹤回返故乡。墙壁上的题字就像化为望夫石的孟姜女一样，“望夫处，江悠悠。化为石，不回头。上头日日风复雨，行人归来石应语。”<sup>66)</sup>后世再也不见曹孟德，

64)

金燿，《榛子店旧有季文兰壁上诗，今则无矣。为之一诵，殊令人悲咤》，诗，《竹下集》卷之四，第240辑第293页。

65) 洪良浩，《榛子店》，诗○燕云纪行

王寅冬，以冬至兼谢恩副使赴燕。郑相公存谦为正使，洪学士文泳为书状官。《耳溪集》卷六，第241辑第101页。

66) 唐代诗人王建七言古诗“望夫石”。



而今谁救蔡文姬？耳溪也只能遥望着千古明月，枉自兴叹而已。

金载瓚（1746-1827），字国宝，号海石。1799年（嘉庆4）以进贺兼谢恩使赴清。在其吟咏‘榛子店’的诗中，认为女诗人的‘香魂’依然在等待‘有心人’：

古壁红词不染尘，香魂犹待有心人。从古胡山青冢在，白龙堆上怨残春。右榛子店<sup>67)</sup>

诗中的‘古壁红词’、‘香魂’显然是指120年前流落此地题诗墙壁的女诗人季文兰，海石仿佛感觉到女诗人的魂魄并未远去，依然在等待有心之人拯救自己。‘胡山青冢’指埋骨西域匈奴之地的王昭君，而合句的‘白龙堆’简称龙堆，《汉书·西域传》：“楼兰国最在东垂，近汉，当白龙堆，乏水草”，是汉时匈奴所居之地。海石以此典故比喻女诗人的怨恨百年犹在，经久不灭。

南公辙（1760-1840），字符平，号金陵、思颖，擅长书法、金石文。与金祖淳、沈象奎、金相任、成大中、李德懋等交好。主张醇正的六经古文，以欧阳修文章为典范，曾积极参与正祖的文体反正运动。1807年（嘉庆12）以冬至使赴燕京。在其“榛子店”诗中，以似乎平淡无奇的语调，轻轻吟诵女诗人的怨恨之情。

山如鬟黛水如眉，尚忆兰姬怨别时。满地干戈夫婿隔，不关遮道有杨枝。<sup>68)</sup>

在前述炯庵李德懋的“榛子店忆季文兰”诗中，第一次称季文兰为‘兰妃’。此处金陵显然拥护炯庵的提法，再次以‘兰妃’称呼女诗人。经过一百多年的岁月洗礼，这位流落关外的女诗人季文兰已经脱胎换骨，变成朝鲜文人心目中与‘明妃’王昭君、‘文姬’蔡琰同等分量的文化符号，以其才貌双全和奇特经历赢得了海外诗人的无限景仰和广泛同情。

洪奭周（1774-1842），字成伯，号渊泉。洪乐性之孙、洪仁谟之子，洛论系学者，继承李珣和金昌协的学术倾向，崇尚顾炎武，强调经世致用的学问。其《实事求是说》，主张“求放心”、“实事求是”。30岁（1804年，嘉庆9）以谢恩使书状官、58岁（1832年，道光12）以正使身份赴清，结交清朝学者，平生保持书信往来。著有《鹤岗散笔》。其“榛子店，次季文兰韵”让人联想起百年前女诗人的形象：

高髻弓鞋汉样妆，青娥犹是旧衣裳。秋风歇马文兰店，皱绿前山怨夕阳。<sup>69)</sup>

渊泉把榛子店旅社定义为“文兰店”，显然已将季文兰及其题壁诗视作了代表榛子店的文化符号。一百二十年之后，渊泉来到榛子店，看到汉族妇女的装束依旧，但秋风夕阳之下，绿水青山之间，仿佛依然萦绕着百年前流落他乡女诗人的怨气。诗中合句的‘皱绿’典自宋末元初竹山蒋捷的《白苎》诗：“水生漪，皱嫩绿，潜鳞初跃”，此处用以描写榛子店碧水青山的环境之美。

申纬（1769-1847），字汉叟、幼经，号紫霞、警修堂。与金祖淳、丁若镛、金正喜等交

67) 金载瓚，《送洪校理文泳赴燕十四绝》，诗，海石遗稿卷之三，第259辑第380页。

68) 南公辙，《榛子店》，诗，金陵集卷之四，第272辑第66页。

69) 洪奭周，《榛子店，次季文兰韵》，诗[二]，渊泉先生文集卷之二，第293辑第47页。

好，以汉文书法、韩国画著名，文学主张受翁方纲肌理说（实际上是王士禛神韵说和沈德潜格调说的调和与修正）影响极大，尤喜杜甫与苏东坡。1812年（嘉庆17）以陈奏兼奏请使书状官身份赴清。与渊泉的次韵诗相似，紫霞的“榛子店吊季文兰”诗同样也极力描绘女诗人的形象。

桃花斲面洗残妆，泣尽香罗旧着裳。薄命较多商妇恨，琵琶斜抱过浔阳。<sup>70)</sup>

起句的‘斲面’指以刀划面，古代匈奴、回鹘等族遇大忧大丧，则划面以示悲戚。女诗人伤心悲愤，以泪洗面，但依旧遮不住如桃花般姣好的面容。其悲惨的命运像《琵琶行》中的商妇一样，让人同情落泪。

李尚迪（1804-1865），字惠吉，号藕船，考据学家秋史金正喜门人，其金石文、书画、古董造诣颇深。与洪世泰、李彦瑱、郑芝润合称“译官四家”，并与申纬、洪翰周、李晚用、丁学渊等人结为诗友。1829年至1864年期间（道光9-同治3）曾12次往返清朝，与清朝文人吴崇梁、翁方纲、刘喜海等结识并交游。其“榛子店怀季文兰”诗曰：

落花风雨怨天涯，留得长亭幼妇辞。马上琵琶千古恨，汉家犹是太平时。<sup>71)</sup>

藕船在承句中用‘长亭’比喻离别，更隐喻一去难返的依依惜别。如唐李白《菩萨蛮》：“平林漠漠烟如织，寒山一带伤心碧。暝色入高楼，有人楼上愁。玉阶空伫立，宿鸟归飞急。何处是归程，长亭更短亭。”转句用白居易《琵琶行》言‘商妇之恨’，合句斥中原人已忘记亡国之恨、妻离子散之苦，重又歌舞升平。

赵斗淳（1796-1870）字符七，号心庵，官至领议政。1835年（道光15）冬至副使身份赴清。其“榛子店忆季文兰诗”的诗序引述《老稼斋燕行日记》中的有关记载说：

江右季文兰，掠买到此，书一诗于店壁曰：椎髻空怜昔日妆，征裙换尽越罗裳。爷孃生死知何处，痛杀春风上沈阳。诗下有小序云：奴，江右虞尚卿秀才妻季文兰也。夫被戮，奴被掳，今为王章京所买。戊午正月二十一日，洒泪拂壁书此。愿天下有心人见此。肃庙癸亥，息庵相公之过此也，其诗尚存。详在稼斋日记。<sup>72)</sup>

对比前述最初完整版‘榛子店题壁诗’，心庵诗序中的记载有所删减，但总体上较为完整，显然是参考了息庵与老稼斋所记综合而成。其所赋诗曰：

胡笳遥忆蔡文姬，马上琵琶更可悲。一种红颜今古恨，人间又有季兰诗。（赋一）

天南地北杳风尘，春雨凄凄夜向晨。惜玉怜香娘自苦，世间元少有心人。（赋二）<sup>73)</sup>

70) 申纬，《榛子店吊季文兰》，奏请行卷王申七月，至癸酉二月。，《警修堂全藁》册一，第291辑第15页。

71) 李尚迪，《榛子店怀季文兰》，[诗○丙申]，《恩诵堂集》诗卷五，第312辑第189页。

72) 赵斗淳，《榛子店忆季文兰诗》，诗，《心庵遗稿》卷之三，第307辑第83页。

73) 赵斗淳，出处同上注。

自从朝鲜文人对于“榛子店题壁诗”自行赋诗或次韵和诗以来，创制《胡笳十八拍》“笳一会兮琴一拍，心愤怨兮无人知”的蔡文姬与白居易《琵琶行》中“千呼万唤始出来，犹抱琵琶半遮面”的商妇形象，始终最先在他们的诗想中浮现，可见中国的历史文化对朝鲜历代文学影响之深远。清初女诗人季文兰，虽与后汉的蔡文姬、唐代的商妇处于不同时空，但今古红颜离别之恨则无差别，也都体现在了其艺术作品之中（赋一）。作者途径榛子店旅社，遥想当年女诗人的凄苦遭遇，依然生出“惜香怜玉”之情，但时过境迁，红颜想必已然作古，只能慨叹像曹孟德一样的“世间有心人”再难遇见（赋二）。

笔者在前述“题壁诗1：桂娘与桂香”篇中提到，芝湖李选在其“沈阳次桂娘文兰榛子店韵”诗中，涉及了季文兰与桂娘的题壁诗，而秋琴姜玮《新民屯有题壁截句，未署桂香，不知是何人，盖女流也。多载东人燕槎录，与榛子店季文兰诗并传，其辞甚佳。今录于左，仍次其韵》则涉及到了季文兰与桂香的题壁诗。其“榛子店 奉和上行人”诗曰：

战地惊灰阅劫寒，竟无人赎季文兰。伤心独有青城笔，留得千秋古艳看。  
金青城相国锡胄，奉使过此店，录诗东来，距题诗时五六年。<sup>74)</sup>

在该诗的后跋中，秋琴言明自己是读息庵所录“榛子店题壁诗”以后有感而作。此诗合句“古艳”语出后汉无名氏的“古艳歌”：“莹莹白兔，东走西顾。衣不如新，人不如故。”喻示秋琴视该“题壁诗”如同“古艳歌”一样，是一首弃妇、怨妇诗。

李建昌(1852-1898)，字凤朝、凤藻，号宁斋，朝鲜后期文人学者，平生斥洋。1874年（同治13）以书状官身份赴清，与清朝学者徐邨、黄珏等交游文名大盛。著有《党议通略》、《明美堂稿》。其“沙河 次季文兰韵”诗曰：

滦河骤雨洗残妆，蓟树寒烟拂满裳。却羨古来征妇怨，只将魂梦度辽阳。<sup>75)</sup>

宁斋首先以‘滦河’、‘蓟树’点明题壁诗故事发生的地点，使诗境具有厚重的历史沧桑感。转句所用“征妇怨”为唐代诗人张籍的古诗，借一个征妇（出征军人之妻）不幸遭遇的内心怨叹，反映出当时边患给人民带来的严重灾祸。“万里无人收白骨，家家城下招魂葬”，征妇的命运是不幸的，但她自己还能够在家中给丈夫举行招魂仪式，然而相比之下，女诗人季文兰的丈夫死于战乱，自身又被虏胡地，所以宁斋说女诗人反倒羡慕那位征妇比自己幸运。

金允植（1835-1922），字洵卿，号云养。曦斋朴珪寿、凤栖俞莘焕弟子，稳健开化派，曾于1894-1896年期间任朝鲜高宗朝外务大臣。47岁（1882年，光绪8）时，以领选使被派往天津学习新文化和新式武器制作及使用的方法。经过榛子店时，因由息庵所记‘季文兰事’有感而赋诗吟诵。

壁诗哀艳墨华残，塞上行人拭泪看。练练半规榛店月，可怜犹似季文兰。

74) 姜玮，《榛子店 奉和上行人》，北游草，《古欢堂收草》诗稿卷之十二，第318辑第443页。

75) 李建昌，《沙河 次季文兰韵》，诗○北游诗草，《明美堂集》卷二，第349辑第15页。

季文兰事见息庵集<sup>76)</sup>

起句‘壁诗’指‘榛子店题壁诗’，而‘塞上行人’显然指息庵，当时字迹有些模糊，但基本尚可辨认，所以息庵擦亮眼睛使劲读取并记录下来。转句的“练练月”典出《琵琶行》作者白居易的《酬梦得暮秋晴夜对月相忆》：“霁月光如练，盈庭复满池”，运用了通感的手法，使无形的月光与有形的白练通感。而“半规月”则指半圆形月，典出南朝宋谢灵运《游南亭》诗：“密林含餘清，远峰隐半规”，以及宋杨万里《海门残照》诗：“万里长江白，半规斜日黄”。此处意指息庵望着榛子店天空中的柔和残月，遥想着女诗人的可怜身世和凄惨命运。

经过以上梳理可知，明末清初以各种身份赴清的燕行文人之中，途径榛子店并对季文兰题壁诗作次韵或赋诗的文人共有三十一位之多，其中直接目睹的大约有十一人。陶谷李宜显燕行前5年，即1715年左右，由于店主粉刷墙壁致使该题壁诗湮灭无踪，其后燕行人只能凭借想象次韵赋诗。朝鲜使者在季文兰题壁诗（1678年）二年之后的1680年（汾厓燕行）至1882年（云养燕行）的二百年间，已经把季文兰及其题壁诗当作受到明清换代战乱祸害的汉族女性代表，并且赋予“兰妃”称号，将之与“明妃”、“文姬”并列，成为代代相传的文化符号，借以跨时空地抒发宗主国明朝的亡国之恨并唤起对中原文化的凄美记忆。

## 2. “文献赋诗”的情况

朝鲜中期以后，由于各种原因没有得到燕行机会的文人之中，通过历代燕行录的刊行和传播，也有不少人季文兰“榛子店题壁诗”产生了浓厚兴趣，他们不仅“文献赋诗”抒发千古衷肠，而且通过文献研究题壁诗各种记载的来龙去脉，进一步扩大了在朝鲜文坛的影响力。其中成就最大的人物就是研经斋成海应。

成海应（1760-1839），字龙汝，号研经斋，青城成大中之子，实学家、经学家，与李德懋、柳得恭、朴齐家等交游甚笃。

研经斋虽然学识卓越，但不知何故，终其一生没有燕行。尽管如此，研经斋对中国文化却一点都不陌生，其中不乏通过阅读不同时期燕行录扩展对中国的认识。令人惊奇的是，研经斋曾经对季文兰题壁诗的背景以及之所以流传东国的经纬有过详细的考证研究。在“季文兰词”的诗序中，研经斋把季文兰流落胡地的原因与吴三桂“三藩之乱”联系起来：

肃宗癸丑，吴三桂反江右，乙卯僭称周，丁巳病死。其孙世璠立，戊午清人击诛之。江右女子季文兰为胡人所掠，卖往沈阳，到榛子店，题诗壁上曰：椎髻空怜昔日妆，征裙换尽越罗裳。爷孃生死知何处，痛哭春风上沈阳。下题：奴，江右虞尚卿秀才妻也，夫被戮，今为王章京所买，将往沈阳，戊午正月廿一日，洒泪拂壁书此。惟望天下有心人见此，怜而见拯。奴年今二十有一。后六年，清城府院君金公锡胄奉使过此店，录而归。后三十余年，老稼斋金公昌业又过此店，则壁间墨犹在，今则已泯灭云。<sup>77)</sup>

76) 金允植，《榛子店》，诗○析津于役集，《云养集》卷之三，第328辑第274页。

77) 成海应，《季文兰词》，杂诗，《研经斋全集》卷之一，第273辑第11页。

首先以笔者前面所整理的最早版本季文兰原韵诗及序为基准，比较一下研经斋所记原韵诗及序的内容异同。如前所述，题壁诗原韵的合句在燕岩的转抄中第一次出现把‘痛杀’记作‘痛哭’的误记，这里研经斋的转记出现了同样的误记，原因不明。‘江州’记作‘江右’；“夫被戮”后缺“奴被虏”；“今为王章京所买”句后，多“将往沈阳”四字，臆最初亦为燕岩添加，研经斋因袭。“怜而见拯”句后，缺“奴亦不自惭其鄙谚也。吁嗟伤哉，吁嗟伤哉”十七字；“奴年二十有一”缺“父季某秀才，母陈氏，兄名国庠，府学秀才。季文兰书”二十字。

尽管此处诗序中对原韵诗及序的记载有所缺漏，但研经斋实为燕行文学史上最早从研究角度挖掘整理季文兰题壁诗全貌的学者。<sup>78)</sup>不仅如此，他模仿晋末宋初诗人颜延之的《秋胡诗》

而作的“季文兰词”完美地演绎了女诗人出生、被虏、题壁诗的整个过程：

余用颜光禄秋胡诗而为八解。

奴家名文兰，生在江右村。父母顾养我，骄痴难具论。插花窥宝镜，斗草向芳园。年长将及笄，容貌颇婵媛。芳岁易晚晚，择对结婚姻。一解

嫁我向何处，同省虞秀才。丰茸好容仪，人道夫婿佳。宛转同枕席，本图百年偕。燕婉情不释，黽勉才所该。何意吴家乱，北风扬尘埃。二解

吴家窠叛逆，错道扶义起。长驱入荆州，兵革斗未已。北人事杀掠，兵燹荡闾里。一家共提挈，窜伏荒谷里。缕命岂望全，誓同郎生死。三解

兵戈果难保，相与被系虏。阿郎复被戮，痛恨彻厚土。白骨不得收，终竟委草莽。自顾志节弱，未能同碓斧。漂泊更何之，默默徒愁苦。四解

顽胡不离侧，悦我美容色。安得似嫖母，免为人所乐。刀剑复恐人，薄躯宁自惜。不惯与虏宿，日夕空愁毒。悠悠复行役，倏已背乡国。五解

沈阳王章京，道是何物胡。怀中饶白金，卖我相与俱。时来纵谗浪，自为易罗襦。荏弱诚自愧，褰裳又殊涂。征马日促驾，山川竟何徂。六解

迢迢榛子店，杳杳天一涯。辽山望渐迫，楚水今已遐。女子一失所，流落竟谁家。父母隔生死，眼泪空复斜。安得化鸿鹄，高飞云路赊。七解

奴年二十一，切望有心济。店壁字不灭，义人眼不眯。千金倘一掷，此身得昭洗。题诗诉既遍，论心笔又泚。不知蔡文姬，终得故乡抵。八解<sup>79)</sup>

78)

研经斋是燕行文学史上第一位比较各家所记不同版本季文兰题壁诗异同的朝鲜文人，他不仅分析了季文兰题壁诗的作成年代、原因，也对息庵、药泉、老稼斋诸家燕行途径榛子店时题壁诗的保存情况作了考证，并具体对比了息庵与药泉所记内容的异同，并增加了其后燕行者调查题壁诗作者信息的结果，方便读者了解季文兰以及题壁诗的全貌。参照成海应，《诗话》，识小类，《研经斋全集》外集卷五十五，第277辑第486页。“季文兰，江右女子也。吴三桂叛清于江右六年戊午，而为清所灭。文兰被俘过榛子壁，题诗而去。又六年癸亥，金清城奉使入燕，过此店而录以归。又明年甲子，南药泉亦入燕，见而和之。后三十年，金稼斋过之，则壁间题墨犹在云。第金、南二公所录，微有详略。癸亥与甲子岁之间，不应有所异也。金公录中文兰诗小序云 奴江右 南公所录，右作州；虞尚卿秀才 南公所录，无此二字 妻也；夫被戮奴被虏，今为王章京所卖，戊午正月廿一日，洒泪拂壁书此，惟望天下有心人见此，怜而见拯。此下南公所录，有奴亦不自慙其鄙谚也吁嗟伤哉吁嗟伤哉十七字。奴年二十有一，缺三字。南公所录有季字，秀才女也。母李 南公所录作陈氏；兄名 缺数字 国，府与秀才，此下缺，亦不可记。南公所录，作兄名国庠，府学秀才；季文兰书，南公所录无书字；招主媪问之，俱言五六年前，沈阳王章京用白金七十买此女，遇此悲楚黯惨之中，娇艳动人，右手稍倦，以左手执笔疾书云。戊午十月，三桂孙世璠诛死，文兰当于其前被俘而入沈阳。清人讨世璠者久，而侵掠楚省，士女之横被残贼可知。”

79) 成海应，《季文兰词》，杂诗，《研经斋全集》卷之一，第273辑第11页。

研经斋之所以选取“颜光禄秋胡诗”作为比照对象写作“季文兰词”，主要是因为塑造女主人公形象的艺术需要所致，参照《秋胡歌》的手法，把女诗人的生平和逆境中思归的不屈意志以第一人称的口吻娓娓自述，把故事演绎的更加客观生动。‘颜光禄’即颜延之（384—456年），字延年，祖籍琅邪临沂人。文帝时，官至金紫光禄大夫，所以后世以‘颜光禄’称之。颜延之与陶渊明私交甚笃，在当时的诗坛上声望很高，与谢灵运并称“颜谢”。其《秋胡歌》生动演绎了汉刘向《列女传》和西晋傅玄《秋胡行》作品，以秋胡及其妻（《列女传》中呼为‘洁妇’）的口吻作叙述，后人认为“该诗以其篇幅之大、形式之整饬、叙事之曲折周密、章法之回环绵密，被世人评鹭为最上乘者。”诗中让人物形象自己说话，读来真切感人。述洁妇自沉之因，《列女传》归之为秋胡之不孝（不以金奉母而赠人），而此诗则归结于一“情”字，以情起、以情终，浑然一体，一洗礼教气味；斥责秋胡白读诗书忘记君子大义，不配为君子。而“季文兰词”的从“一解”到“八解”也是紧紧围绕一个“情”字，把女诗人的一生演绎得十分紧凑，令人动容。

小女子家住江西，从小容貌端庄，娇生嫩养。年将及笄，谈婚论嫁。这是父母养育之情（一解）；嫁给同省秀才虞尚卿，本是天造地设的一段好婚姻，满心欢喜希望天长地久。这是夫妻恩爱之情（二解）；奈何吴三桂乱起云南，各省百姓卷入战乱，一家人避难荒谷，前途难料。这是患难与共之情（三解）；兵戈无情，相继被俘，新郎被害，埋骨草莽。小女子寻死不成，满心愁苦。这是生离死别之情（四解）；身被清兵戏弄，恨不能变身嫫母<sup>80</sup>。终不免背井离乡，流落关外。这是故土难离之情（五解）；被沈阳王章京所买，将往胡地，日催月促，水变土异，渐行渐远。这是命运多舛之情（六解）；行至榛子店旅社，辽山渐迫，楚水已远。思及父母，泪眼迷蒙。这是前途未卜之情（七解）；年仅二十一岁，却遭大难，将心愿题诗壁上，惟望过路的有心之人拯救于水火，助我回返家乡。这是题诗壁上之情（八解）。

研经斋的八解以第一人称的口吻，叙述了季文兰从出生到题诗榛子店壁上的传奇经历，描写了不同阶段女诗人的内心世界，使读者对女诗人的不幸遭遇感同身受，深表同情。

似乎意犹未尽，不久之后，研经斋又创作了“续季文兰行”，以五言诗的形式对女诗人的事迹作了进一步勾勒。

胡虏耽杀戮，生民视鱼肉。芟夷既厌足，乃复分卤获。男子拣壮佼，奔走任丁役。女子选婣娟，调笑事懽乐。念彼在闺中，动静维法则。端严施粉泽，委蛇事刀尺。出门怕人窥，必用车餽。今乃与虏手，纍纍就束缚。髻鬟任掙曳，襦袴被解剥。露面军伍侧，杂处因寝宿。羣胡列似鬼，往往事逼迫。箠杖威或烈，腥膻气甚逆。缠绕动非理，愁毒徒默默。祇缘惜腰领，不免受污辱。纵有义人赎，玷缺宁复涤。谅尔才思妙，佳句徒感激。毡裘即异类，荏苒遂烂熟。蔡琰昔失节，流传凭笳拍。念昔流寇乱，豫变为最酷。妇女纷树节，举其尤凛烈。不知谁家妇，独值群贼卒。遂自据地坐，众手驱不得。贼言汝不从，宁可全尔节。数贼压娘手，数贼据娘脚。娘身既到此，孰能葆贞白。愈益骂死贼，奋舌声不息。举头觝贼鼻，鼻裂血注射。贼怒缚高树，二卒捉藁索。反覆锯下体，要娘饫痛毒。血肉虽狼籍，奋骂犹促促。旁贼忽挺刃，刃脰脰已落。孰谓纤弱质，终能志节暴。始知彝伦性，不待名教笃。村女有何识，树立超末俗。谅彼失身人，辄云力不敌。苟非处至难，何以着赫赫。娘心欲速死，所以挑毒螫。得免俄忽辱，英声越古昔。视彼钱王辈

80) 嫫母，又称丑女，中国古代传说中黄帝的次妃，貌丑而贤德。

，才名早卓萃。读书穷典坟，节义辄扬推。终究果何许，后人亦惭忸。<sup>81)</sup>

令人感到奇特的是，与前述“季文兰词”不同，在“续季文兰行”中，研经斋对女诗人的命运作了艺术性的对比安排。作者首先描绘了清朝初期战乱频仍、民不聊生的场面，在这样的时代背景之下，受苦受难的自然是普通百姓，女性尤其受辱受害严重。

女诗人被俘之后，作者给其安排了二种命运。一种是像柔弱的待宰羔羊，任凭胡人侮辱，甚至逐渐同流合污，以求苟延残喘。一种则是如诗中的“不知谁家妇”，为了名节不被玷污而奋起反抗，直至惨遭杀害，殒命贼手。显然在礼教立国、节孝观念盛行的朝鲜后期，后者形象更加符合作者和读者心目中的期待。研经斋认为女诗人“纵有义人赎，玷缺宁复涂。谅尔才思妙，佳句徒感激”，不如选择以死明志，保存名节。在当时，即使思想开化的北学派文人也曾为朝鲜数不清的“贞女烈妇”立传扬名，而这种结局的安排显然迎合了朝鲜后期社会普遍宣扬的女性教化思想。研经斋为此甚至为汉族女诗人季文兰可预见的命运作了不同的安排以供选择，明显诱使女性读者认同“饿死事小，失节事大”观念。但他也认为在清朝入关以后，汉族妇女的命运更加可怜可悲，不是女性个人能够左右的，这是时代的悲剧。<sup>82)</sup>

研经斋还在自己编纂的诗话集中多次直接或间接地提及季文兰题壁诗及其在朝鲜朝的传播情况。如在《草榭谈献》中，就谈及柳下洪世泰（1653-1725，字道长，号柳下、沧浪。杂科译科出身，以汉学官拔为吏文学官）与息庵的关系，以及通过息庵得知季文兰题壁诗后为之赋诗吟诵的故事。

洪世泰字道长，唐城人，本人奴也，好为诗，善学唐人意，清城金公锡胄曰高岑之流也。其主怒世泰不从令欲杀之，清城出白金一百两，东平君杭亦如之得赎。世泰纵益游学，得交金农岩、三渊二先生，二先生喜为之延誉，由是诗名益盛，或言世泰诗当在石洲权鞬之上、荪谷李达之下，世泰意犹不满也。上令工画西湖，命世泰赋之，遂为纂修郎，掌选东人诗。清城尝入燕至榛子店，见季文兰诗，文兰江右秀才虞尚卿妻也，为清人所俘，沈阳王章京以白金七千买之。过榛子店题诗，且曰天下有人心，怜而见拯。主媪见之，色悲楚凄黯而娇艳动人，从骑促之，垂泪疾书，右手倦，即左手接书之。清城为言世泰，世泰作鹧鸪词，声调甚妙，为国人所诵。<sup>83)</sup>

柳下在听到息庵所述季文兰题壁诗经纬之后，赋“鹧鸪词”诗，研经斋评价“声调甚妙，为国人所诵”，可见柳下对季文兰题壁诗在朝鲜的传播起到了推波助澜的作用。在其“题季文兰诗后”的诗序中，柳下记载：“文兰，江州秀才虞尚卿妻也。年二十一，被虏清兵，为沈阳王章京所买，路经榛子店，题诗壁上曰：椎髻空怜昔日妆，征裙换尽越罗裳。爷孃生死知何处，痛杀春风上沈阳。客自燕中得此诗来示余，余见而悲之，遂题之。”这里柳下所说的“客自燕中得此诗来示余”的‘客’显然指的是息庵。其诗曰：

81) 成海应，《续季文兰行》，杂诗，《研经斋全集》卷之一，第273辑第13页。

82) 成海应，《送柳惠甫得恭，朴次修齐家之燕》，诗，《研经斋全集》卷之二，第273辑第26页。“可怜榛子壁，谁识季文兰。……终非尔本色，胡运得无穷。”

83) 成海应，《洪世泰、李泰》，草榭谈献四，《研经斋全集》卷之五十七，第275辑第185页。此中“沈阳王章京以白金七千买之”之‘七千’当为‘七十’误写。

江南江北鹧鸪啼，风雨惊飞失旧栖。一落天涯归不得，沈阳城外草萋萋。<sup>84)</sup>

柳下诗中首句即以“鹧鸪”比人，故被研经斋称作“鹧鸪词”。柳下诗中善用‘鹧鸪’意象，如“君非鹧鸪鸟，何事每南飞”<sup>85)</sup>，“白莲峰高月东出，酒酣独歌山鹧鸪。鹧鸪回翔恋南枝，思君不见空踟蹰。”<sup>86)</sup>而本诗中“鹧鸪啼”、“失旧栖”、“归不得”、“草萋萋”等语显然是在描写女诗人流落天涯、有家难归的郁愤心理。

在研经斋的诗话中，对因吴三桂“三藩之乱”造成季文兰为代表的汉族女子沦落天涯颇多微词，表明当时朝鲜文人认清了清朝统治中原已经成为不可逆转的事实，从而基本上放弃了不切实际的“反清复明”思想。<sup>87)</sup>在前注所引“季文兰诗话”中，研经斋也表明了这种新的对清观。

季文兰，江右女子也。吴三桂叛清于江右六年戊午，而为清所灭。文兰被俘过榛子壁，题诗而去。……戊午十月，三桂孙世璠诛死，文兰当于其前被俘而入沈阳。清人讨世璠者久，而侵掠楚省，士女之横被残贼可知。又女子宋蕙湘者，为清人所掳，至河阳卫辉城<sup>88)</sup>，题诗云：盈盈十五破瓜初，已作明妃别故庐。谁散千金同孟德，镶黄旗下赎文姬。后云：被难而来，野居露处，即欲劾章嘉故事，稍留翰墨，以告君子，不可得也。偶居邸舍，索笔漫题，以冀万一之遇，命薄如此，想亦不可得矣。秦淮乱女蕙蕙兰，和血题于古汲县前潞王城<sup>89)</sup>之东。<sup>90)</sup>

这是朝鲜文人第一次也是唯一一次在论及季文兰“榛子店题壁诗”时提及宋蕙湘“汲县题壁诗”。虽然研经斋并未注明此诗话的出处，但转引自明末清初文学家余怀<sup>91)</sup>《板桥杂记》的可能性极大。<sup>92)</sup>为了对比研经斋所引“汲县题壁诗”与余怀原文的异同，将《板桥杂记

84) 洪世泰，《题季文兰诗后

文兰，江州秀才虞尚卿妻也。年二十一，被虏清兵，为沈阳王章京所买，路经榛子店，题诗壁上曰：椎髻空怜昔日妆，征裙换尽越罗裳。爷孃生死知何处，痛杀春风上沈阳。客自燕中得此诗来示余，余见而悲之，遂题之》，诗，柳下集卷之一，第167辑第310页。

85) 洪世泰，《汝九别后夜坐有作》，诗，柳下集卷之二，第167辑第333页。

86) 洪世泰，《金士源寄诗，兼以一壶酒，醉后走笔和之》，诗，柳下集卷之八，第167辑第464页。

87)

成海应，《送从子祐曾入燕序》，文○序，《研经斋全集》卷之十三，第273辑第299页。“女真起于曷懒甸，跨有中国，曷懒甸今咸兴北青界也。又如建州即女真之一部族也，始尝服事我，今乃混一天下，享国之久，几及乎汉唐之盛，岂其俗皆伉健矫厉，有以跨越诸夷欤。且若万物之终始，皆在于艮，艮东北位也，居其方而得方始之气故然欤。”

88)

卫辉城，曾称汲县，明代以前叫卫辉府，位于豫北黄河北岸，与彰德、怀庆同为豫北三府之一，也是豫北卫河上的一个重要码头。

89)

潞王，即潞简王朱翊镠，明太祖朱元璋九世孙，明穆宗隆庆皇帝朱载堉四子，神宗万历皇帝朱翊钧唯一胞弟。4岁时受封为潞王，万历十七年就藩于卫辉府。在世的47年里，骄奢淫逸，横行霸道，不惜花费大量的人力财力，用了4年多的时间，在卫辉修建了潞王府。还在凤凰山下，择得一块风水宝地，构筑了气派阔绰的潞王墓。

90) 成海应，《诗话》，识小类，《研经斋全集》外集卷五十五，第277辑第486页。

91)

余怀（1616~1696），清初文学家。字澹心，一字无怀，号曼翁、广霞，又号壶山外史、寒铁道人，晚年自号鬻持老人。福建莆田黄石人，侨居南京，因此自称江宁余怀、白下余怀。晚年退隐吴门，漫游支硎、灵岩之间，征歌选曲，与杜浚、白梦鼎齐名，时称“余、杜、白”。

92) 研经斋之时，余怀的《板桥杂记》已在朝鲜流布甚广。“味外轩集 余怀；板桥杂记

余怀。”（李德懋，《磊磊落落书引用书目》，引用书目，《青庄馆全书》卷三十六，第258辑第68页。）；“孙临字克咸，一字武公。桐城贡生。有楚水吟，肆雅我悝二集，大略斋稿……余怀板桥杂记。”（李德懋，《孙临》，磊磊落落书补编[上]，《青庄馆全书》卷之四十六，第258辑第308页。）“溥人有绿波杂记。即余澹心之板桥杂记。”



》下卷《轶事·附录》所载内容转引如下：

宋惠湘，秦淮女也。兵燹流落，被掳入军。至河南卫辉府城，题绝句四首于壁间，云：“风动江空羯鼓催，降旗飘颭凤城开。将军战死君王系，薄命红颜马上来。”“广陌黄尘暗鬓鸦，北风吹面落铅华。可怜夜月《箜篌引》<sup>93)</sup>，几度穹庐伴暮笳。”“春花如绣柳如烟，良夜知心画阁眠。今日相思浑似梦，算来可恨是苍天。”“盈盈十五破瓜初，已作明妃别故庐。谁散千金同孟德，镶黄旗下赎文姝。”后跋云：“被难而来，野居露宿，即欲效章嘉故事<sup>94)</sup>，稍留翰墨，以告君子，不可得也。偶居邸舍，索笔漫题，以冀万一之遇，命薄如此，想亦不可得矣。秦淮难女宋惠湘，和血题于古汲县前潞王城之东。”潞王城，潞藩府第也。

研经斋所记“汲县题壁诗”虽然只是宋惠湘四首之最后一首，后跋中“秦淮乱女蕙蕙兰”也显然是“秦淮难女宋惠湘”的误记，但从总体上来看其主要内容基本完整无缺。据史料记载，“宋惠湘，金陵人，弘光宫女也。年十五，南京既破，为兵掠去，题诗古汲县前潞王城之东旅壁。”<sup>95)</sup>1645年，豫亲王多铎率领2万骑兵征讨大明。史可法战死扬州，而钱谦益等人等开南京大门投降清军。南明皇帝朱由崧边退边战，最终被俘虏。年仅十五岁的宫女宋惠湘被掳，怀着前途无望、必死又不甘心的绝望，写下了这组题壁诗。

“榛子店题壁诗”后跋中的“惟望天下有心人见此，怜而见拯”，与“汲县题壁诗”中的“索笔漫题，以冀万一之遇”同样都是明末战乱中的女性抱着最后一丝希望发出的求救信，希望能有蔡文姬的运气脱离苦海回返家乡。但随着清朝定鼎中原，两人注定不会遇上人生中的曹孟德，因而二首诗读来更加让人感到凄凉无助、悲愤痛苦。

正如“榛子店题壁诗”得到了清朝官员奇丰额和无数朝鲜文人的同情一样，“汲县题壁诗”女诗人的遭遇得到了张煌言<sup>96)</sup>题为“和秦淮难女宋惠湘旅壁韵”的次韵和诗<sup>97)</sup>，其芳名也随之流传不朽，而且得益于研经斋的介绍，与季文兰一起扬名于邻国文人之间。

赵圣期(1638-1689)字成卿，号拙修斋。一生致力于学问，精通性理学、经济学与诗文，疑为《彰善感义录》作者。虽未到过清朝，但因与三渊金昌翁为挚友，当从三渊或老稼斋金昌业处得知季文兰事因而赋诗。其“闻季文兰诗有感”曰：

美人南国字文兰，何事飘零到玉关。总为英雄无一箇，从教哀怨及红颜。<sup>98)</sup>

琉璃境悟吟山色。弹子涡经拾海光。薄人过岭诗卷。多有悟入。”(申纬，《嘉澍人生还，用书唐二韵为赠》，祝圣九稿 戊戌六月，至八月。《警修堂全藁》册二十五，第291辑第561页。)

93)

箜篌引：乐府《相和六引》之一。亦名《公无渡河》。晋·崔豹《古今注·音乐》：“《箜篌引》，朝鲜津卒霍里子高妻丽玉所作也。子高晨起刺船而櫂，有一白首狂夫，被发提壶，乱流而渡，其妻随呼止之，不及，遂堕河水死。于是援箜篌而鼓之，作《公无渡河》之歌，声甚凄怆。曲终，自投河而死。霍里子高还，以其声语妻丽玉，玉伤之，乃引箜篌而写其声，闻者莫不堕泪泣焉。丽玉以其声传邻女丽容，名曰《箜篌引》焉。”

94) 章嘉故事：应指章嘉三世活佛能预知未来的故事。

95) 张煌言，《和秦淮难女宋惠湘旅壁韵》“人物考略”，《张苍水诗文集》。

96) 张煌言(1620—1664，字玄著，号苍水，浙江鄞县汉族人，南明儒将、诗人、民族英雄。

97)

张煌言，《和秦淮难女宋惠湘旅壁韵》(壬寅)，《张苍水诗文集》。“猎火横江铁骑催，六朝锁钥一时开。玉颜空作琵琶怨，谁教明妃出塞来。”

98) 赵圣期，《闻季文兰诗有感》，七言绝句 一百四十五首，第147辑第164页。

拙修斋诗中设问，南国美人季文兰因何事漂泊到了千里之外的北国？其实他并非不知而问，而是要引人深思。他慨叹当年明末清初时没有出现曹孟德一样的英雄豪杰，才使红颜哀怨，埋骨他乡。在古诗“奉别伯氏赴燕”中，拙修斋的吟咏直抒胸臆：“长啸倚秦堞，悲歌过燕市”。<sup>99)</sup>这是多数朝鲜文人眼见清朝入主中原，其胸中块垒无处发泄<sup>100)</sup>，而季文兰题壁诗的存在无疑提供了良好的话题素材。而这正是拙修斋忠实继承了诗经风雅颂“惩创感发”精神的结果。<sup>101)</sup>

作为拙修斋好友，三渊金昌翁在给其弟老稼斋的送行诗“送大有随伯氏赴燕”中，提及了季文兰的题壁诗。

#### 其二十四

沈阳遥望浔阳春，目极千里翠蛾颦。可惜名园一朵花，移栽玄朔蒙腥尘。空令店婆怜玉貌，天下终无惜才人。榛子店<sup>102)</sup>

诗中三渊把女诗人比作‘名园一朵花’，不幸被“移栽玄朔蒙腥尘”。“翠蛾颦”典出“词俊”朱敦儒（与“诗俊”陈与义等并称为南宋“洛中八俊”）的水调歌头“和董弥大中秋”：“莫指关山路，空使翠蛾颦”，喻指使美人皱眉，与下句的“蒙腥尘”呼应。从“空令店婆怜玉貌”来看，三渊显然从息庵后跋“姿态尚娇艳动人”<sup>103)</sup>句意中得到了有关女诗人外貌信息，从而在诗中加以描摹刻画。

李麟祥(1710-1760)，字符灵，号凌壶观、宝山子。李敬輿玄孙，文人画家。但平生未到过清朝。其“送金进士日进 益谦<sup>104)</sup> 游燕”诗中曰：

貂裘乱扑雪花斑，日黑风悲山海关。关外锦车流不断，哀歌谁问季文兰。（七首之五）<sup>105)</sup>

不论凌壶观从何渠道得知季文兰题壁诗，但其身临其境般描写出了女诗人因战乱而流落山海关外的情景，显然十分熟悉此诗话的背景信息。可见，在凌壶斋当时，“榛子店题壁诗”已经成为燕行文人耳熟能详的话题。

赵秉铉（1791-1849），字景吉，号成斋、羽堂。朝鲜后期势道政治<sup>106)</sup>中心人物，弹压

99)

赵圣期，《奉别伯氏赴燕》，五言古诗，拙修斋先生诗集卷之一，第147辑第152页。“男儿有两眼，百年未高视。郁郁坐书窗，何以快心意。今行聘中华，中华地万里。抚剑望六合，莽荡不见际。长啸倚秦堞，悲歌过燕市。纵览而归来，胸中无芥滞。顾我久匏系，送兄徒慷慨。别离更关情，临分泪一洒。”

100) 赵圣期，《送崔汝和赴燕 三首》，七言律诗

二百十五首，拙修斋先生诗集卷之二，第147辑第179页。“（前略）清风千载滦河庙，须采春薇奠一杯。踏遍幽都走一回，子山词赋属君才。燕台寂寞千金散，柴市凄凉万古哀。北极山河长不改，昆明劫火几成灰。丈夫意气轻离别，分付风流酒数杯。”

101) 赵圣期，《赠金子益

昌翁》，五言古诗，拙修斋先生诗集卷之一，第147辑第152页。“风雅赋比兴，六义纷三百。一箇思无邪，随分自点缀。欢呼与怨谣，毫发非外饰。天机浩莫御，真意蔼恻怛。赞叹兼风刺，一一由本色。匹夫胸中经，宁假安排格。亦自有善恶，初不论工拙。邪正得失际，了然如目击。讴吟未了声，片言还自得。所以可监观，惩创又感发。大哉此为教，道通天人浹。能并典谟训，万世垂法则。那将后人诗，敢与较髣髴。燭火愧太阳，众星仰明月。”

102) 金昌翁，《送大有随伯氏赴燕》，诗，《三渊集》卷之十一，第165辑第229页。

103) 金锡胄，《榛子店主人壁上 有江右女子季文兰手书一绝 览之凄然 为步其韵》，擣椒录上，息庵先生遗稿卷之六，第145辑第206页。

104) 金益谦（1701-1747），字日进，号潜斋。燕行年月不详。

105) 李麟祥，《送金进士日进 益谦 游燕》，诗，凌壶集卷之一，第225辑第462页。

天主教，诛杀众多神父、神子。后被安东金氏弹劾并被处刑。成斋虽然没有到过清朝<sup>107)</sup>，但曾在游览金刚山途中，途径一个名为“徐五郎店”的旅社，竟然联想到了“季文兰榛子店事”。

时则岁己卯九月初六日乙丑霜降。过徐五郎店，店名颇奇，恰似窈窕人传歌曲而播流者。忽想季文兰榛子店事，便生中国色也。所谓徐郎，或为有心者也耶。<sup>108)</sup>

成斋在“金刚观叙”中，之所以“过徐五郎店”而“忽想季文兰榛子店事”，大概是因为其店名类似“榛子店”的缘故，故而“便生中国色也”，即认为此店有了‘中国色彩’。可见，‘季文兰题壁诗’不仅是榛子店的文化符合，‘季文兰榛子店’已经在某种意义上成为了代表中国因素的文化符号了。而成斋所谓的‘徐郎，或为有心者也耶’，即或许是有拯救才貌俱佳女诗人之心的人。

随着《息庵集》在朝鲜刊行并广泛流布，季文兰题壁诗以其凄美的内容和作者经历的传奇性吸引了众多朝鲜文人的爱读和评说，成为长达二百年期间燕行文人或本土文人的趣谈话题。

<sup>109)</sup>

#### 四. 结论

本论文首先考察了燕行文学映现并参与地域性文化的可能性，例如发现并传播、文学化以山海关为中心向关内和关外延伸衍生出的题壁诗传统及其文化符号意义。朝鲜文人燕行途中先后亲眼目睹过关内关外旅社中的各种题壁诗，其中几位女性诗人的题壁诗吸引了广泛关注、传抄和吟诵唱和。几位与季文兰相同时代、生平遭遇近似的女性诗人的题壁诗也得到了朝鲜文人的唱和，但唯独季文兰“榛子店题壁诗”，得以在长达二百年之久的不同时空中延续流传，并以诗话和唱和的方式展现出深厚的文化内涵和绵长的文学生命力。在传抄过程中，这些诗话内容发生了一些文字记录上漏误增删，甚至加工编辑，但总体上维持了最初版本的叙事模式。

在本文所涉及到的明末清初四位女性，即桂娘、桂香、季文兰以及宋蕙湘身上，有以下共同特征：1.

同为能诗善赋的汉族文化女性。2. 战乱中被虏或被卖往关外，身世凄惨可怜。3.

都在沿途旅社扬臂书写“题壁诗”抒发怨愤并发出求救信号。4. 其“题壁诗”均得到了中朝文人的次韵赋诗，引发了不小的社会反响。可见，这些文化女性在当时的遭遇具有一定的普遍性，反映了清朝入关以后引发的社会动乱之中各阶层百姓的苦难生活经历，柔弱的她们被

<sup>106)</sup> 朝鲜朝后期尤其是19世纪受国王信任掌权的特定人物及其追随势力形成的政治形态。

<sup>107)</sup>

赵秉铨，《送人赴燕》，诗，《成斋集》卷之七，第301辑第362页。“中原不见意如何，及见中原见甚麽。遥想羗儿争指点，高丽学士大方家。”

<sup>108)</sup> 赵秉铨，《金刚观叙》，《成斋集》金刚观叙，第301辑第532页。

<sup>109)</sup>

葛兆光先生较早关注到了中朝文学交流史上这一独特的文化现象。参见“想象异域悲情：朝鲜使臣关于季文兰的两百年遐想”，《想象异域》，中华书局，2014年版。

迫流落异域他乡，心中的怨愤和期盼化为凄美的悲剧诗篇，却也因祸得福，引发燕行的朝鲜文人同情之余，其原韵诗和唱和诗及其序、跋形成了大家喜闻乐见的诗话形式在朝鲜文坛广泛传播，并形成了反向传播到中原文坛的文化现象。

相对于其他三位女诗人的题壁诗影响范围有限，仅仅局限于有数的几位中朝文人之间得以传播和唱和的情况，季文兰“榛子店题壁诗”则先后受到了近40位不同时期朝鲜著名文人的关注，其中有11位确定或疑似直接目睹并记录了旅社题壁诗，在其埋灭之后，又有20位朝鲜文人先后现场凭吊并吟咏赋诗，而一些没有燕行，不能直接到现场去的本土文人也通过文献阅读的方式全面了解其作诗经纬，如研经斋成海应以文献考证的方法比较各种文本的记载，尝试还原出最初的原韵诗，并完善序、跋等诗话因素，使文本本身更加具有条理性和可读性。经过长期的传抄、吟咏、诗话化过程，在燕行文学史上，形成了楚亭朴齐家所说“一自息庵诗话后，人人都说季文兰”的奇特的文化现象。除此之外，季文兰诗话还具有以下特征：

1. 具有鲜明的时代特征。故事发生于明末清初之际的战乱之中，朝鲜王朝被迫与后金签订城下之盟，但朝廷上下并未心服，甚至有人提出反清复明的复仇口号。此时季文兰故事的出现迎合了燕行使者的广泛关注和同情，而女诗人和其经历所代表的深刻的社会意义和历史意义更是增加了故事的传播价值。

2. 具有典型的文化符号意义。一是季文兰具有与明妃王昭君和文姬蔡琰类似的文化符号意义，引发了朝鲜诗人对中原文化的历史记忆，一些诗人甚至把季文兰尊称为‘兰娥’、‘兰妃’。二是具有体现山海关内外题壁诗传统的文化符号意义，尤其是才貌俱佳的凄美女诗人形象使其题壁诗获得了更高的文化演绎价值。季文兰及其题壁诗使榛子店旅社成为燕行途中朝鲜文人必须凭吊且吟诗作赋的“有故事的景点”。

3. 随着时间流逝，“榛子店题壁诗”的文化内涵与情感内容也发生了一定的变化。最初接触季文兰题壁诗的汾厓申晷、息庵金锡胄、药泉南九万等人往往把季文兰比作《胡笳十八拍》的蔡文姬、远嫁匈奴的王昭君和《琵琶行》中的商女，完全是才貌双全却无辜受害、需要拯救的柔弱的女子的形象；但到了朝鲜后期，清朝入主中原已经成为不可逆转的局面，对季文兰的同情和对“天下有心人”的期待发生变化，甚至有人从名节礼教出发，认为女诗人与其徒受欺辱，不如以死明志，以迎合朝鲜后期社会普遍宣扬的女性教化思想。

4. 受到季文兰诗话感动的诸多燕行及本土的朝鲜文人，以之为媒介通过各种方式与中原文人交流。例如前文所述燕岩朴趾源在热河太学馆“余偶举此诗，语之奇丰额，奇潜然泪下，问榛子店在于何处。余曰：在山海关外。奇即题一绝曰：红妆朝落镶黄旗，笳拍伤心第五词。天下男儿无孟德，千金谁赎蔡文姬。”这种交流不仅再次确认了中朝文化同源、情感相通的事实，同时也借机了解了清朝各阶层对满汉矛盾、文化融合等社会问题的真实想法。

5. 季文兰叙事和作诗的文学地理学特征极为明显。在燕行路线必经的燕北特定地域的题壁诗及燕行文人的和诗，不仅具有独特的文学与地理历史相结合的诗思诗想，也彰显了朝鲜文人参与中国特定地域文学生成的文化交流价值，为研究中韩文化交流提供了绝好的题材和有力的佐证。

以季文兰“榛子店题壁诗”为代表的地域文学在长达二百年的漫长岁月中，吸引了诸多燕行使者的关注同情和唱和作诗，其历时性和参与性在中外文学交流史上也是极为罕见的。透过朝鲜文人各有特点的汉诗创作，在诗话故事传承、情感互通交汇、文史功能承载等方面

，真实映射出了域外文学与中原文化源远流长的互动交融过程，体现了在特定历史时期女性文学成为中外文学交流重要话题的特殊价值。

**参考文献：**

## 이학당 교수님의 “榛子店题壁诗”의 燕行文学史考察에 관한 토론문

최연(중국 루동대학교)

이학당 교수님의 <“榛子店题壁诗”의 燕行文学史考察>을 잘 읽었습니다. 교수님의 논문은 연행록 문학의 시적의미와 여성시가 문학이라는 이중적 고찰을 통하여 중국과 조선시대 문인들의 연행문학의 일면을 보여 주셨습니다. 교수님의 논문은 본인에게 좋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논문首先結合燕行錄有矣의文集資料指出榛子店本是一個再普通不過的驛站，但由於明清易代之際因戰亂被擄往盛京（今沈陽）的一位江西籍女詩人季文蘭的緣故，成為朝鮮文壇燕行詩人途徑之時必欲一探究竟并吟詩作賦的著名景點，並由此產生了“一自息庵詩話後，人人都說季文蘭”的獨特文化現象。並印證了燕行文學的敘事話題與沿途特殊的地理歷史環境有著極為密切的關係。

其次綜合分析了不同時代朝鮮文人燕行途徑外盛京新民屯和內永平府時，對流落異鄉的女性詩人桂娘和桂香題壁詩的唱和作詩內容及其文化內涵，確認兩人是分屬於不同時代的女詩人，對漢族女詩人題壁詩的關注和唱和表面上看是漫漫旅途中朝鮮文人喜聞樂道的一個趣談話題，實際上他們之所以對其不幸身世能夠同情共感、情真意切，既是由於兩國文人間文化認知上的同步一致，也是因為對兩國政治現實極其失望所導致的一種變相的情緒發泄。為本文重點探討季文蘭“榛子店題壁詩”的燕行文學史價值提供認知範例和歷史佐證。

再其次以“現場賦詩”和“文獻賦詩”二種情況，具體考察季文蘭“榛子店題壁詩”在朝鮮文壇的傳播路徑及在燕行文學史上的定位情況。“題壁詩”均得到了中朝文人的次韻賦詩，引發了不小的社會反響。可見，文化女性在當時的遭遇具有一定的普遍性，反映了清朝入矣以後引發的社會動亂之中各階層百姓的苦難生活經歷，柔弱的女性被迫流落異域他鄉，心中的怨憤和期盼化為淒美的悲劇詩篇，却也因禍得福，引發燕行的朝鮮文人同情之餘，其原韻詩和唱和詩及其序、跋形成了大家喜聞樂見的诗話形式在朝鮮文壇廣泛傳播，並形成了反向傳播到中原文壇的文化現象。

通過對這篇論文的拜讀，對本人來講也是一次難得的学习機會。在學習的過程中，本人也產生了一些疑問，借今天的學術會議特向李教授請教。

季文蘭可以說是明末清初一個名不見經傳的江西女子，在中國明清史籍中難覓行踪，却在東鄰朝鮮士大夫群體中口耳相傳，代代留芳。她清初被旗兵擄掠北上，途經河北丰潤榛子店，題詩旅店壁間，使得那些往返中朝之間的使節文士，數百年間和詩題賦，在《燕行錄》中留下了大量篇章，本人認為可以視作是一個顯而易見的“季文蘭情結”，為我們打開了一扇研究明末清初婦女文化的獨特視窗。對此，李教授怎么看？

這篇論文所涉及到的明末清初四位女性，即桂娘、桂香、季文蘭以及宋蕙湘身上，有以下共同特征：①同為能詩善賦的漢族文化女性。②戰亂中被虜或被賣往外，身世淒慘可憐。③都在沿途旅社揚臂書寫“題壁詩”抒發怨憤並發出求救信號。④其“題壁詩”均得到了中朝文人的次韻賦詩，引發了不小的社會反響。這些女性我們是否可以視作明末清初的“季文蘭”女性詩人群體？這個群體在中韓文學史上的意義和價值所在？

3、論文引用了大量的詩詞文獻，本文在閱讀論文的時候，很想看到一些文獻的原文，既然是“題壁詩”，比如相關照片等，这样的话，論文的嚴謹性會提高更多，本人估計其他教授和專家應該也很感興趣。

## 1960년대 여성 주체의 욕망과 홀로서기의 (불) 가능성

최언희(경희대학교)

### 1. 1960년대 근대화와 여성소설

이 글은 1960년대 여성 작가의 단편 소설을 대상으로, 작품 속에 나타나는 개인의 내면을 당대 지배 담론과 관련해 규명하려고 한다. 주지하다시피, 1960년대 문학의 대표적인 키워드는 개인이라고 할 수 있다. 1960년대 대표적인 문학은 주로 근대적 개인의 구축과 관련되며, 따라서 이 시기의 연구는 근대에 반응하는 개인의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김현에 따르면, 60년대 작가와 50년대 작가들이 구별되는 그들만의 특성은 작품 속 인물들이 무의지적인 것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의 의미를 캐어내려는 의식에 있다고 하였다. 그는 60년대의 개인을 “자기 세계를 가진 사람으로 해석하였다.<sup>1)</sup> 이때의 자기 세계는 성격을 뚜렷이 하는 개인이며 외부 세계와 대립하는 내면을 말한다. 1960년대의 이러한 개인이나 내면세계는 주로 소설 속에서 남성 주체들의 사회와의 대립을 통해 구축되었다. 또한, 이는 한글세대이자 4·19세대로 명명되었던 작가들이 이룬 것으로 평가되었는데,<sup>2)</sup> 이러한 인식의 배경에는 무엇보다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어렸을 때부터 자유민주주의를 공부한 세대라는 것<sup>3)</sup>과 대학 시절에 4·19를 겪었다는 것이 가장 큰 효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여성사의 흐름에서 볼 때도 마찬가지로 4·19는 또 다른 분기점으로 될 수 있다. 4월 혁명의 정신으로 “억압에 저항하게 하고, 불의에 침묵하지 않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 자기 존재에 관한 성찰을 통해 자기 개성에 자부심을 느끼게 하”<sup>4)</sup>는 일이었다면, 근대적인 교육을 통해 민주주의 원리의 자유를 내면화했던 여성 지식인들이 1950년대의 가부장적 여성관에 짓눌리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4.19를 통해 자유로운 개인에 대한 열망을 가장 강하게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sup>5)</sup> 하지만 이러한 욕구와는 달리, 4·19 이후 “여성은 가정으로!”라는 외침으로 여성을 가족-국가의 틀에 가둬 놓으려는 보수화가 급격하게 진행되었다,<sup>6)</sup> 이러한 이유로 1950년대에 폭발적으로 등장했던 여성의 내면은 1960년대에 소거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강지윤<sup>7)</sup>에 따르면, 1950년대 여성 작가들의 양적인 팽창과 함께 이 시기 여성의 개인적 감정에 대한 섬세한 묘사는 소설을 이끄는 주요한 힘으로 발견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1950년대 근대화로 진입하면

1) 김현, 「구원의 문학과 개인주의」, 『현대 한국 문학의 이론, 사회와 윤리』, 문학과지성사, 1991, 383~385면.

2) 강지윤, 「개인과 사회, 그리고 여성:1950~1960년대 문학의 내면과 젠더」, 『민족문학사연구』,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18, 532면.

3) 김승옥, 「제야의 문답」, 『뜨거운 세상 살기에』, 위즈덤 하우스, 2017, 131~132면.

4) 우찬제, 이광호 엮음, 「4·19 정신의 정원을 함께 걷다 대담 중 김치수의 발언」, 『4·19와 모더니티』, 문학과지성사, 2010, 25면.

5) 이선미, 「1960년대 여성 지식인의 ‘자유’ 담론과 미국」, 방민호 외 공저, 『아프레게르와 손장순 문학』,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49~50쪽.

6) 4월 혁명과 여성의 의무를 다룬 대표적인 글인 기성 여성세대를 고발한다는 해방 이후 15년을 여성이 지배하고 남성이 위축된 시대로 기술하고 4·19혁명에 이르러 거세당한 남성들의 권력이 회복되기 시작했다고 서술한다. 추선진, 「‘4·19’소설의 여성 표상 연구-연애/가족 서사의 정치학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8, 61면.

7) 강지윤, 앞의 글.

서 가부장 체제를 확고히 하는 현상이 나타남과 함께 1950년대 두각을 나타냈던 여성 작가들은 1960년대에 이르면 대중소설작가로 취급되면서 여성 내면의 문학적 반영도 모습을 감추어간다고 한다.

한편, 근대문학에서 개인의 내면은 외부 세계 또는 현실 원칙과의 대립과 불화로 상징되었고, 개인의 형성을 다루는 것은 남성들의 형식으로 되었다. 강지윤에 의하면, 한국 문학사에서 개인과 사회의 관계는 복잡한 불화를 내장하고 있지만, 남성적 내면의 언어는 지배적 언어를 거부하는 동시에 그것과 평행선을 그리고 있지만, 강신재나 박경리의 소설에서 보여준 여성 주체들의 내면은 “관계적 자아”로 반영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여성과 사회 사이의 갈등을 남성이나 가족과의 존재들과의 파열을 통해 나타나고 있음을 밝혔다.<sup>8)</sup> 이는 비단 강신재와 박경리의 소설에서만 국한되는 특징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1960년대 여성소설에서는 이러한 친밀성의 영역에서 부단히 벗어나려는 여성 주인공들을 설정하여 내면 묘사에 주력하는 소설들이 상당수를 차지하며, 그것을 통해 여성의 경험과 정체성, 그리고 개인과 사회의 문제에 대한 고민을 문학적으로 재현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때의 여성적 내면이란 말미암아 남편 또는 연인이라는 친밀한 존재들을 이해 불가능한 타자로 발견하면서 그들과의 관계 해체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한다.<sup>9)</sup>

1960년대 여성소설에서 이러한 특징을 지닌 작품에서는 대개 가족이나 당시 사회적 규범에서 벗어나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려는 인물들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으며 가족 구성원이나 사회 구성원이라는 자격을 스스로 포기하거나 부정하면서 의도적인 아웃사이드의 삶을 추구한다. 김우영<sup>10)</sup>은 손장순 문학에서의 등장인물의 외부자 되기와 경계인 의식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그는 손장순 작가와 그의 작품 속 여성 인물들이 고등 교육을 받고 유학 경험이 있는 지식인 또는 상류계층에 속하며 이들에게도 역시 당시 한국 사회는 하위주체들만큼이나 좌절의 공간이었으며 가정과 사회에서 철저히 외부자가 되는 것으로 그러한 사회를 돌파하려는 것으로 보았다. 손장순의 문학에서 보여준 유학 경험이 있는 여성 지식인들의 당찬 모습은 밖에서 안으로 들여다본다는 우월의식에서만 작동한 것은 아니다. 안서현에 의하면, 이 당찬 여성을 주인공으로 하는 손장순 문학의 특유한 여성 형상은 “높은 교육수준과 취향, 남성에게 의존하기보다 자기의 삶에 충실”<sup>11)</sup>한 독립성을 지닌 것이라고 한다. 이지현<sup>12)</sup> 역시 1960년대에 발표된 작품들에서 여성 인물들은 무엇보다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며, 자기 존재나 감정을 남에게 의존하지 않는 철저한 개인주의자로 나타나고 있음을 손장순의 문학을 통해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연구들은 모두 손장순 문학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아쉬움이 있다. 이러한 여성 인물 유형은 단지 손장순의 작품 특징으로만 보기는 힘들지만, 1960년대 발표된 여성 작가들의 소설에서 발견되는 유사한 인물 유형에 관한 논의는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 필요성이 요구된다.

이 글은 이러한 연구의 기초에 힘입어 1960년대 여성소설에서 사회와 가정에서 외부자로 자처하면서 홀로서기를 시도하는 여성들에 주목해보고자 한다. 이들의 홀로서기는 집이라는 반근대적인 모럴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로운 개인으로서 근대적인 주체로 될 가능성을 모색하는가 하면, 민족부흥과 근대적 국가 만들기라는 공동의 목표가 강조되었던 당대 사회에서 여

8) 김지윤, 「원한과 내면」, 『상허학보』 50, 2017, 22면.

9) 김지윤, 위의 글, 31~32면 참고.

10) 김우영, 「여성 지식인의 외부자 되기와 그 임계: 손장순 작품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37면.

11) 안서현, 「여성 주체의 세 가지 실존적 모험」, 132면.

12) 이지현, 「손장순 문학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6.



성 개인의 문제를 부각하면서 당시의 근대화론에 어긋나는 어떤 지점을 포착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들의 홀로서기는 쉽게 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한 이유로 소설에서는 빈번히 이들의 방황과 내면의 갈등을 초점화하는데, 소설 속의 주인공은 진리를 찾기 위해 방황하는 인물이며, 소설이 다루고 있는 주인공의 모든 체험은 자기 인식을 위한 과정으로 삶의 의미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sup>13)</sup> 그런 점에서 1960년대 여성소설에서 여성의 방황과 내적인 갈등은 근대적인 주체성을 재구성하기 위한 소설적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박시정의 「초대」와 「분위기」, 송정숙의 「사생아」와 「개고동」을 대상으로 1960년대 여성소설에서 제기되는 여성의 주체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2장에서는 근대적 주체, 미국, 한국 사회의 후진성 그리고 여성 이 네 가지의 관계항이 작용하는 1960년대 한국의 근대성을 박시정의 「초대」를 중심으로 읽어보려고 한다. 3장에서는 박시정의 「분위기」와 송정숙의 「개고동」에서 중산층 여성의 병리적인 증후를 통해 당대 사회의 억압적 기제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살펴보고자 하겠다. 4장에서는 박시정 「분위기」와 송정숙의 「사생아」 이 두 작품에 혼합적으로 내재하는 불안과 우울, 권태와 고독 등 감정의 양상들을 읽어보면서 집에서 탈출하는 여성들을 통해 1960년대 근대화 프로젝트와 소외계층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을 어떻게 소설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겠다.

## 2. 사랑의 욕망과 근대적 주체-박시정의 「초대」

1960년대의 개별적 삶이 존중되기를 원하는 지식인들에게 자유와 민주주의는 더없이 중요한 가치로 기대되었으나, 여성들의 영역에서는 이 가치들이 결코 실현될 수 없었으며 그들의 삶은 큰 변화를 일으키지 않았다.<sup>14)</sup> 4월 혁명의 정신이 인간으로서의 각성을 불러일으키면서 4.19와 그 이후의 사회 분위기는 여성들에게도 ‘자기 찾기’에 대한 욕구<sup>15)</sup>를 조성하였음에도 이후 다시 가족-국가의 틀에 가뒀 놓으려는 보수화의 급격한 진행으로<sup>16)</sup> 모순적인 상황에 처하게 된 여성들에게 오히려 그 가치는 더 증폭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박시정의 「초대」<sup>17)</sup>에서 주인공이 미국인에게서 느끼는 사랑이라는 감정은 낭만적인 사랑으로만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소설의 주인공은 관광학과에 다니는 재학생으로 스튜어디스라는 꿈을 가지고 있다. 이 꿈을 가지게 된 것은 단지 스튜어디스라는 직업적인 의미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다. 그녀가 직업여성이 되고자 하는 것은 “남자에게만 집착하고는 성이 차지 않은 그녀의 성격과 관계된 것”(189)이며, 남자에게 의지하여 사는 보편적인 삶보다 자신의 생활이 있는 삶에 대한 추구이다. 이러한 삶에 대한 추구는 소설에서 외국인의 삶과 관련된다. 주인공이 상상하는 외국인은 “생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인데, 그녀 또한 “아무것도 구애받지 않은 환경”(199)에 놓이고 싶어 하며 오로지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 자유롭기를 염원한다. 소설에서 주인공이 일 년 동안 만나온 한국인 남성 기훈은 그런 점에서 주인공이 바라는 삶을

13) 루카치, 반성완 역, 『소설의 이론』, 심철당, 104면.

14) 이선미, 앞의 글.

15) 김지윤, 「1960년대 여성시의 정체성 모색과 탈주의 상상력」,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8, 162면.

16) 4월 혁명과 여성의 의무를 다룬 대표적인 글인 기성여성세대를 고발한다는 해방 이후 15년을 여성이 지배하고 남성이 위축된 시대로 기술하고 4.19혁명에 이르러 거세당한 남성들의 권력이 회복되기 시작했다고 서술한다. 추선진, 「‘4·19’소설의 여성 표상 연구-연애/가족 서사의 정치학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8, 61면.

17) 이 글에 인용된 「초대」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본문에서는 따로 출처를 밝히지 않고 면수만 기록하기로 한다. 박시정, 「초대」, 『현대문학』, 1969.3.

함께할 수 있는 상대로서는 적합지 않으며, 그녀의 사랑관과는 엇갈리는 지점에 놓이게 된다. 기훈은 그녀의 스텐더스 꿈을 허영이라고 말하면서 “병적으로 그녀의 하늘에의 꿈을 가로막”(189)는다. 그녀는 기훈과 만나면서 “그의 정신을 느끼고 그로인해 제약받”(199)는 느낌을 받는데, 아래의 예문과 같이 기훈의 사고방식과 그녀가 지금까지 받아온 가족 교육은 모두 보수적인 방식으로 그녀를 억압하고 있다.

그녀는 그녀의 미에 자신이 있었다. 과 친구들에게서 미쓰코리아에 나가보라는 권고도 많이 받아왔지만 아직은 그녀의 정신 뒤에 기훈이라는 아주 보수적 사고방식을 지닌 인격이 그녀를 점하고 있었고, 스물세해동안 그녀를 키워낸 그녀의 가풍이 미쓰코리아에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었다.(191~192)

그녀는 어제보다 더 짙은 행복을 느꼈다. 행복이란 감정이 어떤 것인지 알아지는 것 같았다. 마치 그녀 자신이 한국적 사고방식과 생활에서 벗어나 구라파여행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인이 된 기분이었다.(194)

소설에서 이러한 기존의 사고방식이나 생활습관들은 전근대적인 것으로 주인공의 수치스러움과 연결되면서 폄하된다. 주인공이 바라는 “더 짙은 행복”은 “한국적 사고방식과 생활에서 벗어나” “자유인”(194)으로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자유를 가능케 해주는 것이 우연한 기회로 만난 미국인 남성이다. 소설에서 기훈이라는 인물이 전근대적인 것을 상징한다면, 미국인은 근대적인 것을 상징하게 된다. 기훈이와는 정반대인 미국인은 모든 근대적인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면서 그녀가 추구하는 행복과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해준다. 주인공은 미국인을 만나면서 기훈이와 함께라면 할 수 없었던 짙은 화장도 하고 화려한 드레스도 입고 댄스도 배우는 등 서구적인 문물을 적극적으로 향유하면서 근대적인 주체로 자신을 탈바꿈하려고 한다. 주인공이 체험하게 되는 서구적인 일상은 곧 자유로운 삶을 누리는 것과 동일시된다. 또한, 주인공이 끊임없이 미국으로 가고 싶다는 내면적 고백은 곧 자유의 주체로 되고 싶다는 것에서 비롯된다. 그런 점에서 그녀가 미국인에 대한 사랑의 욕망은 그동안 스스로 억제하고 또 가족과 사회로부터 억압되었던 분열적인 근대화의 여성 정체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사랑의 욕망은 스텐더스라는 사회적 자아와 자유로운 개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연결된다.

소설에서 기훈이가 주인공의 스텐더스 꿈을 허영이라고 하는 것처럼, 주인공에 있어 여성이 근대적인 주체로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것 역시 허영으로 “지나친 이상”으로 표현된다. 아래의 예문에서 알 수 있듯이 그녀가 미국인 남성에게 느끼는 사랑은 단지 미국인이라는 정체성 때문이 아니다. 그보다 그녀가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남성은 “너그러운”, “최대한 이해”로 그녀를 자유로운 존재로 인식하는 것, 어떠한 것에도 속박되어 있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주는 것에 있다. 기훈에 대한 사랑이라는 감정이 결국 “불쾌라든지 격한 감정”(191)으로 변하고 “휘발유냄새나는” 메스꺼움으로 표현되면서 기훈과의 소통을 단절하게 된다. 1960년대 근대화된 여성들에게 내면화된 자유는 사랑이라는 담론으로 연결되며, 자유로운 주체에 대한 갈망이 사회성으로 나타난다. 이는 박시정을 포함한 당시 지식인 여성들의 작품에서 낭만적 사랑을 담론화하는 방식이기도 하다.<sup>18)</sup>

집에는 기훈에게서 짙은 열서가 와있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무섭게 예리한 지성과 자존심을 지닌, 기훈에 대한 어떤 역겨움이 휘발유냄새나는 버스를 탔을 때의 메스꺼움처럼

18) 이선미, 앞의글, 64면.

그녀의 내부에서 일어올랐다. 그녀가 그런 허영스런 여자인한 사랑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사랑할 수 없으면 말라지. 어느 여자이고 그런 꿈을 가지지 않은 여자가 있을까. 여자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여자의 본질적 허영을 이해못해주는 남자라면, 그런 남자는 싫다. 비록 그런 생각이 허영이고 우습게 보이더라도 최대한의 이해로 그 허영으로부터 실현 가능성이 있는 세계로 인도해줄 수는 없을까. 여자의 허영은 일종의 아픔이다, 병이다, 여자의 지나친 이상은 때로 허영일 수가 있다. 그 허영에 들뜬 여자는 심한 병을 앓고 있는 것이다. 그런 여자에게는 허영을 잠재워줄 의사가 필요하다. 그녀의 남자에게서, 왕국을 찾아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녀는 기훈이 그런 남자이기를 기대했었다. 그러나 기훈은 그렇게 너그러운 남자만은 아니었다. 사랑할 수 없으면 말라지! 그녀는 엽서를 꼬직꼬직 구겨서 휴지통 속에 넣어버렸다.(195, 강조는 저자)

「초대」는 자유에 대한 열망을 낭만적 사랑으로 담론화하는 한편, 자유의 불가능성을 당대 사회의 후진성으로 제시한다. 흔히 1960년대 소설에서는 근대적 교육을 받고 사회 활동에 대한 욕망을 지닌 여성들은 현모양처의 규범으로 인하여 갈등하는 양상이 자주 등장한다.<sup>19)</sup> 박시정의 「초대」의 주인공 역시 근대적인 교육을 받는 여대생으로 사회 활동에 대한 욕망을 지닌 여성이지만, 이 소설에서는 단지 그 갈등의 문제를 남성들의 영역과 여성들의 영역으로 나누어 근대화가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만 문제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주인공은 전통적인 규범을 버리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때의 행복을 만끽하기도 한다. 「초대」의 주인공의 고민은 그것에 있지 않다. 이 소설에서는 주인공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한국 사회의 경제적 후진성에서 그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주인공이 자유로운 근대적 주체가 되고자 미국인을 만나면서도 결국 그것의 불가능성을 느끼는 것은, 주인공이 욕망하는 대상이 단지 자유를 상징하는 미국이 아니라, 욕망의 대상과 좁힐 수 없는 거리를 인식하므로 하여 분열된 주체의 욕망이다.

그녀가 그를 따라 뉴코리아호텔 주차장으로 갈 때 새까맣게 더러운 거지가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는 눈썹하나 미동하지 않고 곧바로 걸었다. 그러나 그와 그녀만 걸어도 못 시선들이 스쳐가는데, 거지가 따르는 그들은 얼마나 보기 우스운 것일까. 그녀는 불안했다. 차라리 그가 동전 한 닢이라도 꺼내주면 어떨까. 다소 떨어진 거리를 유지하며 걸었다. 그가 그녀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시선은 그녀에게, 너의 국민은 이렇다고 말하는 것같았다. 그것은 그녀가 그를 만난 이후 처음보는 불쾌한 시선이였다. 이대로는 더이상 걸을 수 없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그녀는 십원지폐를 꺼내 그에게 주었다. 지나던 사람들이 그녀를 보았다. 또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그리고 우선 그에게 불쾌감을 느꼈다.

그렇지만 버릇이 됩니다. 저도 많이 생각해봤습니다만, 돈을 주는 것보다는 안 주는 것이 그들을 위해서 좋지요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혼자 걸을 때는 결코 주지 않아요. 그가 따라올 때 저는 **부끄러웠어요**. (196, 강조는 저자)

주人公이 속하고 싶은 곳과 실제 속하는 곳의 불일치는 열등감을 일으키고 그것은 사랑의 불가능성으로 이어진다. 주인공이 느끼는 열등감은 한국의 후진성에서 비롯되며 미국인이라는 타자에게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 하면서 그의 기준에 맞춰 자신을 구성<sup>20)</sup>하고자 하였던

19) 같은 글, 52면.

20) 파농은 제국주의 치하를 살아가는 피식민자의 열등감을 이야기한다. 자신의 뿌리를 몰각한 채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고, 백인이라는 타자에게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 하며, 백인의 기준에 맞추어 자신을 구성하고자 하는 양태로 나타난다. 프란츠 파농, 노서경 옮김, 『검은 피부, 하얀 가면』, 문학동

것에서 기인한다. 주인공이 그간 미국인을 만나면서 근대적인 주체로 자신을 그와 동일시하고자 비싼 드레스를 등록금으로 사는 등 더 나은 것처럼 자신을 포장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자기만의 식민성을 자각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각은 사랑의 불가능성을 확인하게 하면서 개체의 실존이 불가능했던 당시 사회의 단점을 드러내기도 한다. 소설의 결말에서 기훈의 집의 개마저도 자신을 반기지 않는다는 주인공의 자의식은 일면 작가의 미국 동경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여성들이 미국이라는 표상으로 근대적 주체로서 자유를 담론화하는 것마저 “탕녀”나 “미국병”으로 인식되면서 결국 매국적 현상으로 담론화되고 이기적이고 반민족적인 요소<sup>21)</sup>로 취급된 현상을 재현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초대」는 비록 민족의 근대화로 억압되었지만, 여성 개인의 근대화를 담론화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3. 아픈 여자들의 여성적 주체성- 박시정의 「분위기」와 송정숙의 「개고동」

50년대 손창섭, 하근찬 등의 소설에 나타난 불구적인 몸이 전쟁에 대한 직접적 충격을 표출한 것이라면, 1960년대 압축적인 근대화를 경험하면서 혼란을 겪는 개인들은 욕망과 갈등을 병리적인 증후들로 표출하였다고 할 수 있다.<sup>22)</sup> 그리고 1960년대 이러한 특성은 작품 속에서 남성 인물이 전통과 사회적 폭력에 의해 억압된 증후들을 정신분석적인 방법으로 논의하는 연구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에 비교할 때, 작중의 여성 인물을 대상으로 정신분석학적인 관점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된 연구는 아직 미미하다. 1960년대 여성소설에서도 병리적인 증후를 앓고 있는 여성들이 꽤 발견되며 그 근처에는 당시의 사회적 구조의 모순들을 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장에서 살펴볼 1960년대 여성소설, 박시정의 「분위기」에서는 히스테리를 포함한 각종 신경증을 앓는 여성을 주인공으로 설정하는가 하면, 송정숙의 「개고동」에서는 심계항진증과 자궁근종 증세가 있는 여성을 주인공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들은 모두 중산층 가정에서 가족과의 불협화음을 겪는 여성들이다. 이들 소설에서 재현되는 중산층 가족의 여성들은 1960년대 새롭게 생성된 중산층이라는 이미지와는 어긋나 있다. 1960년대 중산층은 사회적 기대를 모으는 계층으로 그 문화 육성의 주체로 여성이 제시되었으며, 중산층 여성은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도덕적으로 건전한 스위트홈의 표상이 되었으며 현모양처라는 이미지는 여성들의 모델로 제시되었다. 하지만 「분위기」와 「개고동」의 중산층 가정의 여성 주인공들은 오히려 가정 내에서 불행한 내면을 드러내며 가정 밖의 삶을 찾아 나서고 있다.

박시정이 「초대」에서 근대적인 주체로 되고자 한 여대생을 주인공으로 설정하였다면, 「초대」가 발표된 이후 불과 1년이 지나지 않아 발표된 소설 「분위기」<sup>23)</sup>에서는 주부라는 정체성에서 벗어나려는 여성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다. 「분위기」의 주인공 ‘나’는 그간 여성소설에서 여성 인물을 주인공으로 할 때 대부분 삼인칭 화자를 내세운 것과 달리, 일인칭 화자로 내면적인 묘사들을 보다 진실하고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소설의 주인공 ‘나’는 정신과 의사로부터 히스테리, 공포증, 피해망상, 등 진단을 받게 되면서 입원을 강력하게 권유받고 “타의적이면서 자의로 정신병원에 이주일간 입원”(217~218)하게 된다. 전후의 아프레겔이나 60년대 스트리트 걸이 육체를 성애화하였다면, 1960년대 여성의 히스테리는 여성의 내면을 에로스적

네, 2014, 41면.

21)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이선미, 위의 글, 63~79 참고.

22) 김지혜, 「김승옥 소설에 나타난 병리적 몸 인식과 근대적 주체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13(4),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9, 311면.

23) 이 글에 인용된 「분위기」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본문에서는 따로 출처를 밝히지 않고 면수만 기록하기로 한다. 박시정, 「분위기」, 『현대문학』, 1969.10.

으로 재현하면서 여성의 육체만이 아니라 내면까지 성애화하였다는 것을 상기할 때, 이 소설에서 재현되는 히스테리는 60년대적인 성애화된 여성의 히스테리<sup>24)</sup>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소설 속 '나'의 이러한 병리적인 증상은 “상처받은 것의 흔적”<sup>25)</sup>으로 합리성을 가장한 사회의 비합리성에 반응하며 훼손된 자아를 회복하려는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소설의 주인공 '나'는 육 년 동안 결혼생활을 해왔지만, 남편과는 남남처럼 지내고 딸마저 할머니와 함께 지내면서 '나'를 “비실비실 피하고 남보듯”한다. '나'는 “맹물같은 생활 속에서 숨이 막힐 것” 같아 스스로 “인간과 잘 조화될 수 없는 존재”(216)라고 느끼게 된다. 「분위기」의 '나'가 병적인 발작을 보이게 된 결정적인 순간은 “불란서혁명에 대한 책”을 읽다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끼게 될 때이다. 이 부분은 작가의 비판적인 인식을 드러내면서 소설 전반의 주제의식과 연관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혁명은 여성들이 자신의 권리를 자각하는 역사적인 계기로 되며, 그 과정에서 여성이 수동적 시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대담성을 발휘해 보이면서 종속적인 존재가 되는 것을 거부하였다. 프랑스혁명은 자기 관계의 구조로 주체성의 원리가 관철된 사건이다.<sup>26)</sup> 이 소설에서 프랑스혁명을 끌어온 것은 한국 여성들의 어떤 권리를 주장하여 여성적 주체성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싶었을 것일까.

소설의 주인공 '나'가 앓고 있는 공포증과 히스테리는 모두 신경증에 속한다. 신경증은 억압된 무의식을 표현하는 신체적 언어로서 아버지가 정해진 법으로 작동하는 가부장적 사회에서 제한된 여성의 역할에 만족하지 못하고 전통적인 여성성에 반발을 느끼면서 이를 언어로 내뱉지 못하고 억압하다가 병적인 증상을 통해 몸으로 말하게 된다.<sup>27)</sup> 주인공이 앓고 있는 히스테리는 가족 내에서 완전히 타자로 살아온 데서 기인한다. 아래의 예문과 같이, '나'는 남편과 딸 모두와 대화나 교류나 단절된, 아내 또는 엄마로서의 가정 내 위치를 상실한 존재다. 비록 시어머니를 모시고 남편 시중을 하면서 딸까지 기르면서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워 보이는 중산층 이상의 삶을 살고 있지만, 주인공은 이렇나 삶에 공허와 고립감밖에 느끼지 못한다. 1960년대 후반, 중산층 가정은 한국의 근대화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나갈 이상적인 주체로 가지화되면서, 특히 건전한 문화 육성의 주체로 여성이 제시되었고 중산층 가정은 여성들의 진정한 자아실현의 장으로 받아들여졌다.<sup>28)</sup> 하지만, 이 소설에서 재현되는 중산층 가정의 여성은 오히려 가정 안에서 어떠한 친밀성도 느끼지 못할뿐더러, 당시 스위트홈의 상징이었던 아파트 역시 이 소설 안에서는 주인공이 “자살해버릴지도 모르는 상태”(218)로 분가해 나오는 공간으로 재현된다.

도대체 나같이 생겨먹은 여자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남편시중을 들고 딸애를 거느린다는 것은 참으로 모순이었던 것 같다. 남편과 나는 결혼 일년 후부터, 한집에 살면서도 숫제 남남이었다. 우리가 서로 다정한 인사를 주고받은 것은 너무 까마득해서 기억할 수도 없었다. 딸 시라도 할머니하고 자라서인지 나를 보면 비실비실 피하고 남보듯했다. 때로 귀여워서 안아줄라 치면 질겁을 해서 달아나 할머니 치마꼬리에 가 매달리곤 했다. 나는 가끔 서글펐다. 어린애하고도 원활한 인간관계를 가질 수 없는 자신에 대해서. 남편은 사회부 기자였는데 나보다도 술

24) 송인화, 「60년대 여성 정신병의 재현과 히스테리: 젠더권력으로서의 의학지식과 성애화된 '내면」, 『여성문학연구』 51, 233~234면.

25) 문병호, 『아도르노의 사회 이론과 예술 이론』, 문학과지성사, 1993, 228면

26) 우르겐 하버마스, 『현대성의 철학적 담론』, 이진우 옮김, 한길사, 1994, 23~24면.

27) 이소희, 「메를로-퐁티의 '말하는 몸'과 히스테리」, 『한국여성철학』 16, 2011, 158면.

28) 김은하, 「중산층 가정소설과 불안의 상상력」, 『대중서사연구』 22, 대중서사학회, 2009, 130면.

을 사랑했고 친구들을 좋아했다. 그는 주말날도 집에 붙어있지 않았다. 나는 몇 년간을 우리의 이상한 부부생활에 대해서 고민했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 인간과 잘 조화될 수 없는 존재라고 느꼈다. 나는 시어머니를 대하기 두려웠고, 시라를, 남편을 대하기 두려웠다. 그들은 나를 기묘하게 오해하고들 있었지만 실은 그들이 죽도록 밟지 않으면서도 나는 그들에게 할말이 없었고 한가닥 미소도 줄 수가 없었다. 현기는 슷제 하숙인이었다. 그가 하는 말은 기껏 응, 아니, 정도였고 절대로 말을 건네는 일이 없었다. 그렇다고 그에게 달리 여자가 생긴 것이나 아닐까 하는 의심도 생기지 않았다. 나는 이대로는 살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내 젊음이, 이렇게 죽은 나 무처럼 생명없이 지날 수 야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이렇게 사느니보다는 차라리 이혼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나는 이렇게 사느니보다는 차라리 이혼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현기도 나로 인해 생생한 젊음을 허송세월하는지도 모르니까 말이다. (216)

한국의 1960년대는 성장 위주의 산업화를 거치면서 여성은 젊잖은 부인과 어진 어머니로서 가족을 돌볼 친밀성의 담당자로 등장하였다.<sup>29)</sup> 그러나 이 소설에서 ‘나’는 “피와 피, 살과 살, 뼈와 뼈가 밀착한”(226) 낭만적인 사랑과 결혼의 결합이 사실은 환상에 지나지 않으며 행복한 가정은 텅 빈 공간이라는 것을 폭로한다. 또한, 소설에서 남편은 사회부 기자였으며 매일 술 자리를 가지지만, 그런 남편과 대조적으로 ‘나’는 교사직도 그만두고, 모든 인간관계로부터 멀어지며 사회적 자아가 없는 삶을 선택하게 된다. ‘나’가 교사직을 그만둔 것은 “백이십개의 눈동자가 나를 지켜볼 때 가끔 아찔해지곤 했으며, 그들이 내 얼굴에 있는 죽은개 한알한알까지 세보는 것같아 그들앞에서 도망쳐나가고 싶은”(218) 두려움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정으로부터, 또 사회로부터 고립되게 만드는 ‘나’가 앓고 있는 히스테리는 곧 낭만적 사랑과 행복한 결혼의 이데올로기에 대해 자기 파괴적인 거부를 표현하고 있다.

송정숙의 「개고동」<sup>30)</sup>의 주인공 인희라는 여성 역시 병리적인 증후로 당대 질서가 여성에게 작동하는 권력과 그것의 폭력을 드러내고 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심계항진증과 자궁근종 증세가 있는 여성이다. 소설에서 인희의 심계항진증이 발작하게 하는 것은 두 부류이다. 하나는 그녀가 일하고 있는 문화부라는 직장의 상사로부터이고 다른 하나는 남편 상수와 그의 가족들로부터이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인희를 제외하고 거의 다 남성이다. 인희의 직장 동료와 그녀의 남편 상수가 인희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남성 주체적인 당대의 질서가 내포되어 보호의 명목과 감시의 명목이 작동한다. 소설에서 인희 남편 상수는 인희가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직장 밖에서 누구를 만나 어디로 갔는지 일일이 알 만큼 “정확하고 빠른 정보망”(168)을 가지고 있어 그녀의 일거일동들이 거의 모두 상수에게 알려진다. 소설에서 남편 상수가 인희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감시만이 아니라 보호의 시선에서 연민 혹은 혐오감으로 바뀌어 나타나기도 한다. 자궁근종으로 자궁축출 수술을 하게 된 인희를 상수는 “벼란간 흠뻑 늘어진 것 같은 얼굴”(157)과 “어딘지 굳어진 듯한 표정으로 숨을 깊이” 들이쉬면서 인희의 “불행을 몽땅 흡수해서 음미”(158)한다. 그리고 인희에게 그가 “베푸는 선량”은 오히려 “헝포”로 다가온다.

인희의 심계항진증을 일으키게 하는 직장 동료들은 “여자라면 어딘지 남자보다 한 과정 덜 진화된 것만” 같다는 인식을 가진 “비슷한 감도(感度)의 저항을 주는 남성”(153)이다. 인희가 직장 동료인 명식이와 우연히 마주쳐 동료들이 자주 다니는 나이트클럽에 가게 되는데, 이는 아래의 예문에서처럼 직장 내에서 못 남성들의 질타를 받게 된다. 남편 상수도 이에 대해 “멀

29) 권수현, 「삶의 정치로서의 친밀성」, 『한국여성철학』, 한국여성철학학회, 2011, 102면.

30) 이 글에 인용된 「분위기」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본문에서는 따로 출처를 밝히지 않고 면수만 기록하기로 한다. 송정숙, 「개고동」, 『현대문학』, 1969.04.

평한 남의집 주부”가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는 것은 망신스럽고 이기적인 행위임을 질책한다. 1960년대 한국의 여성은 남성들의 감시라는 명목하에 윤리적인 기준에 의해 통제되었으며 여성들의 섹슈얼리티는 국가가 주도하는 근대화에 흡수되면서 바람직한 여성 삶의 방식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인희의 시집 식구들은 인희가 택시를 타고 출퇴근하는 것마저 질타하는데, 그 이유는 단지 남편 상수보다 빈도가 훨씬 높다는 것이었다. 소설에서 인희는 가정 내부에서는 남편과 그의 가족들로부터 가부장적 질서 내의 시선을 받고 가정 외부의 공적인 영역인 직장에서는 남성중심 지배체제가 내재한 시선을 받고 있다.

「강여사는 한명식이 좋아하고 나이트클럽같은 데 같이 다니고 하지만, 호스텔스차지 안 올리려고 동반하는 건지나 알고 따라다니시나요.」

악을 쓰듯 한다. 고약한 도전이다. 언젠가 꼭 싸우고 헤어질 것같은 느낌이 들었던 것은 그가 지닌 이런 졸렬한 품성이 풍겼던 징조였나보다.

「마음놓고 경멸해도 좋을 위인이군요, 김석준씨란 사람.」

인희는 의자에 앉았다. 앉아야 한껏 오만불손해지기에 적당하다.

「그래도 강여사를 내가 인간적인 친구로 대우하기 위해서 이야기해주는 거란 말야……」

마구 비뚤어진 얼굴이다. 피가 팍 역류한다. 견딜 수가 없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 목소리를 낮췄다.

「김석준씨가 해주는 인간대접, 내쪽에서 거부하죠. 난 김석준씨 사람대접 안하고 있어, 오래 전부터.」

넌따란 편집국이 마침 오후에 들어온 기자들로 시장판같다. 그 군데군데서 웃음섞인 시선들이 관망하고 있다. 망신스럽다.

「이거 왜들 이러지. 강인희씨는 공연히 눈치두 없이... 가정법원 취재 어떻게 됐어요. 한명식하고 춤이나 추러 어울려다니고 그러면 강여사도 가정법원갈 일 생겨요. 공연히.」

잘 야합되는 돌이다. (167)

소설에서 인희가 취재를 맡은 가정법원의 조정관은 사회가 가혹할 만큼 여성에게 결정적인 이혼 사유는 부정과 아이를 못 낳는 경우라고 하는데, 인희는 여성이 결정적으로 이혼당하는 두 가지의 사유를 모두 가지고 있는 셈이다. 1960년대 근대적 조국 형성 과정에서 여성에게 국민 되기의 일환으로 모성 이데올로기를 요구하였던 것을 상기한다면, 「개고동」의 인희라는 인물은 펍 문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인희의 남편 상수에게 인희는 아내가 아니라 8살 때 죽은 어머니와 동일시되는데, 그러한 남편과의 관계를 해체하는 것과 인희의 자궁축출은 모두 모성 이데올로기를 거부하는 서사로 읽힐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소설의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병리적 증후들은 모두 당대 사회가 여성에게 부여한 이데올로기적인 억압 기제에 대한 완강한 거부라고 할 수 있다. 「개고동」의 주인공 인희의 이러한 병리적 증후들은 앞서 논의한 박시정의 「분위기」를 포함하여 여성 인물들의 내면이 언어라는 매개로 발화되지 못한 채 신체적 불구거나 질병, 또는 정신적인 증상, 심지어 자살로 표출<sup>31)</sup>되었던 것과는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아래에 좀 더 상술하도록 하겠다.

#### 4. 집을 나서는 여성들의 저항적 주체성-박시정의 「분위기」와 송정숙의 「사생아」

한국문학에서 가정은 지식인 남성들이 저항적인 자기 주체성을 구축하기 위해 벗어나야 할

31) 김영은, 「박경리 장편소설에 나타나는 여성 내면 형성과 주체성 연구-『죄인들의 숙제』를 중심으로, 『한국예술연구』 35, 2022, 108면.

장소로 상징화되었다.<sup>32)</sup> 여성들의 경우, 여성을 타자화하는 가부장제 사회는 여성의 이동 자체를 제약하였고 여성의 이동에 대한 욕망 역시 억눌러왔다. 하여, 여성들이 집을 떠난다는 것은 대개 가부장제의 굴레를 벗어나 낭만적인 사랑을 찾아 나서는 것으로 현실에 대한 저항을 나타내는 것으로 읽혀왔다. 앞에서 논의한 박시정 「분위기」와 송정숙의 「개고동」의 여성들이 가정에서 벗어나는 것은 결코 낭만적인 사랑을 찾아 나서는 것은 아니며 단지 가부장제 사회를 거부하는 것으로만 해석되기에는 이 텍스트들이 내재하는 문제의식이 단순화되는 일면이 있다. 이 두 소설에서 여성들은 병리학적 증상들로 가정 내의 모순을 드러내며 그것은 모두 주인공의 권태로운 태도로 이어지기도 한다. 권태는 의미를 추구하는 개인이 세계가 의미 없다고 느껴질 때 발생하며, 그런 점에서 자신만의 고유한 의미를 추구하는 자기의식, 주관성을 전제로 하며<sup>33)</sup>, 존재에 대한 고뇌에서 유발된다고 할 수 있다. 박시정 「분위기」와 송정숙의 「사생아」에서는 여성들이 권태에서 탈출하여 도달하는 곳은 모두 소외계층의 공간으로 나타난다.

박시정의 「분위기」는 주인공 ‘나’의 외로움과 허전함에 대한 묘사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어서 이혼하고 홀로 살던 아파트, 도시적인 삶에서 벗어나 바다로 혼자 여행을 떠난다. 그리고 그곳에서 할머니와 함께 오두막집에서 지내는 소녀를 만나게 된다. 그 소녀는 어머니가 죽자 아버지마저 배를 타고 떠나버려 홀로 조개를 팔아 생활을 지탱하게 된 것이다.

송정숙의 「사생아」는 버려진 아이들에 관한 주인공의 고뇌로 시작한다. 「사생아」의 주인공은 자신과 버려진 아이들을 동일시하며 결말에서는 자살로 그 고뇌를 끝내고 있다. 송정숙의 소설 인물들의 고아의식은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를 잃게 되면서 파생된다.

(미완)

미완의 부분에서는 국가재건 프로젝트가 이중화된 담론으로 이상을 규율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 의식을 살펴보려고 한다.

---

32) 김은하, 앞의 글, 120면.

33) 스펜젠, 라그스 Fr.H, 도복선 옮김, 『지루함의 철학』, 서해문집, 2005, 56면.



## 「1960년대 여성 주체의 욕망과 홀로서기의 (불) 가능성」에 대한 토론문

김지윤 (단국대)

최연희 선생님의 글을 흥미롭게 잘 읽었습니다. 이 글은 4·19 이후 급격히 남성 중심의 보수화가 진행된 사회적 배경 속에서 스스로 가정과 사회의 외부자로 자처하며 홀로서기를 시도한 여성 주체들이 재현된 소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문학 연구의 동향이 그간 문단에 존재해왔으나 충분히 탐구되지 못했던 여성 소설가들을 활발히 ‘재발견’해왔음을 고려한다면, 1960년대 여성 문인들에게까지 그 자리가 마련되지 못했다는 것은 다소 의아한 일입니다. 때문에 선생님의 글은 1960년대의 여성 작가들이 재구성해내고자 한 여성 주체의 내면이 어떻게 동시기 남성 주체의 내면과 다른지에 주목하셨다는 점에서 매우 유의미한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논의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글을 읽으며 들었던 생각과 질문들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1. 1960년대 (여성)문학장 안에서 박시정과 송정숙의 위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선생님께서서는 1960년대 문학 연구에서 여성 소설가들에 대한 연구가 소략하게 진행되어 왔음을 지적하면서, 이 시기에는 손장순과 같은 ‘대표적’ 작가가 아닌 소설가들을 통해서도 여성 주체의 내면을 재구성하려는 시도가 적극 이루어졌음을 밝히고 계십니다. 박시정과 송정숙은 그러한 목적에서 선택된 작가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박시정은 1969년 등단했던 신인이고, 송정숙의 등단은 1963년으로 그보다 앞서기는 했으나 활발히 소설을 발표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제가 1960년대 소설에 대한 이해가 과묵한 탓이겠으나 이들을 1960년대 (여성) 문학장 안에서 어떤 위치에 놓을 수 있을지, 이 두 작가에게 어떤 대표성을 부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선생님의 설명을 먼저 청해 듣고 싶습니다.

2. 논문의 전제가 되고 있는 ‘1960년대 한국 사회와 근대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2-1. 주지하듯 4·19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열망과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급격히 분출했던 1960년의 상징적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폭발적인 힘이 여성에게는 오히려 반작용으로 작용하며 공적 담론의 영역에서 여성을 소거시키고 여성의 자유를 제한하기도 했는데요. 선생님께서도 이 부분을 논문의 전제로서 중요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 내용에는 저 역시 동감하는 바이나, 글의 서술에서 ‘1960년대가 여성에게 억압적인 시대였다’는 사실이 주로 이선미 선생님의 논의에 기대 선형적이고 당위적인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는 인상이 듭니다. 이 부분이 글의 주요한 전제가 되는만큼, 개인적으로는 박시정과 송정숙이 주로 글을 실었던 『현대문학』이나 당시 여성들의 욕망을 잘 살펴볼 수 있었던 『여원』, 혹은 기타 다른 담론이나 문화적 풍경들을 통해 이를 조금 더 귀납적으로 보여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2-2. 선생님께서는 ‘전근대성’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근대성’이라는 용어를 쓰고 계시는데요. 발표문 상에서 이 용어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발표문에서 서술된 것처럼 이 시기 여성이 새롭게 구성하고자 한 ‘근대적 주체’의 형상이 국가가 국민들에게 공동의 목표로 제시한 ‘국가의 근대화’와는 다른 지점에 놓여있었기 때문에 ‘근대성’이라는 용어의 모호성과 포괄성은 필연적인 것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열적인 근대화의 여성 정체성”(6쪽)과 같은 표현에서 떠올려야 하는 ‘근대화’의 상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또, “1960년대 근대화된 여성들에게 내면화된 자유”(4쪽)라는 표현은 여성에게 근대화가 이미 완료된 것으로 읽히는 반면, “자유로운 근대적 주체가 되고자 미국인을 만나면서도 결국 그것

의 불가능성을 느낀다”(5쪽)는 표현은 근대화가 미완의 상태이거나 불가능한 것이라는 정반대의 인상을 줍니다. 한편 「초대」의 분석에서 여성의 근대성은 “짙은 화장”과 “화려한 드레스”, “댄스” 같은 것들로 설명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여성을 “근대적 주체”로 만드는 필요충분조건은 아닐 것입니다. 때문에 선생님께서 이 글에서 상정하신 ‘근대성’의 의미를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다면 박시정과 송정숙의 소설에 대해서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3. 2장 「초대」에 대한 질의입니다.

제가 이해한 것이 맞다면, 선생님께서는 「초대」의 결말이 여성이 주체적 내면을 갖는 것을 좌절시키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하시며 긍정적으로 의미화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그렇지, 너의 허영은, 결국 너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 너의 배반은, 너의 감정은 너를 멸망시킨 것이다. 그녀는 이를 짓이겨 갈며 한동안 스스로에게 욕을 퍼붓고 서있었다.”(202)는 화자의 내면 고백이나 “안방의 정서와 내 땅의 얼굴과 마음, 그것 이외에 어디 다른 진실이 있던 말인가.”(202-203)라는 서술은 이 텍스트를 (민족주의로 회귀한) 매우 보수적인 것으로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시정을 추천한 박영준의 후기에서 이 작품을 “특히 외국에 대한 동경심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여성에게 경종이 될 수도 있는 이 작품은 교훈적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203)다고 해석한 부분을 같이 읽으면 더욱 그러한 의심이 들게 되는데요. 결말 해석에 대한 선생님의 해석을 더 청해 듣고 싶습니다.

4. 3장의 논의를 흥미롭게 따라 읽었습니다. 특히 1060년대에 남성-지식인의 내면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정신병/정신분석학적 접근을 전유하며 여성의 병리적 증후들을 당시 남성들의 그것과 비교해 설명해 주신 부분들이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논의에 대부분 공감하면서, 아주 지엽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1960년대의 ‘아파트’도 ‘스위트홈’의 표상이었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주지하듯 196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대개 소형 아파트였고 연탄 난방을 해 시민들이 선호하는 주거 형태가 아니었고, 1970년 와우 아파트의 붕괴로 아파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1971년 동부이촌동 단지를 비롯해 중대형 아파트들이 대규모 건설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차츰 희석되어 갔다고 한다면, 1960년대 후반 아파트가 ‘스위트홈’의 표상으로 제시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고등」에서 ‘인희’의 자궁 축출은 그의 의지에 의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모성 이데올로기의 거부”(9쪽)로 해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이에 대해 선생님의 해석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여쭙고 싶습니다.

5. 4장에서 여성들의 탈출과 그 목적지인 ‘소외계층의 공간’에 대한 앞으로의 논의 방향을 청해 듣고 싶습니다. 관련하여, 「분위기」에서 주인공은 다시 자신의 빈 방으로 돌아가기 전 ‘바다’로 향하는데, 이 바다에서 만난 어린 여자아이는 주인공에게 잠시 자신의 아이를 떠올리게 하며 남편이 있는 집으로 돌아갈까 결심하게 만드는 매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다’는 ‘소외계층의 공간’이라고 해석되기보다는 주인공으로 하여금 모성이데올로기를 환기시키는 장소로서 더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닐까요? 아직 미완인 부분이기도 하여서,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서술하실 예정인지를 청해 듣고 싶습니다.

# 1990년대 한·중 여성소설 비교

- 김형경과 린바이를 중심으로

권리나

## 1. 들어가며

1990년대는 세계적으로 큰 전환을 맞이한 시대이다. 동구권이 무너지고 전반적인 가치관이 변화하는 시대 변화 속에서 한국과 중국 사회 또한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적응해 나가기에 분주했다.

한국의 경우 1987년 민주화 운동을 거쳐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길을 탐구해나가기 시작했다. 특히 1993년은 한국 민주화 역사에서 1987년 못지않게 중요한 한해로 기억된다.<sup>1)</sup> 서영채는 이 시대에 문학은 전환을 환멸 이전과 이후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환멸 이후의 세계에는 이전과 달리 더는 “선명함이나 강렬함으로 돌파할 수 없는 끈적끈적한 것”이 되었으며 “더 이상 분노만으로 돌파할 수는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 1990년대의 문학이 직면한 현실이라고 주장한다.<sup>2)</sup> 이소영 또한 1990년대를 “적대의 대상이 부권에서 섹슈얼리티로 이동”한다는 점에서 성정치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sup>3)</sup> 이와 같이 한국은 1990년대로 들어서면서 기존 1980년대와는 결별하고 정치적, 사회적으로 새로운 길을 모색하였고 문학에서도 전례 없는 다양한 서사가 생겨나면서 새로운 문학장을 열었다.

중국 또한 한국처럼 새롭고 다양한 1990년대를 맞이하였는데, 정치면에서 크게 바뀐 한국과 달리 중국은 경제체제 변화로 사회가 급변하였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경제가 부상하기 시작하였고, 1990년대 들어서 경제 체제의 전환과 이에 따른 급속 발전은 사회에 격렬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중국 문학에서는 더는 1980년대의 이상과 신념 이성적인 비판을 찾아가는 목소리를 찾아보기 어려웠고 대신 문학은 각종 사회적 욕망을 비롯한 소비와 물질 사회와 개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며 다양한 문학적 산물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그 중에 여성소설을 비롯한 여성서사가 주목 받기 시작하면서 커다란 성장을 이뤘다.

이 논문은 이와 같은 다채로운 문학의 가능성을 열어준 1990년대 한국과 중국의 여성서사에 주목하여 김형경과 린바이(林白)의 작품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여 두 작가의 글쓰기 양상

1) 서영채는 ‘하나회’가 숙청되고 ‘금융실명제’가 시행되었던 1993년을 한국 민주화 역사에서 1987년 못지않게 중요한 시점으로 꼽는다. 그는 이 해를 “지연된 1987년, 혹은 비로소 실현된 1987년”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시기에 창간된 것이 『상상』이 창간되었고 이듬해 『리뷰』가 창간되면서 이는 문화정치와 젠더정치의 시대로 들어섰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서영채, 「1990년대, 시민의 문학: 『문학동네』 100호 즈음하여」, 『문학동네』, 2019, 12-18쪽 참조.

2) 위의 글, 31-36쪽 참조

3) 이소영은 1990년대를 ‘정치적인 것’으로 바라보며 마광수와 장정일의 필화사건을 중심으로 1987년 이전의 적대적 대상이 ‘부권에서 섹슈얼리티’로 이동해가면서 새로운 적대를 재구축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이러한 바탕에서 재현되었던 섹슈얼리티는 통치성의 검열 대상으로 변화했다는 점에서 성정치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소영, 「87년 체제와 적대의 정동」,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2, 참조.

을 고찰해보자 한다. 김형경과 린바이 두 작가 모두 1980년대에서 1990년대로 시대의 흐름이 세 사회의 변화를 몸소 경험한 작가들이다. 이들의 자신들만의 특유한 시선으로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그려간다. 특히 김형경은 『세월』을 기점으로 린바이는 『한 여자의 전쟁』을 기점으로 창작 경향이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이 두 작품은 모두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자전적 소설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심장하다. 따라서 이 글은 이러한 두 작가의 변화에 주목하여 따 1990년대로 이어지는 시대 변화 속에서 김형경 『세월』과 린바이의 『한 여자의 전쟁』을 다시 읽고 재해석하고자 하는 시도에서 출발한다.

## 2. 김형경 『세월』에 드러난 변화 양상

김형경은 1980년에 시로 등단하였고 1993년 장편소설 『새들은 제 이름을 부르며 운다』<sup>4)</sup>가 공모전에 당선되면서 소설가로 활동하였다. 1995년 『세월』이라는 자전적 소설로 문단의 주목을 받은 그는 1990년대의 대표적 여성작가로 입지를 굳혔다. 그는 여느 운동권 세대 작가들처럼 암울한 1980년대를 특유의 감수성으로 풀어나가는 한편 1990년대라는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자기만의 주제의식을 갖고 세계를 구축하였다.

『새들은 제 이름을 부르며 운다』는 1980년대를 경험한 젊은이들의 우울을 고스란히 그려낸 작품이다. 작가는 네 명의 주인공을 등장시키지만 이들은 모두 1980년이라는 고통과 아픔을 드러내는 하나의 목소리로 통일된다. 그는 친구의 죽음과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 같은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한 목소리를 통해 1980년대에 이십대였던 젊은이들의 우울을 그려낸다. 작가는 성장을 멈춘 젊은이들을 통해 세계가 절망 그 자체였던 시대의 고통을 고스란히 표출한다. 이를 통해 시대가 왜 그들에게 그토록 가혹한 상처를 남겼는지 사유하게 하고 이러한 고통 이면에 놓인 보다 근원적인 문제에 질문을 던진다.

1995년 『세월』을 기점으로 김형경의 창작 세계에 변화가 일어난다. 그 전까지 막다른 골목에 몰리는 것 같은 답답하고 갑갑한 절망과 우울의 감정을 독자들에게 전달하였다면 『세월』에서 김형경은 그 속에서 한 걸음 벗어나 자신이 몸담고 있던 세상을 보다 냉정하게 바라보고 나아가 그것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을 보여준다. 『세월』이라는 작품에 가장 많이 뒤따르는 수식어는 여성과 성장이다. 이 작품은 작가의 행적을 바탕으로 한 자전적 소설이다. 작가의 유년 시절을 거쳐 성숙에 이르는 과정이 담겨 있는 만큼 작중 화자의 성장을 묘사하는 작품이기도 하다. 이처럼 자신의 성장 과정을 고백하고 묘사한다는 점에서 『세월』은 성장소설의 문법을 따른다. 따라서 이 소설은 성장소설의 관점에서 여성의 성장과정과 성장하기 위해 견뎌내야 했던 문제들, 그리고 억압과 저항을 넘어서서 여성이 되어가는 방식으로 읽힌다. 그동안 이 소설은 대체로 여성의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평가되었는데<sup>5)</sup> 이 같은 접근법은 개인의 성장과 공동체의 이념 혹은 문화적인 토대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낳는다. 뿐만 아니라 여성 성장소설로 접근했던 기존의 연구들은 단지 남성과 다른 성장소설의 입장에서 가부장에 저항하고

4) 김형경의 장편소설 『새들은 제 이름을 부르며 운다』는 1993년 국민일보 1억 원 원고료 공모에 당선되었다. 그는 1995년에 『세월』이라는 자전적 소설을 발표하면서 문단의 주목을 받았다.

5) 『세월』에 관한 자전적 글쓰기로서의 접근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향심, 『자전적 글쓰기를 통해 본 '여성 경험의 의미화'에 관한 연구: 김형경의 '세월'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최인자, 「김형경 <세월>에 나타난 트라우마 치유의 자전적 서사 쓰기」, 『국어교육』, 2012. 강연옥 『1990년대 한국 여성소설에 나타난 글쓰기의 수행성과 여성-성장 연구 - 신경숙, 은희경, 김형경 소설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있다는 점에서 여성적 주체로서의 의미를 보여준다는 식으로 성장을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어디까지나 일차원적이라 가부장 중심주의에 저항하는 여성의 행위가 여성주체의 체현 방식이라는 해석만 낳을 뿐 남성과 여성을 대립항으로 바라보는 이분법적 시선을 벗어나지 못할 뿐더러 복합적인 문제를 단순화한다. 따라서 성장이라는 단순한 접근이 아니라 김형경이 이 시점에서 자기 고백체를 통해 표현하고자 했던 감정과 궁극적으로 이러한 글쓰기 자체가 무엇인지 질문해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김형경의 글쓰기는 『세월』에 이르러서 바뀐다. 『세월』은 한 여성 주인공의 유년기에서부터 성년으로의 성장을 다루며 성장과정에서 겪은 성적 트라우마가 전반적인 이야기 흐름을 이끌어나간다. 여기서 김형경은 가부장에 대한 태도를 바꾼다. 이를테면 전 시기의 작품들에서는 가부장제에 대한 저항과 반항이 드러나지 않는다. 첫 등단 소설 「죽음 잔치」와 「민달팽이」 모두 작가의 어린 시절 성장 경험이 바탕이다. 두 작품 모두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여성을 다룬다. 「죽음 잔치」의 경우 버림받은 여성이 등장하는데 그는 남성들과 불화하며 스스로를 고립시킬 뿐이다. 여기서 여주인공은 자신이 버림받은 존재라는 것에 자괴감을 느끼면서 집을 떠날 뿐 아버지에게 어떠한 저항도 하지 못한다. 그러다가 「민달팽이」에서는 여주인공은 강압적인 부권과 다시 화해하고자 한다. 어린 시절 받은 상처 때문에 아버지의 세계와 결별했지만 다시 화해하고자하는 여주인공을 보면 가부장제를 바라보는 작가의 태도와 시선이 결코 반항적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다 『세월』에 이르러서 김형경은 전 시기와 달리 자기 내면의 상처를 들여다보고 나아가 강압적이었던 남권에 저항한다.

장편소설 『세월』은 모두 세 권으로, ‘그 아이’에서 ‘그 여자’로 성장하는 여성의 삶을 그려낸 자전적 작품이다. 이 소설 또한 여느 성장 소설처럼 주인공이 성장 과정에 겪은 아픔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 된다.

어린 시절 부모가 따로 지내기 시작한 뒤부터 깊은 상실감을 느낀 주인공은 버림받았을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다른 여자와 새로운 살림을 꾸린 아버지의 모습을 확인하고부터 깊은 상실감을 느낀다. 상실감으로 얼룩진 ‘그 아이’의 유년시절은 상처로 도배된 삶의 시작이다. 그는 중학교 2학년 때 하숙집에서 옆방 사는 공군 소위에게 폭행을 당한다.

고개를 드는 순간, 다시 얼굴로 손바닥이 날아온다. 공군소위다. 무슨 일인가 판단하기도 전에 다시 얼굴로 손바닥이 날아온다. 영약 다음에 느낀 건 공포다.<sup>6)</sup>

주인공은 이유 없이 자기에게 쏟아지는 욕설과 구타 아래 처음으로 남성의 폭력에 노출된다.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나이에 무방비 상태로 당한 폭력은 그야말로 ‘그 아이’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일방적으로 당한 야만적 폭행은 어린 주인공에게 상실감과 또 다른 공포를 심어주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폭행을 무방비 상태로 견뎌내야 했던 어린 주인공은 남녀의 관계에서 여성이 신체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한다. 이는 객관적으로 자신의 나약함을 직시하는 계기가 된다. 그러나 주인공의 성장과정에서 폭력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성인이 되어 대학교에 진학한 ‘그 여자’는 중학교 시절에 경험한 폭력과 전혀 다른 차원인 성폭력을 당하고 이후 7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을 폭력을 가한 하현규라는 남자의 그늘에서 살아야 했다.

6) 김형경, 『세월』 1권 푸른숲, 2010, 188쪽.

그 여자는 소리를 지른다. 도와달라고, 누구든 좀 도와달라고, 그러나 사방은 고요하기만 하다. 숨이 턱까지 차올라 금방이라도 호흡이 멎을 듯하다. 몸부림치며, 몸부림치며,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그 여자의 포박된 손과 머리가 벽에 닿는다. 벽, 더 이상 몸을 뒤틀어도 피할 수 없는 벽. 두 벽의 모서리였던 것 같다. 어디로도 몸을 뒤틀 수 없는 상황. 그 여자가 절망하기도 전에, 먼저 바지가 찢겨나가는 소리를 듣는다.<sup>7)</sup>

하현규에게 강제적으로 당한 성폭행으로 ‘그 여자’가 고통 받는 것은 단지 남성이 그의 몸에 가한 상처 때문만은 아니다. 이는 폭력을 가한 남성을 향한 미움과 원망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남성에게 무지했던 자신을 자책하는 행위로 이어지면서 고통은 더욱 증폭되어 좌절로 이어진다. 또한 이러한 고통이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성폭력이 단지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적으로 ‘동거 했던 여성’이라는 꼬리표를 달아줌으로써 혐오의 시선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이는 여성의 몸을 단지 남성의 욕망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며, 더 나아가 여성이 결혼해야 할 남자가 아닌 다른 남성으로부터 자기 몸을 지켜내기를 요구하는 사회적 이데올로기와 공조하여 성폭력 당한 여성에게 이차적 상처를 입힌다. 다시 말해 묵시적으로 몸의 순결을 미덕으로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은 폭력을 당한 여성에게 자신의 몸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여성이 자책하게끔 만든다. 따라서 성폭력이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신체에 가해진 상처뿐만 아니라 여성이 자책하게 만드는 사회적 이데올로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는 가부장 이념 하에 형성된 사회적 도덕인식이 폭행을 당한 여성이 마치 자신의 잘못된 것 마냥 자기반성을 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외부로 향했던 분노가 다시 내부로 향하면서 폭력을 당한 여성에게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입힌다.

‘그 여자’가 받은 상처와는 달리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그 남자의 일방적인 욕망으로 이루어진 폭력은 사회적으로 별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 오히려 ‘그 여자’에게 정당하게 강압을 행할 수 있도록 정당화 할 수 있는 이유를 제공하였다. 성폭행을 당한 ‘그 여자’는 자신의 고통을 은폐한 채 7년이라는 시간을 그 남자와 함께해야 했다. ‘그 여자’는 사회의 압력에 결국 좌절하고 그 남자를 받아들이기로 한다.

이와 같이 작가의 고통은 어린 시절의 상실감에서 남성의 폭력, 그리고 사회적 이데올로기와 공모한 권력의 폭력으로 점차 확대되어 간다. 김형경은 이 시점에서 전과 다른 변화를 보여준다. 이 작품은 3인칭 화법으로 구성되었는데, 작가는 자신의 분신인 화자를 3인칭으로 부르면서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낸다. 그는 1인칭으로 쓰는 일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3인칭을 택했다고 한다. 3인칭 수법은 단지 작가의 고백이 담긴 자서전이 객관화의 형태를 띠게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작가가 제3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고통을 응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자신의 상처를 다시 되돌아보고 남권에 대한 폭력을 재고하는 시간을 갖는다.

『세월』의 주인공인 ‘그 여자’는 비록 사회적 통념과 주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자신에게 폭력을 가한 그 남자를 받아들이고자 하였으나 결국에는 자신을 옥죄는 도덕관념에서 벗어나는 결정을 내린다. 비록 작가가 그 남자의 외도라는 도덕적 이유로 두 사람의 결별을 포장하지만, 어머니와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를 떠나는 과감하고 견결한 주인공의 태도 자체에서 작가의 변화를 찾아 볼 수 있다.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아이’ 시절과 무차별적 폭행을 당했을 때와는 달리 ‘그 여자’는 자신이 처한 세계를 돌아보는 눈이 생겼다. 이는 단지 주변을 관찰하는 시선뿐만 아니라 불합리적인 강압에 대한 비판이 될 수도 있으며,

7) 김형경, 위의 책, 91쪽.

권력을 향한 저항의 목소리로 울림을 전할 수도 있다. 이러한 김형경의 변화는 가부장적 강압을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일 뿐만 아니라, 야만적인 폭력 앞에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절망으로 가득찬 시대의 갑갑함에서 폭력 앞에 자신을 타할 수밖에 없는 좌절과 부끄러움으로의 변화이다.

김형경은 작품에서 강력한 폭력 앞에 무기력한 자신과 남권 앞에서 자신을 타할 수밖에 없는 부끄러움의 현실에 대한 좌절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김형경이 『세월』 이전에 아무 것도 못하고 오로지 버림받은 절망감을 느꼈던 여성을 묘사했다면 『세월』에서 그는 트라우마를 직시하면서 자신이 받은 상처에 대해 생각하는 기회를 갖는다. 이는 저항할 수 없는 절대적인 부권 아래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여성에서 벗어나 자신에게 상처를 가한 남권을 보다 심층적으로 바라보는 여성으로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작가의 관심이 권력을 바라보는 여성의 시선의 변화다. 이는 시대적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특정한 개인의 변화가 아니라 지역사회, 나아가 한 시대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김형경이 보여주는 변화를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작가의 태도 변화가 어디에서 오는지 물어야 한다.

### 3. 린바이 『한 여자의 전쟁』의 경우

1990년대 김형경 소설의 변화를 문화와 사회 발전 과정이 비슷한 중국 여성 작가와 비교함으로써 더욱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다. 1958년생인 린바이는 김형경과 비슷한 시기에 창작 활동을 한 중국 작가다. 그는 개혁개방 이후 급변하는 중국 사회에서 글쓰기를 시도한 여성 작가 중 한 사람이다. 김형경과 린바이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글을 썼지만 그럼에도 여성의 문제를 개인적 영역에서 접근하며 가부장제와 남권을 바라보는 시선이 비슷하다.

린바이는 1989년에 중편소설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지 못한다(同心爱着不能分手)』를 발표하면서 등단하였다. 그 이후 여러 중편 소설을 발표하였고 그는 1994년 발표한 장편소설 『한 여자의 전쟁(一个人的战争)』이 문단의 주목을 받으면서 각광을 받았다. 그는 츠리(池莉), 찬쉐(残雪)와 함께 여성 개인의 삶을 서사화 해냄으로서 1990년대 중국 여성문학의 한 축을 담당했다.

린바이 또한 김형경처럼 『한 여자의 전쟁』을 앞뒤로 창작 경향이 바뀐다. 1993년 『한 여자의 전쟁』이 완성되기 이전에 그가 발표한 작품은 가부장제 또는 남권에 부정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지 못한다(同心爱者不能分手)』와 『메이귀이귀다우(玫瑰过道)』 같은 작품에서는 지나치게 남성에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심지어 바탕에는 짙은 남권주의 사상이 깔려있었다. 그러다 『한 여자의 전쟁』을 창작하면서부터 린바이는 여성주의에 관심을 보인다. 같은 시기에 발표한 작품들에서 “여성주의자” 혹은 “여성주의 작가”와 같은 표현들이 빈번하게 등장하기 시작하였다.<sup>8)</sup> 이처럼 1993년 중반을 전후로 린바이의 창작 세계에는 변화가 일어났다. 샤오칭궈(肖庆国)에 따르면 린바이를 여성주의자로 바라보는 시선은 천샤오밍(陈晓明)의 『욕망은 물과 같다: 성별의 신화-린바이소설론(欲望如水: 性别的神话-林白小说论略)』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지적하고 또 린바이의 글쓰기 경향의 변화는 이 평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주장한다.<sup>9)</sup> 이러한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 『한 여자의 전쟁』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

8) 『靑苔与火车的叙事』(1994)에서는 여성주의자(女权主义者)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枝繁叶茂的女人』(1994)에서는 여성주의 작가(女性主义作家)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다.

장편소설 『한 여자의 전쟁』은 여주인공 두오미(多米)의 성장을 그려낸 작품이다. 두오미는 어린 시절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다. 어머니는 의사라는 직업 때문에 두오미에게 충분한 관심을 주지 못했다. 아버지의 빈자리, 그리고 바빠 살아가는 어머니 때문에 주인공은 어린 시절부터 사랑 결핍과 상실감을 느낀다. 이러한 상실감은 두오미가 성장하면서 타자와 맺는 인간 관계에 걸림돌이 된다. 특히 남성과의 관계에서 더욱 문제적이었다. 어린 시절 애정 결핍을 겪은 두오미는 자신의 나약한 내면을 지키려는 습관을 키웠다. 겉으로 굳세고 독립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만은 않은 성격 때문에 두오미는 잘못된 성관계를 맺게 된다.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도시의 도서관에 취직한 두오미는 받은 월급을 모았다가 여행하기를 즐겼다. 그 당시 여성이 혼자 여행한다는 것은 결코 안전하지 않았다. 하지만 두오미는 남성에 무지했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행위를 오로지 모험으로만 받아들였다. 그러다가 마침 일본 배우 야무라(矢村)를 닮은 선원(船員)에게 강제적으로 첫 경험을 빼앗긴다.<sup>10)</sup>

남자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얼굴을 돌리더니 키스를 하기 시작했다. 뺏속까지 스며드는 듯한 그 키스에 두오미는 온몸이 나른해졌다.

가벼운 바람이 창문으로 스며들어와 두오미의 몸을 스치고 지나갔다. 몸에 한기를 느낀 그녀는 깜짝 놀랐다. 자신의 옷에 달려 있는 단추를 남자가 이미 전부 풀어헤친 것이 아닌가!<sup>11)</sup>

두오미가 애원하는 말투로 자신이 남자와 관계 경험이 없다고 하면서 그만하기를 아무리 바라도 야무라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처음부터 두오미에게 흑심을 품고 접근했고 조금씩 그녀를 유인해 마침내 목적을 달성한다. 야무라는 직업과 소속을 알려주었지만 나이와 결혼 여부는 그녀에게 속였다. 두오미는 단지 모험이란 이유로 허무하게 강제적으로 낯선 남자와 첫 관계를 하게 되었다. 모든 것이 얼떨결에 벌어졌다. 남자의 폭력적인 행위에 견딜 수 없는 통증을 맛보고 나서야 두오미는 치욕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한꺼번에 몰려오는 치욕과 비분으로 통곡하였고 그 속에서 절망감을 느낀다. 이처럼 사기꾼과의 첫 경험은 “어두운 그림자처럼 두오미의 앞날에 영원히 뒤덮여 있었다.”<sup>12)</sup>

그 이후 두오미는 영화제작소에서 N이라는 남자를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이 관계 또한 상처만 남기고 끝나버린다. 두오미는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을 만큼 N에게 빠져 있었고 그와의 관계를 이어 나가기 위해 기다리고 배려하며 심지어 둘 사이에 생긴 아이까지 지워버리는 등 끊임없이 자신을 희생한다. 그러나 이러한 두오미의 타협과 희생에도 불구하고 N에게 두오미는 단지 성적 쾌락을 나누는 수많은 여자 둘 중 한 사람에 불과했다. 이 관계는 결국 N이 다른 여자를 찾아 떠남으로써 끝나버린다.

두오미는 도피주의자이다.

실패만 하면 도피하곤 했다. 그녀는 적수와 자웅을 겨루는 용맹스런 여인들 가지도 않았고 세상이 깜짝 놀라도록 살인을 하거나 방화를 하는 등의 일도 하지 않았다. (중략)

그녀의 유일한 출구는 도피밖에 없었다.

도피의 길은 멀고도 험난했다.

9) 肖庆国, 「吊诡的“发生”与“强制阐释”的艰难-林白小说考论」, 『当代文坛』, 2019, 195-198쪽 참조.

10) 소설에서는 그 선원이 일본배우 야무라(矢村)를 닮았다고 해서 야무라라고 표기한다.

11) 린바이, 박난영역, 『한 여자의 전쟁』, 문학동네, 2001, 208쪽.

12) 위의 책, 210쪽.



도피의 길은 아무도 도와주는 이 없이 고독했다.<sup>13)</sup>

상처를 받은 두오미는 N을 잊어버리기로 마음먹는다. 그녀는 타협 하지 않고 도피를 선택한다. 『한 여자의 전쟁』 이전의 소설에서는 주로 남성에 목매는 여성들이 나타났지만 이 소설에서 두오미는 자기희생을 하면서 남성에게 집착 하지 않는다. 이러한 린바이의 변화는 남성을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일 뿐만 아니라, 아니라 남권을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이기도 하다. 이 소설에서는 작가는 두오미를 통해 자기기만에 빠지는 대신 그동안 남성들에게 받은 상처를 직시하고 남녀 관계를 돌아본다. 이는 앞서 다룬 김형경과 같은 여성 시선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단지 여성 개인의 내면의 변화가 아니라 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변화이며, 그 내면에는 1990년대라는 복합적인 요인들이 담겨있다.

#### 4. 김형경과 린바이의 위치의 차이

동아시아의 질서가 새롭게 형성된 20세기 초 한국과 중국에서도 한때 ‘노라’ 붐이 일어났다. 동아시아 사회 전반이 수 천 년 동안 가부장이라는 커다란 질서 아래 기능했기 때문이다. 비록 사회체제와 질서가 새로운 국면을 맞아 부단히 발전했지만 가부장 이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따라서 남편의 억압을 깨닫고 가출을 선택한 ‘노라’의 이야기는 1990년대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주목해야 할 문제이자 중요한 과제다. 노라의 이야기에서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는 것은 가출한 뒤 노라의 삶과 행방이다.<sup>14)</sup> 따라서 1990년대의 여성 작가들이 고민해야 할 문제 또한 노라가 남겨 놓은 과제에서 출발한다.

김형경의 『세월』과 린바이의 『한 여자의 전쟁』의 주인공 모두 어린 시절부터 불온한 가정에서 애정 결핍을 겪으면서 불안한 환경에서 자랐다. 특히 아버지의 부재는 어린 주인공들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가져다주었으며 이러한 상실감과 불안감은 그녀들이 인간관계를 맺는데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소설 속 아버지의 자리가 비어 있음은 가부장 억압과 가부장 사상 교육이 잘 되어 있지 않음을 설명한다. 이를 주인공 ‘그 여자’와 두오미 모두 남자에 대해 무지하다는 데서 알 수 있다.

『세월』에서 ‘그 여자’는 비록 가부장 이념의 역할을 충당하는 어머니의 도덕관념 때문에 자신을 성폭행한 그 남자와 함께 할 지 고민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가부장 이념과 자유를 대립을 위한 설정일 뿐이다. 이를 ‘그 여자’가 처음 강제로 그 남자와 관계를 갖고 나서 바로 도덕과 자유를 놓고 고민에 빠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어머니가 대표하는 도덕관념과 사회적 가부장 이념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 여자’가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다. ‘그 여자’는 순결을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그 남자를 피해 다녔다. 첫 경험에 연연하거나 자기 몸을 지키지 못해 괴로워하는 것보다는 그 남자로부터 벗어나려는 생각이 더 컸다. ‘그 여자’에게 애초부터 중요한 것은 사회적인 통념과 시선이 아니라 통제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은 욕망이다. 따라서 그 남자와 7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하고서도 그 남자의 잘못이라는 빌미가 주어지자 미

13) 위의 책, 288쪽.

14) 한국의 지식인 채민식은 『인형의 집을 나와서』(『조선일보』1933년 5월-11월까지 연재)에서, 중국의 혁명가 루쉰(魯迅)은 《가출한 노라는 어떻게 되었는가(娜拉走后怎样)》(북경여자고등사범학교 문예회의 연설문 1923년 12월 26일)이 가출한 노라에 대해 관심을 보이면서 그녀의 가출한 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모습을 제시한다. 가출한 노라에게는 다시 집으로 돌아오거나, 죽거나 아니면 타락하는 길밖에는 없다는 것이다.

런 없이 바로 떠나버린 것 또한 이러한 이유에서다. 그러나 역설적이기도 여주인공은 마치 가부장 이념 때문에 너무 괴로운 나머지 계속해서 이러한 이념의 불합리성을 비판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입장에서 억울함을 호소한다. 다시 말해 ‘그 여자’가 괴로워하는 것은 속박 당하는 것이지 사회적인 통념이 아니다. 그러나 그녀는 계속 피해자의 입장에서 억울함을 호소한다.

린바이의 『한 여자의 전쟁』에서도 여주인공 두오미는 어떠한 도덕이나 이념에도 속박 당하지 않는다. 그는 성폭력을 당했을 때에도 오히려 하나의 도전 또는 자기의 책임으로 돌리고자 했다.

시종일관 야무라는 경솔하게 나를 유인했다. 그는 별로 저항도 받지 않은 채 파죽지세로 밀려왔다. 그는 틀림없이 자신의 준수한 외모와 가정 배경이 결정적인 작용을 했다고 여겼을 것이다. 보다 더 중요한 두 가지 이유는 나만이 아는 것이다. 하나는 나의 영웅주의(자신을 기이한 여자라고 여기며 모험과 어떤 두려운 사건을 겪고 싶어했던)이고, 또 하나는 나의 의존할 데 없는 연약함이었다. 비로 이런 상반된 두 가지가 나를 베이베이로 이끌었던 것이다.<sup>15)</sup>

이처럼 두오미는 사기꾼에게 당한 성폭력이 마치 자신의 선택으로 이루어 붙여 쓰지 진 것처럼 정신적으로 승리하려 한다. 대학 시절 강제로 자신에게 달려드는 남자를 보았을 때 두오미는 반항하거나 도망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두오미에게 사기를 친 야무라는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었고 그녀가 사랑에 빠진 N감독은 여자를 수없이 갈아치우는 쓰레기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그들에게 두오미는 오로지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일 뿐이다. 다시 말해 두오미야말로 남성의 놀잇감이며 부풀어 오른 자본주의 욕망의 명백한 피해자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두오미는 이러한 상처를 마치 자신의 선택인 것 마냥 자기합리화로 포장한다. 특히 N감독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타협하고 자기희생을 반복한다. 하지만 이 또한 어디까지나 사랑을 지키기 위한 자신의 선택이라고 자기 합리화하고 있기에 아이마져 지워버리게 된다.

김형경의 『세월』 속 ‘그 여자’는 구속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마치 가부장을 향한 저항인 것처럼, 기나긴 시간을 순종과 타협에서 보내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였고 린바이의 『한 여자의 전쟁』 속 두오미는 누가 보아도 명백한 피해자이지만 끊임없는 자기합리화로 자신을 정당화 한다.

김형경과 린바이 모두 초기 창작에서는 가부장과 남권에 저항하지 않다가 각각 『세월』과 『한 여자의 전쟁』에 와서야 달라진 여성의 태도를 보여준다. 두 작가는 남권을 비판하고 분노를 표출하지만, 그 방식이 다르다. 김형경은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린바이는 자기합리화의 입장에서 성폭력을 바라본다. 그렇다고 해서 린바이의 소설 속 주인공이 김형경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보다 사상적으로 더 깨어있거나 자기공정을 통해 소위 여성주체가 되었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처럼 두 작가가 남권을 바라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택한 표현 방식 차이는 두 작가가 겪었던 1990년대에 한국과 중국의 사회 전반적 변화 양상이 달랐기 때문이다.

우선 김형경의 경우 그전 작품 『새들은 제 이름을 부르며 운다』에서 암울한 1980년대를 지낸 젊은이들의 절망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다 『세월』 속 주인공은 결국에는 과감히 한현규를 떠나 자신만의 삶을 살아간다. 이는 새로운 가치관이 요구되는 1990년대에 들어서자 작가는 이전 창작 경향에서 벗어나 여성의 사적인 경험을 묘사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남권을 향한 저항을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1980년대의 아픔을 다루던 김형경이 여성의 상

15) 위의 책.199쪽.

처에 주목하고 남성의 피해를 받은 여성의 입장에서 끊임없이 억울함과 분통을 호소함으로써 남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한편, 과감하게 돌아서는 뒷모습을 통해 모든 폭력적인 남권에 저항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보면, 김형경이 보여주었던 글쓰기의 변화는 절대적 부권의 억압적 정치체제를 향한 투쟁에서 남성 위주의 사회를 향한 문화정치를 비롯한 성정치로 변화하는 시대적 전환을 보여준다. 『세월』 그 여자는 어린 시절 부모님에게 버림받고 떠돌이 하숙생활을 하면서 등록금 걱정을 했던 기억 때문에 자본주의 돈의 중요성을 그 누구보다 뼈저리게 깨달았지만 그럼에도 계간지 정직원의 권유를 두 번이나 받고서도 글쓰기 위해 기간제 아르바이트를 고집한다. 이는 각종 물욕이 팽창하는 사회에서 세속에 길들여지지 않고 오로지 자기의 외길만을 걷고자 하는 작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저항이며, 나아가 자본주의에 물들여지지 않고자 하는 문학의 몸부림이기도 하다.

한 여자의 전쟁이란 한 손으로 자신의 뺨을 올려붙이고, 하나의 벽으로 스스로를 가로막는 것이며, 한 송이 꽃이 절로 피고 지는 것을 의미한다. 한 여자의 전쟁이란 한 여인이 자신을 스스로에게 시집보내는 것이다. 16)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한 여자의 전쟁은 다름 아닌 자신과 화해하는 일이다. 주인공 두오미의 전쟁은 남성을 비롯한 남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자신과의 전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린바이가 『한 여자의 전쟁』에서 두오미가 부당한 일을 겪고 상처를 받을 때마다 끊임없이 자기 합리화를 하는 모습 또한 작가가 겨냥하고 있는 화살이 다름 아닌 자신이었음을 알 수 있다.

소설 결말에서 두오미는 도피를 선택한다. 그녀는 상처 가득한 곳을 떠나 베이징으로 향한다. 베이징에서 한 노인을 만난 그녀는 사회적 시선도 아랑곳 하지 않고 그 노인과 결혼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어린 시절 애정 결핍을 겪은 그는 어른이 되어 창작 활동을 시작하지만 표절 문제로 크게 좌절한다. 그 이후 기만과 폭력으로 치러야만 했던 첫 경험에서 N감독으로부터 받은 상처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두오미는 한 번도 긍정적 경험을 하지 못했다. 결국 상처투성이가 된 그녀는 걱정과 사랑 모두 거리를 둔 채 자기만의 방식으로 새롭게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사회와 화해를 했다.

린바이의 경우 여성주인공에게 가해진 성폭력을 바라보는 태도가 김형경과 다르게 나타난다. 이러한 차이는 앞서 언급했던 주권정치에서 문화정치 또는 성정치로서의 전환을 가져온 한국과 달리 중국은 주로 경제적체제의 전환에 따른 전반적인 경제사회의 변화를 겪었기 때문이다. 자본의 유입에 급속한 산업화로 경제가 발전하면서 사회는 전반적으로 각종 욕망으로 도배되어 혼잡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사회에서 린바이가 보여주었던 글쓰기 변화는 경제체제와 사회체제의 불일치로 인해 혼란을 겪는 사회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작가는 자기만의 글쓰기 방식으로 남권을 바라보는 여성의 자기기만의 시선과 화해의 방식을 통해 급격한 자본주의 경제 발전으로 욕망이 팽창하는 남권 사회를 향한 냉소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김형경이 자기 내면을 되돌아보았다면 린바이는 남권 중심 사회에 비판의 목소리를 낸다. 다시 말해 세계적으로는 동구권이 무너지는 등 절대 권력의 해체와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했던 사회에서 김형경은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남권 사회를 비판한다. 린바이의 경우 사회주의 체제에도 불구하고 각종 자본주의 욕망이 주도하는 혼잡한 사회 상황

16) 위의 책, 290쪽.

속에서 자기 합리화라는 특유한 방식으로 남권을 받아들이고 타협하고자 했으나 결국 실패하고 만다. 그는 도피의 방식으로 자기와의 화해를 시도한다. 하지만 이러한 화해는 어디까지나 잠시의 도피일 뿐 사회적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방치된다. 다시 말해 린바이 소설 속 ‘노라’는 다시금 도피를 선택함으로써 초연한 마음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태도로 다시 한번 자기기만의 길에 들어선다. 이는 사회주의체제 구호를 외치면서 자본주의의 각종 욕망에 열광하는 혼잡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기기만과 같은 원리라고 할 수 있다.

## 5. 나가며

## 「1990년대 한·중 여성소설 비교 -김형경과 린바이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고유림(경희대학교)

이 연구는 1990년대 한국과 중국의 여성서사에 주목하여 김형경의 『세월』(1995)과 린바이(林白)의 『한 여자의 전쟁(一个人的战争)』(1993)을 분석대상으로 삼아 두 작가의 글쓰기 양상을 살피고 있습니다. 90년대 한·중 문학장 안에서 자전적 글쓰기를 수행한 두 작가가 남권을 바라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택한 표현 방식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두 작가가 겪었던 1990년대 한국과 중국의 사회 전반적 변화 양상이 다름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두 작가의 위치의 차이 즉 브라이언 도티의 논의에서처럼 ‘위치의 정치학’은 자기비판의 한 형태(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방식 vs 도피의 방식으로 자기와의 화해 시도)로 우리 자신과 세계에 대한 우리의 현재의 위치, 진실, 담론들의 한계를 다시 보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이러한 비교 연구는 비교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비교의 틀을 정하고 서로 다른 언어권을 교차해서 넘나드는 지점이 흥미로웠고 많은 공부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발표문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점을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 발표자께서는 1990년대 한국과 중국의 여성서사에 주목하여 김형경의 『세월』과 린바이(林白)의 『한 여자의 전쟁(一个人的战争)』을 분석대상으로 삼아 두 작가의 글쓰기 양상을 비교하셨는데요. 두 작품 모두 자전적 소설이고, 1990년대가 두 작가의 창작 경향에 변화가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두 작가의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비교 이유를 찾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기존 연구에서도 신경숙의 『외딴방』과 린바이의 동일 작품을 비교 대상으로 선정한 연구나 동일 작품을 가지고 한·중 자전적 여성소설을 비교한 연구들이 있는데요.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이 무엇인지 보충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 ‘1990년대 한·중 여성소설 비교-김형경과 린바이를 중심으로’ 라는 제목은 여성소설의 무엇을 비교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단어가 없어 모호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각 장의 소제목을 구체화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령 ‘김형경 『세월』에 드러난 변화 양상’을 ‘권력을 바라보는 여성의 시선 변화’로 함의하는 바를 소제목 안에 덧붙여 반영한다면 의미의 전달을 좀더 명확히 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4장에서 ‘김형경과 린바이의 위치의 차이’를 분석하면서 ‘노라’의 이야기를 차용하여 전제로 삼고 있습니다. 여전히 노라가 남겨놓은 과제는 1990년대 한·중 여성 작가들이 고민해야 할 문제이며 이 과제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결국 두 작가가 남권을 바라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택한 표현 방식이 차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두 작가의 글쓰기 방식이 변화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에 대한 설명을 보충해서 듣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로지 브라이도티’ 논의와 같은 이론적 보충이 필요해 보입니다.

4. 이 연구의 분석 대상이 되는 린바이(林白)의 『한 여자의 전쟁(一个人的战争)』 번역본(문학동네, 2001) 이외에 1994년 《화성(花城)》 제2호에 처음 발표된 단행본과 2011년에 중국청년출판사(中国青年出版社)에서 출판된 책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있다면 발표자께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요?

5. 마지막으로 향후 한·중 비교 연구나 한·중(중국조선족) 비교 연구가 어떠한 방향으로 이어졌으면 하는지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토론자의 부족한 식견으로 오독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 발표

시간	일정 및 발표주제		사회 및 발표/토론	
15:40-16:15	기획 발표  305호	한국 내 한중현대문학 비교연구의 현황과 과제	발표 이선이(경희대) 토론 조하연(아주대)	이은희 (한성대)
16:15-16:50		중국에서의 한국철학 연구 현황과 미래 전망	발표 신현승*(중국 정강산대) 토론 김 준*(일본 동아대)	

\*=Zoom 참여





# 한국 내 한중현대문학 비교연구의 현황과 과제

이선이(경희대학교)

## 1. 서론

이 글은 한중수교 이후 한국 내에서 진행된 한중현대문학 비교연구의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중간의 비교문학 분야 교류 증진 및 학문적 발전 방향성을 모색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여기에서는 한중수교를 맺은 1992년 이후부터 2022년 11월 현재까지 한중현대문학 비교연구에 해당하는 학위논문, 학술지 논문, 단행본을 분석대상으로 삼아 이 분야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학위논문의 경우, 이 분야 석사학위논문은 대략 200건에 이르는 상당한 편수의 논문이 발표되었고, 학술적인 가치도 논문마다 편차가 적지 않아서 분석대상에서 제외하고, 대략 80여 편으로 확인되는 박사학위 논문만을 분석대상으로 다루고자 한다. 또한 학술지 논문의 경우에도 분석 대상이 될 수 있는 학술지 종수가 적지 않고<sup>1)</sup> 수록 논문을 일일이 검토하는 작업이 수월하지 않아서, 수교 이후 한중문학 비교연구와 문학 연구자 교류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한중인문학연구』에 수록된 논문 1200여 편<sup>2)</sup>을 분석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단행본의 경우, 한중수교와 맞물려 국내 학계에 제기된 동아시아담론의 영향으로 한중비교의 관점이 투영된 연구가 상당량 축적되어 왔다. 이를 모두 살피기에는 지면과 시간적 제약이 있으므로 여기서는 이들 저술 가운데 한중현대문학을 비교대상으로 비교문학적 시각이 분명하게 드러난 경우를 분석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물론 이렇게 범주를 한정한다고 해도 한중작가간의 교류 사나 영향사로 시각을 확대해 보면, 문학과 사상이 결합되는 경우가 많아 선명하게 범주화를 피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한중현대문학에 대한 비교를 제목에서 어느 정도 담아내고 있는 단행본을 대상으로 연구동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비교문학의 범위를 광의로 잡았을 때 포함될 수 있는 번역연구나 상호문화인식 관련 연구도 여기서는 제외하고자 한다. 이 범주는 문사철뿐만 아니라 사회과학 전반이 포함될 수 있고, 해당 분야로만도 독립된 논문이 가능할 정도로 분석대상이 방대하기 때문에 또 다른 연구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한국과 중국의 현대문학 분야에 속하는 작가와 작품 비교, 작품의 주제와 모티브 비교, 문학사와 문학사조 비교, 문학 관련 담론 비교 등을 중심으로 영향연구와 평행연구를<sup>3)</sup>

1) 한중현대문학 비교연구 관련 논문이 게재 가능한 학술지는 대략적인 추정만으로도 백여 종에 이른다.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정보에 따르면 인문학 분야의 하위 범주인 ‘한국어와문학’에 속하는 학술지는 97종, ‘중국어와문학’ 분야에 속하는 학술지는 23종이다. 또한 ‘기타인문학’에 속한 학술지가 106종이며 이 밖에도 ‘문학’ 14종을 포함하면 240종이 되는데, 이 가운데 어학과 고전문학 전문 학술지를 제외해 보면 이 분야 관련 논문을 발표할 수 있는 학술지가 백여 종에 이른다.

2) 『한중인문학연구』는 제1집이 발간된 1996년 12월부터 2002년 제8집까지는 제호가 『中韓人文科學研究』로 발간되었으며, 발행기관도 ‘中韓人文科學研究會’(한글 표기 : 한중인문과학연구회)였다. 제9집부터 학술지명은 『한중인문학연구』로, 학회명은 한중인문학회로 개칭되었다. 제1집과 제3집에는 한편의 논문을 한국어본과 중국어본을 함께 수록했으며, 연구논문과 발표논문은 나누어 수록하는 경우도 있어서 정확하게 한 편의 논문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3) 일반적으로 비교문학의 연구방법은 비교대상 간의 직접적인 영향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영향연구와 직접적 영향은 없지만 비교대상 간의 동이(同異)를 살피는 평행연구로 나눈다. 이를 토대로 중국학

포함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그 동안 국내에서 한중현대문학 비교연구 분야 연구동향에 대한 검토는 조재훈(1994)<sup>4)</sup>, 박재우(2002)<sup>5)</sup>, 김수진(2007)<sup>6)</sup>, 이해영(2014)<sup>7)</sup>, 남연(2018)<sup>8)</sup> 등을 통해 진행되어 왔다. 이 가운데 이해영과 남연의 연구는 중국에서의 연구동향을 검토하고 있어서 국내 동향 파악을 위한 중요한 참조항은 될 수 있지만 국내 동향 파악에 있어서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기는 어렵다. 한중현대문학 비교연구사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박재우(2002)의 연구가 거의 유일하고도 본격적이다. 그에 따르면, 한중문학 비교연구에 대한 사적 검토는 1987년에 정규복이 발표한 「한중문학비교의 연구사」<sup>9)</sup>부터 시도되었지만 현대문학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그는 이 글에서 한중현대문학 비교연구가 1960년대와 70년대를 거치면서 개척되기 시작했으며 1980년대에 확산되었고 1990년대에 와서

---

자 왕상위안(王向遠)은 시각을 보다 정교화하고 있어 주목된다. 그는 영향연구를 둘로 나누어 사실적인 영향관계를 ‘진과연구법’으로, 정신적인 영향관계를 ‘영향분석법’으로 세분화하였다. 또한 그는 평행연구법을 둘로 구분하여 실질적인 영향관계가 없는 문학간 비교에서 발견되는 보편성과 특수성을 포착하는 ‘평행관통법’과 문학 외적 시각으로 문학간 비교를 수행하는 ‘초문학 연구’로 나누었다. 이론의 정교화를 꾀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지만, 실제적인 연구과정에서는 하나의 연구에도 여러 방법이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류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영향연구와 평행연구의 기준으로 구분하고자 한다.(왕상위안, 문대일 역, 『비교문학의 열쇠』, 한국학술정보(주), 2011, 참조)

- 4) 조재훈은 한중고전문학 비교연구의 성과에 비해 한중현대문학 비교연구는 매우 저조한 실정이라고 보면서, 1990년대 초반까지의 연구성과로는 양계초와 구한말 문학의 관련성(葉乾坤(대만 학자), 『梁啓超와 구한말 문학』, 법전출판사, 1980)을 다룬 연구, 이육사의 서지마 시 수용 양상(심원섭, 「이육사의 서지마시 수용양상」, 『원본 이육사 전집』, 집문당, 1986) 등을 꼽을 수 있으며 한중 초기 新詩에 대한 비교(허세욱, 「한·중 초기 新詩 연구」, 『중국현대시연구』, 명문당, 1992)가 본격적인 비교연구의 출발이라고 보았다. 또한 그는 1945년에서 1990년까지 한중현대문학 비교연구를 『國內中國語文研究論著目錄』(서경호 편, 정일출판사, 1991)에서 검토한 결과 13편 정도가 근대 이후의 문학을 대상으로 비교연구가 진행되었다고 보면서, 비교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 논문은 한중근대문학 비교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한중근대문학의 배경을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고 실제적인 비교연구가 진행되는 3장과 4장을 담은 논문은 발표되지 못했다. (「한·중 근대문학의 비교연구·1」, 『한국언어문화교육(舊, 웅진어문학)』, 제2권,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1994, pp.177-197.)
- 5) 하지만 최초로 한중현대문학 비교연구에 대한 사적 개괄을 시도한 박재우의 연구는 2001년까지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국내에서 본격화된 연구동향을 파악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앞선 감이 없지 않다. 하지만 이 연구는 한중현대문학 비교연구의 총체적 역사와 현황을 정리하고자 연구 주체를 한국현대문학계와 중국현대문학계, 중국조선족 한국(조선)문학계와 중국한족 중국현대문학계로 나누고 이들의 연구 성과를 비교문학과 상호교류연구로 구분하여 살핌으로써 최초로 본격적이고 종합적인 연구사 검토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충분하다.(박재우, 「韓·中 現代文學 比較研究의 歷史와 現況 및 課題」, 『중국현대문학』, 제22호,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2002, pp.437-476.)
- 6) 김수진은 한국의 중국현대문학 분야에서 십년 동안 제출된 연구성과를 분석하면서 소략하게나마 한중현대문학 분야의 비교연구 성과를 언급하고 있다.(「近十年中国现代文学在韩国的研究现况」, 『인문과학연구』, 제25권, 성신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7, pp.145-157.)
- 7) 이해영은 논문 발표 시기를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제출된 단행본, 박사학위논문, 학술지 게재논문을 중심으로 중국 내 한중비교문학 연구동향을 살폈다. 여기서 논자는 중국 한중현대문학 비교연구서 가운데 작품비교에서 주목할 만한 연구로는 金春仙의 『中朝韓現當代小說比較研究』(民族出版社, 2012)를, 한중문인 간의 교류에 집중한 연구로는 金哲의 『20世紀上半期中韓現代文學關係研究』(山東大學出版社, 2013)를 꼽고 있다.(「중국내 한중비교문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중인문학연구』, 제44집, 한중인문학회 2014, pp.47-68.)
- 8) 남연은 중국내 한국현대문학 연구동향 전반을 살피는 가운데 개화기부터 1990년대 이후까지 시기별로 비교문학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중국에서의 한국 현대문학 연구 현황 분석 및 향후 방향 설정」, 『문학교육학』, 제61호, 한국문학교육학회, 2018, pp.91-139.)
- 9) 정규복, 「한중문학 비교 연구」, 고려대학교 출판부, 1987.(『한국문학과 중국문학』, 국학자료원, 2001, 재수록)

야 양적 성장과 질적 발전을 시도했다고 평가한다.<sup>10)</sup> 한국과 중국의 연구동향을 아우르는 폭넓은 시각을 보여준 이 연구는, 전반적인 이 분야 연구동향을 파악하는 데에는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가 진행된 지 20여년의 시간이 지났고 그동안 국내로 유입된 중국인 유학생의 수가 확대됨에 따라 이 분야의 전반적인 연구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실제로 중국 내에서의 연구동향은 이해영, 남연 등의 연구를 통해 어느 정도는 전모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지만 국내에서의 연구동향은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여기서는 한중수교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난 30년간 이 분야의 전반적 연구동향을 검토하고 향후 한중현대문학 비교연구의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2. 수교 이후 한중현대문학 비교연구의 동향 분석

### 2.1. 박사학위논문 분석

한중 비교문학 관련 학위논문 검색을 위해 교육부 산하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운영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 1992년부터 2022년 사이에 발표된 국내 박사학위 논문을 대상으로 검색을 진행했다. 현재 RISS에는 232개 대학<sup>11)12)</sup>의 학위논문이 제공되고 있다.(2022년 11월 현재) 한중 비교문학 관련 논문은 제목에 ‘비교연구’가 명시되는 경우가 다수이고, 주제어로 ‘한중’, ‘중한’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순차적으로 검색하였다. 첫째, 상세검색에서 ‘논문명’에 ‘비교연구’로 검색된 결과 4011건을 직접 확인하여 한중문학의 비교연구에 해당하는 논문을 선별하였다. 둘째, 예를 들어 「한중작가의 민족의식 연구」의 경우 논문명에 ‘비교연구’ 혹은 ‘비교’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지만 한중문학의 비교연구에 해당하므로, 논문명에 ‘한중’을 검색어로 입력한 검색결과 190건과 ‘중한’을 입력한 검색결과 18건 가운데 문학을 분석대상으로 하는 논문을 선별하였다. 셋째, 논문명과 주제어에 각각 ‘한국과 중국’과 ‘비교’를 입력한 검색결과 288건과 논문명과 주제어에 각각 ‘비교’와 ‘한국과 중국’을 입력한 검색결과 660건 중 한중현대문학 비교연구에 해당하는 논문을 선별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과 ‘중’ 사이에 쉼표나 가운뎃점이 찍힌 경우, 띄어쓰기 처리된 112건을 검토하였다.

또한 교차검토를 위해 국립중앙도서관 DB를 활용하여 1992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한국 문학으로 발표된 석박사 학위논문 21,972건(박사 4,029건, 석사 14,715건)을 결과 내 재검색 기능을 활용하여 검토하였다. ‘비교’를 제목(부분일치)으로 설정하여 검색한 결과 908건 가운데 한국어 논문에 해당하는 박사논문 161건, 석사논문 590건, 기타논문 2건을 대상으로 한중현대문학 비교연구를 선별하였다. 검색 결과 해당 기간에 한중현대문학 비교연구 분

10) 박재우, 「韓·中 現代文學 比較研究의 歷史와 現況 및 課題」, 『중국현대문학』, 제22호, 한국중국현대문학회, 2002, p.441.

11)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위논문 DB구축 현황(2022년 9월 30일 현재)  
: [http://etc.riss.kr/libn\\_ch/tlist/service\\_state\\_build.jsp](http://etc.riss.kr/libn_ch/tlist/service_state_build.jsp)(검색일 : 2022년 11월 10일)

12) 통계청(KOSIS)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0월 17일 현재, 국내대학 수는 190개, RISS통계에 따르면 2021년 국내 대학의 수는 217개이며 대학원대학의 수는 44개이다. 현재 제공하고 있는 학위 논문을 제공하는 대학이 232개교이므로 국내대학을 거의 망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사이트에는 민간DB인 교보문고(<http://scholar.dkyobobook.co.kr>), 누리미디어(<http://www.dbpia.com>), 학술교육원(<http://earticle.net>), 한국학술정보(<http://kiss.kstudy.com>)의 학술정보를 연계하여 제공하고 있어서 국내 최대의 학술정보DB를 구축 및 제공하고 있다.

야에서 제출된 박사학위논문이 78건,<sup>13)</sup> 석사학위논문이 195건이었다. 이를 전체 비교문학 논문에 견주어 보면, 한중현대문학 비교연구는 한국문학 분야 비교연구의 약 35.6%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박사논문은 44.7%를, 석사논문은 33%를 차지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산술적인 수치이기는 하지만 이 결과로 볼 때, 한중현대문학 비교연구 분야는 한국문학 연구 내 비교문학 분야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매우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중수교 이후 한중현대문학 비교연구 분야 박사학위 논문 목록	저자	수여기관	연도
1	蔡萬植과 老舍의 比較 研究	유려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2	한·중 사실주의 소설의 비교 연구 : 李箕永과 茅盾의 경우	김경선	부산대학교	1995
3	1920-30년대 한국과 중국 프로문학운동 비교 연구	이광재	충북대학교	2000
4	카프와 中國 左聯의 文藝 理論 및 作品에 관한 比較 研究	김경훈	한국교원대학교	2000
5	한·중 동화문학 비교연구	韓燕 (HanYan)	전남대학교	2002
6	동아시아 初期 近代小說의 民族主義 樣相 : 李光洙 · 夏目漱石 · 魯迅 小說 比較研究	노종상	고려대학교	2002
7	한·중 근대소설의 확립 과정 비교 연구 : 염상섭·현진건과 魯迅의 소설을 중심으로	김영옥	한국교원대학교	2003
8	한중 현대소설의 다성성 시학 연구 : 「三代」와 「圍城」의 비교 연구	김은진	원광대학교	2003
9	1930년대 한·중 가족사소설 비교 연구	최계화	전남대학교	2003
10	춘원과 투선에 관한 비교문학적 연구	권혁물	인하대학교	2003
11	한·중 소설의 여성형상 비교연구 : 1920~30년대 작품을 중심으로	신창순	성균관대학교	2004
12	「1930년대 한·중 모더니즘 소설 비교연구 : 이상·박태원과 무스잉(穆時英)·스저춘(施蛰存)을 중심으로	이명학	부산대학교	2005
13	동아시아 근대 문학사상의 비교 연구 : 夏目漱石, 魯迅, 金東里의 反近代性을 中心으로	황치복	고려대학교	2005
14	남북한 및 중국 조선족 역사소설 비교연구 : 『북간도』, 『두만강』, 『눈물 젖은 두만강』을 중심으로	서영빈	한남대학교	2006
15	한중 현·당대 문학교육 비교 연구	남연 (南燕, Nan Yan)	서울대학교	2006
16	韓中 "生態環境詩" 研究	梁軍 (LiangJun)	성균관대학교	2008
17	초창기 한·중 상징주의 시의 비교 연구 : 김억과 李金髮의 초기시를 중심으로	范偉利 (Fan, Weili)	서울대학교	2008
18	한·중 여성 성장소설 비교연구	오춘화 (吳春花, Wu Chun Hua),	국제문화대학원	2009
19	郁達夫와 廉想涉 小說의 비교 연구	이태복 (Li Tai Fu)	한양대학교	2009

13) 한중수교가 공식화된 1992년 8월 24일을 기준으로 보면 1992년 2월에 박사학위를 취득한 유려아의 학위는 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전체적인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므로 목록에 포함시켰다. 또한 해당 박사논문 목록을 검토하면서 DB 입력상의 오류로 검색에서 제외된 경우도 발견하였다. 이는 추후 보완이 필요한데, 이번 발표에서는 검색결과만을 놓고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20	위다푸와 현진건 소설의 비교연구	李新東	승실대학교	2009
21	염상섭과 빠진(巴金)의 가족사소설 비교 연구	후웨이 (胡薇, Hu, Wei)	서울대학교	2009
22	한국의 민중문학과 중국의 저층서사 비교 연구 : 황석영, 조세희, 羅衛章, 曹征路	苑英奕 (Yuan, Ying yi)	서울대학교	2009
23	韓國近代小說에 나타난 '타자 이미지' 研究 : 中國人 '形象'을 中心으로	김성욱 (金成旭)	한양대학교	2009
24	金光均과 何其芳 詩의 比較研究	嚴紅花 (Yan Hong Hua)	충남대학교	2010
25	한국 전후소설과 중국 신시기소설의 비교연구 : 황순원과 왕멍의 작품을 중심으로	이호 (李浩)	경희대학교	2011
26	韓·中 近代 抵抗詩 比較 研究	董佳 (Dong Jia)	충남대학교	2011
27	한·중 프로문학의 농민소설 비교 연구 : '카프'와 '左聯' 시기의 농민소설을 중심으로	김성희 (Jin Chengji)	서울대학교	2011
28	李箱과 翁鬧의 모더니즘 소설 비교연구	張秀蓉 (ChangHsiuYung)	한국학중앙연구원	2012
29	한·중 근대문학 형성기 최남선과 周作人의 역할 비교연구	조영욱	한국학중앙연구원	2012
30	金素月과 徐志摩의 詩文學 比較연구	姚委委 (Yao Wei Wei)	한국학중앙연구원	2012
31	강경애와 蕭紅의 소설 비교연구	徐珊珊 (Xu Shan Shan)	충남대학교	2012
32	한·중 여성 가족사소설 비교 연구 : 박완서의 『미망』 과 장계(張潔)의 『무자(無子)』 를 중심으로	리샤오웨이 (李曉微)	경희대학교	2013
33	한·중 근대소설의 질병서사 비교연구	文松花 (Wen songhwa)	충남대학교	2013
34	1980년대 한·중 여성주의 시 연구	팽경민	충남대학교	2014
35	1930년대 한·중 도시소설 비교연구	張蕾 (Zhang Lei)	충남대학교	2014
36	한국 프로희곡과 중국 좌익희곡의 비교연구	陳宇波 (ChenYubo)	한양대학교	2014
37	1930년대 한중(韓中) 여성 작가 소설 비교 연구 : 한국 동반자 작가와 좌익(左翼) 작가를 중심으로	고비 (高飛)	아주대학교	2014
38	만주국 시기 한·중 소설의 현실대응 연구 : 안수길과 양산정의 작품을 중심으로	왕가 (王珂)	공주대학교	2014
39	20世紀20年代中韓問題劇比較研究(중문-중어중문학)	리우커 (劉珂)	영남대학교	2014
40	한중 근대 번역문학의 비교 연구	송정자	한국학중앙연구원	2015
41	최정희와 장아이링의 소설에 나타난 여성의식 비교연구 : 여성 형상을 중심으로	김홍월 (金紅月, Jin Hong Yue)	서울시립대학교	2015
42	한·중 모더니즘 시 수용양상 비교연구 : 이미지즘과 초현실주의를 중심으로	이정우 (Li Jingyu)	건국대학교	2015
43	이광수와 주작인의 문학론 비교연구	李冬梅	인하대학교	2015
44	한·중·일 프롤레타리아 아동문학 연구	두전하 (婁全霞)	인하대학교	2015
45	일제말기 한국 국민문학과 타이완 황민문학 비교 연구 : 중단편소설을 중심으로	후이잉 (Liu Huiying)	서울대학교	2015
46	김수영과 베이다오의 참여의식 비교연구	이미옥	서울대학교	2016
47	동아시아 분단소설 비교연구	진효혜	경희대학교	2016

48	5·18소설과 문혁소설의 비교 연구 : 중·단편소설을 중심으로	Liu Yin	전남대학교	2016
49	한중 만주 체험 소설 비교 연구 : 안수길과 양산정의 작품을 중심으로	韓治路 (Han Zhilu)	가천대학교	2016
50	한·중 현대 성장소설 비교연구	季成 (JI Cheng)	한국학중앙연구원	2017
51	韓·中 희곡의 메타드라마 텍스트 전략 비교 연구 : <暗戀桃花源>(1986)과 <웰컴 투 동막골>(2002) 중심으로	費芳 (Fei Fang)	단국대학교	2017
52	1930년대 한·중 근대시의 '도시/고향' 모티프 비교 연구 : 한국 모더니즘과 중국 현대파 시인을 중심으로	朱曼曼 (ZhuManMan)	전남대학교	2017
53	1930년대 한·중 모더니즘 시 비교 연구 : 김광균과 卞之琳의 詩를 중심으로	趙萍 (Zhao Ping)	한남대학교	2017
54	한·중 현대 성장소설 비교 연구	유옥 (Yu Liu)	충남대학교	2017
55	박완서와 왕하이링 소설의 여성 의식 비교 연구	박미현	인하대학교	2017
56	최명익과 스저춘의 심리소설 비교 연구	Wang MingZhen	아주대학교	2017
57	한·중 문학의 근대 의식에 관한 연구 : 이광수와 루쉰을 중심으로	쉬싸이	대진대학교	2017
58	한·중 근대전환기 소설관의 형성과 구현 양상에 대한 비교 연구	孫波 (Sun Bo)	한남대학교	2018
59	이광수와 노신의 근대의식과 문학관에 대한 비교연구	송양 (Song Yang)	중부대학교	2018
60	박완서와 장제의 소설 비교 연구 : 여성 정체성의 형상화를 중심으로	逢文婷 (PangWenTing)	충남대학교	2018
61	한·중·일 프롤레타리아시 이데올로기 수용 과정 비교연구	민금숙	한양대학교	2018
62	素月詩와 朱湘詩의 비교 연구 : 시의 모티프를 중심으로	장문연	공주대학교	2018
63	김영랑과 쉬즈모 시 형상화 방식 비교 연구	감건 (Gan Jian)	조선대학교	2018
64	김동리와 선충원(沈從文) 소설의 샤머니즘 비교 연구	全成光 (Quan Cheng-guang)	서울대학교	2018
65	20세기 초 쥘 베른의 과학소설의 中译本과 韩译本 비교 연구 : 《海底旅行》과 《铁世界》를 중심으로	조숙려	승실대학교	2019
66	이광수(李光洙)와 선충원(沈從文) 소설의 유토피아 의식 비교 연구	Wang Xian (王嫻)	아주대학교	2019
67	한·중 소설에 나타난 한국전쟁의 형상화 양상과 의미 연구	서동	광운대학교	2019
68	염상섭과 바진(巴金) 문학의 비교연구	김성	인하대학교	2020
69	한국현대문학의 중국현대소설 수용사 연구 : 해방 이후부터 한중수교 이전 시기를 중심으로	엄진주	선문대학교	2020
70	왕쑤(王朔)와 최인호 문학의 청년 표상 연구	송향경 (Song XiangQing)	서울대학교	2020
71	한용운(韓龍雲)과 대망서(戴望舒) 시의 비교 연구	장위원(張瑜文, Zhang Yuwen)	청주대학교	2021
72	1920年代 韓·中 戲曲의 女性意識 比較研究	영명민(榮明敏, Rong Mingmi)	공주대학교	2021
73	한·중 현대 실험극의 비교 연구 : 이근삼과 馬中駿을 중심으로	왕심(王心, Wang Xin)	공주대학교	2021
74	한·중 상징주의 시론과 시 비교연구	배선미(裴仙美, Pei Xian Mei)	아주대학교	2021
75	장혁주와 대만 작가들의 소설 인물 비교 연구	조가유 (Tsa Chia Yu)	경북대학교	2022
76	한·중 자전적 고백소설 비교 연구 : 이광수와 郁達夫을 中心으로	千梅花	고려대학교	2022

	로			
77	한·중 『창조』 동인 문학 비교 연구	吳冰穎	한국학중앙연구원	2022
78	한중 소설에 나타난 이주담론 연구 : 「홍길동전」, 「水滸傳」, 「토지」, 「子夜」를 중심으로	Qu Hang	아주대학교	2022

이 시기에 발간된 박사학위논문을 저자 및 수여기관, 연도별 논문 발표 추세, 연구 분야, 주요 비교 대상작가 및 주제, 연구 시각 등을 중심으로 특징적인 면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자 및 수여기관의 분포를 보면 박사학위논문에서 한중현대문학을 대상으로 비교연구를 수행한 연구자의 90% 이상이 중국 유학생이며 한국인 연구자는 노종상, 황치복, 이미옥, 엄진주 정도로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비교연구 학위수여 기관은 총 30개교이며, 서울대와 충남대가 총 8편으로 가장 많은 박사를 배출했고 한국학중앙연구원이 7편으로 뒤를 잇고 있다. 나머지 14개교에서 5편에서 2편 가량의 박사를 배출하였다. 하지만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14개교가 지난 30년간 한중현대문학 비교연구 분야에서 단지 1편의 학위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는 사실로 볼 때, 한국에서 비교문학적 시각은 널리 수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연구 또한 본격화되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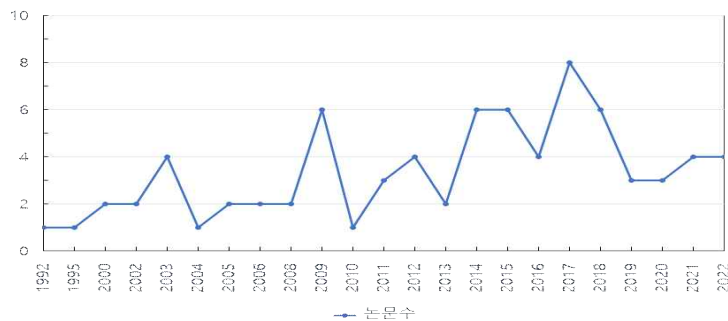
편수	8편	7편	5편	4편	3편	2편	1편
수여기관	서울대, 충남대	한국학중앙연구원	공주대, 아주대, 인하대	전남대, 한양대	경희대, 고려대, 전남대, 한남대	부산대, 성균관대, 숭실대, 한국교원대	가천대, 건국대, 경북대, 광운대, 국제문화대학원대, 단국대, 대진대, 서울시립대, 선문대, 영남대, 원광대, 중부대, 청주대, 충북대

둘째, 연도별 박사학위논문 발표 추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도	92	95	2000	02	03	04	05	06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논문수	1	1	2	2	4	1	2	2	2	6	1	3	4	2	6	6	4	8	6	3	3	4	4

수교 이후 약 십년간은 해당 분야 연구는 연구 빈도가 낮고 단속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

연도별 박사학위논문 발표 추세



다. 하지만 2002년 이후에는 지속성을 갖기 시작했으며, 양적인 면에서 보면 한 해 동안 여섯 편의 박사학위 논문이 발표된 2009년을 정점으로 상당히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양적인 면에서 지난 삼십년을 전반적으로 조망해 보면, 초기 십년간은 이 분야 비교

연구의 맹아기라 할 수 있고 2002년 이후 점진적인 확산기를 거쳐 최근 십년간은 상당한 양의 비교연구가 진행되면서 본격적인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1992년부터 2001년까지 4편이던 박사논문이 2002년부터 2011년에 이르면 23편으로 늘어났고 2012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는 50편에 이르고 있음은 이를 입증한다.

셋째, 비교연구를 장르별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장르	시	소설	극	아동문학	문학단체/ 사조	문학사	문학론/ 문학사상	수용사	문학교육
편수	15편	41편	5편	2편	3편	2편	6편	3편	1편

이 분야 비교연구에서 압도적으로 우위를 차지하는 장르는 소설 장르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 53% 정도를 차지한다. 다음으로는 시 장르가 약 19%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양국 작가의 문학론과 문학사상을 비교하는 논문이 6편, 문학단체나 사조에 대한 비교 및 외국문학 수용사 비교가 3편, 아동문학과 문학사 연구가 2편이 있고 그 밖에도 양국의 문학교육을 비교하는 논문이 1편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소설을 비교대상으로 삼는 쏠림 현상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희곡이나 아동문학, 문학사와 문학교육 대한 연구는 미미하게 수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경향은 국내 한국문학 연구 동향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넷째, 한중현대문학 비교연구 분야에서 주요 비교대상 작가나 주제는 어떠한지 살펴보자. 우선 한국작가 가운데 가장 많은 연구대상이 된 작가는 소설에서는 이광수, 염상섭, 박완서를 꼽을 수 있으며 안수길, 채만식, 이상, 박태원, 김동리 등이 뒤를 잇고 있다. 중국 작가로는 루쉰(魯迅), 바진(巴金), 위다푸(郁達夫), 스저춘(施鰲存)이며 선충원(沈從文), 저우쥘런(周作人), 장계(張潔), 량산딩(梁山丁)이 뒤를 잇는다. 주제에 있어서는 여성을 키워드로 삼은 논문이 8편으로 가장 우위를 점하고 있고, 다음으로 시와 소설에 있어서 모더니즘 양상 비교가 5편으로 뒤를 잇는다. 또한 양국의 근대의식에 대한 비교가 4편, 카프로 대표되는 프로문학, 성장소설, 가족사소설이 각각 3편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도시, 프롤레타리아 이데올로기를 비교하는 경우도 각각 2편의 논문으로 제출되었다. 가장 많은 편수가 제출된 여성을 키워드로 삼은 연구를 살펴보면 여성과 성장, 여성과 가족사, 여성과 프로문학이 결합되고 있으며, 여성주의 시각 자체를 초점화하는 경우에는 여성 형상화나 여성의식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또한 박사학위논문에서 한중작가를 일대일로 비교하는 경우가 총 37편으로 전체의 47%에 해당하며, 나머지는 연구주제에 맞는 여러 작가를 비교하고 있다.

여성을 키워드로 하는 학위논문 목록	
1	신창순, 「한·중 소설의 여성형상 비교연구 : 1920~30년대 작품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2	오춘화(吳春花, Wu Chun Hua), 「한·중 여성 성장소설 비교연구」, 국제문화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3	리샤오웨이(李曉微), 「한·중 여성 가족사소설 비교 연구 : 박완서의 『미망』 과 장계(張潔)의 『무자(無字)』 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4	팽경민, 「1980년대 한·중 여성주의 시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5	고비(高飛), 「1930년대 한중(韓中) 여성 작가 소설 비교 연구 : 한국 동반자 작가와 좌익(左翼) 작가를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6	김홍월(金紅月, Jin, Hong Yue), 「최정희와 장아이링의 소설에 나타난 여성의식 비교연구 : 여성형상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7	박미현, 「박완서와 왕하이링 소설의 여성의식 비교 연구」,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8	逢文婷(Pang WenTing), 「박완서와 장제의 소설 비교 연구 : 여성 정체성의 형상화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	---

마지막으로 연구 시각에 있어서 특징적인 면을 보이는 경우를 살펴보자. 먼저 남북한을 아우르면서 중국과의 비교를 시도한 경우로, 서영빈의 「남북한 및 중국 조선족 역사소설 비교 연구」에서는 남북한과 중국조선족 작가를 비교하고 있어 이채롭다. 그는 남한문학으로 안수길의 『북간도』, 북한문학으로 이기영의 『두만강』, 그리고 중국조선족 소설로 최홍일의 『눈물 젖은 두만강』을 비교함으로써 남북한문학과 중국조선족문학의 비교가능성을 열어젖히고 있다. 또한 진효혜의 「동아시아 분단소설 비교연구」에서는 남북한과 중국과 대만의 분단상황을 비교하는 시사성이 강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 흥미롭다. 중국과 함께 대만을 비교 대상으로 삼은 梁軍의 「韓中 ‘生態環境詩’ 研究」나 한국과 대만을 비교한 후이잉의 「일제말기 한국 국민문학과 타이완 황민문학 비교 연구」, 조가유의 「장혁주와 대만 작가들의 소설 인물 비교 연구」는 대만문학을 비교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일정한 의미를 갖는다. 한중수교가 대만과의 학술적인 관심을 현격하게 저하시킨 상황에서 미미하지만 이러한 연구는 향후 확장시켜야 할 연구시각이 아닐 수 없다. 한중비교문학은 한국과 중화인민공화국뿐만 아니라 중화민국을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특히 그러하다.<sup>14)</sup> 또한 한·중·일을 포괄하는 시각이 5편의 논문으로 제출되었는데, 삼국의 현대문학에 나타난 민족주의와 근대사상 비교와 프롤레타리아문학 비교가 이들 논문에서 주제가 되었다. 이들 연구는 서구중심주의에 대한 비판과 탈식민주의적 관점이 강조되지만, 이를 동아시아 내부에 대한 비판으로 심화시키는 과제를 남겨주기도 한다. 이 외에도 Qu Hang의 「한중 소설에 나타난 이주담론 연구 : 「홍길동전」, 「水滸傳」, 「토지」, 「子夜」를 중심으로」에서는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을 동시에 다루고 있어서 흥미롭다. 이러한 시각은 학문적 영토주의를 벗어나 자유로운 비교연구의 가능성을 탐색하게 하고 자극한다는 점에서 일정한 의미를 갖는다.

한·중·일 문학을 포괄하는 학위논문 목록	
1	노종상, 「동아시아 初期 近代小說의 民族主義 樣相 : 李光洙·夏目漱石·魯迅 小說 比較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2	황치복, 「동아시아 근대 문학사상의 비교 연구 : 夏目漱石, 魯迅, 金東里의 反近代性을 中心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3	진효혜, 「동아시아 분단소설 비교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4	두전하(Dou Quan Xia), 「한·중·일 프롤레타리아 아동문학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2015
5	민금숙, 「한·중·일 프롤레타리아시 이데올로기 수용 과정 비교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 2.2. 『한중인문학연구』 게재 논문 분석

1996년 12월부터 발행된 『한중인문학연구』는 2022년 11월 현재 76집까지 발행되었다. 그

14) 송현호는 「한중인문학 30년 회고와 전망」이라는 글에서 한중인문학은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을 아우르는 개념임을 강조하면서, 중국과 대만 사이의 갈등과 한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갈등으로 인해 중화권(中華圈)이라는 개념이 요청되기도 한다는 점을 조심스럽게 예견한 바 있다. (「한중인문학 30년 회고와 전망」, 『한중인문학연구』, 제70집, 한중인문학회, 2021, p.24)

동안 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총 1200여 편이며, 이 가운데 한중현대문학 비교연구 관련 논문은 37편으로 확인되었다. 총 게재 논문의 약 3%에 해당하는 매우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관련 논문을 목록화하기 위해 제1집에서 제76집까지에 수록된 1200여 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한중현대문학을 비교하는 논문을 직접 확인하여 선별하였다. 학위논문이나 단행본과 달리 『한중인문학연구』에는 ‘비교’를 제목에서 내세우지 않는 경우가 많고, 중국어로 된 논문도 있어서 검색기능을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한중인문학연구』 1집부터 76집까지 전체가 제공되는 (주)학술교육원의 검색서비스인 ‘eArticle’에서 『한중인문학연구』에 게재된 한중현대문학 비교연구 관련 논문을 권별로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중인문학연구』 게재 한중현대문학 비교연구 논문 목록		저자	국적/민족	연도	통권
1	郁達夫와 金東仁의 小說 比較研究	송현호	한국	1996	1
2	<레디 메이드 인생> 과 <趙子曰> 의 比較研究	유려아	대만	1996	1
3	中韓現代小說與戰爭의 悲劇(발표논문) <sup>15)</sup>	송현호 유려아	한국 대만	1996	1
4	關於魯迅與憑虛의 短篇小說 : <고향>을 중심으로	송현호	한국	1998	3
5	魯迅과 金東仁 小說에 나타난 風俗에 대한 研究	송현호	한국	2000	4
6	李光洙와 魯迅의 成長小說 比較 : 유형비교를 중심으로	한명환	한국	2000	4
7	루쉰(魯迅)과 김유정(金裕貞)	유인순	한국	2000	4
8	한중소설에 나타난 여성의 정체성	유인순	한국	2001	7
9	신체화와 양계초의 ‘소설개혁론’ 비교 연구	이은애	한국	2002	9
10	사회축도로서의 봉건대가정과 신세대의 삶의 대응양상 : 廉想涉의 <三代>와 巴金の <家>의 比較	김성옥	중국조선족	2003	10
11	사회적 동란과 문학적 대응 : 중한 현대소설의 비교연구	우림걸 (牛林杰)	중국한족	2003	10
12	1920년대 한·중 작가의 기독교 인식 비교 연구	최재선	한국	2004	12
13	루쉰과 이광수의 소설에 나타난 인습 비판 연구 : <고향>과 <소년의 비애>를 중심으로	최병우	한국	2005	15
14	이광수의 <이순신>과 나관중의 <삼국지연의> 대비 연구	한승옥	한국	2005	16
15	이념의 대립과 동족상잔의 비극 : 하근찬의 <야호>와 古華의 <芙蓉鎮>의 비교연구	박은숙	중국조선족	2007	20
16	남·북한과 중국 조선족의 한국 전쟁시 비교	윤의섭	한국	2007	21
17	李陸史與魯迅詩歌藝術思想之比較(중국어)	저대경 (褚大慶)	중국한족	2008	25
18	‘고향’의 상징성과 리얼리티의 예술적 형상화 : 현진건과 魯迅의 단편소설 <고향> 비교 연구	김성희	중국조선족	2009	26
19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과 노사의 <낙타상자> 비교 연구	장춘매	중국조선족	2009	28
20	민족성과 이념, 그리고 문학 : 김학철과 老舍의 경우	임향란 이상렬	중국조선족 중국조선족	2010	29
21	노신과 김학철 문학 비교 : 노예성 탐구를 중심으로	김홍매	중국조선족	2011	32
22	<탁류>와 <낙타상자>의 심리표현법의 비교 연구	장춘매	중국조선족	2012	35
23	胡适与20世纪上半期现代韩国文坛(중국어)	김철 왕가혜	중국조선족 중국한족	2013	38
24	安壽吉의 <北郷譜>와 梁山丁의 <綠色의 谷>의 比較研究 : 人物形象 中心으로	박은숙	중국조선족	2013	41
25	한중 소설의 유랑노동자에 대한 비교연구 : 황석영과 유경방의 작품을 중심으로	이호욱	중국조선족	2013	41
26	주요섭의 「인력거꾼」 과 옥달부의 「薄奠」 비교연구	최유학	중국조선족	2014	43

27	중국내 한중비교문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이혜영	중국조선족	2014	44
28	한·중 모더니즘 시문학 발전 양상 비교 연구 : 발전기와 성숙기를 중심으로	엄홍화	중국조선족	2014	45
29	최명익과 스저춘의 심리소설 비교 연구 : 상징적 이미지와 심리 변화 과정을 중심으로	왕명진	중국한족	2014	45
30	조정래의 <아리랑>과 莫言의 <紅高粱家族>에 나타난 탈식민지적 크로노토프 비교 연구	최영자	한국	2016	51
31	주요섭의 <인력거꾼>의 인물형상과 작가의식 연구 - 郁达夫의 <薄奠>과의 비교를 통하여 -	윤기미	중국조선족	2016	52
32	<소나기>와 <산사나무 아래>에 나타난 '사랑'의 정서 표현 비교 연구 : 언어 표현과 감정의 흐름을 중심으로	조수진	한국	2017	54
33	한·중 근대시에 나타난 고향과 어머니의 의미관계 비교 연구	주만만	중국한족	2017	54
34	안수길의 <토성>과 고정(古丁)의 <막리(莫里)>에 나타난 아편	장춘매	중국조선족	2017	57
35	影响与接受: 朴殷植 「安重根传」 与中国近现代文学的安重根叙事(중국어)	탕진(汤振)	중국한족	2020	66
36	상호문화 감수성 계발을 위한 문학 비교 연구 : 김숨의 『한 명』과 연거령(嚴歌苓)의 『진딩의 13소녀(金陵十三釵)』를 중심으로	박소영·최단	한국·중국조선족	2021	73
37	김수영과 뉴한(牛漢) 시의 '저항성' 비교 : '자유'와 '불온'을 중심으로	김민정	한국	2022	75

해당 논문에서 연구자 분포, 연간 논문 게재 추이, 주요 비교대상 작가군 및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자 분포와 연간 논문 게재 추이를 살펴보면 수교 이후의 전반적 연구동향을 엿볼 수 있다. 연구자 분포를 살펴보면 한국 연구자가 게재한 논문이 14편, 중국 연구자가 20편, 대만 연구자가 1편이며, 이 가운데 중국조선족 연구자는 15편의 논문을 발표했고 6편은 중국한족 연구자의 논문이다. 또한 공동연구로 게재된 논문은 총 4편으로 이 중 한국 연구자와 대만 연구자의 공동연구, 중국조선족 연구자 간의 공동연구, 한국과 중국조선족 연구자의 공동연구, 중국조선족 연구자와 중국한족 연구자의 공동연구가 각각 1편으로 확인된다. 한국 연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38%, 중국 연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54%, 공동연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10%이다. 중국한족 연구자의 논문이 약 16%이고 중국조선족 연구자의 논문은 약 38%로, 한중현대문학 비교연구가 주로 중국조선족 연구자들에 의해 주도되었던 시기에서 점차 한국 연구자와 중국한족 연구자로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16)</sup>

그 동안 한중문학에 대한 비교문학적 시각에서 『한중인문학연구』에 가장 많은 논문을 수록한 한국 연구자는 4편을 발표한 송현호이며 유인순이 2편을 발표하여 뒤를 잇고 있다. 중국 연구자로는 조선족 연구자인 장춘매가 3편, 박은숙이 2편을, 대만 출신 연구자인 유려아가

15) 앞서도 언급했듯이, 제1집과 제3집에는 한편의 논문을 한국어본과 중국어본을 함께 수록하는 경우도 있고, 연구논문과 발표논문을 나누어 수록하고 있어서 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발표논문이다.

16) 최병우는 '한중인문학회 창립 20주년 회고와 한중 인문학 연구의 전망'을 모색하는 자리에서 한중인문학의 발전적인 방향의 하나로 한중문학의 비교문학적 연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또한 이 분야 연구가 조선족학자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중국 한족연구자들과 공동연구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역설한 바 있다.(『한중인문학연구』로 본 한중 인문학 연구사)(『한중인문학연구』, 제54집, 2017, p.39)

각각 2편을 게재하였다. 하지만 송현호의 뒤를 이을 만한 비교연구자가 아직 눈에 띄지 않고 있으며, 연구 시각의 확장도 주요 과제라 할 수 있다.

연간 발표 논문수의 추이를 보면 한중인문학회가 창립된 1996년부터 1999년까지는 단속적으로 발표되던 이 분야 논문이 2000년부터는 2006년과 2015년을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게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의미하게 증가 추세를 보인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둘째, 비교대상으로 삼고 있는 작가와 작품을 살펴보면 소설이 압도적인 우위를 드러낸다. 비교대상 작품을 장르로 나누면 소설이 29편, 시가 5편, 문학론 및 수용사 2편이다. 소설이 전체의 약 78%를 차지하고 있고, 시가 약 14%, 문학론 및 수용사가 5%를 차지한다. 이러한 결과는 박사학위논문에 비해 학술지 논문에서는 소설 쪽 쏠림현상이 더 큼함을 말해준다. 한국작가 가운데 비교대상으로 빈도수가 가장 높은 작가는 이광수와 현진건으로 각각 3편의 논문에서 비교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채만식과 주요섭이 각각 2편으로 뒤를 잇고 있으며 김동인, 김유정, 나혜석 등 근대작가뿐만 아니라 조정래, 황석영, 김숨에 이르기까지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는 작가들이 포함되면서 다양한 작가들이 비교대상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의 경우, 이육사, 오장환, 김수영이 비교대상이 되었고 극의 경우에는 연구논문이 전무하다는 것도 문제적인 현실이라 하겠다.

한중현대문학 비교연구의 비교대상 작가	
<p>&lt;한국작가&gt; 신채호, 박은식, 이광수, 현진건, 김동인, 김유정, 나혜석, 주요섭, 전영택, 채만식, 염상섭, 최명익, 김동리, 하근찬, 안수길, 황순원, 조정래, 황석영, 김숨, 이육사, 오장환, 김수영</p>	<p>&lt;중국작가&gt; 량치차오(梁啓超), 루쉰(魯迅), 후스(胡適), 위다프(郁達夫), 라오서(老舍), 쉬디산(許地山), 바진(巴金), 량산딩(梁山丁), 구화(古華), 구딩(古丁), 세빙신(謝冰心), 스저춘(施蛰存), 류칭방(劉慶邦), 모옌(莫言), 옌거링(嚴歌苓), 아이칭(艾青), 뉴한(牛漢), 아이미(艾米), 김학철</p>

중국작가 중에서 가장 많은 비교대상이 된 작가는 루쉰(魯迅)이다. 루쉰은 8편의 논문에서 비교대상이 되고 있다. 다음으로는 라오서(老舍)가 4편 위다프(郁達夫)가 3편으로 뒤를 잇고 있다.<sup>17)</sup> 그 밖에도 근대작가인 쉬디산(許地山), 바진(巴金), 량산딩(梁山丁)에서부터 류칭방(劉慶邦), 모옌(莫言) 등 당대작가가 포함되어 있다. 시인으로는 아이칭(艾青), 뉴한(牛漢)이 비교대상이 되었다. 중국작가 중에 눈에 띄는 작가는 중국계 미국작가인 옌거링(嚴歌苓), 아이미(艾米)이다. 비교문학이 국제주의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연구들은 연구시각을 확대에 일조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대표적인 중국조선족 작가인 김학철도 중국작가 루쉰과 라오서와 비교되고 있다. 또한, 가장 많은 비교대상이 된 작품은 루쉰의 단편소설 「고향」이며, 고향, 풍속, 성장, 인습 비판, 문학정신, 노예성 등의 주제가 어떻게 다루는지를 비교하고 있다.

루쉰(魯迅)을 비교대상으로 삼은 논문 목록	
1	關於魯迅與憑虛的短篇小說 : <고향>을 중심으로

17) 전형준은 1980년대에서 1990년대에 진행된 중문학계의 한중현대문학 비교연구를 조망하면서 루쉰이 가장 많은 비교의 대상이 되었고 위다프와 라오서도 선호된다고 하였다. 이를 참고해 보면 한중현대문학 비교연구에서 비교대상이 되는 중국작가는 현재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전형준, 「중문학 : 현대문학」, 『한국의 학술연구 : 중문학·영문학』, 대한민국학술원, 2001, pp.151-153, 참조)

2	魯迅과 金東仁 小說에 나타난 風俗에 대한 研究
3	李光洙와 魯迅의 成長小說 比較 : 유형비교를 중심으로
4	루쉰(魯迅)과 김유정(金裕貞)
5	루쉰과 이광수의 소설에 나타난 인습 비판 연구 : <고향>과 <소년의 비애>를 중심으로
6	李陸史與魯迅詩歌藝術思想之比較(중국어)
7	'고향'의 상징성과 리얼리티의 예술적 형상화 : 현진건과 魯迅의 단편소설 <고향> 비교 연구
8	노신과 김학철 문학 비교 : 노예성 탐구를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에 수록된 한중현대문학 비교연구로 한국 내 이 분야 연구의 동향을 전반적으로 진단하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특정작가에 한정된 연구나 주제에 있어서도 제한적인 현상은 향후 극복과제라 할 것이다.

### 2.3. 단행본 분석

단행본 검색은 한국학술정보원(KERIS)에서 운영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자료형태를 단행본으로 설정하고, 발행연도를 1992부터 2022년으로 설정한 후 검색을 진행하였다. RISS에서는 첫째, 서명 '비교문학' 검색 결과 220건 중에 '한중'을 결과 내 검색하여 13건 중 현대문학만을 대상으로 선별하였다. 둘째, 서명에 '비교'와 주제어에 '비교문학'을 입력하여 검색된 68건 가운데 한중현대문학 비교연구에 해당하는 단행본을 선별하였다. 셋째, 서명에 '비교'와 주제어에 '한중'을 입력하여 검색했을 때 검색되는 29건 중 선별했으며, 서명 '한국과 중국', 주제어 '비교문학'으로 검색한 결과 7건 중 선별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자료유형을 도서로 지정하고 첫째, 제목(부분일치)에 '비교'를 입, 키워드에 '한중'을 입력하여 검색된 44건 중에 선별하였다. 둘째, 제목(부분일치)에 '한중', 키워드에 '문학'을 입력하고 검색한 84건 중에 선별하였다. 셋째는 키워드 '문학비교'와 '한중'을 입력하여 검색한 결과인 314건과 442건 중에 선별하였다. 넷째는 제목과 키워드에 각각 '한중'을 입력한 검색 결과 중 문학 분야에 해당되는 435건과 26건을 검토하여 선별하였다. 두 개의 검색어를 입력한 경우는 모두 동시충족으로 설정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저서가 한중현대문학 비교연구를 내용으로 발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명	저자	출판사	연도	비고
1	『한국과 중국 현대소설의 비교 연구』	유려아 (劉麗雅)	국학자료원	1995	대만
2	『비교문학론』	송현호 유려아	국학자료원	1999	한국 대만
3	『(한국프로문학과의 비교를 통해 본)日帝時期 臺灣左翼文學 研究』	증천부 (曾天富)	세종출판사	2000	대만
4	『한·중 현대소설 비교연구』	김경선	신성출판사	2002	중국조선족
5	『한중일 근대문학사의 반성과 모색』	김상태 외	푸른사상사	2003	한국
6	『위만주국시기 조선인문학과 중국인문학의 비교연구』	김장선 (金長善)	역락	2004	중국조선족
7	『한·중 동화문학 비교연구』	한연 (韓燕)	한국학술정보	2005	중국조선족
8	『한·중 모더니즘 소설 비교연구』	이명학 (李明學)	한국학술정보	2006	중국조선족

9	『춘원과 루쉰에 관한 비교문학적 연구』	권혁률 (權赫律)	역락	2007	중국조선족
10	『아동문학비교연구』	김만석 (金萬石)	시와사람	2009	중국조선족
11	만주문학 연구	김장선 (金長善)	역락	2009	중국조선족
12	『가족사소설과 근대성 : 1930년대 한·중 가족사소설 비교 연구』	최계화 (崔桂花)	한국학술정보	2010	중국조선족
13	『한중 현·당대 문학교육 비교 연구』	남연 (南燕)	태학사	2010	중국한족
14	『한국 전후소설과 중국 신시기소설의 비교 연구 : 황순원과 왕명(王蒙)의 작품을 중심으로』	이호 (李浩)	국학자료원	2011	중국한족
15	『한중 현대문학 비교연구』	박남용	학교방	2012	한국
16	『동아시아의 자국학과 자국문학사 인식』	류준필	소명출판	2013	한국
17	『교류와 소통의 동아시아 : 한중 문학의 만남과 동양적 가치』	이화인문과학원 류유	이화여자대학교 학교출판원	2013	한국
18	『한국문학과 한중문학 비교』	윤윤진 (尹允鎭)	역락	2014	중국조선족
19	『한국 근대문학의 비교문학적 연구』	김성욱 (金成旭)	박이정	2014	중국조선족
20	『근대 한중 교류의 기원 : 문학과 사상 그리고 학문의 교섭』	홍석표	이화여자대학교 학교출판부	2015	한국
21	『한국의 민중문학과 중국의 저층문학 비교 연구 : 이문구, 황석영, 조세희, 이에, 유경방, 조정로의 소설을 중심으로』	이호옥 (李胡玉)	하나로에드컴	2015	중국조선족
22	『한·중 모더니즘 시문학 비교연구』	엄홍화 (嚴紅花)	심지	2015	중국조선족
23	『한국 근대문학과 중국』	김재용 이혜영 류유	소명출판	2016	한국 중국조선족
24	『한국의 민중문학과 중국의 저층서사 비교 연구』	원영혁 (苑英奭)	박문사	2016	중국한족
25	『한·중 근대 소설 비교 연구 : 안수길과 양산정의 현실인식을 중심으로』	왕가 (王珂)	한국문화사	2016	중국한족
26	『동아시아 공존을 위한 상상 : 뤼쉰과 근대 한국』	홍석표	이화여자대학교 학교출판문화원	2017	한국
27	『1930년대 한·중 모더니즘 시의 근대성 비교연구』	조평 (趙萍)	박문사	2018	중국한족 (추정)
28	『한국과 중국의 문학적 공간과 의미 : 한국학으로서 한·중 소설 다시 읽기』	전영의	역락	2019	한국
29	『한·중·일 프롤레타리아 아동문학』	두전하 (窦全霞)	소명출판	2019	중국한족
30	『이광수와 저우쥘런의 근대문학론 : 민족·문학·진화』	리동메이 (李冬梅)	소명출판	2020	중국한족

31	『金素月과 朱湘 시 비교연구』	장원취안 (张文娟)	한국문화사	2021	중국한족
32	『한·중 한국전쟁 소설의 인물형상화 비교연구』	서동 (徐桐)	보고사	2021	중국한족
33	『한중 문학의 대화』	홍석표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한국
34	『이데올로기의 대립과 인간의 존재 : 한국 황순원과 중국 왕명 소설을 중심으로』	이호 (李浩)	케이리스크스	2022	중국한족

수교 이후에 발간된 단행본을 저자, 시기별 추이, 내용 등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저자는 한국, 중국조선족, 중국한족, 대만의 연구자로 나누어지는데,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발행 건수를 보이는 것은 중국 연구자로 조선족 연구자가 12권, 한족 연구자가 10권의 단행본을 출간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한국 연구자가 8권을 대만 연구자는 2권의 단행본을 출간했다. 이 밖에도 한국과 중국조선족 연구자, 한국과 대만 연구자가 공저로 2권의 단행본을 출간했다. 이전 시기인 1980년대까지는 주로 국내에서는 한국 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연구가 진행되었고, 중국에서 조선족 학자들이 한중문학 비교에 관심이 확대되었다면, 수교 이후에는 점차적으로 중국조선족과 중국한족 연구자들이 국내에서 단행본을 출간하는 빈도수가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이를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까지는 대만 국적의 연구자가 공동 집필을 포함하여 총 3권의 단행본을 간행해 한중현대문학 비교연구를 주도했다면, 2000년대 초반부터 2015년까지는 중국조선족 학자들의 연구서가 다수 출간되면서 이 분야 연구를 주도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2016년부터는 중국한족 연구자들의 단행본이 대거 출간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변화는 한중수교로 인해 한국과 대만의 관계가 다소 소원해졌고 중국 유학생들의 국내로의 유입이 늘어나면서 중국조선족 연구자들이 대학의 학위과정을 거쳐 박사학위를 취득했는데 이러한 환경변화가 중국조선족 연구자들의 단행본 출간으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2010년에 출간된 『한·중 현대대 문학교육 비교 연구』를 제외하면 중국한족 연구자들의 단행본 출간은 주로 2016년 이후부터 활발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초기에 조선족 유학생이 중심이 되던 시기에서 한족으로 유학생 민족 구성이 확대된 변화과정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현상은 점차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금까지 대만과 중국의 해외 연구자들이 국내에서 출간한 한중현대문학 비교연구 관련 연구서는 연변대에서 수학한 윤윤진, 김장선, 김만석과 중앙민족대에서 수학한 이호옥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국 유학 경험을 가진 연구자들이다. 또한 국내 유학 경험을 가진 연구자들이 출간한 단행본은 대만 출신의 증천부의 저술을 제외하고는 모두 박사학위논문을 출간한 것으로 파악된다. 박사학위논문 출간 사례 가운데 이례적인 예는 이호옥의 경우로, 중국 중앙민족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이를 국내에서 출판하였다. 또한 김장선, 유려아, 이호를 제외하고는 1권 이상을 출간한 경우가 없다는 점에서 지속성을 갖고 비교연구를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2010년대 이후부터 저서 출간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저자들을 중심으로 향후 한중비교문학 분야에서 더 많은 연구서를 출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 성과를 보여준 한국 연구자로는 중국문학을 전공하는 홍석표로, 수교 이후 한중비교문학 관련 세 권의 단행본을 출간하면서 지속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고 있다.<sup>18)</sup> 그를 제외하고 나면 한국 연구자 역시 단발성 연구에 그치고 있어서

아직은 한국현대문학 연구자가 비교문학적 시각으로 이 분야에서 본격적인 연구를 수행하지는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저자의 국적	한국	중국조선족	중국한족	대만	공저
발행 권수	8권	12권	10권	2권	2권

발행 시기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 이후
발행 권수	2권	9권	18권	5권

내용면에서 볼 때, 단행본의 성격상 다양한 논의가 한권 안에 공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주된 장르나 주제를 선명하게 구분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소설 비교가 압도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 비교(7권)와 동화 비교(3권)가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이 밖에도 문학사 인식과 기술방식을 비교하는 연구(2권)나 근대문학의 담론 비교(1권), 문학단체 비교(1권), 문학교육 비교(1권), 중국학계에서 비교문학 형상학이라고 부르는 타자형상에 대한 연구(1권) 등이 수행되었다. 수교 이후 대만문학에 대한 관심이 매우 저조한 상황에서 한국과 대만을 비교하면서 일체강점기 대만의 좌익문학을 연구한 단행본이 출간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시기 동아시아를 하나의 지역단위로 보고 한·중·일을 하나의 지평에서 인식하며 횡단적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한중일 근대문학사의 반성과 모색』, 『동아시아의 자국학과 자국문학사 인식』, 『교류와 소통의 동아시아 : 한중문학의 만남과 동양적 가치』, 『한·중·일 프롤레타리아 아동문학』 등에서 이런 흐름을 살필 수 있다. 한·중·일을 동시적으로 사유하려는 태도는 한중수교와 맞물리면서 부상한 동아시아담론의 영향이 적지 않게 작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시기의 연구 성과는 이러한 논의가 작품과 작가연구에 농익게 녹아들었다기보다는 대체로 삼국의 실상을 한자리에 앉히는 수준에 머무르는 한계를 보인다. 이러한 한계는 한중현대문학 비교 연구 전반이 갖는 문제이기도 한데, 실제 연구에서 한중문학의 직간접적 영향관계를 규명하는 작업을 제외하면 깊이 있는 비교문학적 논의를 진행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 밖에도 『동아시아 문학사 비교론』(조동일, 서울대학교출판부, 1993), 『동아시아문학 기본구도(1·2)』(김채수, 박이정, 1995), 『발견으로서의 동아시아』(전형준, 문학과지성사, 2000) 등에서 한중일 현대문학간의 비교문학적 연구 가능성을 부분적으로 탐색하고 있으며, 본격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많은 문학연구서에서 한중문학의 상호교류에 주목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18) 한중수교 이전의 연구동향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핀 박재우의 연구에 따르면, 1970년대에는 중문학계에서는 한무희, 허세욱이 집중적인 비교연구를 수행했으며 국문학계에서는 1980년대에 접어들어 간헐적으로 진행되던 연구가 성현자와 송현호가 박사학위 논문에서 부분적이지만 한중문학 비교를 시도하면서 본격적인 비교문학연구를 예고했다고 한다. 1990년대 이후 유려아, 송현호가 본격적으로 한중현대문학을 비교하는 논문을 발표했으며, 중문학계에서 김시준, 박재우, 유중하 등 십여 명이 넘는 연구자들이 한두 편의 비교문학 관련 논문을 발표하면서 이 분야 연구가 확대되었다고 한다.(박재우, 「韓·中 現代文學 比較研究의 歷史와 現況 및 課題」, 『중국현대문학』, 제22호, 한국중국현대문학회, 2002, pp.441-448, 참조)



### 3. 비교의 희망을 찾아서

한중수교 이후 지난 30년간은 한중간의 문학적 소통과 접촉을 확대해온 과정이었다. 수교 이후 상호문화이해를 위한 문학적 통로였던 비교문학적 연구는 체제의 이질성과 역사적 대립으로 인해 소통과 접촉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지난 시기의 단절감을 허물고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소중한 장이 되어 왔다. 하지만 사드배치, 역사갈등 등을 통해 촉발된 한중간의 갈등고조는 한국 내 반중정서 형성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러한 갈등상황에서 인문정신이 개입해야 할 학문적 실천 방향은, 사태의 근저에 놓여있는 근본적인 질문들을 담론화하면서 국제주의와 비교를 통한 사유의 심화를 강화하는 길이 될 것이다. 강고한 국가주의와 민족주의, 이와 무관할 수 없는 사회의 반민주성과 식민주의에 대한 비판은 일국적 시각으로 극복되기에는 어려움이 적지 않다. 여기서 잠시 비교문학자 찰스 번하이머가 말한 비교문학의 존재의의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는 「비교의 불안감」이라는 글에서 “비교문학의 목소리는 “집의 부재(unhomeliness)”의 특징을 가지며, 타자성으로 인한 일종의 정신적 고통 같은 ‘빼앗김’ 또는 ‘몰수(沒收, dispossession)’의 바로 그 특성이 비교문학 목소리의 위대한 힘”<sup>19)</sup>이라고 역설했다. 동아시아 전역의 강고한 국가주의와 민족주의가 대두되는 시점에서 한중현대문학 비교연구가 개입할 학문적 실천의 장은 이런 점에서 필요하고도 또 충분하다고 하겠다. 한중현대문학 비교연구가 과거의 영향관계를 복원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는 지점으로 나가야 한다는 문제의식은<sup>20)</sup> 한중수교 30주년을 맞는 이 순간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는 결국 비교의 공간을 어떻게 확장해 나갈 것인가라는 질문과 맞닿아 있다. 비교문학의 국제주의적 시각은 단순히 양국문학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하거나 문학의 보편성을 확인하는 수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비교의 과정에서 얻게 되는 상호문화이해의 심화나 문학의 보편성에 대한 인식 또한 소중한 의미를 갖지만, 비교의 희망은 일국적 시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새로운 인식들을 발견하고, 이 발견의 과정에서 연대의식을 확보하는 지적 실천의 장을 확보하는 데 있을 것이다. 한중비교문학 연구는 이런 맥락에서 대화적인 관계맺기를 보다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문학연구의 화두가 되고 있는 환경이나 여성과 같은 지구적 의제뿐만 아니라 국가주의, 민족주의, 자본주의, 식민주의의 제문제들을 비교의 지평 위에 놓고 대화적 사유의 공간을 만드는 작업은 다가올 삼십 년에 우리가 수행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및 사이트>

##### 1. 참고문헌

김수진, 「近十年中国现代文学在韩国的研究现况」, 『인문과학연구』, 제25권, 성신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7, pp.145-157.

남연, 「중국에서의 한국 현대문학 연구 현황 분석 및 향후 방향 설정」, 『문학교육학』, 제61

19) 찰스 번하이머 외, 이형진 외 역 『다문화주의 시대의 비교문학』, 푸른사상, 2022, p.36.

20) 필자는 한중 문학 연구 교류가 고정된 역사와 문화를 찾아나가는 실체론적 관점을 넘어서서 새로운 관계형성을 창안해 나가는 관계론적 관점을 견지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줄고, 「한중 문학 연구 교류의 현황과 과제」, 『한중인문학연구』, 한중인문학회, 제44집, 2014, p.27.)

- 호, 한국문학교육학회, 2018, pp.91-139.
- 박재우, 「韓·中 現代文學 比較研究의 歷史와 現況 및 課題」, 『중국현대문학』, 제22호, 한국중국현대문학회, 2002, pp.437-476.
- 송현호, 「한중인문학 30년 회고와 전망」, 『한중인문학연구』, 제70집, 한중인문학회, 2021, pp.1-27.
- 이선이, 「한중 문학 연구 교류의 현황과 과제」, 『한중인문학연구』, 한중인문학회, 제44집, 2014, pp.25-46.
- 이해영, 「중국내 한중비교문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중인문학연구』, 제44집, 한중인문학회 2014, pp.47-68.
- 전형준, 「중문학 : 현대문학」, 『한국의 학술연구 : 중문학·영문학』, 대한민국학술원, 2001.
- 정규복, 『한국문학과 중국문학』, 국학자료원, 2001.
- 조재훈, 「한·중 근대문학의 비교연구·1」, 『한국언어문화교육(구, 웅진어문)』, 제2권,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1994, pp.177-197.
- 최병우, 「『한중인문학연구』로 본 한중 인문학 연구사」, 『한중인문학연구』, 제54집, 2017, pp.29-44.

## 2. 참고 사이트

학술교육원(eArticle) : [www.earticle.net](http://www.earticle.net)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 : <http://www.riss.kr/index.do>

국립중앙도서관 : <https://www.nl.go.kr>

이선이 선생님의 「한중문학 비교연구의 경향과 전망」에 대한 토론문

조하연(아주대학교)

< 별지 참조 >

## 중국에서의 한국철학 연구 현황과 미래 전망

-퇴계학과 율곡학 연구를 중심으로-

신현승(중국 정강산대), 이엔시(강원대)

목차

1. 들어가는 말
  2. 한국철학 연구 현황과 연구기관
    - 1) 한국학과 한국철학의 연구 현황
    - 2) 한국철학 연구기관 및 대표 학자
  3. 중국의 한국유학 연구 현황
    - 1) 퇴계학 연구의 시작과 현황
    - 2) 율곡학 연구의 시작과 현황
  4. 나오는 말
- 참고문헌

### 1. 들어가는 말

1992년 한중 양국은 마침내 그동안의 대립과 불통을 뒤로 한 채, 역사적인 국교 수교를 이루어냈다. 이 한중수교로 인해 정치, 경제적인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와 문화 및 학술교류의 차원에서도 획기적인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각 방면에서의 교류는 지속적인 발전 추세를 이어오고 있다. 즉 이 한중수교를 계기로 하여 한국과 중국 양쪽에게 정치외교상의 실리뿐만 아니라, 양국 간의 경제교류 및 문화교류 협력의 전면적 확대를 기반으로 하여 학문분야에서도 그 교류의 양상을 다채롭게 하였다.

그 학문분야에서의 다채로운 교류 가운데 출판서적의 자유로운 유통과 더불어 빈번히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에서의 학술강연과 발표를 통하여 학자들 및 학술기관 사이의 밀접한 학술 네트워크 구축을 촉진시켰고, 대학과 연구소 등을 주축으로 활발한 교류를 진행시켰다. 또 이와 같은 시대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내에서는 다양한 학문 분과별로 중국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그 반대편인 중국에서도 한국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학문분야에서도 ‘한국학’에 대

한 연구의 싹이 트기 시작하였다.

한중수교 30주년을 맞는 금년도의 시점에서 뒤돌아보면, 중국 내에서의 한국학에 대한 학술적 관심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그 구체적 사례는 중국 전역의 수십여 개 대학에서 실시되고 있는 한국어 교육일 것이다. 또 한국어과와 한국학연구센터(韓國學研究中心) 등의 명칭으로 각 대학에 설치된 한국학 연구기관이 다수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황이다. 이들 연구기관에서는 인문학적 영역은 물론이고, 한국의 정치와 경제 및 한중관계 등 사회과학 전반의 영역을 망라하는 연구를 지향하고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 인문학적 영역 가운데 한국문학과 어학이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역사학이 그 뒤를 따르고 있는 실정이고 한국철학 연구 분야에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다른 한편으로 아쉬운 점은 최근 들어서는 한국학에 대한 연구가 사회과학(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쪽으로 무게중심을 이동하고 있는 것도 주의의 사실이다. 더불어 최근 3년여 동안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은 각국 간의 자유로운 교류를 가로막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고, 이에 따라 인문학 학술교류 분야에서도 연구 분위기를 퇴화시키는 역설적 상황을 초래하였다. 중국에서의 한국철학(주로 한국유학) 연구도 한중 사이의 직접적인 학술교류가 힘들어진 탓인지 이전보다도 더 활기를 잃어버린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 논고에서 살펴볼 중국 내에서의 한국철학 연구 현황<sup>1)</sup>은 아직도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것은 한국 내에서의 철학에 대한 무관심 및 홀대 등과 일맥상통하는 측면도 있으며, 중국 내에서의 한국학 위상 속에 아직도 한국철학 및 한국유학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도 될 것이다.

따라서 이 논고에서는 중국 내에서의 한국철학 관련 연구 현황, 즉 한국철학을 대표하는 한국유학의 연구 현황 및 발전 과정을 탐색하면서 필자의 현재적 진단을 가미하게 될 것이다. 더불어 본문의 전반부에서는 한국철학 전반에 걸친 연구 현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볼 것이고, 그 후반부에서는 한국철학 가운데 주류라 할 수 있는 한국유학, 즉 퇴계학과 율곡학의 연구 현황을 기존의 연구성과에 기초하여 대략적으로 재검토하고 그 발전 과정을 의론해 볼 것이다.

## 2. 한국철학 연구 현황과 연구기관

### 1) 한국학과 한국철학의 연구 현황

주지하듯이 중국에서의 한국학 연구자는 대개 한국어와 한국문학에 한정되어 있다. 대개 중

---

1) 이 분야의 최신 연구 성과로서 중국 복단대학 형려국(邢丽菊) 교수의 논문 「中国学界的韩国哲学研究：现状、问题及未来课题」(『김준엽선생과 중국: 한국의 중국학, 중국의 한국학 국제학술 세미나 발표집』,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12)가 있다. 이 논문은 현재 중국 내에서의 한국학 연구 현황, 그 가운데 한국철학에 관한 연구 현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필자의 이 미완성 논고도 이에 촉발된 바가 크고, 이것은 2012년 6월 5일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가 김준엽 선생 서거 1주년 기념을 맞이하여 국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는데, 그 때 발표된 논문이다.

국에서 한국학이라고 하면 한국어와 한국문학을 염두에 둔 개념으로 사용된다. 최근 한류의 붐을 타고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도 높지만, 그것이 학문적 영역에서 한국학 연구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다. 현재 중국에서 한국어과가 설치된 대학을 살펴보면 한중 수교 이전부터 한국어과를 설치한 대학은 북경대학(1946년), 대외경제무역대학(1952년), 낙양외국어대학(1953년), 연변대학(1950년), 중앙민족대학(1972년), 북경제2외국어대학(1973년)의 여섯 대학 정도였다. 이들 대학에서 양성해낸 자원들은 대부분 정부의 수요에 의하여 정부 각 기관에 배치되어 활동을 해 왔다. 그리고 교육도 정부가 요구하는 언어 중심의 교육이었다. 그러나 한중 수교(1992)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양상이 많이 달라졌다. 북경외국어대학, 북경문화언어대학, 상해복단대학, 상해외국어대학, 산둥대학, 산둥사범대학, 청도대학, 청도해양대학, 연태대학 외국어학원, 천진외국어대학, 대련외국어대학, 요녕대학, 길림대학, 연변대학 조한문학원, 장춘광기대학, 연변과학기술학원, 흑룡강대학, 위해대학 등 근 20개 대학이 앞 다투어 한국어학과를 개설하였다. 물론 그만큼의 수요가 뒤따랐다는 이야기다. 전문대학까지 합치면 30개 교를 훨씬 상회한다.<sup>2)</sup> 그러나 이들 대학의 한국어과 교과과정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대학들이 한국어 언어교육에만 중점을 두고 있으며, 철학과 역사학을 포함한 순수 인문학 방면 및 사회과학의 교과과정은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학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학과 편제는 아니다. 단순한 한국어 습득 및 한국어 자격시험에 치중한 나머지,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한국 이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향후 한국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한국학의 체계적 보급 및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중국의 대학 한국어과에서 한국학의 시야를 넓혀주는 교육방법의 개선도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내 한국철학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도 괄목할 만한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1992년 한중수교 이전에 중국 학계에서 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공백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싱리쥬(邢丽菊) 교수는 중국 내 한국철학 연구 단계를 다음과 같이 4단계로 나누고 있다. “1단계는 1957-1977년의 침체기, 2단계는 1978-1991년의 맹아기, 3단계는 1992-20세기말의 발단기, 4단계는 21세기 진입 후의 발전기”<sup>3)</sup>라는 것이다. 사실 2단계인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대 초반까지의 시기에 한국철학 가운데 퇴계학에 대한 연구와 3단계인 1990년대 후반에 『한국철학사』(북경대학 한국학연구센터)의 출간이 이루어지는 등 한국철학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가 진행되었다. 가령 이 시기를 시작으로 하여 중국에서의 한국유학 연구분야에서는 중국 학자들이 몇 부의 저작을 출판한다. 대표적인 저작을 살펴보면 주칠성(朱七星) 등의 『朝鮮哲學思想史』(연변인민출판사, 1989), 장립문(张立文)의 『李退溪思想研究』(동방출판사, 1997), 이소평(李尙平)의 『韩国儒学史』(인민출판사, 2009), 형리국(邢丽菊)의 『韩国儒学思想史』(인민출판사, 2015), 강일천(姜日天)의 『朝鮮朝后期北学派实学思想研究』(민족출판사, 1999) 등이 있다.<sup>4)</sup> 하지만 이러한 연구성과는 학술적으로 새롭거나 심도 있는 저작물은 아니다. 한국에서 기존에 출판된 한국유학의 연구성과를 새로운 방법론의 제시 없이 개괄적으로 기술한 한국유학 개설서에 다름 아니었다. 그렇더라도 초보적으로 한국유학사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는 점에서는 학술적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사실 이러한 한국철학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21세기에 접어든 뒤의 중국 내 일련의 학술적

2) 소재영, 「중국에서의 한국학 연구」, 『국학연구론총』 제3집, 태민국학연구원, 2009, 9~10쪽.  
 3) 邢丽菊, 「中国学界的韩国哲学研究：现状、问题及未来课题」, 『김준엽선생과 중국: 한국의 중국학, 중국의 한국학 국제학술 세미나 발표집』, 고려대학교 아시아문제연구소, 2012.  
 4) 金香花, 「韩国儒学在汉字文化圈中的呈现与解释—以中日退溪学研究为中心的考察—」, 『한국철학논집』 제58집, 한국철학사연구회, 2018, 13~14쪽.

환경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 즉 21세기에 들어선 후 중국 내의 ‘국학열(國學熱)’의 상승 기운 및 정부의 유학에 대한 고도의 관심에 동반하여 사람들은 중국 국학(國學)이 해외에서의 발전 상황을 새롭게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한국유학(韓國儒學)이 중국유학(中國儒學)의 해외에서의 성공·발전의 우수한 사례로서 인식되었고, 이에 중국 국내의 유학 연구자들의 시야에 한국유학이 신속하게 포착되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자국 중국의 전통문화와 사상이 주변국으로 전파되어 발전되었다는 자부심과 함께 그러한 문제의식이 전제되어 있었다. 즉 문화전파의 주체자로서의 자부심 및 중화민족의 훌륭한 사상과 문화가 주변국에 영향을 끼쳤다는 학문의 뿌리이자 원류로서의 자부심이라는 의식의 일환으로서 자국인 중국을 중심에 두고 주변국인 한국의 학문을 연구하기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 중국 국내 학계에서는 이에 대한 관심이 점차적으로 고조되어 갔고, 한국 철학에 관한 구체적 연구성과가 일정 정도의 발전을 이루게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한국 철학이라는 학문분야 자체의 태생적 조건 및 중국 국내 연구자의 부족 등으로 인해 현재 중국의 한국철학 연구는 비록 양적으로 많이 발전되었다고는 하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 아직까지도 고조기에 접어들지는 못하였다.

## 2) 한국철학 연구기관 및 대표 학자

현재 중국 내 ‘한국학’ 주요 연구기관은 다수의 대학에 한국학 관련 연구소가 설치되어 인문학과 사회과학 전반을 아우르며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나, 그 연구의 핵심 분야라는 키워드를 생각해 볼 때 ‘한국철학’은 변방의 학문 정도로 취급받고 있는 것이 작금의 실정이다. 중국 내 대표적 한국학 연구기관<sup>5)</sup>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북경대학 조선역사문화연구소, 복단대학 한국연구중심, 절강대학 한국연구소, 연변대학 조선-한국연구중심, 연변대학 중·조·한·일 문화비교 연구중심, 중국인민대학 한국연구중심, 중국사회과학원 문헌정보중심 『당대한국』 편집부, 중국사회과학원 아시아태평양연구소 조선반도문제연구중심, 중국사회과학원 한국연구중심, 중국조선사연구회, 중한문화관계연구회(북경외국어대 부설), 동북사범대학 조선-한국연구중심, 산둥대학 한국연구중심, 길림성 사회과학원 조선-한국연구소, 길림성 조선문학연구회, 요녕대학 한국연구중심 등이다. 그리고 이외에도 한국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인 연구중심 또는 연구소가 중국 전역의 각 대학에 많이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중국 내에서 전문적으로 한국철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소속되었거나 혹은 최소한 한국철학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연구기관을 손꼽으면 그다지 많지 않다. 중국 내 한국철학의 대표적 연구기관은 다음과 같다. 연변대학 외국철학과(산하기관 동양철학연구소가 있음), 북경대학 철학과, 중국인민대학 철학과, 중국사회과학원 동양철학연구실, 복단대학 한국연구중심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한국철학, 즉 한국유학을 연구한 학자들의 면면을 보면 가장 이른 시기를 대표하는 학자는 역시 한국철학 전공이 아닌 원래 중국철학 연구자인 장립문(張立文), 진래(陳來), 가순선(賈順先) 등이고, 이들은 중국에서의 본격적인 한국유학 연구의 서막을 열었다. 또 한국 정부는 중국에서의 한국학 진흥을 목표로 정책적으로 중국의 주요 유학 연구자들을 한국유학 연구로 끌어들이려는 노력과 장려를 추진한 결과, 중국철학 연구자들에게 한국철학에 대한 관심과 시각을 신속하게 넓혀주었다. 이후 중국에서는 비전공의 한국철학 연구자들, 즉 대개 중국철학 연구자들이지만, 이들 학자군의 유학 연구는 점차 한국유학 문제에 대한 관심과 연구로 이어졌다.

5) 李燕, 「20세기말 이래 中國의 退溪學 연구 특색」, 『退溪學論叢』 第34輯, 퇴계학부산연구원, 2019, 88쪽.

이들 비전공자들은 한 두편의 한국철학 논문을 발표하였고, 한국철학은 서서히 중국철학 연구자들의 시야 속으로 들어갔다. 이를 계기로 한국철학은 전면적으로 유가철학에서 결코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연구분야가 되었다. 특히 주목해 볼 점은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에서는 한국유학 연구의 새로운 동력이 싹을 틔우고 있다. 중국 학술 데이터베이스 지망(知网, CNKI)의 검색 자료에 근거해 보면 한국학 박사, 석사논문의 수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사실 외국학 연구는 그 지역의 언어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 때문에 중국의 한국유학 연구는 철학과 소속 연구자에게만 국한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연변대학 조한문학원(朝漢文學院) 산하의 조선어, 조선어언문학, 응용 한국어 전공의 일부 학생들이 한국유학 관련 연구논문을 학위논문으로 제출하고 있기도 하다. 이는 금후에도 중국의 한국유학 연구자들에게 한국유학 관련 자료수집에 적지 않은 도움을 주리라 판단된다.<sup>6)</sup> 덧붙이면 위의 CNKI에서 검색된 한국유학 가운데 퇴계학과 관련된 연구 논문은 410편이 넘는데, 율곡 이이(1536-1584)와 다산 정약용(1762-1836)과 관련된 논문은 그것의 1/4정도이다. 하지만 이 400여 편의 논문 중에는 완전히 퇴계학을 주제로 연구된 성과는 169편이고, 나머지 것들은 다른 주제를 연구할 때 퇴계가 포함된 것일 뿐이다.<sup>7)</sup> 이렇게 볼 때 중국의 한국유학 연구 가운데 퇴계학 연구가 그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 1980년대 한국유학이 중국에서 연구되기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40여 년 동안 중국에서의 한국유학에 대한 연구성과는 양적으로 상당히 팽창했지만, 연구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아직도 많은 제약 하에 놓여있다. 그것은 한국철학을 전문적으로 전공한 연구자가 매우 적다는 것이며 이에 따라 연구성과의 질적 수준도 담보하기 어렵다고 해야 될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은 와중에서도 중국에서의 한국철학 연구자들의 면면을 보면 연령별로 노(老), 중(中), 청(靑) 3대(三代)로 구성되어 있다. 60세를 넘은 노학자는 주로 주칠성(朱七星), 장립문(張立文), 루우열(樓宇烈), 이소평(李甦平), 강일천(姜日天) 등의 연구자가 있고, 중년 학자는 주로 위상해(魏常海), 장민(張敏), 반창화(潘暢和), 방호범(方浩范) 등의 연구자가 있고, 청년 학자는 주로 홍군(洪軍)과 형려국(邢麗菊)이 대표적이다. 이들 외에도 장품단(張品端), 양주재(楊柱才), 방욱동(方旭東), 이홍군(李紅軍) 등의 연구자가 비교적 활발히 활동하는 학자군이다. 다만, 이들 대부분의 경우 원래부터 한국철학, 즉 한국유학을 전공한 연구자들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가운데 형려국(邢麗菊)은 일찍부터 성균관대에서 한국철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중국 복단대학(復旦大學)으로 돌아가 활발하게 한국철학 전반에 걸친 연구를 하고 있는 신진학자로서 주목해 볼 만하다. 형려국은 그동안 『남당/외암 인물성동이론의 비교연구』(신성출판사, 2009년 8월), 『선진유가의 생태윤리사상연구』(신성출판사, 2010년 11월), 「조선시대 人物性同異論爭의 理論적 연원 및 哲學적 差異」(『哲學研究』, 2008년 第11期), 「조선시대의 未發論辨과 理論적 차이」(『哲學研究』, 2011년 第1期), 「경학을 통해 본 다산의 심성론」(『孔子研究』, 2006년 第6期), 「한국유학의 특성에 대하여」(『中國哲學史』, 2007년 第4期) 등 많은 연구성과를 남기고 있다. 하지만 이들 연구성과는 한국 학계의 연구성과를 답습한 것 일뿐, 새로운 연구 방법론의 제시 혹은 새로운 독창적 관점에서의 연구성과는 아니다. 즉 기존 한국 학계에서 철옹성 같은 관례로 자리 잡은 심성론, 이기론, 관념론 등의 연구 방법론을 그대로

6) 金香花, 「韩国儒学在汉字文化圈中的呈现与解释—以中日退溪学研究为中心的考察—」, 『한국철학논집』 제58집, 한국철학사연구회, 2018, 14~15쪽.

7) 지준호, 「중국에서의 율곡 사상 연구의 현황과 전망」, 『한국철학논집』 제18집, 한국철학사연구회, 2006, 166~168쪽.



채용하고 모방한 연구성과라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의 다양성, 창의성 등 질적 수준을 담보한다는 것은 아직도 요원하다.

주요 연구 영역을 보면 현재 중국 학계에서 한국철학에 대한 연구는 주로 한국의 유교, 특히 조선왕조의 성리학(性理學)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퇴계학, 율곡학, 양명학, 실학 등의 조선유학(朝鮮儒學) 분야에 대한 연구가 있다. 이 밖에 한국의 불교, 도교 등 종교에 대한 연구도 틈틈이 나오고 있다. 비록 연구자료, 연구진, 그리고 기타 조건의 부족으로 인해 현재 중국의 한국철학 연구는 아직까지도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으나, 한중 양국의 정부, 민간, 그리고 학자들의 협력과 노력 하에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미래의 중국 학계에서 중요한 연구 분야의 하나로 부상되어 더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이와 같은 점을 염두에 둔다면, 한국의 각 대학 철학과가 적극적인 국제화를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그 와중에 중국의 우수한 철학 인재를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한국철학을 배우도록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 3. 중국의 한국유학 연구 현황

#### 1) 퇴계학 연구의 시작과 현황

중국에서 퇴계학에 대한 연구는 20세기 70년대 중반이 되어 대만학자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즉 대만 학자인 채무송(蔡茂松), 전목(錢穆) 등이 최초로 『퇴계학보』에 「韓儒 李退溪의 性理學」(蔡茂松, 『퇴계학보』 제4집, 1974년. 이하 同上刊), 「朱子學의 韓國傳播考·李退溪 學術」(錢穆, 同上刊 제5·6집, 1974년), 「朱子 性情論 및 韓儒 李退溪 四端七情論을 논함」(蔡茂松, 同上刊 제8집, 1975년), 「現代 退溪學에 대한 再認識」(錢穆, 同上刊 제10집, 1976년) 등 논문들을 발표한 뒤부터 시작되었다. 그 후 대만 학자인 주하(周何), 송희(宋晞) 등에 의하여 『퇴계학보』에 「李退溪의 禮學」(周何, 同上刊 제19집, 1978년), 「退溪의 理氣說에 대한 발휘」(宋晞, 同上刊) 등 논문들이 계속 발표되었다.<sup>8)</sup> 이와 같은 대만에서의 한국 퇴계학 연구성과는 대륙 학술계로 이어지고 이에 영향을 받은 중국에서는 80년대 초엽에 이르러 비로소 이퇴계 및 그 사상에 대하여 인식하고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동시에 퇴계학에 관한 연구는 중국에서의 한국유학에 관한 연구의 출발점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계기는 한국에서 퇴계학 전문학술지 『퇴계학보』의 출간과 퇴계학연구원이 창설된 때와 맥을 같이 한다. 즉 퇴계학이 중국 학술계에 의도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입해 들어가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1970년 퇴계학연구원이 창설된 후, 몇 년 동안 각고의 노력 끝에 대만과 중국 연구자들을 우리 쪽에서 먼저 의도적으로 끌어들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대만이나 중국 연구자들의 학문적 관심과 수요라기보다는 우리 측의 권유나 배려에 의하여 연구가 진행된 것이 대부분이다.<sup>9)</sup>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 대륙의 학술계에 국한해 보면, 퇴계학 연구의 시작은 대만보다도 10년의 간극이 보인다. 즉 80년대 초에 이르러 비로소 퇴계학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연구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최초에는 개별적 관심을 가진 학자들이였지만, 일본 쓰쿠바, 홍콩, 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와 지역에서 비교적 대규모의 퇴계학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면서 더 많은 중국 대륙 학자들이 이퇴계 사상 연구에 관

8) 朱七星, 「20세기 中國에서의 李退溪思想에 대한 연구 개황과 그 발전 추세」, 『退溪學報』 第112輯, 퇴계학연구원, 2002, 118~119쪽.

9) 丁淳睦, 「臺灣·中國에서의 退溪學研究」, 『韓國의 哲學』 第19號,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1991, 2쪽.

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그 연구자의 수도 점차 확대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퇴계학 비전공자들에 의한 연구의 시작에 불과하였다.

80년대 말 중국 북경에서 제11차 퇴계학 국제학술회의가 개최될 때 300여 명의 대륙 전문가, 학자들이 참가하였고 대륙학자들이 30여편의 퇴계학에 관한 높은 수준의 학술논문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중국 대륙에서는 퇴계학 국제학술회의를 발판으로 삼아 부단히 그 연구범위를 확대하여 퇴계학의 형성, 그 역사적 지위와 사회적 작용, 퇴계의 철학, 퇴계 관련 비교연구, 정치사상, 경제사상, 애국사상, 애민사상, 중민(重民)사상, 천인(天人)관계, 인간관계, 실학사상, 교육사상 및 이퇴계의 인격 등을 망라한 제반 분야에서 세인들이 주목할 만한 연구성과를 거두었다.<sup>10)</sup> 한편 중국 대륙 학계에서만 볼 때, 인민대학의 장립문(張立文) 교수는 중국 내 퇴계철학 연구 분야의 선구자일 것이다.

특히 장립문 교수가 1984년 서독의 함부르크대학에서 개최된 제7차 퇴계학 국제학술회의에 단신으로 참석함으로써 중국 내에서의 퇴계학 연구는 물론이고, 한중 학술교류사에 신기원을 이룩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그는 이 대회에서 『朱熹與李滉的易學思想比較研究』(『퇴계학보』 제43집, 1984년)를 발표한 이래, 퇴계학 관련 논고를 지속적으로 발표하였다. 그 가운데 제11차 중국 북경에서의 퇴계학 국제학술회의 때 그 자신이 주편한 『퇴계서절요(退溪書節要)』를 이 대회에 참석한 세계 각국에서 모인 200여 명의 학자들에게 기증한 사실은 특기할 만하다. 400여년 전에 퇴계가 『주자서절요(朱子書節要)』를 편간하여 성리학의 정수를 전수 시키고 중국과 일본 유학계에 깊은 영향을 끼친 것처럼 장립문 교수의 이 저서는 한중학술사의 한 장을 그은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sup>11)</sup> 그리고 이 저서와 더불어 또 다른 저작인 『이퇴계사상 연구(李退溪思想研究)』는 중국 내 퇴계학 연구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금자탑의 의미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두 저작은 그 후 중국 내외의 학계에서 폭넓은 관심과 호평을 얻었다.

장립문 교수의 저작 『이퇴계사상 연구(李退溪思想研究)』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총 1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은 주로 폭넓은 각도에서 한국 성리학의 내포적 의미와 역사적 변천 과정 및 이론적 특징에 대해 개괄적 기술을 하고 있다. 동시에 중국과 한국 성리학의 차이점 및 양국 성리학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제2장에서 제14장까지는 퇴계의 태극설, 이기설(理氣說), 사단칠정설(四端七情說), 심성설(心性說), 격치설(格致說), 역학(易學)사상 등으로 각각 나누어서 서술하고 있다. 그 서술에 있어서는 필자 자신이 제기하는 문제점과 더불어 심도 높은 분석을 행하고 있다.

한편 장립문 교수와 이소평(李尙平) 교수가 공동으로 주편한 『中外儒學比較研究』(東方出版社, 1998년)와 서원화(徐遠和)의 주저인 『儒學與東方文化』(人民出版社, 1995년) 등의 저작에서는 많은 지면을 할애하면서까지 한국의 유학사상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그 가운데 특히 퇴계와 율곡을 대표로 하는 조선 성리학 사상에 대해서만큼은 상세한 기술을 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또 그 밖에 퇴계학 관련 저작을 살펴보면, 주월금(周月琴)의 『退溪哲學思想研究』(杭州出版社, 1997), 고영인(高令印)의 『李退溪與東方文化』(廈門大學出版社, 2002) 등이 있고, 『退溪學在儒學中的地位』(第11屆退溪學國際學術會議論文集)도 1993년 중국 인민대학 출판사에서 간행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퇴계학 연구성과와 대내외로의 발신은 중국 내에서의 퇴계학 연구

10) 朱七星, 「20세기 中國에서의 李退溪思想에 대한 연구 개황과 그 발전 추세」, 『退溪學報』 第112輯, 退溪學研究院, 2002, 118~119쪽.

11) 丁淳睦, 「臺灣·中國에서의 退溪學研究」, 『韓國의 哲學』 第19號,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1991, 8~9쪽.

와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

대략 중국에서의 퇴계학 연구성과를 논문 통계라는 양적 수치로 정리해 보면, 1990년대에는 연구 논문이 총 51편 발표되었다. 성과가 풍부한 연구자들은 고영인(高令印, 5편)과 장립문(張立文, 3편)이며 등재 양이 비교적 많은 학술지는 『孔子研究』(3편)과 『當代韓國』(4편), 『浙江學刊』(5편), 『韓國學論文集』(3편)이고 성과가 가장 많았던 시기는 1998년(9편)이다. 또 2000년부터 2009년까지는 총 47편의 연구 성과가 있었다. 김인권(金仁權, 4편)과 마정응(馬正應, 4편)의 연구 성과가 대표적이고, 『孔子研究』(3편)과 『東疆學刊』(3편), 『齊魯學刊』(3편)은 퇴계학 연구성과물 등재의 중요한 역할을 했다. 2002년과 2007년에는 양이 비교적 적었지만 평균적으로 4-6편 정도의 성과를 올렸다. 그리고 이 시기에 퇴계를 중심으로 연구한 석사학위 논문 6편이 나왔고 모두 연변대학에서 발표되었다. 연변대학이 중국 내 퇴계학 연구분야에서 차지하는 특별한 지위를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10년 동안 저서는 고령인의 『이퇴계와 동방문화』1권만 출판되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는 51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성과가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자들은 요녕대학(遼寧大學)의 김향화(金香花, 3편)와 마정응(4편)이고, 등재 양이 비교적 많은 학술지는 『南昌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3편)와 『延邊大學學報(社會科學版)』(3편)이다. 2010년과 2018년, 2019년을 제외하고는 다른 해에 평균적으로 5-7편 정도가 등재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연변대학에서는 석사학위 논문 4편과 박사학위 논문 1편도 발표되었다. 그리고 이 밖에 전문적인 저서는 3권이 출판되었다. 퇴계학 연구의 선구자 장립문 교수의 또 다른 저작 『이퇴계의 사상 세계』와 무이학원(武夷學院) 장품단(張品端)의 『주자학과 퇴계학 연구』, 중국 사회과학원 주월금(周月琴)의 『「심경부주(心經附注)」가 퇴계 심학의 형성에 끼친 영향 연구』가 그것이다. 이상의 간략한 통계로 알 수 있는 것은 퇴계학 연구는 1980년대 이래 아주 평온한 상태로 유지되어 왔다. 10년마다 성과의 양은 평균 50편 정도이다. 퇴계학 전문가로서 장립문은 개척자이자 퇴계학 연구의 권위자로 꼽을 수 있으며 퇴계학 연구를 중국에서 가장 이른 시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성과도 풍성하다. 그 밖의 퇴계학 전문가들의 면면은 마정응과 고영인, 사보삼(謝寶森), 이소평(李尙平), 이금전(李錦全), 김향화, 김인권 등이 대표적인 퇴계학 연구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sup>12)</sup> 그리고 퇴계학 연구 가운데 논문성과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금까지 많은 퇴계학 관련 논고가 발표되었다. 그 대표적인 논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진래(陈来)의 「略论朝鲜李朝儒子李退溪与奇大升的性情理气之辩」(『北京大学学报』, 1985年 3期), 조종정(赵宗正)의 「试论退溪学的特点」(『文史哲』, 1985年 6期), 몽배원(蒙培元)의 「朱学的演变和李退溪哲学」(『浙江学刊』, 1986年 1期), 신관길(辛冠洁)의 「论李退溪的心学思想」(『浙江学刊』, 1986年 1期), 양선방(杨宪邦)의 「论退溪学的体用观」(『社会科学战线』, 1987年 1期), 이금전(李锦全)의 「论退溪人生哲学在儒学中的历史地位」(『天津社会科学』, 1990年 1期), 유울화(刘蔚华)의 「退溪“易学”思想初探」(『济南教育学院学报』, 2000年 1期), 김인권(金仁权)의 「论李滉对程朱“主敬”思想的扬弃」(『延边大学学报·社会科学版』, 2003年 4期), 갈조광(葛兆光)의 「寰中谁是中华?—从17世纪以后中朝文化差异看退溪学的影响」(『天津社会科学』, 2008年 3期) 등이 있다.<sup>13)</sup> 이와 더불어 일본 쓰쿠바대학(筑波大学)의 다카하시 스스무(高橋進) 교수의 대표작

12) 李燕, 「20세기말 이래 中國의 退溪學 연구 특색」, 『退溪學論叢』 第34輯, 퇴계학부산연구원, 2019, 90~91쪽.

13) 邢丽菊, 「中国学界的韩国哲学研究: 现状、问题及未来课题」, 『김준엽선생과 중국: 한국의 중국학, 중국의 한국학 국제학술 세미나 발표집』,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12.

『李退溪和主敬哲学』(王根生 등 옮김, 延边人民出版社, 1991)이 중국어로 번역·출판되어 중국 내 퇴계학 연구에 활력을 불어넣기도 하였다.

이러한 퇴계학 관련 저작과 논문 가운데 주월금(周月琴)의 『退溪哲学思想研究』(杭州出版社, 1997)라는 책은 도합 7장으로 구성된 중국의 여성 학자가 지은 퇴계철학에 관한 전문 저서이다. 저자는 다년간 퇴계의 철학사상을 연구한 토대 위에서 퇴계의 인생철학을 중심으로 하여 체계적으로 퇴계의 인생관, 심성론, 주경(主敬)의 인생론, 인생가치론, 실천인생론 및 퇴계의 한국 성리학사에서의 위치와 현대적 의의에 대하여 심층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때문에 주월금의 새로운 견해와 과학적 방법론은 중국 내 퇴계학 연구자들에게 많은 참고적 가치를 제공하였다.

주칠성(朱七星)은 20세기 70년대 중반 대만에서부터 시작된 중국에서의 이퇴계 사상에 대한 연구가 세인들이 주목할 만한 가치 있는 연구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하면서 다음과 같이 연구성과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첫째, 이퇴계 사상에 대한 연구범위가 전례 없이 넓어졌다는 점. 둘째, 이퇴계 사상에 대한 연구의 심층도가 전례 없이 깊어졌다는 점. 셋째, 이퇴계 사상에 대한 연구가 체계화되었다는 점<sup>14)</sup>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 내에서의 퇴계학 연구는 1980년대 초, 중반 장립문 교수를 필두로 한 몇몇 연구자의 지속적 관심과 학문적 노력을 통해 지금까지도 면면히 이어져오고 있다. 하지만 이제 퇴계학 연구는 국내 학계에서는 물론이고,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해외학계에서 새로운 연구방법론에 의한 연구가 필요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반복에 반복을 거듭한 심성론, 이기론, 관념론 등에 관한 연구가 아닌 살아 있는 퇴계학, 퇴계학의 역사적 실상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연구방법론의 전환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관념론적 방법론에 의한 퇴계학은 진실의 실체가 아닌 껍데기로서의 관념론 철학에 머물고 만다. 따라서 예를 들면 역사학적, 문화학적, 지리학적, 정치학적, 사상문화사적 연구방법론을 채택하여 새로운 연구방법론에 의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사상과 철학은 역사적 사실과 동행하는 인간의 사유 체계이기에 그 사상과 철학이 역사적 사실과 멀어질 때는 공허한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퇴계학의 발상지인 국내에서부터 새로운 방법론에 의한 새로운 퇴계학 연구가 시작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 2) 율곡학 연구의 시작과 현황

중국 국내에서 율곡학 관련 연구논문으로 맨 처음 발표된 것은 이홍순(李洪淳)이 집필한 「이이의 철학사상을 논함(论李珥的哲学思想)」(『东方哲学研究』, 延边大学学报增刊, 1979)이다. 이것이 중국 학계 내에서 최초로 발표된 율곡학 논문이다. 그 후, 중국 내 율곡학 연구는 긴 시간 동안 정체상태에 빠져버린다. 아마도 그 원인은 중국에서 한국철학, 좁게는 조선유학이라고 하면 우선 퇴계학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또 그만큼 퇴계학은 중국 내에서 한국유학을 대표하는 주류적 학문 유파로 인식되고 있었다는 반증이다.

율곡학 연구의 정체상태는 줄곧 10여년 넘는 긴 세월 동안 이어졌다. 드디어 1993년이 되어 중국 내 퇴계학 연구의 선구자라 할 수 있는 장립문(张立文) 교수가 『퇴계와 율곡의 이욕, 경정관 비교연구(退溪与栗谷理欲、敬静观之比较)』(中国社会科学出版社, 1993)를 발표한 후, 중국 내에서의 율곡학 연구는 다시금 정식으로 시작되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율곡의 철학사상이 중국 내에서 본격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퇴계학의 중국 내 연구 개시 및 그 보

14) 朱七星, 「20세기 中國에서의 李退溪思想에 대한 연구 개황과 그 발전 추세」, 『退溪學報』 第112輯, 退溪學研究院, 2002, 148~149쪽.

급과정과 깊은 연관 관계가 있다.

왜냐하면 율곡과 퇴계는 ‘조선 성리학의 쌍벽’이라고 병칭되는 것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1992년 한중수교가 성립되어 중한 양국 간의 학술교류가 빈번해짐에 따라 중국 내에서는 퇴계학 연구가 활발해지기 시작하는데, 그와 더불어 중국 국내외의 학자들 가운데 몇몇이 퇴계학과 쌍벽을 이루는 율곡학에 약간의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다.<sup>15)</sup> 즉 퇴계학 연구에 관심을 기울여가는 와중에 율곡학이 우연히 이들 연구자들의 눈에 포착되었던가 아니면 퇴계학 연구에 몰입해 가는 와중에 그 대치점에 놓여 있는 율곡학을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당위성이 있었는가는 논외로 치더라도 중국에서의 율곡학 연구는 퇴계학 다음으로 중시되어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점은 특기할 사항이다.

이 시기 이후부터의 주요 율곡학 연구의 대표적 성과물<sup>16)</sup>을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즉 이하에서 언급하는 연구 논문이 중국에서의 율곡학 연구사이기도 하다.

1994년 『길림대학학보(吉林大学学报)』(第4期)에 실린 이수동(李秀东)의 「율곡 철학사상의 시대적 특징(栗谷哲学思想的时代特征)」이 아마도 한중수교 이후 중국 내에서 발표된 최초의 논문일 것이다. 여기에서 저자는 지식인의 시대정신과 역사적 사명감이라는 논리로 율곡의 철학 사상을 개괄하고 있다. 즉 변혁을 기치로 하는 개혁사상, 부국안민(富國安民)적인 위민의식(爲民意識), 자주의식과 비판의식, 경세치용과 무실사상(務實思想), 언로(言路) 개방과 민주주의식 등으로 장을 나누어 율곡 자신이 처한 시대 속에서 그가 보여준 시대정신의 정화를 분석하고 있다.

1995년에는 율곡학과 관련하여 2편이 발표되는데, 각각은 모두 양조한(楊祖漢)이 집필하였다. 즉 「李栗谷對朱子哲學的詮釋(1)」(『延邊大學學報』社會科學版, 1995年 第1期)와 「李栗谷對朱子哲學的詮釋(2)」(『延邊大學學報』社會科學版, 1995年 第2期)가 그것이다. 이 두 논문의 대체적인 주제는 주자학의 입장에서 율곡철학 전반을 재해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여기에서는 우선 퇴계의 ‘사단칠정(四端七情)’ 논변을 이끌어 서술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또 ‘이율곡의 이기론과 공부론’이라는 주제로 이기론 부분에서는 퇴계 이기호발설에 관한 율곡의 비판과 율곡의 기발이발(氣發理乘), 이통기국(理通氣局)을, 공부론에서는 양기(養氣)와 경(敬)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 아울러 이 두 논문은 그와 같은 율곡의 사상이 주자학의 원의에 부합하며 당대 모종삼(牟宗森)의 주자학 해석과도 대체로 일치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sup>17)</sup> 1997년에는 3편이 발표되는데, 홍광조(洪廣燥)의 「『李栗谷全集』和栗谷的思想」(『當代韓國』, 1997年, 第2期), 루우열(樓宇烈)의 「栗谷經學思想研究」(『亞文』第二輯,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7.12)가 있고, 동년 갈영진(葛榮晉)이 『중국문화연구(中国文化研究)』(第3期)에 「율곡의 ‘孝’론 및 그 현대적 의의(栗谷論“孝”及其現代意義)」를 발표하였다. 이 논문은 유가가 중시하는 윤리덕목인 ‘효’를 중심으로 연구되었는데, 율곡의 효는 ‘正家’의 범위에 제한되어 있지 않으며, 맹자의 인학(仁學) 구조와 연관된 ‘친친(親親)-인민(仁民)-애물(愛物)’이라는 유기체적인 효도(孝道)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율곡의 효사상이 비록 일부 사회발전에 저해가 되는 부정적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발전을 촉진시키는 긍정적 가치가 있으므로, 율곡의 효사상이 갖고 있는 합리적 사상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이것을 현대의 도덕 가치체

15) 邢麗菊, 「中国学界的韩国哲学研究: 现状、问题及未来课题」, 『김준엽선생과 중국: 한국의 중국학, 중국의 한국학 국제학술 세미나 발표집』,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12.

16) 중국 내에서의 율곡 사상 연구성과에 관해서는 다음의 논문이 잘 정리하고 있다. 지준호, 「중국에서의 율곡 사상 연구의 현황과 전망」, 『한국철학논집』 제18집, 한국철학사연구회, 2006, 154~161쪽.

17) 지준호, 「중국에서의 율곡 사상 연구의 현황과 전망」, 『한국철학논집』 제18집, 한국철학사연구회, 2006, 154-155쪽.

계에 융화시켜 현대사회의 정신문명을 건설하는 데 일조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다. 더 나아가 저자는 율곡의 효사상이 사회상의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자연간의 생태윤리사상도 포괄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후 중국 학계에서는 율곡학 관련 논문이 줄줄이 발표되는데, 현재 조선족 출신으로 중국에서의 한국철학 연구의 대표라 할 수 있는 홍군(洪軍)이 전문적으로 율곡학을 연구하기 시작하여 이하의 다양한 논문을 연이어 발표하였다. 「論栗谷的心性哲學」(『浙江學刊』 第六期, 1998), 「論栗谷的“理氣之妙”思想」(『中國哲學史』 第一期, 1999), 「論李栗谷與畿湖性理學」(『當代韓國』 第一期, 2000), 「論李珣的格物致知思想」(『東疆學刊』 第四期, 2000), 양건상(楊建祥)과 공동 집필의 「栗谷的格物論」(『學術月刊』 第十期, 2000), 「栗谷心性論的特色」(『當代韓國』 第四期, 2001), 「論朝鮮朱子學與李栗谷哲學」(『東疆學刊』, 2002年, 第2期) 등이다.

이 밖에 이영경(李永慶), 허길(許吉)의 「簡論栗谷的聖人觀」(『延邊大學學報』 第三期, 社會科學版, 2001), 몽배원(蒙培元)의 「從栗谷的仁學看儒學與現代性的問題」(『當代韓國』 第四期, 2001), 진상승(陳尚勝)의 「重陪鸞更何年?—朝鮮李珣出使明朝詩歌初探」(『山東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第6期, 2002), 장민(張敏)의 「創業守成更張論刍議」(『當代韓國』 秋季號, 2003), 김원희(金源姬)의 「淺談栗谷的四端七情論」(『孔子研究』 第一期, 2004年), 이소평(李旻平)의 「試論李栗谷的理氣觀」(『東疆學刊』 第一期, 2005) 등이 있다.

한편 이밖에도 중국 국내에서의 율곡학 연구는 계속해서 진전을 보이고 있다. 2000년대 이후부터 율곡학 연구 분야에서는 두 권의 전문 서적 및 4편의 석사논문, 다수의 연구논문이 지속적으로 발표되었다. 즉 2003년, 북경대학출판사와 중국사회과학출판사가 각각 장민(張敏)과 홍군(洪軍)의 『立言垂教—李珣哲學精神』와 『朱熹與栗谷哲學思想比較研究』를 출판하였는데, 이 두 전문 서적은 학계의 많은 주목을 끌었다. 또 4편의 율곡학 관련 석사논문은 다음과 같다. 모철산(毛哲山)의 「朱熹和栗谷理氣論之比較研究」(2003년 延邊大學), 이빈(李斌)의 「朱子與退溪, 栗谷人心道心說之比較」(2004년 延邊大學), 조군(趙君)의 「栗谷的經世思想及其哲學基礎研究」(2005년 延邊大學), 박경훈(朴經勳)의 「朱熹與李栗谷理氣觀之比較研究」(2006년 吉林大學) 등이 그것이다.

이렇게 볼 때 중국 내에서의 율곡학 연구는 한중수교 이래 더욱 활성화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 내에서의 퇴계학과 율곡학 연구의 지속적 발전에 비해, 다양한 한국철학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미미한 수준이다. 예를 들면, 양명학이라든가 조선 후기 실학 및 한국 근대의 사상문화, 퇴계와 율곡 이외의 다양한 조선 유학자들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요원하기만 하다. 그렇더라도 중국에서의 율곡학 연구는 일정 정도의 연구성과물을 내고 있는데, 그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것이다.

첫째, 율곡학 연구의 출발점은 퇴계학 연구처럼 한국 정부의 해외 한국학 진흥 정책에 의한 것이 아니라, 퇴계학 연구의 와중에 자연스럽게 율곡학으로의 관심이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에서의 퇴계학 연구 과정에서 파생된 한국유학에 대한 관심의 연장선상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금까지 중국에서의 율곡학 연구는 본래부터 율곡학을 기초부터 배운 전문 연구자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대개 중국철학을 전공한 학자들에 의하여 연구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유교철학 연구자들의 특징이기도 하다. 즉 자신의 구체적 전공에서 출발하여 조금씩 연구 영역을 넓혀나가는 과정에서 동아시아 각 지역의 유학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유교 혹은 유학은 동아시아 삼국의 공통 유산이기 때문이다.

셋째, 중국의 율곡학 연구성과물 가운데 홍군(洪軍) 1인의 연구가 7편(공동연구 1편 포함)에

이른다는 점이다. 이는 흥군을 필두로 하여 중국 학계에도 율곡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전문가가 등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중국에서의 율곡학 연구는 『율곡전서』의 원전 자료와 중국 국내의 연구성과에만 의지한 나머지, 다양한 2차자료, 즉 한국 국내와 일본에서 이루어진 연구성과물의 인용 및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중국에서의 율곡학 연구성과물은 다양한 시각과 객관적 측면에서의 율곡학 연구가 진행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째, 율곡학 2차자료의 해독에 필요한 한국어 능력이 중국 내의 율곡학 연구자들에게는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 내 율곡학 연구자들의 연구 주제나 범위 등을 설정할 때 일정 정도의 제약과 영향을 주고 있다. 사실 동아시아 유교철학 연구 분야에서 외국어(한중일 삼국언어) 능력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개괄적으로 언급한 중국에서의 율곡학 연구의 현황은 퇴계학 연구에 비해 아직도 기초적 단계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실은 한중 양국 간의 국교 수교를 통한 문화적, 학술적 교류의 확대에 의하여 한국유학, 더 구체적으로는 율곡학 연구도 중국 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직은 질적으로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냈다고 평가하기는 곤란하지만, 한국과 중국이 모두 동아시아 유교문화권에 속해 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중국 내에서의 율곡학 연구도 앞으로 더 기대해 볼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향후 중국 학자들의 능동적이고도 활발한 연구를 기대해 본다.

#### 4. 나오는 말

한국과 중국의 직접적인 학술적 소통의 계기는 1992년의 한중 국교 수교가 체결된 이후부터이며, 이 무렵부터 정치, 경제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폭넓은 문화적 교류 안에서 학술교류도 빈번해지기 시작하였다. 이는 한중 간의 학술 교류사에서 획기적 전환의 시기를 맞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이전까지 냉전적 갈등 관계로 지내온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이제 정치, 경제 분야에서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상호 유지하면서 문화적 측면에서의 다양한 교류가 이루어졌고, 학술적 차원에서는 더 긴밀히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구축하게 되었다. 한중 양국 간의 수교로 인해 전개된 이와 같은 새로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교류 상황은 양국 간 출판서적의 자유로운 유통과 더불어 국제적 학술 무대의 장에서 학술 강연과 학술 발표를 통하여 연구자들 사이의 긴밀한 학술 교류를 촉진시켰다. 또 교환 교수와 교환 학생이라는 대학 간의 교류 협력과 양국 유학생의 증가 등은 교류의 촉매제가 되기도 하였다. 문화적 교류와 소통이 각국의 학술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얼마나 큰 것인지는 역사가 증명해 준다. 향후 양국 간의 교류와 소통은 양적인 발전을 넘어서 질적 측면에서의 발전도 도모해야 될 것이다.

따라서 이 논고는 이와 같은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기획한 중국에서의 한국철학 연구 상황에 대한 일종의 회고이다. 이 논고에서는 중국에서의 한국철학, 좁게는 한국유학의 발전 과정이 어떠했는지, 또 그 발전 과정에서 연구의 양상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명확한 주제를 논증하기 위해 본론의 첫 번째에서는 한국철학의 연구 현황이라는 소주제 하에 중국에서의 한국학과 한국철학의 연구 상황 및 구체적으로 어느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진행하였고, 대표 학자들이 누구였는지를 고찰하였다. 이어지는 본론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중국의 한국유학 연구 현황을 퇴계학과 율곡학 연구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논의를 진행하였다.

중국에서의 한국유학 연구는 양적 측면에서 볼 때 이미 초보적 단계는 넘어섰다. 하지만 초보적 단계를 넘어섰다 해서 질적 측면에서의 새로운 학술적 발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하기는 곤란하다. 중국과 한국의 유교철학에 대한 연구 방법론은 지금도 1980년대나 90년대의 방법론

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즉 기존의 심성론적, 이기론적, 관념론적 연구 방법은 아직도 중국과 한국 학계에서 주류를 형성하고 있고, 이를 넘어서는 문화교섭학적, 사회문화사적, 사상문화사적, 역사문화사적, 문화지리학적 학제간 연구 방법론은 비주류로 취급받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의 한국유학 연구는 한국의 과거 연구 방법론에서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양적 측면에서는 기존과 유사한 자매품과 같은 논문이 산더미처럼 매년 증가하지만, 어떤 새로운 연구 방법론에 의한 새로운 성과물의 창출은 아니었다. 이 때문에 향후 양국 간의 빈번한 교류를 더욱 진전시켜 가면서 상호 간의 새로운 연구 방법론에 의한 새로운 연구성과물의 도출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양국의 학술 발전을 위해서는 상호 간의 건전하고도 신선한 학문적 자극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는 지금이다. 그것은 더 활발한 학술 교류와 소통에 의해서만이 가능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张立文, 『李退溪思想研究』, 东方出版社, 1997.
2. 邢丽菊, 「中国学界的韩国哲学研究: 现状、问题及未来课题」, 『김준엽선생과 중국: 한국의 중국학, 중국의 한국학 국제학술 세미나 발표집』,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12.
3. 金香花, 「韩国儒学在汉字文化圈中的呈现与解释—以中日退溪学研究为中心的考察—」, 『한국철학논집』 제58집, 한국철학사연구회, 2018.
4. 洪军, 『中国的韩国儒学研究成果』, 『国际版儒教文化研究』, 第11辑, 成均馆大学出版部, 2009.
5. 소재영, 「중국에서의 한국학 연구」, 『국학연구론총』 제3집, 태민국학연구원, 2009.
6. 丁淳睦, 「臺灣·中國에서의 退溪學研究」, 『韓國의 哲學』 第19號,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1991.
7. 朱七星, 「20세기 中國에서의 李退溪思想에 대한 연구 개황과 그 발전 추세」, 『退溪學報』 第112輯, 退溪學研究院, 2002.
8. 지준호, 「중국에서의 율곡 사상 연구의 현황과 전망」, 『한국철학논집』 제18집, 한국철학사연구회, 2006.
9. 李燕, 「20세기말 이래 中國의 退溪學 연구 특색」, 『退溪學論叢』 第34輯, 퇴계학부산연구원, 2019.



신현승 선생님의 「중국에서의 한국철학 연구 현황과 미래 전망」에  
대한 토론문

김준(일본 동아대학교)

< 별지 참조 >



## 주제 발표

시간	일정 및 발표주제		사회 및 발표/토론	
15:40-16:15	주제 발표 306호	상상과 재현: 김훈과 아성(阿成)의 소설에 나타난 안중근의 인물형상 비교 연구 - 『하얼빈』과 <안중근,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다>를 중심으로	발표 리위*(중국 산동대) 토론 차용(서울대)	김진규 (가천대)
16:15-16:50		데이터 시각화로 들여다보는 한중교류 30년:한중 양국 지방정부 간 국제교류 현황을 기반으로	발표 박려정(고려대) 토론 박성일(한국체대)	
16:50-17:25		재한조선족 시치로 프로그램의 가능성 탐색을 위한 試論	발표 전은주(연세대) 토론 이미옥(서울대)	

\*=Zoom 참여



상상과 재현: 김훈과 아성(阿成)의 소설에 나타난  
안중근의 인물형상 비교 연구  
- 『하얼빈』과 <안중근,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다>를 중심으로

리위(중국 산둥대학교)

< 별지 참조 >

리위 선생님의 「상상과 재현: 김훈과 아성(阿成)의 소설에 나타난  
안중근의 인물형상 비교 연구  
- 『하얼빈』과 <안중근,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다>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차용(서울대학교)

< 별지 참조 >

데이터 시각화로 들여다보는 한중교류 30년  
:한중 양국 지방정부 간 국제교류 현황을 기반으로

박려정(고려대학교)

< 별지 참조 >

박려정 선생님의 「데이터 시각화로 들여다보는 한중교류 30년  
:한중 양국 지방정부 간 국제교류 현황을 기반으로」에 대한 토론문

박성일(한국체대)

< 별지 참조 >



# 재한조선족을 위한 시치료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방법 설계를 위한 試論

전은주\*

1. 들어가는 말 : 재한조선족을 위한 시치료의 필요성
2. 재한조선족의 역사적 트라우마의 양상
3. 시치료의 원리와 이론
4. 시치료의 방법 설계
5. 나가는 말

## 1. 들어가는 말: 재한조선족을 위한 시치료의 필요성

올해로 한중수교 30년이 된다. 그동안 한국으로 이주한 조선족 디아스포라의 수는 이미 80만 명을 넘어섰다. 그동안 재한조선족 디아스포라는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아주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다. 이주 초기부터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의 혼선은 이들의 정착을 어렵게 했다.<sup>1)</sup> 그들이 한민족인 나라로 이주하면서부터 지녔던 기대감의 크기만큼 그것이 그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때 받았던 정신적 외상은 다른 국가에서 온 노동이주자가 받은 이방인으로서의 충격과는 달랐다. 이는 '민족적 동일성'의 욕망이 거부당한 좌절감 때문이었다.

민족적 동일성의 욕망은 모든 코리언 디아스포라들의 '역사적 트라우마'에 자리잡고 있다.<sup>2)</sup> 그들이 그런 욕망을 지니고 디아스포라로 살아야 했던 이유는 일제의 무력적 횡포에서 비롯되어, 상반된 이데올로기로 인한 분리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 비극의 여파는 민족분단과 민족전쟁으로 이어져 그들을 디아스포라가 되어 타국에서 살게 했다. 물론 조선족의 경우, 19세기 말경에 있었던 조선조의 국력 쇠퇴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기근으로 시작된 이주가 일제강점기에도 계속되었고, 일제의 만주국 설립을 위한 강제이주로까지 이어졌다. 그리하여 조선인 디아스포라는 간도에서 어떠한 공권력의 도움도 없이 토박이들의 박대와 일제의 전횡과 폭압, 국민당의 착취 등과 같은 갖은 고초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것을 디아스포라가 당연히 받아야 할 고초로 받아들여야 했다. 그 과정에서 받은 곤욕이 분출되지 못하고 분노나 좌절감으로 쌓이고, 더러는 자기혐오나 자기부정으로 내재화되기도 했다.

\* 연세대학교 학부대학 강사

- 1) '반만년의 역사'에서 한국사회는 단일민족주의를 유지하여 '국가=민족=국민'이었기 때문에, 국적을 물으면 '중국'이라고 밝히는 조선족들에게 상당한 당혹감과 거리감을 느꼈을 것이다. 그 밖에도 그들 사이를 가로막는 역사적 트라우마를 비롯하여, 경제적 격차 같은 문제들은 상상적이고 감상적인 민족 개념으로 쉽게 극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 2) 김종군 외, 「탈북 트라우마에 대한 인문학적 치유 방안의 가능성-구술 치유 방법론을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68, 212쪽.

조선족의 역사적 트라우마는 ‘식민’이라는 근원적 트라우마를 기점으로 하여 ‘이산’과 ‘분단’이라는 트라우마가 착종되는 위상학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 흔히 역사적 트라우마는 특정한 역사적 사건을 공유하는 한 집단의 욕망이 억압과 좌절의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된다. 이러한 트라우마는 이주 1, 2세대만 지나는 게 아니라 이주 3, 4세대에게도 상속된다는 점에서, 이 트라우마는 계속해서 집단의 가치관 형성 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그러므로 트라우마를 치유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둘러싼 외부 집단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소속된 집단 구성원 상호간의 인간관계 형성이나 그 집단의 존립 자체, 그리고 개인의 정신적 발달 등에도 심각한 위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sup>3)</sup>

한중수교 이후 30년이 지났으나 재한조선족 디아스포라는 여전히 치유되지 못한 정신적 외상을 지닌 채, 중국인도 아니고 한국인도 아닌 새로운 ‘경계인’<sup>4)</sup>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닌 채 살고 있다. 이러한 정체성이 지니는 문제점 중의 하나로, 그들이 지닌 내면적 적대감이나 증오심이 겉으로는 표출되지 않는다고 해도 그 근원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이다. 그 내면적 요소는 잠재되어 있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 자신이나 한국사회에, 그리고 가장 가까운 이웃들을 대상으로 표출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정적 요소가 사회적 갈등이나 정신적 문제로 표출되기 전에 해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록 현재 그들이 지닌 자기혐오의 공격성이 한국사회를 향하지 않는다고 해도, 내면화되면 재한조선족 공동체의 계토화로 드러나거나 조선족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의 갈등으로 드러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그들이 지닌 역사적 트라우마의 ‘부정적 반응’에 속한다.<sup>5)</sup>

이런 의미에서 필자는 재한 조선족의 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정신의 갈등 요소들을 선제적으로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론을 모색해왔다. 지금까지 필자가 연구한 재한조선족 디아스포라의 정체성과 관련된 일련의 논문들이 이러한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sup>6)</sup>

물론 인간 정신의 병적 요소나 갈등 등을 본질적으로 해소시키기는 어렵다. 그러나 우리는

- 3) 이를테면 일제강점기의 참혹성을 경험하지 않은 후세대들도 과거 역사에 대해 증오와 수치심을 느낀다. 그러나 일부는 심리적 역전 현상을 일으켜 무의식 깊숙이 자리 잡은 반감이나 증오에 의해 오히려 일본문화를 강하게 선호하게 되는, 이중적인 감정으로 왜곡되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 4) ‘경계인’(marginal man)은 쿠르트 레빈(K. Lewin)이 처음으로 사용했는데, 다른 집단으로 이주한 디아스포라가 기존 집단의 사고방식, 행동양식을 급방 바꾸지 못하고 새로운 집단에도 적응하지 못한 어정쩡한 상태에 놓이는 것을 말한다. 『시사상식 바이블』, 박문각, 2008.
- 5) 물론 역사적 트라우마가 부정적인 반응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신중국 건설의 ‘공헌자’라는 자부심으로 연변조선족자치구를 설립하고, 조선족끼리 단결하여 민족 문화의 전통을 고수하고 말과 글 등을 계승-보존하며 중국에서 ‘조선족으로 살아남은 것’, 또한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그들만의 ‘조선족 타운’을 형성하는 것 등을 긍정적 실천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
- 6) 필자는 『조선족의 ‘역사적 트라우마’치유를 위한 시론-이주사와 시작품 다시 읽기』(통일인문학, 65, 2016)에서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한 방안으로 긍정적 삶의 태도를 도출하기 위해, 이주사를 ‘행동의 언어’로 읽었다. ‘생각(사고)’보다는 ‘행동’이 객관세계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이 논문에서, 이주사에서 조선족이 ‘비극적 집단’이 아니라 ‘능동적이며 개척적인 존재’로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조선족의 선조들은 혼란과 궁핍의 시대에 스스로가 생존의 길을 개척하기 위해 두만강을 건너 청나라로 잠입하는 ‘과감성’을 보였고, 낮은 이주지에서는 황무지를 개척하여 옥토로 바꾸어 삶의 터전을 이루었다. 그런 점에서 그들의 ‘적극성’과 ‘진취성’을 통해 ‘개척자’의 삶을 살았다. 그들은 척박한 자연 환경과 토박이들의 핍박을 감내하고, 일본제국주의의 전횡과 거주국의 정치적 횡포 같은 무수한 장애와 투쟁하여 생존했다. 그리하여 그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을 통해 ‘조선인’에서 출발하여 ‘조선족’으로 살아남는다. 그것이 그들이 ‘선택한 행동의 결과’이다. 즉 ‘객관적인 상황’에 초점을 맞추면 ‘비극적’으로 규정되고, ‘감성의 차원’에 초점을 맞추면 끊임없이 다가오는 위기감, 공포감 불안감에 노출된 ‘가련한 유이민’으로 규정된다. 그러나 ‘행동의 차원’에 초점을 두면 그들은 과감성, 진취성, 적극성을 지닌 ‘개척자’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므로 조선족은 이러한 정신을 자신들의 긍지로 삼아야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관념적 이상 상태를 정해놓고 이것을 지향해왔다. 물론 '상식'(common sense)에서 벗어나 정신병적 상태를 드러내는 경우에는 정신의학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재화된 경우는 그런 혜택을 받을 수조차 없다. 현대의 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인간은 정신병적 요인이나 어떤 트라우마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재한조선족의 경우, 그들의 중국 이주의 과정만이 아니라 한국 이주의 과정에서 받은 충격을 내면화시켰을 가능성이 크다.<sup>7)</sup>

최근 들어 탈북민, 결혼 이주여성 등에 대해서는 여러 방면에서 인문학적 접근의 치유 방안이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다. 특히 탈북민 대상으로는 통일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및 민간 차원에서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sup>8)</sup> 그러나 재한조선족 대상 치유 프로그램은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는 재한조선족을 대상으로 하는 치유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시치료'<sup>9)</sup>의 필요성과 그 가능성을 탐색해본다. 다시 말하면 이 연구는 재한조선족이 체험하고 있는 정신적 충격의 독특성, 역사적 트라우마의 특수성을 전제로 하며, 시를 통해 정신적 장애 또는 트라우마 등을 해소하거나,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를 본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인식의 전환'의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 2. 재한조선족의 역사적 트라우마의 양상

재한조선족 디아스포라는 한중수교와 더불어 한국으로 이주한다. 외적 형식은 노동이주이지만 내적 형식은 '민족적 동일성의 회복'을 위한 '상상속의 고향'으로 '귀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한국에서 확인한 것은 '환멸의 고향'과 '낯선 한국인'이었고 그들이 궁지로 삼았던 민족적 동일성의 의도가 와해되자, 그들은 '정체성의 혼란'에 겪게 된다.

재한 조선족은 조선인 이주민에서 치열한 투쟁을 통해 중국 조선족으로 정착했다. 그들은 자신의 근원지인 모국에 대한 강한 애착으로, 한민족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유지하고, 말과 글을 지켜가면서 그것을 한족과의 경계로 삼아 '조선족으로 살아남기'에 성공했다. 이렇게 형성된 그들의 정체성은 중국에서 소수민족으로 살면서도 한쪽에 동화되지 않고 지켜낸 것이 궁지이자 '정신적 존재감'으로 작동했다. 물론 중국 내 여러 정치적 변혁과 주류문화의 영향으로 지엽적인 요소들이 더러 상실되거나 혼종화 과정을 겪기도 했지만 그들은 한국으로 이주하면서 당연히 민족공동체를 향한 강한 귀속감을 기대했다. 그러므로 한중수교로 시작된 한국 이

7) 그런 의미에서 재한조선족을 상대로 그들이 만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받는 정신적 외상을 치유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므로 이에 상응하는 상담이나 적응과정에 필요한 정신치료 프로그램 등을 반드시 시행해야 할 시급성마저 느낀다.

8) '탈북민산림치유프로그램'·'탈북청소년을 위한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북한체제트라우마 체제 상처치료 프로그램'(통일부); '북한이탈여성들을 위한 상담 심리치유프로그램'·'마음돌보기 job 돌보기'·'다독다독'(여성가족부); '마음톡톡 프로그램'(교육부) 등과 그 밖에도 지자체별로 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치유 프로그램 등이 있다.

9) '시치료'(poetrytherapy)라는 명칭은 1950년대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그라이퍼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고, 그라이퍼와 리디가 중심이 되어 독서치료학회로부터 독립하여, 1969년 '시치료협회'를 설립했고, 이후 시치료가 학술적으로 인정되었다. 미국 시치료협회에서는 시 치료를 통합적 치료 방법으로서 신체와 마음과 정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시치료협회'(National Association For Poetry Therapy, NAPT)를 국내에서는 '독서치료협회' 또는 '문학치료협회'로 명명했다. 그러나 현재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독서치료나 문학치료라는 이름 대신 '시치료'라고 부른다. 변학수, 『통합문학치료』, 학지사, 2006, 17쪽.

주가 그들에게는 감격적 귀향이었고, 그들이 기대한 것은 한민족의 정체성을 지켜온 것에 대한 치하와 포용일 것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사회로 이주하고 난 뒤에 그들이 지켜온 정체성이 여지없이 붕괴되고 만다. 그들이 소중하게 지녀온 정체성은 한국사회의 관심조차 받지 못했다. 한국사회의 관심은 이미 서구화와 신자유주의 경제관에 입각한 물질적 가치에 경도되어 있었다. 한국사회에서 그들은 ‘동일은 언어를 사용하는 가난한 중국인’일 뿐이었다. 한국사회의 정체성은 재한조선족의 정체성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그들이 한국사회에서 맞닥뜨린 혼란의 구조는 조선인의 19세기 말 중국으로 이주했던 시기에 겪었던 것과 본질적으로 같은 구조였다. 그러므로 재한조선족은 새로운 의미의 디아스포라 또는 ‘새로운 정체성’<sup>10)</sup>을 지니게 되었다.

이러한 혼란이 야기하는 충격, 갈등, 비애 등은 또 다른 트라우마가 되어 그들의 시에 형상화되어 있다. 재한조선족문인협회에서 출간한 동인지 『동포문학』<sup>11)</sup>에 게재된 시작품을 분석해 보면 이는 대체로 여섯 가지로 분석된다.

① 고향 또는 집의 상실, ② 귀환의 의미 상실, ③ 한국사회에서 겪는 문화적 갈등, ④ 한국사회의 차별과 냉대, ⑤ 가족 해체의 비애, 다섯째 조선족 공동체의 해체의 충격, ⑥ 고향 또는 가족들과의 격리에서 오는 고독 등이다. 이러한 트라우마의 양상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크게 두 가지 형태로 표출된다.

#### 첫째, 한국사회에 대한 증오심과 분노 등으로 나타난다.

한중수교 이주 초기 그들이 느꼈던 서러움이나 슬픔의 정서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점차 원망과 분노로 발전된다. 모국이 그들을 ‘타자’로 취급하는 것에 대한 강한 섭섭함은 애초 그들이 던졌던 “우리가 남인가?”가 하는 질문에서 심화되어 “우리가 남이다!”(김추월)라고 굳어졌다. 모국에 대한 그들의 ‘상상적 기대’가 싸늘하게 무시될수록 이는 더 강한 원망으로 바뀐다. 따라서 시작품에서도 한국은 ‘징그럽고 간교한 험잡꾼’(이문호), ‘황량한 도시’(김추월), ‘낯선 등지’(전하연)로 표상된다. 문제는 그들이 혼란과 갈등의 원인을 전적으로 한국사회의 탓으로 돌리게 된다. 한국사회가 자신들을 ‘타자화’<sup>12)</sup>시켰기 때문이다.<sup>13)</sup> 이는 애초에 그들이 디아스포라가 된 이유가 조선조의 열악한 상황 탓, 그리고 일제로부터 고향을 빼앗겼다는 ‘피해의식’ 등인 역사적 트라우마와도 연결된다.

#### 둘째,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혐오(자학)나 자학 등으로 나타난다.

이 경우 이들은 자신이 처한 비극적 상황이 중국에서만 아니라 모국으로까지 확장되는 것에 좌절한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적 소외와 극심한 고독의 고통으로 변한다. 따라서 시에서 스스로를, “슬픈 족속”(박동찬), “성도 이름도 없는 H2”(윤하섭), “짜사랑을 안고 가는 노숙

10) ‘새로운 정체성’이라는 의미는 중국사회에서 이민족과의 관계성 속에 형성된 개념이라면, 한국사회에서 동일민족과의 관계성 속에 형성된 것이라는 점이다.

11) 『동포문학』은 2012년에 창립한 재한조선족문인협회에서 발간하여 지금까지는 펴내고 있는 문학 동인지이다.

12) ‘타자화’는 대상의 이질적인 면만 부각시켜 스스로 공동체에서 소외시키고, 자신의 목소리를 잃게 만든다. 그리하여 타자화된 자신은 주체 또는 상황에 종속되기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 박종성, 『탈식민주의에 대한 성찰 - 푸코, 파농, 사이드, 바바, 스피박』, 살림, 2006, 29~35쪽.

13) 타자와 주체의 이분법이 본질적으로 허구이듯이,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도 각자가 지닌 인식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 물론 객관세계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별하여 ‘책임 문제’와 직결시킨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 이분법은 엄연히 존재한다. 물론 주관 세계에서는 모든 책임이나 고통은 결국 ‘인식의 이분법’에 의한 것이므로 그것은 허구이다 그러나 트라우마에서는 그것이 존재한다.

자”(이문호) 같은 자학적 형상으로 시화된다.

재한조선족과 한국사회와의 갈등이 심화될수록 그들이 종래에 지닌 조국과 모국에 대한 인식의 구조마저 변화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그들이 지닌 ‘피해의식’은 자신들의 삶을 더욱더 황폐화시켜 그들이 지닌 정신적 가치마저 와해시킬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변모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나아가 조선족 공동체를 와해시킬 가능성마저 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인간성마저 붕괴시켜 정신적 공황상태에 이르게 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앞에서도 언급했다.

재한조선족이 한국사회에서 정신적이고 사회적인 안정을 피하고, 한국사회와 친화적 공존관계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트라우마의 일시적인 해소나 위안만으로는 부족할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정체성의 혼란을 일시적으로 해소시키기보다는 본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삶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다. 그것은 바로 인식의 전환을 통해 트라우마 자체를 소멸시키는 방안이며, 시치료가 지향하는 목표이기도 하다.

### 3. 시치료의 원리와 이론

#### 1) 시치료의 원리

시치료에서 주목하는 것은, 시(詩)가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을 가장 이상적으로 포괄하는 예술의 한 형태라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시인은 자신의 정신적 장애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시를 쓴다. 이는 시쓰기가 자신의 정신적 장애 요소나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다는 무의식적인 소망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전제에 따라 재한조선족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해 본 연구가 이루어졌다. 물론 이 연구는 기존의 시치료 연구에서 출발한다.<sup>14)</sup>

아리스토텔레스의 ‘카타르시스 이론’ 이래로 시(문학)의 정신치료 효과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었다.<sup>15)</sup> 물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카타르시스(정화)는 비극을 통한 정화작용에 대한 개념이다. 더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공포와 연민의 감정을 무대 장면이나 분장 등의 기술에 의존한 것이라기보다는, 비극의 구성 그 자체에 의하여 정화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 뜻이 포함된다.<sup>16)</sup> 이 경우, 문학(문학적 구조)과 문학성은 정화시키기 위한 부수적 도구가 아니라, 정화를 일으키는 핵심이라는 의미이다.<sup>17)</sup>

시치료는 시를 텍스트로 삼아 읽고 쓰는 과정을 통해 심리적 치료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시치료의 시발은 정신치료의 일종으로 대체의학의 한 분야에 속했다. 정신분석에서는 한 개인

14) 기존의 연구에서 주로 언급되는 것이 프로이트의 이론, 융의 이론, 게슈탈트의 이론, 아들러 이론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프로이트-융-게슈탈트의 이론을 적절하게 차용하여 사용한다.

15) 국내에서 시치료 연구가 학문영역으로 정착된 것은 2000년대 초반부터이다. 그간 통합문학치료, 인문치료, 독서치료 등에서 시의 활용도가 높았다. 그러자 2002년에 발족되었던 ‘한국독서치료학회’가 2004년에 학회 산하에 시치료 분과를 만들었다. 이 분야에서 국내 첫 학위논문을 발표한 현윤이는 정신과 환자 대상으로 집단 시치료를 실행하여, 지지적 효과와 반응능력 개선 및 대인관계의 효과를 분석했다. 그 후 시치료 연구 분야는, 첫째 시치료학의 이론과 방법에 관한 탐구, 둘째 시치료 이론과 방법을 실제로 적용하여 치료의 효과를 연구하는 것으로 갈래가 나뉜다.

16) 아리스토텔레스, 천병희 역, 『시학』, 문예출판사, 1998, 47쪽.

17) 아리스토텔레스의 카타르시스가 단순한 배설, 또는 스트레스 해소와는 다르다. 만일 부적절하고 불필요한 감정을 배설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술이나 운동, 오락 같은 다른 수단으로 대체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화는 인식의 확장이나 전환을 내포하고 있다.

의 건강과 행복, 병리와 불행의 그 이면에는 우리 스스로가 의식할 수 없는 무의식적인 변수가 반드시 존재하며, 실제로 그것들의 영향력이 대단히 크다고 본다.

무의식의 이런 변수들이 우리의 정신과 신체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우리가 그것들을 인지하지 못한다고 해도, 그것들이 평소에도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때로는 신체의 병적 증상으로 존재의 힘을 과시한다. 물론 그러한 징후는 꿈으로도 나타나는데, 크리스퍼 코드웰은 시의 형태가 꿈의 작업들과<sup>18)</sup> 아주 유사하다는 점에서 시가 시인의 트라우마를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정신분석가들이 행하는 작업은 바로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자료들을 과학적인 관찰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고, 개인의 병리적인 증상들의 해결을 위해 그 무의식적 자료가 지니는 부정적 영향을 해소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프로이트는 19세기 말, 성악가를 꿈꾸는 로자리아 H가 어느 음역만 가면 소리를 내지 못하는 현상에 대해 연구하여 그가 지닌 문제를 해결했다.<sup>19)</sup> 이는 ‘무의식의 의식화’라는 정신분석적인 치료기법으로, 장애의 원인을 스스로 찾게 하여 장애를 치료했다.

이러한 정신분석적 심리치료 기법이 시치료에도 적용되었다. 그렇다면 시치료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무의식의 의식화가 가능할까?

시의 특성을 살펴보면, 시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사물과 개념에 대한 표상이지, 사실적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지 않다. 시는 의도적인 구조(이성적 구조)보다는 무의식적인 구조(정서적 구조)를 드러내는 속성을 지닌다. 이런 의미에서 브룩스(Cleanth Brooks)는, “시의 언어는 역설의 언어이다”라고 한 말을 상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시는 표면구조와 이면구조라는 모순적 구조를 함께 지니고 있으며, 시에서는 표면적으로 드러내는 의미보다는 그 이면에 숨기고 있는 무의식적인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을 끝없이 암시한다. 그러므로 시가 숨기고 있는 무의식적 내용이 바로 트라우마와 깊은 관계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시는 그 이면구조가 발견되기를 묵시적으로 바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시인은 그 이면구조를 드러내 보이는 존재이고, 독자는 그 이면구조를 파헤치는 존재라고 볼 수 있다. 물론 두 가지 중에 어느 역할을 해도 시치료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시는 시인과 독자의 트라우마를 함께 해소하거나 치유시킨다고 본다. 따라서 시치료는 독자에게 시가 포괄하고 있는 이 무의식의 부분을 찾아 자신의 트라우마와 연결시키게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프로이트는 무의식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수단으로 최면이나 자동기술법, 자유연상 등을 사용했다면, 융(Carl Jung)은 ‘적극적 상상’이라는 표현적 창조활동을 통해 무의식의 의식화를 시도했다. 이 ‘적극적 상상’은 무의식에 대한 자아의 창조적인 참여를 통해 무의식에 내재된 정서나 이미지를 의식적 차원으로 불러오는 분석심리의 치료기법을 말한다. 융은 이 적극적 상상을 통해 의식과 무의식을 서로 연결함으로써 ‘개인적 무의식’과 ‘집단적 무의식’이라는 두 차원을 포괄하게 했다. 그러므로 시인(독자)이 지닌 만성적이고 부정적 심리나 고통스러운 경험과 기억, 그리고 인류 보편적으로 내재된 무의식적 자료들을 의식화하여, 그 내용과 의미를 독자(참여자) 스스로 발견하게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그는 적극적 상상을 통한 창

18) 최유찬 옮김, 크리스토퍼 코드웰, 「시와 꿈의 작업」, 『리얼리즘과 문학』, 지문사, 1985, 248-271쪽.  
19) H는 타고난 재능을 지니고 있지만 어느 음역대에만 이르면 후두부가 세계 조이는 듯한 느낌을 받아 불안정한 발성을 했다. 프로이트는 최면을 통해 H의 발성장애가 불행한 어린시절과 연관이 있음을 밝혀냈다. 그는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숙모집에 맡겨졌는데 숙부는 가혹할 만큼 부인과 아이들을 구박하고 학대했다. 어린 H는 늘 참고 견뎌야 했으며, 숙부에 대한 강한 증오와 경멸감을 표출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 그는 또다른 숙모의 집에서 생활했는데 그 숙모는 H의 예술적 재능에 대해 늘 시기하고 질투했다. 그래서 그는 노래 연습을 하다가도 숙모의 인기척만 나도 노래를 그쳐야 했다. 다행히 H는 자신의 그 트라우마의 내용을 알게 되자 장애없이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 이재원 옮김, 『히스테리 연구』, 사랑의학교, 1995, 165쪽.

조행위와 분석의 과정이 궁극적으로는 개인이 지닌 트라우마를 치료하여 내적 인격의 통합인 개성화(Individuation)<sup>20)</sup>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융은 시인이 시를 쓰는 순간 자신이 의식하지 않는다고 해도 집단 무의식의 원형으로 다가 가고, 어느새 자신의 무의식을 드러내게 된다고 했다.<sup>21)</sup> 다시 말하면 시적 자아는 시읽기(시쓰기)를 통해 일상화된 언어를 넘어서 자신의 무의식에 존재하는 트라우마를 어떤 문제적 정서로 표상하게 된다.<sup>22)</sup> 이는 시치료에서 시읽기(시쓰기)를 통해 무의식에 내재된 자신들의 트라우마를 의식화하게 하여, 그것이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발견함으로써 치유의 목적에 이르게 하는 것과 같다.<sup>23)</sup>

물론 이러한 과정으로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지만, 본 시치료에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은, 한걸음 더 나아가 자신이 집착하고 있는 내적 상황의 왜곡된 실상인 트라우마를 다른 차원에서 바라보게 되는 ‘인식의 전환’으로 나아가게 하자는 것이다.

## 2) 시치료의 이론

니콜라스 마자(Nicholas Mazza)는 시치료의 네 가지 단계를, ①지지, ②통각, ③행동, ④통합으로 구성했다.<sup>24)</sup> ‘지지단계’는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을 대면하게 하는 것이고, ‘통각단계’는 과거 경험의 도움으로 새로운 지각대상을 이해하게 하는 것이며, ‘행동단계’는 자신을 힘들게 하는 트라우마를 지각할 경우, 그것을 극복하려는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고, 마지막인 ‘통합단계’는 이전 단계에서 인지한 전반적인 상황을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긍정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정했다.

이를 심화시키기 위해 니콜라스 마자는 실제 모델로서 다음 세 가지 방법을 제안했다.

### 첫째, 수용적·처방적 방법이다.

이는 시치료에서 사용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치료자는 참여자에게 특정한 시를 처방한다. 치료자에게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시를 치료자가 선정하여 읽어주고, 참여자로 하여금 자신과의 연관성을 밝히게 함으로써 반응을 이끌어내게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치료자는 의도적으로 참여자의 감정이나 자신의 트라우마를 밝혀낼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시를 선정하느냐가 매우 중요하고, 참여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시의 기능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득시켜야 한다.

### 둘째, 표현적·창조적 방법이다.

이는 시쓰기를 치료기법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해당된다. 여기에서는 일기, 편지, 에세이 등

20) ‘개성화’는 인간의 무의식에 존재하는 것으로 어떤 사람이 자신을 자신으로 서게 하는, 의식의 근원적 가능성을 자아가 받아들여 실천에 옮기는 능동적 행위를 뜻한다. 이것은 성숙한 인간이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인 동시에 분석심리학의 치료적 목표가 된다.

21) 물론 융은 글쓰기뿐만 아니라 그림 그리기, 만다라, 색칠하기, 조각하기, 음악, 춤 등의 다양한 형태의 표현적 매체가 심리치료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이러한 창조적 과정을 통한 생산물이 참여자의 병리에 대한 진단뿐만 아니라 치료적 수단으로도 기능하게 쓰였다고 했다. 변학수, 『문학치료』, 학지사, 2005, 56쪽. 참조.

22) 문학을 분석치료에 이용할 경우 참여자는 일반적 치료에서보다 훨씬 쉽게 상처에 가까이 갈 수 있다. 그 이유는 그런 테마들이 (불안, 강박, 반복충동, 히스테리, 우울, 가학증 등) 참여자의 상황과 매우 유사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일이 아니므로 부담감 없이 연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게 된다. 변학수, 앞의 책, 23-34쪽. 참조.

23) C.G 융, 번역위원회 공역, 『정신요법의 기본문제』, 솔, 2001, 110쪽, 참조.

24) 권성훈, 『시치료의 이론과 실제』, 시그마프레스, 2011, 10쪽, 참조.

다양한 쓰기가 모두 가능하다.

**셋째, 상징적·의식적 방법이다.**

이는 은유, 의식(儀式), 이야기하기 등이 사용될 수 있다. ‘은유’는 속담이나 사례를 이용하여 치료 효과를 얻는 방법 등을 뜻한다. 의식은 상징성이 되는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이고, 이야기하기는 참여자 스스로 자기서사를 이야기하게 하는 방법이다.

#### 4. 시치료의 방법 설계

기존의 시치료 이론에서 말하는 시와 의식, 무의식과의 관계를 다음 4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시는 의식과 무의식에 잠재된 트라우마를 표상하다.**

**둘째, 시는 시인(독자)이 지닌 트라우마가 형상화된 것이다.**

**셋째, 독자는 무의식적으로 자신과 유사한 트라우마가 표상된 시를 선호한다.**

**넷째, 시쓰기(시읽기)는 (시인과 독자의) 트라우마를 치유해준다.**

이를 바탕으로 시치료의 방법을 5 가지 단계로 설계했다.

**1단계, 시치료의 효과에 대한 설득단계이다.**

이는 니콜라스 마자의 ‘지지 단계’와도 유사하다. 참여자에게 시치료에 대한 믿음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시와 심리학과 연관성, 시가 무의식의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는 것을, 시의 정의를 통해 ‘시의 힘’을 실감시켜야 한다. 나아가 시가 지닌 트라우마의 치료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설득시켜야 한다. 물론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트라우마가 자신의 삶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시켜야 한다. 또한 트라우마가 쉽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트라우마의 해소를 위해 반드시 찾아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다.

**2단계, 시 또는 주요 이미지의 선택 단계이다.**

이 단계는 니콜라이 마자가 말하는 ‘통각 단계’와 유사하다. 이를 위해 참여자에게 한국의 유명한 서정시와 『동포문학』에 게재된 재한조선족 시인의 시를 단계별로<sup>25)</sup> 선정해 나누어주고, 각 유형마다 각자 감명 깊은 시 4편 정도 고르게 한다. 이때 사용되는 시는 시의 미학적 완성도나 문학적 가치와는 크게 연관성이 없다. 심오하고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문학적인 묘미를 지닌 시들이 덜 효과적일 수도 있다. 치료적인 시는 참여자의 수준에 맞춰 그들이 쉽게 동일성을 인지할 수 있는, 참여자가 어렵지 않게 경험할 수 있는 정서가 담긴 것이 적절하다. 이는 참여자의 내적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요소가 담긴 시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시를 선택하는 것은 참여자의 트라우마를 발견하게 하는 준비단계에 해당된다. 이 단계의 후반부에 시치료자는 적절한 질문 즉 “그 시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의미 있는 이미지는 어떤 것입니까?”, “시를 통해 문득 생각나는 당신의 자기서사가 있습니까?” 등

25) 재한조선족 시인들이 형상화한 사 중에 트라우마의 네 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① 한국사회에 대한 증오심과 분노 등으로 형상화된 시, ② 슬픔과 소외의 고통으로 표상된 시, ③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혐오(자학)나 자기비하 등으로 형상화된 시, ④ 고향(가족)에 대한 극심한 그리움과 고독감 등으로 형상화된 시가 이에 해당된다.



을 물어 참여자들 반응을, 속마음을 끄집어내야 하다.

### 3단계, 트라우마의 발견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참여자 자신이 선호하는 시를 소리내어 읽게 하거나, 그 중 1편 이상을 외게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마음에 떠오른 정서를 발표하게 하다. 이는 니콜라이 마자의 '행동 단계'와도 연관이 있다. 이를 통해, 자신들의 트라우마를 스스로, 구체적으로 발견하게 하면 바람직하다. 물론 이 방법을 효과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 정서적인 동요나 가곡을 부르게 하여 억압된 마음을 여는 것도 병행할 수 있다.

### 4단계, 트라우마 또는 자기서사의 실감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참여자에게 시쓰기를 유도한다. 자신의 트라우마를 실감시키기 위해, 적절한 시를 선택하고, 참여자에게 기준시를 정해 그에 대한 '모방시쓰기'(때로는 창작시 쓰기)를 하게 한다. 참여자들이 시를 써본 경험이 없다면, 이 모방시쓰기에 참여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sup>26)</sup> 이 경우에 강조할 것은, 시는 잘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서를 진솔하게 잘 표현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 5단계,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는 열쇠찾기 단계이다.

이는 니콜라스 마자의 '통합 단계'에 준하다. 그러나 본 시치료에서 바라는 궁극적 목표는 인식의 전환이기 때문에 찾은 열쇠로 트라우마로 닫힌 문을 열고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게 해야 한다. 물론 시치료 몇 번으로 이를 이루어내는 것은 아주 힘들 것이다. 그러나 참여자에게 열쇠를 찾아 인식을 전환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반복해서 인지시킵니다. 비록 이 단계가 성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열쇠 찾기의 필요성과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으로도 충분히 성과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열쇠를 통해 스스로 트라우마의 문을 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단계에서는 그 열쇠로 트라우마를 해소한 다양한 사례를 들려주어 참여자가 자발적으로 실천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sup>27)</sup>

## 5. 나가는 말

본 연구는 재한조선족이 지니는 트라우마를 시치료라는 방법을 통해 치유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이를 위해 재한 조선족이 한국사회에서 겪은 좌절과 혼란으로 비롯된 트라우마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에 대해 분석했다. 그들이 지닌 트라우마는 그들의 정신에 내재되어 있다가 어떤 경로에 의해 왜곡된 상태로 표출된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연구되었다. 그 트라우마는 그들에게도, 그들이 소속된 한국사회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를 치유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5 가지 단계의 시치료 방법을 설계했다.

26) 모방시 쓰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시의 형태'를 모방하기, 둘째, '시의 주제'를 모방하기, 두 가지 모두 주어진 시를 통해 상상력을 동원하게 한다.

27) 이를테면, '은유'를 사용하여 참여자에게 '새옹지마' 이야기의 본뜻을 이해시켜 지금의 고통과 괴로움이 자식 삶의 전부라는 좁은 인식에서 헤어나올 수 있게 자신의 인식적 자원을 바꾸게 할 수 있다. 또는 '의식(儀式)'의 방법을 사용하여 자신을 배신하고 떠나버린 애인을 잊지 못해 실의에 빠진 사람으로 하여금 떠나버린 연인에게 꼭 하고 싶은 말 한마디를 종이에 쓰게 하고 그 종이를 찢어버리는 의식을 통해 사랑의 종말을 실제 행동으로 전환하여, 실연의 실의에서 벗어나 새 출발을 하도록 하는 방법 등도 있다. 본 연구자는 특히 '이야기하기' 효과성을 더 주목한다. '이야기하기'는 문체적 자기서사를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치료적 효과를 지닌다. 트라우마를 말해 버림으로써 참여자는 자신의 의식에 있던 응어리를 밖으로 드러내어 내뱉어 버리는 효과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는 종교의 고해성사와 같은 맥락에 놓인다.

오늘날 많은 한국인 연구자들이 한국사회를 향해, 재한조선족이 한국사회에서 겪는 편견이나 냉대 등을 분석하여 한국사회를 향해 반성을 촉구했다. 물론 그런 연구의 밑바닥에는 약자에 해당되는 재한조선족에 대한 연민이 도사리고 있다. 그러나 강약의 논리를 떠나, 그리고 한국사회만이 아니라 재한조선족이 지닌 문제점도 분석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한조선족도 그들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진지하게 수궁해야 한다. 그것은 재한조선족이 중국에서부터 지니고 있던 ‘타자의 타자성’이다. 삶의 고통은 언제나 ‘주체의 주체성’의 차원으로 받아들일면서 그 문제의 본질과 만나면 언제나 ‘타자의 타자성’ 뒤로 숨어왔다. 그러니깐 재한조선족은 자신을 약자인 타자의 위치에 두고, 모든 책임을 한국사회 또는 외부에다 두는, 그들을 강자인 주체로 보는 태도를 은연중에 지니고 있었다. 물론 이러한 속성은 어떤 인간이라도 다 지니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타자의 타자성에서 주체의 주체성으로, 트라우마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될 수만 있다면, 그것은 분명하게 지적되어야 한다. 불행한 경우를 당하면, 그것을 상대에게 두는 습성은 타자의 타자성을 마치 자신의 본질처럼 여기는 인식에서 기인한다. 그러므로 모든 논의는 ‘필요에 따라’ 또는 ‘조건에 따라’ 이 모두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재한조선족이 지닌 문제점 또는 트라우마는 타자의 타자성에 기인한다. 그러므로 시치료는 주체의 주체성을 찾게 해야 한다. 이는 재한조선족만이 아니라 트라우마를 지닌 약자나 피해자 모두가 공유하는 현상이다. 주체의 주체성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은 항상 상황에 종속되고 억압되는 타자의 위치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재한 조선족이 지니는 문제적 저기서사 또는 트라우마의 형성을 분석하고,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재한조선족의 경우에 한정시켰다. 이를 위해 시치료의 효과를 언급하고, 그들이 문제적 상황에서 지니는 트라우마를 분석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설계하고자 했다.

본 논문에서 설정한 시치료의 목적의 밑바닥에는 재한조선족이 본질적으로 주체의 위치로 자신들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데에 있다. 시치료의 과정에는 그러한 숨은 설계된 5 단계의 방법에 내재되어 있다. 그것은 이 모두를 주체적으로 받아들이는 ‘스스로’라는 부사로 표현될 수 있다. 그들이 시치료를 ‘스스로’(주체가 되어) 받아들이고, 자신의 정서에 맞는 시를 ‘스스로’(주체가 되어) 선택하고, 그 연관성을 ‘스스로’(주체가 되어) 찾아내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트라우마의 윤곽을 ‘스스로’(주체가 되어) 발견하고, 이를 시쓰기(모방시)를 통해 ‘스스로’(주체가 되어) 실감하여, 마침내 자신의 트라우마를 푸는 열쇠를 ‘스스로’(주체가 되어) 찾게 하고자 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참여자는 자신의 트라우마를 ‘스스로’(주체가 되어) 찾아 비로소 ‘주체적 존재’가 된다.

이미 재한조선족 시인들에 의해 그러한 기운이 싹트고 있다는 점이 놀라울 따름이다. 이런 ‘주체되기’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기 이전에 이미 재한조선족 시인의 시에서 이러한 대응이 시도된 바가 있다.<sup>28)</sup> 이러한 시도는 인식의 전환에 의해 실천되기 때문에 모든 재한조선족에게 실현 가능성에 대한 큰 희망을 갖게 하다. 그러므로 재한조선족은 한국사회의 제도적, 인식적 변화만을 기다리는 존재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포용하고 진정하게 이해해 주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본 논문이 설계하는 시치료가 일익을 담당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그들 개개인이 주체적 존재로 바로 서서 자신과 한국사회와 조화로운 공존을 이룰 것이다.

28) 전은주, 「재한조선족 디아스포라 정체성의 위기와 자아성찰」, 『통일인문학』 72,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7.

## 참고문헌

### 단행본

- 『동포문학』 1호 -13호, 재한동포문인협회, 2013-2022.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코리언의 민족정체성』 선인, 2012.  
권성훈, 『시치료의 이론과 실제』, 시그마프레스, 2011.  
변학수, 『통합문학치료』, 학지사, 2006.  
C.G 용, 이부영 역, 『인간과 무의식의 상징』, 집문당, 1984.  
Nicholas Mazza, 김현희 외 공역, 『시치료 이론과 실제』, 학지사, 2005.\

### 논문

- 김근희, 『시치료 방법을 활용한 성장시 교수·학습 방안 연구』,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김종주, 「우울한 사회에서의 시치료」, 『한국독서치료학회 학술대회지』 7, 한국독서치료학회, 2009.  
김현옥, 『문학의 기능과 문학치료-문학적 글쓰기를 통한 통합의 과정』,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박민철, 「국내 이주 코리언 디아스포라의 정체성 변용과 가치 지향: 한국(인)과의 가치충돌양상을 중심으로」, 『디아스포라연구』 제8집 2권,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2014.  
박선아·이명우, 「시치료프로그램이 중년기 여성의 우울 감소에 미치는 영향」, 『임상사회사업연구』 13-1, 한국임상사회사업학회, 2016.  
박재인 외, 「탈북 트라우마에 대한 인문학적 치유 방안의 가능성- 구술치유 방법론을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29-2, 평화문제연구소, 2017.  
서경숙, 「분석심리에 기초한 시치료와 시의 치유적 속성」, 『독서치료연구』 4-1, 한국독서치료학회, 2011.  
송진희, 『문학치료와 적극적 상상』,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전미정, 「치료의 수사학: 시치료 사례를 살펴 본 비유의 세가지 치료 메커니즘」, 『문학치료연구』 21, 한국문학치료학회, 2011.  
전은주, 「재한 조선족 디아스포라 정체성의 위기와 자아성찰」, 『통일인문학』 72,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7.  
 , 『한중수교 이후 재한 조선족 디아스포라 시문학에 나타난 정체성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 「재한조선족 디아스포라의 '집 찾기」, 『비교한국학』 25-3, 국제비교한국학회, 2017.  
 , 「재한조선족 문학의 대립동 재현양상」, 『현대문학의 연구』 75, 한국문학연구학회, 2021.  
최소영, 『시치료가 정서지능 향상에 미치는 효과성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이미지를 활용한 시치료의 이론과 실제」, 『한국독서치료학회 학술대회지』 5, 한국한국독서치료학회, 2007.  
 , 「집단 시치료가 만성정신분열증 환우의 정서관리에 미치는 효과」, 『정서·행동장애연구』 26-3, 한국정서·행동장애아교육학회, 2010.

## “재한조선족을 위한 시 치료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방법 설계를 위한 試論”에 대한 토론문

이미옥

전은주 선생님의 발표문 잘 들었습니다. 논문 테마가 「재한조선족을 위한 시 치료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방법 설계를 위한 試論」인데, 사회 문제를 문학적 치유를 통해 승화시키고 실천적 대안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한 편의 학술논문으로 다루기에는 주제가 커서 그것과 관련된 질문으로 토론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p.3에서 “최근 들어 탈북민, 결혼 이주여성 등에 대해서는 여러 방면에서 인문학적 접근의 치유 방안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특히 탈북민 대상으로는 통일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및 민간 차원에서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재한조선족 대상 치유 프로그램은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라고 언급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것은 왜 재한 조선족 집단 전체를 시 치료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당위성에도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가 탈북민, 결혼 이주여성 등은 불가항력적 상처를 지닌 사회적 약자로 취급하는 데 비해 조선족은 그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3장과 연결된, “재한 조선족의 역사적 트라우마의 양상” 이 부분에 대한 서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조선족의 “경계인 정체성 혼란”을 트라우마라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트라우마는 즉 정신적 외상은 “충격적이고 두려운 사건을 겪거나 당하는 것” 즉 자발적인 선택이 아닌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겪는 심리적 충격을 스스로도 극복하지 못하는 것(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식민이나 분단과 같은 역사적 사건은 의심할 여지없이 “트라우마”라고 볼 수 있겠지요. 조선족은 강제가 아닌, 자발적인 선택으로 코리안 꿈을 갖고 와서 한국에서 정착하거나 일을 하는 과정에서 문화 충격, 정체성 혼란 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건의 문제라기보다는 시선의 문제, 인식의 문제입니다. 선생님도 p.6에 보면 “한국사회의 관심 받지 못함”, “가난한 중국인의 시선”으로 보는 것 등과 같은 “시선의 차별”을 주로 트라우마의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인식 주체가 어떻게 받아 들이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될 수도 있고 극복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집단 전체를 “트라우마”라고 확정 짓기보다는 그 안에서도 다양한 집단(예컨대 재한 조선족이라 해도 한국에 입국한 나이에 따라 또 한국에 체류한 시간에 따라, 본인들이 갖고 있는 한국에 대한 인식과 체험에 따라 매우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차별의 시선을 어떤 “트라우마”로 받아들이는 지, 그 다양한 양상과 강도에 대한 좀 더 사회학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 논문이 지향하는 것이 결국 치유 즉 치료의 문제이고, 개개인의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심리 치료는 대상자의 상황과 체험, 인식에 따라서 다르게 접근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치료 방법의 적합성 등이 엄밀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또 다른 분야이기 때문인데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시 치료” 보다는 “시 창작을 통한 자아인식 개선”으로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사건에 가까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종합토론 및 정기 총회

시간	일정 및 발표주제	사회
17:30-18:00	[종합토론]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외국어대학 305호	정래필 (영남대)
18:00-18:20	폐회식 및 2022년 정기총회 (장소 동일)	김형규 (아주대)

